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김계연 송치호 오지현 이서현 신재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머리말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시작한 1988년 이래 횡수로 여섯 번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후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진 1999년 이래 네 번째이며, 기존에 5년에서 3년으로 계측주기가 단축된 이래 두 번째이다. 이처럼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를 대변하듯이 숨가쁘게 변화해 왔으며, 본 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상과 제도의 탈바꿈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보장선’이 아니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제도의 실질적인 선정과 급여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 왔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외환위기가 극복된 시점에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실업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빈곤의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야 할 주요 사회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외환위기의 결과로 인한 급증하는 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보편적인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저생계비는 이제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 기준선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실질적인 지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실질적인 지표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

면 의미인가? 그것은 우선, 현금이든 현물이든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될 때 최저생계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최저선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 그 자체가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계측되고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복지제도와 최저생계비는 쌍방적인 위상 정립과 관계성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각자 최선의 위치에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저생계비는 관련 정부기관,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정책적·학문적 함의 등에 대해 각계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각계의 충실과 비판과 조언을 경청할 것이며 아울러 차후의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삼을 것이다.

본 연구는 김미곤 연구위원과 여유진 부연구위원의 공동 책임 하에 원내 손창균, 김태완, 최현수 부연구위원, 김계연 선임연구원, 송치호, 오지현, 신재동, 이서현 연구원과 원외 이선우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8회에 걸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손병돈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각계의 빈곤 전문가이신 전문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본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노대명 연구위원, 윤상용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연구과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보건복지부의 권병기 기초생활보장과장과 한영규 사무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정리를 해주신 정희라 선생과 조사에 협조해 주신 주민 및 조사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	1
요 약 .....	3
제1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기본방향 .....	11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5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18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	20
제1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	20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	25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34
제1절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34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76
제2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	93
제4장 2010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	95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	95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	100
제3절 표준가구 선정 .....	102
제4절 지역 구분 .....	108

<b>제5장 2010년 비목별 최저생계비</b> .....	125
제1절 최저 식료품비 .....	125
제2절 최저 주거비 .....	134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	152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161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	170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	178
제7절 최저 교육비 .....	195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	204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	212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	224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	231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	238
 <b>제6장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b> .....	242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	242
제2절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263
 <b>제7장 2010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b> .....	265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	265
제2절 노인 추가비용 .....	312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	333
 <b>제8장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b> .....	347
제1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	347
제2절 추정모형별 2011년 최저생계비 .....	352

제3부 상대적 방식 및 기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	361
제9장 2010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	361
제1절 상대적 방식의 의의 및 빈곤선 측정방법 .....	361
제2절 상대적 비율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	365
제3절 기준지표 및 상대적 비율 .....	366
제4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376
제10장 2010년 기타 방식 최저생계비 .....	377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377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382
제4부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	389
제11장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및 결과 .....	391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관한 논의 결과 .....	391
제2절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 결과 .....	402
제3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 결과 .....	426
제4절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논의 결과 .....	428
제5절 기타 논의 사항 및 결과 .....	430
제12장 2010년 및 2011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	435
제1절 2010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	435
제2절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	437

제5부 최저생계비의 활용 및 정책건의 .....	441
제13장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	443
제1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	443
제2절 최저생계비의 활용방안 .....	445
제14장 결론 및 정책건의 .....	453
제1절 결론 .....	453
제2절 정책건의 .....	460
참고문헌 .....	463
부    록 .....	471

## 표 목차

〈표 2-1- 1〉 빈곤의 대안적 정의 .....	21
〈표 3-1- 1〉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의 비교 .....	35
〈표 3-1- 2〉 미국의 2009년 빈곤기준선(PT) .....	37
〈표 3-1- 3〉 미국의 연도별 4인 가구 평균 빈곤기준선(PT) .....	38
〈표 3-1- 4〉 미국의 2009년 빈곤지침선(PG) .....	38
〈표 3-1- 5〉 미국의 연도별 빈곤지침선(PG) .....	39
〈표 3-1- 6〉 빈곤기준선(PT) 이하의 인구 및 빈곤율 .....	40
〈표 3-1- 7〉 McClements 균등화지수와 OECD 균등화지수 비교 .....	43
〈표 3-1- 8〉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2008/09) .....	44
〈표 3-1- 9〉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2007) .....	45
〈표 3-1-10〉 연도별 소득보조 선정기준 .....	48
〈표 3-1-11〉 가구유형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2008/09) .....	48
〈표 3-1-12〉 캐나다의 LICOs(2009년 과세후 소득 기준) .....	52
〈표 3-1-13〉 캐나다의 LIMs(4인 가구 기준) .....	52
〈표 3-1-14〉 캐나다의 2007년 MBM 빈곤선(성인 2인과 아동 2인 기준, 2008년 base) ..	53
〈표 3-1-15〉 캐나다의 2007년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 ...	54
〈표 3-1-16〉 캐나다의 2007년 빈곤의 심도(Depth of Low income) ...	54
〈표 3-1-17〉 총 복지소득의 구성 프로그램별 소득유형 .....	55
〈표 3-1-18〉 2007년 가구구성별 각 주의 복지급여수준 .....	56
〈표 3-1-19〉 2007년 총복지소득, 빈곤선, 중위소득 간의 관계 .....	57
〈표 3-1-20〉 호주의 빈곤선(2010년 3월분기) .....	60
〈표 3-1-21〉 호주의 핸더슨 빈곤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빈곤선 비교 ....	61
〈표 3-1-22〉 호주의 2000년 빈곤율 .....	62
〈표 3-1-23〉 호주의 주요 소득지원 급여와 수당 .....	63
〈표 3-1-24〉 호주의 최대급여를 받는 가구의 급여와 빈곤선 비교(2010년 3월분기) ...	64

〈표 3-1-25〉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가산급여와 대상자 .....	67
〈표 3-1-26〉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제1류(2009년, 1급지-1. 월액) .....	71
〈표 3-1-27〉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제2류(2009년) .....	72
〈표 3-1-28〉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09년, 월액) .....	73
〈표 3-1-29〉	일본의 생활부조기준액 추이(1급지, 표준세대, 각년도 4월 기준 월액) ·	74
〈표 3-1-30〉	일본의 빈곤율 추이 .....	75
〈표 3-2-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	77
〈표 3-2-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	81
〈표 3-2-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	82
〈표 3-2- 4〉	2007년 지역별 · 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	83
〈표 3-2- 5〉	2007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	83
〈표 3-2- 6〉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	85
〈표 3-2- 7〉	201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계측결과 ...	86
〈표 3-2- 8〉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	87
〈표 3-2- 9〉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	88
〈표 3-2-10〉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	89
〈표 3-2-11〉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	89
〈표 3-2-12〉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	90
〈표 4-3- 1〉	최빈 및 평균 가구규모 .....	103
〈표 4-3- 2〉	가구규모별 가구 비율 .....	103
〈표 4-3- 3〉	가구형태별 가구 비율(1인가구 제외) .....	104
〈표 4-3- 4〉	평균 초혼연령 .....	105
〈표 4-3- 5〉	첫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초혼연령 .....	105
〈표 4-3- 6〉	2010년 표준가구(연구진안) .....	105
〈표 4-3- 7〉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	106
〈표 4-3- 8〉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 .....	108
〈표 4-4- 1〉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1): 기술통계 .....	116

〈표 4-4- 2〉 기준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2): 분산분석표 .....	117
〈표 4-4- 3〉 기준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자가) ..	118
〈표 4-4- 4〉 기준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전세) ..	119
〈표 4-4- 5〉 기준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월세) ..	120
〈표 4-4- 6〉 기준 3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	121
〈표 4-4- 7〉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	122
〈표 4-4- 8〉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	122
〈표 4-4- 9〉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	123
〈표 4-4-10〉 서울·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	124
〈표 5-1- 1〉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	132
〈표 5-1- 2〉 타 연구의 최저 식료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133
〈표 5-2- 1〉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	136
〈표 5-2- 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	137
〈표 5-2- 3〉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	138
〈표 5-2- 4〉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	139
〈표 5-2- 5〉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	140
〈표 5-2- 6〉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	140
〈표 5-2- 7〉 한국노총의 2010년 주거비 .....	141
〈표 5-2- 8〉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	141
〈표 5-2- 9〉 민주노총의 2010년 주거비 .....	142
〈표 5-2-10〉 가구구성별 용도별 방의 개수 및 최소 주거면적 .....	143
〈표 5-2-1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별 주택유형 .....	144
〈표 5-2-12〉 주거점유형태별·지역별 주택유형(4인 가구 기준) .....	145
〈표 5-2-13〉 전용면적 11.2평(37㎡)의 전세 및 월세 가격(2010년 1월 기준) ...	146
〈표 5-2-14〉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전세 기준: 연구진안) .....	148
〈표 5-2-15〉 월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 .....	148
〈표 5-2-16〉 2007년과 2010년의 최저 주거비 산정기준 변경 .....	149

〈표 5-2-17〉	타 연구의 최저 주거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150
〈표 5-3-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존 연구의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	154
〈표 5-3- 2〉	지역별 난방 및 취사 연료 사용비율 .....	155
〈표 5-3- 3〉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 .....	159
〈표 5-3- 4〉	타 연구의 최저 광열·수도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160
〈표 5-4- 1〉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	165
〈표 5-4- 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추가품목 .....	165
〈표 5-4- 3〉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	166
〈표 5-4- 4〉	타 연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168
〈표 5-5- 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연구진안) .....	174
〈표 5-5- 2〉	최저 피복·신발비 추가품목 .....	174
〈표 5-5- 3〉	최저 피복·신발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	174
〈표 5-5- 4〉	타 연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176
〈표 5-6- 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함수 분석결과 ..	187
〈표 5-6- 2〉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약품비(종속변수) 분석결과 .....	188
〈표 5-6- 3〉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미충족욕구(종속변수) 분석결과 ..	188
〈표 5-6- 4〉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료서비스, 의약품비, 미충족욕구 ...	189
〈표 5-6- 5〉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	190
〈표 5-6- 6〉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한 표준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2009년) ...	191
〈표 5-6- 7〉	의료급여통계를 이용한 표준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2009년) ...	191
〈표 5-6- 8〉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월평균 보건의료비 .....	192
〈표 5-6- 9〉	타 연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193
〈표 5-7- 1〉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	200
〈표 5-7- 2〉	최저 교육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	201
〈표 5-7- 3〉	타 연구의 최저 교육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202
〈표 5-8- 1〉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	208
〈표 5-8- 2〉	최저 교양오락비 추가 품목 .....	208



〈표 5-8- 3〉	최저 교양오락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	209
〈표 5-8- 4〉	타 연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210
〈표 5-9- 1〉	시내전화,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	216
〈표 5-9- 2〉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연구진안) .....	219
〈표 5-9- 3〉	최저 교통·통신 추가품목 .....	220
〈표 5-9- 4〉	휴대전화요금의 반영수준 .....	220
〈표 5-9- 5〉	최저 교통·통신 제외품목 .....	221
〈표 5-9- 6〉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	221
〈표 5-9- 7〉	타 연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	223
〈표 5-10-1〉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	227
〈표 5-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내구연수·사용량·가격 조정 품목 .....	228
〈표 5-10-3〉	타 연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	230
〈표 5-11-1〉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연구진안) .....	235
〈표 5-11-2〉	타 연구의 최저 비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	236
〈표 5-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	239
〈표 5-12-2〉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의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	239
〈표 6-1- 1〉	모수의 추정치 .....	250
〈표 6-1- 2〉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 .....	250
〈표 6-1- 3〉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지수 추정 결과 종합 .....	251
〈표 6-1- 4〉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	252
〈표 6-1- 5〉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결과 .....	253
〈표 6-1- 6〉	2007년 및 2008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	253
〈표 6-1- 7〉	추정모형 I(1988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	256
〈표 6-1- 8〉	추정모형 I(1988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	256
〈표 6-1- 9〉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 하위40%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	257
〈표 6-1-10〉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 하위40%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	257
〈표 6-1-11〉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	258

〈표 6-1-12〉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	259
〈표 6-1-13〉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 하위40%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	259
〈표 6-1-14〉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 하위40%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	260
〈표 6-1-15〉 가구균등화지수 비교(월세 포함 모형) .....	262
〈표 6-1-16〉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263
〈표 6-2- 1〉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	264
〈표 6-2- 2〉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OECD 기준 균등화지수 적용안)	264
〈표 7-1- 1〉 장애인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	266
〈표 7-1- 2〉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	267
〈표 7-1- 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	267
〈표 7-1- 4〉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형별 연소득 .....	268
〈표 7-1- 5〉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부채 .....	269
〈표 7-1- 6〉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재산 .....	270
〈표 7-1- 7〉 최저생계비 항목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교 ..	272
〈표 7-1- 8〉 장애유무와 주거 유형 .....	273
〈표 7-1- 9〉 장애유무와 주거 점유형태 .....	274
〈표 7-1-10〉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방수, 건평, 주택가격, 월세액 .....	275
〈표 7-1-11〉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보유현황 .....	275
〈표 7-1-12〉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필요유무 .....	276
〈표 7-1-13〉 장애유무와 청소기 보유현황 .....	276
〈표 7-1-14〉 장애유무와 청소기 필요유무 .....	277
〈표 7-1-15〉 장애유무와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보유현황 .....	277
〈표 7-1-16〉 장애유무와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필요유무 .....	278
〈표 7-1-17〉 장애유무와 가습기 보유현황 .....	278
〈표 7-1-18〉 장애유무와 가습기 필요유무 .....	279
〈표 7-1-19〉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보유현황 .....	279
〈표 7-1-20〉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필요유무 .....	280

〈표 7-1-21〉 장애유무와 휴대폰 보유현황 .....	280
〈표 7-1-22〉 장애유무와 휴대폰 필요유무 .....	281
〈표 7-1-2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	282
〈표 7-1-24〉 기초조사와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생활비 비교 ....	288
〈표 7-1-25〉 장애인가구의 장애범주별 분포 .....	289
〈표 7-1-26〉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소득 50% 이하 가구) .....	291
〈표 7-1-27〉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	293
〈표 7-1-28〉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	294
〈표 7-1-29〉 장애범주별 외출 어려움 정도 .....	295
〈표 7-1-30〉 장애범주별 평균 교통비 .....	296
〈표 7-1-31〉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	297
〈표 7-1-32〉 장애유형별 평균 의료비 .....	297
〈표 7-1-33〉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 .....	298
〈표 7-1-34〉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	299
〈표 7-1-35〉 보호간병비에 따른 장애유형 .....	299
〈표 7-1-36〉 장애유형별 평균 보장구비 .....	300
〈표 7-1-37〉 보장구 욕구별 평균 보장구비 .....	300
〈표 7-1-38〉 장애유형별 평균 재활기관이용료 .....	301
〈표 7-1-39〉 재활기관이용 욕구별 평균 이용료 .....	301
〈표 7-1-40〉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	301
〈표 7-1-41〉 장애범주별 휴대폰비 평균 .....	302
〈표 7-1-42〉 통신욕구별 월평균 휴대폰 이용료 .....	302
〈표 7-1-43〉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	303
〈표 7-1-44〉 주택수리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	303
〈표 7-1-45〉 장애유무에 따른 세부 품목의 평균 비교 .....	304
〈표 7-1-46〉 장애유무와 씽크대 필요성 .....	305
〈표 7-1-47〉 장애유무와 과외(중학생) 필요성 .....	306

〈표 7-1-48〉	장애유무와 기념일용 선물구입 필요성 .....	306
〈표 7-1-49〉	장애유무와 유선 및 위성방송 필요성 .....	307
〈표 7-1-50〉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 비용 .....	309
〈표 7-2- 1〉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	313
〈표 7-2- 2〉	비목별 지출합수: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	315
〈표 7-2- 3〉	내구재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	316
〈표 7-2- 4〉	노인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	317
〈표 7-2- 5〉	노인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	317
〈표 7-2- 6〉	노인가구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여부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	318
〈표 7-2- 7〉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주는 사람 유무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	318
〈표 7-2- 8〉	노인용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	319
〈표 7-2- 9〉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	320
〈표 7-2-10〉	비목별 지출합수: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	321
〈표 7-2-11〉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상대적 비교 .....	322
〈표 7-2-12〉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 .....	324
〈표 7-2-13〉	2010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	328
〈표 7-2-14〉	노인가구지출 품목 포함 사항 .....	329
〈표 7-2-15〉	노인가구지출 품목 제외 사항 .....	329
〈표 7-2-16〉	노인가구지출 사용량 · 내구연수 · 가격조정 품목 .....	330
〈표 7-2-17〉	노인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	332
〈표 7-3- 1〉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 현황 .....	333
〈표 7-3- 2〉	하위 40%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 비교 .....	335
〈표 7-3- 3〉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합수 .....	336
〈표 7-3- 4〉	회귀분석결과 하위 40%의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품목 ..	337
〈표 7-3- 5〉	한부모가구가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품목(중복응답) .....	338
〈표 7-3- 6〉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자녀 학원수강 필요성 인식과 실제 수강 비율 ..	338
〈표 7-3- 7〉	주요 OECD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 가구유형별 사회부조 수준(2000) ..	339

〈표 7-3- 8〉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액(2009년) .....	340
〈표 7-3- 9〉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	344
〈표 7-3-10〉 가구규모별 한부모가구 추가비용(편모가구의 경우, 연구진안 기준) ....	345
〈표 7-3-11〉 한부모가구의 추가 현금급여(3인 가구 기준) .....	346
〈표 8-2- 1〉 발표기관별·기준시점별 소비자물가상승률 .....	352
〈표 8-2- 2〉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	353
〈표 8-2- 3〉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353
〈표 8-2- 4〉 추정모형 및 적용기간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률 .....	355
〈표 8-2- 5〉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356
〈표 8-2- 6〉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출과의 비율 .....	356
〈표 8-2- 7〉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ARIMA) .....	357
〈표 8-2- 8〉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ARMAX) .....	357
〈표 9-1- 1〉 주요기관 및 연구자들의 상대빈곤선 .....	363
〈표 9-1- 2〉 상대적 비율방식을 이용한 (준)공식빈곤선 .....	363
〈표 9-3- 1〉 방식별 상대적 비율 .....	375
〈표 9-3- 2〉 상대적 비율 적용에 따른 2010년 최저생계비 .....	376
〈표 10-1-1〉 기본모형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 .....	379
〈표 10-1-2〉 식료품비 비율모형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 .....	381
〈표 10-2-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	385
〈표 10-2-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 .....	386
〈표 10-2-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	386
〈표 10-2-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	386
〈표 11-1-1〉 표준가구(중생보위 결정) .....	394
〈표 11-1-2〉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검토 지역구분(안) .....	395
〈표 11-1-3〉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	400
〈표 11-1-4〉 가구균등화지수(중생보위 결정) .....	401
〈표 11-2-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	403

〈표 11-2-2〉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중생보위 결정) .....	404
〈표 11-2-3〉 전세자금대출 운용실적 .....	405
〈표 11-2-4〉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중생보위 결정) .....	406
〈표 11-2-5〉 최저 광열수도비 사용량·가격조정(중소도시 기준) .....	407
〈표 11-2-6〉 전기사용량 상승률에 따른 전기요금 비교 .....	408
〈표 11-2-7〉 2007년 중생보위의결안과 2010년 연구잔안 광열수도비 수준 비교...	408
〈표 11-2-8〉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중생보위 결정) .....	409
〈표 11-2-9〉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10
〈표 11-2-10〉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중생보위 결정) .....	411
〈표 11-2-1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중생보위 결정) .....	413
〈표 11-2-12〉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중생보위 결정) .....	414
〈표 11-2-13〉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검토내용 .....	416
〈표 11-2-14〉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중생보위 결정) .....	416
〈표 11-2-15〉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19
〈표 11-2-16〉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중생보위 결정) .....	419
〈표 11-2-17〉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교통·통신비(중생보위 결정) .....	422
〈표 11-2-18〉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23
〈표 11-2-19〉 표준가구의 지역별 기타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	424
〈표 11-2-20〉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	426
〈표 11-3-1〉 상대적 비율 적용에 따른 2010년 최저생계비 .....	427
〈표 11-5-1〉 최저생계비 및 물가 상승률 .....	430
〈표 12-1-1〉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	435
〈표 12-1-2〉 최저생계비 인상률 .....	436
〈표 12-1-3〉 지역별 4인 가구 기준 2010년 타법지원액(중생보위 결정) ....	436
〈표 12-2-1〉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	437
〈표 12-2-2〉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	438
〈표 12-2-3〉 2010년 및 2011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38

〈표 12-2-4〉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 439	
〈표 12-2-5〉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439	
〈표 13-2-1〉 급여의 구성방식과 내용 .....	449
〈표 13-2-2〉 4인 표준가구의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	452
〈표 13-2-3〉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	452
〈표 14-1-1〉 2007년 및 2010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 .....	456
〈표 14-1-2〉 2010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중생보위안 비교(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 456	
〈표 14-1-3〉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지수 · 457	
〈표 14-1-4〉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	458
〈표 14-1-5〉 2010년 및 2011년 현금급여기준선(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	459

## 그림 목차

[그림 3-1-1] 일본 최저생활비의 체계 .....	66
[그림 3-1-2] 일본 생활부조 기준의 개요 .....	68
[그림 3-1-3] 생활보호제도의 연간 급여수준 · 표준가구 · 산정방식 · 지역분류의 변화...	70
[그림 4-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	99
[그림 4-3-1] 전국가계조사(2009년) 및 기초조사(2010년)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	104
[그림 5-6-1] 욕구의 개념 .....	178
[그림 5-6-2] 보건의료욕구의 개념 및 최저보건의료비 구성 .....	179
[그림 7-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과 소득 .....	283
[그림 10-2-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	384
[그림 11-1-1]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논의구조 .....	392
[그림 12-1-1]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	437





# Abstract

##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Minimum Living Cost of the Year 2010 in Korea

The Year of 2010 is the measurement year whe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proclaim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The Minimum Cost of Living means the least monthly expense which people should have for healthy and cultivated life.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Market Basket Method and on the basis of a household of 4 renting a house on a deposit basis in medium and small sized city is 1,417,980 won. However, our researchers' results can be different from the final Minimum Cost of Living which the Central Commission of Livelihood Security sets. It is prescribed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of the association that the Central Commission of Livelihood Security is authorized to fix the official Minimum Cost of Living. The Table 1 below shows the comparison of our researchers' with the Central Commission of Livelihood Security's.

The 2010 Minimum Cost of Living by household size was measured through the process of multiplying 1,397,488 won, which is a household of 4's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the Household Equivalence Scale. Also

the 2011 Minimum Cost of Living by household size was calculated applying the annual inflation rate 3.0% expected in 2011 and the Household Equivalence Scale to the 2010 Minimum Cost of Living.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on the 2010 and 2011 Minimum Cost of Living by household size can be seen from the Table 2 below.

Table 1. The Comparison of Two '2010 Minimum Cost of Living's

(unit: Korean Won, %)

Expenses	Researchers'		Central Commission of Livelihood Security's	
	amount	ratio	amount	ratio
Food and beverages	545,943	38.5	527,327	37.7
Housing	221,374	15.6	221,374	15.8
Fuel, light and water charges	103,150	7.3	103,150	7.4
Furniture and utensils	40,879	2.9	40,547	2.9
Clothing and footwear	52,060	3.7	57,649	4.1
Medical care	62,196	4.4	62,196	4.5
Education	65,930	4.6	65,930	4.7
Culture and recreation	30,483	2.1	27,117	1.9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142,600	10.1	142,600	10.2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	86,072	6.1	82,305	5.9
non-consumption expenditures	67,293	4.7	67,293	4.8
Total sum	1,417,980	100.0	1,397,488	100.0

Note: on the basis of a household of 4 renting a house on a deposit basis in medium and small sized city.

Table 2. 2010~2011 Minimum Cost of Living by household size

(unit: Korean Won)

a household of number	2010	2011
1	517,071	532,583
2	880,417	906,830
3	1,138,953	1,173,121
4	1,397,488	1,439,413
5	1,656,023	1,705,704
6	1,914,559	1,971,995

Note: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real minimum cost of living measured in 2010 and the administrative application in 2010.

# 요약

## 1. 서론

2007년에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3년 주기가 되는 2010년 9월 이전에 법정 최저생계비가 계측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발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방식별·육구별 최저생계비를 계측 또는 추정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최저생계비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과 결과,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과정과 결과, 최저생계비의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국내외의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전물량방식에 의한 2010년 표준가구의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의 방법, 절차, 결과 등을 담고 있다. 단, 제2부의 내용은 연구진안인 만큼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최저생계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3부에서는 상대적 방식,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사회적 합의과정과 그 결과, 즉 2010년과 2011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최저생계비의 활용 방안과 정책적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문에서 담지 못한 내용 중 세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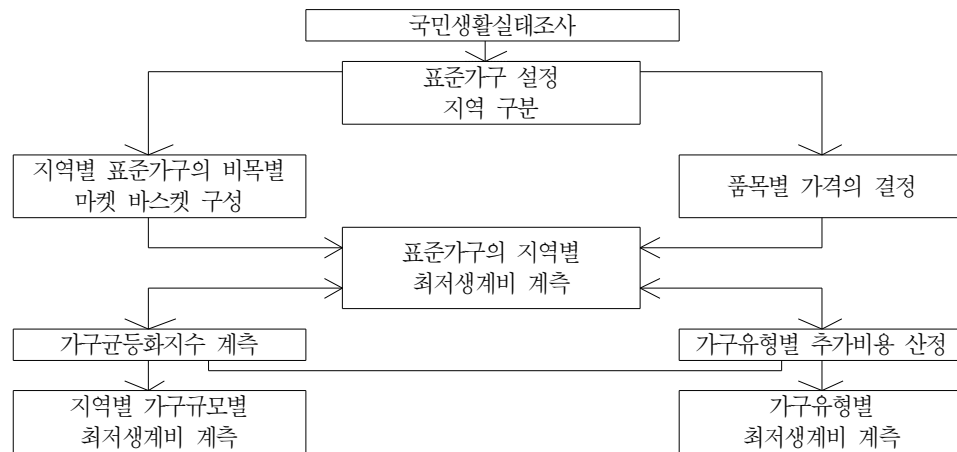
별 마켓 바스켓의 구성과 가격(연구진안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안), 최저생계비의 계층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주요 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법과 조사표 내용 등은 부록을 할애하여 제시하였다.

## 2.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연구진안)

### 가. 표준가구의 2010년 지역별 최저생계비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층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최저생계비 계층 흐름도



먼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하여 아래 표에서와 같이 40세 부(父)와 37세 모(母), 그리고 11세(남)와 9세(여)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물가 차이와 특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한 바 있다. 표준가구의 지역별 대표 점유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로 설정되었다.

〈표 1〉 2010년 표준가구(연구진안)

표준가구의 규모	표준가구의 구성
4인 가구	부: 40세 모: 37세 1자(남):11세 2자(여):9세

다음으로, 11개 비목, 즉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 대하여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비용을 계측하였다. 이렇게 계측된 표준가구의 2010년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표준가구의 2010년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sup>1)</sup>		중소도시 <sup>1)</sup>		농어촌 <sup>1)</sup>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545,943	36.2	545,943	38.5	504,217	39.0
주거비	307,755	20.4	221,374	15.6	149,306	11.5
수도광열	105,320	7.0	103,150	7.3	129,168	10.0
가구집기비	41,019	2.7	40,879	2.9	40,779	3.2
피복신발비	52,060	3.5	52,060	3.7	50,140	3.9
보건의료비	62,196	4.1	62,196	4.4	62,196	4.8
교육	65,930	4.4	65,930	4.6	65,930	5.1
교양오락	30,483	2.0	30,483	2.1	30,483	2.4
교통통신비	143,920	9.5	142,600	10.1	109,595	8.5
기타소비지출	86,072	5.7	86,072	6.1	86,072	6.7
비소비지출	67,335	4.5	67,293	4.7	65,559	5.1
합계	1,508,033	100.0	1,417,980	100.0	1,293,445	100.0

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주거집유형태는 전세를 기준으로 함.

#### 나. 2010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전물량 방식에 의해 계측된 4인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에 가구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면,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가 산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모형을 활용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대응성, 현실성, 합리성, 규모일관성(안정성), 자료 일관성, 자료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균등화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위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2010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2010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균등화지수		0.3789	0.6156	0.8176	1.0000	1.1691	1.3282	1.4795
대도시	최저생계비	571,439	928,300	1,232,968	1,508,033	1,762,981	2,002,969	2,231,195
	차이		356,861	304,668	275,065	254,948	239,988	228,226
중소도시	최저생계비	537,315	872,866	1,159,340	1,417,980	1,657,704	1,883,361	2,097,958
	차이		335,551	286,474	258,640	239,724	225,657	214,597
농어촌	최저생계비	490,125	796,206	1,057,521	1,293,445	1,512,115	1,717,954	1,913,704
	차이		306,081	261,315	235,924	218,670	205,839	195,750

### 3. 중생보위 결정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최저생계비가 확정된다.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8차에 걸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생계비(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제37차(2010.8.18)와 제38차(2010.8.24)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저생계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최종적인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가 확정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2010년 표준가구(중소도시 전세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97,488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 5>와 같다.

201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2007년 계측치 대비 13.38%, 그리고 2010년 행정적용치 대비 2.52%였다.

〈표 5〉 표준가구의 2010년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구분	중소도시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527,327	37.7
주거비	221,374	15.8
광열수도	103,150	7.4
가구집기	40,547	2.9
피복신발	57,649	4.1
보건의료	62,196	4.5
교육	65,930	4.7
교양오락	27,117	1.9
교통통신	142,600	10.2
기타소비	82,305	5.9
비소비	67,293	4.8
합계	1,397,488	100.0

201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은 253,317원, 현금급여기준선은 1,144,171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6〉 표준가구의 2010년 타법지원액(중생보위 결정)

비목	품목	중소도시
식료품비	급식비	62,510
광열수소비	전기	6,346
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32,138
교육비	교육비	65,930
가구집기가사용품	쓰레기봉투	1,220
교양오락비	TV수신료	2,500
교통통신비	유선전화	1,200
	이동전화	18,040
비소비지출	국민연금	38,610
	건강보험	24,390
	주민세	433
타법지원액 합계		253,317

[그림 2] 표준가구의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 1,144,171원	=	최저생계비 1,397,488원	-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253,317 원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62,510원</li> <li>◦ 전기요금 6,346원</li> <li>◦ 보건의료비 32,138원</li> <li>◦ 교육비 65,930원</li> <li>◦ 쓰레기봉투 1,220원</li> <li>◦ TV수신료 2,500원</li> <li>◦ 통신비 19,240원</li> <li>◦ 주민세 433원</li> <li>◦ 국민연금 38,610원</li> <li>◦ 건강보험 24,390원</li> </ul>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0년 최저생계비에 3.0%의 물가상승률 추정치를 적용하여 2011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2010년과 2011년 중소도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아래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lt;표 7&gt;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구분	2010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2010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2011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04,344	517,071	532,583
2인 가구	858,747	880,417	906,830
3인 가구	1,110,919	1,138,953	1,173,121
4인 가구	1,363,091	1,397,488	1,439,413
5인 가구	1,615,263	1,656,023	1,705,704
6인 가구	1,867,435	1,914,559	1,971,995

&lt;표 8&gt;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구분	2010년 행정적용 현금급여기준선	2010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2011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1인 가구	422,180	423,343	436,044
2인 가구	718,846	720,828	742,453
3인 가구	929,936	932,500	960,475
4인 가구	1,141,026	1,144,171	1,178,496
5인 가구	1,352,116	1,355,843	1,396,518
6인 가구	1,563,206	1,567,515	1,614,540



#### 4. 최저생계비의 활용 및 정책건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적용되는 기본선을 계측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의 정신과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연구진들이 인식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3년 후인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는 계측방식이 확정되어야 한다. 계측방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계측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금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을 자동 결정 모형에 의하여 추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동안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둘러싸고 해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의 제도화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발표 시점과 차년도 최저생계비 적용 시점 간의 괴리, 비계측연도의 생활의 질 미반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저생계비 계측과 적용간의 시차를 줄여야 한다. 2010년의 경우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계측된 최저생계비간의 차이가 4인가구 기준 34,397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최저생계비 발표시점이 매년 9월 1일로 변경되었으므로 차년도 최저생계비 발표 시에 계측년도 최저생계비도 아울러 발표하고, 9월부터는 계측연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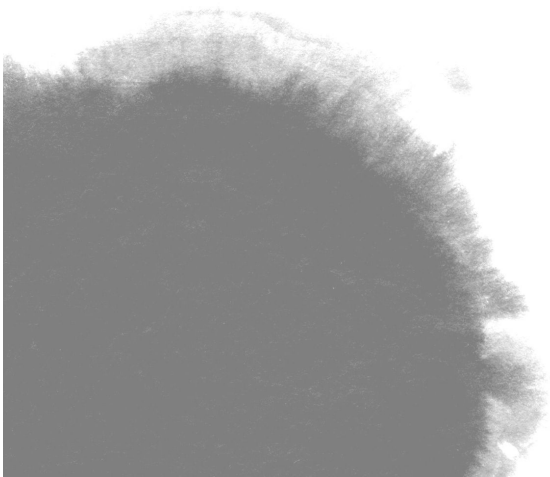
넷째, 최저생계비와 급여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행 최저생계비에는 초등학생의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비는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와 같은 욕구별 급여는 현금급여 기준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대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급여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금년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

하여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선은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생계비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기로 의결하여야 한다. 둘째, 이론적으로 산출한 지역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 인접한 농어촌의 경우 생계비는 중소도시보다 오히려 많이 들어가나, 이론적으로 산출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보다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점유형태별로도 최저생계비가 차등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이와 같이 주거점유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경우, 자가 수급가구는 과잉, 월세 수급가구는 과소 급여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지역별 최저생계비와 아울러 주거점유형태별로 차등화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최저생계비 계층 이론 및 기본방향





# 제1장 서론

##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9년 이래로 최저생계비는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과 급여의 지침선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즉,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만큼 최저생계비의 계측과정과 그 결과가 과학성과 현실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기존에 5년 주기로 계측되던 최저생계비의 계측 주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3항) 개정(2004. 3. 14)을 통해 3년 주기로 단축된 것은 최저생계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즉 최저생계비가 급속히 변화하는 생활실태와 소비양태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07년에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3년 주기가 되는 2010년 9월 이전에 법정 최저생계비가 계측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발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좀 더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다양한 계측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이다. 제2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06.5.1.)에서 향후 최저생계비 계측과 관련하여 전물량방식을 주로 하되, 여타의 계측방식을 병행하여 계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제34차 중앙생활보장위

원회('09.8.19)에서는 계층방식에 대해, “전물량방식과 상대빈곤선을 고려하여 중생보에서 조정한다”고 의결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물량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하되,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 등 다양한 최저생계비 계층방식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선의 계층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전물량방식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현실성 있는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질을 높이는 한편 통계청의 각종 자료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정책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별·주거점유형태별로 상이한 욕구에 상응하는 최저생계비를 계층하기 위하여 지역별·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를 계층하고자 한다).

둘째, 계층된 2010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적인 방식들에 의한 2011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고 연구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3항)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 번 계층되므로 그 사이 연도의 최저생계비는 추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물가와 생활의 질 반영방식(PQ 방식), 수정된 수준균형방식 등 다양한 방식들에 의해 2011년 최저생계비를 계층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계층되고 추정된 2010년과 2011년 최저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최저생계비와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최후의 안전망이므로 여타의 현물급여와 타법에 의한 지원을 제외한 후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 특히 현금급여기준선이 어떻게 설정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결정 사항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 혹은 보완할 다양한 제도들, 예컨대 기초연금, EITC, 주거급여 등의 제도가 추가로 도입될수록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좀 더 욕구에 대응적인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하여 상이한 욕구를 가진 집단별로 추가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개개인의 욕구는 모두 상이하므로 이러한

1) 현재는 중소도시 전세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다.

개개인의 욕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집단별, 가구유형별로 독특한 욕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한다. 노인과 한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 인구집단별·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최저생계비의 욕구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다양한 방식별·욕구별 최저생계비를 계측 또는 추정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최저생계비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주지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과 결과,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과정과 결과, 최저생계비의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국내외의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 중 제2장에서는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주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과 수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적 기원, 계측방법, 수준, 그리고 정책적 활용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주요 최저생계비 계측 연혁, 그리고 현재 다양한 기관에 의해 계측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활용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2부는 본 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물량방식에 의한 2010년 표준가구의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의 방법, 절차, 결과 등을 담고 있다. 단, 제2부의 내용은 연구진안인 만큼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정

부의 최저생계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4장에서는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전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최저생계비 계층모형과 계층방식, 마켓 바스켓의 결정원칙, 표준가구 선정, 그리고 지역 구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모형과 전제를 기초로 하여 전물량방식에 의한 표준가구의 2010년 최저생계비를 계층하고 있다.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총 11개 비목별로 계층되어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층되었다. 11개 비목은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이다. 실태조사자료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러한 각 비목에서 표준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합산하여 표준가구의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여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층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적용함으로써 가구규모별(1~7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계층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구유형을 감안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가구원(장애인, 노인)이 표준가구 중 1인을 대체한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가구유형이 대체(표준가구에서 한부모가구로)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추가되는 비용과 감소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되었다.

제3부에서는 상대적 방식,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를 계층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제9장은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상대적 비율 결정 방식과 각 방식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상대적 비율 방식에 의해 2010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제10장은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하는 반물량 방식과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 주관적 방식에 의하여 계층된 2010년 최저생계비를 담고 있다.

제4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사회적 합의과정과 그 결과, 즉 2010년과 2011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11장에서는 연구진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상정안,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12장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



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2010년과 2011년 최저생계비 최종 결정안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최저생계비의 활용 방안과 정책적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13장에서는 최저생계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활용원칙,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장에서는 연구의 핵심적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 계측방식,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 정책적 건의를 실었다.

1~3부에 이르는 매우 방대한 내용과 연구의 흐름 등을 감안하여 본문에서 담지 못한 내용 중 세부 품목별 마켓 바스켓의 구성과 가격(연구진안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안), 최저생계비의 계측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주요 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법과 조사표 내용 등은 부록을 할애하여 제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과 추정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최저생계비 계측의 방법과 수준 등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주요하게,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위상, 계측방법 등에 대한 기존 문헌 연구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수준, 활용방식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국내의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방법과 현황 등도 제시함으로써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의 맹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이하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해 3차에 걸쳐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통계청, 건설교통부, 교육부, 농림부 등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생계비 계측의 논리적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였다. 최저생계비는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만큼 각 영역의 전문가 자문을 경청하였다. 주요하게,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설문지 구성과 표본설계, 각 비목별 품목 선정,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산정 과정 등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인만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8회에 걸친 기초생활보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진의 최저생계비 계층 결과를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론적·현실적·정치적 측면 등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상정안이 마련되었으며, 다시 2회에 걸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정안을 둘러싼 열띤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는 이론, 실태, 정치적 과정의 종합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sup>2)</sup>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조사체계는 전체적으로 1차 기초조사, 2차 생활실태조사, 가격조사, 그리고 3차 가구유형별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 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550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 추출하여 22,0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1차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구성 및 가구원특성 등의 가구일반현황, 비목별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생활실태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지도원(수퍼바이저) 1인과 조사원 4인을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지도원이 조사내용을 현장에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보완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2)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조사방법, 가중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6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기간은 2010년 1월 22일 ~ 4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목표 표본 가구수 22,000가구 중에서 19,261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여 약 87.5%의 조사 완료율을 보였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2차 생활실태조사 및 가구유형별 조사대상 가구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경상소득 기준)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각각 2,078가구와 1,500가구를 표본추출 하였다.

가격조사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집의 자가, 전세, 월세 가격 등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가격 파악을 위해 가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차 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1월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품목의 질은 중(하)품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3차 가구유형별 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는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등 표본추출 된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협조 하에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에 의해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1일 ~ 9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표본 수 1,500가구중 세부적으로 장애인가구는 900가구, 노인가구는 395가구, 한부모가구는 205가구를 완료하였다.

##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 제1 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 1. 빈곤의 개념

“빈곤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질문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현실적 질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또한 빈곤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매우 흔히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정의내리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빈곤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회, 수단 또는 資源의 결핍상태”(이정우, 1997)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빈곤한 것으로 볼 것인가, 자동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빈곤한 사람인가, 하루 두 끼 밖에 먹지 못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빈곤한 사람인가,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빈곤하다고 볼 수 있는가 등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빈곤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 왔다. 이를 대략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과 같이,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첫째, 자원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치 않은 상태이며, 둘째 빈곤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을 체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Saunders, 2004). 즉, 핵심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에

서의 결핍상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회의 생활수준과 관습,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Sen은 물질적인 자원의 결핍을 넘어서 그러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까지를 빈곤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빈곤의 차원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1〉 빈곤의 대안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am Smith(1776) 내가 이해하기에 필수품은 생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화 뿐만 아니라, 관습상 최하위층의 사람일지라도 그것 없이는 신망있는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재화이다. 예컨대, 린넨셔츠는 엄격히 말해서 생활필수품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신망있는 일용노동자라면 린넨셔츠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기에 납부끄러울 것이며, 린넨셔츠가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li> <li>• Seebohm Rowntree(1899): 어떤 가족의 총소득이 단순히 물리적 효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li> <li>• William Beveridge(1942): 소득 중단 시기 동안 노동연령의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소득을 고려할 때, 지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약간의 여분이 허용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식품, 의류, 연료, 조명과 가구집기, 집세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i> <li>• Ronad Henderson(1975): 빈곤이 최소한의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의 준거로 정의되는 한에 있어, 이는 상대적 개념이다. 경제의 생산성과 공동체의 태도를 반영하는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호주 사회에서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 그리고 식품, 주거, 의류, 건강,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최소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작업은 어렵다.</li> <li>• Peter Townsend(1979): 인구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관습적인 혹은 최소한으로 널리 장려되거나 인정되는 생활조건과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원이 결여될 때 빈곤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li> <li>• Joanna Mack and Stewart Lansley(1985): 빈곤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필수품의 강제된 결핍이다.</li> <li>• Amartya Sen(1992): 빈곤은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의 결여(failure)이다. 이와 관련된 기능성(functioning)은 영양섭취를 하고, 적절하게 입고 주거하며, 예방가능한 질환을 피하는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수치스럽지 않게 공적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등과 같은 더욱 복잡한 사회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li> </ul>
--

지금까지 빈곤과 관련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빈곤은 세 가지 잠재적 측정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범주에 기초해서 빈곤의 개념은 주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되어 개념화되고 측정되어 왔다(여유진 외, 2005).

먼저, 절대적 빈곤은 Rowntree가 1899년 York시 조사에서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가구’를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이라고 규정 한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일정한 생활수준’을 상정하고, 이러한 생활수준이 유지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일정한 욕구’(needs)를 규정하며, 이러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method)나 반물량 방식(Engel method)에 의해 계측되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일정한 생활수준’과 ‘일정한 욕구’는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언제 어떤 사회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수준 또는 사회적인 기본적 욕구(social basic needs)가 합의되기 어렵다는 Townsend(1970)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의 복지 혹은 소득수준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저소득을 판정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한 빈곤선의 측정은 예컨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40%, 50%(다수설), 60%, 소득분포의 하위 10%, 20% 등이다. 이 개념은 선진국에서 빈곤을 계측에 종종 활용되며, 특히 국제 비교시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정책적 노력의 효과에 관계없이 빈곤이 규정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상대빈곤에 의해 계측된 측정치는 빈민의 규모를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빈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빈곤은 개개인의 느낌(상대적 박탈감, 행복감 등)과 욕구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개인이 느끼는 빈곤감은 百人百色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개인의 상대적 욕구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주관적 빈곤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빈곤선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 사회 내에서의 빈곤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빈곤의 개념에 기반하여 빈곤선을 계측하고자 한 예는 미국의 갤럽 방식과 네덜란드의 라이덴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의 세 가지 빈곤 개념에 더하여, 그 나라의 정치적·재정적·이념적 현실을 반영하여 이론빈곤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정책적 빈곤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Sen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적 빈곤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간의 권력관계 또는 사회의 여러 압력집단의 발언권 여하에 따라 빈곤선의 높낮이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기초보다 정치적 영향력 하에서 빈곤선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하겠다. 즉, 정책적 빈곤선은 이론적으로 도출된 빈곤선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빈곤대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한 가치중립적인 빈곤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빈곤은 그 자체로 상대적 개념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빈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기본욕구조차도 상대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은 사회규범과 경제적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특정한 장소와 특정 시점에서만 대답되어질 수 있는 질문이다. 둘째,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는 어떠한 빈곤 개념도 또한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들은 특정 사회규범과 태도를 체현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에 언급되는 절대적 빈곤조차도 시간·공간 특수적이라는 의미에서는 상대적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빈곤선(poverty line)은 지금까지 논의된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준거가 되는 기준선이라 할 수 있다. 즉, 빈곤선이란 빈곤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빈곤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도출된 수치화된 빈곤의 기준이다. 빈곤선은 위에서 제시된 빈곤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접근방식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Saunders, 2004). 재화의 장바구니 측면에서 욕구를 확인한 다음 그것을 사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예산기준(budget standard), 중위(혹은 평균) 소득의 특정 비율과 같이 명시적으로 상대적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저소득기준(low income standard), 최소소득기준에 대한 공동체 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기준(subjective standard), 그리고 (소득지원급여에서 반영되는 것과 같이) 저소득에 대한 공식적 혹은 승인된 기준에 기초한 공식적 기준(official standard)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그리고 정책적 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기준이다.

이러한 빈곤선 중 정책적 빈곤선은 여타의 빈곤선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절대적·상대적·주관적 빈곤선은 측정방식에 근거한 빈곤선의 분류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 빈곤선은 적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분류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적 빈곤선은 앞의 세 가지 빈곤선과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앞의 세 가지 빈곤선 측정방식 혹은 또 다른 측정방식으로 빈곤선을 측정한 결과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후자를 Veit-Wilson(1998)은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이라는 특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Veit-Wilson에 의하면, 빈곤선이란 개인과 가구가 그들이 사는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서 박탈과 배제로 간주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저소득에 대한 과학적 측정치로 정의될 수 있는데 비해, 최저소득기준은 공식적인 행정적 도구 혹은 다른 구성체에 의해 체현된 (주어진 기간, 어떤 영역 혹은 모든 인구에 대해) 어떤 주어진 최저실질생활수준에 대한 정치적 적절성 기준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정책적 빈곤선, 즉 최저소득기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항)으로 법으로 정하여 공포하는 정책적인 빈곤선인 동시에 공공부조의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액이다. 또한, 3장에서 논의하게 될, 미국의 빈곤기준선(poverty threshold)과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 일본의 생활보호기준, 캐나다의 LICOS(Low Income Cut-Offs), 호주의 헨드슨빈곤선(Henderson Poverty Line) 등도 (준)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 즉 최저소득기준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정책적 빈곤선이 직접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와 연계되느냐 아니냐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 계측하고자 하는 최저생계비는 이와 같이,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공공부조 선정 및 급여기준액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수급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적·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Sen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적 빈곤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간의 권력관계 또는 사회의 여러 압력집단의 발언권 여하에 따라 빈곤선의 높낮이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정책적 빈곤선 설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계측하되,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기초보장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1999년, 2004년, 2007년에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었으며 그 사이 연도에는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본 연구의 2010년 최저생계비는 공식적으로 계측되는 네 번째 정책적 빈곤선으로, 역시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되며 여타방식에 의한 빈곤선들은 참고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으로는 절대적 방식의 전물량 및 반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의 박탈지표,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방식, 주관적 방식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에 의한 계측방법을 취하고 있으며<sup>3)</sup>, 외국의 경우 국가별, 연구자별, 시기별로 적합한 방식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측정하고 있다(김미곤 외, 2006).

## 1. 절대적 방식

### 가.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전물량 방식에 의한 1899년 Rowntree가 영국 York시 비숙련노동자 11,560세대를 기준으로 빈곤을 추정한 방법으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sup>4)</sup>.

동 방식은 전문가가 객관적 기준과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사치품과 고가품을 배제하고 필수품만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마켓 바스켓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자의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료, 교육 등 현물급여(In-kind Transfer)를 고려한 보충급여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할 때 필수품 선정에서의 자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컨대 계측자의 가치관에 따라 신문, 카메라, 자동차, 휴대폰 등을 필수품에 포함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필수품이 무엇이며 인간이 사용하는 많은 재화나 용역 중에서 어떻게 필수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필수품은 ‘최저의 품위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의된 품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최저의 품위기준은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상

3) 전물량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연구한 것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88년, ’94년, ’99년, ’04년, ’07년 최저생계비의 계측방식과 배무기 교수의 1987년 연구, 차홍봉 교수의 1994년 연구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서 연구된 바 있다.

4) 보고서 발간은 1901년에 이루어졌으며, 전물량방식을 식으로 표현하면  $Poverty\ line = \sum x_i \cdot p_i$ , (여기서  $x_i$  필수품,  $p_i$  필수품의 가격)이다. Rowntree는 “가족의 총소득이 순전히 육체적 능력(Physical efficiency)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필수품을 조달하기에도 불충분한 경우”를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으로 정의하였다.

태’(Hagenaars & Vos, 1988) 혹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필수품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필수품은 생명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일 뿐 아니라 그 국가의 관습상 그것이 없으면 신망 있는(creditable) 사람으로서의 품격(decent)을 유지할 수 없는 상품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그 예로 린넨 셔츠와 가죽 신발이 품위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Towsend, P., 1979).

전물량 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필수품의 선정이다. 국가별, 시기별, 영양학적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동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필수품이 포함되어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필수품에 대한 가격과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별, 연령별로 적정수준의 가격과 사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먼저 전물량 방식을 통하여 필수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전문가에 의한 최저개념(예, 영양권장량, 최저주거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실태자료도 최저생계비의 추정에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느 수준의 저소득층을 최저생활의 대상으로 하느냐는 점과 둘째, 적절한 소득계층이 선정되었다 하여도 그들의 소비행위가 최저생활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최저생활의 유지에 꼭 필요한 소비이지만 그들의 지불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 재화나 서비스가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술 및 담배의 과용 등 최저생활의 유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태 조사결과 얼마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품목이 필수품인가를 결정하는 논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소득탄성치를 이용하는 방법과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소득탄성치를 이용하여 필수품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논리는 필수품의 경우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치품은 소득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필수품을 소득탄성치( $E_y$ )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_y = 0$	: 절대적 필수품
$0 < E_y < 1$	: 일반필수품(basic necessities: 예, $E_y < 0.5$ )
$E_y = 1 \text{ or } > 1$	: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품목

두 번째로 보유여부(또는 구입여부)와 소득을 변수로 사용한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여건에서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추정하여 필수품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소득이 0일 때 어떤 상품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 또는 일정소득 수준에서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필수품이 선정되었다면 필수품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필수품의 구입량 및 가격 결정은 저소득층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자료에서 필수품의 구입량과 가격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대표값은 평균값보다는 최빈값을 적용하는데, 이는 평균값을 이용할 때 발생할 구입 단위의 상이, 기재의 오류 등에 따른 평균가격의 편의(Bias)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은 미국 농무성의 Orshansky(1965)에 의해 전물량 방식을 다소 간소화한 측면에서 제시되어진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생필품에 대한 지출비를 모두 더하는 방법보다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득 대비 식료품비의 비율을 기초로 한 빈곤선 추계방식인 엔겔방식이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에 대한 식료품 지출비용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원리를 기초로 하여 최저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엔겔계수  $E_{\min}$ 을 설정하고 식료품 구입비용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E_{\min}$ 과 일치하는 점을 빈곤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물량 방식은 현재까지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은 첫 번째 방법인 반물량 방식(Orshansky 방식)을 사용하여 빈곤선을 구하고 있다.

반물량 방식의 주요한 문제점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비에 곱하는 ‘3’이란 숫자가 모호하다는 점과 어느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보느냐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5)</sup>. 그리고 소득대비 식료품비 비율방식에서도 앵겔계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절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측정의 경우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실태를 기초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적인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 2. 상대적 방식

### 가. 박탈지표방식

P. Townsend 이전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절대적 최저생계비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Townsend는 절대적 수준에 입각한 빈곤의 개념을 비판하고 빈곤은 오직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빈곤의 상대성과 복잡성에 보다 근접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먼저 ‘상대적 박탈’을 객관적 박탈감과 주관적 박탈감으로 나누었으며, 그리고 객관적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1항목과 주관적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7개 항목을 선정하여 소득계층별로 이들 항목들을 보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양태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대부분의 항목을 향유하는데 비하여 저소득층은 극히 일부분의 항목들을 향유하는데 그칠 것이다. 여기서 일정소득 수준에서 향유하고 있는

5) Orshansky 방식의 “3”이라는 배수에 대하여 1992년 National Academy Science(NAS)에서는 조사결과 “3”이던 거의 “7”로 변했으며 이 역시 시간에 변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김미곤 외, 2006).

품목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최저생계비로 보는 것이다.

Townsend는 객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거, 연료, TV 등의 가전제품, 휴가 또는 여행 등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사용하였고, 주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공간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소득수준, 즉,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주관적 박탈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현재 생활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혹은 빈곤감 등을 사용하였다.

박탈지표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에 따른 단점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추정과 같이 박탈지표항목에 포함될 품목 선정에서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항목구성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 나.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

Townsend의 방식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대적 빈곤선은 평균 혹은 중위가구 소득 혹은 지출의 몇 % 이하에 해당하는가에 의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 혹은 빈곤선을 도출하기 위해 소득을 사용한 예로는 OECD, World Bank, Fuchs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지출을 사용하였으며, Deleeck 또한 EUROSTAT가 작성한 성인 1인당 지출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선을 도출하여 유럽 각국의 빈곤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방식으로 측정된 최저생계비(혹은 빈곤선)의 가장 큰 약점은 개념 자체가 갖는 자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같이 어떠한 기준을 최저생계비(혹은 빈곤선)로 잡을 것인지는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소득이든 지출이든 간에 평균 혹은 중위소득의 몇 %가 최저생계비(혹은 빈곤선)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사회적 통념이나 이론적 기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대적 최저생계비추정의 문제점은 첫 번째,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소득을 기준으로 삼느냐, 지출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소득과 지출

중 어느 하나가 결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개념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즉 소득의 경우 시장·경상·가처분소득 또는 전체 소득,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소득개념이 존재한다. 지출의 경우에도 가계·소비지출 또는 전체 혹은 임금근로자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세 번째는 소득이나 지출의 몇 %를 최저생계비로 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나 각각의 기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수준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 3. 주관적 방식

주관적 빈곤의 개념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는 빈곤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데는 객관적인 추정방법들이 사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측정방법에는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제3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 가.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예를 들면 ‘이 곳에서 사는 평균적인 4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혹은 지출)은 얼마입니까?’ 혹은 ‘이 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와 같이 제 3자적 입장에서 최저생계비를 묻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74년 L. Rainwater가 1946년부터 1969년까지의 갤럽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일반화된 계측방식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이 그 해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범위에 들어 있었으며, 평균치는 52%로, 대중이 생각하는 생계비의 수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계측한 빈곤과 매우

6) 일본의 경우 임금근로자 소비지출의 68%정도를 생활보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사함이 밝혀졌다<sup>7)</sup>. 또한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소득탄력성은 0.18로 대중의 빈곤 관은 ‘절대적인 의미에 가까운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준구, 2003).

#### 나. 본인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본인의 평가에 기초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방식은 라이덴(Leyden)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Van Praag, Hagenaar 등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각자 자기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대해 묻고 대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신의 가구에서는 얼마의 소득(혹은 지출)이 있다면 근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식의 질문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 대답으로 나온 소득(혹은 지출)과 실제 그 사람의 소득(혹은 지출)이 일치하는 점을 회귀분석을 통해 찾는 방법(라이덴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벨기에의 델릭(H. Deleeck) 등이 고안한 방식으로 각자가 대답한 최저생계비와 자신의 실제 소득이 같은 가구를 골라 그들 가구소득의 평균을 구해 그것을 최저생계비로 간주하는 방법(델릭방식)이다(이정우, 1997).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최저생계비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가장 잘 대응되는 설문지 구성의 문제이다. 레인워터가 껄럽여론조사의 설문지 중 “이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자 킬패트릭(R. Kilpatrick)은 실제의 최저생계비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반기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개념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설문지 구성이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이다.

둘째, 최저한의 생계비란 질문을 응답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응답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저한의 생계비에 일부 응답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응답하고 일부는 포함하지 않고 응답한다든지, 또는 사회적 문

7) 레인워터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써 근근이 살아기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액수가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필요’에 대해 계산한 액수의 대략 94% 수준에서 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준구, 2003).



화적 욕구를 응답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한다면 이는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매우 큰 편의(Bias)를 보일 것이다.

결국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정의<sup>8)</sup>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해석상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 4. 기타 방식

앞에서 설명한 절대적, 상대적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이외에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으로는 소비함수를 이용하거나(케인즈 절대소비함수 이용), 비목별 앵겔함수를 이용하는 방식, Allen- Bowley 방식을 이용하는 계측방법 등이 있다.

소비함수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은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근거로 하여 소득이 없을 때, 최소한의 소비를 한다는 가정 하에 소득이 “0”인 상태에서의 소비함수의 절편을 최저생계비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동 방식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다.

비목별 앵겔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은 식료품비에 대한 앵겔함수를 추정하여 이론적으로 산출한 최저 식료품비에 상응하는 소득을 구한 후, 다른 비목의 앵겔함수에 대입하여 최저 주거비, 최저 의료비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들 비목을 추정한 후 모두 합산하면 최저생계비가 도출된다.

Allen-Bowley 방식은 대표적인 사치품( $C_i$ )의 소비함수  $C_i = a + b \cdot Y$ 에서 사치품의 소비가 “0”이 되는 소득수준( $Y^*$ )를 구한 후 비목별 소비함수에  $Y^*$ 를 대입하여 비목별 최저비용을 산출하여 이들 비목별 최저비용의 합계를 최저생계비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제1 절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1. 미국의 최저생계비

#####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미국은 절대적 방식 계측의 일종인 반물량 방식에 기초하여, 빈곤기준선(Poverty Thresholds: PT)과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s: PG)이라는 두 가지 빈곤선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빈곤기준선(PT)은 1963년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Mollie Orshansky에 의하여 처음 개발되었다. 이 때의 빈곤기준선(PT)은 '그 해 농무부에서 정한 최저 식료품비)<sup>9)</sup>×3×가족구성원 수로 정해졌으며 가구원의 수, 가구원 중 아동의 수, 노인의 유무 등에 의해 48가지의 빈곤선과 13가지의 가중평균빈곤선으로 나뉘게 된다. 이후 1964년부터 빈곤기준선(PT)은 미국 통계청(Census of Bureau)에서 매년 8월에 발표하게 되었으며, Johnson 정부는 1965년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빈곤에 대한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

9) 최저 식료품비(Economy Food Plan)은 농무부에서 비상 시 또는 예상치 못한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영양학자들이 제안한 식단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으로서, 한 개인이 최소한의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영양학자들이 제안한 네 가지 수준의 식단안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이다. 1993년 Orshansky에 의하면, 당시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식비 안을 택한 이유는 정부 및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너무 관대한 빈곤선'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었고, 1969년에 이르러 미예산국(Bureau of the Budget)에서는 기존의 Orshansky 방식을 사용한 빈곤기준선을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선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빈곤기준선은 미국 내의 빈곤을 측정과 빈곤층 추이 파악 등의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빈곤지침선(PG)은 빈곤기준선(PT)를 단순화한 것으로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매년 1월이나 2월 발표하고 있으며, 주로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을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빈곤기준선(PT)의 경우 각 연도의 하반기(8월)에 그 전연도의 빈곤기준선(PT)을 발표하기 때문에, 만약 빈곤지침선(PG)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나 기타 행정기관들이 그 해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3-1-1>에서는 빈곤기준선과 빈곤지침선을 비교 정리하였다.

<표 3-1-1>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의 비교

구분	Poverty Thresholds(빈곤기준선)	Poverty Guidelines(빈곤지침선)
발표	통계청	보건복지부
사용목적	통계적인 목적 예) 빈곤선 이하의 미국인이 얼마인지를 계산	행정적인 목적 예) 특정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수급자격을 결정
빈곤선을 변화시키는 요인	가구원의 수, 가구원 중 아동의 수, 노인의 유무에 따라 48가지의 빈곤선과 13가지의 가중평균 빈곤기준선으로 나뉘며,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빈곤지침선이 달라지며,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에서는 약간 다른 지침선이 적용된다.
발표 시기	통계청은 해마다 1월과 8월(최종)에 전연도의 빈곤기준선을 발표한다. 예를 들어 2008년도 8월에 2007년도의 빈곤기준선(2007년도의 물가를 반영)을 발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해의 빈곤지침선을 그 해 2월에 발표한다. 예를 들어 2008년도의 빈곤지침선(2006년도의 빈곤기준선으로부터 계산)을 2008년도 2월에 발표하는 것이다.
계산방식	1월에 발표되는 빈곤기준선은 전년도 빈곤기준선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8월에 발표되는 최종 빈곤기준선은 Current Population Survey's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의 조사에서 계속된다.	빈곤지침선은 그 전년도 8월에 발표되는 가장 최근의 최종 빈곤기준선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ttp://aspe.hhs.gov/poverty/faq.shtml#differences>).

## 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미국의 공식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빈곤기준선(PT)은 Mollie Orshansky에 의해 개발된 반물량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Orshansky는 1963년 Social Security Bulletin에 빈곤 측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의 빈곤 공식은 한 개인이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서 1개월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료품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 후 여기에 3배를 곱하여 값을 얻는 방식이었다.

이 때 승수로써 ‘3’을 곱한 이유는 1955년 미국 농무부가 실시한 가구식료품소비조사(Household Food Consumption Survey)에서 미국의 평균가구가 세후소득의 약 30%를 식료품지출에 사용한다는 사실로부터 식료품지출액에 ‘3’을 곱해 빈곤선 측정 시 사용하게 된 것이다<sup>10)</sup>. 이후 1963년 Orshansky에 의하여 처음 설정된 빈곤기준선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만을 반영하여 발표되고 있다.

한편 빈곤지침선(PG)은 4인 가구 기준의 전년도 빈곤기준선(PT)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후 얻게 되는 수치에, 가구원수에 따른 각각의 빈곤기준선(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값들) 사이의 차이를 평균한 값들을 더하거나 빼서 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선 측정방식은 과거 1960년대 초 Orshansky에 의해 개발된 이후 거의 수정·보완 없이 과거 자료에 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하여 계산되어져 왔으므로 1990년대 들어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어졌다<sup>11)</sup>.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로 National Academy Science(NAS)는 1992년 빈곤에 대한 대안적 측정방식을 제안하였다. NAS 패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전체적인 생활수준 변화와 연동되는 빈곤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은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을 공식적인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그러나 ‘3’이란 승수는 1950년대의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1990년대 들어 미국 평균가구가 식료품지출에 소득의 약 1/7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1998: 2).

11) 미국의 빈곤선 개정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박찬용 외, 최저생계비 계층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미국 통계청은 매년 그 전연도의 빈곤기준선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발표한 2009년 4인 가구 기준 가중평균 빈곤기준선은 \$21,954로 2008년도 기준 \$22,025과 비교할 때 \$71 감소하였다. 이는 2009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8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아래의 <표 3-1-2>와 <표 3-1-3>은 2009년 빈곤기준선과 1959년까지의 4인 가구 기준 빈곤기준선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2> 미국의 2009년 빈곤기준선(PT)

(단위: \$)

가족규모	18세 이하 아동									
	가중평균빈곤선	없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1인	10,956									
65세 이하	11,161	11,161								
65세 이상	10,289	10,289								
2인	13,991									
65세 이하	14,439	14,366	14,787							
65세 이상	12,982	12,968	14,731							
3인	17,098	16,781	17,268	17,285						
4인	21,954	22,128	22,490	21,756	21,832					
5인	25,991	26,686	27,074	26,245	25,603	25,211				
6인	29,405	30,693	30,815	30,180	29,571	28,666	28,130			
7인	33,372	35,316	35,537	34,777	34,247	33,260	32,108	30,845		
8인	37,252	39,498	39,847	39,130	38,501	37,610	36,478	35,300	35,000	
9인 이상	44,366	47,514	47,744	47,109	46,576	45,701	44,497	43,408	43,138	41,476

자료: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threshld/thresh09.html>).

〈표 3-1-3〉 미국의 연도별 4인 가구 평균 빈곤기준선(PT)<sup>12)</sup>

(단위: \$)

연도	4인 가구 평균 빈곤기준선	연도	4인 가구 평균 빈곤기준선	연도	4인 가구 평균 빈곤기준선
2009	21,954	1992	14,335	1975	5,500
2008	22,025	1991	13,924	1974	5,038
2007	21,203	1990	13,359	1973	4,540
2006	20,614	1989	12,674	1972	4,275
2005	19,971	1988	12,092	1971	4,137
2004	19,307	1987	11,611	1970	3,968
2003	18,810	1986	11,203	1969	3,743
2002	18,392	1985	10,989	1968	3,553
2001	18,104	1984	10,609	1967	3,410
2000	17,603	1983	10,178	1966	3,317
1999	17,029	1982	9,862	1965	3,223
1998	16,660	1981	9,287	1964	3,169
1997	16,400	1980	8,414	1963	3,128
1996	16,036	1979	7,412	1962	3,089
1995	15,569	1978	6,662	1961	3,054
1994	15,141	1977	6,191	1960	3,022
1993	14,763	1976	5,815	1959	2,973

자료: U.S. Census Bureau ([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historical/hstpov1.xls](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historical/hstpov1.xls)).

빈곤지침선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당해연도의 빈곤지침선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발표한 4인 가구 기준 빈곤지침선은 \$22,050로 2008년도 기준 \$21,200과 비교할 때 \$850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 3-1-4>와 <표 3-1-5>는 2009년에 발표된 빈곤지침선과 1982년까지의 빈곤지침선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4〉 미국의 2009년 빈곤지침선(PG)

(단위: \$)

가족규모	48개 주(워싱턴 D.C.를 포함)	알래스카	하와이
1	10,830	13,530	12,460
2	14,570	18,210	16,760
3	18,310	22,890	21,060
4	22,050	27,570	25,360
5	25,790	32,250	29,660
6	29,530	36,930	33,960
7	33,270	41,610	38,260
8	37,010	46,290	42,560
추가되는 1인당	3,740	4,680	4,300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aspe.hhs.gov/poverty/09poverty.shtml>).

12) 1982년까지의 평균 빈곤기준선에는 농업가구가 제외되어 있다.

〈표 3-1-5〉 미국의 연도별 빈곤지침선(PG)<sup>13)</sup>

(단위: \$)

연도	1인가구	1인당추가증가액	4인가구기준	연도	1인 가구	1인당추가증가액	4인가구기준
2009	10,830	3,740	22,050	1995	7,470	2,560	15,150
2008	10,400	3,600	21,200	1994	7,360	2,480	14,800
2007	10,210	3,480	20,650	1993	6,970	2,460	14,350
2006	9,800	3,400	20,000	1992	6,810	2,380	13,950
2005	9,570	3,260	19,350	1991	6,620	2,260	13,400
2004	9,310	3,180	18,850	1990	6,280	2,140	12,700
2003	8,980	3,140	18,400	1989	5,980	2,040	12,100
2002	8,860	3,080	18,100	1988	5,770	1,960	11,650
2001	8,590	3,020	17,650	1987	5,500	1,900	11,200
2000	8,350	2,900	17,050	1986	5,360	1,880	11,000
1999	8,240	2,820	16,700	1985	5,250	1,800	10,650
1998	8,050	2,800	16,450	1984	4,980	1,740	10,200
1997	7,890	2,720	16,050	1983	4,860	1,680	9,900
1996	7,740	2,620	15,600	1982	4,680	1,540	9,300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aspe.hhs.gov/poverty/figures-fed-reg.shtml>).

#### 라.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미국의 실제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율은 14.3%, 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43,569천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8년의 13.2%와 비교하여 약간 높아진 것이다. 2006년부터 3년 동안 미국의 빈곤율은 12.3%에서 14.3%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종별로 볼 때, 2009년 빈곤율에 있어서 백인(non-Hispanic Whites)은 9.4%, 흑인(Blacks)은 25.8%, 아시안 계통(Asians)이 12.5%, 히스패닉(Hispanic)이 25.3%로 조사되어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과 아시안 계통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빈곤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아동의 빈곤율은 20.7%, 빈곤선 이하 인구는 15,451천명, 18세에서 64세까지 연령대의 빈곤율은 12.9%, 빈곤인구는 24,684천명,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8.9%, 빈곤인구는 3,433천명으로 나타나 18세 이하 아동들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sup>14)</sup> 아래의 <표 3-1-6>은 미국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 온 빈곤선 이하 인구와 빈곤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13) 1982년의 빈곤지침선에는 농업가구가 제외되어 있다.

14) 열거된 빈곤율과 빈곤인구는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계측조사인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9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CPS ASEC)에서 조사된 것이다(<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index.html>).

〈표 3-1-6〉 빈곤기준선(PT) 이하의 인구 및 빈곤율

(단위: 천명, %)

연도	인구 수	빈곤율	연도	인구 수	빈곤율	연도	인구 수	빈곤율
2009	43,569	14.3	1992	38,014	14.8	1975	25,877	12.3
2008	39,829	13.2	1991	35,708	14.2	1974	23,370	11.2
2007	37,276	12.5	1990	33,585	13.5	1973	22,973	11.1
2006	36,460	12.3	1989	31,528	12.8	1972	24,460	11.9
2005	36,950	12.6	1988	31,745	13.0	1971	25,559	12.5
2004	37,040	12.7	1987	32,221	13.4	1970	25,420	12.6
2003	35,861	12.5	1986	32,370	13.6	1969	24,147	12.1
2002	34,570	12.1	1985	33,064	14.0	1968	25,389	12.8
2001	32,907	11.7	1984	33,700	14.4	1967	27,769	14.2
2000	31,581	11.3	1983	35,303	15.2	1966	28,510	14.7
1999	32,791	11.9	1982	34,398	15.0	1965	33,185	17.3
1998	34,476	12.7	1981	31,822	14.0	1964	36,055	19.0
1997	35,574	13.3	1980	29,272	13.0	1963	36,436	19.5
1996	36,529	13.7	1979	26,072	11.7	1962	38,625	21.0
1995	36,425	13.8	1978	24,497	11.4	1961	39,628	21.9
1994	38,059	14.5	1977	24,720	11.6	1960	39,851	22.2
1993	39,265	15.1	1976	24,975	11.8	1959	39,490	22.4

자료: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histpov/hstpov2.html>).

#### 마. 공공부조제도와의 관계: 활용도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계적 혹은 행정적인 목적으로 계측되고는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공공부조 급여액(최저소득보장) 설정을 위하여 활용되기보다는 빈곤율의 산출이나 급여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수급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보건복지부의 빈곤지침선(PG)은 특정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의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들은 빈곤지침선(PG)의 125% 내지는 185%를 수급자격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빈곤지침선(PG)을 이용하는 제도로는 공립학교 급식 프로그램, Head Start, 저소득가구 연료비 지원(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과거의 Food Stamp),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현금지원성의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빈곤지침선(PG)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이 있다.



## 2. 영국의 최저생계비

###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영국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Rowntree에 의해 1899년 빈곤선이 최초로 계측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빈곤선—엄밀한 의미로는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에서는 두 가지 전통에 의해 준 공식적인 빈곤선이 계측되고 있다. 하나는 Rowntree에 의해 최초로 시도된 절대적 빈곤선 계측방식에 기초한 표준예산접근방식, 즉 전물량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이후 국제비교와 통계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 측정되는 상대적 방식, 즉 저소득 기준이 그것이다.

먼저, 영국의 사회부조 급여기준액은 원래 마켓 바스켓방식에 의한 절대적 빈곤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는 라운트리(Rowntree)가 두 번째로 1938년에 요크시를 대상으로 측정한 ‘인간욕구’의 척도를 베버리지가 인용한데서 출발한다. 1948년의 사회부조 급여액은 이러한 베버리지의 사회부조 스케일값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1948년부터 1996년 사이에 사회부조 급여액은 12번 상승되었으며,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증액되었다. 현재 사회부조(Income Support) 급여액은 소매물가지수(RPI)에 기초한 새로운 지수인 로시지수(Rossi index)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영국 사회부조급여액은 1948년 다소 모호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이래 비체계적으로 갱신되어 왔기 때문에 빈곤의 기준으로서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물량방식에 의한 빈곤의 측정은 사회부조 급여기준액의 기원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사회부조 급여기준액이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되고 갱신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신 1985년에 York 대학에서 형성된 Family Budget Unit(FBU)에 의한 연구가 Rowntree의 전통을 잇고 있다. 표준예산접근(budget standard approach)이라 불리는 이 접근법은 라운트리의 마켓 바스켓에 기초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York 대학의 Jonathan Bradshaw 교수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예산 표준 접근은 ‘저비용이지만 받아들일만한’(low cost but acceptable) 생계비와 ‘간소하나

적절한(modest but adequate) 생계비의 두 가지를 계측하고 있다. 표준예산접근방식은 각 가구 유형에 대한 적절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개개의 항목에 가격이 매겨지고, 합해진 예산을 가족 유형에 따른 빈곤선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상대빈곤선으로서 소득의 평균값 또는 중위값은 OECD와 EU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빈곤선 측정방식이다<sup>5)</sup>. 영국의 보건복지부(DWP)에 의해 발행되는 『Household Below Average Income』 시리즈 수치도 중위소득의 60%와 평균소득 50%를 저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질적 박탈과 저소득’ 측정치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sup>6)</sup>.

이와 같이, 영국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는다<sup>7)</sup>. Rossi index는 공공부조 급여증액을 위해 소매물가지수(RPI)를 약간 변형한 지수로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를 빈곤선 계측방식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FBU에 의한 표준예산접근은 민간(York 대학)에서 계측되고 있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준공식적 빈곤선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민간기구들의 대정책 압력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빈곤 인구를 측정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을 준공식적 빈곤선이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영국의 DWP에 의해 발간되는 『Household Below Average Income』(이하 HBAI)에서 사용되는 준공식적 빈곤선은 중위소득 60% 미만 또는 평균소득의 50%

15) 예를 들면, EU 통계 기관 Eurostat는 각 국가에서 중위 소득 60%를 한계로 EU 회원국 소득 빈곤 수치로 사용하고 있다.

16) 박탈지표접근은 Peter Tonwsend의 『영국의 빈곤』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1980년대 Mack과 Lansley에 의해, 1990년대에 Gordon과 Pantazis에 의해 재정비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Joseph Rowntree Foundation (JRF)에서 실행한 1999 빈곤과 사회적 배제 조사(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urvey)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17) Veit-Wilson이 1989년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인 MIS(Minimum Income Standard)를 도입하고자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기준이다. 이 때 사용되는 소득 개념은 균등화된 순가처분소득이며, 균등화를 위해 사용되는 지수는 McClement 균등화지수이다. 또한, 균등화를 위한 준거가구는 자녀가 없는 부부이다. McClements 균등화지수를 OECD 균등화지수와 비교하면 아래 <표 3-1-7>과 같다. HBAI는 횡단면 조사인 UK DWP Family Resource Survey(FRS)를 활용하여 분석된다. 2008/09의 경우 총 조사대상 가구수는 Great Britain 23,163가구, Northern Ireland 1,929가구였다. 추가로 종단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BHPS)를 활용하여 분석된다.

<표 3-1-7> McClements 균등화지수와 OECD 균등화지수 비교

	OECD (BHC)	OECD (AHC)	McClements (BHC)	McClement (AHC)
첫 번째 성인	0.67	0.58	0.61	0.55
배우자	0.33	0.42	0.39	0.45
배우자와 두번째 성인	0.33	0.42	0.46	0.45
세 번째 성인	0.33	0.42	0.42	0.45
기타 성인	0.33	0.42	0.36	0.40
14세미만 아동	0.20	0.20	0.20	0.20
14세이상 아동	0.33	0.42	0.32	0.34

주: BHC(Before housing cost), AHC(Afer housing cost).

자료: DWP(2007), Low-Income Dynamics, 1991-2007.

다음으로 표준예산접근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Rowntree의 전통에 기초한 전물량방식에 의한 빈곤선 계측방식이다. 'Low Cost but Acceptable'(LCA)와 더 관대한 'Modest but Adequate'(MBA)의 두 가지로 계측되는 표준예산접근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조사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 LCA 기준 내에서 특정 항목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다음에 기초하고 있다.

‘소유율’(즉,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전국조사로부터 도출된 사회에서의 지배적 소비패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즉, 또한 조사로부터 도출된 현대 생활에서 무엇이 필수품인가에 대한 합의)

이와 같이, LCA 기준은 가구의 80%가 소유한 항목 혹은 2/3에 의해 필수품

이라 간주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예컨대, 냉장고는 1960년대 후반에는 포함되지 않았겠지만 현재는 포함된다. MBA 기준선은 인구의 50% 이상 소유한 항목을 포함하며, 더 높고 풍요로운 생활수준을 산출한다. 일단 조사들로부터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품목, 가격, 그리고 내구기간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옷과 가구들에 대한 작업에서, 키친타월은 6년, 다른 타월과 침구시트는 12년 지속된다고 보고하며, 이러한 것들은 최소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아울렛 가격을 매긴다. 이와 같이, 영국 FBU의 표준예산접근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층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계층되고 있다.

####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영국의 실질적인 준공식적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 60% 기준과 평균소득 50% 기준은 주(week) 소득 기준으로 산출되며, 2008/09년의 경우 아래 <표 3-1-8>과 같다.

<표 3-1-8>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2008/09)

	(단위: 주당, £)		
	Mean	Median	60% median
Before Housing Costs			
Couple with no children	507	407	244
Single with no children	339	273	164
Couple with two children aged 5 and 14	775	623	374
Single with two children aged 5 and 14	608	489	293
After Housing Costs			
Couple with no children	433	343	206
Single with no children	251	199	119
Couple with two children aged 5 and 14	701	555	333
Single with two children aged 5 and 14	519	411	247

자료: DWP (2010)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HBAI) 1994/95-2008/09』.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균등화된 순가처분소득 산출에 있어 준거가 되는 가구는 자녀 없는 부부가구(2인)이다.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주당 평균소득은

£507이며, 중위소득의 경우 £407이다.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선은 £244이다. 이러한 빈곤선은 주거비를 제외한 후에는 £38이 줄어들어서 중위소득의 60% 기준 빈곤선의 경우 £206이 된다. 우리나라의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5~14세 자녀 2명을 둔 부부가구의 경우 빈곤선은 중위소득 60%기준으로 £374이다. 또한 주거비용을 제외한 빈곤선은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333이다.

라.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이와 같이, 매년 계속되는 준공식 빈곤선 그 중에서도 중위소득 60% 기준에 의해 가구특성별 빈곤율이 산출되고 있다. 아래 <표 3-1-9>는 중위소득 60%(와 70%) 기준에 의해 산출된 빈곤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비를 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60% 기준 전체 빈곤율은 8~1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비를 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15%로 빈곤율이 다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3-1-9>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2007)

(단위: %)

	주거비 포함(BHC)		주거비 제외(AHC)	
	Below 60% of median	Below 70% of median	Below 60% of median	Below 70% of median
All individuals				
1991 to 1994	12	20	15	22
1992 to 1995	12	20	15	23
1993 to 1996	11	20	14	22
1994 to 1997	12	20	15	22
1995 to 1998	11	20	15	22
1996 to 1999	12	20	15	21
1997 to 2000	12	20	14	21
1998 to 2001	12	19	14	21
1999 to 2002	11	19	13	21
2000 to 2003	10	19	12	21
2001 to 2004	10	19	11	20
2002 to 2005	9	17	11	19
2003 to 2006	8	17	9	18
2004 to 2007	8	17	10	18

자료: BHPS 1991-2007; DWP, Low-Income Dynamics, 1991-2007.

〈표 3-1-9〉 계속

(단위: %)

	주거비 포함(BHC)		주거비 제외(AHC)	
	Below 60% of median	Below 70% of median	Below 60% of median	Below 70% of median
Children				
1991 to 1994	19	29	25	32
1992 to 1995	18	28	23	32
1993 to 1996	17	27	22	31
1994 to 1997	17	27	23	31
1995 to 1998	17	28	23	31
1996 to 1999	17	28	23	31
1997 to 2000	17	27	22	30
1998 to 2001	17	26	21	30
1999 to 2002	16	27	20	30
2000 to 2003	14	25	17	28
2001 to 2004	12	23	15	27
2002 to 2005	11	21	16	26
2003 to 2006	10	20	14	24
2004 to 2007	10	21	15	26
Working-age adults				
1991 to 1994	8	13	10	14
1992 to 1995	8	13	10	16
1993 to 1996	7	13	10	15
1994 to 1997	7	12	10	14
1995 to 1998	7	13	10	14
1996 to 1999	7	13	9	14
1997 to 2000	7	12	9	14
1998 to 2001	7	12	9	14
1999 to 2002	7	12	8	14
2000 to 2003	6	12	8	14
2001 to 2004	6	12	8	13
2002 to 2005	6	11	8	13
2003 to 2006	5	11	7	13
2004 to 2007	5	11	7	13
Pensioners				
1991 to 1994	19	37	17	38
1992 to 1995	19	35	17	39
1993 to 1996	19	34	18	38
1994 to 1997	21	35	20	40
1995 to 1998	20	36	22	38
1996 to 1999	20	36	22	37
1997 to 2000	20	38	22	38
1998 to 2001	21	37	23	38
1999 to 2002	19	37	20	38
2000 to 2003	18	36	20	37
2001 to 2004	17	36	20	37
2002 to 2005	16	32	17	33
2003 to 2006	16	31	16	32
2004 to 2007	14	29	12	29

자료: BHPS 1991-2007; DWP, Low-Income Dynamics, 1991-2007.

또한 근로인구의 빈곤율은 주거비를 제하기 전 기준으로 5~8%, 주거비를 제한 후 기준으로 7~10% 수준인데 비해, 아동빈곤율의 경우 각각 10~19%, 14~25% 수준이며, 연금수급자(주로 노인) 빈곤율의 경우 각각 14~21%, 12~22%로 근로인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아동의 빈곤율은 최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마. 공공부조제도와와의 관계: 활용도

영국은 빈곤분석에 사용되는 빈곤선과 공공부조기준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주지한 바와 같이, 공공부조기준선은 Income Support 급여기준이 사용되며, 이는 매년 소매물가지수(RPI)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지수인 Rossi Index에 의해 조정된다. Income Support의 급여는 개인수당과 부가금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수당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본 생활비를 의미하며, 부가금은 특별한 욕구가 있는 가족 혹은 개인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sup>18)</sup>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의 부부와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Income Support 기준은 1991년에는 중위소득<sup>19)</sup> 60%의 48.21%수준이었으며, 2004년에는 중위소득의 72.66%에 이른다. 중위소득 60% 대비 가구유형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 비율을 보면, 아동이 없는 독신 36.9%, 아동이 없는 부부 38.9%, 아동이 2명인 독신 44.3%, 아동이 2명인 부부 58.0% 수준이다<sup>20)</sup>.

이와 같이 준공식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60% 기준과 Income Support의 급여기준과는 실질적인 연계성이 없다. 또한, 영국의 경우 주거급여 등이 개별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Income Support의 급여수준과 빈곤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준공식적 빈곤선은 정책적 방향성과 우선순위의 배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이후 아동빈곤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이러한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 산출 결과에 대한 정책적 반응에 힘입은 바 크다. 뿐만 아니라, 준공식적 빈곤선은 아니지만 FBU에서 계측하는 표준

18) 장애부가급여, 한부모 부가급여 등이 있다.

19) 주거비 지출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20) 아동이 없는 경우가 아동이 있는 경우보다 부부가 독신보다 선정기준이 높다.

예산접근에 의한 ‘Low Cost but Acceptable’(LCA)도 정부 정책, 특히 연금급여  
증액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표 3-1-10〉 연도별 소득보조 선정기준

(단위: 주당, £)

구분	개인수당 <sup>1)</sup>			부가금 <sup>1)</sup>			표준가구 <sup>2)</sup> (a)	중위소득의 60% <sup>3)</sup> (b)	(a)/(b)
	25세이상 독신	18세이상 부부	11세이하 아동	가족	중증 장애	노인			
1991	39.65	62.25	13.35	7.95	31.25	13.75	96.90	201	48.21
1992	42.45	66.60	14.55	9.30	32.55	14.70	105.00	200	52.50
1993	44.00	69.00	15.05	9.65	33.70	17.30	108.75	207	52.54
1994	45.70	71.70	15.65	10.05	34.30	18.25	113.05	208	54.35
1995	46.50	73.00	15.95	10.25	35.05	18.60	115.15	212	54.32
1996	47.90	75.20	16.45	10.55	36.40	19.15	118.65	220	53.93
1997	49.15	77.15	16.90	10.80	37.15	19.65	121.75	219	55.59
1998	50.35	79.00	17.30	11.05	38.50	20.10	124.65	229	54.43
1999	51.40	80.65	20.20	13.90	39.75	23.60	134.95	233	57.92
2000	52.20	81.95	26.60	14.25	40.20	26.25	149.40	241	61.99
2001	53.05	84.65	31.45	14.50	41.55	39.10	162.05	248	65.34
2002	53.95	84.65	33.50	14.75	42.25	44.20	166.40	255	65.25
2003	54.65	85.75	38.50	15.75	42.95	47.45	178.50	258	69.19
2004	55.65	87.30	42.27	15.95	44.15	49.80	188.19	259	72.66
2005	56.20	88.15	43.88	16.10	45.50	53.25	192.01	258	74.42
2006	57.45	90.10	45.58	16.25	46.75	56.60	197.51	262	75.39
2007	59.15	92.80	47.45	16.43	48.45	59.90	204.13	261	78.21
2008	60.50	94.95	52.59	16.75	50.35	63.55	216.88	260	83.42

주: 1) 각년도 4월 기준

2) 한국의 표준가구기준(36세 부, 33세 모, 7세와 5세의 자녀)을 따라 30세 이상의 부부와 2명의 아동. 주거비지출이전

3) Equivalised income levels (in January 2009 prices).

자료: DWP(2010), Low-Income Dynamics 1991-2008(Great Britain). <http://www.dwp.gov.uk/docs/benefit-rates-2008.pdf>.

〈표 3-1-11〉 가구유형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2008/09)

(단위: 주당, £)

구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 (a)	주거비지출이전		주거비지출이후		(a)/(b)
		중위 소득	중위 소득의 60%(b)	중위 소득	중위 소득의 60%	
아동이 없는 독신	60.50	273	164	199	119	36.9
아동이 없는 부부	94.95	407	244	343	206	38.9
5-14세의 아동이 2명이 있는 독신	129.84 <sup>1)</sup>	489	293	411	247	44.3
5-14세의 아동이 2명 있는 부부	216.88 <sup>2)</sup>	623	374	555	333	58.0

주: 1) 아동 2명 있는 독신가구에 대한 소득보조 최대급여액의 경우 11세 이하 아동 1명이 있는 독신가구 기준임.

2) 아동 2명 있는 부부에 대한 소득보조 최대급여액의 경우 아동 2명의 연령은 모두 11세 이하 기준임.

자료: DWP(2010),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1994/95-2008/09.



### 3. 캐나다의 최저생계비

####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달리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빈곤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와 비정부조직들은 빈곤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캐나다의 저소득(low income)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빈곤선으로 LICOs(Low Income Cut-Offs), LIM(Low Income Measures), MBM(Market Basket Measure) 3가지가 존재한다. 특히, LICOs(Low Income Cut-Offs)는 캐나다에서 저소득(low income) 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어 준공식적 빈곤선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캐나다에서 빈곤선은 1967년 Jenny Poduluk이 개발한 빈곤측정 방식인 LICOs가 캐나다 경제의회(Economic Council)에서 발행하는 Fifth Annual Review에 발표되면서 알려졌다. 이는 캐나다 통계청의 가구소비조사(Family Expenditure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캐나다 평균가구의 의·식·주 비용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다소 임의적이긴 하지만, 그 비율에 20%를 더 소비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빈곤선으로 선정하였다.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1973년 이후 가구규모와 지역 규모별로 빈곤선을 달리 제시하였다(Ross, 2000).

그러나 1989년 캐나다 통계청은 Michael Wolfson & John Evans의 논의문서<sup>21)</sup>(Discussion Paper) 발표를 계기로 기존 빈곤선 측정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가구규모에서는 가구구성원이 성인인지 혹은 아동인지를 구별하도록 하자는 의견, 지역규모별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안적인 방안으로 LIMs(Low Income Measures)가 빈곤선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Ross, 2000). 이후 2010년에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LIMs 측정 개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sup>22)</sup>을 수정하였다.

21) Michael Wolfson and John Evans, "Statistics Canada's Low Income Cut-Offs Methodological Concerns and possibilities: A Discussion Paper"(Ottawa: Statistics Canada, December 1989).

22) 2010년에 LIMs 측정과 관련한 개념들에서 변동된 사항은 세는 단위(accounting unit), 분석의 구성단위(unit of analysis) 그리고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 세 가지이다. 우선, 세는 단위(accounting unit)와 관련하여 economic family(가족)에서 household(가구)개념으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분석의

이는 LIMs의 강점을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수정하였다(Murphy, Zhang and Dionne, 2010).

또한 마켓 바스켓 측정방식을 적용한 MBM(Market Basket Measure)은 지방과 연방 Social Service 관료들이 저소득층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면서 1997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캐나다 인간자원 및 기술의 개발(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0년도에 최초로 MBM 방식에 기초하여 빈곤선이 측정되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 초 동안 MBM 방식과 관련하여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Hatfield, Pyper and Gustajtis, 2010). 이는 MBM 방식이 2010년 캐나다에서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검토과정으로 초창기 2000년(base) MBM과는 다른 새로운 산정기준인 2008년(base) MBM 방식에 의해 빈곤선이 측정되었다(Statistics Canada, 2010). MBM은 비록 공식적인 빈곤선은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저소득층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LICOs는 저소득 가구집단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가구규모와 지역규모별로 가구집단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으로 간주한다. LICOs는 과세 전 소득에서 의·식·주에 대한 소비 비율이 평균가구보다 20% 높은 가구의 소득수준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이는 가구규모와 지역규모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된다(Statistics Canada, 2010).

캐나다 통계청은 현재 1992년 가구소비자료에 기초한 LICOs를 사용하고 있다. 매년 LICOs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갱신하고 있다(Statistics Canada, 2010). 그러므로, 가격변동은 고려된 반면, 1992년 이후의 소비패턴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매년 갱신방식은 다음 공식과 같다.

---

구성단위(unit of analysis)와 관련해서는 중위값 계산 시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에 의해 계산하도록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LIM 균등화 지수를 가구원수의 제곱근(the square root of household size)으로 대체하였다(Statistics Canada, 2010).

$$L_y = \frac{L_{y-1} \times C_y}{C_{y-1}}$$

여기에서,  $L_y$ 는 현재 해(y)의 cut-off.

$L_{y-1}$ 은 지난 해(y-1)의 cut-off.

$C_y$ 는 현재 해(y)의 CPI.

$C_{y-1}$ 은 지난 해(y-1)의 CPI.

LIM은 가구의 욕구(needs)를 고려한 조정된(adjusted) 가구의 중위소득을 구하고, 그 값의 50% 소득 수준으로 측정된다. 가구 규모에 따른 조정(adjustment)은 가구원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구의 욕구가 증가되는 사실을 반영한다. 즉, LIM은 5인가구가 2인 가구보다 비용이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Statistics Canada, 2010).

LIM의 측정방법은 우선 가구소득을 ‘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눔으로써 ‘가구의 1인 균등화된 소득’을 구한다. 그리고서 ‘가구의 1인 균등화된 소득’에서 중위값을 구한다. 1인 가구에 대한 LIM은 ‘가구의 1인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값의 50%가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한 ‘1인 가구에 대한 LIM’값에 ‘ $\sqrt{\text{가구원수}}$ ’를 곱하여 가구 규모별 LIMs를 구한다(Statistics Canada, 2010).

MBM은 가구가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MBM을 측정하기 위한 마켓 바스켓 품목으로 식료품(food)<sup>23)</sup>, 피복 및 신발(clothing and footwear), 주거(shelter), 교통(transportation), 기타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2008년(base) MBM 방식은 2000년(base) MBM방식과는 달리 장바구니(basket)구성요소에서 품목, 가격 계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계산과 49개로 지리적인 지역의 범위 이 네 가지 사항의 변화를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LICOs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공표된 LICOs 이하에 살고 있는 가구는 ‘빈곤한 환경’에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시된 <표 3-1-12>는 지역규모와 가구규모에 따른 35개의 다양한 LICOs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9년 과세후 소득을 기

23) 2008년(base) MBM 방식에서 식료품 비용은 ‘2008년 National Nutritious Food Basket’에서 지정한 영양식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준으로 한 빈곤선이다. 아래의 <표 3-1-12>를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는 소득이 \$34,829 미만인 경우에 빈곤층으로 간주하지만, 지방에 사는 4인 가구는 소득이 \$22,783 이상인 경우 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2009년에 제시된 LICOs는 2008년에 제시된 LICOs보다 약 0.3%(24) 인상된 값으로 나타난다.

<표 3-1-12> 캐나다의 LICOs(2009년 과세후 소득 기준)

(단위: \$)

가구 규모	지역 규모				
	500,000인 이상 도시	100,000 ~ 499,999	30,000 ~ 99,999	30,000 이하	지방
1인	18,421	15,579	15,384	13,791	12,050
2인	22,420	18,960	18,725	16,785	14,666
3인	27,918	23,610	23,316	20,900	18,263
4인	34,829	29,455	29,089	26,075	22,783
5인	39,660	33,541	33,124	29,692	25,944
6인	43,984	37,198	36,736	32,929	28,773
7인 이상	48,308	40,854	40,346	36,167	31,602

자료: Income Research Paper series: Low Income Lines, 2008-2009, Statistics Canada.

LIMs 역시 캐나다 통계청에 의해 공표되며, 이는 SLID(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장 소득, 세전 소득, 세후 소득 개념에 의해 세 가지로 측정된다. <표 3-1-13>은 2005년~2008년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LIMs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13> 캐나다의 LIMs(4인 가구 기준)

(단위: \$)

연도	소득 개념		
	시장 소득	세전 소득	세후 소득
2005	33,216	37,380	32,326
2006	34,170	38,726	33,470
2007	35,722	40,506	35,404
2008	37,644	42,378	37,164

주: 위에 제시된 값을 '2(4인가구의 제공금)'로 나누고서 이 값에 원하는 가구규모의 제공금을 곱하면 가구규모별 LIMs를 구할 수 있다.

자료: Income Research Paper series: Low Income Lines, 2008-2009, Statistics Canada.

24) '캐나다 통계청에서 LICOs 계산 시 2002년 CPI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CPI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Statistics Canada, 2010). CPI는 2002년을 100으로 할 때, 2008년에는 114.1, 2009년에는 114.4를 적용했기 때문에 08년 대비 09년에 적용된 LICOs는 전년대비 0.3%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MBM은 비목구성 기준은 같지만, 지역별로 MBM 빈곤선은 다르다. 즉, 마켓 바스켓의 총 비용은 49개<sup>25)</sup> 다른 지역규모별로 측정된다. <표 3-1-14>는 간략히 주요한 4개 도시지역의 성인 2인과 아동 2인 기준의 MBM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14> 캐나다의 2007년 MBM 빈곤선(성인 2인과 아동 2인 기준, 2008년 base)

(단위: \$)

	식료품	의복과 신발	주택	운송	기타	합계
Montreal	7,775	1,956	7,120	2,230	7,456	<b>26,537</b>
Toronto	7,343	2,009	9,345	3,646	7,165	<b>29,509</b>
Calgary	7,971	2,172	8,758	2,609	7,771	<b>29,281</b>
Vancouver	8,275	2,247	7,456	2,378	8,062	<b>28,418</b>

자료: Hatfield, M., Pyper, W. and Gustajtis, B. (2010). First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arket Basket Measure of Low Income. Applied Research Branch paper.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 라.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앞서 설명한 각각의 빈곤선 측정방법들이 개인과 가구의 다양한 구성형태에 따라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과 빈곤의 심도(Depth of Low incom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2000년 측정방식에 의한 2007년 MBM과 2007년 LICO-IAT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 3-1-15>와 <표 3-1-16>은 MBM과 LICO-IAT가 개인과 가구의 다양한 구성형태에 따른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과 빈곤의 심도(Depth of Low income)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15>에서 말하는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은 빈곤선 아래의 가처분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하는 개인들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가구 가처분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면 그 가구와 개인은 저소득층으로 간주한다. <표 3-1-16>에서 말하는 빈곤의 심도(Depth of Low income)는 빈곤층이 빈곤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가? 즉,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관련 빈곤선에 미달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의 경우 두 가지 측정방법에서 공통적으로 18세 미만을 제외하고 여성 빈곤율이 남성 빈곤율 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의 심도(Depth of

25) 인구규모가 30,000인에서 99,999인 사이에 있는 도시가 New Brunswick 주에 49번째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Low income)에서는 전체 개인으로 볼 때 MBM에 의해 나타나는 빈곤의 심도는 LICO-IAT에 의한 빈곤의 심도 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MBM에 의해 측정된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gap)는 다른 측정방법에 의한 차이(gap)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15〉 캐나다의 2007년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

(단위: %)

구분	MBM (2000년 base)	LICO-IAT
<b>전체 개인</b>	10.1	9.2
18세 미만	11.9	9.5
18세이상~ 64세이하	11.1	9.9
65세 이상	2.6	4.8
<b>남성</b>	10.0	9.0
18세 미만	12.1	9.9
18세이상~ 64세이하	10.6	9.7
65세 이상	2.2	3.3
<b>여성</b>	10.3	9.4
18세 미만	11.7	9.0
18세이상~ 64세이하	11.5	10.2
65세 이상	2.8	6.0
<b>전체가구</b>	13.3	13.3

주: MBM=Market Basket Measure(2000년 base), LICO-IAT=post-income tax Low Income Cut-off. 2007년 기준.  
 자료: HRDC(2009), Low Income in Canada: 2000-2007 Using the Market Basket Measure, Final Report.

〈표 3-1-16〉 캐나다의 2007년 빈곤의 심도(Depth of Low income)

구분	MBM	LICO-IAT
<b>전체 개인</b>	0.326	0.329
18세 미만	0.260	0.262
18세이상~ 64세이하	0.352	0.364
65세 이상	0.258	0.166
<b>남성</b>	0.345	0.347
18세 미만	0.268	0.268
18세이상~ 64세이하	0.377	0.384
65세 이상	0.237	0.187
<b>여성</b>	0.309	0.311
18세 미만	0.251	0.256
18세이상~ 64세이하	0.329	0.346
65세 이상	0.272	0.157
<b>전체가구</b>	0.371	0.368

주: MBM=Market Basket Measure, LICO-IAT=post-income tax Low Income Cut-off. 2007년 기준.  
 자료: HRDC(2009), Low Income in Canada: 2000-2007 Using the Market Basket Measure, Final Report.

마. 공공부조제도와와의 관계: 활용도

캐나다의 경우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빈곤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급여의 종류나 수준 등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즉, 캐나다의 복지소득(welfare income) 수준은 지방의 자율적 결정 권한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캐나다의 총 복지소득(Total Welfare Income)을 구성하는 세부 프로그램별 소득유형을 살펴보면 <표 3-1-17>과 같다.

<표 3-1-17> 총 복지소득의 구성 프로그램별 소득유형

구분	설명
Basic Social Assistance	수급자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함. 여기에는 의식주, 공과금(utilities), 개인·가구욕구에 대한 급여를 포함함.
Additional Benefits	교통수당, 이동양육, drug benefits와 non-insured medical service와 같은 특정욕구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말함.
Federal Child Benefits	아동 급여 프로그램은 소득조사(income test)에 기초하여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
Province/Territorial Child Benefits	6개 주와 3개의 준주에서 아동급여 프로그램이 적용됨.
GST Credit	저소득 개인이나, 가족 등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로서, 가족의 순수입, 자녀의 수 및 결혼상황에 따라 세금공제여부와 금액이 결정됨.
Provincial/Territorial Tax Credits	이 역시 GST Credit과 같은 세금공제제도이며, 주별로 그 명칭에 차이가 있음.

자료: National council of welfare(2008), Welfare Incomes 2006 and 2007.

다음으로 <표 3-1-18>은 캐나다의 복지관련 급여수준을 주별로 정리한 것으로 대표적인 4개의 주 만을 제시하였다. 가구구성은 실업단독가구(a single employable person), 장애인(a single person with a disability), 한부모·한자녀(a lone-parent with a 2-year-old child), 부부·두 자녀(a two-parent family with two children aged 10 and 15)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에서 설명되는 총 복지소득(Total Welfare Income)은 각 주별 복지급여, 아동급여, Tax Credit 프로그램, 연방아동급여, GST Credit을 포함한다. 또한 제시된 급여수준은 가구구성별로 받게 되는 최대(기본)복지 급여액<sup>26)</sup>이다(National council of welfare, 2008).

26) 이러한 급여는 거주지(residence), 아동의 나이(ages of children), 가구주의 고용가능성, 주거유형, case history의 기본적인 가정들을 전제로 data를 구성하여 산출하였다.

〈표 3-1-18〉 2007년 가구구성별 각 주의 복지급여수준

(단위: \$)

지역	총복지소득의 구성프로그램별 소득유형	실업 단독가구	장애인	한부모 · 한자녀	부부 · 두자녀
Quebec	Basic Social Assistance	6,865	10,225	8,257	10,635
	Additional Benefits	-	-	960	1,159
	Federal Child Benefits	-	-	4,435	6,244
	Province/Territorial Child Benefits	-	-	2,823	3,136
	GST Credit	235	275	593	716
	Provincial/Territorial Tax Credits	-	-	-	-
	Total Welfare Income	7,099	10,500	17,068	21,890
Ontario	Basic Social Assistance	6,587	11,768	10,654	12,645
	Additional Benefits	-	-	111	429
	Federal Child Benefits	-	-	4,435	6,244
	Province/Territorial Child Benefits	-	-	250	500
	GST Credit	235	312	593	716
	Provincial/Territorial Tax Credits	382	302	397	524
	Total Welfare Income	7,204	12,382	16,439	21,058
Alberta	Basic Social Assistance	4,824	7,266	8,784	12,996
	Additional Benefits	-	936	-	275
	Federal Child Benefits	-	-	4,327	6,332
	Province/Territorial Child Benefits	-	-	-	-
	GST Credit	235	238	593	716
	Provincial/Territorial Tax Credits	-	-	-	-
	Total Welfare Income	5,059	8,440	13,703	20,319
British Colombia	Basic Social Assistance	7,020	10,727	11,047	12,883
	Additional Benefits	35	35	80	290
	Federal Child Benefits	-	-	4,435	6,244
	Province/Territorial Child Benefits	-	-	0	0
	GST Credit	235	288	593	716
	Provincial/Territorial Tax Credits	75	75	75	150
	Total Welfare Income	7,365	11,125	16,230	20,283

자료: National council of welfare(2008), Welfare Incomes 2006 and 2007.

캐나다에서는 공식적인 빈곤선이 부재함에 따라, <표 3-1-19>에서는 캐나다 통계청에 의해 개발된 과세 후 소득의 LICOs를 캐나다의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위소득, 빈곤선, 총복지소득의 관계를 통해 캐나다의 빈곤선의 수준을 설명하도록



한다. 국내의 경우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빈곤선과 총복지소득(최대공공부조급여액)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먼저 빈곤선의 수준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빈곤선은 중위소득 대비 37~8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공부조급여의 최대액인 총복지소득의 수준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대비 18~5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캐나다의 공공부조제도는 수급자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준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빈곤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정기준이 되는 빈곤선과 급여 최대액인 총복지소득 간 격차를 비교하면, 빈곤선 대비 28~78%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19〉 2007년 총복지소득, 빈곤선, 중위소득 간의 관계

(단위: \$)

지역	구분	실업 단독가구	장애인	한부모 · 한자녀	부부 · 두자녀
Quebec	Total Welfare Income(A)	7,099	10,500	17,068	21,890
	poverty Line(B)	17,954	17,954	21,851	33,946
	Median Income(C)	20,345	20,345	32,306	71,973
	빈곤선 대비 총복지소득(A)/(B)	40%	58%	78%	64%
	중위소득 대비 총복지소득(A)/(C)	35%	52%	53%	30%
	중위소득 대비 공식빈곤선(B)/(C)	88%	88%	68%	47%
Ontario	Total Welfare Income(A)	7,204	12,382	16,439	21,058
	poverty Line(B)	17,954	17,954	21,851	33,946
	Median Income(C)	21,674	21,674	33,226	74,222
	빈곤선 대비 총복지소득(A)/(B)	40%	69%	75%	62%
	중위소득 대비 총복지소득(A)/(C)	33%	57%	49%	28%
	중위소득 대비 공식빈곤선(B)/(C)	83%	83%	66%	46%
Alberta	Total Welfare Income(A)	5,059	8,440	13,703	20,319
	poverty Line(B)	17,954	17,954	21,851	33,946
	Median Income(C)	28,830	28,830	39,565	92,113
	빈곤선 대비 총복지소득(A)/(B)	28%	47%	63%	60%
	중위소득 대비 총복지소득(A)/(C)	18%	29%	35%	22%
	중위소득 대비 공식빈곤선(B)/(C)	62%	62%	55%	37%
British Colombia	Total Welfare Income(A)	7,365	11,125	16,230	20,283
	poverty Line(B)	17,954	17,954	21,851	33,946
	Median Income(C)	22,696	22,696	33,022	71,462
	빈곤선 대비 총복지소득(A)/(B)	41%	62%	74%	60%
	중위소득 대비 총복지소득(A)/(C)	32%	49%	49%	28%
	중위소득 대비 공식빈곤선(B)/(C)	79%	79%	66%	48%

자료: National council of welfare(2008), Welfare Incomes 2006 and 2007.

#### 4. 호주의 최저생계비

#####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호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빈곤측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60년대에 개발된 헨더슨 빈곤선(Henderson Poverty Line)이 준공식적 빈곤선으로 복지정책과 급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빈곤 연구의 시발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07년 Harvest 판결로 알려진 재판에서 Higgins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자 기본욕구(The Human Needs of Labour)로 알려져 있다(Saunders 1998). 이 판결에서 Higgins 판사는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평균적인 파용자의 정상적인 욕구에 적절한 기초임금을 근로일당 7실링 혹은 주당 42실링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1920년 왕립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임금이 권고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분기 가격변화에 따라 기초임금을 자동적으로 연동시키는 제안이 채택되었다(Saunders 1998).

이후 1964년에 호주의 빈곤선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친 헨더슨 빈곤선(Henderson Poverty Line)이 고안되었다. 헨더슨 빈곤선은 Henderson 교수의 지휘아래 멜버른 대학 응용경제·사회조사연구소(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가 시행한 빈곤조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초임금<sup>27)</sup>에 의해 제공되는 최소 생활수준에 기초하고 있으며, 평균소득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빈곤선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초기 평균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선을 도출하였으나, 이는 헨더슨 빈곤선이 세후(稅後) 소득과 일정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반하는 방식, 즉 세전(稅前) 소득과 일정 비율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 결과 빈곤선 소득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1981년도에 가구 가처분 소득, 소득세의 영향, 비임금 소득 및 인구 증가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조절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7) 이 기초 임금의 개념은 ‘문명화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평균 파용인의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임금이다. 이는 1907년 Arbitration Court 판결에 의해 설정되었다(Henderson, Harcourt and Harper, 1970).

## 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빈곤선은 다양한 유형의 소득단위(주로 가족이나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수준이다. 만일 어떤 소득단위의 소득이 그것에 적용될 수 있는 빈곤선보다 적다면, 그 단위는 빈곤 상태에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소득단위는 대체로 그 단위의 소득으로 유지되는 가족집단이다(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March quarter 200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 빈곤선은 Henderson의 빈곤조사에 의해 설정된 1973년 9월 분기 \$62.70의 기준소득에 기초하고 있다. 기준소득은 2명의 성인과 2명의 피부양 아동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가처분소득이다. 즉, 헨더슨 빈곤선은 소득공제 후 조정된 주당 평균소득(adjusted average weekly earnings)의 56.5%를 2명의 성인과 2명의 자녀로 구성된 표준가구의 빈곤선으로 정하고 있다. 표준가구의 빈곤선에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사용하여 각 가구의 유형에 대한 빈곤선을 정한다. 균등화지수는 각 가구의 ‘구성유형’과 ‘가장의 직업유무’ 그리고 ‘거주지 유지비용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정해진다. 헨더슨 빈곤선은 멜버른 대학에서 매 4분기마다 갱신된다. 헨더슨 빈곤선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P_{H_{t_{1-4}}} = 62.7 \times H_e \times \frac{DI_{t_{1-4}}}{DI_{1973.3}}$$

여기서,  $P_{H_{t_{1-4}}}$  : t년도 1~4분기 H가구유형의 빈곤선  
 62.7 : 1973년 3분기 표준가구의 세후 주당소득  
 $H_e$  : H가구유형의 균등화 지수  
 $DI_{t_{1-4}}$  : t년도 1~4분기 가구원 1인당 가처분소득  
 $DI_{1973.3}$  : 1973년 3분기 가구원 1인당 가처분소득(=\$48.5)

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선은 일인당 가구 가처분소득 지수(index)를 사용하여 기준시점 이후 계속 업데이트된다. 이 지수는 호주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제공되는 가구 가처분소득과 인구의 추정치로부터 계산된

다. 지수는 추정치에 기초하기 때문에, 빈곤선 그 자체가 추정치가 된다.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ABS는 이전 분기에 대한 인구와 가구가처분소득 추정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March quarter 2007).

####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멜버른 응용경제사회연구소는 매 분기마다 핸더슨 빈곤선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빈곤선은 2010년 3월 분기 기준이다. 이 때 핸더슨 빈곤선은 두 명 중 한 명이 일하는 성인 2인과 피부양 아동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에 대해 주당 \$754.10(주거비용 포함)이었다. 이는 이전 분기(2009년 12월분기)에 비해 \$7.88 증가한 것이다.

〈표 3-1-20〉 호주의 빈곤선(2010년 3월분기)<sup>1),2)</sup>

가구유형	노동능력이 있는 가장		노동능력이 없는 가장	
	주거비용 포함 (주당\$)	주거비용 제외 (주당\$)	주거비용 포함 (주당 \$)	주거비용 제외 (주당\$)
부부	537.07	392.81	461.13	316.80
부부·자녀 1명	645.58	488.28	569.64	412.34
부부·자녀 2명	754.10	583.75	678.16	507.81
부부·자녀 3명	862.61	679.21	786.67	603.28
부부·자녀 4명	971.12	773.63	895.19	697.69
독신	401.48	270.19	325.54	194.26
독신·자녀 1명	515.42	371.09	439.41	295.15
독신·자녀 2명	623.86	466.56	547.93	390.62
독신·자녀 3명	732.38	562.03	656.44	486.09
독신·자녀 4명	840.89	657.50	764.95	581.56

주: 1) 2010년 3월분기의 \$646.96에 대해 주당 1인당 계절조정 가구가처분소득에 기초한다.

2) 모든 수치는 세후 소득으로 간주한다.

자료: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March quarter 2010), *Poverty Lines: Australia*.

〈표 3-1-21〉 호주의 헨더슨 빈곤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빈곤선 비교

(단위: 주당/1인당 호주\$)

연도	헨더슨 빈곤선	CIP 빈곤선	차이(%)
1973/74	66.5	66.5	0.0
1974/75	79.9	77.5	3.1
1975/76	90.7	87.6	3.5
1976/77	103.8	99.7	4.1
1977/78	112.9	109.2	3.4
1978/79	126.0	118.1	6.6
1979/80	138.0	130.2	6.0
1980/81	154.7	142.3	8.7
1981/82	173.9	157.3	10.5
1982/83	188.2	175.4	7.3
1983/84	206.9	187.2	10.5
1984/85	220.9	195.3	13.1
1985/86	240.1	211.7	13.4
1986/87	253.1	231.6	9.3
1987/88	272.8	248.6	9.7
1988/89	301.7	266.8	13.1
1989/90	332.8	288.1	15.5
1990/91	342.3	303.3	12.8
1991/92	347.3	309.1	12.4
1992/93	359.1	312.3	15.0
1993/94	373.3	318.0	17.4
1994/95	387.0	328.1	17.9
1995/96	412.0	341.9	20.5
1996/97	426.0	346.6	22.9
1997/98	440.3	346.6	27.0
1998/99	450.3	350.9	28.3
1999/00	468.8	359.2	30.5
2000/01	499.8	380.8	31.2
2001/02	524.2	391.8	33.8
2002/03	537.6	403.9	33.1
2003/04	560.1	413.4	35.5
2004/05	584.4	423.5	38.0
2005/06	618.5	437.0	41.5
2006/07	668.3	449.7	48.6
2007/08	693.1	464.9	49.1
2008/09	746.6	479.4	55.7

자료: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March quarter 2010), *Poverty Lines: Australia*.

주지한 바와 같이, 헨더슨 빈곤선은 평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연동되는 상대빈곤선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 즉, 그 사회의 실질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빈곤선도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이에 비해 절대적 개념의 빈곤선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 즉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같은 생활비지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한 빈곤선에 의한 소득은 실질 구매력은 유지되지만, 일반적인 생활수준과의 관

계는 변화하게 된다(대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핸더슨 빈곤선에 의한 빈곤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빈곤선을 비교한 결과는 <표 3-1-21>과 같다. 1973/7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 간의 격차는 2008/09년에 55.7%까지 상승하였다.

라.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빈곤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절대적 대 상대적, 중위소득 대 평균소득 등)에 따라 빈곤율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의 준공식적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핸더슨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은 국제 비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즉, 핸더슨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은 23.4%로 매우 높은데 비해, 평균소득의 50%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은 14.9%, 중위소득의 50%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은 9.6%로 이보다 훨씬 낮다.

<표 3-1-22> 호주의 2000년 빈곤율

(단위: %)

빈곤선	핸더슨 빈곤선	평균소득의 50%	중위소득의 50%
인구빈곤율	23.4	13.0	8.7
이동빈곤율	20.8	14.9	9.6

자료: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2003) *The Bare Necessities: Poverty and Deprivation in Australia Today*.

핸더슨 빈곤선은 빈곤지표를 산출하는 기준으로서보다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소득지원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기준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핸더슨 빈곤선은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는데 비해 핸더슨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 통계는 상대적으로 자주 생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공공부조제도와의 관계: 활용도

호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사회보장체계를 가진 나라이다. 호주의 소득보장체계는 그 구조상 범주적(categorical)이다. 즉 지역사회의 특정 집단에

따라 특정 자격요건을 가지는 서로 구분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다. 실업자, 직업 없는 장년자(older people), 노인, 장애인, 주부양책임을 가진 부모, 만성질환자, 학생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체계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연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같은)과 단기급여로 간주되는 수당(구직자를 위한 신규수당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동과 연동되어 2년에 한번씩 조정되지만, 최고연금액이 남성총평균주당임금(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s: MTawe)의 적어도 25%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충’(topped up)된다. 각종 수당도 CPI에 연동되어 조정된다. 주요 사회보장제도들과 수급자(가구) 수는 <표 3-1-23>과 같다.

헨더슨 빈곤선은 직접적으로 사회부조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즉 헨더슨 빈곤선은 법적인 강제적용조항은 아니며 따라서 공공부조 급여기준선과 어떤 명시적인 연계성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더슨 빈곤선은 정부의 급여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Brotherhood of St Laurence, 멜버른 응용경제연구소 등은 주기적으로 급여와 헨더슨 빈곤선을 비교하는 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ACOSS(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등의 국가 보고서에서도 헨더슨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과 급여와의 비교 등이 종종 행해지고 있다. 아래 <표 3-1-24>는 멜버른 응용경제연구소에서 산출한 급여와 헨더슨 빈곤선 비교표이다.

<표 3-1-23> 호주의 주요 소득지원 급여와 수당

(단위: 명, 가구)		
급여	자격	2003년 6월 현재 수급자
총인구		19,731,984
소득보조급여		
Age Pension	주거, 소득 및 자산조사에 따라, 65세 이상 남성과 62세 이상 여성	1,854,012
Parenting Payment	16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 일차적으로 저소득 (한부모도 포함) 1인 소득자 가족. Parenting Payment Single은 연금액과 조건에 따라 지급됨; Parent Payment Partnered는 수당 (allowance)임	(Single) 436,958
Newstart Allowance	21세 이상이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있는 실업자	521,677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2004).

〈표 3-1-23〉 호주의 주요 소득지원 급여와 수당 (계속)

(단위: 명, 가구)

급여	자격	2003년 6월 현재 수급자
Disability Support Pension	지난 2년 동안 전일제(주당 30시간) 일하기 어려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673,334
Carer Payment	최소 6개월 동안 심각한 신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전적으로 케어를 제공한 사람. 연금조건 하에 지급됨	75,937
Youth Allowance	25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과 16-20세의 실업자. 개인소득과 부모소득 모두에 대해 자산조사 실시	400,980
Sickness Allowance	질병, 부상 혹은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없는 22세 이상의 사람	8,927
Austudy	25세 이상의 학생. 수당(allowance)으로 지급됨	39,092
Speical Benefit	다른 부조에 대한 자격이 없으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 곤궁에 빠진 사람. 수당으로 지급됨	12,228
Widow Allowance	미망인, 이혼녀가 되었고 최근 아무런 근로경험이 없는 51세 이상의 여성	43,209
기타 급여		
Family Tax Benefit(A)	16세 미만 혹은 16-24세 전일제 피부양학생을 가진 가족, 가족 소득에 대한 소득조사	1,783,278가구
Family Tax Benefit(B)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혼혈이가구, 특히 5세 미만 아동을 가진 가구. 맞벌이 가구에서만 두 번째 소득자 소득에 대해 소득조사	1,223,560가구
Childcare Benefit	공식적 아동케어 혹은 비공식적 (등록) 아동케어를 사용하는 가구. 이 보조금은 아동케어서비스 요금을 감액받거나, 그해 말에 부모에게 총액(lump sum)으로 지불됨. 가족소득에 대해 소득조사	517,000가구
Rent Assistance	(공공주택을 제외한) 연금생활자와 수급자 임대료	940,780(부조를 받는 사람 혹은 부부의 수)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2004).

〈표 3-1-24〉 호주의 최대급여를 받는 가구의 급여와 빈곤선 비교(2010년 3월분기)

(단위: 주당 호주\$)

	1인 기본급여	2인 (배우자) 기본급여	가족세금 공제 Part A	가족세금 공제 Part B	주거급여	총 급여	한도는 빈곤선
Couple Allowee	205.75	205.75	0.00	0.00	52.70	464.20	537.07
Pensioner	253.25	253.25	0.00	0.00	52.70	559.20	461.13
Couple with 1child	205.75	205.75	78.47	23.32	65.66	578.95	645.58
2 children	205.75	205.75	156.94	23.32	65.66	657.42	754.10
3 children	205.75	205.75	240.80	43.55	74.20	770.05	862.61
4 children	205.75	205.75	348.25	43.55	74.20	877.50	971.12
Single adult Allowee	228.00	-	0.00	0.00	55.90	283.90	401.48
Pensioner	335.95	-	0.00	0.00	55.90	391.85	325.54
Single with 1child	287.25	-	78.47	46.55	65.66	477.93	439.41
2 children	287.25	-	156.94	46.55	65.66	556.40	547.93
3 children	287.25	-	240.80	66.78	74.20	669.03	656.44
4 children	287.25	-	348.25	66.78	74.20	776.48	764.95

자료: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March quarter 2010), *Poverty Lines: Australia*.



## 5. 일본의 최저생계비

### 가. 역사적 기원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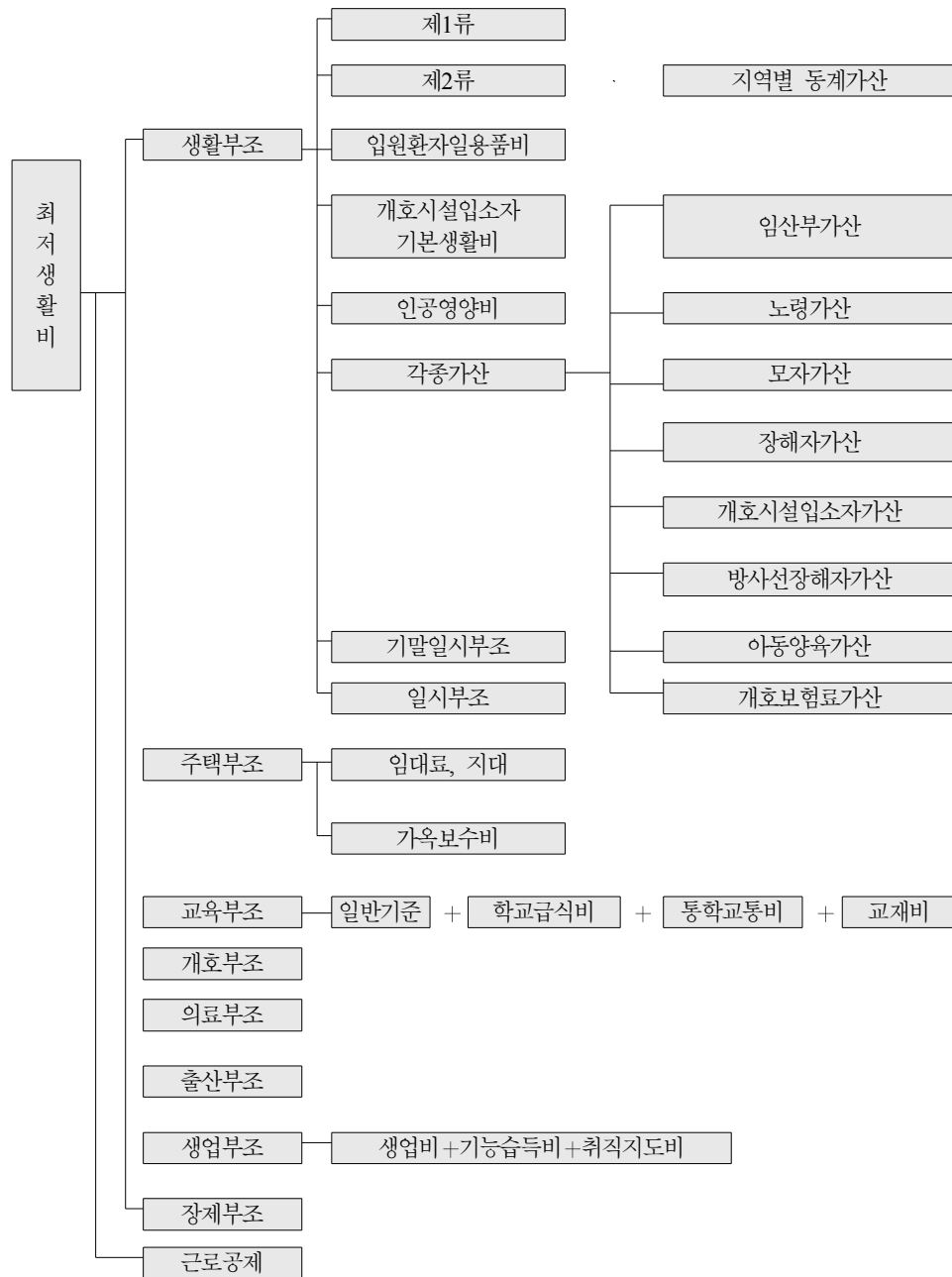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기원은 1874년 홀구법(恤救法)과 1929년에 제정된 구호법(救護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생활보호제도는 1950년 신헌법 하에서 제정된 『(신)생활보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동 법은 다음의 네 가지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생존권 보장 및 국가책임의 원리이다. 이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차별·평등의 원리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은 성(性), 사회적 배경, 빈곤의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부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넷째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생활보호에 의한 보호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및 능력과 그 외 모든 것을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덧붙여, 생활보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가구가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제공되는 이른바 신청보호의 원칙도 가지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는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저생활비는 생활, 주택, 교육, 의료, 출산, 생업, 장제, 개호부조와 같은 8개의 부조를 합산하여 계산된다<sup>28)</sup>. 이 중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는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부조이므로, 최저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그리고 개호부조의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이 같은 최저생활비는 서로 다른 지역간의 생계비의 차이와 세대구성원의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일본 최저생활비의 체계는 아래 [그림 3-1-1]과 같다.

28)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는 해당 상황 발생한 경우에 임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의 합계액이 최저생활비가 된다.

[그림 3-1-1] 일본 최저생활비의 체계



각 부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생활부조 기준은 의(衣), 식(食) 등의 이른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적 경비에 대한 최저 생활비를 정한 것이다. 이 생활부조 기준은 제1류비와 제2류비로 구분되며,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가산급여가 부여된다. 제1류비는 식료품비, 피복비 등 개인단위 소비에 필요한 생활비에 대한 기준으로써 연령별로 설정되어 있다. 제2류비는 세대 공통의 경비로써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등의 광열수도비나 가구집기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대 인원별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겨울철에는 추위의 정도에 따라 필요 난방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도도부현을 단위로 6개 지역별로 동계 가산액이 설정되어 있다.

각종 가산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1류비와 제2류비 외에 일정액이 더 부가되는 급여이다. 임산부, 노령, 모자, 장애인, 개호시설입소자, 재택환자, 방사선장애자, 아동양육, 개호보험료 등 총9개의 가산항목이 있다. 주요한 가산항목과 대상자는 아래의 <표 3-1-25>와 같다.

<표 3-1-25>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가산급여와 대상자

구분	대상자
임산부 가산	임산부 및 산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노령 가산	7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8세 이상 70세 미만의 병약자
모자 가산	아동이 있는 모(부)자 세대
장애인 가산	장애정도 등급표 1~3급 신체장애인 혹은 국민연금법시행령 별표 1급 및 2급 장애인
재택환자 가산	재택 병자로서 영양보급을 필요로 하는 자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http://www.mhlw.go.jp)).

생활부조의 항목별 기준과 그 설정방법은 아래 [그림 3-1-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먼저 제1류비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일반수요에 대응하는 기준으로써 수준균형방식을 따르고, 제2류비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세대공통적인 일반수요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역시 수준균형방식을 따르고 있다. 동계가산은 11월에서 3월까지의 난방비 등과 관련한 특별수요에 대응하는 기준이며, 지역별(6개 지역)로 차등을 두고 있다. 각종가산은 일반수요 이외에 개인에게 특별하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일시부조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맞게 설정되고,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3-1-2] 일본 생활부조 기준의 개요



생활부조 이외의 부조의 기준은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택부조는 후생 노동대신이 도도부현, 지정도시, 핵심시 별로 그 지역의 집세를 기초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도도부현에 대해서는, 1·2급지와 3급지의 2개의 기준을 설정). 각 지역마다 ①단신 세대에 적용되는 기준액, ②복수인 세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액(①의 1.3배), 7인 이상 세대에 적용되는 기준액(②의 기준액수의 1.2 배액)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부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별로 기본 기준액에 학급비 등을 포함하는 특별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기타 교재비, 급식비, 교통비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시 학용품 재지급비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의료부조는 대부분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 전액을 의료부조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현물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은 의료보험의 진료보수에 의해 산정된다.

## 나. 최저생활비 측정방식

일본은 최저생활비 계측방식을 수차례 변경하여 하나의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한 사례이다. 1946년~48년까지는 표준생계비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1948년~60년까지는 마켓 바스켓방식, 1961년~64년까지는 앵겔방식, 1965년~83년까지는 격차축소방식, 그리고 1984년 이후에는 수준균형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적용되었던 표준생계비방식은 일본의 “생활보호법”하에서 행해졌다. 사회통념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의 최저생활비는 6대도시에 서 가구원수가 5인인 기초표준세대의 생활비를 기초로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며, 그 액수는 실태생계비의 약 20%(총무성 통계국의 소비자가격조사에 의함)에 지나지 않았다.

1948년부터 표준생계비방식은 마켓 바스켓방식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방식은 저소득층의 보호이념으로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최저생활비를 실현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정방식으로서 도입되었다. 마켓 바스켓 방식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대폭 상승하여 총무성 통계국의 소비자가격조사에 의한 실태생계비에 대한 비율이 38%까지 높아졌다.

마켓 바스켓방식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1961년에는 앵겔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방식은 바스켓의 구성을 식료품에 한정하고 앵겔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최저생활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적용된 앵겔계수는 약 58%이었다.

1965년 이후 약 20년 동안은 격차축소방식이 적용되었는데 일반근로자가구 소비수준의 60% 수준을 목표로 정하고 보호기준을 연평균 15%의 비율로 상승시켰으며, 1975년에 이르러 목표수준인 일반근로자가구의 소비수준의 60%에 이르렀다. 1983년에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생활보호전문분과회의는 보호기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용된 보호기준의 수준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984년에 수준균형방식 즉, 보호기준을 일반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로 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3-1-3] 생활보호제도의 연간 급여수준 · 표준가구 · 산정방식 · 지역분류의 변화

연도	엔	표준가구	방식	지역구분
1946	199.8	5인 표준가구	표준 생계비 방식	6
1946	252			
1947	912			
1949	5,200	5인 표준가구: 남성(64), 여성(35), 남아(9), 여아(5). 남아(1)	마켓 바스켓 방식	3
1959	9,346			
1960	9,621			
1961	10,344	4인 표준가구: 남성(35), 여성(30), 남아(9), 여아(4)	앵겔 방식	5
1964	16,147			
1965	18,084			
1966	20,662	적차축소 방식	적차축소 방식	4
1967	23,451			
1968	26,500			
1969	29,945			
1970	34,137			
1971	38,916			
1972	44,364			
1973	50,575			
1974	60,690			
1975	74,952			
1976	84,321			
1977	95,114			
1978	105,577			
1979	114,340			
1980	124,173			
1981	134,976			
1982	143,345			
1983	148,649			
1984	152,960			
1985	157,396			
1986	126,977			
1987	129,136	3인 표준가구: 남성(33), 여성(29), 아동(4)	수준균형 방식	3
1988	130,944			
1989	136,444			
1990	140,674			
1991	145,457			
1992	149,966			
1993	153,265			
1994	155,717			
1995	157,274			
1996	158,375			
1997	161,859			
1998	163,316			
1999	163,806			
2000	163,970			
2001	163,970			
2002	163,970			
2003	162,490			
2004	162,170			
2005	162,170			
2006	162,170			
2007	162,170			
2008	162,170			

자료: Iwanaga(2009), "Social Assistance Schemes and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Japan," 『Alternative Methods of Measur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최저생계비의 수준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수준균형방식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활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즉, 연령별 생활부조기준(제1류비)과 가구규모별 생활부조기준(제2류비)의 합산액에 노인, 장애인, 모자 등 가구유형별로 가산액을 부가하고, 여기에 주택, 교육, 개호, 의료 등 기타부조를 합산한 금액인 최저생활비 인정액에서 소득인정액(소득-실비공제-근로공제)을 뺀 금액이 부조로 지급된다. 실제 급여가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begin{aligned} \text{최저생활비 인정액} = & \text{생활부조기준(1류)} + \text{생활부조기준(2류)} + \text{각종가산액} \\ & + \text{주택부조} + \text{교육부조} + \text{의료부조} + \text{개호부조(기타,} \\ & \text{출산, 장제 등의 경우는 그 기준액이 가산됨)} \end{aligned}$$

2009년 생활부조 기준액은 아래의 <표 3-1-26>과 같다.

<표 3-1-26>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제1류(2009년, 1급지-1. 월액)

(단위: 엔)

연령	기준액
0~2세	20,900
3~5세	26,350
6~11세	34,070
12~19세	42,080
20~40세	40,270
41~59세	38,180
60~69세	36,100
70세 이상	32,340

자료: 후생통계협회(2009), 『國民の福祉の動向』.

〈표 3-1-27〉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제2류(2009년)

(단위: 엔)

구분		인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 1인당 증가액
기준액		43,430	48,070	53,290	55,160	440
지역별 동계 가산액 (11월~3월)	I 지역	24,350	31,530	37,630	42,670	1,640
	II 지역	17,410	22,550	26,910	30,520	1,170
	III 지역	11,560	14,970	17,860	20,250	780
	IV 지역	8,820	11,420	13,630	15,460	590
	V 지역	6,150	7,970	9,510	10,780	410
	VI 지역	3,090	4,000	4,770	5,410	200

자료: 후생통계협회(2009), 『國民の福祉の動向』.

상기 생활부조 기준액에 각종 가산액을 합산한 2009년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액은 아래 <표 3-1-28>과 같다. 표준 3인 세대의 경우 최저생활보장액은 3급자2 지역의 138,680엔에서 1급자1 지역의 180,170엔까지 분포되어 있다. 표준 3인 세대의 1급자1 지역의 경우, 제1류 기준액과 제2류 기준액을 합계한 생활부조액은 162,170엔, 여기에 4세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가산액 5,000엔과 주택부조액 13,000엔이 더해져 최저생활보장액은 180,170엔이 된다. 25세의 중증장애자가 있는 중증장애자 2인세대의 경우, 생활부조에 장애자가산, 중도장애자가산, 중도장애자가족개호료, 주택부조가 더해져, 최저생활보장액은 155,270엔~192,400엔 수준이다. 다음으로 노인2인세대와 노인1인 세대의 경우, 생활부조에 주택부조가 더해져, 최저생활보장액은 각각 102,500엔~134,940엔, 70,640엔~93,820엔 수준이다. 부부와 초등학교 자녀와 4세 자녀의 4인세대의 경우는 생활부조에 아동양육가산, 교육부조, 주택부조가 더해져 최저생활보장액은 168,430엔~216,480엔 수준이다. 여성가장과 초등학교 자녀, 4세 자녀로 이루어진 3인 모자세대의 경우는 생활부조, 아동양육가산, 교육부조, 주택부조에 모자세대취학보전비가 더해져 최저생활보장액은 151,020엔~191,120엔 수준이다.



〈표 3-1-28〉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09년, 월액)

(단위: 엔)

	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지-2
표준3인세대(33세남, 29세여, 4세자)						
최저생활보장액	180,170	172,870	165,580	158,270	145,980	138,680
생활부조	162,170	154,870	147,580	140,270	132,980	125,680
제1류	106,890	102,080	97,280	92,450	87,650	82,840
제2류	55,280	52,790	50,300	47,820	45,330	42,840
아동양육가산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중증장애자 2인세대(65세여, 25세남(중증장애자))						
최저생활보장액	192,400	186,730	179,170	173,490	160,950	155,270
생활부조	126,110	120,440	114,760	109,080	103,410	97,730
제1류	76,370	72,940	69,500	66,060	62,620	59,190
제2류	49,740	47,500	45,260	43,020	40,790	38,540
장애자가산	26,850	26,850	24,970	24,970	23,100	23,100
중도장애자가산	14,380	14,380	14,380	14,380	14,380	14,380
중도장애자가족개호료	12,060	12,060	12,060	12,060	12,060	12,06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노인2인세대(68세남, 65세여)						
최저생활보장액	134,940	129,460	123,960	118,480	107,990	102,500
생활부조	121,940	116,460	110,960	105,480	99,990	94,500
제1류	72,200	68,960	65,700	62,460	59,200	55,960
제2류	49,740	47,500	45,260	43,020	40,790	38,54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노인1인세대(68세여)						
최저생활보장액	93,820	90,190	86,540	82,910	74,260	70,640
생활부조	80,820	77,190	73,540	69,910	66,260	62,640
제1류	36,100	34,480	32,850	31,230	29,600	27,980
제2류	44,720	42,710	40,690	38,680	36,660	34,66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부부+자2인세대(35세남, 30세여, 9세자, 4세자)						
최저생활보장액	216,480	207,870	199,270	190,640	177,040	168,430
생활부조	140,960	134,620	128,280	121,920	115,590	109,240
제1류	133,920	127,890	121,870	115,830	109,810	103,780
제2류	57,410	54,830	52,250	49,660	47,080	44,500
아동양육가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교육부조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모자3인세대(30세여, 9세자, 4세자)						
최저생활보장액	191,120	184,100	177,080	170,060	158,050	151,020
생활부조	155,970	148,950	141,930	134,910	127,900	120,870
제1류	100,690	96,160	91,630	87,090	82,570	78,030
제2류	55,280	52,790	50,300	47,820	45,330	42,840
모자세대취학보전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아동양육가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교육부조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자료: 후생통계협회(2009), 『國民の福祉の動向』.

연도별 생활부조기준액 추이는 아래 <표 3-1-29>와 같다. 격차축소방식에 따라 산정된 1975년 생활부조기준액은 74,952엔이었으며, 수준균형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한 이후인 1985년에는 157,396엔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매년 소폭 조정되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62,170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29> 일본의 생활부조기준액 추이(1급지, 표준세대, 각년도 4월 기준 월액)

구분	표준 3인세대 1급지-1	
	기준액(엔)	전년대비 증가율 (%)
1975	74,952	23.5
1985	157,396	2.9
1995	157,274	1.0
2000	163,970	0.1
2005	162,170	0.0
2009	162,170	0.0

자료: 후생통계협회(2009), 『國民の福祉の動向』.

#### 라. 최저생계비에 따른 빈곤율

일본의 최저생계비 및 빈곤에 대한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이래도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쇠퇴해왔다. 1990년대 노숙자 문제가 대두되자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빈곤 연구, 특히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

OECD(2008)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2005년 간의 일본의 빈곤율 추이는 다음 <표 3-1-30>과 같다.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율은 1990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인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1985년 0.6%에서 1990년 11.9%로 11.3%포인트 증가한 이래 1995년, 2000년 각각 13.7%, 15.3%로 증가양상을 보이다 2005년 1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0〉 일본의 빈곤율 추이

(단위:%)

	빈곤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1985	12.5	0.6
1990	12.5	11.9
1995	19.0	13.7
2000	23.9	15.3
2005	26.9	14.9

주: 1)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 기준, 빈곤인구율.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9년 7월에 발행된 신문에 따르면 공공부조 수급 가구수가 1,192,745가구, 1,654,612명이라고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높은 급여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한다(Iwanaga, 2009). 또한 급여수준이 높다는 여론 또한 높다고 생활보호제도 수준이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수급율이 낮은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다.

마. 사회부조제도와와의 관계: 활용도

일본에 있어서 사회부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공공부조에 해당되고, 후자는 특정 대상집단에 대한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모자가정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인 공공부조는 저소득세대에 대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에 비해, 후자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에 의한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 현금급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서비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에 의해 제공된다.

이 같은 체계 하에서 생활부조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활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선으로써 자신의 자산과 경상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 의한 지원을 받더라도 최저생활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1.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은, 1970년대 두 차례(1973, 1978)에 걸쳐 당시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계측한 결과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다섯 차례(1988, 1994, 1999, 2004, 2007)의 계측연구를 포함하여 총 7회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계측결과를 공표한 최저생계비는 1999년, 2004년, 2007년의 세 차례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이외에 1980~1990년대에는 개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 관련 기관에서 주로 최저임금 심의 및 임금교섭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최저생계비 또는 표준생계비 계측이 수행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별 학자 또는 연구기관에 의해서 계측되었던 최저생계비를 정리하면 <표 3-2-1>과 같다<sup>29)</sup>.

먼저 개별학자에 의해 연구되었던 최저생계비를 간략히 살펴보면, 서상목은 1973년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생활실태조사<sup>30)</sup>에 나타난 실제 음식물 소비 형태에 의거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저생계비는 5인 가구를 기준으로 반물량 방식에 의해 추정되었다.

윤석범은 1981년 실시된 조사(1980년 기준)에서 도시 및 농촌지역의 1,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발송 후 그 중 응답 내용이 일관적인 478가구를 선정하여, 이를 4인, 5인 그리고 6인 가구로 분류하여 효용함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윤석범, 1995). 이렇게 구하여진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1969년부터 1992년까지의 최저생계비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사용된 방법은 각 대상연도의 평균가구소득과 계층별 가구소득의 자연대수의 분산의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29) 주요내용은 김미곤 외(2007)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근까지의 계측결과들을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30) 197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전국에서 5,030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후 이 중에서 동년도 7월의 총소득이 24,000원 미만인 가구, 단순노무자와 불완전취업자, 경작지 5단보 미만인 농가, 생활보호대상가구에 해당하는 1,162가구에 대하여 가계소득 및 지출, 가계구성, 주택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조사하였다.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시계열화 할 경우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최저 생계비의 탄력성효과와 소득분포의 불균등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였다.

장현준은 1984년 전국 도시가구의 소비지출기준 하위 10%, 20% 그리고 40%의 생계비를 분석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분석방법은 식품 바스켓을 선정하여 식품비를 산출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서상목(1981), 한국노총(1985)의 식품 바스켓을 이용하여 반물량 방식과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최저생계비를 지역별·가구원수별로 구분하고 다시 칼로리별(2,000kcal, 2,500kcal, 2,900kcal)로 구분하여 칼로리 기준의 변화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2-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발표연도	연구자 / 연구기관	기준연도 (계측지역)	계측방식
1974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1973 (전 국)	반물량 방식
1979	서 상 목	1973 (전 국)	반물량 방식
1978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1978 (대도시)	반물량 방식
1981	윤 석 범	1981 (전 국)	라이텐 방식
1986	장 현 준	1984 (도 시)	반물량 방식
1986	이 중 회	1985 (도 시)	라이텐 방식
1987	배 무 기 외	1987 (도 시)	전물량 방식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 (지역별)	전물량 방식
1990	이 정 우 외	1989 (도 시)	라이텐 방식
1991	박 태 규	1989 (서 울)	라이텐 방식
1991	안 병 근	1991 (대 구)	전물량 방식
1994	차 흥 봉 외	1993 (춘 천)	전물량 방식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지역별)	전물량 방식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03	한국노동연구원 <sup>1)</sup>	2003 (도 시)	반물량 방식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지역별)	전물량 방식
각년도	최저임금위원회 <sup>2)</sup>	2005 (전 국)	전물량 방식
각년도	한 국 노 총 <sup>3)</sup>	각년도 (도 시)	전물량 방식
각년도	민 주 노 총 <sup>3)</sup>	각년도 (도 시)	전물량 방식

주: 1)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15~29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3)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료: 김미곤 외,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07.를 기초로 재구성.

다음으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등이 계측한 최저생계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계측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1973년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계측한 최저생계비이다. 당시 계측을 위해 1973년 9월부터 1974년 4월까지 1,162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반물량 방식(엔겔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이후 1978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97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88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추정방식은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토대가 되는 연구라 할 수 있으며, 계측은 전물량 방식을 기본으로 하였다. 당시 연구에서는 전국 5,0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950가구를 선정하여 2차 가계지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최저생계비 산출 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표준가구에 대한 각 지역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각각 산출하였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준연도로 1988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1989년 최저생계비는 198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1990년 최저생계비의 경우 추정된 1989년 최저생계비에 다시 1989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최저생계비 계측 역시 1988년 계측 당시와 동일하게 마켓 바스켓 구성에 의한 전물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체 표본규모는 1988년보다 다소 축소하여 1차 실태조사의 경우 전국에서 3,000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600가구를 선정하여 2차 가계부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1, 2차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1988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구분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표준가구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각각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1988년과 달리, 이와 같이 계측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나의 전국 기준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던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88년과 1994년에 수행되었던 계측연구와 동일한 전물량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조사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1차 실태조사의 전체 표본규모는 전기 대비 5배 정도 증가한 15,400가구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조사를 바탕으로 계측이 이루어졌다. 1차 표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기준 하위 40% 이하에 해당되는 1,500가구를 선정하여 2차 가계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구분 역시 기존에 수행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였으며, 실태조사와 가계부조사와 함께 각종 객관적인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표준가구에 대한 지역별 마켓 바스켓을 각각 구성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1999년 최저생계비는 1988년 및 1994년과 같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가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당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연구진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심의하였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 만에 계측한 2004년 최저생계비 역시 이전에 시행되었던 계측과 동일하게 전물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계측방식은 이전과 같았지만 조사대상 표본규모의 증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실태조사의 수행, 그리고 지역구분 기준의 조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과는 다른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조사대상 표본가구수는 1999년 계측 당시 15,400가구보다 약 2배 증가하였는데, 2000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추출된 300개 표본조사구에서 30,000가구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26,238가구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1차 실태조사 완료가구 중 소득기준 하위 40% 이하 가구 2,231가구를 선정하여 2차 가계부조사와 심층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2004년부터 처음으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계측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수행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 기준을 1999년 3개(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2004년에는 4개(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으로 확대하여 설정하였다. 이처럼 지역구분에 있어서 대도시를 서울과 광역시로 구분한 것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연구에서 대도시로 분류된 서울의 주거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과 서울특별시가 2000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서울의 최저생계비를 계층한 결과에서 중소도시를 100으로 할 경우 여타 광역시 보다 높은 약 132로 추정되었던 것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2004년 최저생계비에서는 4개 지역별로 표준가구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각각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층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확정하는 대신 1999년과 같이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단일한 최저생계비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기존의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계층주기가 단축된 이래 처음으로 계층된 2007년의 최저생계비는 이전의 방식과 동일한 전물량 방식으로 계층되었다. 계층의 바탕이 되는 1차조사의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517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 추출하여 30,000가구를 추출하였다. 2차 조사의 표본은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소득 40%이하 가구 중 1,500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또한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유형별조사도 실시되었다. 2004년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던 최저생계비를 2007년에는 1999년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지역을 기준으로 계층하였다.

2005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방식에 대하여 기존의 모든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층한 후 사후적으로 타당한 방식을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됨에 따라, 연구진은 기존의 전물량 방식과 더불어 여타 방식인 반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주관적 방식들로도 최저생계비를 계층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여타방식이 아닌 기존의 전물량방식의 계층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구진 안보다 다소 낮은 값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확정하는 대신 이전년도와 같이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단일한 최저생계비를 확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 2.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수준

우리나라에서 계측된 최초의 최저생계비는 1974년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가 계측한 값으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 3-2-2>와 같이 계측되었다. 이는 당시 1인 가구 기준으로 4,348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7,392원이다.

<표 3-2-2>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4,348	8,696	13,044	17,392	21,739

자료: 박찬용·김미숙, 『한국의 빈곤현황과 정책과제』, UNDP·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를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2009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1,413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인 월 13,333원 기준 32.6%이며, 이 비율을 2009년 1인당 국민소득에 적용할 경우 그 금액은 595,493원 정도이다. 두가지 환산방법 모두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그 값에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이는 전자가 절대개념, 후자가 상대개념에 기인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198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계측되었으며, 중소도시 1인가구의 경우 109,581원, 4인가구의 경우 296,885원으로 도출되었다.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988년 당시 국민소득 대비 40.6%이며, 2009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67,585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741,627원에 이르며 이는 2010년 발표된 최저생계비 504,344원보다도 월등히 높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이 더 높은 이유는 80년대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GDP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값의 차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절대와 상대개념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94년 최저생계비는 198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별로 계측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가구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였다. 당시 중소도시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206,141원이며, 4인가구의 경우 665,840원으로 계측되었다.

1999년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법정 최저생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이전과는 다르다 할 수 있

다. 1999년부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연구진안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간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게 되었다.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차등을 두었으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만 발표되었고 금액 또한 연구진안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1인가구 314,574원, 4인가구 기준 901,357원으로 계측되었다.

〈표 3-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연도	지 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88	대 도 시	116,361	191,416	256,189	315,076	-	-
	중소도시	109,581	180,326	241,380	296,885	-	-
	농 촌	98,581	162,823	218,032	268,223	-	-
1994	균등화지수	0.309	0.534	0.819	1.000	1.148	1.265
	대 도 시	221,070	381,331	584,511	714,061	820,036	903,384
	중소도시	206,141	355,580	545,039	665,840	764,659	842,377
	농 촌	179,229	309,159	473,883	578,914	664,832	732,404
1999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대 도 시	334,217	553,516	761,325	957,641	1,088,838	1,228,653
	중소도시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농 촌	270,784	448,462	616,829	775,885	882,181	995,460
2004	균등화지수	0.376	0.613	0.816	1.000	1.170	1.331
	서울	545,621	889,564	1,184,014	1,450,318	1,697,478	1,930,379
	광역시	476,700	777,197	1,034,452	1,267,118	1,483,058	1,686,539
	중소도시	463,271	755,303	1,005,312	1,231,423	1,441,280	1,639,029
	농 촌	395,543	644,882	858,340	1,051,395	1,230,572	1,399,411
2007	균등화지수	0.381	0.618	0.819	1.000	1.168	1.326
	대 도 시	514,290	832,795	1,104,060	1,348,569	1,574,940	1,787,825
	중소도시	476,390	771,423	1,022,697	1,249,187	1,458,876	1,656,072
	농 촌	410,307	664,414	880,883	1,075,905	1,256,506	1,426,349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계측된 최저생계비의 경우 연구진 계측결과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발표된 금액간의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다. 먼저 연구진 안의 경우 1인가구 기준 463,271원, 4인가구의 경우 1,231,423원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103,235원으로 단일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5년에서 3년으로 최저생계비 계측기간이 단축된 이후 3년만에 계측된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치의 경우 연구진에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구분되었고, 중소도시 4인가구의 경우 1,249,187원으로 계측되었다.

〈표 3-2-4〉 2007년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단위: 원, %)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식료품비	456,991	33.9	456,991	36.6	420,499	39.1
2	주거비	308,658	22.9	213,135	17.1	76,568	7.1
3	광열수도	82,590	6.1	80,220	6.4	98,500	9.2
4	가구집기	37,373	2.8	37,269	3.0	39,831	3.7
5	피복신발	48,773	3.6	48,773	3.9	47,103	4.4
6	보건의료	53,894	4.0	53,894	4.3	53,894	5.0
7	교육	56,136	4.2	56,136	4.5	56,136	5.2
8	교양오락	30,031	2.2	30,031	2.4	30,031	2.8
9	교통통신	142,879	10.6	141,559	11.3	105,640	9.8
10	기타소비	77,292	5.7	77,292	6.2	77,292	7.2
11	비소비지출	53,952	4.0	53,887	4.3	70,411	6.5
합 계		1,348,569	100.0	1,249,187	100.0	1,075,905	100.0

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세 기준이고, 농어촌은 자가기준이다.  
 자료: 여유진 외,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07.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결과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만을 기준으로 한 단일 금액인 1,232,569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표 3-2-5〉 2007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구 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2007년 최저생계비	
	금액(원)	구성비
식료품비	463,164원	37.6%
주거비	212,575원	17.2%
수도광열비	82,350원	6.7%
가구집기비	36,728원	3.0%
피복신발비	48,773원	4.0%
보건의료비	53,893원	4.4%
교육비	55,302원	4.5%
교양오락비	24,062원	2.0%
교통통신비	129,275원	10.5%
기타소비지출	75,260원	6.1%
비소비지출	51,187원	4.2%
합 계	1,232,569원	100.0%

자료: 여유진 외,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07.

### 3. 기타 생계비 계측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과거에 생계비를 계측하였거나 현재까지 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표준생계비나 실태생계비 등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되는 임금교섭을 위해 표준생계비를 계측하여 발표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계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최저임금제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생계비 계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1988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심의자료로 생계비를 산정하기 시작하였으나, 1992년 이후 원시자료 이용 상의 문제로 인해 계측이 중단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5년부터 다시 생계비 계측을 시작하여 2003년까지 이를 계측하였는데, 당시 계측방법은 전물량 방식을 준용했지만 앞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과 달리 각 비목별 마켓 바스켓 구성에 의한 완전한 전물량 방식은 아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생계비를 산정

하는데 있어서, 1인 가구 월평균 식료품비는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식료품비 모형의 품목에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가구규모별 식료품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식료품비를 추정하였다.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은 도시가계조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을 바탕으로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하였고, 비소비지출은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으로 산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계측한 비목별 생계비는 아래와 같다.

〈표 3-2-6〉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sup>주)</sup>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비지출	542,483	678,103	1,228,320	1,650,649	1,945,092	2,107,253
식료품	157,465	196,831	357,749	482,753	571,843	625,019
주거	158,789	198,486	345,996	442,530	488,087	482,667
광열수도	29,818	37,272	66,433	87,481	100,416	100,845
가구집기	10,648	13,309	24,126	32,451	38,283	41,623
피복신발	23,901	29,876	53,624	71,243	82,733	88,094
보건의료	16,497	20,622	37,964	52,027	62,811	70,316
교육교양	18,216	22,770	59,432	109,986	174,432	252,771
교통통신	64,259	80,324	142,196	185,618	210,588	217,108
기타소비	62,890	78,612	140,799	186,562	215,899	228,812
비소비지출	37,311	47,628	105,485	147,129	183,003	201,813
조세	0	0	19,768	31,263	43,546	48,712
소득세	0	0	17,971	28,421	39,588	44,284
주민세	0	0	1,797	2,842	3,959	4,428
사회보험	37,311	47,628	85,717	115,867	139,457	153,100
의료보험	10,520	13,240	23,590	30,850	38,650	41,380
고용보험	3,391	4,238	7,677	10,317	12,157	13,170
국민연금	23,400	30,150	54,450	74,700	88,650	98,550
생계비	579,793	725,731	1,333,804	1,797,778	2,128,095	2,309,066

주: 18세 단신근로자에 대한 생계비이다.

자료: 김미곤 외,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05.

한편,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도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1987년 3월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실태생계비를 계측해오고 있다. 조사목적은 미혼 단신근로자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는 각 지방노동청 근로

감독과 주관으로 실시되고 한국통계학회가 이를 기초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시점과 조사대상은 1994년을 기점으로 변경되었는데,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3월과 10월에 18세 미혼 단신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고,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대상의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15~29세 미혼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0월 한 달간 연간 1회식 가계부 작성방식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는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를 작성 중지하고 통계청 「가계조사」원 자료를 가공·분석 및 활용하여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 통계청의 2008년 「가계동향조사」결과 원자료 중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 연령의 미혼 단신근로자 419명, 이들 근로자로부터 얻은 연간 가계부수 2,331부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액을 산출하고, 지출 항목으로 생계비를 구성하여 연령대별 생계비를 계측하였다.

〈표 3-2-7〉 201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 분	29세 이하	34세 이하	전연령
생 계 비(A+B)	1,366,285	1,469,761	1,193,597
○ 소비지출(A)	1,240,509	1,328,416	1,101,606
- 식 료 품	310,682	334,021	296,100
- 주 거	235,017	251,946	208,230
- 광열·수도	46,386	48,269	47,773
- 가구·가사용품	27,349	26,898	24,329
- 피복·신발	80,651	76,118	54,053
- 보건·의료	32,153	32,268	36,150
- 교육	30,767	27,443	15,373
- 교양·오락	96,265	86,838	58,419
- 교통·통신	217,465	242,498	181,700
- 기타소비지출	163,774	202,117	179,481
○ 비소비지출(B)	125,776	141,345	91,990
- 조 세	33,118	39,934	24,854
- 사회보장분담금	92,659	101,411	67,136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09년도 단신근로자 생계비 조사결과 보고서』, 2009. 4.

그리고 이상의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88년 이후 발표한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최저임금 적용시점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8〉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최저임금 적용시점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생계비 (매년3월/평균값)	실태생계비 (매년10월/평균값)	생계비 (최빈값)	생계비 (중위값)
'88	115,426	-	113,079	-
'89	128,093	133,240	128,990	151,673
'90	142,887	153,741	151,520	177,983
'91	167,296	190,239	173,360	201,032
'92	197,692	207,095	179,554	202,727
'93	217,867	230,385	-	-
'94.1~'94.8	240,644	-	-	-
'94.9~'95.8	-	257,804	-	-
'95.9~'96.8	-	281,228	282,135	-
'96.9~'97.8	-	305,764	338,217	-
'97.9~'98.8	-	329,919	364,866	-
'98.9~'99.8	-	358,907	393,983	-
'99.9~'00.8	-	391,925	419,977	-
'00.9~'01.8	-	449,699	448,299	-
'01.9~'02.8	-	519,306	502,127	-
'02.9~'03.8	-	561,661	535,385	-
'03.9~'04.8	-	624,819	579,793	-
'04.9~'05.8	-	1,088,496	-	-
'05.9~'06.12	-	1,135,234	-	-
'07.1~'07.12	-	1,176,695	-	-
'08.1~'08.12	-	1,224,310	-	-
'09.1~'09.12	-	1,238,444	-	-
'10.1~'10.12	-	1,366,285	-	-

주: '04.8월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한국노동연구원의 18세 미혼 단신근로자에 대한 실태생계비이며, '04.9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계측된 실태생계비는 15~29세 미혼 단신근로자에 대한 생계비이다. 2009년부터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이다.  
자료: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http://www.minimumwage.go.kr)).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임금교섭을 위한 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1976년 계측이 시작된 한국노총의 생계비 계측방식은 전 물량 방식의 이론생계비 모형으로서, 1990년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라는 명칭으로 계측하였으며, 1981년과 1986년에 최저생계비 모형을 부분적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득수준의 증가와 생활 전반에 걸친 기본 욕구의 상승으로 인

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생계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부터 ‘도시근로자 생계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그리고 2002년 ‘도시근로자 생계비’라는 명칭은 생계비 유형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계측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생계비의 명칭 및 모형을 수정하였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자 가구의 생활실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생계비 모형을 3년마다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6년에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비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를 통해 기존 비목 및 세목의 현실적합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02년 모형개정 이후 진행된 노동자 가구의 생활양식 및 소비경향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계비 계측방식은 2006년에 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생계비에 주거, 교통통신, 교양오락잡비 등 일부 비목을 개선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표준적인 삶을 반영한 표준생계비 모형으로의 전환과 함께 모집단과 조사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에서 전체 노동자 가구로 확대함과 동시에 단신근로자의 성별을 구분하였다.

이처럼 2006년에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 12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안양, 부천, 마산, 창원, 구미), 20개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비자물가조사<sup>31)</sup> 결과를 반영하여 계측하였으며, 가구 모형별/비목별 2010년 표준생계비 계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9〉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구분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4인 가구 III
가구 구성	성인1인	성인 남녀	가구주35세 배우자32세 5세(유)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가구주43세 배우자40세 14세(중) 12세(초)	가구주46세 배우자43세 17세(고) 15세(중)

자료: 한국노총,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010. 2.

31) 『소비자물가조사』에서는 가구가사용품 106개, 피복신발 122개, 보건위생용품 40개, 교양오락품 11개, 교통통신비 및 주거비 9개, 교육/오락/잡비 및 각종 서비스요금 26개, 식료품비 38개 등 총 352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였다(한국노총, 2007).



〈표 3-2-10〉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342,654	302,068	322,360	710,283	861,612	1,135,094	1,207,838	1,245,992
주거비	373,155	373,155	373,155	453,263	539,635	820,608	820,608	820,608
광열수도비	82,073	82,073	82,073	96,494	112,180	137,936	137,936	137,936
가구가사용품비	72,665	74,767	73,716	124,550	137,166	152,316	152,711	153,106
피복신발비	69,768	95,030	82,399	163,614	188,900	222,349	236,172	247,369
보건위생비	83,891	113,545	98,718	174,954	219,631	283,331	269,066	269,066
교육비	59,908	59,908	59,908	59,908	311,899	461,564	483,438	770,807
교통통신비	171,402	171,402	171,402	479,133	514,102	595,704	631,116	666,528
교양오락잡비	348,436	313,561	330,999	368,826	416,678	424,892	424,892	424,892
조세공과금	157,128	155,063	156,100	289,009	384,539	541,711	568,265	638,177
합계	1,761,080	1,740,572	1,750,830	2,920,034	3,686,342	4,775,505	4,932,042	5,374,481

자료: 한국노총,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010. 2.

민주노총 또한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표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으며, 계측 결과 역시 경영계와의 임금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는 199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5년 후인 2001년에 계측모형이 전면 재조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비목별 세부 품목의 현실적인 조정과, 각 값들의 대표성을 높여 민주노총의 각종 정책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계측방식과 관련하여 먼저 가구규모별 대표가구를 선정하고 있는데, 대표가구는 노동자 가구의 가구규모별 표준적인 가구형태를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개정 당시 통계청 「사회지표」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규모별 대표가구를 설정하였으며, 2008년 초혼연령들을 고려한 개정 이후 현재까지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가구규모에 있어서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설정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4인 가구 자녀의 구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표 3-2-11〉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 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주(31세) 배우자(28세)	가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자료: 민주노총,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2010. 2.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표준가구를 바탕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계측을 위해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태조사와 더불어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의 계측을 위해 실태조사의 경우 2009년 11월에서 12월 까지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응답은 719부 었다. 또한 2009년 11월에 전국 14개 도시(서울, 인천, 부산, 수원, 대전, 청주, 광주, 순천, 구미, 경산, 포항, 울산, 제주) 33개 시장을 포괄하여 물가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품목은 2001년 표준생계비 개정 때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10대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집기비, 피복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잡비, 조세공과금), 500여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최종적으로 민주노총은 이와 같이 결정된 품목별 가격을 가구모형별 생계비 품목에 대입하여 가구모형별 표준생계비를 계측하며, 2010년 민주노총 가구규모별/비목별 표준생계비 계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12〉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식료품	286,375	304,374	268,376	556,365	705,845	909,331	981,926	1,053,450
주거비	417,768	417,768	417,768	849,996	849,996	883,121	955,764	955,764
광열수도비	54,257	52,656	55,857	101,196	121,569	136,222	136,222	136,222
가구가사집기비	157,491	155,981	159,000	216,863	252,795	266,133	282,038	278,460
피복비	73,462	65,450	81,473	139,542	155,321	175,070	203,720	219,314
교육비	-	-	-	-	-	370,000	440,000	513,738
교양오락비	326,333	347,583	305,083	401,833	373,333	439,000	454,333	464,333
교통통신비	127,956	127,956	127,956	506,253	545,928	563,362	597,922	632,482
보건위생비	117,242	98,038	136,446	222,030	218,826	221,961	229,461	227,661
조세공과금	167,858	168,857	166,869	445,763	433,482	631,186	725,309	783,911
합계	1,728,740	1,738,663	1,718,829	3,439,841	3,657,096	4,595,386	5,006,695	5,265,335

자료: 민주노총,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2010. 2.

#### 4. 최저생계비 계측대안의 모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세 번의(1999년, 2004년, 2007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가 계측 되었으며, 절대 빈곤의 관점에서 전물량 방식(마켓 바스켓 방식)으로 계측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객관성

과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 바스켓 구성을 위한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 가격 결정 등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표준가구의 설정이나 가구균등화 지수 등에 있어서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논의를 반복<sup>32)</sup>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대안의 모색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제2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마켓 바스켓 방식 이외에 상대적 방식 도입 등 계측방식 변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한다고 의결한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전물량 방식의 쟁점과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빈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주관적 방식 등 다양한 계측대안별로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최저생계비 계측대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미곤 외(2006, 2009) 연구에 따르면, 반물량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네 가지 모형을 검토한 결과 ‘식료품비 비율 적용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방안은 기존 반물량 방식의 한계인 최저 식료품비 산정에 있어서 연구자간 편차 문제를 우회할 수 있고, 경제수준에 따라 engel계수가 낮아지는 점을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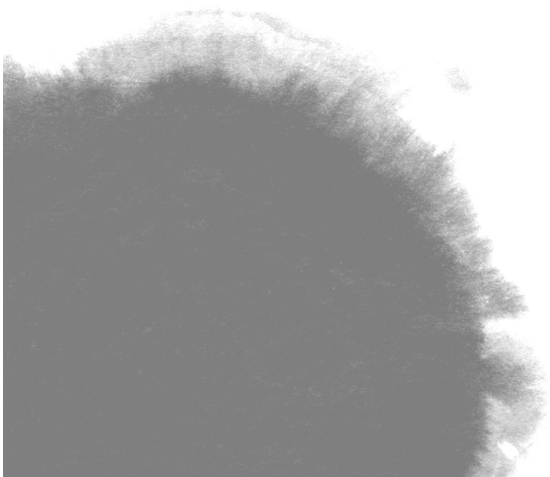
상대적 방식인 박탈지표 방식과 상대적 비율적용 모형을 검토한 결과, 상대적 비율적용 모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지표(소득 또는 소비)와 상대적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32)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및 결정 당시에는 담배, 가구단위 외식 등의 필수품 여부와 TV의 규격, 사회보험료 수준 등이 쟁점이었으며, 2004년에는 핸드폰, 가구단위 외식 등의 필수품 여부와 표준가구, 지역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또한 2007년에는 핸드폰에 대한 필수품 포함 여부, 수련회비, 컴퓨터 등 품목의 단기문제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있다. 또한 주관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본인평가 방식과 제3자 평가방식을 검토한 결과 본인평가에 의한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은 비록 학문적으로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동 방식을 사용하여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정책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계측방식을 연구타당성, 연구자의 자의성, 수준 정합성, 간편성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반물량 방식(식료품비 비율 적용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비 비율적용 방식의 경우 모든 관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여타의 방식들은 한두가지 관점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최저생계비 계측대안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장기(2013년 또는 2016년 이후)에는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빈곤 관점에 따른 절대 최저생계비는 대부분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나, 상대적 빈곤관에 따른 상대적 비율은 주로 선진국의 복지 정책 목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 빈곤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힘들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경제수준이 감당할 수 있으며, 지출 또는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조건들이 성숙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사·정,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는 시기에 상대적 방식을 도입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진안





## 제4장 2010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 제1 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 1.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각 방식들은 모두 일정 정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모든 방식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우리의 현실여건과 향후 복지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변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0조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가.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의 필요성과 계측방식

우리나라의 기존 최저생계비 중 가장 세분류된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다. 그러나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과 급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표준적인 가구보다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더 사용하는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느 방식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출에 가장 적합한 모형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반물량 방식의 경우 식료품비를 이론적으로 산출한 후 엔겔계수의 역수를 곱하는 방식이므로 개념적으로는 단순하다. 그러나 동 방식으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의 식료품비와 앵겔계수를 구해야 한다. 식료품비는 이론적으로 산출이 가능하지만, 이들 유형의 앵겔계수를 실태자료를 바탕으로 구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장애인의 종류 및 등급은 15종류 6등급이다. 이를 조합하면, 이론적으로는 90개 유형(cell)으로 구분되나, 현재 우리나라는 6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유형들을 그룹핑(grouping)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유효한 표본수를 확보하였다고 할지라도 어느 계층의 앵겔 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방식으로 반물량 방식은 주된 방식이 될 수 없다.

상대적 방식의 경우 박탈지표 방식과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박탈지표 방식의 설문문항 구성에 따라 혹은 분석방법에 따라 계층결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반물량 방식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표본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합의 방식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가구유형별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도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주관적 방식의 경우 이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식적 최저생계비 계층 방식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 없다는 선입관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문구성, 응답자의 이해도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이 달라지고, 반물량 방식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표본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주관적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전물량 방식의 경우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방식이다. 즉, 전물량 방식의 경우 실태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식이므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일반가구보다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더 사용하는지를 비교적 쉽게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전물량 방식의 기본적인 한계인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은 피할 수 없다.



## 나. 현금급여기준선 산출과 계측방식

최저생계비 산출의 1차적인 목적은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수급자 선정의 경우 어느 방식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도 큰 차이가 없지만, 급여에서는 계측방식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공공부조제도는 보충성의 원리와 타법지원 우선의 원칙 등을 급여산정의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타법지원 우선의 원칙이란 타 법령을 기초생활보장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구성 품목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은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논리 하에 제도화된 것이 현금급여기준선이다. 현금급여기준선은 최저생계비에서 타 법령에서 지원되는 현금 및 현물을 감(-)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금급여기준선은 보충성 원리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현금액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중 현금급여기준선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이 된다. 상대적 또는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경우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타법령 지원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로 산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반면 전물량 방식의 경우 모든 비목에 대하여 마켓 바스켓을 작성하므로 타법령 지원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로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 사회적 합의와 계측방식 변경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제3장에서 논의한 바처럼 전물량 방식(마켓 바스켓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물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계 및 전문가들에 의하여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대안으로서 상대적 비율적용방식, 반물량 방식의 일종인 식료품비 비율적용 방식(food-ratio method)<sup>33)</sup> 등이 논의되

33) Watt(1965)에 의해 제안되고, Deaton-Muellbauer(1980), Van Praag(1982)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방법이다. 자세한 논의는 김미곤 외(2006) 참조바랍니다.

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절대적인 관점에 바라보는 시각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절대성’ 및 ‘상대성’에 대한 논의는 외국의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슈(issue)이다. 실제 정책에서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상대성과 절대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경향이 강하며, 후진국의 경우 주로 절대성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34차(2009.8.19)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계측방식과 관련하여, “전물량 방식과 상대빈곤선을 고려하여 중생보에서 조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따라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는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하되, 여타 방식들로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 2.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은 제2장에서 논의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 연구의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에 대하여 단계별로 언급하고자 한다.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가 몇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단계마다 산출할 수 있는 주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수 22,000가구인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 조사를 바탕으로 Lyeden 방식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최저생계비, 반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동 방식들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야만 산출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구분을 하고,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정하고, 전물량 방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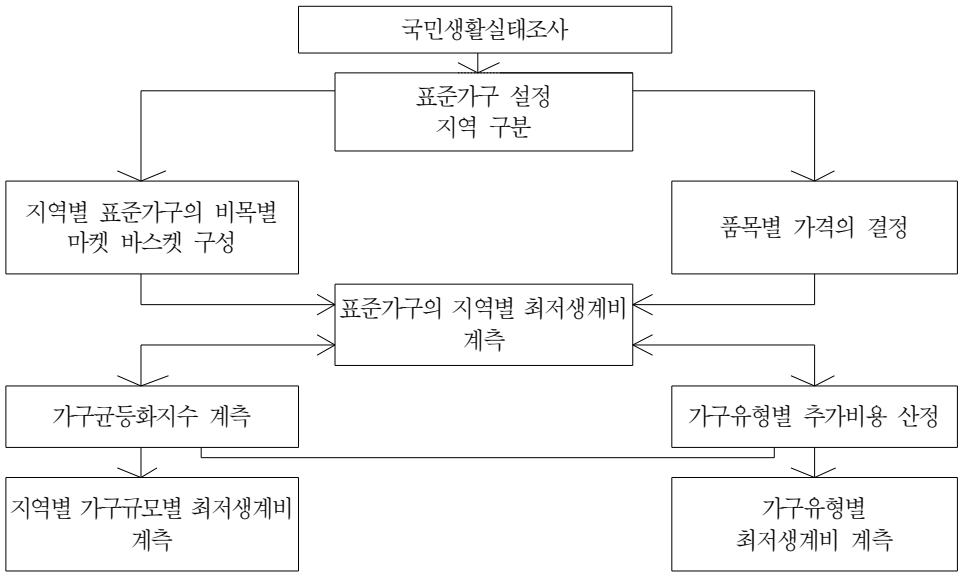
마켓 바스켓 작성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2차 표본을 추출하였다.

한편, 마켓 바스켓(전물량 방식) 구성을 위한 필수품 선정, 사용량 결정, 내구 연수 결정, 가격 결정 등은 2차 「국민생활실태조사」인 심층생활실태조사와 가격조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3차 가구유형별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의 추가비용을 산정하였다.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 계측 단계》**

- 1단계: 표준가구 설정, 지역구분 결정
- 2단계: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PL_{4r}$ ) 계측
  - $PL_{4r} = \sum P_{ir} \times Q_{ir}$
- 3단계: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PL_{jr}$ ) 결정
  - $PL_{jr} = PL_{4r} \times HES(\text{가구균등화지수})$
- 4단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별 기본경비(공통경비)+지역별 가구규모별 점유형태별 주거비+개인별 추가지출액

[그림 4-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전물량 방식의 경우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 가격 결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최저생계비 계층과정의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첫째, 저소득층의 실태자료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려고 노력하였다. 1차 조사에서 22,000가구를 조사하여 표본가구 설정, 주관적 및 상대적 최저생계비 추정 등을 하고, 동 표본에서 소득 하위 40%이하인 2,078가구를 2차 조사 대상가구로 선정하여 심층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생활실태조사에서는 외식 빈도, 내구재 소비실태, 의료비 지출실태 등을 분석하여 마켓 바스켓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2010년 연구에서는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조사하고, 이들 실태를 최저생계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필수품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모든 품목에 대하여 소득탄성치를 추정하여 탄성치가 0.5이하인 품목을 원칙적으로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소득탄성치는 필수품의 경우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치품은 소득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소득탄성치( $E_y$ )의 크기에 따라 필수품 여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_y = 0$	: 절대적 필수품
$0 < E_y < 1$	: 일반필수품(basic necessities: 예, $E_y < 0.5$ )
$E_y = 1$ or $> 1$	: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품목

다음으로 소비의 빈도가 낮은 내구재의 경우 보유여부(또는 구입여부)와 소득을 변수로 사용한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면 소득이 0일 때 어떤 상품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 또는 일정소득 수준에서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필수품 여부를 결정하였다.

셋째, 사용량 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및 방식들을 이용하였다.

- 사용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양을 사용량으로 결정(예, 균등할 주민세)
- 사용량이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양을 사용량으로 결정(예,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는 식품구성, 최저거주면적)
- 월사용량 = (가구당 품목별 월평균지출액/단가)를 참고하여 결정
- 월사용량 =  $\frac{\sum_{i=1}^n X_i}{n}$  ( $X_i$ : I가구의 사용량 n: 표본가구수)를 참고하여 결정
- 비목별 엔겔함수를 이용한 회귀분석<sup>34)</sup>, Allen-Bowley방식<sup>35)</sup>을 이용한 사용량 결정
- 기존통계의 평균값에 계층지수를 적용하여 사용량 결정(예, 전력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
-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소비수준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 이용

넷째, 내구재의 경우 내구연수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및 방식들을 이용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가상각기간 보다는 길게 결정(교환가치는 없어도 사용가치는 있기 때문)
- 표본수를 구입가구수로 나누어 내구연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예, 구두)
- 실태조사의 품목별 평균가격을 월 지출금액으로 나누어 내구연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예, TV, 냉장고 등)
-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소비수준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 이용

34)  $C/n_{\text{food}} = b_0 + b_1 \ln(I/n)$  ----- ①

$C/n_i = b_0 + b_1 \ln(I/n)$  ----- ②

이론적으로 구한 최저식료품비( $C^*$ )를 ①식에 代入하여 最低食料品費에 상응하는 소득수준( $Y^*$ )을 계산한다. 즉  $Y^* = f(C^*)$ . 이 소득수준을 다른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엔겔곡선의 추정식 ②식에 대입하여 최저사용량을 산출한다.

35)  $CL = f(Y, FS)$  -----①

$CN_i = f(Y, FS)$  -----②

CL : 대표적인 사치품 소비량; CNi : 사용량이 결정되어야 하는 필수품의 소비량

Y : 소득 FS : 가구규모

①식에서 사치품의 消費가 0일때의 소득을 구한 후, 이 소득을 ②식에 대입하여 각 必需品의 사용량을 결정한다.

다섯째, 가격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 기준시점 : 2010년 1월(단, 계절변동이 심한 품목은 성수기 기준)
- 품질기준 : 중품
-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구입가격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 이용
- 기존통계에서 월별 품목별 소비자 물가 활용

여섯째, 지역별 가구유형별 필수품의 차이는 품목별 ANOVA 또는 T-Test 분석을 실시하여 차이를 반영하였다.

-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한 후 품목별 ANOVA분석을 실시한 후 지역별 필수품 차이를 반영
- 가구내 장애인 유무, 노인유무, 한부모가구 여부에 따른 필수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T-Test 분석을 한 후 차이를 반영

### 제3절 표준가구의 선정

#### 1. 표준가구의 개념 및 활용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자 할 때, 어떤 가구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사전적(事前的)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 형태 또는 구성을 규정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가구가 얼마나 대표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구규모와 가구원 구성 등의 측면에서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형태를 표준가구 또는 준거가구(reference family)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표준가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가구형태, 즉 최빈가구로 설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표준가구 역시 계측연도인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최빈가구의 가구규모 및 형태로 규정한다.

본 연구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7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 2. 표준가구의 규모와 구성

주지한 바와 같이, 표준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형태(최빈가구)와 가구구성(최빈가구의 가구주 연령 기준)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준가구는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2010년 가 및 인구 추계」 등의 전국적인 대표성을 띤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하며, 동일가구 형태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도농간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먼저,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결과, 최빈 가구규모는 4인가구이며 평균 가구규모는 2.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비율로 볼 때에 전체의 38.3~40.6%가 4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빈 가구규모가 4인가구(전체 가구의 27.0%), 평균가구원수가 2.9명으로 나타난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표준가구의 가구규모는 4인 최빈 가구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4-3-1〉 최빈 및 평균 가구규모

(단위: 명)

기술통계량	국민생활실태조사 (2009)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통계청 가구추계 (2010)
평균 가구원수	2.84	2.86	2.8
최빈 가구규모	4	4	4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가구원수별 추계가구」(kostat.go.kr).

〈표 4-3-2〉 가구규모별 가구 비율

(단위: %, 명)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합계
최저생계비조사 (2009)	20.25	23.07	20.96	26.61	7.24	1.86	100.00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20.56	20.79	21.33	28.68	7.00	1.65	100.00
통계청 가구추계 (2010)	20.25	23.07	20.96	26.61	7.24	1.87	1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가구원수별 추계가구」(kostat.go.kr).

다음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과반수를 넘는 52.6%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구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가구의 구성도 4인으로 구성된 부부(성인 남녀)와 미혼 자녀로 가정한다.

〈표 4-3-3〉 가구형태별 가구 비율(1인가구 제외)

(단위: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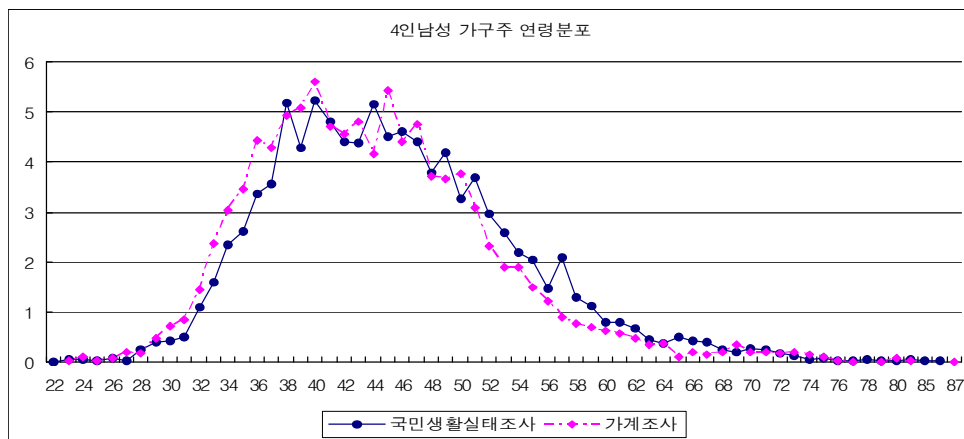
연도	혈연가구수	핵 가족			직 계 가족		기타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2000	11,928	14.8	57.8	9.4	1.2	6.8	10.1
2005	12,491	18.1	53.7	11.0	1.2	5.7	10.4
2010	13,471	19.3	52.6	2.4	1.3	5.5	10.1

자료: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가구구성별 추계가구」 (kostat.go.kr).

이 때 가구주의 연령과 성별은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의 결과(4인의 최빈 연령)를 반영하여 40세의 남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보고서』(각년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40세 남성이 결혼한 시기(1998년경)에 배우자와의 터울은 평균 3년 정도이므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은 37세로 정하였다.

[그림 4-3-1] 전국가계조사(2009년) 및 기초조사(2010년)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4-3-4〉 평균 초혼연령

(단위: 건, 명, 세)

연도	혼인건수	혼인율(천명당)	남자	여자
1993	402.6	9.0	28.1	25.1
1994	393.1	8.7	28.3	25.2
1995	398.5	8.7	28.4	25.4
1996	434.9	9.4	28.4	25.5
1997	388.6	8.4	28.6	25.7
1998	375.6	8.0	28.9	26.1
1999	362.7	7.7	29.1	26.3
2000	334.0	7.0	29.3	26.5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조사보고서』.

또한, 『인구동태조사보고서』(각년도)에 의하면, 현재 37세인 여성은 평균적으로 약 27.4세 내외(1999년경)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2년이 지나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0년 현재 자녀의 나이는 각각 11세(남), 9세(여)로 설정하였다.

〈표 4-3-5〉 첫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모(母)의 평균연령	26.3	26.4	26.5	26.7	26.9	27.2	27.4	27.7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조사보고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최종적인 표준가구(연구진안)는 아래 표와 같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이며, 남성 가구의 연령은 40세, 여성 배우자의 연령은 37세, 첫째 자녀의 연령은 11세, 둘째 자녀의 연령은 9세로 설정되었다.

〈표 4-3-6〉 2010년 표준가구(연구진안)

표준가구의 규모	표준가구의 구성
4인 가구	부: 40세 모: 37세 1자(남):11세 2자(여):9세

### 3. 국내외 표준가구와의 비교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다섯 차례(1989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에 걸친 최저생계비 계층이 있었으며,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계층은 세 차례(1999년, 2004년, 2007년)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계층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결과 최빈치를 바탕으로 표준가구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3-7〉 최저생계비 계층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연도	가구원 수	가구원구성				산출방법	비고	
		부	모	1자	2자		4인가구 비중	평균 가구원수
1989	4인	37세	33세	8세(여)	5세(남)	실태조사결과 평균가구원수	-	4.36인
1994	4인	37세	33세	8세	5세	-	-	
1999	4인	36세	33세	7세(남)	5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4인-35.4%)	평균은 3.45인
2004	4인	39세	36세	10세(남)	8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4인-29.1%)	평균은 3.02인
2007	4인	40세	37세	11세(남)	9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4인-27.3%)	평균은 2.94인
2010	4인	40세	37세	11세(남)	9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4인-26.6%)	평균은 2.84인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최저생계비 계층 이래로 표준가구의 규모는 4인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는 평균 가구원수는 1989년 4.36명에서 2010년 2.84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왔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최빈가구는 4인가구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구원 연령의 경우, 1999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

으나 2004년에 전체적으로 3세씩 상승하였으며<sup>36)</sup>, 2007년에는 다시 1세씩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2007년과 변함이 없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을 전후로 한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빈곤선)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국가 간에 사회보장 급여 수준 등을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표준가구를 설정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예는 일본 후생성의 생활보호기준으로, 여기에서 표준가구는 1984년까지 35세(남), 30세(여), 9세(남), 4세(여)로 구성된 4인 근로자가구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33세(남), 29세(여), 4세(남)로 구성된 3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정하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일본의 경우 표준가구의 가변적 속성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구성의 표준가구를 설정하되, 전체적인 인구구조와 가구구성이 변화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표준가구의 규모와 구성을 모두 변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Orshansky의 반물량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CNS(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에 의해 제시된 마켓 바스켓방식에 의한 빈곤선 설정에서도 미국의 일반적인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2인 성인과 2인 아동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가구원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의 경우도 LICOs(Low Income Cut-Offs)와 더불어 사용되는 마켓 바스켓 방식에서도 역시 25~49세의 성인 부부와 13세(남), 9세(여)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표준가구 설정방식과 표준가구의 구성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최소소득보장의 수준을 비교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Behrendt의 다양한 표준가구 중 4인 표준가구는 35세(남), 35세(여), 7세, 5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36)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원래의 연구진 표준가구(안)은 가구주 43세, 배우자 40세, 첫째 자녀 14세, 둘째 자녀 12세로 설정되었으나, 가구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최저생계비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가구주 39세, 배우자 36세, 첫째 자녀 10세, 둘째 자녀 8세로 조정되었다.

〈표 4-3-8〉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

국가	최저생계비	표준가구규모	표준가구구성	비고
미국	CNS의 MBM	4인	2인 성인, 2인 아동	연령제시× 미국의 대표적 가구형태 기준
캐나다	MBM	4인	25~49세 부부, 13세 남아, 9세 여아	캐나다의 가장 높은 비율의 가 구형태 기준
일본	후생성 생활보호 기준	~1984	35세(남), 30세(여), 9세(남), 4세(여)	근로자가구 기준
		1985~	33세(남), 29세(여), 4세(남)	근로자가구 기준
국가간 비교연구	Behrendt	4인	35세(남), 35세(여), 7세, 5세	

자료: Behrendt(2001), "Minimum Income Schemes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a Flawed Safety Net?". Paper prepared for the RC19 Conference on Old and New Social Inequalities: What Challenges for the Welfare States. Oviedo. September 6-9.

Citro(2004), *Options for Setting and Updating a Reference Family Threshold for a Revised Poverty Measure*. Hatfield, Michael. April 2002. *Constructing the Revised Market Basket Measure. Applied Research Branch Strategic Polic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도 전물량 방식, 즉 마켓 바스켓방식으로 빈곤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실태를 반영하는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를 그때그때 반영해 줄 경우 표준가구의 구성이 마켓 바스켓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를 일정 기간 동안 고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표준가구 설정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제4 절 지역구분

### 1. 지역구분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가.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지역구분의 필요성

최저생계비 계층방식 가운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전물량 방식은,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각 필수품마다 규격,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을 측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층된다. 그러므로, 전물량 방식에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거나 특정지역에 대

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지역별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품의 품목이나 사용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필수품과 사용량, 내구연수는 같더라도 지역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정책적으로 반영된다면 지역별 차이가 현실에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기준을 계측하면서 지역별로 품목이나 규격, 사용량 등에 있어서 규범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 이외에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에, 지역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장가격 차이는 통계청 등에 의해 수행되는 물가조사에 의해 객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는 주거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품목들 가운데에도 시장가격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야만 지역별 차이가 제대로 반영된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를 모두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수는 없다. 지역별 주거비 또는 다양한 필수품에서 시장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미세한 지역별 차이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측면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정책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다. 요컨대,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측에 필요한 지역구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수품 여부,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 가운데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반영할 것이며, 이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반영하여 지역을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나. 기존 최저생계비 계층연구에서의 지역구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했던 기존의 최저생계비 계층연구에서도 지역별 최저생계비가 계층된 바 있다. 특히, 1999년과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연구과정에서는 지역구분을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으며 중요한 변화도 있었다.

먼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층하였다. 당시에는 1988년과 1994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층하였다.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중소도시(100) 기준으로 대도시 106, 농어촌 86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3개 지역별로 계층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층결과 가운데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만을 공식 최저생계비로 결정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결과 발표 이후, 대도시로 분류된 서울의 생활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서울의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산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최저생계비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100으로 할 경우 132수준에 이른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 이전인 2003년 개최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는 1999년 계층연구와 같이 3개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잠정 구분하되,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 계층 시 지역구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 당시, 연구진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도시를 서울과 광역시로 분리하고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4개 지역으로 잠정 구분하여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층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시하였다. 계층결과를 살펴보면,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층된 최저생계비 수준은 중소도시(100) 기준으로 서울 118, 광역시 103, 농어촌 85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정책실현의 현실적합성을 고려하여 1999년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3개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잠정 구분하여 재심의하기로 의결함으로써 대도시 최저생계비를 다시 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지역별 최저생계비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이 때, 대도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대비 '109'로 서울(118)과 광역시(103)의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9년에 이어 2004년 최저생계비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결과와 같이 지역별로 최저생계비를 구분하지 않고,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에는 우선 '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 4개 지역으로 잠정 구분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에서는 주거비를 기준변수로 활용하되,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재산가액, 전세가액, 월세를 기준변수로 다양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구분 방안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구 규모가 주거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분산분석(ANOVA)에서는 '①자가 재산가액, 전세가액, 월세, ②자가 재산가액, 전세가액, 월세를 OECD 가구균등화 지수로 나눈 값, ③자가 재산가액, 전세가액, 월세에 가구규모별 최저주거면적을 반영한 값'을 각각 분석하여 지역구분 기준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과 안정성, 각종 복지정책 선정기준 등으로서의 정책집행 가능성 및 현실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3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계측결과, 2007년 최저생계비의 지역간 비율은 '108(대도시) : 100(중소도시) : 86(농어촌)'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 이어 2007년 최저생계비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만을 공식 발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의 기본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구분의 필요성과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의 지역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지역구분 기준을 도출하여 이를 검증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

최저생계비의 지역구분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각 지역별 이론적인 생계비의 차이와 정책의 집행가능성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이론적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모든 지역의 물가수준과 실질적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어야 하고, 이 경우 군집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서 k개의 지역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지역구분 범주의 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물가수준과 생계비 차이를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집행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와 마찬가지로 연구진이 잠정적으로 예상하는 지역구분 기준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강조한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과 안정성, 정책집행의 실용성과 현실 적합성과 더불어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적용되었던 3개 지역구분(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을 잠정(안)으로 설정한 후,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역구분(안)을 검증하고자 한다.

- (잠정안) 기존 3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수도권 분리 3지역 :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 수도권 분리 4지역 :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 서울 분리 4지역 :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서울 및 경기 분리 5지역 :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한편, 최저생계비의 지역구분 및 정책반영 여부는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므로,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지역구분(안)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역구분 기준을 수용하여 지역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2010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



## 2. 2010년 최저생계비 지역구분을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

### 가. 지역구분 기준 (분석변수)

일반적으로 지역구분의 필요성은 각 지역별로 물가수준의 차이가 존재함으로부터 기인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품목별 또는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 각종 품목별로 물가통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도시 지역을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 구분에 이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에서는 지역별 생계비 수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주거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다. 주거비 차이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에 의한 것으로,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품목별 시장가격 차이보다 큰 폭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거비 차이는 지역별 생계비 차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지역구분을 위한 기준변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주거점유 형태에 따른 시장가격의 차이를 감안하여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07년 계측 당시와는 달리 주거유형에 따른 주거비 차이를 분석기준에 고려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특정 주거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가구의 평균으로 구분한 후 위의 3가지 주거점유형태와 조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지역구분을 위한 기준변수로 주거비를 포함하여 조사되는 개별가구의 전체 적인 가계지출 수준 역시 활용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별 생계비의 차이는 가계지출의 차이이므로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계지출에는 최저생계비의 주요한 비목이면서 지역별 생계비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비의 유량(flow)만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즉, 가계지출의 주거비에는 월세만 포함되어 있을 뿐, 자가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및 전세 비용(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주거비를 기준변수로 활용하되, 주거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및 주거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자가 재산가액, 전세가액, 월세를 기준변수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5가지 지역구분(안)을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이 때, 가구규모가 주거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07년 계층 시에는 가구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자가 재산가액, 전세가액, 월세를 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와 가구규모별 최저주거면적으로 각각 나눈 값을 분석한 바 있으나, 이번 계층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장가격 조사 당시부터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에 활용한다.

#### 나. 지역구분을 위한 통계분석 : 분산분석(ANOVA)

본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층에 필요한 지역구분(안)을 결정하기 위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산분석은 집단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구분한 5개 지역구분(안)에 따라서 분석기준으로 설정한 주거유형 및 주거점유형태별 주거비 변수(자가 재산가액, 전세가액, 월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지역 간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후검정<sup>37)</sup>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전국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원자료에서 4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전용면적 37m<sup>2</sup>, 약 11.2평)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 3. 분산분석(ANOVA) 결과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5가지 지역구분(안) 가운데 연구진이 잠정안으로 설정한 기존 3개 지역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방안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3가지 주거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및 주거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37) 사후검정에서는 Scheffe 검증방법을 활용하여 세부 지역별 통계적 차이의 유의미성을 판단하였다.

한다<sup>38)</sup>.

연구진에서 잠정 구분한 3개 지역구분에 따라 481개 표본조사구(대도시 217개, 중소도시 204개, 농어촌 60개)별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가(재산가액), 전세(전세보증금), 월세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주거점유형태별 및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전체 등 주거유형별로 구분한 12개 분석모형의 평균 시장가격에서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순서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4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모든 표본조사구의 자가 평균 재산가액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 약 10,578만원, 중소도시 약 6,337만원, 농어촌 3,515만원, 전국적인 평균은 약 7,89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 약 5,050만원, 중소도시 약 3,462만원, 농어촌 2,047만원, 전국적인 평균은 약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점유형태가 월세일 경우 지역별 평균 월세금액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 약 42만원, 중소도시 약 31만원, 농어촌 2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인 월세 평균은 약 35만원이었다.

한편, 이러한 평균 차이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수준 1%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나머지 지역구분(안)에 대한 세부적인 분산분석 결과표는 부록에서 제시한다.

〈표 4-4-1〉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1): 기술통계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아파트-자가	대도시	217	10858.62	8521.361	578.468
	중소도시	204	6716.53	3984.359	278.961
	농어촌	60	3803.00	1441.262	186.066
	Total	481	8221.77	6796.488	309.893
단독주택-자가	대도시	217	12183.39	10750.564	729.796
	중소도시	204	7102.69	5430.008	380.177
	농어촌	60	3649.83	1891.794	244.230
	Total	481	8964.10	8637.490	393.836
연립주택등-자가	대도시	217	8692.51	6274.450	425.937
	중소도시	204	5190.47	3288.911	230.270
	농어촌	60	3092.50	1177.538	152.019
	Total	481	6508.69	5178.258	236.108
자가_전체	대도시	217	10578.17	8100.820	549.920
	중소도시	204	6336.56	3906.856	273.535
	농어촌	60	3515.11	1333.376	172.138
	Total	481	7898.19	6548.975	298.608
아파트-전세	대도시	217	5924.56	3753.398	254.797
	중소도시	204	3964.71	1984.616	138.951
	농어촌	60	2345.00	1041.906	134.509
	Total	481	4646.84	3120.400	142.278
단독주택-전세	대도시	217	4612.12	3101.518	210.545
	중소도시	204	3171.81	1654.142	115.813
	농어촌	60	1855.00	983.452	126.963
	Total	481	3657.34	2554.047	116.455
연립주택등-전세	대도시	216	4593.98	2438.320	165.907
	중소도시	204	3249.02	2720.670	190.485
	농어촌	60	1941.67	728.661	94.070
	Total	480	3690.83	2589.438	118.191
전세_전체	대도시	216	5050.09	2926.246	199.106
	중소도시	204	3461.85	1790.931	125.390
	농어촌	60	2047.22	837.808	108.161
	Total	480	3999.73	2527.350	115.357
아파트-월세	대도시	217	48.89	25.038	1.700
	중소도시	204	36.75	14.039	.983
	농어촌	60	23.70	7.228	.933
	Total	481	40.60	21.093	.962
단독주택-월세	대도시	217	38.30	17.959	1.219
	중소도시	204	28.57	12.246	.857
	농어촌	60	18.73	8.190	1.057
	Total	481	31.73	16.177	.738
연립주택등-월세	대도시	217	39.53	16.480	1.119
	중소도시	204	29.00	11.108	.778
	농어촌	60	20.82	8.420	1.087
	Total	481	32.73	15.089	.688
월세_전체	대도시	217	42.24	18.751	1.273
	중소도시	204	31.44	11.372	.796
	농어촌	60	21.08	7.089	.915
	Total	481	35.02	16.504	.753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원자료

〈표 4-4-2〉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2): 분산분석표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자가	Between Groups	3142537902.767	2	1571268951.384	39.468	.000
	Within Groups	19029742292.077	478	39811176.343		
	Total	22172280194.844	480			
단독주택-자가	Between Groups	4650270548.843	2	2325135274.421	35.667	.000
	Within Groups	31160725295.960	478	65189801.874		
	Total	35810995844.802	480			
연립주택등-자가	Between Groups	2089602126.417	2	1044801063.208	46.322	.000
	Within Groups	10781290552.045	478	22555001.155		
	Total	12870892678.462	480			
자가_전체	Between Groups	3208735605.183	2	1604367802.591	44.130	.000
	Within Groups	17378020403.268	478	36355691.220		
	Total	20586756008.450	480			
아파트-전세	Between Groups	767099230.911	2	383549615.455	46.930	.000
	Within Groups	3906611365.763	478	8172827.125		
	Total	4673710596.674	480			
단독주택-전세	Between Groups	440814039.957	2	220407019.978	39.161	.000
	Within Groups	2690301953.806	478	5628246.765		
	Total	3131115993.763	480			
연립주택등-전세	Between Groups	399581853.486	2	199790926.743	33.888	.000
	Within Groups	2812202813.181	477	5895603.382		
	Total	3211784666.667	479			
전세_전체	Between Groups	526062725.086	2	263031362.543	49.522	.000
	Within Groups	2533549050.817	477	5311423.587		
	Total	3059611775.903	479			
아파트-월세	Between Groups	35063.669	2	17531.834	46.948	.000
	Within Groups	178499.691	478	373.430		
	Total	213563.360	480			
단독주택-월세	Between Groups	21552.239	2	10776.119	49.496	.000
	Within Groups	104067.699	478	217.715		
	Total	125619.938	480			
연립주택등-월세	Between Groups	21395.289	2	10697.644	58.176	.000
	Within Groups	87896.034	478	183.883		
	Total	109291.322	480			
월세_전체	Between Groups	25584.576	2	12792.288	58.143	.000
	Within Groups	105166.328	478	220.013		
	Total	130750.903	48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격조사) 원자료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별로 12개 모형에 대한 세부 지역별 통계적 차이 역시 사후검정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잠정안으로 설정하여 제시한 3개 지역구분 방안(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3〉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자가)

구분	(I) 기준 지역	(J) 비교 지역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자가	대도시	중소도시	4142.088**	615.317	.000
		농어촌	7055.618**	920.316	.000
	중소도시	대도시	-4142.088**	615.317	.000
		농어촌	2913.529**	926.646	.008
	농어촌	대도시	-7055.618**	920.316	.000
		중소도시	-2913.529**	926.646	.008
단독주택-자가	대도시	중소도시	5080.705**	787.383	.000
		농어촌	8533.558**	1177.672	.000
	중소도시	대도시	-5080.705**	787.383	.000
		농어촌	3452.853*	1185.772	.015
	농어촌	대도시	-8533.558**	1177.672	.000
		중소도시	-3452.853*	1185.772	.015
연립주택등-자가	대도시	중소도시	3502.041**	463.146	.000
		농어촌	5600.012**	692.717	.000
	중소도시	대도시	-3502.041**	463.146	.000
		농어촌	2097.971*	697.481	.011
	농어촌	대도시	-5600.012**	692.717	.000
		중소도시	-2097.971*	697.481	.011
자가_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4241.611**	588.007	.000
		농어촌	7063.062**	879.469	.000
	중소도시	대도시	-4241.611**	588.007	.000
		농어촌	2821.451**	885.518	.007
	농어촌	대도시	-7063.062**	879.469	.000
		중소도시	-2821.451**	885.518	.007

주: \* p<.05, \*\* p<.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원자료

〈표 4-4-4〉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전세)

구분	(I) 기준 지역	(J) 비교 지역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전세	대도시	중소도시	1959.856**	278.793	.000
		농어촌	3579.562**	416.985	.000
	중소도시	대도시	-1959.856**	278.793	.000
		농어촌	1619.706**	419.853	.001
	농어촌	대도시	-3579.562**	416.985	.000
		중소도시	-1619.706**	419.853	.001
단독주택-전세	대도시	중소도시	1440.306**	231.357	.000
		농어촌	2757.120**	346.036	.000
	중소도시	대도시	-1440.306**	231.357	.000
		농어촌	1316.814**	348.416	.001
	농어촌	대도시	-2757.120**	346.036	.000
		중소도시	-1316.814**	348.416	.001
연립주택등-전세	대도시	중소도시	1344.962**	237.054	.000
		농어촌	2652.315**	354.337	.000
	중소도시	대도시	-1344.962**	237.054	.000
		농어촌	1307.353**	356.595	.001
	농어촌	대도시	-2652.315**	354.337	.000
		중소도시	-1307.353**	356.595	.001
전세_Avg	대도시	중소도시	1588.246**	225.003	.000
		농어촌	3002.870**	336.324	.000
	중소도시	대도시	-1588.246**	225.003	.000
		농어촌	1414.624**	338.467	.000
	농어촌	대도시	-3002.870**	336.324	.000
		중소도시	-1414.624**	338.467	.000

주: \* p<.05, \*\* p<.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원자료

〈표 4-4-5〉 기존 3개 지역구분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3): 사후검정표(월세)

구분	(I) 기준 지역	(J) 비교 지역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월세	대도시	중소도시	12.134**	1.885	.000
		농어촌	25.189**	2.819	.000
	중소도시	대도시	-12.134**	1.885	.000
		농어촌	13.055**	2.838	.000
	농어촌	대도시	-25.189**	2.819	.000
		중소도시	-13.055**	2.838	.000
단독주택-월세	대도시	중소도시	9.736**	1.439	.000
		농어촌	19.571**	2.152	.000
	중소도시	대도시	-9.736**	1.439	.000
		농어촌	9.835**	2.167	.000
	농어촌	대도시	-19.571**	2.152	.000
		중소도시	-9.835**	2.167	.000
연립주택등-월세	대도시	중소도시	10.535**	1.322	.000
		농어촌	18.713**	1.978	.000
	중소도시	대도시	-10.535**	1.322	.000
		농어촌	8.178**	1.992	.000
	농어촌	대도시	-18.713**	1.978	.000
		중소도시	-8.178**	1.992	.000
월세_Avg	대도시	중소도시	10.802**	1.447	.000
		농어촌	21.158**	2.164	.000
	중소도시	대도시	-10.802**	1.447	.000
		농어촌	10.356**	2.178	.000
	농어촌	대도시	-21.158**	2.164	.000
		중소도시	-10.356**	2.178	.000

주: \* p&lt;.05, \*\* p&lt;.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원자료

#### 4.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최종 지역구분 결과 및 함의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 및 정책 집행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 잠정안으로 제시한 기존 3개 지역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은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에 따라 구분된 모든 모형에서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표 4-4-6〉 기존 3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지역구분 결과
자 가	아파트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전 세	아파트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월 세	아파트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주: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로 표시

앞서 검토한 잠정안(기존 3개 지역구분) 이외에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별로 일관성 있게 지역구분이 가능한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연구진이 제시한 나머지 지역구분(안)에 대한 분산분석에 따른 지역구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9)</sup>.

먼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 사이의 부동산 가격 차이에 따른 주거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수도권 - 수도권 이외 지방 도시 - 수도권 이외 지방 농어촌) 방안을 살펴보면, 자가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 및 월세의 경우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특정 행정구역(서울, 인천, 경기)을 수도권으로 별도 구분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도시와 군 단위의 농어촌으로 구분한 것으로, 분산분석에 의한 통계적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연구진이 잠정안으로 제시한 기존 3개 지역구분(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방안 다음으로 가장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39) 나머지 4개 지역구분(안)에 대한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별 세부 분석결과(기술통계, 분산분석표, 사후검정표)는 부록에 제시하고 있다.

〈표 4-4-7〉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지역구분 결과
자 가	아파트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전체 평균	
전 세	아파트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월 세	아파트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주: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로 표시

반면에,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수도권 - 수도권 이외 지방 광역시 - 수도권 이외 지방 중소도시 - 수도권 이외 지방 농어촌) 방안의 경우, 주거유형에 상관없는 월세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지방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또는 지방 중소도시와 지방 농어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 지역구분(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4-4-8〉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지역구분 결과
자 가	아파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전체 평균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전 세	아파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전체 평균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월 세	아파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연립주택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전체 평균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주: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로 표시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결과 이외에도 수도권 분리를 전제로 한 지역구분 방안의 경우, 전국을 시군구 등 행정체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수도권으로 분리하여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다소 변형하여 특정 지역의 현실적인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을 살펴보면 월세 중 일부를 제외하고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점유형태와 주거유형에 따른 분석결과에서 광역시와 중소도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지역구분 결과
자 가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전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월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전체 평균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주: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로 표시

이상에서 대도시에 해당하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 및 월세가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한 방안이 서울과 경기를 고려하여 5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것은 전국을 ‘서울, 광역시, 경기도 중소도시, 경기도 이외 중소도시, 농어촌’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월세의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전체 평균에서 5개 지역구분이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가와 전세의 경우에는 경기 이외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4-10〉 서울·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 기준 분석결과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지역구분 결과
자 가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전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월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전체 평균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주: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로 표시

요컨대, 표준가구 설정과 더불어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하는 필수요소인 지역구분(안)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 및 정책 일관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의 3개 지역구분(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기존 3개 지역구분(안)은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에 따른 분석기준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방안으로 이를 기준으로 표준가구에 대한 지역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함으로써 2010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밖에 지역구분 대안으로 분석한 수도권 분리 3개 지역(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구분(안)의 경우, 자가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와 지방 농어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서울 및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의 경우에는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 등 분석지표에 따라 통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 방안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제5장 2010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 제1 절 최저 식료품비

#### 1. 최저 식료품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식료품비의 개념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으로는 의식주를 들고 있으며, 이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食 : 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태어나면 먼저 먹을 것을 구하므로 이는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저생계비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식료품비는 매우 중요하며, 최저생계비 전체 비목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식품 또는 식료품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 발육을 촉진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식료품비란 인간의 생존, 성장과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열량과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식품 섭취는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 욕구에 해당하는 만큼 식료품비는 소비지출비목 중 가장 비탄력적인 비목이다.

본 연구에서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 식료품비란 영양학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식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된다. 즉, 우리 사회의 식료품 소비실태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규범적 측면에서의 영양학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식료품비 계측방법

전물량 방식에 의한 식료품비 계측은 1988년 이래 2007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계측 등에 두루 활용되어 왔으며, 이들 계측에 활용된 기본 모형과 계측 방식은 유사하였다.

먼저,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식료품비는 큰 틀에서 2004년의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최저 식료품비는 가정식비용, 가장의 외식비, 학생의 학교급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정식 비용의 경우 실태적 측면에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중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의 품목 세분류별 지출 실태를 반영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8차 개정』(한국영양학회, 2005)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강도별 · 연령별 · 성별 열량과 14개 영양 권장량(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E, 비타민B6, 엽산, 아연, 나이아신, 칼슘, 인, 철분)과 동 개정에 제시되어 있는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 중 영양소는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사이로 조정하였다.

식료품 가격(2007년 1월, 중품가격 기준)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물가정보』,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무역정보』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격자료와, 「가계부조사」 자료의 최빈값과 시장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외식비의 경우 가장의 중식과 학생 급식을 포함하였으나, 최저생계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 단위의 외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2010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료품비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계측 방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식료품비 계측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차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식료품비에 표준생계비—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단위의 외식을 포함하였고,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각격을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가구단위 외식횟수의 경우 한국노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회, 민주노총 역시 월 2회로 설정하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식료품비 계측방법

2010년 최저 식료품비는 2007년 최저 식료품비 계측방식과 큰 틀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즉, 규범적 측면에서 표준가구의 연령, 성별을 감안하여 영양섭취기준을 설정하였고, 현실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들을 기준으로 마켓 바스켓을 설정하였다. 다만 2007년 식료품비 계측과의 차이는 『식품영양소 함량자료집』(한국영양학회, 2009)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2007년 연구진안에 반영되지 못한 가족단위 외식을 반영해 주었다.

최저 식료품비는 가족 전체 혹은 일부가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용인 가정식 비용과 외부에서 식사하는 외식 비용으로 구성하였다.

식료품비 = 가정식 비용 + 외식 비용(가장의 중식비 + 학생의 학교급식비 + 가족단위 외식비)

단,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비용 감소분(가장 중식 절감분 + 학생 급식 절감분 + 가족단위 외식 절감분 + 가족단위 친지방문 절감분 + 학생 수련회 절감분) 제외

127

가정식 비용은 곡류 및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과일류, 조미식품, 빵 및 과자류, 차음료, 기타식료품의 10개 중분류 품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09년 항목개편전 식품비 분류방식에 준한 것이다. 가장의 외식비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의 중식비에 해당하며, 학생의 급식비는 초등학교 자녀(2명)의 학교급식비에 해당한다. 가족단위 외식비는 최근 외식문화의 증가 실태를 감안하여 표준가구가 최소한으로 가족단위로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산출된 식료품비에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비용 감소분을 가정식 비용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친지방문(4인 기준 연간 2회: 연간 총 6끼)과 초등학교 자녀의 수련회 참석(1인당 연간 1회: 1인당 연간 3끼)으로 인한 가정식 비용 절감분이 포함된다.

## 2. 최저 식료품비 계층결과

### 가. 가정식 비용

가정식 비용은 기존 최저 식료품비의 산출방식과 같이 다음 3단계를 거쳐 산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1일 가정식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1일 가정식 비용 = 1일 식료품 구입량 ×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1끼 당 가정식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즉, ‘1끼 당 가정식 비용 = 1일 가정식 비용 ÷ 3’으로 계산된다. 마지막 단계는 월 가정식 비용을 산출하는 단계로 ‘월 가정식 비용 = 1끼 당 가정식 비용 × 월평균 끼니 수(365÷12 × 3) -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비용 감소분’으로 계산된다.

#### 1) 품목 선정

식료품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용하는 식품 중에서 필수 식료품을 선정하되, 영양학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이 소비하는 식료품의 종류는 매우 많고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즉 각 품목은 저소득층이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선정하였으므로, 비슷한 가격과 성분의 다른 식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예. 품목에 포함된 식품: 도토리묵 ↔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 메밀묵).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수 식료품을 선정하였다.

2010년 계층은 2007년 계층 이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므로, 2010년 식료품비 품목 선정은 2007년의 식료품비 항목과 동일한 품목으로 결정하였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 품목선정방법을 살펴보면, 『전국가계조사』의 가구 중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의 품목 세분류별 지출액을 산정하여 각 품목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식료품 중분류 범주 내에서 지출비율이 0.5% 미만인 식료품 품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전국가계조사』에서 선정한 품목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계부 조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한 비율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마켓 바스켓 품목을 결정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마켓 바스켓 품목 수는 총 97가지이며, 2010년에는 동 품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식료품비를 계산하였다.

## 2) 사용량(구입량) 결정

최저 식료품비 산정을 위해 품목을 결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각 품목의 구입량을 결정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의 섭취는 ‘영양학적 필요’라는 규범적 측면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각 품목의 구입량을 다음 세 단계를 거쳐 결정하였다.

첫 번째는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품목의 양을 조정하였다. 섭취량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강도별·연령별·성별 열량과 22개 영양 권장량<sup>40)</sup>을 충족하도록 결정하였다<sup>41)</sup>. 예컨대, 기본적인 열량의 경우 표준가구를 구성하는 가장 40세, 배우자 37세, 1자(남) 11세, 2자(여) 9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1일 필요열량은 각각 2,400kcal, 1,900kcal, 1,900kcal, 1,700kcal로 표준가구의 1일 필요열량은 총 7,900kcal이며, 97개 품목의 구입량이 하루 필요열량의 100% 내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저 식료품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군 내에서 가능한 저렴한 품목을 좀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식료품별 폐기율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식료품의 특성상 세척·가공·조리 과정에서 껍질·뼈·수분 등이 손실되므로, 구입량보다는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즉,  $[\text{구입량} \times (1 - \text{폐기율})]$ 이 앞에서 제시한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도록 하였다<sup>42)</sup>.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

40) 영양권장량에 반영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B6, 비타민B12, 나이아신, 엽산,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불소, 망간, 요오드, 셀레늄, 폴리브텐이다. 제7차 개정까지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에서는 영양권장량만을 제시하였으나, 제8차 개정된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에서는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식료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영양소를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사이로 조정하였다.

41) 이 때, 식품별 영양성분은 『식품영양소 함량자료집』(한국영양학회, 2009)를 주로 참고하였다.

42) 품목별 폐기율은 식품별 영양성분과 같이 『식품영양소 함량자료집』(한국영양학회, 2009)을 사용하였다.

별 영양학적 권장량과 「가계동향조사」(2009)를 절충하여 최종적인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구입량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식료품 품목별 도농간 소비량 차이를 ANOVA 분석한 결과 일부 식료품 품목에서 도시와 농촌 간 소비량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식료품은 현실적 측면보다는 규범적 측면 즉 영양권장량 충족의 측면이 강하고 하나의 품목은 비슷한 가격과 영양소를 가진 다른 품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농간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 3) 가격 결정

식료품 품목과 구입량이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각 품목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입량 × g당 가격]의 산식으로 식품별 총소비가격을 결정하였다. 가격은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하였고, 어개류, 채소, 과일류 등 계절에 따른 가격등락이 심한 일부 품목(예. 배추, 무, 고구마, 사과, 딸기 등)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다.

가격결정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중 식료품비에 해당되는 항목의 물가변동률,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정보』, 그리고 인터넷 자료의 시장가격과 시장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가격은 중(하)품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과일류, 어개류 등 계절에 따른 가격등락이 심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성수기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다.

#### 나. 외식비

외식은 가구단위의 외식과 가구원의 규칙적 외식(가장의 중식 및 학생의 급식)으로 나누어진다. 외식 가격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외식실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물가변동률 등을 중심으로 하고 현 시가를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가구단위 외식과 관련해서, 가구단위 외식회수는 분기당 1회( $4/12=0.33$ )를

찾는 것으로 하였다. 단가는 2007년 시장조사 자료인 1회 기준 24,000원을 적용하였다.

가구원의 규칙적 외식 중 가장의 중식의 경우, 표준가구에서 도시지역 가정은 임금근로자, 농어촌지역 가정은 농어업 종사자로 가정되었으므로, 도시지역의 경우만 가장 중식비를 반영하였다. 도시지역 가정의 중식 회수는 월 21.73( $=365/12 \times 5/7$ ) 회로 설정하였다. 가정의 중식 비용은 끼니당 3,500원을 적용하였다<sup>43)</sup>.

한편, 표준가구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이므로 둘 다 급식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급식회수는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월 15.83회( $= (209^{44}) - 209/11)/12$ )회로 설정하였다. 학생의 급식비는 교육과학기술부 학생 1인당 급식비 (2010.4.)를 적용하였다.

#### 다.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2010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는 도시지역의 경우 545,943원, 농어촌지역의 경우 504,217원으로 산정되었다(구체적인 각 항목은 아래 표 및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식 비용은 영양학적 기준과 실태를 반영하여 계산된 가정식 구입비에 가장중식 절감분, 초등학생(2명)의 급식비 절감분, 그리고 가족단위 외식 절감분, 친지방문절감분과 수련회 절감분을 빼주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가정식 비용은 도시지역 399,391원, 농어촌 지역 433,707원으로 가장 중식 절감분이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이 좀더 높게 설정되었다. 이에 비해 외식비의 경우 도시지역 146,552원, 농어촌 지역 70,510원으로 가정이 바깥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된 도시지역이 훨씬 높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 중식의 평균가격 4,315원, 중위가격 4,000원, 최빈가격 3,500원 중 최빈가격을 반영하였다.

44) 수업일수를 말한다.

〈표 5-1-1〉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식료품 합계</b>				<b>545,943</b>	<b>545,943</b>	<b>504,217</b>
가정식(외식없는경우)	1월	91.25회	5,199	474,412	474,412	474,412
가장 중식 절감분	1월	-21.73회	1,579	-34,316	-34,316	
	1월	0.00회	0			0
11세 급식 절감분	1월	-15.83회	1,250	-19,798	-19,798	-19,798
9세 급식 절감분	1월	-15.83회	1,119	-17,714	-17,714	-17,714
가족단위 외식 절감분	1월	-0.33회	5,119	-1,733	-1,733	-1,733
친지방문 절감분	1월	-0.17회	5,199	-867	-867	-867
수련회 절감분(11세)	1월	-0.25회	1,250	-313	-313	-313
수련회 절감분(9세)	1월	-0.25회	1,119	-280	-280	-280
<b>가정식비용 소계</b>				<b>399,391</b>	<b>399,391</b>	<b>433,707</b>
가장 중식	1월	21.73회	3,500	76,042	76,042	
	1월	0.00회	0			0
11세 급식	1월	15.83회	1,974	31,255	31,255	31,255
9세 급식	1월	15.83회	1,974	31,255	31,255	31,255
가족단위 외식	1월	0.33회	24,000	8,000	8,000	8,000
<b>외식비 소계</b>				<b>146,552</b>	<b>146,552</b>	<b>70,510</b>

주: 1) 소수점 이하 처리로 단가×회수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마켓 바스켓 방식에 의한 식료품비는 1988년 이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에서 주로 계측되어 왔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 식료품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1988년 43.8%, 1994년 41.1%, 1999년 40.7%, 2004년 40.2%, 2007년 37.6%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계속 감소해 왔다. 반면에 2010년의 경우 최저 식료품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지난 계측년도의 식료품비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7년에 비해 최저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2008년의 금융위기와 식료품비의 주요 항목들의 가격상승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노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중이 2007년에는 21.4%에서 2010년에는 23.8%

로 2.4%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주노총에서 산정한 식료품비가 표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대 노총의 식료품비의 비중이 본 연구의 결과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중 최저 식료품비이므로 중위 수준의 근로자 가구를 상정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보다 식료품비의 절대금액은 작은 반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2〉 타 연구의 최저 식료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식료품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545,943	545,943	504,217	-	36.2	38.5	39.0
2007 최저생계비	-	-	463,164	-	-	-	37.6	-
2004 최저생계비	-	-	443,626	-	-	-	40.2	-
1999 최저생계비	-	-	366,948	-	-	-	40.7	-
1994 최저생계비	275,258	278,020	273,470	271,630	41.3	39.1	41.1	47.1
1988 최저생계비	-	130,118	130,118	129,036	-	41.3	43.8	48.1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1,135,094	-	-	-	23.8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909,331	-	-	-	19.8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 제2절 최저 주거비

### 1. 최저 주거비의 개념 및 측정방법

#### 가. 최저 주거비의 개념

주거는 비·바람·더위·추위 등 외적 환경으로부터 혈연 또는 비혈연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동시에, 개인 생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주거는 의류, 식품과 더불어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주거는 단순히 방이 몇 개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이나 뿐 아니라,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환경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저 주거비 측정은 여러 가지 개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1988년부터 최저 주거비를 계측해왔으며, 주거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 주거비가 산출된 바 있다.

1988년의 최저 주거비 개념은 최저주거기준에서 가구원이 건강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주거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4년은 최저기준으로 주거복지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하여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규정하고, 최저 주거비에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위생적 측면에서의 충족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적 삶을 위한 사회문화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계산하고 있다. 위와 달리 1999년의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2004년의 연구에서는 앞의 세 번의 최저 주거비와는 달리 재산이 없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최저 주거비 산출시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인간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 시설, 환경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생활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의 최저주거기준은 학자나 연구기관 등에 따라 달리

설정되었으나,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한 2004년 이후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는 건설교통부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고 있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경우 주거비 산정방식은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생애전체에 걸쳐 분석할 때, 청·중년기에는 전·월세의 비중이 높고, 장년기에는 자가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주거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원과 양대 노총 이외에 통계청에서도 통계적인 목적으로 주거비를 정의하여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은 주거비를 ‘주택 및 토지에 관련된 소비지출’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재산증식을 위한 주택 및 토지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고 있다. 통계청 분류에 따른 주거비에는 월세(실제 지불한 주택 또는 주거용 토지의 임대료 및 권리금), 주택설비 및 수선비(수선재료비, 설비수리서비스비용) 그리고 기타주거비(공동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승강기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주거생활과 관련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전기·가스·난방비 등의 광열비, 상하수도료,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주택관련세금, 전세평가액, 보증부월세평가액, 자가평가액은 별도로 계산된다(통계청, 2007).

통계청 등 다른 기관은 그 목적에 따라 주거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의미상 최저주거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의 주거비는 ‘최저’ 주거비라기보다 ‘실태’ 주거비이며, 양대 노총의 주거비 역시 ‘표준’적 근로자를 염두에 둔 주거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최저’ 주거비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최저 주거비는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최저주거기준의 기본적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최저 주거비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者)가 주택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비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나. 기존연구에서의 최저 주거비 계측방법

국내 기존연구에서 최저 주거비를 산정한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섯 번의 연구(1988, 1994, 1999, 2004, 2007)가 있다. 이 외에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에서는 임금 협상을 위한 자료로서 해마다 표준 생계비를 계측하고 있으며, 그 비목

중 하나로 주거비를 산정하고 있다.

먼저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는 당시 조사된 저소득 생활실태 조사를 근거로 하여 산정되었다. 즉 조사결과 대도시 임차유형으로 보증부 월세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보증금 150만원). 보증금에 대한 월세는 연리 20%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월세 비용은 3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월 임대료에 더해 주거비로 고려한 것은 이사비용으로 이사비용에 대한 내구연수는 3년에 1회로 하며 비용은 6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월임대료와 이사비용을 합친 1988년 대도시의 최저 주거비는 56,666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최저 주거비 역시 저소득 생활실태조사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4인가구이면서 방2개를 사용하는 가구의 평균주거비를, 농어촌은 4인가구이면서 방3개를 사용하는 자가 및 전세가구의 평균 주거비를 이용하여 “지역별 주거비 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였다.

〈표 5-2-1〉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보증금	월세액	이사비용	최저 주거비
대도시	1,500,000	30,000	1,666	56,666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율(%)	100	70	36	
최저 주거비	56,666	39,666	20,399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최저 주거비 산정은 1988년의 실태를 기초로 최저 주거비 산정방법과 달리 회귀분석을 통해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임대료 및 이주비를 산출하기 위해 두 개의 회귀식으로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회귀모형에는 방수, 평수, 부엌, 화장실, 목욕탕 등의 변수를 고려하고, 가구규모와 주택임대료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기초로 하여 이주비용을 추정하였다.

$$E = \beta_0 + \beta_1 \ln(\text{방수}) + \beta_2 \ln(\text{방당평수}) + \beta_3(\text{입식부엌}) + \beta_4(\text{수세식화장실}) \\ + \beta_5(\text{전래화장실}) + \beta_6(\text{목욕탕}) + \beta_7(\text{일반주택}) + \beta_8(\text{지역}): \text{임대료} \\ \ln E = \beta_0 + \beta_1 \ln(\text{가구규모}) + \beta_2 \ln(\text{주택임대료}): \text{이주비}$$



〈표 5-2-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임대료	167,859	137,348	-
이사비	3,047	2,828	-
최저 주거비	170,906	140,176	64,127

자료: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는 기존 1988년과 1994년 두 연구와는 달리 주거비산출 방법 중 하나인 지불액법을 근거로 하여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였다. 지불액법이란 주거비를 산출할 때 주택구입 혹은 주택비용을 조달하는데 있어 대출부문(융자금 상환액, 이자, 관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9년의 최저 주거비에는 융자금 상환액과 자기자본비용을 포함하여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저소득층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도시(23,316,000원), 중소도시(17,359,200원), 농어촌(14,592,000원)의 전세 및 자가에 대한 주거비를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주택구입비용 조달에 있어 대·중소도시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자기자본이 82%, 융자가 18%, 농어촌은 자기자본이 85%, 융자가 15%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계상하였다. 이자율은 자기비용에 대해 5.4%, 융자금에 대해 1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대·중소도시 주거비} &= \text{융자금 상환액} + \text{월 이자비용} + \text{자기자본비용} + \text{관리비} + \text{이사비} \\ \text{농어촌 주거비} &= \text{융자금 상환액} + \text{월 이자비용} + \text{자기자본비용} + \text{수리비} \end{aligned}$$

관리비는 실태조사 결과의 평당 2,080원을, 이사비용은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 자료, 복덕방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0.5%를 산정하였다. 농어촌 수리비의 경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적용하여 건설교통비 공시 표준건축비(㎡당 16만원)를 주거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5-2-3〉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기자본 비용	86,036	64,055	55,814
융자금 원리금	108,419	80,721	54,173
관 리 비	24,960	24,960	-
이사비(복비포함)	5,923	5,097	-
수 리 비	-	-	4,850
계	225,338	174,833	114,837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하는 비용만을 최저 주거비로 산출하였다. 즉, 사용자 비용법(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음)과 지불액법(원금 상환액을 고려하지 않음)을 혼용하여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도시(46,116,200원), 중소도시(27,761,900원), 농어촌(20,691,600원)의 전세 및 자가에 대한 주거비를 계산하였다. (전가)임대료는 전세 가액의 70%를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융자금리(5.5%)로 나머지 30%를 신용대출로 빌리는 것을 전제로 환산율을 6.0%로 정하였으며, 농어촌의 경우에는 6.02%를 적용하였다.

$$\text{최저 주거비} = (\text{전가})\text{임대료} + \text{관리비} + \text{이사비} + \text{복비} + \text{수리비} + \text{도배비}$$

관리비는 농어촌(자가, 단독주택)에는 제외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 수도권 및 4개 도시의 아파트 총관리비의 평당 평균을 적용하였다. 수리비는 농어촌에만 적용되며, 임대주택법시행령(제15조의 2)에 따라 건축주가 매월 건축비의 만분의 3을 수리비로 적립함에 따라 건설교통비 공시 표준건축비(㎡당 16만원)을 주거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사비는 통계청 자료와 전세 4.27년에 1회, 자가 15년에 1회를 반영하였으며, 복비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매매임대계약시 단가를 적용하였다. 도배비는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4.27년에 1회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2004년 최저 주거비는 다음과 같다.

〈표 5-2-4〉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가)임대료	230,581	138,810	103,803
보증보험료	11,298	6,802	-
아파트관리비	34,706	34,706	-
이사비	8,362	8,362	2,380
복비	4,500	2,709	690
도배비	3,547	3,547	3,547
수리비	-	-	1,774
계	292,994	194,936	112,194

자료: 김미곤 외(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최저 주거비 계측방법은 사용자비용 준용방식을 기준으로 계측되었다. 사용자비용 준용방식은 주택의 유지비, 기회비용, 감가상각비, 각종세금 등 주택을 소유하여 쓰는 모든 비용에서 자본이득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때, 자본이득은 2004년 이후 2007년 사이 자가의 상승비용을 의미한다.

$$\text{최저 주거비} = \text{전가임대료} + \text{관리비} + \text{이삿짐운송료} + \text{부동산중개수수료} + \text{도배비}$$

주택구입자금은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한 주택의 지역별 평균값(2007년 1월기준 시장실태조사이용)을 적용하였다. 금융비용의 산출은 자가와 전세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였다. 전세의 경우 자기자본은 정기예금금리(4.59%)를 적용하며, 조달비용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연 4.5%, 70%)과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연 6.20%, 30%)를 가중 평균한 5.01%를 적용하였다. 전세 보증보험료의 경우 국민주택기금대출액의 70%를 적용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대출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기준으로 환산하였다. 관리비, 이사비, 복덕방비, 수리비, 도배비의 산출방식은 2004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계측된 2007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 주거비는 아래 표와 같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세를, 농어촌은 자가를 기준으로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표 5-2-5〉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입자금	자기자본	164,204	99,348	(112,546)
	조달비용	66,290	40,108	57,284
	보증보험료	8,336	5,043	(△156,213)
아파트관리비		53,491	53,491	-
이사비		5,933	5,933	1,908
복덕방비		3,386	2,560	1,185
도배비		6,092	6,092	3,527
수리비		-	-	12,664
합 계		307,732	212,575	76,568

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세 기준, 농어촌은 자가 기준임. 농어촌 최저주거비의 경우 ( )는 계산에서 제외한 것임.

자료: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는 저소득층(특히 기초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정되는 반면에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표준 주거비는 임금 협상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주거비를 측정함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거비는 최저라는 개념이 강조되지만 양대노총에서 측정되는 주거비는 표준 주거비의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의 경우 주거비는 전세비와 자가구입 및 보유·유지에 따른 비용, 아파트관리비, 이사비로 구성된다. 주거모형은 생애단계별로 주택의 종류와 점유형태, 주거면적을 설정한다.

〈표 5-2-6〉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단위: 평, 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거유형	전세	전세	전세	자가
주택유형	다세대주택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거주면적	10.0	20.0	21.0	25.0
사용방수	1.0	2.0	3.0	3.0

자료: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이렇게 설정된 주거모형에서 주거비는 주택마련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 때 상환되는 비용은 생애단계별 전세와 자가 마련에 따른 용자금, 그리고 거주규모의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며, 원금과 함께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비용

으로 구성된다(한국노총, 2010). 아파트 관리비, 이사비 등은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물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한국노총의 표준 주거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2-7〉 한국노총의 2010년 주거비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전세비와 자가구입비	357,801	379,936	458,167	695,281
아파트관리비	-	51,132	55,237	65,500
이사비	15,354	22,195	26,231	10,249
취득세, 등록세	-	-	-	28,267
재산세	-	-	-	4,850
주택수리비	-	-	-	16,461
합 계	373,155	453,263	539,635	820,608

자료: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의 주거비산정은 한국노총과 같이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비를 산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거모형은 2009년도 민주노총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인가구는 다세대, 전세, 39.6696㎡(12평), 2인가구는 아파트, 전세, 79.3392㎡(24평), 3인가구는 아파트, 전세, 79.3392㎡(24평), 4인가구는 아파트, 자가, 92.5624㎡(28평)로 하였다(민주노총, 2010).

〈표 5-2-8〉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택유형	다세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주거형태	전세	전세	전세	자가
주거면적	39.6696㎡(12평)	79.3392㎡(24평)	79.3392㎡(24평)	92.5624㎡(28평)

자료: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주거비는 주택마련 비용, 이사비용, 부동산 소개비, 아파트 관리비, 도배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1인가구에 대해서만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의 전세보증금 조달 실태를 반영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모두 은행에서 융자 받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자금 또는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무이자 또는 일정 이율을 적용하

여 2인가구를 구성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했다. 주택유형, 주거형태 및 주택규모에서 차이가 없는 2인 및 3인가구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용자받은 전세자금을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인가구는 전세금을 제외하고 필요한 주택구입비를 장기간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2010년 표준생계비 전세보증금 및 주택구입비 산정은 2009년 표준생계비 가격에 2009년 연간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은행용자 이자율은 금융권 실태를 반영하여 연 6%로 하였다. 4인가구의 채무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였다. 기타 주거비 항목인 이사비용, 도배비는 물가조사 결과를 적용하였고, 아파트관리비는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였고, 부동산소개비는 표준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민주노총, 2010). 이렇게 산정된 2010년 민주노총 주거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2-9〉 민주노총의 2010년 주거비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택마련비용	391,101	688,330	688,330	733,038
이사비용	16,667	20,833	20,833	2,083
부동산소개비	10,000	20,833	20,833	3,000
아파트관리비	-	120,000	120,000	140,000
도배비	-	-	-	5,000
주거비 총계	417,768	849,996	849,996	883,121

자료: 민주노총(2010),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주거비 계측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바, 최저 주거비의 조작적 정의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者)가 주택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비의 총합이다. 최저 주거비를 계측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거주를 위한 최저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최저 주거비를 계측하기 위한 “최저 거주 요건”은 건설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건교부 2004년 6월 처음 시행되고, 2009년 2월 3일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에 근거한다. 따라서 최저 주거비는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임대료와 이를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건설교통부가 공고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아래 표와 같다. 본 연구

의 표준가구인 4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방 3개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전용목욕시설을 구비한 전용면적 11.2평(37㎡)의 거주시설이다.

〈표 5-2-10〉 가구구성별 용도별 방의 개수 및 최소 주거면적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sup>1)</sup>	실(방) 구성 <sup>2)</sup>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3.6평)
2	부부	1 DK	20(6.1평)
3	부부+자녀1	2 DK	29(8.8평)
4	부부+자녀2	3 DK	37(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14.8평)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자료: 국토해양부(공고)

본 연구에서 최저 주거비는 임대료(전세의 전가임대료와 월세 임대료)와 보유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때 전세의 전가임대료는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산출하였다. 즉, 사용자 비용법(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음)과 지불액법(원금 상환액을 고려하지 않음)을 혼용하여 적용하였다. 보유비용에는 관리비, 복비, 이사비, 도배비가 포함된다.

- 전세: 전가(임대료) + 보유비용
  - 월세: 임대료 + 보유비용

## 2. 최저 주거비 계측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 1) 필수품 선정방법

주거비는 거주지역,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기타),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된 지역,

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전세와 월세를 임차하고 있는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고자 한다<sup>45)</sup>.

지역별 전세와 월세 거주 가구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40% 미만의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4인 가구 소득 하위 40% 미만 가구 중 전세의 경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모두 아파트 거주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거주가구의 경우, 대도시·중소도시는 단독주택, 농어촌의 경우 아파트 거주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최저생계비 계층과의 연속성과 농어촌 월세가가 적게 조사된 점(27가구) 등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농어촌 월세가구의 주택 유형도 단독주택으로 선정하였다.

〈표 5-2-1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별 주택유형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기타	합 계
전국	단독	18.07	32.77	56.94	50.70	30.86
	아파트	64.42	39.19	32.77	38.52	50.79
	연립·다세대	16.92	25.37	9.44	8.950	17.15
	기타	0.58	2.67	0.85	1.83	1.20
	총합	51.14	24.5	19.86	4.50	100.00
대도시	단독	17.58	43.04	67.00	53.48	35.8
	아파트	69.98	45.42	38.81	48.66	57.24
	연립·다세대	17.39	34.04	13.28	10.63	20.18
	기타	0.31	0.93	0.00	0.00	0.38
	총합	52.59	23.44	19.02	4.95	100.00
중소도시	단독	12.33	19.61	47.91	40.71	22.2
	아파트	69.57	45.15	38.81	48.66	57.00
	연립·다세대	17.03	33.73	13.28	10.63	20.00
	기타	0.62	1.30	0.00	0.00	0.64
	총합	52.66	23.83	18.65	4.86	100.00
농어촌	단독	59.08	35.51	39.10	85.05	53.46
	아파트	35.88	40.96	59.69	8.28	39.56
	연립·다세대	4.11	14.92	1.21	0.00	4.71
	기타	0.93	8.62	0.00	6.67	2.28
	총합	56.41	14.3	21.47	7.83	1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원자료.

45) 표 <5-2-11>에서도 보듯이, 4인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40% 미만일지라도 주거 점유형태에 있어 자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계층 대상이 '최저' 생계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가의 경우 전가임대로 산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최저 주거비 계층에서 자가를 제외하였다.



요약하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모두 전세의 경우 아파트, 월세의 경우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최저 주거비를 계측하고자 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와 월세 중에서는 전세 거주 가구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가구의 지역별 마켓 바스켓에서는 전세·아파트 거주 가구를 대표적인 주거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5-2-12〉 주거점유형태별·지역별 주택유형(4인 가구 기준)

점유 형태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월세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최저 주거비 산정에서 횡수(내구연수)를 결정해야 하는 항목은 이사비, 복덕방비, 도배비이다. 이러한 비용은 이사 횡수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이사 횡수, 즉 이사 내구연수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주거 점유형태별(전세, 월세)로 달리 설정되었다.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사 횡수는 전세의 경우 6년에 1회, 월세의 경우 5.27년에 1회였으며, ANOVA 검증 결과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3) 가격 결정방법

주택구입자금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시장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의 지역별 평균값(2010년 1월 기준)을 적용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인 전세·아파트의 경우 대도시는 평균 5,924.6만원, 중소도시는 3,964.7만원, 농어촌은 2,34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월세·단독주택의 경우 대도시 월 38.3만원, 중소도시 28.6만원, 농어촌 18.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2-13〉 전용면적 11.2평(37㎡)의 전세 및 월세 가격(2010년 1월 기준)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세·아파트	5924.6	3964.7	2345.0
월세·단독	38.3	28.6	18.7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시장조사) 원자료.

이 중 지역별 아파트의 평균 전세비용은 최저 주거비 계층을 위해 월 임대료로 환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의 월임대료 환산을 위하여, 전세 자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sup>46)</sup>과 은행의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지역별 전세 자금의 70%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0%는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 월(전기)임대료는 대출에 대한 월이자를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원금 상환액은 임대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연 이자율은 4.5%(국토해양부, 2010년 기준)이며, 여기에 더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증보험의 보험료 0.3%가 부가된다. 금융기관 신용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연 6.32%(한국은행, 2010. 1. 기준)가 적용되었다. 월세의 경우, 「국민생활실태조사」(시장조사) 결과 지역별 단독주택의 월세 평균액을 월임대료로 반영하였다.

전세의 주거유형으로 선정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관리비가 주거비에 포함된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며, 급탕, 난방, 전기, 가스, 수도비는 광열수도비에서 별도 산정된다.

46)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호당 6,000만원(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8,000만원)으로(국토해양부, 2010.4), 최저생계비 계층의 기본 가정, 즉 가구주가 근로자인 4인 가구이면서 최저주거기준(37㎡)을 임차한 가구는 대부분 대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자율이 더 낮은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조건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다 훨씬 까다로워 접근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기준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실적의 8.7배에 이른다. 최저생계비 계층에서는 대부분의 저소득가구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제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였다.

&lt;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실적&gt;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2,442	4,880	4,854	2,000	2,499	2,777	3,178	3,707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7,169	4,808	9,647	6,646	11,257	15,348	21,897	32,170

아파트 관리비는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hmais.net>)의 2010년 1월 기준 시도별 제곱미터(m)<sup>2</sup>당 관리비를 인구가중평균한 값(32,568원)을 사용하였다<sup>47)</sup>.

이사관련 비용은 이사집운송료,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 도배비로 구성된다. 이사집운송료는 2007년 최저 주거비의 이사비(5톤 트럭 이사비용)에 통계청 「소비자물가 가격월보」의 해당 항목 소비자물가상승률(인구가중평균)을 반영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이 지자체별 조례규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지자체별 조례규정의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며, 전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에 대해 중개부동산 가격의 0.4%, 5,000만원 미만에 대해 0.5%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부과된다. 따라서 전세·아파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도시의 경우 0.4%, 5,000만원 미만인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각각 0.5%가 적용되었다. 월세의 경우 월임차료의 7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0.5%를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부과하였다. 도배비는 2007년 도배비에 통계청 「소비자물가 가격월보」의 설비수리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인구가중평균)을 반영한 값을 사용하였다.

#### 나.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4인 표준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별 최저 주거비를 산정한 결과, 전세 거주자의 경우 최저 주거비는 아래 표와 같다. 전세의 경우 최저 주거비는 (전가)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도배비로 구성되었다. 전세의 임대료(조달비용+보증보험료)는 대도시 259,497원, 중소도시 173,654원, 농어촌 102,711원으로, 임대료가 전체 최저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약 78%에 이른다. 전세 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중개료는 대도시 3,291원, 중소도시 2,753원, 농어촌 1,628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이사비, 도배비는 지역 구분없이 동일하게 설정

47) 「국민생활실태조사」(시장조사) 결과 11.2평형(37m<sup>2</sup>)의 전국 평균 관리비는 35,744원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인구가중평균값보다 약간 높았다.

되었으며, 각각 32,568원, 6,189원, 6,210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합산한 최저 주거비는 대도시 307,755원, 중소도시 221,374원, 농어촌 149,306원으로, 대도시를 100으로 둘 때,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71.9, 48.5로 나타났다.

〈표 5-2-14〉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전세 기준: 연구진안)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임대료	조달비용	249,129	166,716	98,607
	(보증보험료)	10,368	6,938	4,104
아파트관리비		32,568	32,568	32,568
이사비		6,189	6,189	6,189
부동산중개수수료		3,291	2,753	1,628
도배비		6,210	6,210	6,210
합 계		307,755	221,374	149,306

월세 거주 4인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는 월 임대료와 이사비, 부동산중개수수료로 구성되었다. 월 임대료는 대도시가 383,000원, 중소도시가 286,000원, 농어촌이 187,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대도시의 월 임대료를 100으로 둘 때, 중소도시는 74.7, 농어촌은 48.8로 대도시의 월세 비용이 농어촌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에 연동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대도시 2,120원, 중소도시 1,583원, 농어촌 1,035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사비는 지역 구분 없이 7,046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합산한 월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 392,166원, 중소도시 294,629원, 농어촌 195,081원으로 전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에 비해 약간 더 높게 산정되었다.

〈표 5-2-15〉 월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

(단위: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임대료	383,000	286,000	187,000
이사비	7,046	7,046	7,046
부동산중개수수료	2,120	1,583	1,035
합 계	392,166	294,629	195,081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07년 최저 주거비 산정방식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2007년 최저 주거비 산정방식과 달라진 점은 임대료 조달방식에서 2007년의 경우 일부 자부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비용을 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는 점이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2010년 최저 주거비 산정방식이 최저생계비의 본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관리비의 경우 2007년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사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적인 공식 통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결과이다. 이사비, 복덕방비, 도배비 등의 산정 방식은 2007년과 동일하다.

〈표 5-2-16〉 2007년과 2010년의 최저 주거비 산정기준 변경

구분		2007년	2010년		자료
			전세	월세	
이자율	내구연수	1월	1월	-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적용이자	(기회비용)4.59% (조달비용)5.71%	5.05%	-	
	보증보험료	0.7%	0.3%	-	
관리비	내구연수	1월	1월	-	국토해양부
	기준가격	평당 4,776원	m <sup>2</sup> 당 660원	-	
이사비	내구연수	5.79년(전세) 5.22년(월세)	6.00년	5.27년	실태조사
	기준가격	412,229원	445,620원		통계청
복덕방비	내구연수	5.79년(전세) 5.22년(월세)	6.00년	5.27년	실태조사
	기준가격	가격의 0.4~0.6%	가격의 0.4~0.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배비	내구연수	5.79년	6.00년	5.27년	실태조사
	기준가격	평당 37,792원	m <sup>2</sup> 당 12,084원	-	통계청

〈표 5-2-17〉 타 연구의 최저 주거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주거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307,755	221,374	149,306	-	20.4	15.6	11.5
2007 최저생계비	-	-	212,575	-	-	-	17.2	-
2004 최저생계비	-	-	194,936	-	-	-	17.7	-
1999 최저생계비	-	-	174,833	-	-	-	19.4	-
1994 최저생계비	136,982	170,906	140,176	64,127	20.6	24.0	21.1	11.1
1988 최저생계비	-	56,666	39,666	20,399	-	18.0	13.4	7.6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820,608	-	-	-	17.2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883,121	-	-	-	19.2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2010년 최저 주거비는 중소도시 전세 기준 221,374원으로 2007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주거비 212,575원에 비해 4.14% 상승한 것이다. 1999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가 발표된 이래 최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9.4%, 2004년 17.7%, 2007년 17.2%로 점차 줄어들어 2010년에는 15.6%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소도시 기준 2010년 최저 주거비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주거비의 각각 27%와 25.1%에 불과하다. 이는 본 연구의 주거비가 최저 주거면적의 전세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 주거비인데 비해, 양대 노총의 주거비는 각각 82.5㎡(25

평)와 92.6㎡(28평) 자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 주거비라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임대료 산정을 위해 사용된 이자율은 저소득층이 주로 접근 가능한 저리의 이자를 기준으로 한 데 비해, 양대 노층의 전가 임대료 사정에 사용된 이자율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은행대출 이자를 기준으로 한 데서도 이러한 큰 차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 1. 최저 광열·수도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광열·수도비의 개념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건 및 환경을 유지하고, 식료품을 섭취 가능하도록 취사를 해야 하며,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상하수도 및 취사 및 난방 연료의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적인 활동과 노동력 재생산,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제공하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사용이 필요하다.

최저 광열·수도비란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건·환경 유지, 취사활동, 체온 유지 비용과 일상적인 활동 및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및 전자제품 사용 비용을 의미한다.

최저 광열·수도비에는 취사연료와 전기료 항목이 포함되므로 가구집기·가사용품 비목과 연관성을 지니고, 난방연료와 전기료는 거주 공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거비목의 주거 밀도와 연관성을 지닌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방법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방법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서는 광열·수도비목의 품목들은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대체제가 존재하는 난방·취사 연료의 경우 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사용비율이 높은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했다.

각 품목의 사용량은 각종 국가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해 지역별로 산출하고, 요금 체계는 전기료의 경우 전국동일요금체제이므로 그대로 적용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서울시 요금 혹은 지역별 요금체계를, 난방·취사요금의 경우 시가를 적용했다. 또



한 저소득층의 광열·수도비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지수를 사용했다.

## 2) 한국노동연구원(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계측방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를 통해 29세 이하 단신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가계부 조사 실시 결과로 단신근로자 특성별 비목별 생계비를 제시한다.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연령별, 주거형태별, 학력별, 지역별, 성별, 근속년수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연령층은 15~19세, 20~24세, 25~29세로, 주거형태는 자취,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숙사로,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지역은 서울, 광역시, 도지역으로,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근속년수는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세분하여 생계비를 제시한다.

## 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계측방법

한국노총은 자체 실태조사에서 사용 시기를 봄·가을, 여름, 겨울철로 구분하여 각 계절의 사용비용을 조사한 뒤 평균값을 구하여 각 사용비용의 평균값을 현행 요금체계에 따라 역산하여 각각의 사용량을 산출한다. 이 사용량은 향후 가구규모별 기준사용량이 되며 요금체계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재산정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중 4인가구의 월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인가구와 3인가구의 사용비율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의 가구별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량과 월평균 비용을 산정한다. 1인가구의 경우 각각의 사용량을 2인가구의 70%로 계산한다.

〈표 5-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존 연구의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구 분	마켓 바스켓	사용량	가 격
1988	전기	전기	80kwh
	상하수도	상하수도	25m <sup>3</sup>
	취사 난방	연탄(보조 등유/번개탄)	40장(등유 8리터/번개탄 2장) (장당 195원(시가 적용) (등유 리터당 186원/번개탄 장당 100원)
1994	전기	전기	126.8kwh
	상하수도	상하수도	16.4m <sup>3</sup>
	취사 난방	취사 : LPG 난방 : 석유	LPG: 8.396kg, 석유: 69.041 ℓ LPG: 460/kg 석유: 232.5원/ℓ(등유와 경유 1:1로 계산)
1999	전기	전기	170kwh
	상하수도	상하수도	17.2t
	난방	LNG, 석유	LNG(11m), 석유(62.1 ℓ) LNG-경기도요금, 석유-등유:435원/ℓ,경유:510원/ℓ
	취사	LPG	6kg 612원
2004	전기	전기	도시: 187(Kwh)
	상하수도	상하수도	16.9m <sup>3</sup>
	난방	LNG(50),석유(50)	LNG(37.9m), 석유(10.3 ℓ) LNG-경기도요금, 석유-734.2원
	취사	LPG	6.0kg 1030.2원
2007	전기	전기	208kwh
	상하수도	상하수도	16.8m <sup>3</sup>
	취사 난방	LNG	67.4m <sup>3</sup> 경기 요금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광열·수도비 계층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 최근 시점의 실태반영, 사용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고려하여 광열·수도비목의 필수품, 사용량,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필수품 결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사용한다. 사용량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정부기관의 최근 자료를 사용하고, 시점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그대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지역별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경우 지역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전국 동일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으

며, 상하수도 요금과 난방 및 취사 요금은 지역별 요금을 적용한다.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광열·수도비를 추정하기 위해 계층지수를 적용한다.

## 2.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 1) 필수품 선정방법

전기와 상하수도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대로 필수품으로 선정했다. 전기는 80년대에 이미 100% 보급률을 달성했으며, 2008년 12월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92.7%,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99.3%, 중소도시 98.3%, 읍지역 87.4%, 면지역 47.4%로(환경부, 2009), 2008년말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88.6%,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에서 92.2~100.0%, 도 지역에서 61.8~88.1%로 나타났다(환경부, 2009).

난방·취사연료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선정했다. 지역별 난방 및 취사연료 사용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3-2〉 지역별 난방 및 취사 연료 사용비율

		(단위: %)			
구 분		전 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난방 연료	도시가스(LNG)	74.5	81.16	74.7	20.4
	가스(LPG)	3.6	1.3	4.7	13.5
	석유	13.8	13.1	10.8	38.8
	전기	2.2	1.4	2.2	7.7
	연탄	1.5	0.4	1.7	9.4
	기타	4.6	2.7	5.9	10.2
취사 연료	도시가스(LNG)	77.6	83.6	79.1	20.4
	가스(LPG)	21.6	15.9	19.5	79.6
	전기	0.3	0.5	0.2	0.0
	기타	0.5	0.0	1.2	0.0

주: 1) 소득 하위 40% 가구 대상  
 2) 산업자원부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의할 경우, 지역난방의 주연료원은 전력, 가스, 열에너지 이며, 중앙난방의 주연료원은 전력, 석유류, 가스로 나타나고 있음(지식경제부, 2009).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원자료.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난방 및 취사연료 비율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난방·취사연료 모두 도시가스, 농어촌은 난방연료는 석유, 취사연료는 LPG로 결정했다.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사용량은 지식경제부의 1992년, 1995년, 1999년, 2002년, 2008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와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했다.

전기사용량의 경우 실태에는 지역간 사용량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규범적인 측면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 큰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였으며, 농어촌은 도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전기사용량은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도시 및 군 지역 가구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1992년~2001년간 평균 증가율을 추정하고, 2008년 실측치에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2009년~2010년까지 사용량을 추정했다. 저소득층 4인가구의 사용량을 구하기 위해 추정된 지역별 가구당 사용량에 계층지수를 적용했다. 계층지수는 2008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전국 가구당 사용량 대비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용량 비율과 전국 가구당 사용량 대비 4인가구 사용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상하수도 사용량은 환경부의 2009년 『상수도통계』 자료를 이용,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1인당 급수량을 기준으로 가정부문 사용비율 및 유수율을 적용하여 유수수량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균 상하수도 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계층지수를 적용하여 저소득층 4인가구의 사용량을 추정했다. 가정부문 사용비율은 각 지역별 시도의 전체 급수량 대비 가정용 급수량의 비율에 시도별 인구 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지역별 1일 1인당 급수량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1일 급수량을 구하고 여기에 가정용 급수량 비율을 적용한 후 4인 가구 월 급수량을 산출했다. 4인 가구 월 급수량에 지역별 유수율을 적용하여 4인 가구 월 유수수량을 구하고, 4인 가구 월 유수수량에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계층지수를 적용하여 저소득층 4인가구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구하고, 산출된 사용요금을 통해 사용량을 역으로 추정했다. 계층지수는 2009년 가계조사 원자료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와 소득 하위 40% 초과 가구의 상하수도비 지출 비율을 사용했다. 중

소도시 및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를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상하수도 요금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했다.

도시지역 난방 및 취사 연료인 도시가스(LNG) 사용량은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주 난방 시설이 도시가스 난방인 도시가구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1992년~2008년간 평균 증가율을 추정하고 2008년 실측치에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2009년~2010년까지 사용량을 추정했다. 저소득층 4인가구의 도시가스(LNG) 사용량을 구하기 위해, 추정된 도시지역 가구당 사용량에 계층지수를 적용했다. 계층지수는 2008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전국 가구당 사용량 대비 10~19건평 가구의 사용량 비율과 전국 가구당 사용량 대비 4인 가구 사용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농어촌지역 난방 연료인 석유 사용량은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주 난방 시설이 석유보일러인 군지역 가구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1995년~2008년간 평균 증가율을 추정하고 2008년 실측치에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2009년~2010년까지 사용량을 추정했다. 저소득층 4인가구의 석유 사용량을 구하기 위해 추정된 군지역 가구당 사용량에 계층지수를 적용했다. 계층지수는 2008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전국 가구당 사용량 대비 10~19건평 가구의 사용량 비율, 전국 가구당 사용량 대비 4인 가구 사용량의 비율, 전국 가구당 사용량 대비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용량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농어촌지역 취사 연료인 LPG 사용량은 『에너지총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추정한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의 사용량을 적용했다.

### 3) 가격 결정방법

전기요금은 전국동일 체계이므로 그대로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2005년에 조정된 요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sup>48)</sup>. 전기요금 계산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된 기준을 근거로 하였고, 전기요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48) 단, 월최저요금은 현재 2009년 9월 1일 기준으로 1,000원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전력 사이버지점).

$$\text{전기요금} = \text{기본요금(A)} + \text{사용량요금(B)} + \text{부가가치세}((A+B) \times 10\%) + \text{전력산업기반기금} \\ ((A+B) \times 3.7\%)$$

상하수도비는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 단위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시·군 단위로 상이한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대도시는 7개 특·광역시의 인구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단가 중위값을 가지는 대전시 요금체계를, 중소도시는 77개 시 인구가중치를 적용한 평균단가 중위값을 가지는 경기 시흥시 요금체계를, 농어촌은 83개 군 인구가중치를 적용한 평균단가 중위값을 가지는 경남 거창군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산출했다. 상하수도 요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상하수도 요금} &= \text{상수도요금} + \text{하수도요금} + \text{물이용 부담금} \\ \text{상수도 요금} &= \text{기본요금} + \text{사용요금}^{49)} \\ \text{하수도 요금} &= \text{사용요금}^{50)} \\ \text{물이용 부담금} &= \text{사용요금}^{51)} \end{aligned}$$

난방·취사 요금 중 도시가스(LNG)단가는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의 가중평균요금을 적용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경기지역 요금<sup>52)</sup>을 이용했다. 석유 단가는 대한석유회사의 국내석유가격 2010년 1월 시점의 국내석유가격(보일러가격) 단가를 적용했으며, LPG 단가는 한국석유공사의 2010년 1월 시점의 가정용 프로판 기수 가격을 적용했다. 난방·취사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text{도시가스(LNG)요금} &= \text{기본요금} + \text{사용량요금} + \text{부가가치세(사용량} \times 10\%) \\ \text{석유요금} &= \text{석유사용량} \times \text{석유단가} \\ \text{LPG요금} &= \text{LPG사용량} \times \text{LPG단가} \end{aligned}$$

49) 사용량의 구간별로 요율을 적용하였다(예. 세대당 월평균사용량이 30m<sup>3</sup>인 경우: 20m<sup>3</sup>×450원 + 10m<sup>3</sup>×650원).

50) 사용량의 구간별로 요율을 적용하였다(예. 세대당 월평균사용량이 34.1m<sup>3</sup>인 경우: 20m<sup>3</sup>×240원 + 14.1m<sup>3</sup>×300원).

51) (사용량×160원)을 적용하였다.

52) 2008년 기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경기도가 77.9%로 가장 높았다(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참조).

## 나.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2010년도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광열·수도비는 다음 표와 같다. 2010년 광열·수도비목의 품목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LNG), 석유, LPG 5가지이다. 2007년과 품목수는 동일하다.

〈표 5-3-3〉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

(단위: 원)

분류	지역	MB구성	단가	사용량 (4인기준)	월지출 대도시	월지출 중소도시	월지출 농어촌
광열수도비 소계					105,320	103,150	129,168
전기요금	도시		전국동일	257(Kwh)	31,730	31,730	25,610
	농어촌			225(Kwh)			
상하수도	대도시		대전시 요금	18.2(m3)	15,690	14,280	9,670
	중소도시		시흥시 요금	15.7(m3)			
	농어촌		거창군 요금	15.6(m3)			
난방·취사비	대도시	LNG	평균요금	70.7(m3)	57,900	57,140	69,295
	중소도시	LNG	경기요금	70.7(m3)			
	농어촌	석유(난방)	1,026원	67.6(ℓ)			
		LPG(취사)	1,808원	13.6(kg)			

한편, 생활수준의 상승으로 2010년 광열·수도비는 2007년에 비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사용량이 증가하였지만, 중소도시의 상하수도 사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량 추정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용량 추정에 사용하는 지역의 요금체계와 대도시 대비 요금비율 적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용결과, 2010년 광열·수도비목의 각 품목의 가격은 농어촌 상하수도 가격<sup>53)</sup>을 제외하고는 2007년 결과보다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3) 농어촌 상하수도 가격의 감소의 원인 역시 적용한 지역 요금체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7년에 적용한 함안군의 요금체계에는 물이용부담금이 있는 반면에 2010년에 적용한 거창군의 요금체계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존연구의 최저생계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광열수도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010년 광열·수도비목의 품목수는 5가지(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석유, LPG)로, 2007년과 품목이 동일하다. 2010년 중소도시 기준 최저 광열·수도비는 103,150원으로 2007년에 비해 25.3% 증가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동기간 동안 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 5-3-4〉 타 연구의 최저 광열·수도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광열·수도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105,320	103,150	129,168	-	7.0	7.3	10.0
2007 최저생계비	-	-	82,350	-	-	-	6.7	-
2004 최저생계비	-	-	64,237	-	-	-	5.8	-
1999 최저생계비	-	-	51,224	-	-	-	5.7	-
1994 최저생계비	32,482	33,138	32,174	31,489	4.9	4.7	4.8	5.5
1988 최저생계비	-	16,452	16,452	15,792	-	5.2	5.5	5.9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137,936	-	-	-	2.9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136,222	-	-	-	3.0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개념 및 측정방법

#### 가.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개념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인간다운 가정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가구구입 및 수리비용과 가사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서비스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가구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욕구해결과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고, 원활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큰 규모의 집기부터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나 미처 인식하기 힘든 작은 용품까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개념을 바탕으로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가구 내에서 가구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내로 유입된 자원을 가공하고, 가사를 돌보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도구들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측정방법

국내 기존연구에서 전물량 방식에 의해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산정한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측정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측측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산정할 경우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가구집기·가사용품은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소모품이 많아 필수품 선정이 쉽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내구연수가 길고 구입 빈도가 낮아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획득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필수품목과 규격 변화가 잦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필수품 여부, 사용량, 내구연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여유진 외, 2007:309).

먼저, 1988년부터 2004년(매 5년마다 측정됨), 2007년(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측정됨)까지 측정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특히, 필수품 선정 시 1988년 연구는 생활실태 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의 보유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나, 보유율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1994년에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로짓모델의 절편확률을 이용하여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실태조사의 표본수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1999년, 2004년, 2007년에는 필수품 선정 원칙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탄력성,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보유율을 이용하였다. 이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여 표본수 부족 문제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소득탄력성의 기준, 보유확률의 기준에 대한 자의성이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한국노총(2010)의 가구·가사용품비, 민주노총(2010)의 가구·가사집기비는 소속 조합원의 생활실태조사와 물가조사를 근거로 표준생계비의 일부로 계측된다. 이는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alpha$ ’의 개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품목 구성과 가격 수준이 최저생계비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한국노총(2010)의 가구·가사용품비 구성 항목은 ‘가구, 가전제품, 기타 내구소비재, 주방용품, 기타 가사용품’이며 품목의 단가, 내구연수 등의 경우 소비자 물가조사 결과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2010)의 가구·가사집기비 구성항목은 ‘가구비, 가정용기기비, 부엌용품비, 가사소모품비, 침구직물비’이며 구체적인 품목과 품목의 단가는 생활실태조사와 물가조사, 통계청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노총(2010)과 민주노총(2010)에서는 모두 근로자 가구의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현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계측되는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7년 계측방법을 활용하여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계측하였다. 우선, 필수품 선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이하인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예,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한국

전력공사)의 주요 가전기기 규격별 보급현황)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품목별 보유율 및 필수품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보유율은 67%(=2/3)이상, 50이상~67%미만, 50%(=1/2)미만으로 구분한 후, 67%이상은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은 기본적으로 2007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가격 결정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을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2007년 1월 「가격월보」 품목 가격에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값<sup>54)</sup>과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 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계측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본 연구에서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구성품목은 2007년과 동일하게 ‘일반가구, 가정용가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 가사서비스’ 6개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하위영역이 구성된다. 2010년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은 2007년과 비교할 때 총 85개에서 총 86개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 추가된 품목은 후라이팬(중) 총 1개이고, 2007년 구성되었던 마켓 바스켓에서 제외된 품목은 없다.

#### 1) 필수품 선정

본 연구에서 2010년 필수품의 경우 2007년에 구성된 품목을 중심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54) 기존연구에서 가격 결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가격월보」 자료는 발표가 2009년 2월 이후 중단되었다.

선정하였다. 2010년 추가품목인 후라이팬(중)의 경우 이미 후라이팬이 기존에 필수 품목으로 포함되었으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다른 규격을 하나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의 소득탄력성이 0.27로 나타나 필수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

2010년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2007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된 품목에 있어서는 조정을 하였다. 또한 기존품목 중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출시 제품의 규격이 변동된 경우는 시장조사를 통한 실태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냉장고의 경우 2010년 1월 기준에서 277ℓ 용량의 제품출시가 중단되어 규격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냉장고의 규격별 보급현황에서 400ℓ 이상이 전체가구의 8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냉장고의 규격을 428ℓ로 상향 조정하였다. 세탁기의 경우도 2010년 1월 기준에서 규격이 6.5kg인 제품의 출시가 중단되어 규격조정을 고려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보면 9.6kg 이상이 전체가구의 8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규격을 10kg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빨래비누의 경우 출시되는 규격을 고려하여 230g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규격 조정의 실태를 반영하여 내구연수 또한 하향 조정하였다. 고무장갑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용도별 사용량을 고려하여 수량을 상향 조정하였다.

## 3) 가격 결정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의 가격결정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통계청의 2007년 1월 「가격월보」 품목 가격에 품목별 소

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값,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가격결정에서 품목의 품질기준은 중·하품 기준으로 하여 각 조사자료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 나.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위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2010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연구진안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41,019원, 중소도시의 경우 40,879, 농어촌은 40,779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5-4-1〉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단위 : 원)			
중분류/품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합계	41,019	40,879	40,779
일반가구 소계	4,679	4,679	4,679
가정용가구 소계	11,219	11,219	11,219
식기주방용품 소계	6,762	6,762	6,762
가사잡화 소모품 소계	10,383	10,383	10,383
침구 및 직물제품 소계	5,449	5,449	5,449
가사서비스 소계	2,527	2,387	2,287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 추가된 품목은 후라이팬(중) 총 1개이고 제외된 품목은 없다.

〈표 5-4-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추가품목

구 분	추가이유	실 태
후라이팬(중)	실태 반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의 소득탄력성 0.27 ○후라이팬(중) 시장조사 최저가격 14,000원 반영 ○사용량을 고려하여 1개 추가 반영 ○내구연수 5년

다음으로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사용량(규격)은 4개 품목이 조정되었고 내구연수는 1개 품목, 가격은 25개 품목이 상향 혹은 하향으로 조정되었다.

〈표 5-4-3〉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실태
냉장고	규격 상향 가격 상향	가구원수를 고려한 규격상향 (277ℓ 출시중단 /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 시장조사	○가구원수 및 277ℓ 제품출시중단을 고려한 규격 상향조정 (2007년 277리터 → 2010년 428리터)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425,000원 → 2010년 570,000원)
전기밥솥	가격상향	시장조사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52,500원 → 2010년 65,000원)
가스레인지	가격상향	시장조사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47,000원 → 2010년 60,000원)
세탁기	규격 상향 가격 상향	가구원수를 고려한 규격상향 (6.5kg 출시중단 /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 시장조사	○가구원수 및 6.5kg 제품출시중단을 고려한 규격 상향조정 (2007년 6.5kg → 2010년 10kg)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294,000원 → 2010년 330,000원)
다리미	가격 상향	시장조사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13,500원 → 2010년 25,000원)
선풍기	가격 상향	시장조사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30,500원 → 2010년 40,000원)
믹서	가격 상향	시장조사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28,000원 → 2010년 35,000원)
전자레인지	가격 상향	시장조사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71,000원 → 2010년 85,000원)
헤어드라이기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14,951원 → 2010년 15,504원)
주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49,409원 → 2010년 49,952원)
접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9,426원 → 2010년 10,208원)
후라이팬(대)	가격 하향	시장조사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하향조정 (2007년 27,687원 → 2010년 16,000원)
김치통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9,822원 → 2010년 10,863원)
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3,362원 → 2010년 3,745원)

〈표 5-4-3〉 계속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실태
형광전구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1,219원 → 2010년 1,246원)
백열전구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1,054원 → 2010년 1,077원)
화장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431 원 → 2010년 515 원)
고무장갑	가격 상향 사용량 상향	시장조사 용도별 사용량 고려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1,357원 → 2010년 1,450원) ○사용량 상향(1짝→2짝)
빨래비누	가격 상향 규격 조정 내구연수 조정	시장조사 실태반영	○시장조사 최저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576 원 → 2010년 700 원) ○시장조사 기준 규격조정 (2007년 250g → 2010년 230g) ○내구연수 조정 (2007년 2개월 → 2010년 1개월)
합성세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9,193 원 → 2010년 10,333 원)
부엌용세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2,003 원 → 2010년 2,307 원)
살충방충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2,264 원 → 2010년 2,511 원)
습기제거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1,245 원 → 2010년 1,346 원)
건전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613 원(1개) → 2010년 681 원(1개))
쓰레기봉투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가격 상향조정 (2007년 대도시 251 원; 중소도시 225 원; 농어촌 206 원) ↓ (2010년 대도시 272 원; 중소도시 244 원; 농어촌 224 원)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2007년의 결과와 비교할 때, 마켓 바스켓 구성항목은 제외된 것 없이 1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85개에서 총 86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된 중소도시 기준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0,879원은 2007년 대비 4,151원(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타 연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41,019	40,879	40,779	-	2.7	2.9	3.2
2007 최저생계비	-	-	36,728	-	-	-	3.0	-
2004 최저생계비	-	-	35,789	-	-	-	3.2	-
1999 최저생계비	-	-	31,880	-	-	-	3.5	-
1994 최저생계비	26,585	26,875	26,542	26,042	4.0	3.8	4.0	4.5
1988 최저생계비	-	14,309	14,309	12,142	-	4.5	4.8	4.5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152,316	-	-	-	3.2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266,133	-	-	-	5.8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그러나, 1988년 이래로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소도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계속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는 2.9%로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측정된 표준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의 구성과 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가사용품비는 152,316원,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가사집기비는 266,133원으로 본 연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보다 4~6배 높게 나타났다.

##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 1. 최저 피복·신발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피복·신발비의 개념

피복 및 신발에 속하는 품목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체온유지, 품위유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욕구해결과 관련 있는 품목, 두 번째로 노동을 위해 필요한 욕구해결과 관련된 품목, 마지막으로 멋과 치장 또는 체면유지를 위한 심리적·사회 문화적 욕구해결과 관련된 품목들이 그것이다(김미곤 외, 2004:167). 이중 최저 피복·신발비의 개념에 근접한 것은 첫째, 둘째 품목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문화적인 욕구가 포함될 수 있다(김미곤 외, 2004:16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 피복·신발비를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 등의 기본적인 필요와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및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한 비용을 고려한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피복·신발비 계측방법

전물량 방식에 의해 피복·신발비를 산출한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가 있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살펴보면, 1988년 「의류구매 실태조사」(1988)와 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에서 가구의 구입 품목을 참고하여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국제양모사무국의 「올마크 및 의류소비 정기조사」와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피복 위생 및 가구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가격결정은 물가자료협회의 「소비자 물가동향」(1988) 자료 및 별도의 시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하였다. 1994년에는 소득하위 30% 가구의 실태조사결과에서 보유현황, 구입 빈도 및 지출금액을 참고로 필수품 여부를 정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은 기본적으로 1988년도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고, 가격결정은 실태조사의 지역별 가격 중에서 중품에 해당하는 가격의 최  
 빈값을 선정하였다. 또한 통계청 「물가지료 및 물가정보」(7월호)와 별도의 시장조  
 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1994년에는 최저 피복·신발비에 관한 마켓 바스켓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 앵겔함수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1999년  
 에는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98)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구하여 0.5이하인 품목  
 을 필수품으로 정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후 소득이 0일 때 보유확률  
 이 60% 이상인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가격결정에 있  
 어서는 기존연구들과 동일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과 2007년에는 필수품 선정  
 에 있어 199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사용량 및 내구연수의 경우 「국민  
 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가격결정은 통계청의 2007  
 년 1월의 「가격월보」 품목 가격에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한국노총(2010)과 민주노총(2010)에서는 피복·신발비를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  
 한 생활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표준생계비의 일부로 계측하고 있다. 즉, 노동자  
 들의 보편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품목 구성과 가격 수준이 최저생계  
 비와 차이가 있다. 한국노총(2010)은 피복·신발비와 세탁비 및 구두수선비로 구성  
 되며, 민주노총(2010)은 피복·신발비와 기타 피복비로 구성된다. 한국노총과 민주  
 노총의 피복·신발비는 성인남자, 성인여자, 자녀(남, 여) 각각의 피복·신발 구입비  
 를 산출한 후 가구구성원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다.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피복·신발비 계측방법

2010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계측방식은 2007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측하였다.  
 필수품 선정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  
 력성이 0.5이하인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선정하였다. 가령 동내복, 팬티와 같이 신체보호, 걱정 체  
 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포함하였다.  
 그리고 표준가구에서 초등학교생 자녀(2명)의 경우 실내화와 같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품목은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품목 역시 필수품으로 선정(예. 농어촌의 작업화)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은 기본적으로 2007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또한 규범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변경하였다.

가격 결정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을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2007년 1월 「가격월보」 품목 가격에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과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 2. 최저 피복·신발비 계층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본 연구에서 피복·신발비의 구성품목은 2007년과 동일하게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총 7개의 중분류 기준으로 하위영역이 구성된다. 2010년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은 2007년과 비교할 때 총 103개에서 총 104개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 추가된 품목은 셔츠 반팔(성인남성용) 총 1개이고, 제외된 품목은 없다.

#### 1) 필수품 선정

본 연구에서 2010년 필수품의 경우 2007년에 구성된 품목을 중심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이하인 것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2010년 추가품목인 성인 남성용 셔츠는 이미 기존에 필수품목으로 포함되었으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다른 규격을 하나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이는 또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의 소득탄력성이 0.23으로 나타나 필수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

2010년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2007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바탕으로 하였고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된 품목에 있어서는 조정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용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정하였다.

성인여성용 블라우스는 계절별 사용량을 고려하여 2벌에서 3벌로 상향조정 하였고, 성인용(남,여)과 아동용(남,여)의 런닝, 팬티는 사용량을 고려하여 모두 상향조정 하였다.

## 3) 가격 결정

최저 피복·신발의 가격결정은 우선 품목의 품질기준을 중·하품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통계청의 2007년 1월 「가격월보」 품목 가격에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값,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 나.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2010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피복·신발비의 연구진안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52,060원, 중소도시의 경우 52,060원, 농어촌은 50,140원으로 산정되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외곽의 내구연수, 단가와 구두의 내구연수 부분의 차이로 가격이 다소 낮게 산출되었다. 또한 피복 및 신발서비스에서는 수량과 지역별 가격차이로 인해 가격이 낮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5-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연구진안)

(단위 : 원)

중분류/품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피복·신발비 합계</b>	<b>52,060</b>	<b>52,060</b>	<b>50,140</b>
외의 소계	20,302	20,302	19,646
스웨타 셔츠 소계	9,763	9,763	9,763
내의 소계	8,251	8,251	8,251
직물·실 소계	28	28	28
기타 피복 소계	5,121	5,121	5,121
신발 소계	5,234	5,234	5,220
피복 및 신발서비스 소계	3,361	3,361	2,111

2010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경우 셔츠 반팔(성인남성용) 총 1개의 품목이 추가되었고, 제외된 품목은 없다.

〈표 5-5-2〉 최저 피복·신발비 추가품목

구분	추가 이유	실태
셔츠 반팔 (성인남성용)	계절별 사용량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의 소득탄력성 0.23</li> <li>○셔츠(가장)반팔 시장조사 최저가격 10,000원 반영</li> <li>○사용량을 고려하여 2점 추가 반영</li> <li>○내구연수 4년</li> </ul>

다음으로 2010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사용량은 9개 품목이 조정되었고, 가격은 12개 품목이 상향 혹은 하향으로 조정되었다. 단, 내구연수가 조정된 품목은 없다.

〈표 5-5-3〉 최저 피복·신발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실태
셔츠 긴팔 (성인남성용)	가격 하향	시장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하향조정 (2007년 20,000원 → 2010년 15,000원)
블라우스 (성인여성용)	사용량 상향	사용량 고려	○블라우스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 (2점→3점)
동내의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20,018원 → 2010년 24,782원)

〈표 5-5-3〉 계속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실태
런닝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사용량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사용량 고려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2,045원 → 2010년 2,505원) ○가장의 런닝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 (6점→9점)
팬티 (성인남성용)	가격 상향 사용량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사용량 고려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2,015원 → 2010년 2,474원) ○팬티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 (6점→9점)
동내의 (성인여성용)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17,350원 → 2010년 19,085원)
런닝 (성인여성용)	사용량 상향	사용량 고려	○런닝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6점→9점)
팬티 (성인여성용)	가격 상향 사용량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사용량 고려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9,708원(3매입) → 2010년 10,795원(3매입)) ○팬티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9점→12점)
런닝 (자녀 남)	사용량 상향	사용량 고려	○런닝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6점→9점)
런닝 (자녀 여)	사용량 상향	사용량 고려	○런닝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6점→9점)
팬티 (자녀 남)	사용량 상향	사용량 고려	○팬티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6점→9점)
팬티 (자녀 여)	사용량 상향	사용량 고려	○팬티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량 상향(6점→9점)
팬티 스타킹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1,480원 → 2010년 1,545원)
양말 (성인)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2,267원 → 2010년 2,301원)
실내화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가격상향 (2007년 2,972원 → 2010년 3,852원)
세탁료 (도시)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상향조정 (2007년 5,000원 → 2010년 6,000원)
세탁료 (농어촌)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상향조정 (2007년 6,000원 → 2010년 7,000원)
구두수선료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상향조정 (2007년 3,000원 → 2010년 4,000원)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0년 최저 피복·신발비를 2007년 계측된 결과와 비교해보면, 구성항목에서 제외된 것 없이 1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03개에서 총 104개로 증가하였다. 2010년 최저 피복·신발비인 52,060원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2007년 대비 3,287원(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4〉 타 연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피복·신발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52,060	52,060	50,140	-	3.5	3.7	3.9
2007 최저생계비	-	-	48,773	-	-	-	4.0	-
2004 최저생계비	-	-	46,858	-	-	-	4.2	-
1999 최저생계비	-	-	43,331	-	-	-	4.8	-
1994 최저생계비	38,560	38,579	38,579	38,499	5.8	5.4	5.8	6.7
1988 최저생계비	-	23,535	23,535	23,055	-	7.5	7.9	8.6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222,349	-	-	-	4.7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175,070	-	-	-	3.8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그러나 1988년 이래로 최저 피복·신발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소도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계속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는 3.7%로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의 피복·신발비와 민주노총의 피복비를 본 연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와 비교해보면,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표준생계비의 일부로 측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피복·신발비는 222,349원,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경우 피복비가 175,070원으로 높게 설정되어 본 연구의 최저 피복·신발비보다 3~5배 높게 나타났다.

#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 1. 최저 보건의료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보건의료비의 개념

보건의료비는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이러한 일반적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면,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회복을 위한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여유진 외, 2007:325). 그렇다면 보건의료비의 ‘최저’ 수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보건의료비 산출근거가 되는 최저 보건의료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저 보건의료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최저 혹은 적정 보건의료비 계량화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비가 보건수준에 대한 사회적 기본욕구(basic need) 중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로 한정된다면, 보건의료비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07:325). 그러나 [그림 5-6-1]과 같이 규범적 욕구 중 일부는 인지되지 않으며, 인지되더라도 실제로 표출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박순일 외, 1994).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인지되지만 표출되지 않는 미충족 욕구가 상당히 존재하며, 더불어 인지되지 않은 욕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림 5-6-1] 욕구의 개념

규범적 욕구	규범적 욕구	규범적 욕구
인지되지 않은 욕구	표출되지 않은 욕구	표출된 욕구
	인지된 욕구	

자료: 박순일 외(1994:108).

둘째, 타 재화(서비스)와 차별되는 보건의료 재화(서비스)의 상대적 특성 때문에 최저 보건의료비 산출은 더욱 어렵다(여유진 외, 2007:325). 우선 개개인의 선천적·후천적 건강상태가 상이하여 ‘기본적’ 보건의료 욕구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수준, 질병에 따른 고통인지정도도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재화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매우 크다. 동일한 건강상태라도 의료적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최저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5-6-1]을 준용하여 보건의료욕구를 규범적·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림 5-6-2]와 같이 보건의료욕구는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적 욕구(인지되지 않은 욕구)와 사후치료적 욕구(인지된 욕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실제 질병치료욕구(표출된 욕구)와 경제적 사정으로 방치된 욕구(표출되지 않은 욕구)로 구분한다. 전자는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비, 후자는 '미충족욕구A<sup>55)</sup>'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위 두 욕구 충족을 위한 최저 비용을 최저 보건의료비로 산출할 것이다.

[그림 5-6-2] 보건의료욕구의 개념 및 최저보건의료비 구성

규범적 욕구	규범적 욕구	규범적 욕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적 욕구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의 소홀)	경제적 사정에 의한 질병의 방치	질병의 치료
	<b>미충족욕구A</b>	<b>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비</b>
<b>미충족욕구B</b>	질병에 대한 사후치료적 욕구	
	<b>최저보건의료비</b>	

이를 바탕으로 최저 보건의료비는 실태적 접근을 기본으로, 규범적 접근을 고려하는 원칙 하에 산출하였다. 첫째, 실태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의 일부를 반영한 비용을 산출하였다. 자료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이하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둘째, 규범적 측면에서 반영되어야 할 보건의료용품비를 산출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가격월보」(2007. 1.) 및 소비자 물가지수<sup>56)</sup>를 이용하고, 시장조사자료로 보완하였다.

55) 이는 저소득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의료욕구에 대한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56) 통계청 「소비자물가 가격월보」 발표는 2009년 2월 이후 중단되었다. 따라서 2010년 가격추정은 「가격월보」(07.1.) 가격 기준으로 07년 대비 10년 소비자물가지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보건의료비 계층방법

앞서 최저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비, 미충족욕구 4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보건의료서비스비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비 산출방식에 따라 기존방식을 분류하도록 한다.

최저 보건의료서비스비 계층 주체는 크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외부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계층의 주체를 둘로 나눈 이유는, 연구목적상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최저보건의료비 계층은 전국민 대상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반면, 외부기관의 경우 임금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계층방법은 크게 두 주체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층방법을 살펴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5차례 기존연구(안창수 외, 1989; 박순일 외, 1994; 김미곤 외, 1999; 김미곤 외, 2004; 여유진 외, 2007)에서 나타난 계층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1차 자료인 실태조사 원자료(「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한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그 특성에 가장 적합한 가구유형의 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1994년과 2004년, 2007년의 연구가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둘째, 실태조사자료가 아닌 2차자료(「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의료서비스비를 계산해 내는 방식이다. 1988년과 1999년의 연구가 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편의상 전자를 ‘의료수요함수 분석방식’, 후자를 ‘2차자료 분석방식’이라 하고, 각각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수요함수 분석방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박순일 외(1994), 김미곤 외(2004), 여유진 외(2007)를 들 수 있다. 박순일 외(1994)에서는 1차자료(「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고, 실제 지출된 평균의료비, 미충족된 의료비(만성질환고려)를 계산하였다. 산출결과 최저 보건의료비는 32,411 원으로, 이것은 미충족욕구를 고려한 평균의료비(20,082 원)와 도시지역 평균의료보험료(12,329 원)를 합한 금액이었다(최저생계비의 4.87%). 당시 의료수요함수모델은 다음과 같다.

$\ln(E) = \text{CONSTANT} + a \text{ CHRONIC} + b \text{ CHILD} + c \text{ OLD} + d \text{ REGION1} + e \text{ REGION2} + f \ln(Y/FS) + g \ln(FS)$	
E	= 보건의료서비스비(1994년 6월)
CHRONIC	= 만성병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CHILD	= 4세이하 아동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OLD	= 65세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REGION1	= 대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대도시=1, 기타=0)
REGION2	= 중소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중소도시=1, 기타=0)
Y/FS	= 1인당 가구소득
FS	= 가구원수

김미곤 외(2004)는 1994년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2004년 1차 조사) 자료를 통해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여 저소득(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의 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를 도출하였다.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도 동일방식으로 산출하고, 미충족욕구는 과대추정 가능성 때문에 산출금액의 50%만 반영하였다. 산출결과 최저보건의료비는 49,719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비(33,798원)과 의약품비(6,322원), 미충족욕구(3,770원), 보건의료용품기구(5,829원)를 합한 금액이었다. 이것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9,001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최저생계비의 4.44%). 여유진 외(2007)에서도 ‘의료수요함수 분석방식’이 활용되어 최저보건의료비가 산출되었다. 산출된 최저보건의료비는 53,894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비(42,574원)과 의약품비(4,496원), 미충족욕구(1,873원), 보건의료용품기구(4,951원)를 합한 금액이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연구진안에서 1원 감액된 53,893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최저생계비의 4.37%).

둘째로 ‘2차자료 분석방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안창수 외(1989), 김미곤 외(1999)를 들 수 있다. 안창수 외(1989)에서는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보건의료서비스로 항목을 나누어 2차 자료를 이용한 평균 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최저보건의료비는 11,831원으로, 이는 의약품·보건의료용품(3,683원)과 보건의료서비스비(8,148원)를 합한 금액이었다(최저생계비의 3.99%).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비의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실태를 반영하여 계산되었고,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M_i = m_i \times \frac{r_i}{R_i}$	
$M_i$	= 저소득층의 1인당 병원진료비
$m_i$	=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의 1인당 병원진료비
$r_i$	=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수진율
$R_i$	= 의료보호수진율

김미곤 외(1999)에서는 1988년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비를 구하였다. 여기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비를 크게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로 나누었다. 외래진료비는 「의료보험통계연보」, 「의료보호통계연보」를 이용하고, 입원진료비는 「생활실태조사」(1999년 1차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또한 지역별 입원의료비 차이 유무를 ANOVA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차이 없음을 근거로 지역별 동일 입원진료비를 적용하였다. 산출결과 최저보건의료비는 42,749원으로, 의약품(3,189원), 보건의료용품(5,468원), 보건의료서비스비(34,092원)를 합한 금액이었다(최저생계비의 4.74%). 특히, 외래진료비의 경우 저소득층의 보건의료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보호통계연보」를 이용하였고,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bullet \text{표준가구 월평균 외래진료비} = \text{수진율} \times \text{건당 외래진료비} \times \text{본인부담비율} \times (1 + \text{연간 보건의료비증가율}) / 12\text{월} \\ & \bullet \text{지역별 월평균 외래진료비} = \text{지역별진료비비율} \times \text{표준가구 월평균 외래진료비} \end{aligned}$$

다음으로 외부기관의 계측방법을 살펴본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의 계측방법은 주로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전체 가계지출을 통해 각 항목별 지출의 환산승수(multiplier)를 구하고, 이를 전년도 보건의료비의 대표값(최빈, 평균)에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국노총(2010), 민주노총(2010)의 경우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활용한 마켓 바스켓으로 보건의료비를 산출하고 있다. 이를 편의상 '기타자료 분석방식'이라고 규정하도록 한다.

먼저 한국노동연구원(2003)의 계측방법은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하고, 이것을 각년도 4/4분기의 4인 가구 비목별 평균값에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김미곤 외, 2004:182). 이 연구결과는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데, 2005년 보건의료비는 24,375원(15~29세 단신근로자 평균 최저생계비의 2.3%)으로 나타났다(「2005년도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결과보고서」<sup>57)</sup>, 2006).

한국노총(2010), 민주노총(2010)의 계측방법은 7가지 표준생계비 가구모형<sup>58)</sup>을 설정하고, 비목별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보건위생비(위

57) 노동부 근로감독과 주체로 2005. 10. 1~10. 31(1개월간)을 기준, 29세 이하 미혼단신근로자(3,000명)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을 조사되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분석대상은 「가계동향조사」의 2004년 4/4분기~2005년 3/4분기에 조사된 1인 취업 2~6인(근로자)가구이다.

58) 가구모형은 규모별 가구주 연령과 평균 초혼연령, 부부간 연령차이,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 첫 자녀 출산시기, 자녀간 터울 등을 반영하여 구성된다(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이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4인 표준 가구와 유사한 모형은 4인가구 I이다.

생비, 의료비, 화장품비)를 구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비 개념에 상응하는 ‘의료비’는 진료비, 의약품비, 안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지표」(2009. 10.)에서 월평균 본인부담액을 계산하여 진료비로 산출하고 「가계동향조사」 10년간 자료(1999~2008)로 의약품비를,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로 안경비를 각각 산출한 뒤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의료비로 계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민주노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비’를 산출하고 있다. 산출결과 2010년 4인가구 I 기준 보건의료비는 한국노총 107,049원, 민주노총 112,414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부기관의 최저 보건의료비는 통계청,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내부 조합원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산출되고 있다.

기존 계측방법의 특성과 한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수요함수 분석방식’의 경우 저소득층의 특성(만성질환자비율이 높음)을 고려하고, ‘욕구개념의 지도’에 근거하여 인지된 욕구(felt need) 중 표출된 욕구(expressed need)는 저소득층의 실제지출의료비를, 표출되지 않은 욕구(unexpressed need)는 ‘미충족욕구’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완벽히 담보하기 어렵고, 계절적 요인(예컨대, 감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이 한계이다(김미곤 외, 2004; 여유진 외, 2007).

둘째, ‘2차자료 분석방식’의 경우 의료비 산출시 ‘저소득층’을 감안한 산출방식이라는 점, 건강보험 전가입자의 외래진료비 및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전수급자의 건당 수진율을 사용하여 수치의 신빙성·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급여대상자의 건당 진료비가 더 높은 현실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점, 외래진료비는 2차자료(건강보험자료)를 사용하고 입원진료비는 1차자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분석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저소득층 1인당 병원치료비가 건강보험대상자의 건당 진료비를 활용하여 추정되었다는 과소추정의 문제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기타자료 분석방식’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 객관적인 통계치를 바탕으로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대상의 비용만을 산출하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의 추정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자료

산출이 목적이므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 비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방법

2010년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은 2007년 계측방식을 준용하도록 한다. 계측의 대 원칙은 실태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실태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가용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평균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 뒷받침(theoretical backup)이 없다면 수치적 계산이 될 뿐이다. 반면 규범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전문가의 판단 혹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 보건의료욕구 편차의 다양성, 인지·표출의 상대성, 보건의료재화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불가능하다. 2007년 계측방식에서도 저소득층의 평균적인 의료소비 실태를 중심으로 하되 미충족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측의 원칙을 세운 바 있다(김미곤 외, 2007: 331). 따라서 실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접근을 적절히 가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보건의료비 욕구개념, 실태적·규범적 측면의 조화라는 원칙에 입각한 최저 보건의료비를 산출하도록 한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비와 의약품비, 미충족욕구의 일부를 반영한 비용이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보건의료비 = 보건의료서비스비 + 의약품비 + 보건의료용품비 + 미충족욕구
  - 보건의료서비스비 = 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처방전 약값
  - 의약품비 = 비처방전 약값
  - 보건의료용품비 = 안경 + 위생대
  - 미충족욕구 = 저소득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욕구 해결을 위한 잠재적 비용(주관적 부족의료비)

이 중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는 '의료수요함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였다. 이 회귀방정식<sup>59)</sup>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 고려하여 저소득(하위 40% 가구) 4인가구의 월평균 비용을 도출하였다. 의약품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59) 2010년 조사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경우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대상 중 저소득(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구원수는 4인으로 고정되므로 회귀방정식의 독립변수에 투입하지 않았다.



$\ln(E) = \text{CONSTANT} + a \text{ CHRONIC} + b \text{ CHILD} + c \text{ OLD} + d \text{ REGION1} + e \text{ REGION2} + f \ln(Y/\sqrt{FS})$	
E	= 월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
CHRONIC	= 만성병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CHILD	= 4세 이하 아동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OLD	= 65세 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REGION1	= 대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대도시=1, 기타=0)
REGION2	= 농어촌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농어촌=1, 기타=0)
$Y/\sqrt{FS}$	= 가구규모를 고려한 1인당 가구소득

미충족욕구(주관적 부족의료비)의 경우 주관성이 강하고, 과대추정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의 50%만 최저 보건의료비에 반영하였다. 미충족욕구를 산출하기 위한 의료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n(S) = \text{CONSTANT} + a \text{ CHRONIC} + b \text{ CHILD} + c \text{ OLD} + d \text{ REGION1} + e \text{ REGION2} + f \ln(Y/\sqrt{FS})$	
S	= 월평균 최소한 필요의료비(주관적 최소의료비)
CHRONIC	= 만성병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CHILD	= 4세 이하 아동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OLD	= 65세 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REGION1	= 대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대도시=1, 기타=0)
REGION2	= 농어촌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농어촌=1, 기타=0)
$Y/\sqrt{FS}$	= 가구규모를 고려한 1인당 가구소득

다음으로 보건의료용품비는 2007년 최저생계비 산정에서 사용된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연수, 가격 결정의 원칙을 준용하였다. 가격결정의 원칙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소비자물가 가격월보」(2007. 1.)에 소비자 물가지수 추정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중저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품목<sup>60)</sup>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점이 있다면 첫째, 2010년 최저보건의료비 계측결과와 2차 자료(「가계동향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 등)를 활용한 산출결과를 비교하여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다. 둘째,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에서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포함한 본인부담비율(「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참고)을 적용할 수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비 산출시 2007년 연

60)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보다 높거나, 조사결과의 대표값(최빈, 중위, 평균)과 차이가 날 경우 중저가 가격이 아니라는 판단의 준거로 삼았다.

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타법지원액 계산 시 좀더 정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2.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 1) 필수품 선정방법

다른 비목과는 달리 최저 보건의료비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 욕구는 별도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지 않고, 의료수요함수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들의 범주에 따른 월평균비용으로 계산된다. 단, 보건의료용품비의 경우 별도의 마켓 바스켓이 구성된다. 보건의료용품비에서는 타 비목과 마찬가지로 「가계동향조사」(2009)의 품목별 탄력성이 0.5이하거나,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보유율이 67% 이상일 경우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보건의료용품비의 하위 항목인 안경의 경우 소득탄력성 0.23, 보유율 67%<sup>61)</sup>로 나타났고, 위생대의 경우 소득탄력성 0.03로 나타났기 때문에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는 월평균 비용이므로 사용량은 1단위, 내구연수는 1개월로 고정된다. 단, 보건의료용품비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안경의 경우 내구연수만 3년(36개월)에서 2년(24개월)으로 조정되었고, 사용량은 2007년과 변동이 없었다. 위생대의 경우 내구연수와 사용량은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안경의 경우 사용량은 1개, 내구연수는 2년(24개월)으로, 위생대의 경우 사

61) 심층조사대상 4인가구 중 안경을 착용하거나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66.56%로 나타났다. 또한 4인가구에서 안경을 착용하거나 시력교정수술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원수는 평균 1.18명으로 나타났다.

용량은 20개, 내구연수는 1개월로 결정하였다.

### 3) 가격 결정방법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는 의료수요함수로부터 도출된 유의미한 변수를 표준가구에 적용한 월평균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비는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중 4세이하 아동, 65세이상 노인을 제외한 가구의 평균지출액인 50,617원, 의약품비는 3,657원, 미충족욕구는 1,873원으로 결정되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비는 2단계를 거쳐 결정되었다. 먼저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수요함수<sup>62)</sup>를 구성하여 분석하면 <표 5-6-1>과 같다.

<표 5-6-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함수 분석결과

구분	B	Std. Error	t	Sig.
(Constant)	7.913	1.421	5.57	0.000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유무	2.712	0.288	9.43	0.000
4세 이하 아동유무	1.731	0.293	5.90	0.000
65세 이상 노인유무	0.347	0.437	0.79	0.427
대도시 더미	-0.199	0.256	-0.77	0.439
농어촌 더미	-0.404	0.545	-0.74	0.458
1인당 가구소득	-0.073	0.101	-0.72	0.469

주:  $adj R^2 = 0.087$ ,  $F=20.16$  ( $P<0.01$ ).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 심층 조사) 원자료.

보건의료서비스비 분석결과 유의미한 변수는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만성질환자 유무, 4세 이하 아동유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결과를 4인 표준가구(부40세, 모37세, 1자(남)11세, 2자(여)9세)에 적용할 때, 4인 표준가구에는 4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는 존재가능성이 있고 가구원수는 4인으로 통제하여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최저 보건의료서비스비는 소득하위 40%이하 4인가구 중 4세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가구의 월평균 의료서비스비 지출액으로 계산한다. 산출결과 월평균 최저 보건의료서비스비는 50,617원이었다<sup>63)</sup>.

62) 종속변수로 투입된 월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에서 (입원치료비+외래진료비+처방전약값)의 월평균 금액이다.

의약품비(비처방전 약값), 미충족욕구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었다. 즉 각각에 대한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유의미한 변수군을 추출한 뒤, 이를 4인 표준가구에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5-6-2>, <표 5-6-3>과 같다.

<표 5-6-2>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약품비(종속변수) 분석결과

구분	B	Std. Error	t	Sig.
(Constant)	5.963	1.386	4.30	0.000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유무	0.387	0.272	1.42	0.155
4세 이하 아동유무	-0.993	0.276	-3.59	0.000
65세 이상 노인유무	-0.179	0.416	-0.43	0.666
대도시 더미	0.158	0.243	0.65	0.516
농어촌 더미	-0.997	0.511	-1.95	0.052
1인당 가구소득	-0.070	0.099	-0.71	0.479

주:  $adj R^2 = 0.015$ ,  $F=4.34$  ( $P<0.01$ ).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 심층 조사) 원자료.

의약품비 분석결과 4세이하 아동유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sup>64)</sup>하였다. 따라서 최저 보건의료서비스비와 마찬가지로 4세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가구의 월 평균지출로 계산한다. 산출결과 월평균 최저 의약품비는 3,657원이었다.

<표 5-6-3>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미충족욕구(종속변수) 분석결과

구분	B	Std. Error	t	Sig.
(Constant)	5.614	1.271	4.42	0.000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유무	0.957	0.250	3.83	0.000
4세 이하 아동유무	-0.391	0.254	-1.54	0.123
65세 이상 노인유무	0.680	0.381	1.78	0.075
대도시 더미	0.338	0.223	1.53	0.130
농어촌 더미	-0.383	0.469	-0.82	0.415
1인당 가구소득	-0.334	0.091	-3.68	0.000

주:  $adj R^2 = 0.037$ ,  $F=9.26$  ( $P<0.01$ ).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 심층 조사) 원자료.

63) 물론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연령과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비를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R^2$  값이 매우 낮게 나와 설명력이 떨어지고, 도출된 금액도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회귀분석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비를 도출할 수 없었다.

64) 회귀계수의 방향성이 (-)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것은 아동이 포함된 4인 가구의 1인당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가 아동이 없는 4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미충족육구 분석결과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유무, 1인당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sup>65)</sup>. 미충족육구도 표준가구 개념에 준하여 4세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가구의 월평균지출로 계산한다. 미충족육구가 주관적이고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sup>66)</sup>에 월평균 미충족육구는 1,873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육구를 계산한 결과<sup>67)</sup>를 제시하면 다음 <표 5-6-4>와 같다.

<표 5-6-4>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료서비스, 의약품비, 미충족육구

(단위: 가구, 원)

구분	전체		4세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제외		만성질환자, 4세이하 아동제외		만성질환자, 4세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제외	
	가구수	평균지출	가구수	평균지출	가구수	평균지출	가구수	평균지출
의료서비스비	1,214	53,764	783	50,617	536	35,596	520	34,827
의약품비	1,293	3,428	834	3,657	576	3,321	555	3,405
미충족육구	1,308	29,144	846	31,330	584	26,602	564	26,958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 조사) 원자료.

한편 보건의료용품비는 타 비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먼저 「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은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중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2007. 1.)와 전문가 의견으로 보완하였다. 한편 여러 종류의 단가가 있는 경우 품목별 월지출액을 고려하여 중저가 금액을 적용하였다. 안경 단가는 「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조사) 평균가격을 반영한 결과 40,000원으로 나타나 사용량 1개를 고려하여 4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안경 내구

65)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의료육구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실태의 지역간 차이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았다(여유진 외, 2007:336).

66) 분석결과 미충족육구는 15,665원(미충족의료비 평균 31,330원\*50%)으로 너무 높게 나타나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인 1,873원을 반영하였다.

67) 2004년의 경우 과대추정을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비 지출이 매우 높은 상위 1%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007년에는 상하위 2시그마(95%) 수준 밖의 값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과대추정을 막고, 이상치(outlier)를 좀더 합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자료값의 분포상태를 고려하여 2004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출액의 상위 1%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연수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평균내구연수<sup>68)</sup>를 반영하여 2007년 3년에서 2010년 2년으로 조정하였다. 위생대의 경우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2007. 1.) 가격(사용량 20개, 3,840원)에 07년 대비 10년 소비자물가지수(114.1)를 적용하여 단가는 4,382원으로 결정하였다.

#### 나. 표준가구의 최저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비처방전 약값), 미충족욕구, 보건의료용품비를 합한 2010년 최저보건의료비의 마켓 바스켓은 <표 5-6-5>와 같이 구성된다. 보건의료서비스비는 50,617원, 의약품비는 3,657원, 미충족욕구는 1,873원, 그리고 보건의료용품비는 6,049원이고, 이들을 모두 합한 최저보건의료비는 지역 간 차이 없이 62,196원으로 산정되었다. 2007년 계층결과와 비교하면 추가·제외된 품목, 사용량이 증가·감소된 품목은 없었다. 단,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보건의료서비스비와 보건의료용품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의약품비로 나타났다. 의약품비의 절대액이 감소된 것은 의약분업의 정착,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약품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5-6-5>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단위 : 원)						
증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보건의료비 합계</b>				<b>62,196</b>	<b>62,196</b>	<b>62,196</b>
보건의료서비스비	1월	1단위	50,617	50,617	50,617	50,617
의약품비	1월	1단위	3,657	3,657	3,657	3,657
미충족욕구	1월	1단위	1,873	1,873	1,873	1,873
<b>소계</b>				<b>56,147</b>	<b>56,147</b>	<b>56,147</b>
안경	2년	1개	40,000	1,667	1,667	1,667
위생대	1월	1봉(20개)	4,382	3,840	3,840	3,840
<b>보건의료용품 소계</b>				<b>6,049</b>	<b>6,049</b>	<b>6,049</b>

68) 심층조사결과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에서 안경내구연수는 평균 18개월로 나타났다.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보건의료비의 경우 첫째, 2차적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둘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와 비교한다면 좀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먼저 2차적 총량자료를 이용할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표준가구 월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 = \text{수진율} \times \text{건당진료비} \times \text{본인부담비율} \times \text{보건의료서비스비 증가율} / 12\text{월}$$

수진율과 건당진료비는 「건강보험통계연보」(2009), 「의료급여통계연보」(2009)를 이용하고, 본인부담비율<sup>69)</sup>은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2009년 기준 수진율과 건당진료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수치를 월평균 수치로 환산하기 위해 12로 나누었다. 그 결과는 <표 5-6-6>, <표 5-6-7>과 같다.

<표 5-6-6>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한 표준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2009년)

(단위 : 원)

구분	입원	외래	약국	합계
40세 남성	4,723	8,045	3,366	16,134
37세 여성	4,331	8,985	2,724	16,039
11세 남아	1,659	6,884	1,941	10,484
9세 여아	1,671	9,447	3,492	14,609
합계	12,383	33,361	11,522	57,266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2009). 본인부담률은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

<표 5-6-7> 의료급여통계를 이용한 표준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2009년)

(단위 : 원)

구분	입원	외래	약국	합계
40세 남성	77,239	40,975	10,454	128,667
37세 여성	27,072	26,651	7,060	60,783
11세 남아	4,480	11,369	2,519	18,368
9세 여아	5,281	13,389	4,435	23,105
합계	114,072	92,383	24,468	230,924

자료: 「의료급여통계연보」(2009). 본인부담률은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

69)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총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전국민 기준 전체 37.8%이고, 진료유형별(입원, 외래, 약국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각각 38.3%, 42.2%, 29.9%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008년 기준 총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 8.3%, 의료급여 2종 13.8%이다.

위와 같이 2009년 기준으로 표준가구의 월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는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할 경우 57,266원, 의료급여통계를 이용할 경우 230,924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년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연3% 인상을 가정하고 1.03)을 반영하면 각각 58,984원, 237,852원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자료를 통해 구한 보건의료서비스비 50,617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통계 추정치가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건강보험통계에서는 소득계층을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계층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의료급여통계를 이용한 계층결과는 본 연구결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통계 추정치는 의료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을 구분할 수 없는 건강보험통계 결과보다는 약간 낮으며, 의료급여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통계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09)를 이용하여 보건의료비를 구할 경우 4인가구 전체, 소득하위 40%이하 4인가구, 소득하위 20%이하 4인가구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를 계산하면 <표 5-6-8>과 같다. 계층결과 중 본 연구결과와 기준이 유사한 소득하위 40%이하 4인가구의 보건의료비는 평균 100,815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본 연구의 최저보건의료비 62,196원보다 1.6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5-6-8>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원)

비목	4인가구 전체		소득하위 40% 이하 4인가구		소득하위 20% 이하 4인가구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보건의료	136,540	39,600	100,815	30,480	94,302	25,500

자료: 「가계동향조사」(2009).

추가로 양대노총의 보건의료비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마켓 바스켓 방식에 의한 보건의료비는 1988년 이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에서 주로 계측해 왔다. 최저 보건의료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1988년 4.0%, 1994년 4.9%, 1999년 4.7%, 2004년



4.4%, 2007년 4.4%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4~5% 수준을 유지하고 왔다. 2010년의 경우 최저 보건의료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비율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시점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산정한 보건위생비<sup>70)</sup>가 표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인 5.9%, 4.8%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5-6-9〉 타 연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보건의료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62,196	62,196	62,196	-	4.1	4.4	4.8
2007 최저생계비	-	-	53,893	-	-	-	4.4	-
2004 최저생계비	-	-	49,001	-	-	-	4.4	-
1999 최저생계비	-	-	42,749	-	-	-	4.7	-
1994 최저생계비	32,062	32,411	32,411	30,957	4.8	4.6	4.9	5.4
1988 최저생계비	-	11,831	11,831	11,831	-	3.8	4.0	4.4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283,331	-	-	-	5.9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221,961	-	-	-	4.8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70) 본 연구의 최저보건의료비 개념에 상응하는 의료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노총 2.24%, 민주노총 2.45%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보건의료비보다 의료비 수준이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I의 생계비 자체가 본 연구의 4인가구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 4,775,505원, 4,595,386원) 상대적 비율은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총액 자체도 한국노총 283,331원, 민주노총 221,961원은 모두 본 연구의 최저보건의료비 62,196원보다 4.6배, 3.6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양대 노총의 경우 본 연구의 보건의료비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는 보건위생비를 표준생계비의 일부로서 계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건위생비는 위생비, 의료비, 화장품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 중 목욕, 이발, 미용을 위한 위생비, 화장품비는 본 연구의 기타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비목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의 보건위생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4인 표준가구와 정확히 합치하는 가구모형도 아니며, 저소득계층만을 분리해서 산출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 제7절 최저 교육비

### 1. 최저 교육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교육비의 개념

교육은 개인적·사회적·경제적 관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정체성 확립의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 한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정의로부터 최저 교육수준은 ‘교육수혜자의 욕구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저 교육수준의 정의를 바탕으로, 최저 교육비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해왔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구가 다양한 유형의 사교육에 일정한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는 현실과 사교육의 필요성을 일부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의 의식을 반영하여, 최저 교육수준의 유형을 공교육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교육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지출을 최저 교육비에 포함시켰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교육비 계측방법

최저 교육수준을 가장 좁은 범위에서 정의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하는 공교육으로 보고 이와 같은 공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저 교육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 교육수준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최저 교육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쟁점으로는 첫째, 교육수준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유치원, 예체능학원 등의 취학 전 교육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육이 최저

교육수준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둘째, 학원 및 과외 등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비를 최저 교육비에 포함시킬 것인가, 셋째, 가구 구성원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등 최저 교육비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생계비를 계측하여 발표하고 있는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이나 성인교육과 같은 평생교육의 개념까지도 최저 교육수준으로 정의하는 등 최저 교육비에 대한 정의 및 구성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계측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초등학교 2인으로 구성된 표준가구를 대상으로 두 자녀의 최저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사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등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사교육비 유형으로 가정학습지를 포함하였다. 과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 계측을 위하여 산출했던 생계비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계측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15~29세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 교육·교양오락비를 함께 계측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자가구의 표준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교육비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하고 있다. 공교육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교육통계연보』의 교육재정 중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징수액 현황을 반영하였으며, 사교육비는 과외활동비와 기타 사교육비(참고서비, 일반도서비, 단체활동비, 학용품구입비)로 구성하고 있다. 표준가구 유형에 따른 과외활동비의 경우,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반영해 6세 아동은 유치원, 초등학교생은 가정학습지와 예체능학원, 중·고등학생은 학과 관련 학원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의 경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교육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노총은 교육비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성인교육비로 구분하였으며, 공교육비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로 구성되지만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까지는 육성회비만을 고려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일반사교육비(학교생활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비용)와 과외활동비(학교생활 이외에 지출되는 비용)로 구성되는데, 일반사교육비는 가장 일반적인 지출형태를 고려하여 교과서비, 참고서비, 학용품비, 학습준비물비, 단체활동비(소풍, 수학여행, 특별활동 등)로 구성하였고, 과외활동비의 경우 학교별 과외활동 수, 종류, 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 초등학교생은

학습학원과 학습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습학원을 반영하고 있다. 성인교육비의 경우, 전년도 성인교육비를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조사의 교육비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다.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육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과 2007년 계측방법을 준용하여 최저 교육비를 계측하였다. 표준가구 구성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 2인을 대상으로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으며, 공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정도의 사교육(가정학습지)은 역시 반영하고 있으나 평생학습 개념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에서 반영하고 있는 성인교육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최저 교육비 세부영역은 통계청 중분류 기준에 따라 ‘납입금 - 교재비 - 보충교육비 - 문방구비’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단, 표준가구가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납입금은 해당이 없으므로 ‘교재비 - 보충교육비 - 문방구비’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 계측된 최저 교육비를 구성한 마켓 바스켓 필수품 항목에 대하여 내구연수 및 사용량, 가격을 조정하여 2010년 최저 교육비를 계측하였다.

### 2. 최저 교육비 계측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최저 교육비의 범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비’-‘보충교육비’-‘문방구비’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2010년 최저 생계비의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은 표준가구의 구성에 따라 남·여 초등학생 자녀(남 11세, 여 9세)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07년 최저 교육비와 비교할 때 마켓 바스켓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품목 없이 총 23개 품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로 교재비 2개 품목, 보충교육비 3개 품목, 문방구비 18개 품목이다.

## 1) 필수품 선정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는 마켓 바스켓에 해당하는 필수품 항목은, 기본적으로 실태 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품목별 보유비율 및 사용실태를 기초로 연구된 2007년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품목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2007년 구성되었던 마켓 바스켓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품목은 없었으며,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 필수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 역시 기본적으로 2007년 최저 교육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와 각종 통계자료에 제시된 품목별 사용실태 및 사용기간 자료를 반영하여 일부 품목의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 ○ 교재비

- － 문제집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녀별 1학기 당 구입 권수를(1권 → 2권) 상향 조정

### ○ 보충교육비

- － 가정학습지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1인당 주요 교과목 중 특정 과목 또는 전 과목을 포함한 가정학습지 1종을 구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저 교육비의 관점에서 2007년과 동일 수준(자녀 1인당 연중 6개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등 수업 부담이 적은 시기)에서 구독하는 것으로 반영
- － 수련회 : 정규교육 과정의 특성 및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 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실태를 반영하여 자녀(초등학교 3학년, 5학년에 해당) 1인당 1회 참여하는 것으로 수련회 참여횟수를

### 상향 조정(1회→2회)

- － 기타교육비 : 야외활동 및 특별활동의 경우,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 1학기당 1회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련회’ 참여횟수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기존 3회에서 2회(자녀 1인당 1회)로 하향 조정

#### ○ 문방구비

- － 기존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를 근거로 품목별로 초등학교 1인당 학기당 사용량 및 사용기간을 2007년과 동일하게 결정
- － 자녀 간에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개인별로 중복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량에 반영

### 3) 가격 결정방법

사용량 및 내구연수에 이어서 마켓 바스켓 품목별 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필수품 가운데 기본적으로 중저가이면서 규격이 일치하는 품목의 경우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심층조사 및 가격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최저 교육비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마켓 바스켓 품목에 대해서도 지역별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2007년 최저생계비의 품목별 가격을 기초로 생활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에 제시된 품목별 가격 및 지출금액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총 10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였다.

####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위와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진에서 제시한 2010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7-1〉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단위: 원)

품목	지역구분	내구연수	사용량	가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교육비 합계</b>					<b>65,930</b>	<b>65,930</b>	<b>65,930</b>
참고서	전국	1년	4권	23,408	7,803	7,803	7,803
문제집	전국	1년	8권	12,320	8,213	8,213	8,213
<b>교재비 소계</b>					<b>16,016</b>	<b>16,016</b>	<b>16,016</b>
가정학습지	전국	1년	12월	32,000	32,000	32,000	32,000
수련회	전국	1년	2회	45,000	7,500	7,500	7,500
기타교육비	전국	1년	2회	10,000	1,667	1,667	1,667
<b>보충교육비 소계</b>					<b>41,167</b>	<b>41,167</b>	<b>41,167</b>
연필	전국	6월	2타스	2,265	755	755	755
싸인펜	전국	1월	4개	200	800	800	800
색연필	전국	1년	2세트	2,500	417	417	417
공책	전국	6월	18권	548	1,644	1,644	1,644
스케치북	전국	1년	4권	1,206	402	402	402
인쇄용지	전국	6월	1권	2,665	444	444	444
크레파스	전국	1년	2세트	3,668	611	611	611
그림물감	전국	1년	1세트	2,851	238	238	238
붓	전국	2년	1세트	4,500	188	188	188
지우개	전국	6월	4개	300	200	200	200
칼	전국	2년	1개	300	13	13	13
가위	전국	2년	1개	700	29	29	29
풀	전국	6월	2개	500	167	167	167
색종이	전국	6월	20개	500	1,667	1,667	1,667
필통	전국	1년	2개	1,500	250	250	250
교육용 악기	전국	3년	1개	2,000	56	56	56
자	전국	1년	2개	200	33	33	33
앨범	전국	3년	2개	15,000	833	833	833
<b>문방구비 소계</b>					<b>8,747</b>	<b>8,747</b>	<b>8,747</b>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은 2007년 마켓 바스켓에 추가되거나 제외된 품목 없이 23개 품목을 유지하였다. 한편, 2007년에 비해 사용량이 조정된 품목은 3개 품목(문제집, 수련회, 기타교육비)이며, 내구연수가 조정된 품목은 없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참고서 등 10개 품목이 조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9개 품목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1개 품목(수련회)의 가격을 하향 조정하였다.



〈표 5-7-2〉 최저 교육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구 분	변경사항	변경근거	내 용
참고서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참고서(전과)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19,000원 → 2010년 23,408원)
문제집	사용량 상향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중위값 및 최빈값 반영 (2007년 1권 → 2010년 2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문제집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10,000원 → 2010년 12,320원)
가정학습지	가격 상향	통계청 실태조사	- 통계청 2009 사교육비 조사 가정학습지 평균지출 반영 (2007년 30,000원 → 2010년 32,000원)
수련회	사용량 상향 가격 하향	심층조사	-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중위값 및 최빈값 반영 (2007년 1회 → 2010년 2회) -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중위값 반영 (2007년 61,000원 → 2010년 45,000원)
기타 교육비	사용량 하향	심층조사	- 수련회 상향 조정에 따른 하향 조정 (2007년 3회 → 2010년 2회)
연필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연필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1,796원 → 2010년 2,265원)
공책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공책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464원 → 2010년 548원)
스케치북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스케치북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952원 → 2010년 1,206원)
인쇄용지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인쇄용지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2,112원 → 2010년 2,665원)
크레파스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크레파스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3,198원 → 2010년 3,668원)
그림물감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그림물감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2,486원 → 2010년 2,851원)

201

제 5 장  
2 0 1 0 년  
비 목 별  
최 저 생 계 비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0년 최저 교육비를 2007년 계측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은 총 23개 항목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표준가구(11세(남)/9세(여) 초등학생 자녀) 기준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65,930원은 2007년 최저 교육비 55,302원 대비 10,628원 (약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 61,158원보다 약 7.8% 높은 수준이다.

〈표 5-7-3〉 타 연구의 최저 교육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교육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65,930	65,930	65,930	-	4.4	4.6	5.1
2007 최저생계비	-	-	55,302	-	-	-	4.5	-
2004 최저생계비	-	-	46,930	-	-	-	4.3	-
1999 최저생계비	-	-	42,071	-	-	-	4.7	-
1994 최저생계비	37,209	39,749	36,094	33,276	5.6	5.6	5.4	5.8
1988 최저생계비	-	15,365	14,299	12,099	-	4.9	4.8	4.5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461,564	-	-	-	9.7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370,000	-	-	-	8.1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5) 1988년과 1994년 최저생계비에서는 교육비와 교양오락비가 통합되어 있다.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한편, 다른 연구에서 계층된 최저 교육비와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결정 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15~29세 단신근로자의 교육 및 교양오락비는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는 370,000원으로 나타나 연구진이 제시한 최저 교육비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교육비까지 포함하고 있는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는 461,564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대략 7배에 이르러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2010년 계층된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는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계측결과는 주로 사교육 포함여부 및 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 1. 최저 교양오락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교양오락비의 개념

교양오락은 사회 전체적인 속성이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산성으로 인해 소비품목 및 행위양태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행위의 결과 또한 간접적이고 단기적이라는 측면에서 경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여가 및 교양오락 수준은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최저 교양오락수준은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필수적인 소비행태와 최근의 여가 및 문화산업의 팽창, 문화상품에 대한 욕구의 일반적인 증가경향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 교양오락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닌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주요 필수품으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계측했던 최저 교양오락비는 수용 가능한 수준 내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최저 교양오락비를 산출하였다. 특히, 2004년 계측 당시에는 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품목별 보유 및 사용실태, 탄력성을 바탕으로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욕구와 행태를 반영하여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신규 9개 항목(컴퓨터 등), 제외 2개 항목(일간신문 등)으로 인해 1999년 13개에서 2004년 20개 항목으로 최저 교양오락비에 반영된 필수품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2004년 최저 교양오락비는 연구진안을 기준으로 28,945원으로 1999년 대비 45.3% 증가했다. 그러나, 2007년 계측 당시에는 1개 항목의 필수품 추가(유선 방송)가 검토되었으나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조정 등에 그쳐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계측을 위해 발표하고 있는 15~29세의 단신

근로자 대상 생계비에서는 최저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를 함께 계측하고 있다. 또한 표준생계비를 매년 계측해 발표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근로자기구의 교양오락 지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 최저 교양오락잡비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측하는 최저 교양오락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마켓 바스켓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교양오락비 구성항목은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도서구입, 비디오테이프 대여, 음악 CD 구입 등이며, 주로 비용은 통계청 가격을 반영하고 이용빈도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교양오락잡비는 교양오락비와 잡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잡비에는 경조사, 손님 접대, 술집, 여행, 고향방문비, 찻값, 담배값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교양오락용품 가구 품목은 가구가사용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활용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 교양오락비를 계측하였다.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구성을 위해 생활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필수품을 선정하여 추가하고, 기존 품목의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을 조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하위 영역은 통계청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서적 및 인쇄물 - 교양오락용품가구 - 교양오락서비스’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 2.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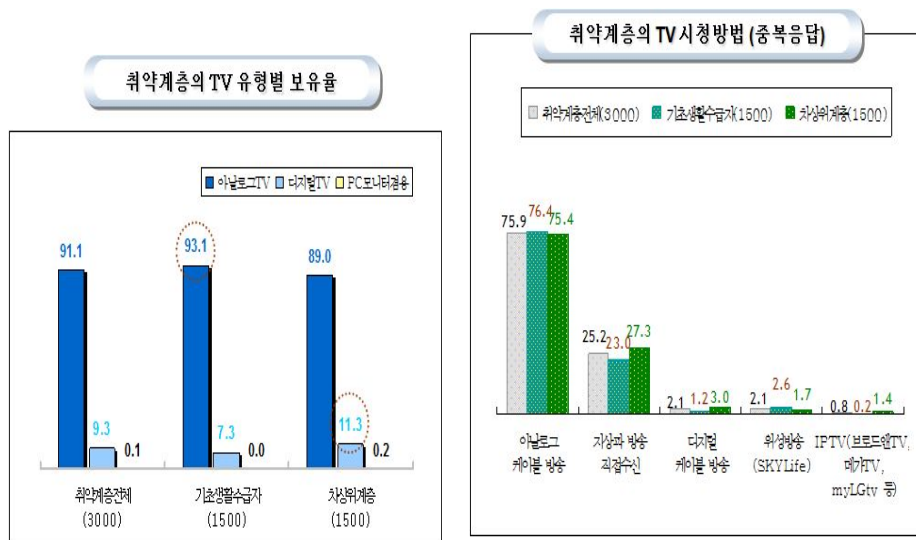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 1) 필수품 선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7년 최저 교양오락비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품목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된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욕구와 행태 및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2007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최저 교양오락비 필수품목으로 유선방송을 마켓 바스켓에 추가하였다. 2007년에는 연구진안에서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였으나, 전문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여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유선방송 가입실태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하였다. 먼저,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의 경우 전 가구 대상 유선방송 가입비율이 87.9%로 조사되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도 4인 가구 기준 유선방송 가입비율 89.3%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2년 12월말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른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공동)와 공청회(2009.11)에서 발표된 ‘취약계층 TV 보유 및 시청행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75.9%가 아날로그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디지털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을 포함할 경우 80.9%에 이르는 반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은 25.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유선방송을 2010년 최저생계비 최저 교양오락비의 필수품에 추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 교양오락비의 마켓 바스켓 품목은 2007년 19개 품목에서 2010년 20개 품목(서적 및 인쇄물 2개 품목, 교양오락용품기구 10개 품목, 교양오락서비스 8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한편, 2010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는 기본적으로 2007년 마켓 바스켓을 구성했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에 제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조정하였다. 사용량을 조정한 품목은 없었으나 교양오락용품기구에 해당하는 프린터잉크의 경우 사용실태를 고려해 내구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프린터 잉크에 해당하는 비용은 2배로 증가하였다.

## 3) 가격 결정방법

2010년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의 가격결정 원칙은 사용량 및 내구연수와 마찬가지로 2007년 마켓 바스켓을 기준으로 객관적 조사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에 나타난 가격 변화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의 가격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계층에 있어 모두 8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였다.

###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이상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필수품을 추가하고 규격,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 등을 조정해 계층한 2010년 최저생계비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의 최종 마켓 바스켓은 다음과 같다.

〈표 5-8-1〉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단위: 원)

품목	지역 구분	내구 연수	사용량	가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교양오락비 합계</b>					<b>30,483</b>	<b>30,483</b>	<b>30,483</b>
도서(성인)	전국	1년	1권	9,823	819	819	819
도서(아동)	전국	1년	2권	6,204	1,034	1,034	1,034
<b>서적 및 인쇄물 소계</b>					<b>1,853</b>	<b>1,853</b>	<b>1,853</b>
텔레비전	전국	10년	1개	260,000	2,167	2,167	2,167
카세트라디오	전국	10년	1개	70,000	583	583	583
비디오	전국	10년	1개	130,000	1,083	1,083	1,083
카메라	전국	10년	1개	40,000	333	333	333
컴퓨터	전국	6년	1개	551,000	7,653	7,653	7,653
프린터	전국	10년	1개	60,000	500	500	500
프린터잉크	전국	1년	1개	7,000	583	583	583
필름	전국	1년	2통	2,500	417	417	417
완구	전국	1년	4개	4,000	1,333	1,333	1,333
CD 구입	전국	1년	1개	12,000	1,000	1,000	1,000
<b>교양오락용품기구 소계</b>					<b>15,652</b>	<b>15,652</b>	<b>15,652</b>
영화관람(성인)	전국	1년	2명	8,169	1,362	1,362	1,362
영화관람(아동)	전국	1년	2명	7,501	1,250	1,250	1,250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전국	1월	1회	2,500	2,500	2,500	2,500
유선방송	전국	1월	1회	4,400	4,400	4,400	4,400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전국	1년	2회	9,000	1,500	1,500	1,500
사진촬영	전국	5년	1조	10,533	176	176	176
사진현상	전국	1년	2통	7,073	1,179	1,179	1,179
비디오(DVD) 대여	전국	1년	4회	1,834	611	611	611
<b>교양오락서비스 소계</b>					<b>12,978</b>	<b>12,978</b>	<b>12,978</b>

2010년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된 품목 없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연구진안 계층 시와 동일하게 유선방송 수신료를 쟁점 항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2007년 최종 최저 교양오락비 기준 19개 품목에서 2010년 연구진안에서는 20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표 5-8-2〉 최저 교양오락비 추가 품목

구 분	추가이유	실 태
유선방송 수신료	실태조사 반영	(기초 생활실태조사) 전 가구 유선방송 가입비율 87.9% (심층 생활실태조사) 4인 가구 유선방송 가입비율 89.3% (방통위 TV시청실태조사) 취약계층의 유료방송 수신비율 80.9%



한편, 2007년과 비교할 때 사용량을 조정한 품목은 없었지만, 내구연수를 조정한 품목이 1개(프린터 잉크)였고 총 8개 품목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다.

〈표 5-8-3〉 최저 교양오락비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구 분	변경사항	변경근거	내 용
도서 (성인)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도서(성인)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9,500원 → 2010년 9,823원)
도서 (아동)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도서(아동)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6,000원 → 2010년 6,204원)
프린터잉크	내구연수 하향	실태조사	- 생활실태조사 반영 내구연수 하향 조정 (2007년 2년 → 2010년 1년)
영화관람 (성인)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영화(성인)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7,079원 → 2010년 8,169원)
영화관람 (아동)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영화(아동)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6,500원 → 2010년 7,501원)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가격 상향	실태조사	- 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3,000원 → 2010년 9,000원)
증명사진 촬영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증명사진 촬영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9,280원 → 2010년 10,533원)
사진현상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사진현상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5,350원 → 2010년 7,073원)
비디오(DVD) 테이프대여	가격 상향	통계청 물가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비디오(DVD)테이프대여 평균가격 변화 반영 (2007년 1,796원 → 2010년 1,834원)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0년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를 2007년 계측 및 결정된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켓 바스켓 구성항목은 제외된 것 없이 1개 품목(유선방송 수신료)이 추가됨에 따라 총 19개에서 2010년에는 총 20개로 증가하였다. 최저 교양오락비의 경우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에는 지역별 차이에 따라 대도시 25,037원, 중소도시 24,961원, 농어촌 24,636원이었으나, 2007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는 연구진안에

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24,062원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2010년에 계측된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는 30,483원이며, 이는 2007년 최저 교양오락비 대비 6,421원(약 26.7%) 증가한 결과이다.

〈표 5-8-4〉 타 연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교양오락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30,483	30,483	30,483	-	2.0	2.1	2.4
2007 최저생계비	-	-	24,062	-	-	-	2.0	-
2004 최저생계비	-	-	24,961	-	-	-	2.3	-
1999 최저생계비	-	-	19,917	-	-	-	2.2	-
1994 최저생계비	37,209	39,749	36,094	33,276	5.6	5.6	5.4	5.8
1988 최저생계비	-	15,365	14,299	12,099	-	4.9	4.8	4.5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424,892	-	-	-	8.9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439,000	-	-	-	9.6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5) 1988년과 1994년 최저생계비에서는 교육비와 교양오락비가 포함되어 있다.

6)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에는 대부분의 기타소비지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연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한편, 다른 연구에서 계측된 최저 교육비와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15~29세 단신근로자의 교육 및

교양오락비는 최저 교육비와 함께 발표되어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며, 다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2010년 표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잡비는 교양오락비 및 잡비가 함께 계측되어 민주노총의 경우 439,000원, 한국노총 424,892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으며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8.9%와 9.6%로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비해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는 소비행태와 관련된 특성상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두 기관이 발표하는 표준생계비와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 1. 최저 교통·통신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교통·통신비의 개념

교통통신비는 타인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경제활동, 사회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교통수단(통근, 통학, 외출 등을 위한 대중교통 및 자가용 등) 및 통신수단(가족, 지인, 타인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활용 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통·통신비는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되고 있다(여유진 외, 2007: 358). 본 연구에서 최저 교통·통신비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사회적 교류를 위한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 이용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정의<sup>71)</sup>한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방법

교통·통신비를 계측한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5차례의 기존연구(안창수 외, 1989; 박순일 외, 1994; 김미곤 외, 1999; 김미곤 외, 2004; 여유진 외, 2007)가 있고, 외부기관의 연구로는 한국노총(2010), 민주노총(2010)의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교통·통신비 계측방식에 대해 여유진 외(2007)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유진 외(2007)에서는 교통·통신비 계측에 앞서 4인 표준가구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가구주(40세)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중소기업에서 주 6일제 근무하는 근로자로 가정하고, 배우자(37세)는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 그리고 자녀 2인(11세 남, 9세 여)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표준가구는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sup>72)</sup>를 이용하

71) 최저교통통신비 = 교통비(시내버스, 택시, 고속버스) + 통신비(집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72)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지역적 제약이 있는 전철 대신 전국적으로 이용가능한 버스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기본적인 교통수단 외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택시(위급상황이나 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시외(고속)

고, 통신수단으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필수품의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대체로 200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별도로 산정하였다. 가격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가격(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가격월보」(2007. 1.)를 반영하였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수인 경우는 대표값(최빈, 중위, 평균)을 활용하였다.

한국노총(2010)의 교통통신비는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등)과 통신수단(가정용 전화, 이동전화, 컴퓨터통신, 우편 등)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교통비의 경우 4인가구 I에서 시내버스는 배우자만 월 14회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가구주의 주된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아닌 자가용<sup>73)</sup>이기 때문에 자가용 구입 및 유지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택시비는 모든 가구가 월평균 3회(실태조사 중위값) 이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월 교통비는 4인가구 I의 경우 월 464,655원으로 산정되었다. 둘째, 통신비의 경우 4인가구 I에서 가정용 전화비는 전화사용량(2006년 표준생계비 모형)에 가정용 전화에 대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휴대전화비는 평균 2대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제로 S통신사의 일반요금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월평균 컴퓨터통신비(초고속통신이용비)는 월 30,000원(요금은 K사의 무약정 라이트요금을 적용), 우편요금은 월 5,500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월 통신비는 4인가구 I의 경우 월 131,049원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4인가구 I의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595,704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2010)의 경우도 한국노총(2010)과 유사한 가정에 의해 4인가구에 대한 교통통신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2010)과 달리, 통신비의 경우 조합원 실태조사결과가 아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7)에 기초한 가구규모별 통신비 내역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산출결과 4인가구 I의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563,362원으로 나타났다.

버스(고향 및 친지방문)를 포함하였다(여유진 외, 2007:359).

73) 주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단인가구는 버스, 2인 이상 가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단인가구의 경우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가구주의 63.6%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버스 이용 빈도는 월 24회(출퇴근 목적으로 20회+여가 목적으로 4회)로 가정하고 있다(한국노총, 2010).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방법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교통통신비 계측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4인 표준가구의 경제 및 사회활동 상태에 대한 가정을 하였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셋째, 표준가구가 이용하는 교통 및 통신수단에 대한 내구연수, 단가, 사용량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소비자물가 가격월보」(2007. 1.) 및 소비자 물가지수, 외부의 교통통신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조사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4인 표준가구에 가정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 가구주(부: 40세)는 주 5.5일 근무<sup>74)</sup>하면서 최저임금(858,990원)<sup>75)</sup>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촌 가구주(부: 40세)는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버는 농어업 자영자로 상정하였다. 배우자(모: 37세)는 주부, 자녀 2명은 도보로 통학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교 5학년(남: 11세)과 3학년(여: 9세)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상정하였다.

위 가정에 기초하여 교통비의 경우 가장의 출퇴근, 주부의 외출, 자녀의 통학 등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주된 교통수단은 시내버스로 상정하였다. 시내버스에 대한 사용량은 가장의 경우 월 출퇴근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긴급상황이나 주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명절에 친지방문을 위한 목적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통신비의 경우 주된 통신수단은 집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상정하였다.

교통수단에서 시내버스, 택시, 시외버스에 대한 이용량은 2007년의 수준을 유지하되, 가구주 근무일수의 변경 및 실태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통신수단에서 집전화에 대한 이용량은 휴대전화가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07년 연구진

74) 주5일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2010년 1월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 종사자 절반 이상(59.17%)이 주5일제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8)의 종사자규모별 종사자수(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있다. 또한, 주5일제 시행기업 종사자들의 1/4이상이 주5일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2009), 주5일근무제 실시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62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따라서 2010년 1월 기준으로 주5.5일제를 전제로 하였다.

75) 201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일급(8시간 기준) 32,880원이다(전산업 동일 적용). 2010년 주40시간 기준 월급여액은 858,990원, 주44시간 기준 월급여액은 928,86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최저임금심의위원회 「2010년 최저임금 안내」, 노동부 고시 제2009-174호 「2010.1.1~2010.12.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안에서 제시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휴대전화에 대한 이용량도 2007년 연구진안에 제시되었던 수준을 유지하였고 인터넷에 대한 이용량은 인터넷요금이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고 월단위로 지출되므로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

## 2.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 1) 필수품 선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7년 최저 교통·통신비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교통 및 통신수단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의 품목별 탄력성에서 탄력성이 0.5이하인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교통수단의 경우 자전거 및 오토바이, 자동차, 전철, 기차(KTX 등), 국내 항공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들을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삼기에는 한계<sup>76)</sup>가 있었다. 통신수단의 경우 공중전화는 휴대전화와 대체재 관계(여유진 외, 2007:361)에 있으므로 2007년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의 필수품 선정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품목은 휴대전화였다. 휴대전화의 경우 2007년에도 연구진안에 포함되었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역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자료에 나타난 실태적 근거에 의해 휴대전화를 다시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의 필수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통계청 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필수품 선정 기준인 0.5이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을 통해 계산된 가계지출 품

76)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경우 보유빈도가 낮고, 자동차의 경우 저소득층에게도 필수재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이용시 발생하는 주차료, 연료비, 통행료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전철은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제약이 있으며, 기차는 시외버스와 대체가 가능하고, 국내항공은 이용 빈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여유진 외, 2007:361).

목별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이동전화기의 탄력성은 0.10, 이동전화요금의 탄력성은 0.13로 나타났다.

둘째, 실태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보유율과 필수품 인식률, 보유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결과, 소득하위 40% 4인 가구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9.60%, 휴대전화를 필수품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94.71%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하위 40% 4인 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휴대전화 보유대수는 3대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에 대한 월평균 지출비용도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 소득하위 40% 4인 가구의 가구당 평균 휴대전화비용은 월 111,472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서 2010년 3월 기준 휴대전화에 대한 인구 대비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표 5-9-1>과 같이 시내전화 가입자는 2006년 2,300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동전화 가입자는 2006년 4,020만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이동전화(휴대전화) 가입자는 약 4,898만명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보급률은 100.21%<sup>77)</sup>에 달하고 있다.

<표 5-9-1> 시내전화,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단위 : 만명, %)

구분	2006년	(증감)	2007년	(증감)	2008년	(증감)	2009년	(증감)	2010년 3월	(증감)
시내전화 가입자	2,312	0.87	2,313	0.04	2,213	-4.32	2,009	-9.22	1,980	-1.43
이동전화 가입자	4,020	4.84	4,350	8.21	4,561	4.85	4,794	5.12	4,898	2.16

자료: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2010), 「통신서비스 가입자수」. 증감은 원자료에서 계산.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첫째, 교통비의 경우 교통수단에 대한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단, 주6일제에서 주5.5일제로 가구주의 근로일수가 조정됨에 따

77) 이동전화 가입자수를 2010년 기준 추계인구 48,875,000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으로 나눈 비율이다.



라 가구주의 출퇴근 횟수가 2007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월평균 이용량은 가구주 50회<sup>78)</sup>, 배우자 12회<sup>79)</sup>, 자녀 2인 12회<sup>80)</sup>로 결정하였고, 택시에 대한 월평균 이용량은 4인가구 전체가 1회, 시외버스에 대한 이용량은 4인가구 전체가 1년에 2회 고향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통신비의 경우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에서 소득 하위 40% 4인 가구의 평균 휴대전화 보유대수는 3대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반영하였다. 통신수단에서 집전화에 대한 이용량은 1도수(3분 기준 1통화)를 1회로 할 때, 휴대전화의 대체효과를 고려하여 2007년 연구진안에서 제시된 수준인 월평균 통화량은 시내통화 15회, 시외통화 3회, 이동전화에 거는 통화 3회로 결정하였다. 휴대전화에 대한 이용량은 2007년 연구진안에 제시되었던 수준인 월평균 30회, 인터넷에 대한 이용량은 인터넷요금이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고 월단위로 지출되므로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가입비는 40세의 가정이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WHO의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내구연수는 35년으로 산정하였다. 일반전화 이전비는 실태를 반영하여 평균 이사 횟수인 6년에 1회를 적용하였다.

### 3) 가격 결정방법

전체적인 가격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집전화,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의 기본요금, 부가세와 같이 외부적으로 단일한 가격이 주어진 경우 이를 반영하였다. 단, 가격이 단일하지 않은 경우 2007년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을 활용하였다. 나머지 품목들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물가 가격월보」(2007. 1.)에 07년 대비 1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가격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통비의 경우 시내버스 단가는 2007년과 동일하게 전국에 단일요금(1회당 944원<sup>81)</sup>)을 적용하였으며, 택시 단가는 역시 2007

78) 가정의 경우 주5.5일제 근무를 전제하고, 월 1회 외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가정의 월평균 출퇴근 및 외출횟수는 주당 근무일수\*월평균 주수\*왕복+월 외출횟수\*왕복=5.5\*(365/12/7)\*2+1\*2=50회가 된다.

79) 주부의 경우 월 8회 외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주부의 월평균 외출횟수는 8\*2=16회가 된다.

80)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3회 외출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자녀 2인의 총 외출횟수는 3회\*2(왕복)\*2명=12회가 된다.

년과 마찬가지로 단일요금(1회당 5,156원)을 적용하였다. 고속버스 단가는 서울-대전 간 일반시외고속버스 요금(1인 8,700원)을 적용하였다.

통신비의 경우 첫째, 집전화의 기본요금은 가입비형 집전화(K사)의 지역별(급지별) 기본료<sup>82)</sup>인 대도시(10급지 기준) 월 5,200원, 중소도시(7급지 기준) 월 4,000원, 농어촌(5급지 기준) 월 3,000원을 반영하였다. 집전화의 시내통화료는 1도수(3분기준 1통화) 39원을 반영하고, 시외통화료 및 이동통신에 건 통화료는 1도수에 261원을 반영하였다. 집전화요금의 부가세는 기본요금,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이동통신통화료의 합산금액의 10%를 적용하였다. 둘째, 휴대전화의 기본요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S사)의 기본요금 12,000원을 반영하였다.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은 1초당 1.8원을 기준으로 하여 1도수(3분기준 1통화)에 324원으로 산정하였다. 휴대전화요금의 부가세는 기본요금, 사용요금의 합산액에 10%를 적용하였다. 휴대전화 가입비는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인 100,000원, 휴대전화 가입비는 39,600원으로 산정하였다.

셋째, 인터넷 요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K사)의 저가형 라이트 요금제(3년 약정 기준)를 적용한 월 25,5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터넷 요금에 대한 부가세는 사용요금의 10%를 적용하고, 인터넷 이전비는 일반전화와 동시 가입시 면제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2010년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최저 교통·통신비의 하위 영역은 ‘교통비’와 ‘통신비’로 구분하였다.

81) 2010년 단가는 2007년 단가에 07년 대비 10년 소비자 물가지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2010년 시내버스요금 = 2007년 시내버스요금(1회당 868원) \* 108.7 = 944원이 된다.

82) 현재 K사 이외의 시내전화사업자가 있으나, 90% 이상을 아직 K사가 점유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여유진 외, 2007:364).

〈표 5-9-2〉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교통·통신비 합계</b>				<b>143,920</b>	<b>142,600</b>	<b>109,595</b>
시내버스: 가장출근(도시)	1월	50회	944	47,009	47,009	-
시내버스: 가장외출(농어촌)	1월	16회	944	-	-	15,104
시내버스: 주부외출	1월	12회	944	11,328	11,328	11,328
시내버스: 자녀외출	1월	12회	705	8,460	8,460	8,460
택시: 비상외출	1월	1회	5,156	5,156	5,156	5,156
고속버스: 친지방문	6월	1회	52,200	8,700	8,700	8,700
<b>교통비 소계</b>				<b>80,653</b>	<b>80,653</b>	<b>48,748</b>
집전화: 기본요금(대도시)	1월	1회	5,200	5,200	-	-
집전화: 기본요금(중소도시)	1월	1회	4,000	-	4,000	-
집전화: 기본요금(농어촌)	1월	1회	3,000	-	-	3,000
집전화: 시내통화료	1월	15회	39	585	585	585
집전화: 시외통화료	1월	3회	261	783	783	783
집전화: 이동통신통화료	1월	5회	261	1,305	1,305	1,305
집전화: 부가세	1월	1회		787	667	567
집전화: 전화기 이전비	6년	1회	10,000	139	139	139
집전화: 전화기 구입비	4년	1회	36,732	765	765	765
휴대전화: 기본요금	1월	1회	12,000	12,000	12,000	12,000
휴대전화: 사용요금	1월	30회	324	9,720	9,720	9,720
휴대전화: 부가세	1월	1회		2,172	2,172	2,172
휴대전화: 전화기 구입비	5년	1회	100,000	1,667	1,667	1,667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비	35년	1회	39,600	94	94	94
인터넷: 사용요금	1월	1회	25,500	25,500	25,500	25,500
인터넷: 부가세	1월	1회		2,550	2,550	2,550
<b>통신비 소계</b>				<b>63,267</b>	<b>61,947</b>	<b>60,847</b>

주: 1) 집전화 부가세=(집전화 기본료+시내통화료+시외통화료+이동통신통화료)\*10%

2) 휴대전화 부가세=(휴대전화 기본요금+사용요금)\*10%

3) 인터넷 부가세=인터넷 사용요금\*10%

2010년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은 휴대전화를 필수품으로 포함하면서, 대체 관계에 있는 공중전화가 필수품에서 제외<sup>83)</sup>되고, 집전화 통화량은 조정되었다. 따라서 품목수는 2007년 15개 품목에서 2010년 19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추가품목은

83) 2008년 기준 공중전화 유지비용은 783억으로, 1일 평균 약 2억 1,400만원이었다. 반면 1일 평균 공중전화 이용건수는 64만9000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설치된 공중전화대수 약 9만7,000대를 감안하면, 공중전화 1대당 평균 이용건수는 7건으로 매우 낮았다. 1인 1휴대전화 시대가 되면서, 공중전화는 용도폐기될 위기에 놓인 상태이다(자료출처: 2009.10.12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애물단지라 된 공중전화’).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된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가세, 전화기 구입비, 이동통신 가입비 5개 품목이며, 제외품목은 공중전화 1개 품목이다.

〈표 5-9-3〉 최저 교통·통신 추가품목

구 분	추가이유	실 태 및 마켓 바스켓 반영										
휴대전화	실태조사 및 외부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 가구 휴대폰 보유율 94.9%,</li><li>- 소득하위 40% 가구 휴대폰 보유율 89.4%</li><li>- 소득하위 40% 4인 가구 휴대폰 보유율 99.6%</li></ul></li><li>○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 가구 휴대폰 보유대수 평균 2.30대, 중위 2대, 최빈 2대</li><li>- 소득하위 40% 가구 휴대폰 보유대수 평균 2.06대, 중위 2대, 최빈 2대</li><li>- 소득하위 40% 4인가구 휴대폰 보유대수 평균 3.02대, 중위 3대, 최빈 4대</li></ul></li><li>○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2010), 「통신서비스 가입자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10년 3월 기준으로 이동전화(휴대폰) 가입자는 약 4,898만명, 2010년 기준 추계인구 48,875,000명(통계청) → 인구 대비 보급률은 100.21%.</li></ul></li><li>○디지털타임스, 2010.06.21일자, 「이동전화 보급률 인구대비 100% 돌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통계청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 4920만6000명으로 인구 대비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6%를 기록함.</li></ul></li></ul>										
		<div><p><b>이동전화 가입자 현황</b> (단위:만명)</p><table><thead><tr><th>연도</th><th>가입자 수</th></tr></thead><tbody><tr><td>2006년</td><td>4,020</td></tr><tr><td>2007년</td><td>4,350</td></tr><tr><td>2008년</td><td>4,561</td></tr><tr><td>2009년</td><td>4,794</td></tr><tr><td>2010년</td><td>4,951</td></tr></tbody></table><p>*2010년 가입자는 KT경영경제연구소 전망치임.</p></div>	연도	가입자 수	2006년	4,020	2007년	4,350	2008년	4,561	2009년	4,794
연도	가입자 수											
2006년	4,020											
2007년	4,350											
2008년	4,561											
2009년	4,794											
2010년	4,951											

〈표 5-9-4〉 휴대전화요금의 반영수준

구 분	내구연수	단가	수량	마켓 바스켓 반영	반영근거
기본요금	1월	12,000원	1회	○2007년 연구진안에서 단가조정 (13,000원→12,000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표준 요금제 (SKT 기준) 적용
사용요금	1월	324원	30회	○2007년 연구진안에서 단가조정 (360원→324원)	○1도수(3분) 기준 단가 적용 기본료: 1.8원/1초×60×3=324. 3분 기준 324원(SKTEL 기준)
부가세	1월	-	1회	○2007년 연구진안과 동일	○2,172원={월기본요금(12,000원)+월 사용요금(9,720원)}의 10%
구입비	5년	100,000원	1회	○2007년 연구진안과 동일	※ 실제 월 반영분: 1,667원
이동통신 가입비	35년	39,600원	1회	○2007년 연구진안에서 단가조정 (55,000원→39,600원)	○단가 표준요금제의 가입비(SKT 기준) 적용 ※ 실제 월 반영분: 94원

〈표 5-9-5〉 최저 교통·통신 제외품목

구분	제외 이유	실태
공중전화	실태반영	○공중전화 매출액 및 설치대수 지속감소

한편 조정품목은 <표 5-9-6>과 같이 12개였다. 첫째, 사용량 조정 품목은 가장의 시내버스 이용횟수, 집전화의 시내통화량, 시외통화량, 이동전화에 건 통화량 4개 품목이다. 둘째, 내구연수 조정 품목은 집전화 및 인터넷 이전비 2개 품목이다. 셋째, 가격 조정 품목은 교통비의 시내버스(가장 출근, 주부 외출, 자녀 외출), 택시(비상 외출), 고속버스(친지방문) 요금, 그리고 통신비의 집전화 구입비 6개 품목이다.

〈표 5-9-6〉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내구연수·가격 조정 품목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출근(가장)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868원 → 2010년 944원) ※ 근거: 07년 대비 10년 가격지수(인구가중평균): 108.7 $868\text{원} \times 1.087 = 943.5 \approx 944\text{원}$
	수량 하향	주5.5일제 반영	○주5.5일 근무 반영 하향조정 (2007년 56회(주6일근무) → 2010년 50회(주5.5일근무)) ※ 2007년 56회=출퇴근26회×2(왕복)+외출2회×2(왕복) 2010년 50회=출퇴근24회×2(왕복)+외출2회×2(왕복) ※ 주5.5일근무제 반영한 출퇴근일수: 1달평균주수(365일/12개월7일)* 1주평균근무일수(5.5일)=23.8988...
외출(주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868원 → 2010년 944원) ※ 근거: 07년 대비 10년 가격지수(인구가중평균): 108.7 $868\text{원} \times 1.087 = 943.5 \approx 944\text{원}$
외출(자녀)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649원 → 2010년 705원) ※ 근거: 07년 대비 10년 가격지수(인구가중평균): 108.7 $649\text{원} \times 1.087 = 705.4 \approx 705\text{원}$
택시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4,340원 → 2010년 5,156원) ※ 근거: 07년 대비 10년 가격지수(인구가중평균): 118.8 $4,340\text{원} \times 1.188 = 5,155.9 \approx 5,156\text{원}$
친지방문	가격 상향	시장조사	○시장조사 반영 상향조정 (2007년 49,200원 → 2010년 52,200원) ※ 근거: 서울-대전 고속버스요금(2007년 8,200원 → 2010년 8,700원) $8700 \times 3(\text{어른2, 아동2}(50\%\text{할인})) \times 2(\text{왕복}) = 52,200\text{원}$ ※ 실제 월 반영분: △500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집전화요금- 시내통화료	수량 하향	휴대전화 포함으로 인한 통화량 조정	○휴대전화 포함으로 인한 통화량 하향조정 (2007년 35회 → 2010년 15회)
집전화요금- 시외통화료	수량 하향	휴대전화 포함으로 인한 통화량 조정	○휴대전화 포함으로 인한 통화량 하향조정 (2007년 26회 → 2010년 3회)
집전화요금- 이동통신통화 료	수량 하향	휴대전화 포함으로 인한 통화량 조정	○휴대전화 포함으로 인한 통화량 하향조정 (2007년 27회 → 2010년 5회)
집전화요금- 전화기구입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35,490원 → 2010년 36,732원) ※ 근거: 07년 대비 10년 가격지수(인구가중평균): 103.5 $35,490 \times 1.035 = 36,732.15 \approx 36,732$ 원
집전화요금- 이전비	내구연수 상향	실태조사	○실태조사 반영 상향조정 (2007년 5.74년 → 2010년 6년) ※ 근거: 주거비 산정시 평균이사횟수 2010년 기준 6년에 1회 반영 ※ 실제 월 반영분: ▽6원
인터넷요금- 이전비	내구연수 상향	실태조사	○실태조사 반영 상향조정 (2007년 5.74년 → 2010년 6년) ※ 근거: 주거비 산정시 평균이사횟수 2010년 기준 6년에 1회 반영 ※ 실제 월 반영분: 0원(인터넷, 집전화 동시 사용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 면제)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는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휴대전화를 필수품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2007년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휴대전화가 추가됨에 따라 집전화의 통화량은 하향 조정되었고, 공중전화는 필수품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2010년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은 총 19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노총(2010) 및 민주노총(2010)의 계층결과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교통통신비를 살펴보면, 본 연구와는 달리 교통비에 자가용 구입 및 유지비가 포함되고, 자가용 이용에 따라 고향의 친지 방문을 위한 시외고속버스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통신비에 휴대전화 2대(한국노총)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교통통신비는 각각 월 595,704원 563,362원으로

본 연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최저 교통·통신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2007년에 비해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휴대전화를 마켓 바스켓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에 따라 통신수단에 대한 비용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는 실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9-7〉 타 연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교통·통신비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143,920	142,600	109,595	-	9.5	10.1	8.5
2007 최저생계비	-	-	129,275	-	-	-	10.5	-
2004 최저생계비	-	-	102,564	-	-	-	9.3	-
1999 최저생계비	-	-	56,005	-	-	-	6.2	-
1994 최저생계비	33,445	37,925	31,725	26,235	5.0	5.3	4.8	4.6
1988 최저생계비	-	14,640	14,640	12,439	-	4.6	4.9	4.6
2010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sup>3)</sup>	595,704	-	-	-	12.5	-	-	-
2010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sup>4)</sup>	563,362	-	-	-	12.3	-	-	-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3) 2010 한국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첫째 자녀 11세(초등학생), 둘째 자녀 9세(초등학생), 자가 기준

4) 2010 민주노총: 가구주 40세, 배우자 35세, 여아 8세(초등학생), 남아 6세(유치원생), 자가 기준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총(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 1.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개념

최저 기타소비지출은 앞서 마켓 바스켓을 구성했던 식품,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주요한 항목 이외에 그 사회의 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마켓 바스켓은 최소한의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분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계측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및 2007년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품목별 탄력성과 실태조사의 보유현황, 지출빈도, 금액,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과 품목의 성격을 참고하여 필수품을 결정하였으며,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가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 물가자료 및 시장가격조사의 대표값을 활용해서 결정하여, 총 28개 품목으로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2010년 한국노총에서는 ‘표준 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비목을 구성하고, 매년 전국 대표성을 띤 지역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조사를 기초로 기타소비지출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소비지출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소비지출을 구성하는 각 품목을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위생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교양오락잡비로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는 보건위생비에, 장신구는 피복신발비에, 그리고 잡비는 교양오락잡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기초화장에 해당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본 연구에 비해 훨씬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하고 있고, 기타 다른 품목의 사용량 및 기준금액이 대체로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



2010년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품목과 지출형태를 결정하며, 자체 물가조사결과와 부분적으로 정부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별도 기타소비지출 분류를 두지 않고 해당 품목들이 보건위생비, 가구가사집기비, 교양오락비 등 다양한 비목으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보다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2009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통계청 분류기준의 기타소비지출을 미혼 단신근로자의 지출의 평균값을 생계비 중 기타소비지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2007년 계측방법을 토대로 하여 최저 기타소비지출을 계측하였다. 기타소비지출의 하위 영역은 2007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중 분류 기준에 따라 이마용품, 이마용서비스, 장신구, 잡비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먼저 품목 결정은 필수품 선정원칙에 따라 결정하였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인 항목을 포함하였고, 통계청 자료로 이용할 수 없는 항목들은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항목이 성인, 아동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최저 욕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검토하였다. 한편 마켓 바스켓의 필수품 여부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부품목을 추가하고, 필수품의 내구연수와 사용량, 가격을 조정하여 2010년 최저 기타소비지출을 구성하였다.

## 2. 최저 기타소비지출 계측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 1) 필수품 선정방법

필수품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이하인 품목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탄력성이 0.5보다 큰 품목 중에서도 필수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목욕, 이발 등의 품목은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함시켰다. 또한 탄력성이 0.5보다 작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담배 등 품목은 필수품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되거나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탄력성 판단이 어려운 품목들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보유현황, 지출빈도, 금액, 가계지출 대비 비중 등과 품목의 성격을 참고하여 필수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사용량과 내구연수는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의식과 실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 2007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과 비교하여 사용량과 내구연수가 이전 연구에서 지나치게 과소측정 되어있는 경우는 실태조사 및 기존연구의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타소비지출을 구성하는 몇몇 품목들은 가법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실태조사)의 표본수를 1개월간 구입가구수로 나눈 값을 참고하였다. 이 경우 일반적인 조사 결과보다는 내구연수를 길게 설정하고, 사용량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경조사비 등 잡비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실태조사)의 대표값(최빈, 중위, 평균값)을 참조하여 보통의 경우 실태조사의 대표값보다는 낮게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 3) 가격 결정방법

품목별 가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전연구에서 가격자료로 사용되었던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가격월보」의 발표가 2009년 2월 이후 중단되어, 2007년 1월의 「가격월보」 품목의 가격에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을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격 등을 고려해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해 중(하)품 기준의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경조사비 등 잡비

와 같이 통계청 자료에 없는 품목의 경우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  
값을 활용하였으며, 실태조사의 대표값보다 보통은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2010년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아래와 같다.

〈표 5-10-1〉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기타소비지출 합계</b>				<b>86,072</b>	<b>86,072</b>	<b>86,072</b>
칫솔(성인용)	4월	4개	1,473	1,473	1,473	1,473
치약	1월	1개	1,500	1,500	1,500	1,500
비누	1월	2개	1,000	2,000	2,000	2,000
샴푸	2월	1통	6,491	3,246	3,246	3,246
스킨로션(여성용)	6월	1개	14,800	2,467	2,467	2,467
밀크로션(여성용)	6월	1개	14,800	2,467	2,467	2,467
스킨로션(남성용)	6월	1개	13,000	2,167	2,167	2,167
아동용로션	6월	1개	9,600	1,600	1,600	1,600
파운데이션	1년	1개	12,900	1,075	1,075	1,075
선크림	1년	1개	10,900	908	908	908
립스틱	1년	1개	7,900	658	658	658
손톱깎기	5년	1개	1,500	25	25	25
면도기	1월	5개	200	1,000	1,000	1,000
머리빗	5년	2개	1,500	50	50	50
<b>이미용품비 소계</b>				20,636	20,636	20,636
목욕비	2월	4회	4,552	9,104	9,104	9,104
이발(남자 성인)	3월	2회	7,210	4,807	4,807	4,807
이발(남자 아동)	3월	2회	4,911	3,274	3,274	3,274
미용(여자 성인)	6월	1회	9,920	1,653	1,653	1,653
미용(여자 아동)	3월	1회	5,518	1,839	1,839	1,839
파마	6월	1회	30,000	5,000	5,000	5,000
<b>이미용서비스비 소계</b>				25,677	25,677	25,677
핸드백	4년	1개	28,150	586	586	586
가방(학생가방)	3년	2개	25,000	1,389	1,389	1,389
우산(3단)	3년	4개	6,000	667	667	667
손목시계(아날로그)	10년	2개	42,000	700	700	700
지갑	4년	2개	14,000	583	583	583
<b>장신구비 소계</b>				3,925	3,925	3,925
경조비	1년	6회	30,000	15,000	15,000	15,000
교제비(가장)	1년	6회	15,000	7,500	7,500	7,500
친목단체비(배우자)	1년	2회	10,000	1,667	1,667	1,667
자녀 용돈(2인)	1월	2명	5,000	10,000	10,000	10,000
친지방문비(선물)	1년	2회	10,000	1,667	1,667	1,667
<b>잡비 소계</b>				35,834	35,834	35,834

본 연구에서는 이미용품 중 화장품항목의 실태를 반영하여 기존의 스킨로션과 밀크로션으로만 구성되어있던 항목에 표준가구구성원을 고려하여 남성용 스킨로션과 아동용로션을 추가하였다. 또한 2007년 연구진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중생보위에서 제외된 친지방문비를 재 포함하였으며 품목의 추가와 제외는 물론 실태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또한 내구연수와 사용량 경우 2007년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사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가격의 경우 물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장조사를 통해 조정되었다. 품목별 내구연수 및 가격조정 내역은 <표 5-10-2>와 같다.

<표 5-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내구연수·사용량·가격 조정 품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치술	내구연수 조정 가격 상향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	○일반적 권고 사용량을 고려해 내구연수 조정 (2007년 6월 → 2010년 4월)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1,429원 → 2010년 1,473원)
치약	내구연수 조정 가격 하향	가구원수를 고려한 내구연수,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의 사용량을 고려해 내구연수 조정 (2007년 2월 → 2010년 1월) ○시장조사 가격 반영 하향조정 (2007년 1,940원 → 2010년 1,500원)
샴푸	내구연수 조정 가격 상향	가구원수를 고려한 내구연수, 통계청 소비자물가	○가구원수 사용량을 고려해 내구연수 조정 (2007년 3월 → 2010년 2월)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5,405원 → 2010년 6,491원)
립스틱	내구연수 조정 가격 하향	일반적 사용량을 고려, 시장가격조사	○일반적 사용량을 고려하여 내구연수 조정 (2007년 2년 → 2010년 1년) ○시장조사 가격 반영 하향조정 (2007년 15,810원 → 2010년 7,900원)
비누	수량 조정 가격 하향	일반적 사용량을 고려,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사용량을 고려해 수량 조정 (2007년 1개 → 2010년 2개)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940원 → 2010년 1,000원)
스킨로션	내구연수 조정 가격 하향	일반적 사용량을 고려, 시장가격조사	○일반적 사용량을 고려하여 내구연수 조정 (2007년 1년 → 2010년 6월) ○시장조사 가격 반영 하향조정 (2007년 21,748원 → 2010년 14,800원)
밀크로션	가격 하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하향조정 (2007년 17,283원 → 2010년 14,800원)
파운데이션	가격 하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하향조정 (2007년 19,786원 → 2010년 12,900원)
썬크림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8,800원 → 2010년 10,900원)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손톱깎기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1,176원 → 2010년 1,500원)
머리빗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1,350원 → 2010년 1,500원)
목욕비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3,719원 → 2010년 4,552원)
이발비(대인)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7,000원 → 2010년 7,210원)
이발비(아동)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4,768원 → 2010년 4,911원)
미용비(대인)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8,679원 → 2010년 9,920원)
미용비(아동)	가격 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반영 상향조정 (2007년 4,828원 → 2010년 5,518원)
파마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28,906원 → 2010년 30,000원)
핸드백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26,230원 → 2010년 28,150원)
가방	가격 하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하향조정 (2007년 34,100원 → 2010년 25,000원)
우산	가격 하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하향조정 (2007년 7,630원 → 2010년 6,000원)
지갑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12,000원 → 2010년 14,000원)
손목시계	가격 상향	시장가격조사	○시장조사 가격 반영 상향조정 (2007년 41,000원 → 2010년 42,000원)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0년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에서는 생활실태를 보다 반영하여 품목을 추가하였고, 내구연수 및 사용량을 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최저 기타소비지출은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2007년 75,260원에서 2010년 86,072원으로 상승하였고,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농어촌이 7.1%에서 6.1%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한국노총(2010)과 민주노총(2010)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기타소비지출 품목들은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등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구성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노총(2010)의 경우 남성화장품 및 콤팩트, 아이펜슬등 포함시켜 본 연구보다 훨씬 많은 13종의 화장품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민주노총(2010) 또한 남성용화장품, 아동용로션 및 영양크림, 콜드크림, 엡센스, 아

이세도우등 총 17종의 다양한 품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잡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경조비의 경우 한국노총 4인가구의 경우 경조사비 단가는 동일하나 횟수는 10회이며, 민주노총의 경우 횟수 15회, 단가 50,000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되었다.

〈표 5-10-3〉 타 연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기타소비지출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86,072	86,072	86,072	-	5.7	6.1	6.7
2007 최저생계비	-	-	75,260	-	-	-	6.1	-
2004 최저생계비	-	-	67,870	-	-	-	6.2	-
1999 최저생계비	-	-	52,679	-	-	-	5.8	-
1994 최저생계비	53,586	53,586	53,586	53,586	8.0	7.5	8.1	9.3
1988 최저생계비	-	31,697	31,697	31,636	-	10.1	10.7	11.7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1999년, 2004년, 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 기준이다.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1절 최저 비소비지출

### 1. 최저 비소비지출의 개념 및 계측방법

#### 가. 최저 비소비지출의 개념

비소비지출이란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말하며, 가계의 유지와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비라 할 수 있는 소비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의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으로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할 수 있다.

####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방법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비소비지출 항목은 크게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는 하위항목으로 근로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를 포함하며, 사회보장분담금의 하위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된다. 그리고 항목들은 이에 해당하는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항목별 지역차이가 존재하는데, 먼저 균등할주민세는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세표에 의거하여 3개의 지역으로 구분 후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대표 주거형태는 전세, 농어촌은 자가이므로, 도시지역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은 가격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세를 바탕으로 부과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가구주가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기준의 표준보수월액을 적용하였으며, 농어촌 가구주는 도시지역의 표준보수월액을 적용하되 농어촌지원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동일임금에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은 연간 500만원이하 부과체계에 농어촌 지역 농어업종사자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고용보험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임금근로자로 가정

하였으므로 근로자 월 최저임금에 0.45%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분류하여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2010년 표준생계비에서는 비소비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유사하게 ‘조세공과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비와 TV시청료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비와 쓰레기봉투를 조세공과금에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2009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에서는 비소비지출을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으로 구성하였으며 통계청의 「200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소비지출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마켓 바스켓을 구성할 적절한 항목의 선정과,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소비지출의 항목들을 찾아내고,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07년 기준과 유사하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조세의 종류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파악하여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근로형태(임금근로자와 농어업 종사자)를 감안하였으나, 대표주거형태(전세, 자가)의 경우 2007년과 달리 모든 지역에서 전세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적용여부 및 적용기준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세부항목의 부담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저 비소비지출을 계측하였다.



## 2.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결과

### 가. 마켓 바스켓 구성

#### 1) 필수품 선정방법

최저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품의 항목들은, 이전에 시행되었던 2007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표준가구가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으로 구성하였으며, 2007년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항목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2007년 4월에 공포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가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각각 소득분 지방소득세와 균등분 주민세로 개편되어 명칭을 수정하였다.

####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최저 비소비지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된 부과 및 납부기준에 의해 사용량과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먼저 조세의 경우, 소득세(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는 월 1회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연 1회,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연 2회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분담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이에 일정비율로 가산되는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월 1회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 3) 가격 결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표준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임금근로자’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자’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세 및 사회보장 분담금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도시지역의 임금

근로자의 경우 2010년 최저임금인 월 858,990원<sup>84)</sup>으로 하였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자의 소득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표준가구의 대표주거형태를 2007년 계측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전세, 농어촌의 경우 자가로 구분하였으나, 2010년 「국민생활실태조사」(기본조사)에서 모두 전세 기준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의 대표 주거형태를 최저주거면적인 37㎡(11.2평)에 해당하는 아파트 전세로 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세의 경우 2010년 최저임금인 월 858,990원의 소득은 면세점에 해당함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소득세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없는 것으로 하였다.<sup>85)</sup>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므로 지역별 세액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균등분 주민세는 각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행정구역의 다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 지역의 주민세를 평균하여 결정하였다.

재산세(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 지방교육세 포함)는 대표주거유형이 전세이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국민연금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의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므로 월 최저임금인 858,990원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에 4.5%의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부담액을 계산하였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2010년 농어민 국고지원액인 35,550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sup>86)</sup>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은 월 최저임금의 2.665%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였으며,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하였다. 농어촌 지역은 월 최저임금과 동일한 소득에 전세보증금 2,345만원인 가구를 산정하여 계산하고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경감 28%를 합한 총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84)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2010년 최저임금기준은 아래와 같다.

시급액	일급액(8시간 기준)	월급액(주 40시간 기준)	연급여액
4,110원	32,880원	858,990원	10,307,880원

85) 200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10%의 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의 경우 4인 가구(20세 이하 아동2명) 근로소득 월 173만원이 면세점인 소득에 해당한다.

86) 2010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은 기준월소득액이 79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액의 1/2을 정률지원하며, 791,000원 이상인 경우 35,550원을 정액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도시지역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0.45%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분류하여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2010년 최저 비소비지출(연구진안)은 대도시 67,335 원, 중소도시 67,293 원, 농어촌 65,559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은 중소도시 기준 4.7%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농어촌의 비소비지출 합계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재산기준 변경등으로 인해 재산세가 제외되고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 농어촌의 비소비지출이 가장 낮게 산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최저 비소비지출 항목별로 아래의 <표 5-11-1>에 정리하였다.

<표 5-11-1>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연구진안)

(단위: 원)

	내구연수	사용량	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비소비지출 합계</b>				<b>67,335</b>	<b>67,293</b>	<b>65,559</b>
근로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	1월	1회	0	0	0	0
균등분 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1년	1회	5,694	475		
	1년	1회	5,194		433	
	1년	1회	5,143			429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1년	2회	0	0	0	0
<b>조세 소계</b>				475	433	429
국민연금	1월	1회	38,610	38,610	38,610	
	1월	1회	41,670			41,670
건강보험	1월	1회	24,390	24,390	24,390	
	1월	1회	23,460			23,460
고용보험	1월	1회	3,860	3,860	3,860	
	1월	1회	0			0
<b>사회보장분담금 소계</b>				66,860	66,860	65,130

### 3. 다른 연구와의 비교

2010년 최저 비소비지출은 2007년의 연구에 그 금액이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기준소득의 증가 및 건강보험 요율인상과 장기요양보험도입에 기인한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주거점유형태 변화로 인한 재산세 감소 등 재산기준 변화로 인한 영향이 도시지역보다 크게 반영되어 비소비지출 금액의 2007년 최저비소비지출액 대비 상승액은 농어촌의 경우가 더 적었다.

〈표 5-11-2〉 타 연구의 최저 비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최저 비소비지출 <sup>1)</sup>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sup>2)</sup>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 (연구진안)	-	67,335	67,293	65,559	-	4.5	4.7	5.1
2007 최저생계비	-	-	51,187	-	-	-	4.2	-
2004 최저생계비	-	-	26,463	-	-	-	2.4	-
1999 최저생계비	-	-	19,720	-	-	-	2.2	-
1994 최저생계비	515	577	350	573	0.1	0.1	0.1	0.1
1988 최저생계비	-	463	338	67	-	0.1	0.1	0.0

주: 1) 1988년, 1994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계층금액이고, 1999년~2007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계층금액이다.

2) 1999년~2007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는 전세, 농어촌은 자가 기준이다.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비소비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항목을 조세공과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성항목도 차이가 있고, 기준 소득이 본연구보다 높다. 이러한 특성하에서 계층된 조세공과금은 2010년 기준으로 민주노총(2010) 631,186원, 한국노총(2010) 541,711원으로, 본 연구의 중소도시 비소비지출 67,293

원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비소비지출이 전체 마켓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4.8%이며, 농어촌의 경우 동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2000년대에 계측된 최저비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2004년 금액에 대비하여 2007년의 경우 그 절대액과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의 큰 증가를 보였으며, 2010년의 경우에도 절대액이나 비율에 있어 상당한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제5장의 제1절에서 제11절까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 대하여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비용을 계측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비목별 최저 비용을 종합하여,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10년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 절의 내용은 연구진 안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의미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식적인 2010년 최저생계비는 제11장과 제12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먼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40세 부(父)와 37세 모(母), 그리고 11세(남)와 9세(여)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물가 차이와 특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한 바 있다. 표준가구의 지역별 대표 점유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로 설정되었다.

동 비목별 최저 비용 계측과정에서 연구진은 최저생계비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건강성’, ‘문화성’, ‘최저성’을 견지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득탄력성, Logistic 회귀분석을 시도하였고, 지역간, 가구유형간 필수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적, 주관적, 반물량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거의 모든 방식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의 계측하고 비교·분석하였다<sup>87)</sup>.

87) 상대적, 주관적,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본 보고서의 제9장과 제10장에 제시되어 있다.

〈표 5-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sup>1)</sup>		중소도시 <sup>1)</sup>		농어촌 <sup>1)</sup>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545,943	36.2	545,943	38.5	504,217	39.0
주거비	307,755	20.4	221,374	15.6	149,306	11.5
수도광열	105,320	7.0	103,150	7.3	129,168	10.0
가구집기비	41,019	2.7	40,879	2.9	40,779	3.2
피복신발비	52,060	3.5	52,060	3.7	50,140	3.9
보건의료비	62,196	4.1	62,196	4.4	62,196	4.8
교육	65,930	4.4	65,930	4.6	65,930	5.1
교양오락	30,483	2.0	30,483	2.1	30,483	2.4
교통통신비	143,920	9.5	142,600	10.1	109,595	8.5
기타소비지출	86,072	5.7	86,072	6.1	86,072	6.7
비소비지출	67,335	4.5	67,293	4.7	65,559	5.1
합계	1,508,033	100.0	1,417,980	100.0	1,293,445	100.0
중소도시=100		106.4		100.0		91.2

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주거점유형태는 전세를 기준으로 함.

〈표 5-12-2〉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의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단위: 원, %)

구분	2007(중앙생활보장위 의결안)			2010(적용 최저생계비)		
	금액	구성비	인상률 <sup>2)</sup>	금액 <sup>1)</sup>	구성비	인상률 <sup>2)</sup>
식료품비	463,164	37.6	17.87	512,211	37.6	6.59
주거비	212,575	17.2	4.14	235,086	17.2	-5.83
광열수도	82,350	6.7	25.26	91,070	6.7	13.26
가구집기	36,728	3.0	11.30	40,616	3.0	0.65
피복신발	48,773	4.0	6.74	53,938	4.0	-3.48
보건의료	53,893	4.4	15.41	59,601	4.4	4.35
교육	55,302	4.5	19.22	61,158	4.5	7.80
교양오락	24,062	2.0	26.69	26,610	2.0	14.55
교통통신	129,275	10.5	10.31	142,964	10.5	-0.25
기타소비	75,260	6.1	14.37	83,230	6.1	3.42
비소비	51,187	4.2	31.47	56,607	4.2	18.88
합계	1,232,569	100.0	15.04	1,363,091	100.0	4.03

주: 1)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의 구성비를 2010년 최저생계비에 적용하여 비목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임.

2)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2010년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의 인상률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측된 표준가구의 비목별 최저 생계비를 합산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1,508,033원, 1,417,980원, 1,293,445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식적 최저생계비가 1,232,569원(중소도시 기준)이었음을 감안하면 3년 동안 증가율은 15.04%가 된다. 이는 3년 동안 생활의 질 변화와 물가의 변화 폭을 의미한다. 한편, 연구진인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는 2010년 현재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363,091원보다 54,889원(4.03%) 증가한 금액이다. 동 증가 금액은 과거 3년간의 생활의 질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의 변화는 물가의 변화와 생활의 질의 변화로 구성되는데,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이후 대체로 물가의 변화분 정도만을 반영하여 행정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차이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비율이 106:100:91 수준이다. 이는 2007년 연구진 안에 의한 지역 간 비율 108:100:86에 비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최저생계비 격차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농어촌의 주거점유형태가 2007년 자가에서 2010년에는 전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식료품비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都市는 같고, 농어촌은 도시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는 도시지역은 가정의 외식비용이 반영된 반면에, 농어촌의 경우 외식 대신 가정식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주거비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가장 큰 비목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광열·수도비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의 난방연료인 석유가 도시지역의 도시가스보다 단위당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의 교통·통신비가 농어촌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 지역의 경우 근로자로 가정된 가장의 출퇴근 비용이 반영된 데 비해, 농어촌의 경우 농어민으로 가정된 가장의 출퇴근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외의 비목의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매우 미미하거나 동일하다.

2010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비, 교통·통신비, 난방비 - 농어촌의 경우 난방비, 교통·통신비 - 순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



각 36.2%, 38.5%, 39.0%였다.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최저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7.6%(중소도시 기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최저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가구의 구성이 2007년과 동일하므로 표준 4인가구 영양권장량(7,900Kcal/일) 역시 2007년과 동일하다. 따라서 최저 식료품비의 비중 상승은 순전히 이 기간 동안의 가격과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외식 단가를 2007년 3,000원에서 2010년 3,500원으로 인상한 것이 식료품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주거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007년 17.2%에서 2010년 15.6%로 약간 하락하였다. 이는 주거비의 임대료 산정에 사용되는 이자율과 관리비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최저생계비의 구성비가 2007년에 비해 상승한 비목은 광열·수도비, 비소비지출 등이며, 하락한 비목은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등이다.

## 제6장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 1. 가구균등화 지수의 개념

가계의 소비지출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가구구성원의 생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역,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원별로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소비지출 분석에서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구의 복지지표 분석에 유용한 지수가 바로 가구균등화 지수이다.

가구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는 서로 다른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지닌 가구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효용수준을 갖는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구성형태가 서로 상이한 가구들 간의 서로 다른 효용 수준을 동일한 효용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출 비율을 말하며,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들 간의 복지를 비교한 가구균등화지수와 표준성인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구성원 간의 지출규모를 비교한 성인균등화지수(Adult Equivalence Scale)가 있다.

이러한 지수들은 특정가구 및 특정 연령층의 필요량과 지출액을 표준가구 또는 표준성인을 기준으로 각각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가구 A와 가구B로 만 구성된 단순한 경제가 있으며, 가구 A는 1인 가구이고, 가구 B는 2인가구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1인가구인 가구 A를 표본가구로 정하고 가구 A의 총소득이  $x_A$ 원이며, 이에 따른 후생수준이  $W_A$ 라 하자. 그리고 가구 B의 총소득이  $x_B$ 원이고 이에 따른 후생수준이  $W_B$ 라 하면,  $W_A = W_B$ 가 될 수 있는 소득비

을  $x_B/x_A$ 가 균등화 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균등화지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이러한 균등화지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가 P원으로 추계되었을 때 2인 이상의 가구,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만일 3인 가구 구성원수가 1인 가구의 3배이므로 최저생계비도 3배 수준인 3P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규모의 경제효과, 즉 생필품을 가구원이 함께 나누어 쓰거나 공동주거로 주거비를 줄이는 등의 소비감소효과를 무시하는 결과가 생긴다. 또한 가구원의 나이에 따라 특히 성인과 어린이의 소비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가구 간 구성원 특성의 차이를 최저생계비 설정시 반영해야 한다.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구균등화 지수는 가구구성원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통해 서로 다른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구규모들 간의 복지를 비교한 것으로 영양학을 기초로 작성한 Amsterdam 모형(1954)에 의해 최초로 반영되었으며, Prais-Houthakker 모형(1955), Barten 모형(1964)에 의해 발전되었고 Deaton-Muellbauer(1980)는 균등화 지수 개념을 일반화 하였다. 특히 Lluch(1973)은 지출함수개념을 확장된 선형지출체계(ELES: Expanded Linear Expenditure System)에서 개발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원의 규모나 연령의 차이를 고려한 국내의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연구는 전광석·전대영(1979)이 가구들 간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단위소비자 척도(Unit Consumer Scale)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바 있고, 유종구·주학중(1986)은 Jorgenson-Slensnick모형(1984)에 기초하여 도시기구들의 일반화된 가구균등화 지수(Generalized Household Equivalence Scale)를 추정하였다.

## 2. 가구균등화 지수의 계측방법

일반적으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정의하면 주어진 가격  $p$ 하에서 서로 다른 두 가구에 동일한 효용수준  $U_0$ 이 주어졌을 때, 표준가구의 특성을  $S_0$ 라 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가구의 특성을  $S_h$ 라 하면, 가구균등화 지수는

$$ES = \frac{C(U_h, p, S_h)}{C(U_0, p, S_0)} = \frac{C_h}{C_0}$$

와 같다.

여기서  $C_h, C_0$ 는 각 가구의 효용수준  $U_h, U_0$ 에 도달할 수 있는 소비함수이며, 일반적으로 표준가구로서 4인가구의 소비함수를 기준소비함수  $C_0$ 로 고려한다.

가구규모가  $h$ 인 가구에 대한 표준가구(0)의 가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대비용을

$$A_h = \frac{C_h - C_0}{C_0}$$

라 하면 균등화 지수는  $1 + A_h$ 가 된다. 이때,  $A_h$ 는 자료로부터 추정되며, 이를 위해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총 소비지출 및 가구의 특성변수사이의 관계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필수 최소소비지출 접근법, 주관적 접근법, 가구 지출에 근거한 접근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필수 최소소비지출 접근법은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최소한 섭취해야하는 필수영양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접근법은 1960년대 네덜란드의 Leyden 대학에 의해 전개된 방법으로 각 가구의 소득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각 가구의 생활정도에 대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통해 여러 효용수준에 해당하는 비용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은 동일한 응답값을 갖는 가구는 비록 상이한 가구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효용수준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셋째, 지출에 근거한 접근법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가구의 소비지출을 측정함으로서 나타나는 현시선호에 근거한 방법이다.

### 3. 가구균등화 지수산출을 위한 기존의 연구방법

#### 가.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가구지출승수모형)

안창수 외(1989)이 1988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 적용한 가구지출승수모형(가구균등화지수)의 가구지출승수는 표준가구에 대해 가구규모별 지출액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가구지출승수의 개념을 소비지출액과 비목별 지출액에 적용하면 소비지출액 및 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가구지출승수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들은 저소득층 실태조사의 지출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통해 가구지출승수를 추정한 후 이를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곱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E = AX^\beta$$

이 식으로부터 양변에 자연대수  $\ln$  을 취하면 다음과 같이 선형화된 방정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begin{aligned}\ln(E) &= \ln(A) + \beta \ln(X) \\ &= \alpha + \beta \ln(X)\end{aligned}$$

이때  $E$  는 소비 지출액이며,  $X$ 는 가구규모,  $\alpha = \ln(A)$ 와  $\beta$ 는 추정할 회귀모수이며, 특히  $\beta$ 는 가구규모( $X$ )의 변화비율에 대한 소비 지출액( $E$ )의 변화비율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가구규모에 대한 소비 지출액의 탄력성계수로서  $0 < \beta < 1$ 이면 가구규모에 대한 체감지출이 되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구지출승수의 정의에 따라 가구규모가  $j$ 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에 대한 가구지출승수  $M_j$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_j = \frac{j\text{인 가구규모의 소비 지출액 추정치 } (C_j)}{\text{표준가구(4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 추정치 } (C_4)} = \left(\frac{j}{4}\right)^\beta$$

이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의 계측 방법은 소비지출에 대해 균등화지수를 추정한 후 4인 가구 소비지출액에 가구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비지출액을 추정한 후 이에 비소비지출을 더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다.

이 모형의 단점은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설정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데 있다.

#### 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환산승수모형

일본의 인사원에서 산출하는 표준생계비 산출방식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박영범·조우현, 1989).

$$E = aX^2 + bX + e$$

여기서  $E$ 는 비목별소비지출액의 최빈값,  $a, b$ 는 회귀모수,  $X$ 는 가구원수(가구 규모),  $e$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박영범과 조우현(1989)의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 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가구원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즉 가구원수간 생계비의 상관계수로서 계산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환산승수( $M_{ji}$ )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 의 환산승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_{ji} = \frac{j\text{인 가구규모의 } i\text{비목의 지출액 최빈값 } (E_{ji})}{4\text{인 가구의 } i\text{비목의 평균지출액 추정치 } (E_{4i})}$$

이때 분자의 가구규모별 비목별 소비지출액의 최빈값은 대수정규분포(log-normal)의 최빈값으로 구해진다( $\text{mod} = \exp(\mu - \sigma^2)$ ,  $\mu$ 는 평균,  $\sigma^2$ 은 분산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환산승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각 비목별 2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의 최빈값을 조사 자료로부터 구하고,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1인 취업가구 2~5인 가구 및 1인 가구 지출액을 추정한다. 그러면 각 비목별 로 추정된 값을 1인 취업 4인 가구 평균 지출액을 나눈 값이 환산승수가 된다. 이때 분자는 각 비목별 지출액 최빈값, 분모는 4인 가구 평균 지출액으로 정의된다.

이 모형의 특징은 먼저 가구규모( $X$ )가 0 이면 소비지출( $E$ )도 0 이라는 판단 하에 절편이 없고, 가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 비목의 지출이 증가하되, 증가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a$ 는 부(-)의 값을 가지고,  $b$ 는 정(+)의 값을 가지면 바람직한 모형이 된다(배무기 외, 1987).

이 모형을 이용한 최저생계비 계측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비목별 균등화지수(환산승수)를 산출한 후, 이 승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비목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이 값들과 비소비지출을 합산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

이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단점은 설명변수에 가구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상수항을 모형에 대한 검증 없이 자의적으로 배제하여 모형설정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과 선행연구(배무기 외, 198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료품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들은 2차 모형(quadratic model)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 다. LICOs(Low Income Cut-Offs) 모형

캐나다의 경우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는 식품비, 주거비, 의복비에 관한 지출과 소득, 가구규모, 도시규모, 지역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log 모형으로 설정하고 있다(Wolfson & Evans, 1989).

$$\log E = a + b \log Y + \sum_i c_i FS_i + \sum_j d_j U_j + \sum_k e_k R_k + \varepsilon$$

단 여기서  $E$  는 식료, 주거, 의복에 관한 총지출을 의미하며,  $Y$ 는 세전 가구소득,  $FS_i$ 는 가구규모,  $U_j$ 는 도시규모( $j=1,2,3,4,5$ ),  $R_k$ 은 지역( $k=1,2,3,4,5$ )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varepsilon$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또한  $a, b, c_i, d_j, e_k$ 는 모두 회귀계수이다.

이 모형을 이용한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소득과 가구규모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M_j = \frac{E_j}{E_4} = \frac{10^{(\log E_j)}}{10^{(\log E_4)}} = 10^{(C_j - C_4)}$$

이와 유사한 국내연구로 서상목의 연구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하였다(서상목, 1979).

$$E = a + bY + \sum_j r_j D_j$$

여기서  $D_j=1$ 은 가구원수가  $j$ 인일 경우,  $D_j=0$ 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1973년 가계조사자료(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이용하여  $r_j$ 값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 라.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88)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가구규모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까지를 모형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E/FS) = \alpha + \beta(Y/FS) + \gamma FS + \delta H + \varepsilon$$

여기에서  $(E/FS)$ 는 1인당 가계지출,  $(Y/FS)$ 는 1인당 소득,  $FS$ 는 가구규모,  $H$ 는 터미변수로서  $H=1$ : 노인가구,  $H=0$ : 비노인가구를 의미한다.  $\alpha$ ,  $\beta$ ,  $\gamma$ ,  $\delta$ 는 각각 회귀 모수로서 추정된다. 또한  $\varepsilon$ 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sigma_\varepsilon^2$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가구균등화 지수는 근로소득의 중하의 30% 상하에 속하는 계층의 가구균등화 지수이다. 이 모형에서는 가구균등화산출모형이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먼저 모형의 설명변수에 가구규모와 가구 소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상수항은 반드시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귀모수에 대한 추정치의 평가기준으로서 경제 이론적 기준(추정치의 부호와 크기 및 경제이론과의 부합성 여부)과 통계적 기준( $R^2$ ,  $t$ -통계량 값,  $F$ -통계량 값 등), 계량경제제학적인 기준들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모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모형들을 고려하였으나, 국내외 연구결과와 당시 통계청 조사결과인 도시가계연보의 가구규모별 지출비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현실성 있는 모형으로 고려하였다.

88) 박순일 외. 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sup>89)</sup>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는 198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제시한 모형에 소득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산출하였다.

$$E = A(FS)^{\beta_1}(Y)^{\beta_2}$$

이 방정식의 양변에 자연대수 ln 을 취하면

$$\ln(E) = \ln(A) + \beta_1 \ln(FS) + \beta_2 \ln(Y)$$

$$= \alpha + \beta_1 \ln(FS) + \beta_2 \ln(Y)$$

와 같다.

여기서  $E$ 는 가계지출액이며,  $FS$ 는 가구규모,  $Y$ 는 가구소득을 나타내며,  $\alpha$ ,  
 $\beta_1$ ,  $\beta_2$ 는 회귀모수이다.

상수항인  $\alpha$ 와  $\beta_1$ ,  $\beta_2$ 는 기초 조사로부터 추정가능한 모수로서 추정결과 동일  
한 소득을 갖는 가구 중에서 가구규모가 4인인 가구를 기준(표준가구)으로 하고, 이  
를  $4 \pm j$  인 가구와 비교하면, 4인 가구 지출에 비해  $4 \pm j$  가구의 지출이  
 $\left(1 \pm \frac{j}{4}\right)^{0.517}$  배 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총 가구 수 12,069 가구  
에 대한 기초조사로부터 추정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E) = 2.306 + 0.517 \ln(FS) + 0.297 \ln(Y)$$

1999년 연구로부터 추정된 모형의 통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변동 중에서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50.15%(Adj-  $R^2=0.5015$ )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  
성을 나타내는  $F$ -통계량과 추정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t$ -통계량 값이  
유의수준 0.05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오차에 대한 정규성 검정 결  
과 또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추정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89) 김미곤 외. 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1-1〉 모수의 추정치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rob> t
$\alpha$	2.306	0.0193	119.361	0.00001
$\beta_1$	0.517	0.0096	53.725	0.0001
$\beta_2$	0.297	0.0064	64.986	0.0001
Prob>F	0.0001		Adj- $R^2$	0.5105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앞서 가정한 모형의 정의에 의거하여 가구균등화 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M_j &= \frac{j\text{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 추정치 } (C_j)}{\text{표준가구(4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 추정치 } (C_4)} \\
 &= \left(\frac{j}{4}\right)^{\beta_1} \left(\frac{j\text{인 가구 평균소득}}{4\text{인 가구 평균소득}}\right)^{\beta_2} \\
 &= \left(\frac{j}{4}\right)^{0.517} \left(\frac{j\text{인 가구 평균소득}}{4\text{인 가구 평균소득}}\right)^{0.297}
 \end{aligned}$$

여기서  $\beta_1(=0.517)$ 은 가구규모 변화율에 대한 지출수준의 변화율이며,  $\beta_2(=0.297)$ 은 소득변화율에 대한 지출수준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각종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규모 이외의 모든 설명변수를 가구규모와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유추하였으나, 이는 가구규모에 따르는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1999년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 지수의 산출에서 가구규모 뿐만 아니라 각 가구별 평균소득을 적용하여 가구규모 변화율과 가구규모별 소득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6-1-2〉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

모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90)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균등화 지수를 추정한 후 지구의 안정성, 규모의 경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하였다.

- ☐ 추정모형 I : 1988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
- ☐ 추정모형 II : 1999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
- ☐ 추정모형 III : 외부연구자에 의뢰한 추정모형

2004년 연구에서는 3가지의 가구균등화지수 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지수 값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모형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 연구에서는 지수 값의 안정성, 규모의 경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모형으로 모형 I을 동 연구의 가구균등화지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6-1-3〉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지수 추정 결과 종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모형 I	지수	0.376208	0.613358	0.816382	1	1.170418	1.331004	1.48385
	차이		0.23715	0.203024	0.183618	0.170418	0.160586	0.152846
모형 II	지수	0.390741	0.626563	0.832121	1	1.116811	1.224105	1.236509
	차이		0.235822	0.205558	0.167879	0.116811	0.107294	0.012404
모형 III	지수1)	0.405515	0.655312	0.88159	1	1.18532	1.234388	1.417275
	차이		0.249797	0.226277	0.11841	0.18532	0.049067	0.182887

주: 1) 김진욱 교수의 연구결과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전환한 지수이다.  
 자료: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서 연구진은 위 <표 6-1-3> 중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하여 모형 I을 제안하였으나, 1, 2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높아지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대신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 수준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기로 결정(’04.12.1)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래 <표 6-1-4>와 같은 가구균등화지수가 채택되었다.

90) 김미곤 외. 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1-4〉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OECD기준)
1인가구	0.3533	0.3574	0.3616	0.3658	0.3700
2인가구	0.5883	0.5988	0.6092	0.6196	0.6300
3인가구	0.7990	0.8030	0.8070	0.8110	0.8150
4인가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인가구	1.1466	1.1562	1.1658	1.1754	1.1850
6인가구	1.3005	1.3178	1.3352	1.3526	1.3700

자료: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는 특히 5~6인 가구 규모의 경제 반영이 미흡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 가구균등화지수는 2007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1차조사)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기로 의결('06.5.1 제2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하였다.

#### 사.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 연구의 가구균등화지수<sup>91)</sup>

2004년부터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 균등화지수는 5~6인 가구 규모의 경제 반영이 미흡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시 재산정하여 논의기로 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2007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역시 기존 연구의 바탕위에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반영하여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과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을 준용하여 산출되었다. 각각의 모형에 대해 전체 가구와 하위 4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추정모형 I : 1988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전가구)
- ☐ 추정모형 II : 1988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하위 40% 미만)
- ☐ 추정모형 III : 1999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전가구)
- ☐ 추정모형 IV : 1999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의 추정모형(하위 40% 미만)

91) 여유진·김미곤 외. 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5〉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결과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07년 균등화지수 <sup>1)</sup>	지수	0.3616	0.6092	0.807	1	1.1658	1.3352	
	편차		0.2476	0.1978	0.193	0.1658	0.1694	
모형 I	지수	0.26534	0.51512	0.75933	1	1.23807	1.47409	1.70842
	편차		0.24978	0.24421	0.24067	0.23807	0.23602	0.23433
모형 II	지수	0.38136	0.61754	0.81869	1	1.16786	1.32572	1.47573
	편차		0.23618	0.20115	0.18131	0.16786	0.15786	0.15001
모형 III	지수	0.28759	0.4995	0.76371	1	1.13032	1.23451	1.56123
	편차		0.21191	0.26421	0.23629	0.13032	0.10419	0.32672
모형 IV	지수	0.40761	0.6372	0.84769	1	1.12618	1.19516	1.34472
	편차		0.22959	0.21049	0.15231	0.12618	0.06898	0.14956

주: 1) 2007년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균등화지수이다.

자료: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두 개의 안—위 표에서 모형II안과 2007년 행정 적용균등화지수(OECD 기준에 의한 조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재산출안의 경우 현실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모형의 신뢰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2004년의 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08년 가구균등화지수로 OECD 기준에 의한 조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1-6〉 2007년 및 2008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7년 균등화지수	0.3616	0.6092	0.807	1	1.1658	1.3352
2008년 균등화지수	0.3658	0.6196	0.8110	1	1.1754	1.3526

자료: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 연구의 가구균등화지수

##### 가. 가구균등화지수 산정의 원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계층연도마다 연구진이 추정한 가구균등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해 나가서 2009년부터는 완전한 OECD 균등화지수가 적용되고 있다<sup>92)</sup>.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에서도 기초조사 결과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1안)와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2안), 두 개의 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7.8.22 제2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정성과 일관성 등을 이유로 2안을 채택하여 적용키로 함으로써 2010년 현재까지 OECD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OECD 균등화지수는 3인 이상가구에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OECD 균등화지수는 표준적인 국가 간 비교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별 국가의 생활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가구균등화지수 산정 방식을 검토한 후,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과 모형의 합리성 등을 근거로 2007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모형<sup>93)</sup>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였다.

- ☐ 추정모형 I : 88년 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
- ☐ 추정모형 II : 88년 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가구대상 추정모형
- ☐ 추정모형 III : 99년 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
- ☐ 추정모형 IV : 99년 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가구대상 추정모형

92)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4년도 최저생계비 심의시 가구균등화지수는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 수준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결정하였다(2004.12.1)

93) 2004년과 2007년에는 확장된 선형지출모형 등이 추가로 분석되었으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수 산출 결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압축을 위해 네 가지 모형만을 제시하였다.

가구균등화지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본원에서 실시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2009)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09)이며, 주거비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월세액을 포함한 가구균등화지수와 제외한 가구균등화지수를 모두 제시한다.

나. 가구균등화지수 산정

(1)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88년 추정모형은 가구지출승수모형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통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형

- $E = A \cdot X^b$
- $\ln(E) = \ln(A) + b\ln(Fs)$

(E : 가계지출, Fs: 가구원수)

– 모형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M_j = \frac{j\text{인 가구의 소비지출액 추정치}(C_j)}{\text{표준가구(4인가구)의 소비지출액 추정치}(C_4)} = \left(\frac{j}{4}\right)^b$$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1988년 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 추정치와 p값은 아래 <표 6-1-7> 과 같으며, 이 값을 투입하여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는 <표 6-1-8>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7〉 추정모형 I (1988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r >  t
기초조사	월세 포함	$\alpha$	4.502291	0.02452	183.62	<.0001
		$\beta$	0.965718	0.020404	47.33	<.0001
		Pr>F	<.0001		Adj - $R^2$	0.4924
	월세 제외	$\alpha$	4.44237	0.023253	191.04	<.0001
		$\beta$	1.001534	0.019422	51.57	<.0001
		Pr>F	<.0001		Adj - $R^2$	0.5032
가계조사	월세 포함	$\alpha$	13.5841106	0.00772463	1758.54	<.0001
		$\beta$	0.8993746	0.00647531	138.89	<.0001
		Pr>F	<.0001		Adj - $R^2$	0.3729
	월세 제외	$\alpha$	13.51917	0.00809754	1669.54	<.0001
		$\beta$	0.938329	0.00677472	138.5	<.0001
		Pr>F	<.0001		Adj - $R^2$	0.379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기초조사) 원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6-1-8〉 추정모형 I (1988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조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26217	0.51203	0.75744	1	1.24047	1.47928	1.71673
		차이	-	0.24986	0.24541	0.24256	0.24047	0.23881	0.23745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24947	0.49947	0.74967	1	1.25043	1.50093	1.7515
		차이	-	0.25	0.2502	0.25033	0.25043	0.2505	0.25057
가계조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28757	0.53626	0.77211	1	1.22214	1.43981	1.65383
		차이	-	0.24869	0.23585	0.22789	0.22214	0.21767	0.21402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27232	0.52185	0.76343	1	1.23291	1.46294	1.69061
		차이	-	0.24953	0.24158	0.23657	0.23291	0.23003	0.22767

다음으로 소득 하위 4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1988년 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 추정치와 p값은 아래 <표 6-1-9> 와 같다. 이렇게 추정된 회귀모형에 가구원수를 투입하여 얻은 가구균등화지수는 <표 6-1-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9〉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 하위40%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r >  t
기초 조사	월세 포함	$\alpha$	4.3341469	0.0192652	224.97	<.0001
		$\beta$	0.6895589	0.0204795	33.67	<.0001
		Pr>F	<.0001		Adj - $R^2$	0.3519
	월세 제외	$\alpha$	4.268756	0.017523	243.61	<.0001
		$\beta$	0.724533	0.019492	37.17	<.0001
		Pr>F	<.0001		Adj - $R^2$	0.3721
가계 조사	월세 포함	$\alpha$	13.3638131	0.00811914	1645.97	<.0001
		$\beta$	0.7000135	0.00847011	82.65	<.0001
		Pr>F	<.0001		Adj - $R^2$	0.27
	월세 제외	$\alpha$	13.28906	0.0085457	1555.06	<.0001
		$\beta$	0.734704	0.00893901	82.19	<.0001
		Pr>F	<.0001		Adj - $R^2$	0.275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6-1-10〉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 하위40%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 조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38443	0.62003	0.82005	1	1.16635	1.32261	1.47095
		차이	-	0.2356	0.20002	0.17995	0.16635	0.15626	0.14834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36628	0.60521	0.81186	1	1.17547	1.34146	1.49996
		차이	-	0.23893	0.20665	0.18814	0.17547	0.16599	0.1585
가계 조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36113	0.60094	0.80948	1	1.17815	1.34702	1.50855
		차이	-	0.23981	0.20854	0.19052	0.17815	0.16887	0.16153

## (2) 1999년 모형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1999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해 시도된 모형은 1988년 모형에 소득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것이다.

— 추정모형

$$\bullet \ln(\text{EXP}) = b_0 + b_1 \ln(\text{Fs}) + b_2 \ln(\text{Y})$$

(EXP : 가계지출, FS: 가구원수, Y: 소득)

— 모형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M_j = \frac{j\text{인가구의소비지출액추정치}(C_j)}{\text{표준가구(4인가구)의소비지출액추정치}(C_4)} = \left(\frac{j}{4}\right)^b$$

$$= \left(\frac{j}{4}\right)^{b_1} \times \left(\frac{j\text{인가구의평균소득}}{4\text{인가구평균소득}}\right)^{b_2}$$

전가구를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추정량과 p값은 아래 <표 6-1-11>과 같다. 또한, 이렇게 추정된 모형에 가구원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6-1-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11>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r >  t
실태조사	월세 포함	$\alpha$	0.448876	0.00984655	45.59	<.0001
		$\beta$	<.0001		Adj- $R^2$	0.5903
		Pr>F	0.063	0.147187	0.43	0.6697
	월세 제외	$\alpha$	0.341	0.022768	14.98	<.0001
		$\beta$	0.631	0.020373	30.97	<.0001
		Pr>F	0.0001		Adj- $R^2$	0.8111
가계조사	월세 포함	$\alpha$	7.57679756	0.13280539	57.05	<.0001
		$\beta$	0.46481901	0.00992053	46.85	<.0001
		Pr>F	0.44098816	0.00959954	45.94	<.0001
	월세 제외	$\alpha$	<.0001		Adj- $R^2$	0.5904
		$\beta$	7.404965	0.13630691	54.33	<.0001
		Pr>F	0.495593	0.0102188	48.5	<.0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조조사) 원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6-1-12〉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 전가구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조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2773	0.50026	0.76112	1	1.10428	1.18284	1.33957
		차이	-	0.22296	0.26086	0.23888	0.10428	0.07856	0.15673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26408	0.48784	0.75337	1	1.11134	1.19641	1.36197
		차이	-	0.22376	0.26553	0.24663	0.11134	0.08507	0.16556
가계조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31757	0.57197	0.81382	1	1.1424	1.28463	1.35254
		차이	-	0.2544	0.24185	0.18618	0.1424	0.14223	0.06791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30157	0.55752	0.80559	1	1.15088	1.30222	1.37709
		차이	-	0.25595	0.24807	0.19441	0.15088	0.15134	0.07487

마지막으로, 소득 하위 40% 미만 가구만을 대상으로 1999년 모형을 추정한 결과의 추정량과 p값은 아래 <표 6-1-13>에 제시되어 있으며, 추정량을 바탕으로 산정된 가구규모별 균등화지수는 <표 6-1-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13〉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 하위40%대상)에 대한 추정결과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r >  t
실태조사	월세 포함	$\alpha$	0.216691	0.0116438	18.61	<.0001
		$\beta$	<.0001		Adj R-Sq	0.3448
		Pr>F	1.170949	0.378595	3.09	0.0021
	월세 제외	$\alpha$	0.458339	0.040607	11.29	<.0001
		$\beta$	0.463062	0.055129	8.4	<.0001
		Pr>F	<.0001		Adj R-Sq	0.549
가계조사	월세 포함	$\alpha$	10.3906088	0.15634856	66.46	<.0001
		$\beta$	0.5835718	0.00999901	58.36	<.0001
		Pr>F	0.223141	0.01161369	19.21	<.0001
	월세 제외	$\alpha$	<.0001		Adj R-Sq	0.3493
		$\beta$	10.40282	0.15698285	66.27	<.0001
		Pr>F	0.620458	0.01028837	60.31	<.0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6-1-14〉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 하위40%대상)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조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40836	0.64737	0.85569	1	1.10004	1.18355	1.36004
		차이	-	0.23901	0.20832	0.14431	0.10004	0.08351	0.17649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3886	0.63144	0.84668	1	1.10938	1.20194	1.38827
		차이	-	0.24284	0.21524	0.15332	0.10938	0.09256	0.18633
가계조사	월세 포함	균등화지수	0.34529	0.59205	0.81508	1	1.15616	1.30735	1.41592
		차이	-	0.24676	0.22303	0.18492	0.15616	0.15119	0.10857
	월세 제외	균등화지수	0.37463	0.61379	0.82662	1	1.1519	1.29332	1.44497
		차이	-	0.23916	0.21283	0.17338	0.1519	0.14142	0.15165

#### 다. 가구균등화지수 비교

1988년 모형과 1999년 모형에 의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자료(「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라, 분석대상(전체 가구와 소득 40% 미만 가구)에 따라, 그리고 월세 포함 여부에 따라 상이한 추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산출된 16개의 가구균등화지수 중 본 연구의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층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응성, 현실성, 합리성, 규모일관성(안정성), 자료 일관성, 자료 신뢰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최적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대응성이란 가구균등화지수 산출에 사용된 자료에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비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성이란 기존 최저생계비의 가구균등화지수, 즉 OECD기준 가구균등화지수와 비교해서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직접적인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존의 가구균등화지수와 큰 차이가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합리성이란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가 가구의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가구균등화 지수의 증가폭은 감소하여야 한다. 규모일관성(안정성)이란 합리성의 연장선상에서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 규모에 따라 일관되게 감소(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일관성이란 가구균등화지수는 사

용 자료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신뢰성이란 사용된 자료가 공신력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제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대응성 측면에서 보면 최저생계비에는 특히 임대료를 포함한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구균등화지수 산정을 위해 활용된 지출 자료에도 임대료(월세)를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위에서 산정된 가구균등화지수 중 월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월세를 포함하여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 중 모형 I(1988년 모형: 전가구 대상)에 의해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는 무엇보다도 규모의 경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4인 미만 가구는 너무 낮고 4인 이상 가구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가구 규모 간의 차이가 0.24~0.23으로 거의 비슷하여, 1, 2인 가구의 균등화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성, 합리성이 낮은 모형으로 평가되며, 다만 안정성 측면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모형 II(1988년 모형 소득: 하위 40% 대상)에 의해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감소폭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료간 안정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모형 II에 의해 추정된 가구균등화지수는 현실성, 합리성, 안정성 등 대부분의 기준에서 높게 평가된다.

모형 III(1999년 모형: 전가구 대상)에 의해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는 지수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규모 간 편차의 증감이 일정치 못하여 합리성,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모일관성과 자료일관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모형 IV(1999년 모형: 하위 40% 대상)에 의해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는 모형 I과 반대로 4인 미만 가구의 지수가 높은 반면, 4인 이상 가구의 지수가 너무 낮게 산정되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며, 특히 5, 6, 7인 가구 간 증감폭이 불안정하여 규모일관성 측면에서도 낮게 평가된다. 또한, 자료일관성도 낮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실성, 합리성, 안정성 측면에서 모형 II(1988년 모형: 하위 40% 대상)가 가장 타당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6-1-15〉 가구균등화지수 비교(월세 포함 모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0년 적용 균등화지수	지수	0.370	0.630	0.815	1	1.185	1.37	
		편차		0.26	0.185	0.185	0.185	0.185	
모형 I	기초조사	지수	0.26217	0.51203	0.75744	1	1.24047	1.47928	1.71673
		차이	-	0.24986	0.24541	0.24256	0.24047	0.23881	0.23745
	가계조사	지수	0.28757	0.53626	0.77211	1	1.22214	1.43981	1.65383
		차이	-	0.24869	0.23585	0.22789	0.22214	0.21767	0.21402
모형 II	기초조사	지수	0.38443	0.62003	0.82005	1	1.16635	1.32261	1.47095
		차이	-	0.2356	0.20002	0.17995	0.16635	0.15626	0.14834
	가계조사	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모형 III	기초조사	지수	0.2773	0.50026	0.76112	1	1.10428	1.18284	1.33957
		차이	-	0.22296	0.26086	0.23888	0.10428	0.07856	0.15673
	가계조사	지수	0.31757	0.57197	0.81382	1	1.1424	1.28463	1.35254
		차이	-	0.2544	0.24185	0.18618	0.1424	0.14223	0.06791
모형 IV	기초조사	지수	0.40836	0.64737	0.85569	1	1.10004	1.18355	1.36004
		차이	-	0.23901	0.20832	0.14431	0.10004	0.08351	0.17649
	가계조사	지수	0.34529	0.59205	0.81508	1	1.15616	1.30735	1.41592
		차이	-	0.24676	0.22303	0.18492	0.15616	0.15119	0.10857

## 라.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모형 II의 두 가지 결과(「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중에서도, 분석결과가 수집과정이 좀 더 정교하고(가계부기장), 통상적인 신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추정한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sup>94)</sup>. 지금까지의 가구균등화지수 추정결과와 비교 결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사용하여 모형 II(1988년 모형: 하위 40% 대상)로 추정된 가구균등화지수를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

94) 단, 「가계동향조사」는 농어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표성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로 추정된 가구균등화지수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진안)로 선정하였다.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16〉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균등화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 제2절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가구균등화지수의 산출 목적은 앞서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된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가구 규모별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1절에서 결정된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를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에 곱하면 가구규모별·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은 아래 <표 6-2-1>에 제시되어 있다. 중소도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17,980원으로 계측되었다. 여기에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했을 때,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7,315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72,866원,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159,340원 등으로 산출된다.

연구진안 균등화지수 대신 현재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해 본 결과는 <표 6-2-1>과 같다. 두 결과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연구진안의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최저생계비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OECD 기준안의 경우 2, 3인 가구에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최저생계비 격차가 줄어들다가 4인 가구 이후부터는 동일해진다는 점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 기준 균등화지수를 적용할 경우 4인부터는 가구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안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5인 가구 이후부터는 OECD 기준 최저생계비안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소

비지출 현황과 가구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균등화지수를 개발하여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6-2-1〉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균등화지수	0.3789	0.6156	0.8176	1.0000	1.1691	1.3282	1.4795
대도시	최저생계비	571,439	928,300	1,232,968	1,508,033	1,762,981	2,002,969
	차이		356,861	304,668	275,065	254,948	239,988
중소도시	최저생계비	537,315	872,866	1,159,340	1,417,980	1,657,704	1,883,361
	차이		335,551	286,474	258,640	239,724	225,657
농어촌	최저생계비	490,125	796,206	1,057,521	1,293,445	1,512,115	1,717,954
	차이		306,081	261,315	235,924	218,670	205,839

〈표 6-2-2〉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OECD 기준 균등화지수 적용안)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0.37000	0.61754	0.81500	1.00000	1.18500	1.37000
대도시	최저생계비	557,972	931,271	1,229,047	1,508,033	1,787,019
	차이		373,298	297,776	278,986	278,986
중소도시	최저생계비	524,653	875,659	1,155,654	1,417,980	1,680,306
	차이		351,007	279,994	262,326	262,326
농어촌	최저생계비	478,575	798,754	1,054,158	1,293,445	1,532,732
	차이		320,179	255,404	239,287	239,287



## 제7장 2010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 제1 절 장애인 추가비용

#### 1.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개념

##### 가.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개념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추가비용의 개념

장애인 추가비용이란 비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보장구비, 보호·간병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든다.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손상(impairment)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등의 비용,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function)을 위한 보호·간병비 및 보장구비 등의 비용, 그리고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participation)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교육비 등의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장애인가구의 실태

### 가. 장애인구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59%인 약 215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장애인 가구는 194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장애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로 추정되었다.

2003년 7월 이후 등록장애의 유형은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어 장애인구와 장애인 등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수만 해도 이미 242만 8천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9년에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의 결과 장애인<sup>95)</sup>가구의 비율을 보면, 조사가구는 총 19,172가구이며, 그 중 장애인가구는 2,339가구로 12.2%이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표 7-1-1〉 장애인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단위: 가구, 명, %)

	가구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	2,339	12.2	2,445	4.5
비장애	16,833	87.8	51,812	95.5
합계	19,172	100.0	54,257	1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sup>96)</sup>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3.4%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 9.7%, 시각장애 9.3%, 뇌병변장애 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면장애가 0.2%로 가장 적었다.

95) 여기에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등록장애인도 포함한다.

96) 가구 내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는 176 가구였으며, 이 경우 가구의 장애종류는 사례 수가 적은 장애종류를 해당 가구의 장애종류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지체장애인 1명과 정신장애인 1명이 있는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는 정신장애로 분류하였다.

〈표 7-1-2〉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단위: 가구, %)		
	빈도	비율
지체장애	1249	53.4
뇌병변장애	194	8.3
시각장애	218	9.3
청각장애	227	9.7
언어장애	18	0.8
지적장애	105	4.5
정신장애	71	3.1
자폐성장애	15	0.7
신장장애	62	2.7
심장장애	21	0.9
호흡기장애	12	0.5
간장애	7	0.3
안면장애	4	0.2
장루·요루장애	18	0.8
간질장애	14	0.6
비등록장애	101	4.3
합계	2339	1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기초조사) 원자료.

한편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구원 수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2.77명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84명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7-1-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단위: 가구)					
	장애유무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총 가구원 수	장애인가구	2,339	2.77	1.35	-2.294*
	비장애인가구	16,833	2.84	1.33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기초조사) 원자료.

## 나. 가구소득, 부채, 재산 및 생활비

### 1) 가구소득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형 별 소득을 비교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에서는

장애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1,603.3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742.2만원의 58.5%에 불과하였다. 사업 및 부업소득에서도 장애인가구는 298.6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759.5만원의 39.3%로 근로소득의 비율보다 더 낮았다.

반면에 사적이전소득에서는 장애인가구가 288.5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11.7만원보다 1.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험, 기초보장급여 및 기타 정부보조금의 공적이전소득에서는 장애인가구가 400.4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64.0만원보다 2.4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을 비교해보면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은 2,734.1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4,026.8만원의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도 2,530.5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3,672.7만원의 68.9%에 불과하였다.

〈표 7-1-4〉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형별 연소득

(단위: 가구, 만원/년)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근로소득	장애인가구	2,337	1,603.3	2,345.4	-20.533***
	비장애인가구	16,828	2,742.2	3,487.3	
사업 및 부업소득	장애인가구	2,337	298.6	9,675.9	-2.290*
	비장애인가구	16,828	759.5	2,658.8	
재산소득	장애인가구	2,337	143.2	626.5	-0.376
	비장애인가구	16,828	149.2	737.6	
사적이전소득	장애인가구	2,337	288.5	463.3	7.591***
	비장애인가구	16,828	211.7	418.7	
공적이전소득	장애인가구	2,337	400.4	553.6	19.868***
	비장애인가구	16,828	164.0	418.2	
경상소득	장애인가구	2,337	2,734.1	9,966.1	-6.196***
	비장애인가구	16,828	4,026.8	4,140.5	
가처분소득	장애인가구	2,337	2,530.5	9,897.9	-5.527***
	비장애인가구	16,828	3,672.7	3,619.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 2) 부채

부채에서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 돈), 외상(미리 탄 계돈), 그리고 기타 부채를 비교하였다. 먼저 금융기관대출은 장애인가구가 1,643.1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071.4만원보다 적었다. 반면에 일반사채는 장애인가구가 103.8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66.5만원보다 많았다. 따라서 장애인가구는 이자에서 유리한 금융기관대출은 비장애인가구보다 더 많은 반면에 이자에서 불리한 일반사채는 비장애인가구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드빚, 전세보증금, 그리고 기타 부채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에 외상은 장애인가구가 0.6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7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부채

(단위: 가구, 만원)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금융기관대출	장애인가구	2,336	1,643.1	5,110.4	-3.621***
	비장애인가구	16,819	2,071.4	6,876.5	
일반사채	장애인가구	2,338	103.8	838.5	1.994*
	비장애인가구	16,833	66.5	902.2	
카드빚	장애인가구	2,338	39.2	358.6	-0.848
	비장애인가구	16,830	59.9	1,172.1	
전세 보증금 받은 돈	장애인가구	2,338	1,180.6	5,754.7	-0.473
	비장애인가구	16,826	1,250.7	6,842.8	
외상	장애인가구	2,338	0.6	13.4	-2.333*
	비장애인가구	16,833	1.7	48.6	
기타 부채	장애인가구	2,338	77.2	521.5	-0.187
	비장애인가구	16,832	80.4	804.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 3) 재산

다음으로 재산에서는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 재산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유부동산에 대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는 차이가 없었다. 장애인가구의 소유부동산 가격은 7,553.6만원, 비장애인가구는 8,383.8만원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점유부동산의 가격도 장애인가구는 795.9만원, 비장애인가구는 803.8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금융자산의 경우, 장애인가구는 2,387.8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3,404.7만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재산

(단위: 가구, 만원)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소유부동산	장애인가구	2,338	7,553.6	37,705.6	-0.359
	비장애인가구	16,833	8,383.8	110,889.7	
점유부동산	장애인가구	2,338	795.9	14,628.9	-0.038
	비장애인가구	16,828	803.8	8,607.2	
금융자산	장애인가구	2,338	2,387.8	6,901.3	-5.923***
	비장애인가구	16,832	3,404.7	12,375.5	
농기계	장애인가구	2,338	42.9	402.6	1.070
	비장애인가구	16,833	33.2	412.3	
농축산물	장애인가구	2,338	132.6	1,565.1	1.319
	비장애인가구	16,833	87.3	1,488.9	
자동차	장애인가구	2,338	401.3	760.0	-5.447***
	비장애인가구	16,833	494.5	881.6	
기타 재산	장애인가구	2,338	184.1	1,211.5	-2.952**
	비장애인가구	16,831	275.9	2,385.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한편 농기계 가격은 장애인가구가 42.9만원, 비장애인가구가 33.2만원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축산물의 가격에서도 장애인가구는 132.6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87.3만원에 비해 더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반면에 자동차 가격은 장애인가구가 401.3만원이었던 반면 비장애인가구는 494.5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가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산에서도 장애인가구는 184.1만원, 비장애인가구는 275.9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가 더 높았다.

#### 4) 생활비

먼저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월 생활비를 비교하였다. 그 중 식료품 가정식은 장애인가구가 월 평균 36.2만원을 지출하여 비장애인가구의 38.0만원보다 1.8만원 적게 지출하였다. 또한 식료품 외식비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격차가 더욱 컸는데, 장애인가구는 월 평균 15.7만원에 불과하여 비장애인가구의 24.3만원에 비해 8.6만원 적게 지출하였다.

주거비 중 월세는 장애인가구가 월 평균 3.5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4.4만원에 비해 0.9만원 적었으며, 관리비도 5.4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6.1만원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광열수도비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생활비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적지 않은 항목 중 하나이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장애인가구가 5.9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7.6만원에 비해 낮았으며, 피복신발비도 장애인가구가 6.1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9.0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의료비에서는 장애인가구가 월 19.4만원을 지출하여 월 13.4만원을 지출한 비장애인가구보다 6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족했던 보건의료비에서도 장애인가구는 4.1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1만원보다 2.0만원 더 많았다. 따라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건의료비도 더 많지만,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보건의료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7〉 최저생계비 항목별 장애가구와 비장애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교

(단위: 가구, 만원/월)

	장애유무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식료품 가정식비	장애인가구	2,338	36.2	18.9	-4.432***
	비장애인가구	16,833	38.0	18.9	
식료품 외식비	장애인가구	2,338	15.7	16.9	-22.476***
	비장애인가구	16,833	24.3	19.5	
주거 월세	장애인가구	2,338	3.5	10.5	-3.706***
	비장애인가구	16,833	4.4	11.2	
주거 관리비	장애인가구	2,338	5.4	15.0	-2.090*
	비장애인가구	16,833	6.1	13.8	
광열수도비	장애인가구	2,338	11.9	5.6	-1.147
	비장애인가구	16,833	12.0	5.3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장애인가구	2,338	5.9	11.4	-6.611***
	비장애인가구	16,833	7.6	14.0	
피복신발비	장애인가구	2,338	6.1	8.1	-15.618***
	비장애인가구	16,833	9.0	10.6	
보건의료비	장애인가구	2,338	19.4	29.5	9.484***
	비장애인가구	16,833	13.4	20.5	
공교육비	장애인가구	2,338	8.2	25.8	-7.026***
	비장애인가구	16,833	12.4	33.7	
사교육비	장애인가구	2,338	7.1	21.6	-17.558***
	비장애인가구	16,833	16.1	32.8	
교양오락비	장애인가구	2,338	6.0	20.5	-7.008***
	비장애인가구	16,833	9.1	16.1	
교통통신비	장애인가구	2,338	33.1	42.4	-10.723***
	비장애인가구	16,833	43.5	52.4	
기타소비지출	장애인가구	2,338	38.3	39.3	-13.006***
	비장애인가구	16,833	49.7	41.7	
사적이전 (비동거가구원)	장애인가구	2,338	2.8	18.3	-1.996*
	비장애인가구	16,833	3.6	20.2	
사적이전 기타(부모)	장애인가구	2,338	2.5	8.8	-20.609***
	비장애인가구	16,833	7.0	16.1	
사적이전 기타(자녀)	장애인가구	2,338	2.2	15.9	1.511
	비장애인가구	16,833	1.6	11.2	
사적이전 기타(기타)	장애인가구	2,338	1.1	7.6	-.282
	비장애인가구	16,833	1.2	8.2	
세금	장애인가구	2,338	7.8	24.5	-8.024***
	비장애인가구	16,833	13.6	68.1	
사회보장분담금	장애인가구	2,338	9.4	13.1	-22.107***
	비장애인가구	16,833	15.9	15.7	
총생활비	장애인가구	2,338	222.4	181.0	-16.085***
	비장애인가구	16,833	288.4	217.9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월 평균 8.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2.4만원에 비해 4.2만원 더 적었으며, 사교육비에서는 장애인가구가 7.1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6.1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양 오락비의 경우도 장애인가구가 월 6.0만원을 지출한 반면, 비장애인가구는 월 9.1만원으로 3.1만 더 많이 지출하였다. 교통통신비도 장애인가구는 월 평균 33.1만원을 지출하여 비장애인가구의 43.5만원에 비해 10.4만원 적게 지출하였다.

한편 비동거가구원에 대한 사적이전은 장애인가구가 2.8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3.6만원보다 약간 더 적었으며,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은 장애인가구가 2.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7.0만원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에 대한 사적이전과 기타 사적이전은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장애인가구의 월 총생활비는 222.4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88.4만원에 비해 66.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주거

주거에서는 주택 유형, 점유형태, 사용 방 수, 주택 면적(m<sup>2</sup>), 주택 현시가, 주택 월세를 비교하였다.

〈표 7-1-8〉 장애유무와 주거 유형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단독주택	6,346	1,097	7,443
	37.7%	46.9%	38.8%
아파트	7,961	896	8,857
	47.3%	38.3%	46.2%
연립 및 다세대주택	2,304	312	2,616
	13.7%	13.3%	13.6%
기타(영업용 건물내 거주, 오피스텔 등)	221	34	255
	1.3%	1.5%	1.3%
전체	16,832	2,339	19,171
	100.0%	100.0%	100.0%

주:  $\chi^2 = 81.168$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먼저 주택 유형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인가구 중에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46.9%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에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37.7%로 장애인가구가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아파트의 비율에서는 장애인가구는 38.3%로 비장애인가구 중 아파트의 비율은 47.3%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의 점유형태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전세의 비율이다. 장애인가구는 15.7%가 전세인 반면 비장애인가구는 20.8%가 전세였다. 따라서 반면에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보다 자가의 비율, 보증부 월세의 비율, 월세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장애인무와 주거 점유형태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자가	9,309	1,349	10,658
	55.3%	57.7%	55.6%
전세	3,503	368	3,871
	20.8%	15.7%	20.2%
보증부 월세	2,642	387	3,029
	15.7%	16.5%	15.8%
월세	345	71	416
	2.0%	3.0%	2.2%
기타	1,034	164	1,198
	6.1%	7.0%	6.2%
전체	16,833	2,339	19,172
	100.0%	100.0%	100.0%

주:  $\chi^2 = 40.917$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사용 방 수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2.63개로 비장애인가구의 2.64개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주택면적에서도 장애인가구가 75.8m<sup>2</sup>, 비장애인가구가 78.6m<sup>2</sup>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에 주택 현시가에서는 장애인가구는 10,175.6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2,398.8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월세에서도 장애인가구가 3.4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4.4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0〉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방수, 건평, 주택가격, 월세액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방수	장애인가구	2,339	2.63	0.78	-0.619
	비장애인가구	16,833	2.64	0.78	
주택면적(m <sup>2</sup> )	장애인가구	2,339	75.8	37.2	-1.890
	비장애인가구	16,833	78.6	68.8	
주택 현시가 (만원)	장애인가구	2,339	10,175.6	17,040.5	-5.786***
	비장애인가구	16,833	12,398.8	19,873.8	
주택 월세(만원)	장애인가구	2,339	3.4	10.5	-4.108***
	비장애인가구	16,833	4.4	11.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기초조사) 원자료.

## 라. 생활여건

생활여건에서는 유선방송, 청소기, 디지털카메라·캠코더, 가습기, 전기장판 및 휴대폰의 보유현황, 필요유무에 대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비교하였다. 보유현황의 응답 범주는 ‘① 갖고 있다’, ‘② 가지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③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유무의 응답 범주는 ‘① 꼭 필요하다(필수품이다)’, ‘② 있으면 좋다(필수품은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다.

〈표 7-1-11〉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보유현황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갖고 있다	14,658	2,076	16,734
	87.1%	88.8%	87.3%
가지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331	69	400
	2.0%	2.9%	2.1%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1,842	194	2,036
	10.9%	8.3%	10.6%
전체	16,831	2,339	19,170
	100.0%	100.0%	100.0%

주:  $\chi^2 = 23.749$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기초조사) 원자료.

먼저 유선방송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의 88.8%, 비장애인가구의 87.1%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지고 싶지만 못 갖고 있는 가구도 장애인가구는 2.9%로 비장애인가구의 2.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선방송 보유현황의 차이는 유선방송 필요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장애인가구 중 72.5%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68.1%로 장애인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7-1-12〉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필요유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11,452	1,692	13,144
	68.1%	72.5%	68.6%
있으면 좋다	5,372	643	6,015
	31.9%	27.5%	31.4%
전체	16,824	2,335	19,159
	100.0%	100.0%	100.0%

주:  $\chi^2 = 18.373$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반면에 청소기 보유현황을 보면, ‘갖고 있다’는 응답이 장애인가구는 70.3%로 비장애인가구의 78.2%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가지고 싶지만 못 갖고 있다는 응답은 장애인가구가 6.8%로 비장애인가구의 3.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7-1-13〉 장애유무와 청소기 보유현황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갖고 있다	13,162	1,644	14,806
	78.2%	70.3%	77.2%
가지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539	159	698
	3.2%	6.8%	3.6%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3,132	535	3,667
	18.6%	22.9%	19.1%
전체	16,833	2,338	19,171
	100.0%	100.0%	100.0%

주:  $\chi^2 = 109.130$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청소기의 필요유무에서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애인가구의 57.7%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장애인가구는 66.1%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7-1-14〉 장애유무와 청소기 필요유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11,119	1,348	12,467
	66.1%	57.7%	65.1%
있으면 좋다	5,708	989	6,697
	33.9%	42.3%	34.9%
전체	16,827	2,337	19,164
	100.0%	100.0%	100.0%

주:  $\chi^2 = 63.652$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디지털카메라·캠코더의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갖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장애인가구는 29.6%로 비장애인가구의 53.6%에 비해 24.0%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장애인가구는 63.3%, 비장애인가구는 41.2%로 장애인가구가 22.1% 포인트나 높아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생활유형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7-1-15〉 장애유무와 디지털카메라·캠코더 보유현황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갖고 있다	9,022	691	9,713
	53.6%	29.6%	50.7%
가지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878	166	1,044
	5.2%	7.1%	5.4%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6,932	1,481	8,413
	41.2%	63.3%	43.9%
전체	16,832	2,338	19,170
	100.0%	100.0%	100.0%

주:  $\chi^2 = 477.358$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디지털카메라·캠코더의 필요유무에서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중 디지털카메라·캠코더를 필수품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21.1%로 비장애인가구의 38.5%에 비해 17.4%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모두 필수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디지털카메라·캠코더를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 필수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7-1-16〉 장애인가구와 디지털카메라·캠코더 필요유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6,470	492	6,962
	38.5%	21.1%	36.3%
있으면 좋다	10,356	1,845	12,201
	61.5%	78.9%	63.7%
전체	16,826	2,337	19,163
	100.0%	100.0%	100.0%

주:  $\chi^2 = 268.572$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습기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의 17.7%, 비장애인가구의 30.2%가 가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지고 싶지만 못 갖고 있다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7-1-17〉 장애인가구와 가습기 보유현황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갖고 있다	5,083	413	5,496
	30.2%	17.7%	28.7%
가지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581	171	752
	3.5%	7.3%	3.9%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11,165	1,755	12,920
	66.3%	75.0%	67.4%
전체	16,829	2,339	19,168
	100.0%	100.0%	100.0%

주:  $\chi^2 = 213.672$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가습기의 필요유무에서도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보다 가습기가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11.7%, 비장애인가구의 16.8%가 가습기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습기도 디지털카메라·캠코더와 유사하게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보다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7-1-18〉 장애유무와 가습기 필요유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2,821	274	3,095
	16.8%	11.7%	16.2%
있으면 좋다	14,000	2,063	16,063
	83.2%	88.3%	83.8%
전체	16,821	2,337	19,158
	100.0%	100.0%	100.0%

주:  $\chi^2 = 38.576$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전기장판의 보유현황을 비교하였다. 장애인가구는 79.5%, 비장애인가구는 71.6%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또 가지고 싶지만 못 갖고 있다는 응답도 장애인가구는 2.8%, 비장애인가구는 1.9%로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7-1-19〉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보유현황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갖고 있다	12,057	1,859	13,916
	71.6%	79.5%	72.6%
가지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313	66	379
	1.9%	2.8%	2.0%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4,462	413	4,875
	26.5%	17.7%	25.4%
전체	16,832	2,338	19,170
	100.0%	100.0%	100.0%

주:  $\chi^2 = 90.346$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또한 전기장판 필요유무에서도 장애인가구는 70.7%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가구의 57.0%보다 13.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7-1-20〉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필요유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9,594	1,652	11,246
	57.0%	70.7%	58.7%
있으면 좋다	7,231	684	7,915
	43.0%	29.3%	41.3%
전체	16,825	2,336	19,161
	100.0%	100.0%	100.0%

주:  $\chi^2 = 158.723$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휴대폰 보유현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가구는 93.0%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가구의 95.2%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못 갖고 있는 장애인가구는 2.2%로 비장애인가구의 1.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7-1-21〉 장애유무와 휴대폰 보유현황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갖고 있다	16,008	2,176	18,184
	95.2%	93.0%	94.9%
가지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212	52	264
	1.3%	2.2%	1.4%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600	111	711
	3.6%	4.7%	3.7%
전체	16,820	2,339	19,159
	100.0%	100.0%	100.0%

주:  $\chi^2 = 22.489$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또한 휴대폰 필요유무에서도 장애인가구는 88.3%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비 장애인가구의 91.2%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7-1-22〉 장애인유무와 휴대폰 필요유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15,345	2,063	17,408
	91.2%	88.3%	90.9%
있으면 좋다	1,472	274	1,746
	8.8%	11.7%	9.1%
전체	16,817	2,337	19,154
	100.0%	100.0%	100.0%

주:  $\chi^2 = 158.723$ ,  $p = 0.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생활여건에 포함된 6개 품목 중에서 청소기, 디지털카메라·캠코더, 가습기, 그리고 휴대폰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고,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도 낮았다. 그러나 유선방송과 전기장판에서는 반대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보유 비율도 높고,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보다 낮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선방송과 전기장판은 장애인가구에서 그 필요성이 두드러진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주관적 최저생계비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였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이하 주관적 최저생계비Ⅰ), ‘1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이하 주관적 최저생계비Ⅱ), ‘1달 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이하 주관적 최저생계비Ⅲ)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관적 최저생계비Ⅰ을 보면, 장애인가구가 140만3천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60만1천원에 비해 19만8천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인 주관적 최저생계비Ⅱ도 장애인가구는 185만2천원으로 비장

장애인가구의 212만9천원에 비해 27만7천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달 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인 주관적 최저생계비<sup>3</sup>도 장애인가구는 247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283만6천원에 비해 37만6천원이 적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생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2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주관적 최저생계비Ⅰ	장애인가구	2338	146.9	99.5	-16.128***
	비장애인가구	16828	183.1	115.2	
주관적 최저생계비Ⅱ	장애인가구	2338	196.7	123.6	-17.403***
	비장애인가구	16829	245.2	143.4	
주관적 최저생계비Ⅲ	장애인가구	2338	264.9	161.2	-18.022***
	비장애인가구	16829	330.3	185.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 3. 장애인가구 추가비용 산출 방식

#### 가. 삶의 수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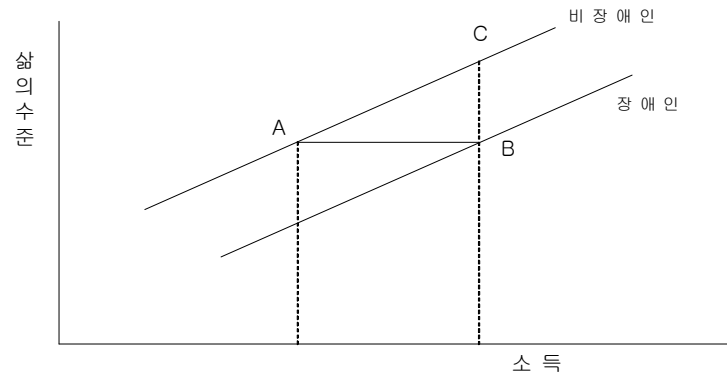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삶의 수준(standard of living) 방법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은 제한된 자원을 장애로 인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한 결과 동일한 소득 수준인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수준이 낮다고 가정한다. 이 방법은 Berthoud, Lakey and McKay(1993)가 제안한 것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일정하게 놓고, 그 삶의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출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추가적인 난방비용, 세탁비용, 교통비용 및 보장구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생활비를 추정한다.

삶의 수준은 전체 가구에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애인이 포함되어 욕구가 더 많은 가구에서는 동일한 소득으로 삶의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지면 욕구가 더 많은 가구라도 동일한 삶의 수준을 얻을 수 있다.

삶의 수준과 소득이 선형관계에 있다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과 소득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가구의 소득 B는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A와 동일한 삶의 수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B-A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된다.

그 식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S = \alpha Y + \beta D + \gamma X + \epsilon$$

단, S는 삶의 수준, Y는 가구소득, D는 장애여부, X는 가구구성 등의 다른 특성 변수들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E라고 하면, E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 = \beta/\alpha.$$

삶의 수준과 소득 및 장애여부, 주택소유여부, 연령, 성별 등의 그 외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또는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종속 변수는 가구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독립변수는 가구 소득, 장애여부이며, 그 외 소득과 삶의 수준의 관계에서 통제변수로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종속변수인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독립변수로 소득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득 이외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를 필요로 한다.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는 또 다른 주요 독립변수인 장애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 좋다. 장애가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비용을 충족시키고 삶의 수준을 위한 자원을 줄이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통해 파악된다. 따라서 다른 재화나 서비스보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선호도가 장애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출은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기능을 나타내는 척도일수록, 또한 그 척도가 구체적인 소비 형태에서 멀어져 있을수록 더 좋다.

삶의 수준 척도와 소득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높아야 하는데, 척도가 자원의 변화에 민감하게 된다. 음식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이는 최소의 음식은 필수품이기 때문이며,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비내구재는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Berthoud et al.(1993)은 7가지 소비내구재의 소유여부로 만든 복합척도 가계예산(저축능력을 포함)에 대한 5가지 질문이 상당히 좋은 척도라는 것을 알았다. 소비내구재에는 예를 들어 비디오, 세탁기, 식기세척기, CD 플레이어, 자동차, 마이크로웨이브, 휴대전화, 건조기, 컴퓨터, 냉장고, 중앙난방, 전화 등이 포함되었다.

가구예산에 대한 질문들 중에는 그 가구에 저축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소득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좋은 척도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으로 볼 때도 가처분 소득이 많은 가구가 더 많이 저축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추가 욕구는 저축에 대한 선호도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특히 만족스러운 척도이다(Zaidi and Burchardt, 2003).

Zaidi and Burchardt(2003)는 또한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면서 가구의 재정 상황을 자가 평가한 질문이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 문항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1 ‘안락하게 살고 있다’ 2 ‘괜찮다’ 3 ‘간신히 지낸다’ 4 ‘힘들게 지낸다’.

또한, 2007년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연구 및 이선우(2008)에서는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종속변수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생활여건 항목에 포함된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택, 의료, 가족 및 문화생활, 저축, 사회적지지, 교육 분야의 총 23개 항목의 복합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삶의 수준 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여러 방식 중 적절한 방식으로 삶의 수준을 측정하여, 삶의 수준 척도의 수준에 따라 연속변수이면 다중회귀분석을, 이항변수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앞에서 제시했던 식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 식을 근거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삶의 수준 방법은 이론적으로 단순하며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삶의 수준 방법은 어떤 영역에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가 발생하는지 구분해내기 매우 힘들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삶의 수준 방법은 회귀분석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장애종류별로 충분한 사례수를 필요로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장애종류별 추가생활비를 계산하기 어렵다.

#### 나. 추가비용계산방식

추가비용계산방식은 2000년, 2004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사용한 방법이다. 이 때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에, 장애인가구 필수품의 평균 비용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 포함시켰다. 추가비용계산방식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아래와 같다. 즉,

$$\text{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는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품목이지만 일반가구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따른 공통비목 추가비용, 그리고 장애인가구에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특수품목 추가비용이 있다. 즉, 장애인가구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는 일반가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비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추가비용계산방식에서는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 품목 중에서 장애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공통품목의 비용을 계산하였다. 추가 비용이 필요한 공통비목으로는 교통비, 휴대폰비, 의료비, 교육비 및 주거수리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에서만 필요한 특수비목으로는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보장구 구입유지비 등을 들 수 있다.

추가비용계산방식은 기존에 계측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이 방법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고려하면서 비장애인가구보다 적게 사용하는 항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실제보다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 다. 추가비용조정방식

추가비용조정방식은 장애인가구가 장애로 인해 추가 욕구를 갖고 있어서 일반가구에 비해 지출이 많은 품목이 있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일반가구에 비해 지출이 적은 품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방식이다. 따라서 추가비용조정방식에서는 장애인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 외에 일반가구보다 덜 지출하는 비용을 파악한다.

추가비용조정방식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가 지출이 적은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가구의 마켓 바스켓에 포함된 전체 항목에 대해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 간의 t-검증을 실시하여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더 적은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비용을 최저생계비에서 감액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추가비용조정방식에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text{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감소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이 방법의 장점은 실제로 장애인이 필요로 항목만을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반면에 추가비용조정방식은 장애인의 욕구와 무관한 소득, 접근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특정 품목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일반가구보다 적은 품목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그 품목에 대한 장애인가구의 욕구가 일반가구의 욕구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더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편의시설이나 제도를 기준으로 장애인들의 특정 품목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다면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현재의 불평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라. 소결

위에서 살펴 본 세 가지 장애인가구 추가비용 산출방식 중에서 먼저 삶의 수준 방식은 각 장애종류별 등급별 세부적인 추가비용 산출이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계측에서 필요한 현금급여기준선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추가비용계산 방식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고려하면서 비장애인가구보다 적게 사용하는 항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비용조정 방식은 공통비목 추가 또는 감소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실태 비교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차이가 발견될지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은 추가비용조정 방식으로 계측하되, 감소비용의 경우 실태 차이를 규범적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장애인 추가비용 산출

#### 가. 장애인 가구 선정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조사대상 장애인가구는 2007년 최저생계

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장애인가구 중 일반가구 소득의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를 선정하였다.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할 때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일반가구 소득의 40%였으나, 장애인가구는 가구소득이 일반가구보다 낮고 일반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불리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가구의 가구소득의 50% 선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인가구와 추가비용조사의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과 생활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상소득은 예상한 바와 같이 전체 장애인가구가 연 2,734.1만원으로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연 1,530.0만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총생활비에서도 전체 장애인가구는 월 222.4만원으로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월 132.2만원에 비해 훨씬 높았다.

〈표 7-1-24〉 기초조사와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생활비 비교

	기초조사			가구유형조사(장애인)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경상소득	2,734.1	9,966.1	2,337	1,530.0	874.4	675
총생활비	222.4	181.0	2,338	132.2	81.1	675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 원자료.

#### 나.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재범주화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층화하기 위하여 장애인가구를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별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가구를 15개 장애종류 및 6개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한다면 총 66개의 범주로 장애인가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범주가 이와 같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현실적으로 장애인 추가비용을 계층화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를 장애종류별 등급별로 재범주화 하되 가능한 한 범주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연구에서는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의 최종 범주였던 지체 중증(1-2급),



지체경증·안면장애, 뇌병변 중증(1-4급), 뇌병변경증, 시각 중증(1-2급), 시각경증, 청각언어 중증(1-2급), 청각언어 경증, 지적 장애(정신지체, 발달장애)<sup>97)</sup>, 정신장애 및 내부장애의 11개 장애범주<sup>98)</sup>를 사용하였다.

장애범주별로 전체 장애인가구와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체중증은 전체 장애인가구 중에서는 6.0%였으나 추가비용조사에서는 4.2%로 비율이 낮아졌으며, 지체경증도 50.0%에서 22.4%로 낮아졌다. 반면에 뇌병변중증은 8.0%에서 11.8%, 뇌병변경증은 0.7%에서 1.6%, 시각중증은 2.2%에서 5.1%, 시각경증은 7.5%에서 14.1%, 청각언어중증은 1.9%에서 2.7%, 청각언어경증은 9.0%에서 13.8%로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지적장애도 5.4%에서 8.8%, 정신장애는 3.2%에서 6.9%, 그리고 내부장애는 6.0%에서 8.7%로 비중이 높아졌다.

〈표 7-1-25〉 장애인가구의 장애범주별 분포

장애종류	전체		50% 이하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지체중증	133	6.0	27	4.2
지체경증	1,120	50.0	145	22.4
뇌병변중증	180	8.0	76	11.8
뇌병변경증	15	.7	10	1.6
시각중증	50	2.2	33	5.1
시각경증	168	7.5	91	14.1
청각언어중증	43	1.9	17	2.7
청각언어경증	202	9.0	89	13.8
지적장애	121	5.4	57	8.8
정신장애	71	3.2	45	6.9
내부장애	134	6.0	57	8.7
합계	2,237	100.0	648	100.0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97)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두 장애종류를 묶는 범주로 두 범주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발달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바꾸어 사용한다.

98) 11개 범주는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2007년 실태조사를 이용한 통계방법(분산분석의 Tukey 검정)으로 결정됨.

## 다. 추가비용 비목 선정

### 1) 장애범주별로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 비목 선정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전물량 방식의 경우 필수품을 선정하고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가구는 장애범주별로 필수품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가구에 대해 품목별 마켓 바스켓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동일한 장애종류,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필수품이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체 1급의 경우에도 하반신 마비인 장애인과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은 장애 부위가 각기 다르고 필요한 보장구가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데 포함하는 필수품은 비목별 접근을 실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및 2007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가구원 개인의 교통비, 의료비,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이용료, 교육비, 휴대폰비 및 주거수리비 항목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계측하기 위한 비목으로 선정하였다.

추가비용 8개 비목에 대해 11개 장애범주별로 비용이 있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7-1-26> 과 같이 교통비는 뇌병변경증 100.0%, 내부장애 98.2%, 시각경증 95.6%, 청각언어경증 94.4% 등으로 4개 장애범주에서 90% 이상의 가구가 장애인가구원의 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경증 89.7%, 청각중증 88.2%, 뇌병변중증 87.7%, 시각중증 84.8%로 나타나는 등 11개 전체 장애범주에서 장애인가구원의 교통비가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서도 뇌병변중증 84.2%, 지체중증 81.5%, 내부장애 77.2%, 뇌병변경증 72.7% 등 11개 장애범주에서 시각경증(47.3%), 발달장애(35.1%)를 제외한 9개 장애범주에서 추가비용이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보호간병비는 실제로 유료도우미를 활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보다는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지불한 비용이 있는 가구 외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가구를 포함하여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는 장애종류는 없

었으며, 뇌병변중증이 41.6%로 가장 높았고, 시각중증이 36.4%, 발달장애 29.8%, 뇌병변경증 27.3%, 지체중증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 및 ‘거의 모든 일에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을 보면, 발달장애가 48.3%, 시각중증이 42.4%, 뇌병변중증이 42.1%, 지체중증이 33.3% 등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1-26〉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소득 50% 이하 가구)

	교통비	의료비	보호 간병비 <sup>1)</sup>	보장구 <sup>2)</sup>	재활기관 이용료	교육비 <sup>1)</sup>	휴대폰비	주거수리 <sup>3)</sup>
지체중증	66.7%	81.5%	22.2%	88.9%	7.4%		70.4%	40.7%
지체경증	89.7%	58.6%	11.0%	48.3%	.7%		82.8%	21.2%
뇌병변중증	87.0%	84.2%	41.6%	80.3%	2.6%	1.3%	52.6%	39.5%
뇌병변경증	100.0%	72.7%	27.3%	40.0%			90.0%	9.1%
시각중증	84.8%	63.6%	36.4%	75.8%			54.5%	30.3%
시각경증	95.6%	47.3%	3.3%	46.2%			81.3%	3.3%
청각중증	88.2%	61.1%	11.8%	76.5%		16.7%	61.1%	22.2%
청각경증	94.4%	64.4%	4.5%	83.1%	1.1%	1.1%	73.0%	7.9%
발달장애	73.7%	35.1%	29.8%	10.7%	8.8%	10.5%	36.8%	15.8%
정신장애	77.8%	51.1%	13.3%		2.2%		44.4%	6.7%
내부장애	98.2%	77.2%	10.7%	19.3%			84.2%	10.5%
전체	88.3%	61.4%	16.5%	51.1%	1.9%	1.7%	68.7%	17.7%

주: 1) 보호간병비와 교육비는 현재 지출 비용이 있는 비율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비율의 합계를 나타냄.

2) 보장구는 현재 보유한 보장구 및 필요한 보장구의 비율의 합계를 나타냄.

3) 주거수리는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임.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현실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돌보고, 그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호간병의 욕구는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및 2007년의 결과를 고려하여, 보호간병비가 있다는 응답이 10%가 넘는 장애범주에서 보호간병비를 모두 필수비목으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내부장애에서는 보호간병비를 필수비목에 포함시켰다.

보장구는 현재 보장구를 갖고 있는 장애인과 필요한 보장구가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보장구 욕구가 있는 장애인가구의 비율을 보면, 지체중증이 88.9%, 청각경증 83.1%, 뇌병변중증이 80.3%, 청각중증 76.5%, 시각중증이 7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경증이 48.3%, 시각경증이 46.2%, 뇌병변경증이 40.0%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활기관 이용료 지출이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인 장애범주는 없었으나, 지체중증(7.4%), 뇌병변중증(2.6%), 발달장애(8.8%) 및 정신장애(2.2%)는 2007년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재활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장애종류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수 비목에 포함시켰다.

교육비도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인 장애범주는 없었지만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는 별도의 교육 욕구가 매우 높은 장애종류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10.5%)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필수비목으로 포함시켰다.

휴대폰비에서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인 장애범주는 뇌병변경증(90.0%), 내부장애(84.2%), 지체경증(82.8%), 시각경증(81.3%), 청각경증(73.0%), 지체중증(70.4%), 청각중증(61.6%), 시각중증(54.5%), 뇌병변중증(52.6%) 등 9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각 장애범주별로 중증보다는 경증에서 장애인가구의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증이 중증보다 장애로 인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라 경증이 중증보다 오히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장애인개인의 휴대폰 지출이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지는 않지만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그리고 시각중증의 경우에도 휴대폰비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거수리비는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에 대한 항목으로 대체하여 활용하였으며,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는 장애종류는 없었다. 그러나 2004년, 2007년, 그리고 2010년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지체중증(40.7%), 뇌병변중증(39.5%), 시각중증(30.3%) 및 청각중증(22.2%)은 주거수리비를 필수비목으로 포함시켰다.

이상 각 비목이 필수비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장애유형을 정리하면 <표 7-1-27>과 같다.

〈표 7-1-27〉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구분 주요비목	추가비용 지출 장애 유형	
	필수비목	비필수비목
교통비	11개 장애범주 전체	
의료비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중증, 청각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시각경증, 발달장애
보호·간병비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시각경증, 청각경증
보장구비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중증, 청각경증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재활기관 이용료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 내부장애
교육비	발달장애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중증, 청각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휴대폰비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중증, 청각경증, 내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주거수리비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중증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 청각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 라. 장애범주별 추가비용 산출

다음 단계에서는 각 장애범주의 필수비목에 대한 월 평균 비용에 대해 분산분석<sup>99)</sup>의 Tukey 사후검정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사후검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고려하였다. 이는 조사에서 장애범주별 사례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장애로 인한 지출이 필요하지만 장애인가구 중 저소득층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99) 장애범주별 비교는 일부 범주에서 사례 수가 부족하여 분산분석의 가정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평균 비용에 따라 범주를 2~3개로 재범주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1) 교통비

교통비를 장애범주별로 <표 7-1-28>과 같이 비교해 보면, 교통비가 가장 많은 장애범주는 시각경증으로 월평균 55.6천원이었으며, 청각언어중증이 52.6천원, 뇌병변경증이 51.6천원, 내부장애가 51.4천원, 지체중증이 50.7천원, 그리고 지체경증이 50.6천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각언어경증이 46.4천원, 뇌병변중증이 33.9천원, 시각중증이 29.1천원, 발달장애가 25.3천원, 정신장애 13.3천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추가교통비는 이동 상 어려움 뿐만 아니라 활동의 정도와도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서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및 발달장애는 이동 상 어려움이 매우 커서 한 번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는 많이 들지만 사회활동이 적으면 전체 교통비는 적어지게 된다. 특히 정신장애를 보면 사회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비는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7-1-28〉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지출교통비	평균 예상교통비	평균 총 교통비
지체중증	18	50.7	11.3	62.0
지체경증	130	50.6	15.5	66.2
뇌병변중증	67	33.9	18.9	52.8
뇌병변경증	10	51.6	32.8	84.3
시각중증	28	29.1	10.0	39.1
시각경증	87	55.6	3.2	58.8
청각언어중증	15	52.6	11.8	64.4
청각언어경증	84	46.4	4.1	50.6
발달장애	42	25.3	5.7	30.9
정신장애	35	13.3	10.3	23.6
내부장애	55	51.4	14.2	65.6
합계	572	43.8	11.0	54.8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실제로 외출 어려움 정도<sup>100)</sup>의 비교에서 지체중증은 지체경증에 비해 외출 어려움 정도가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중증도 뇌병변경증에 비해 외출 어려

100) 외출 어려움 정도는 ① 혼자서 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혼자서는 자주 길을 잃어버려서 헤맨다 ③ 멈추지 않고 200m 이상 걷지 못하거나 심하게 곤란하다 ④ 멈추지 않고 50m 이상 걷지 못하거나 심하게 곤란하다 ⑤ 전혀 걷지 못한다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출 어려움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움 정도가 1.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중증의 경우도 시각경증에 비해 외출 어려움 정도는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일하게 중증과 경증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장애범주는 청각언어장애였다. 이는 청각언어장애가 이동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증의 장애범주는 이동 상의 어려움이 비교적 적어서 사회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교통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출 교통비는 장애로 인한 비용의 차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및 시각장애의 경우 중증이 경증에 비해 월평균 지출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활동의 정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범주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표 7-1-29〉 장애범주별 외출 어려움 정도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체중증	27	3.60	1.29	0.25
지체경증	145	1.68	1.08	0.09
뇌병변중증	76	3.11	1.36	0.16
뇌병변경증	10	1.78	1.27	0.40
시각중증	33	2.94	1.22	0.21
시각경증	91	1.28	0.82	0.09
청각언어중증	17	1.33	0.88	0.21
청각언어경증	89	1.35	0.90	0.10
발달장애	57	1.84	0.54	0.07
정신장애	45	1.38	0.56	0.08
내부장애	57	1.80	1.12	0.15
합계	648	1.89	1.23	0.05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결과적으로 이동 욕구에 따라 장애범주는 이동 욕구가 높은 집단, 중간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동 욕구가 높은 집단은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이며, 중간 집단은 지체경증, 시각경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및 내부장애이며, 이동 욕구가 낮은 집단은 청각언어경증과 정신장애이다. 이렇게 장애범주를 분류한 후 각 집단의 장애로 인한 평균 교통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교통비 욕구가 높은 집단은 교통비가 53.7천원<sup>1)</sup>, 교통비 욕구가 중간인

집단은 교통비가 48.9천원이었다. 또한, 교통비 욕구가 낮은 집단은 36.7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범주별 평균 교통비에 4인가구의 1인당 평균 교통비(18.0천원<sup>102)</sup>)를 감한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를 아래의 <표 7-1-3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7-1-30> 장애범주별 평균 교통비

교통비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교통비
높다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35.7천원
중간	지체경증, 시각경증, 청각중증, 발달장애, 내부장애	30.9천원
낮다	청각경증, 정신장애	18.7천원

## 2) 의료비

다음으로 평균 의료비를 장애범주별로 비교해 보면, 내부장애가 119.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중증이 85.4천원, 뇌병변경증이 75.3천원, 시각중증은 52.0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체경증 38.8천원, 청각언어중증 38.2천원, 지체중증 35.4천원이었으며, 정신장애는 22.6천원, 청각언어경증은 16.6천원으로 의료비가 낮았다.

분산분석 Tukey 사후검증 및 규범적 판단을 반영하여 의료비에 대한 장애범주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의료비가 많은 집단에는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내부장애를 포함하고, 의료비가 중간인 집단에는 지체중증, 시각중증 및 청각언어중증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적은 집단에는 지체경증, 청각언어경증, 정신장애가 포함되었다.

101) 이동욕구가 높은 집단의 경우, 사회참여가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지출 교통비 외에 실제 지출하지 못한 예상 교통비를 포함하여 교통비를 계산하였다.

102) 표준 4인가구의 1인당 교통비는 총 4인가구 교통비(80,653원)에서 친지방문비(8,700원)를 뺀 값을 4로 나눈 결과이다. 친지방문비를 뺀 이유는 본 연구의 장애인조사에서 일상적인 교통비만을 물었기 때문이다.



〈표 7-1-31〉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지출의료비	평균 예상의료비	평균 총 의료비
지체중증	22	35.4	18.9	54.3
지체경증	85	38.8	23.0	61.8
뇌병변중증	64	85.4	40.8	126.2
뇌병변경증	8	75.3	1.8	77.2
시각중증	21	52.0	5.0	56.9
청각언어중증	11	38.2	2.6	40.8
청각언어경증	58	16.6	8.1	24.7
정신장애	23	22.6	9.5	32.1
내부장애	44	119.1	15.9	135.0
합계	334	54.8	19.5	74.3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이렇게 집단을 분류한 후 각 집단의 장애로 인한 평균 교통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의료비 욕구가 높은 집단의 의료비는 97.4천원, 중간 집단의 의료비는 42.4천원, 낮은 집단의 의료비는 28.8천원으로 계산되었다. 장애범주별 평균의료비에 4인가구의 1인당 평균의료비(14.0천원)를 감하여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의료비를 산출하였으며, <표 7-1-32>에서와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났다.

〈표 7-1-32〉 장애유형별 평균 의료비

의료비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의료비
많은 집단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내부장애	83.4천원
중간 집단	지체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28.4천원
적은 집단	지체경증, 청각언어경증, 정신장애	14.8천원

### 3) 보호·간병비

보호·간병비는 장애로 인해 유료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유료도우미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대부분 가족들이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비용이 실제 장애가구가 필요한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출한 보호·간병비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을 더하여 장애종류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애종류별 보호·간병비 평균을 <표 7-1-33>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평균 보호·간병비가 가장 높은 장애종류는 내부장애 264.2천원, 정신장애 238.8천원, 뇌병변중증이 201.7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경증이 134.4천원, 뇌병변경증이 126.7천원, 시각중증 122.7천원, 지체중증이 121.2천원, 청각언어중증이 113.0천원, 그리고 발달장애 112.0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7-1-33〉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체중증	6	121.2	53.8	21.2
지체경증	16	134.4	111.3	27.5
뇌병변중증	32	201.7	168.9	30.0
뇌병변경증	3	126.7	65.6	40.6
시각중증	12	122.7	56.9	16.4
청각언어중증	2	113.0	14.4	9.4
발달장애	17	112.0	123.7	30.0
정신장애	6	238.8	140.3	56.7
내부장애	6	264.2	195.4	77.0
합계	101	163.4	138.7	13.8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보호간병비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sup>103)</sup>를 장애범주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장애범주는 발달장애(3.40)였으며, 지체중증(3.28), 시각중증(3.20), 뇌병변중증(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각언어중증(2.52)과 정신장애(2.51)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내부장애(1.88), 청각언어경증(1.81)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경증(1.72), 뇌병변경증(1.66), 그리고 시각경증(1.41)이 일상생활의 도움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3)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는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1-34〉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체중증	27	3.28	1.16	0.22
지체경증	145	1.72	0.85	0.07
뇌병변중증	76	3.15	1.30	0.15
뇌병변경증	10	1.66	0.96	0.30
시각중증	33	3.20	0.96	0.17
시각경증	91	1.41	0.79	0.08
청각언어중증	17	2.52	1.03	0.25
청각언어경증	89	1.81	0.90	0.10
발달장애	57	3.40	1.20	0.16
정신장애	45	2.51	1.21	0.18
내부장애	57	1.88	0.95	0.13
합계	648	2.23	1.23	0.05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보호·간병비 및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의 Tukey 사후검증의 결과 및 규범적 판단을 고려하여 보호·간병비에 따라 재범주화하면 보호간병비가 높은 집단으로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를, 보호간병비가 낮은 집단으로 지체경증, 뇌병변경증과 청각언어중증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두 집단의 보호간병비의 평균을 보면, 높은 집단은 172.1천원, 낮은 집단은 131.1천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7-1-35〉 보호간병비에 따른 장애유형

보호간병비 욕구	장애 유형	평균 보호간병비
높다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172.1천원
낮다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청각언어중증	131.1천원

#### 4) 보장구비

다음으로 월평균 보장구비<sup>104)</sup>를 장애범주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보장구비가 가장 높았던 장애범주는 청각언어중증으로 3.07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청각언어경

104) 구입비용 ÷ (내구년한 × 12개월)

증이 2.38만원, 뇌병변중증이 1.07만원, 지체중증이 0.84만원, 그리고 시각중증이 0.21만원이었다.

〈표 7-1-36〉 장애유형별 평균 보장구비

(단위: 만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체중증	17	0.84	1.51	0.37
뇌병변중증	46	1.07	2.99	0.44
시각중증	10	0.21	0.23	0.07
청각언어중증	10	3.07	3.23	1.02
청각언어경증	61	2.38	1.59	0.20
합계	144	1.68	2.34	0.19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Tukey 사후검증 및 규범적 판단을 반영하여 보장구비와 관련하여 장애범주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보장구비가 많은 집단에는 뇌병변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이 포함되고, 보장구비가 적은 집단에는 지체중증, 시각중증이 포함되었다.

〈표 7-1-37〉 보장구 욕구별 평균 보장구비

보장구비 욕구	장애 종류·등급	보장구비
높다	뇌병변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	19.3천원
낮다	지체중증, 시각중증	6.0천원

### 5) 재활기관이용료

장애범주에 따라 평균 재활기관이용료를 비교해 보면, 뇌병변중증이 77.2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달장애 36.1천원, 지체중증 29.2천원, 그리고 정신장애 12.0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1-38〉 장애유형별 평균 재활기관이용료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지출재활이용료	평균 예상재활이용료	평균 총 재활이용료
지체중증	2	29.2	39.9	69.1
뇌병변중증	2	77.2	132.4	209.6
발달장애	5	36.1	8.4	44.5
정신장애	1	12.0	0.0	12.0
합계	9	40.9	39.5	80.4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재활기관이용료에 대해서는 장애범주를 단일하게 보았으며, 4개 장애범주의 평균 재활기관이용료는 40.9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1-39〉 재활기관이용 욕구별 평균 이용료

재활기관이용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있다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40.9천원

## 6) 교육비

장애범주별 평균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발달장애만 51.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1-40〉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발달장애	4	51.8	97.0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 7) 휴대폰비

장애범주별 휴대폰 비용을 비교한 결과, 청각언어중증이 27.1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경증이 25.4천원, 내부장애가 25.0천원, 지체중증이 24.3천원, 청각경증이 24.0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뇌병변경증이 23.1천원, 시각경증이 23.0천

원, 시각중증이 22.3천원, 그리고 뇌병변중증이 21.4천원이었다.

〈표 7-1-41〉 장애범주별 휴대폰비 평균

(단위: 천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지출휴대폰비	평균 예상휴대폰비	평균 총 휴대폰비
지체중증	19	24.3	1.5	25.8
지체경증	120	25.4	2.3	27.7
뇌병변중증	40	21.4	4.5	25.9
뇌병변경증	9	23.1	0.9	24.0
시각중증	18	22.3	1.7	24.0
시각경증	74	23.0	1.0	24.0
청각언어중증	11	27.1	1.9	28.9
청각언어경증	65	24.0	1.4	25.4
내부장애	48	25.0	1.3	26.3
합계	404	24.1	1.9	26.0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평균 휴대폰비와 규범적 판단을 고려하여 휴대폰비가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에는 지체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sup>105)</sup>, 내부장애, 뇌병변 중증 및 시각중증이 포함되었다. 후자에는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휴대폰비가 많은 집단의 휴대폰 이용료 평균<sup>106)</sup>은 25.8천원이었으며, 휴대폰비가 적은 집단의 휴대폰 이용료 평균은 24.4천원이었다.

〈표 7-1-42〉 통신요금별 월평균 휴대폰 이용료

통신 요금	장애 종류·등급	평균
많다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 내부장애	25.8천원
적다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	24.4천원

105)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휴대폰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게 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화상전화의 이용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106) 중증장애인들의 요금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규범적 판단에 근거하여 지출 휴대폰비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도 포함시켰다.

## 8) 주거수리비

장애로 인한 주거수리비를 계산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총 주거수리비용을 조사하였다. 주거수리의 내구년수는 3년으로 보고, 총 주거수리비용을 36개월로 나누어 월 주거수리비를 계산하였다.

장애범주별 평균 주거수리비를 비교해보면, 청각언어중증이 4.1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중증 3.56만원, 뇌병변중증이 3.14만원, 시각중증이 2.9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1-43〉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단위: 만원)				
장애종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체중증	11	3.56	4.54	1.39
뇌병변중증	30	3.14	3.16	0.57
시각중증	10	2.90	3.66	1.15
청각언어중증	4	4.14	8.96	4.58
합계	55	3.25	3.96	0.53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Tukey 분석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거수리비에 관하여 한 가지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월평균 주거수리비는 32.5천원이었다.

〈표 7-1-44〉 주택수리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주택수리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있다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32.5천원

## 마. 장애가구 감소비용 산출

추가비용 조정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구의 감소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비목별 세부 품목<sup>107)</sup>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1-45〉 장애유무에 따른 세부 품목의 평균 비교

	장애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가족단위 외식 횟수	장애인가구	162	2.86	4.99	-5.269***
	비장애인가구	1,244	5.07	5.31	
상하수도 요금 (천원)	장애인가구	161	15.6	7.8	-2.800**
	비장애인가구	1,237	17.5	7.9	
정화조 청소 비용	장애인가구	74	20.1	14.72	t=-2.963**
	비장애인가구	516	18.3	19.45	
안경구입비 (천원)	장애인가구	80	95.4	68.8	2.463*
	비장애인가구	661	75.9	49.9	
1주 평균 근무일수-가구주	장애인가구	156	3.77	2.43	-5.262***
	비장애인가구	1,234	4.83	1.82	
장거리 여행횟수	장애인가구	160	0.84	1.63	-2.941**
	비장애인가구	1,245	1.27	2.40	
자녀 용돈(중학생)	장애인가구	33	17.6	12.5	-2.306*
	비장애인가구	288	25.3	18.5	
자녀 용돈(고등학생)	장애인가구	31	26.8	18.5	-2.336*
	비장애인가구	263	36.3	21.7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거비와 피복 및 신발에서는 세부 품목 중 한 품목에서도 장애인가와 비장애인가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료품비 중에서는 6개월 동안 가족단위 외식횟수에서 장애인가가 2.86회로, 비장애인가의 5.07회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 및 전기 품목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장애인가는 15.6천원, 비장애인가는 17.5천원으로 장애인가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7)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2010년 4인 가구 심층조사의 자료이다. 따라서 사례 수는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가구집기·가사용품 중에서는 정화조 1회 청소 비용에서 장애인가구가 20.1천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8.3천원보다 1.8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의료비 중 안경 구입비에서는 장애인가구가 95.4천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75.9천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통신비의 세부 품목 중 가구주의 1주 평균 근무일수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가구는 3.77일, 비장애인가구는 4.83일로 장애인가구가 1.06일 적었다. 다음으로 1년간 가족 단위의 장거리 여행 횟수를 보면, 장애인가구는 0.84회에 불과했으나 비장애인가구는 1.27회로 장애인가구가 0.43회 더 적었다.

기타 소비지출 중에는 중학생의 용돈은 장애인가구가 17.6천원, 비장애인가구가 25.3천원으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가 더 많았다. 또한 고등학생의 용돈도 장애인가구는 26.8천원, 비장애인가구는 36.3천원으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품목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었던 품목으로는 썬크대, 중학생의 과외, 기념일용 선물구입, 그리고 유선 및 위성방송이었다. 먼저 가구집기·가사용품 중 썬크대의 필요성에 대해 비장애인가구는 98.6%, 장애인가구는 96.3%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비장애인가구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6〉 장애유무와 썬크대 필요성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1,228	156	1384
	98.6%	96.3%	98.4%
필요 없다	17	6	23
	1.4%	3.7%	1.6%
전체	1,245	162	1,407
	100.0%	100.0%	100.0%

주:  $\chi^2=4.874$ ,  $p=0.04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교육비 중에서는 중학생의 과외 필요성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장애인가구는 22.9%로 비장애인가구의 9.5%보다 13.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에서 중학생 자녀의 과외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47〉 장애유무와 과외(중학생) 필요성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26	8	34
	9.5%	22.9%	11.0%
필요 없다	247	27	274
	90.5%	77.1%	89.0%
전체	273	35	308
	100.0%	100.0%	100.0%

주:  $\chi^2=5.616$ ,  $p=0.038$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교양오락비에서는 기념일용 선물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비장애인가구의 37.6%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장애인가구는 28.1%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약간 낮은 응답을 보였다.

〈표 7-1-48〉 장애유무와 기념일용 선물구입 필요성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466	45	511
	37.6%	28.1%	36.5%
필요 없다	773	115	888
	62.4%	71.9%	63.5%
전체	1,239	160	1,399
	100.0%	100.0%	100.0%

주:  $\chi^2=5.500$ ,  $p=0.019$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교양오락 중 유선 및 위성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비장애인가구는 64.7%, 장애인 가구는 70.4%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장애인가구 중 ‘꼭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이 66.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가구에서는 유선 및 위성방송을 필수품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49〉 장애유무와 유선 및 위성방송 필요성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꼭 필요하다	800	112	912
	64.7%	70.4%	65.3%
필요 없다	437	47	484
	35.3%	29.6%	34.7%
전체	1237	159	1396
	100.0%	100.0%	100.0%

주:  $\chi^2=2.069$ ,  $p=0.158$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조사: 장애인가구) 원자료.

위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 및 전기, 가구집가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 지출 등의 세부 품목에 대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품목에서조차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여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6개월간 가족단위 외식 횟수에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2.21회 정도 적게 나타나, 월평균 0.37회 적었지만, 가족단위 외식 횟수에서의 차이는 최저생계비에서 반영되어야 할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1.9천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차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애인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의 용돈에서 장애인가구가 비장

애인가구보다 더 적었지만 그 차이는 두 가구 유형의 가구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최저생계비에 반영해야 할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정화조 청소 비용은 장애인가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1.8천원, 안경구입비는 장애인가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19.5천원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세부 품목의 필요성에서 썩크대는 장애인가와 비장애인가가 차이가 있지만 모두 90% 이상이어서 두 가구 유형 모두에서 필수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중학생자녀를 위한 과외는 장애인가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필요성이 더 높았지만, 22.9%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의 필수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념일용 선물 구입의 필요성은 장애인가가 낮았지만 비장애인가와 장애인가 모두 40%를 채 넘지 않아 필수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유선 및 위성방송 필요성에서 장애인가가 70.4%로 나타났지만 장애인가와 비장애인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현재로는 장애인가만을 위한 필수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장애인가와 비장애인가의 세부 품목의 평균 비용 및 필요성에서 일부 나타나는 차이는 두 가구 유형의 규범적 특성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장애인가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장애가구원으로 인해 적합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이용이 저조하여 발생할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태 자료에서 장애인가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적게 소비하는 품목이 일부 나타나지만 이러한 품목을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여 그 비용을 삭감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공통비목 감소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5.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추가비용 조정방식에 의한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다.

장애범주별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로 인한 감소비용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 공통비목 추가비용 + 특수비목 추가비용 - 공통비목 감소비용

이 중 장애로 인한 감소비용은 ‘0’원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공통비목+특수비목)을 합한 비용으로 계산된다.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표 7-1-50>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장애종류는 뇌병변중증 409.7천원이었으며, 지체중증이 341.4천원, 내부장애가 312.2천원, 시각중증이 300.5천원으로 추가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가 295.7천원, 뇌병변경증이 274.6천원, 청각언어중증이 268.0천원, 정신장애가 246.5천원, 지체경증 201.2천원으로 추가비용이 20만원 이상이었으며, 청각언어경증이 78.6천원, 시각경증이 55.3천원으로 비교적 추가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표 7-1-50>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 비용

(단위: 천원)

장애종류	공통비목 추가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			추가비용 합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휴대폰비	주택 수리비	보호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 이용료	
지체중증	35.7	28.4	0	25.8	32.5	172.1	6.0	40.9	341.4
지체경증	30.9	14.8	0	24.4	0	131.1	0	0	201.2
뇌병변중증	35.7	83.4	0	25.8	32.5	172.1	19.3	40.9	409.7
뇌병변경증	35.7	83.4	0	24.4	0	131.1	0	0	274.6
시각중증	35.7	28.4	0	25.8	32.5	172.1	6.0	0	300.5
시각경증	30.9	0	0	24.4	0	0	0	0	55.3
청각중증	30.9	28.4	0	25.8	32.5	131.1	19.3	0	268.0
청각경증	18.7	14.8	0	25.8	0	0	19.3	0	78.6
발달장애	30.9	0	51.8	0	0	172.1	0	40.9	295.7
정신장애	18.7	14.8	0	0	0	172.1	0	40.9	246.5
내부장애	30.9	83.4	0	25.8	0	172.1	0	0	312.2

## 6. 장애인 추가비용의 활용

### 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추가비용이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대상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해당되는 모든 장애인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하여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출

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 제도 중에서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모든 장애인에게 추가비용만큼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차선택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초수급 장애인가구와 차상위 장애인가구에 비해서 가구소득이 많지 않은 장애인가구에게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서 최저생계비의 180%에 해당하는 장애인가구도 일반 장애인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 장애인가구까지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추가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가구는 장애인 추가비용으로 인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훨씬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는 기초수급 장애인과 차상위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장애인은 오히려 기초수급 장애인과 차상위 장애인보다 어려운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형평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추가비용 활용

또 다른 방법은 장애인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보다 최저생계비의 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급여에서도 장애인가구에 대한 급여는 장애인 추가비용이 포함되어 많아지게 된다.

##### 1)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추가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제한 금액<sup>108)</sup>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감안한 금품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일부 공제하고 있으나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현행 소득평가액 산정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서 장애인 추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공제하면 된다.

이와 같이 선정기준에서만 장애인 추가비용을 포함시키면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추가비용 이하인 경우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2) 급여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애인 추가비용이 포함된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감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는 일반가구에서와 동일하게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감한 급여를 지급하되, 장애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감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장애인가구의 급여는 아래와 같다.

$$\text{장애인가구의 급여} = \text{가구규모 별 최저생계비} - (\text{소득인정액} - \text{장애인 추가비용})$$

다음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활용방안이다. 장애인가구의 선택권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장애인 추가비용 중 일부 적절한 비목에 대해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추가비용 중 교육비는 발달장애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사교육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비는 현금 대신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을 통해서 현물급여로 제공할 수 있다. 보호·간병비도 자활사업의 유료 간병인을 활용하여 현물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보장구비도 일부 품목에서만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이 아닌 보장구, 그리고 지원대상 보장구라고

108)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을 추가로 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보장구를 확대하고, 보장구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현물급여를 할 여지가 있다.

## 제2절 노인 추가비용

### 1. 노인가구 추가비용의 개념

노인 최저생계비란 노인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노인 추가비용이란 비 노인층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노인 1인당 추가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가구 추가비용이란 노인을 포함하지 않은 4인 가구(이하 노인포함 4인가구)에 비해 노인을 포함한 4인 가구(이하 노인비포함 4인가구)가 추가적인 욕구로 인한 지출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컫는다. 또한 노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노인가구가 가지는 특수성, 즉 의료 및 간병 건강유지등과 관련된 비용이 비노인가구에 비해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 2. 노인가구의 지출실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추가비용 산출을 위해 노인포함 4인가구와 노인비포함 4인가구의 지출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을 찾고자 한다.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와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 가구 유형별조사)의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가구 중 노인포함 4인가구와 노인비포함 4인가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 내부자료(「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의 지출실태



〈표 7-2-1〉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단위: 가구, 원)

구분(n=849)		가구수	평균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차이	t값	p-value
경상소득 (월평균)	노인 무	749	2,006,907	2,150,000	-5,471,667	2,655,000	191,774	2.77	0.002
	노인 유	100	1,815,133	2,012,500	-430,5833	2,651,667			
총생활비 (월세포함)	노인 무	749	2,445,207	2,300,000	830,000	8,980,000	225,007	2.54	0.005
	노인 유	100	2,220,200	2,020,000	810,000	9,400,000			
식료품비	노인 무	749	614,125	600,000	200,000	2,020,000	20,885	6.22	0.160
	노인 유	100	593,240	530,000	250,000	3,410,000			
주거비	노인 무	749	96,396	60,000	0	1,110,000	30,406	2.21	0.013
	노인 유	100	65,990	16,500	0	570,000			
광열수도비	노인 무	749	123,257	120,000	40,000	370,000	-11,643	-2.68	0.003
	노인 유	100	134,900	130,000	40,000	480,000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노인 무	749	110,544	40,000	0	1,060,000	57,854	3.81	0.000
	노인 유	100	52,690	30,000	2,000	1,050,000			
피복신발비	노인 무	749	57,882	50,000	0	510,000	3,612	0.72	0.235
	노인 유	100	54,270	40,000	0	250,000			
보건의료비	노인 무	749	94,024	50,000	0	1,480,000	-38,966	-2.76	0.002
	노인 유	100	132,990	90,000	0	740,000			
교육비	노인 무	749	323,297	260,000	0	2,260,000	150,437	4.60	0.000
	노인 유	100	172,860	45,000	0	1,340,000			
교양오락비	노인 무	749	48,598	30,000	0	1,550,000	12,228	1.39	0.081
	노인 유	100	36,370	20,000	3,000	460,000			
교통통신비	노인 무	749	383,818	340,000	30,000	2,540,000	9,618	0.33	0.367
	노인 유	100	374,200	315,000	50,000	2,470,000			
기타소비지출	노인 무	749	377,717	350,000	30,000	1,830,000	-5,983	-0.28	0.611
	노인 유	100	383,700	350,000	70,000	1,350,000			
비소비지출	노인 무	749	145,420	130,000	0	1,050,000	6,730	0.43	0.331
	노인 유	100	138,690	90,000	0	2,330,000			
주관적 최저생계비 <sup>1)</sup> (자가/전세)	노인 무	749	1,892,487	2,000,000	500,000	4,000,000	173,486	2.81	0.002
	노인 유	100	1,719,000	1,500,000	700,000	3,500,000			
주관적 최저생계비 <sup>1)</sup> (월세/사글세)	노인 무	749	2,266,711	2,300,000	800,000	4,500,000	211,211	3.14	0.000
	노인 유	100	2,055,500	2,000,000	800,000	4,000,000			
주관적 최저생계비 <sup>2)</sup> (자가/전세)	노인 무	749	2,442,166	2,500,000	1,000,000	5,000,000	257,666	3.77	0.000
	노인 유	100	2,184,500	2,000,000	700,000	3,800,000			
주관적 최저생계비 <sup>2)</sup> (월세/사글세)	노인 무	749	2,834,198	2,800,000	1,000,000	5,500,000	275,197	3.79	0.000
	노인 유	100	2,559,000	2,500,000	1,000,000	4,300,000			

주: 1) 주관적 최저생계비1은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물었다.  
 2) 주관적 최저생계비2는 2008년 4인가구의 평균소득을 제시한 후 4인가구가 근근이 살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물었다.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먼저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 중 노인포함 4인가구와 노인비포함 4인가구의 지출실태를 비교<sup>109)</sup>하였다.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849가구로 이중 노인 비포함가구는 749가구, 노인포함가구는 100가구로 나타났다. 노인비포함 4인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2,006,907원, 노인포함 4인가구의 경상소득은 1,815,133원으로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경상소득이 191,774원만큼 낮다. 월평균 총생활비의 경우 노인포함 4인가구의 월평균 총생활비는 2,220,200원으로, 노인비포함 4인가구 2,445,207원 보다 225,007원만큼 낮다. 구체적인 비목별 지출실태를 보면, 광열수도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노인포함 4인가구의 지출수준이 노인비포함 4인가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출을 단순 비교할 경우 동일한 소득 능력 하에서의 지출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 노인가구 여부를 독립변수로, 각 지출 비목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E) = \text{INTERCEPT} + a1 \ln(Y) + a2 \text{ OLDH}$$

E =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Y = 월평균 가구소득

OLDH = 4인가구 중 65세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노인가구=1, 비노인가구=0)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노인이 포함된 4인가구의 광열수도비와 보건의료비의 지출수준이 노인비포함 4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항목인 식료품, 교육비, 비소비지출 등은 노인포함 4인가구가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결과 또한 노인포함가구 4인 가구가 노인비포함 4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09)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현물급여 등으로 실태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7-2-2〉 비목별 지출함수: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단위: 원)

비 목	intercept	a1	a2	Adj-R <sup>2</sup>	F
총생활비	5.340 ** (67.70)	0.023 (1.59)	-0.121 ** (-3.72)	0.019	8.51 **
식료품	4.058 ** (56.60)	0.005 (0.43)	-0.081 ** (-2.72)	0.006	3.86 *
주거비	0.866 * (2.01)	0.094 (1.16)	-0.830 ** (-4.64)	0.024	11.73 **
광열수도비	2.608 ** (33.14)	-0.028 (-1.90)	0.069 * (2.12)	0.007	4.26 **
가구집기비	0.984 ** (2.96)	0.113 (1.79)	-0.566 ** (-4.10)	0.021	10.44 **
피복신발비	1.274 ** (5.81)	0.035 (0.85)	-0.071 (-0.79)	0.001	0.710
보건의료비	1.774 ** (5.79)	-0.030 (-0.53)	0.536 ** (4.21)	0.018	9.16 **
교육비	2.947 ** (7.38)	-0.027 (-0.36)	-1.137 ** (-6.86)	0.050	23.50 **
교양오락비	0.844 ** (3.18)	0.043 (0.85)	-0.283 * (-2.57)	0.006	3.78 **
교통통신비	3.200 ** (23.19)	0.055 * (2.11)	-0.006 (-0.11)	0.002	2.25
기타소비지출	2.976 ** (20.93)	0.101 ** (3.77)	-0.003 (-0.07)	0.014	7.15 **
비소비지출	1.775 ** (7.88)	0.122 ** (2.85)	-0.329 ** (-3.52)	0.022	10.82 **
주관적 최저생계비1 (자가/전세)	5.120 ** (59.91)	0.018 (1.13)	-0.129 ** (-3.66)	0.015	7.58 **
주관적 최저생계비1 (월세/사글세)	5.291 ** (69.11)	0.022 (1.58)	-0.127 ** (-4.02)	0.020	9.70 **
주관적 최저생계비2 (자가/전세)	5.331 ** (69.47)	0.026 * (1.81)	-0.139 ** (-4.38)	0.024	11.68 **
주관적 최저생계비2 (월세/사글세)	5.478 ** (78.81)	0.029 * (2.22)	-0.123 ** (-4.28)	0.025	12.17 **

주: 1) \*(p< .05), \*\*\*(p< .01).

2) 소득기준 하위 40%인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조정된 R2 값이 낮게 나타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경우 총생활비의 조정된 R2 값은 0.716으로 나타남)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또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가구유형별조사)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내구재,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보유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간 필수품 인식률 및 보유율(주관식 문항, 중복 응답)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7-2-3>과 같다. 전기장판의 경우 노인가구의 필수품 인식률, 보유실태가 비노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습기의 경우 노인가구의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이 모두 비노인가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7-2-3> 내구재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기습기	노인 무(n=749)	129	17.38	250	33.47
	노인 유(n=100)	8	7.82	8	7.57
전기장판	노인 무(n=749)	433	52.07	513	64.43
	노인 유(n=100)	77	71.65	82	79.66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또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가구유형별 조사 자료에 나타난 보다 구체적인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및 보유율(중복 응답)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7-2-4>와 같다. 노인용 품목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품목은 동내의로, 약 96.04%인 대부분의 노인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뒤이어 파카(외투), 전기장판, 틀니, 안경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주로 겨울철 노인들의 체온유지를 위해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용 품목의 보유현황을 보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동내의가 96.79%로 가장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파카(외투), 한복, 전기장판, 안경 순으로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복의 경우 필수품 인식률은 38.32%로 낮은 편이나 보유율(87.42%)은 그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4〉 노인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단위: %)

구분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없음	
안경	66.52	21.22	12.26	72.24
틀니	68.81	7.15	24.04	64.23
지팡이(보조기 포함)	25.92	17.77	56.31	31.46
보청기	6.41	15.97	77.62	3.50
보청기 건전지	6.00	14.79	79.21	3.29
체온계	2.83	27.15	70.02	3.46
보온병	9.60	55.30	35.10	19.91
난로	11.32	47.61	41.07	13.26
가습기	4.07	35.73	60.20	3.03
전기장판	83.01	11.43	5.57	83.69
파카(외투)	91.95	7.52	0.53	91.75
모자	42.47	27.98	29.56	49.91
동내의	96.04	2.83	1.12	96.79
목도리	58.33	27.56	14.10	67.14
한복	38.32	39.87	21.80	87.42
수의	26.90	40.27	32.84	28.27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별 조사: 노인가구)

다음으로 노인용 기타용품 항목의 경우 경로당등 회비가 필수품 인식률(57.03%)과 이용률(75.11%)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택시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및 이용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7-2-5〉 노인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단위: %)

구분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없음	
택시비	50.05	31.95	18.00	60.64
경로당 등 회비	57.03	30.24	12.72	75.11
노인복지시설 이용	12.19	44.14	43.67	3.72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별 조사: 노인가구)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에의 도움실태 조사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수급여부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는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수급율은 조사대상 중 2.27%만이 수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 판정을 받아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을 받은 노인들의 일평균 3.25시간 씩 한달에 약 18일정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평균 89,453원으로 나타났다.

〈표 7-2-6〉 노인가구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여부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단위: 가구, %, 시간, 일)

구분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여부		하루평균 도움시간	한달평균 도움일수	월평균금액
	없음	있음			
빈도	351	8	3.25	18.11	89,453
비율	97.73	2.27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별조사: 노인가구)

다음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경우 조사가구 중 9.89%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중 대부분의 경우 친인척등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하루평균 도움시간은 3.86시간, 한달평균 도움일수는 10.46%로 나타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2-7〉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주는 사람 유무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단위: 가구, %, 시간, 일)

구분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하루평균 도움시간	한달평균 도움일수	대가지급여부
	없음	있음			
빈도	327	32	3.86	10.46	지급안함 89.51
비율	90.11	9.89			

자료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별조사: 노인가구)

마지막으로 노인용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및 이용률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7-2-8>과 같다. 병의원 진료비의 필수품 인식률은

92.34%, 이용률은 94.61%로 필수품 인식을 및 이용률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제비의 경우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이용률의 경우 상비약, 관절염치료약, 고혈압치료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병의원진료비 및 약제비로 월평균 약 2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충족 의료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노인가구의 의료비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2-8〉 노인용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단위: %,천원)

구분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월평균비용 <sup>1)</sup>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없음		
영양제	33.26	58.60	8.14	32.95	21.2
상비약	41.65	49.43	8.93	52.61	5.6
고혈압 치료약	45.29	1.68	53.03	45.29	10.2
관절염 치료약	45.30	15.10	39.60	45.77	15.7
성인용 소변패드	3.04	7.30	89.66	2.50	35.3
건강보조식품	19.94	58.38	21.68	20.93	26.5
병의원 진료비	92.34	4.61	3.05	94.61	21.4
약제비	86.65	9.36	3.99	92.68	20.1
미충족의료비	28.90	4.58	66.52	32.37	128.7

주: 1) 월평균비용은 사용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값이다.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별 조사: 노인가구)

### 나. 외부자료에서의 지출실태

가장 많은 표본수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인 「가계동향조사」(2009)를 이용하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 중 노인포함 4인가구와 노인비포함 4인가구의 지출실태를 비교해 보면 <표 7-2-9>와 같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노인비포함 4인가구보다 노인포함 4인가구가 낮게 나타났다. 먼저 노인포함 4인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1,521,756원이며, 노인비포함 4인가구의 경상소득은 1,792,759원으로 노인포함 가구의 소득이 227,866원만큼 낮다. 월평균 가계지출의 경우 노인포함 4인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1,620,737원으로, 노인비포함 4인가구(2,110,979원)보다 490,242원만큼 낮게 나타났다. 비목별 지출실태를 보면,

실태조사의 결과와는 달리 보건의료비 만의 노인포함 4인가구의 지출수준이 노인비포함 4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반면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노인포함 4인가구의 지출수준이 노인비포함 4인 가구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9〉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단위: 가구, 원)

구분(n=6,287)		가구수	평균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차이	t값	p-value
경상소득 (월평균)	노인 무	5,532	1,792,759	1,978,385	0	2,558,000	271,003	11.03	0.000
	노인 유	755	1,521,756	1,547,000	0	2,557,810			
가계지출	노인 무	5,532	2,110,979	1,935,968	108,998	25,683,666	490,242	11.26	0.000
	노인 유	755	1,620,737	1,421,700	271,360	14,581,635			
식료품비	노인 무	5,532	505,242	478,585	37,050	2,031,320	44,131	5.16	0.000
	노인 유	755	461,111	404,900	72,500	1,563,649			
주거비	노인 무	5,532	84,907	43,015	-133,210	5,225,000	22,680	3.36	0.000
	노인 유	755	62,227	10,000	0	2,500,000			
광열수도비	노인 무	5,532	114,200	98,448	0	692,510	4,560	1.59	0.055
	노인 유	755	109,640	91,820	0	583,680			
가구집기비	노인 무	5,532	44,169	16,890	0	2,986,130	235	0.05	0.479
	노인 유	755	43,934	12,100	0	1,541,220			
피복신발비	노인 무	5,532	92,716	53,850	0	1,568,000	31,937	7.12	0.000
	노인 유	755	60,778	29,000	0	946,700			
보건의료비	노인 무	5,532	87,199	28,700	0	6,313,420	-24,694	-2.93	0.001
	노인 유	755	111,893	35,800	0	3,000,000			
교육비	노인 무	5,532	293,828	180,290	0	8,391,000	141,290	7.27	0.000
	노인 유	755	152,538	0	0	4,863,000			
교양오락비	노인 무	5,532	85,094	46,175	0	4,029,500	30,663	5.55	0.000
	노인 유	755	54,431	26,100	0	1,545,450			
교통통신비	노인 무	5,532	314,523	265,695	0	22,400,908	67,965	2.79	0.002
	노인 유	755	246,557	200,320	6,310	12,459,716			
기타소비지출	노인 무	5,532	153,644	103,517	0	1,863,201	61,901	10.57	0.000
	노인 유	755	91,743	61,572	0	881,100			
비소비지출	노인 무	5,532	335,451	271,365	0	6,452,967	109,570	9.79	0.000
	노인 유	755	225,880	172,460	0	2,059,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다음으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단순 비교할 경우 동일한 소득 능력 하에서의 지출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노인가구원 존재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ln(E) = \text{INTERCEPT} + a1 \ln(Y) + a2 \text{ OLDH}$	
E	=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Y	= 월평균 가구소득
OLDH	= 4인가구 중 65세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노인가구=1, 비노인가구=0)

위 회귀모형(비목별 지출함수) 분석결과, 11개 비목 중 노인포함 4인가구의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노인비포함 4인가구의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통계적으로도 9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0〉 비목별 지출함수: 노인포함 4인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가구

(단위: 원)

비 목	intercept	a1	a2	Adj-R2	F
가계지출	14.410 ** (429.23)	0.004 ** (1.77)	-0.285 ** (-17.91)	0.048	161.31 **
식료품비	12.845 ** (359.36)	0.014 ** (5.67)	-0.123 ** (-7.29)	0.012	41.69 **
주거비	8.225 ** (20.35)	-0.031 (-1.09)	-1.860 ** (-9.70)	0.015	47.97 **
광열수도비	11.279 (87.75)	0.002 (0.26)	-0.201 ** (-3.30)	0.001	5.46 **
가구집기비	7.821 ** (27.48)	0.052 ** (2.59)	-0.957 ** (-27.48)	0.008	28.06 **
피복신발비	8.545 ** (25.62)	0.047 * (2.02)	-1.040 ** (-6.58)	0.007	23.37 **
보건의료비	7.718 ** (22.85)	0.061 ** (2.58)	0.547 ** (3.42)	0.002	9.39 **
교육비	9.183 ** (20.32)	-0.024 (-0.77)	-3.817 ** (-17.81)	0.048	159.24 **
교양오락비	10.317 ** (86.64)	0.018 * (2.22)	-0.466 ** (-8.26)	0.011	36.16 **
교통통신비	12.489 ** (253.49)	-0.002 (-0.75)	-0.369 ** (-15.79)	0.038	125.35 **
기타소비지출	10.640 ** (73.27)	0.046 ** (4.48)	-0.680 ** (-9.88)	0.017	57.80 **
비소비지출	11.486 ** (68.06)	0.046 ** (3.91)	-0.904 ** (-11.30)	0.021	70.48 **

주: \*(p< .05), \*\*(p< .0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

노인포함 4인가구의 지출 수준이 높은 항목 중 특히 보건의료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통계연보」(2008)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료비를 추정해보았다. 아래의 <표 7-2-11>에서 보듯이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적용인구당 진료비는 65세 미만 평균지출보다 4.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6년 이후 배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임을 알 수 있다.

<표 7-2-11>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상대적 비교

(단위: %, 원)

	수진율			건당 진료비			적용인구당 내원일수			적용인구당 진료비		
	65세 미만(A)	65세 이상(B)	비율(B/A)	65세 미만(A)	65세 이상(B)	비율(B/A)	65세 미만(A)	65세 이상(B)	비율(B/A)	65세 미만(A)	65세 이상(B)	비율(B/A)
2006	15.98	36.66	2.29	30,407	49,229	1.62	13.9	38.5	2.77	485,962	1,804,604	3.71
2007	17.90	43.65	2.44	29,939	47,620	1.59	14.1	40.6	2.88	535,777	2,078,608	3.88
2008	-	-	-	-	-	-	13.9	44.0	3.15	553,989	2,334,373	4.21

주: 2008년 자료에는 지급건수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지급건수로 계산하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2008).

위와 같이 외부자료인 「가계동향조사」(2009), 『건강보험통계연보』(2008)와, 내부자료인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가구유형별조사)를 통해 노인포함 4인가구의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이 노인비포함 4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태적으로 나타난 지출수준은 노인가구의 잠재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구재 및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내구재 중 전기장판의 경우 노인가구의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이 비노인가구보다 높았고, 노인용 품목 중 동내의, 파카(외투)의 경우 노인가구의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노인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 근거

먼저 노인 추가비용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김미곤 외(2004)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인 최저생계비	=	공통비목	+	공통비목 추가	-	공통비목 감소	+	특수비목
노인 1인당 추가비용	=	공통비목 추가	-	공통비목 감소	+	특수비목		

하지만 이 추정방식은 노인 표준가구를 설정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1인당 추가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노인 1인당 추가비용 산정시 가구규모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 마켓 바스켓 구성 시 일반가구의 필수품 선정원칙과 다른 보유확률 개념을 도입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방법은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모형으로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노인 추가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추정방식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규범적인 접근을 고려하고자 한다. 예컨대 노인가구가 비노인가구에 비해 잠재된 지출욕구가 큰 항목들의 경우를 규범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2010년 노인 추가비용 산출과 관련한 하나의 시사점은 성인균등화지수(AES)이다. 우선 표준가구의 성인균등화 지수와 노인 성인균등화 지수를 구한 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을 통해 인구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생계비와 비노인가구의 생계비 중 어느쪽이 더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미곤 외(1999)에 따르면 표준가구 구성원의 성인균등화 지수는 부 40세(1.000), 모 37세(0.9894), 자 11세(0.4288) 자 9세(0.3059)이며, 표준가구 전체 성인균등화지수 합계는 2.7241이고, 1인당 평균 성인균등화 지수는 0.6810이다. 반면 노인의 성인균등화 지수값은 0.7723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인의 균등화 지수값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청장년층보다는 작지만, 비노인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와 노인 성인균등화지수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미곤 외(1999)의 연령별 성인균등화 지수에 64세 미만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인구비율을 적용한 평균 성인균등화지수는 <표 7-2-12>와 같이 0.758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값 역시 65세 이상 노인의 성인균등화지수 보다 낮은 수치이다. 결국 노인과 비노인의 성인균등화지수를 비교하면, 노인 성인균등화 지수가 비노인보다 크기 때문에 생계비 또한 노인의 생계비가 비노인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2-12〉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

연령	AES	인구비	가중합	연령	AES	인구비	가중합	연령	AES	인구비	가중합
0세	0.4437	0.0101	0.0045	22세	0.5927	0.0140	0.0083	45세	1.0000	0.0187	0.0187
1세	0.3375	0.0101	0.0034	23세	0.6037	0.0143	0.0086	46세	1.0000	0.0190	0.0190
2세	0.3384	0.0102	0.0034	24세	0.6037	0.0148	0.0089	47세	1.0000	0.0193	0.0193
3세	0.3844	0.0102	0.0039	25세	0.6037	0.0150	0.0091	48세	1.0000	0.0196	0.0196
4세	0.4135	0.0100	0.0042	26세	0.6037	0.0161	0.0097	49세	1.0000	0.0197	0.0197
5세	0.4135	0.0103	0.0042	27세	0.6037	0.0173	0.0105	50세	1.0000	0.0195	0.0195
6세	0.4135	0.0109	0.0045	28세	0.6037	0.0183	0.0111	51세	0.9497	0.0189	0.0180
7세	0.3208	0.0112	0.0036	29세	0.6881	0.0187	0.0129	52세	0.9072	0.0180	0.0163
8세	0.2894	0.0120	0.0035	31세	0.8194	0.0184	0.0140	53세	0.8719	0.0171	0.0149
9세	0.3059	0.0134	0.0041	32세	0.8685	0.0178	0.0145	54세	0.8430	0.0163	0.0137
10세	0.3569	0.0141	0.0050	33세	0.9079	0.0172	0.0149	55세	0.8201	0.0152	0.0125
11세	0.4288	0.0141	0.0060	34세	0.9386	0.0171	0.0155	56세	0.8024	0.0138	0.0110
12세	0.5082	0.0145	0.0074	35세	0.9617	0.0175	0.0164	57세	0.7892	0.0127	0.0100
13세	0.5816	0.0151	0.0088	36세	0.9783	0.0183	0.0176	58세	0.7800	0.0119	0.0092
14세	0.6355	0.0155	0.0099	37세	0.9894	0.0192	0.0188	59세	0.7741	0.0109	0.0084
15세	0.6565	0.0158	0.0104	38세	0.9960	0.0199	0.0197	60세	0.7709	0.0106	0.0082
16세	0.6565	0.0159	0.0104	39세	0.9992	0.0203	0.0202	61세	0.7697	0.0106	0.0082
17세	0.6565	0.0159	0.0104	40세	1.0000	0.0204	0.0203	62세	0.7699	0.0104	0.0080
18세	0.6565	0.0156	0.0102	41세	1.0000	0.0201	0.0201	63세	0.7708	0.0098	0.0075
19세	0.5853	0.0150	0.0088	42세	1.0000	0.0197	0.0197	64세	0.7719	0.0088	0.0068
20세	0.5640	0.0144	0.0081	43세	1.0000	0.0191	0.0191	계			0.7589
21세	0.5730	0.0141	0.0081	44세	1.0000	0.0187	0.0187				

자료 : 김미곤 외(2004: 300). 통계청 인구추계자료(2010년 기준).

즉, 노인포함 4인가구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와 성인균등화지수를 비교해 볼 때, 노인의 경우 비노인보다 의료 등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2010년 계측된 가구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1,417,980원(연구진안 기준)에 성인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포함된 가구의 균등화지수가 2.8154( $2.7241 - 0.6810 + 0.7723$ )이므로, 노인 1인이 포함된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65,505원(연구진안 기준)으로 추정되어 노인 비포함 가구보다 노인포함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더 높게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노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정하도록 한다.

#### 4. 노인 추가비용 산정

노인의 추가비용은 표준 4인가구(부 40, 모 37, 자 11, 자 9)중에서 1인이 빠지고 노인(65+)이 추가된 노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노인 1인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감소비용을 산출하여 계산한다. 단, 노인을 제외한 성인은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노인의 추가비용 산정의 접근 원칙은 첫째, 표준가구 중 (확률적으로) 1인이 빠지고 노인 1명이 대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인단위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단 노인가구는 체온유지, 의료 관련 욕구가 비노인가구보다 높다는 점에서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 간의 의료비 차이<sup>110)</sup>를 감안하였다.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신체기능, 인지능력,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활등의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정하게 되며, 3등급 이하 판정을 받는 경우 수급요건이 된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나쁜 상태인 경우를 말하며, 이들을 건강하지 못한 노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노인 구분을 통해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추가될 경우를 구분하여 추가비용을 산출하였다. 둘째, 추가비용의 규범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지역별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노인가구의 실태를 반영하되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노인가구의 경우 잠재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결핍으로 이를 억제함으로써, 실태적으로 지출수준이 일반가구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켓 바스켓 포함에 있어서는 노인 추가품목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항목 중 보유현황이 66.7%(2/3)이상의 품목을 포함하며, 50~66.7%에 속하는 품목은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66.7% 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이외의 항목 중 사회적 통념에 의해 필수적이라 인식되는 항목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전제와 접근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은 기본모형으로 계측된다. 즉,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기준으로, 표준가구 마켓

110) 200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비율이 9.1%, 있는 노인비율이 90.9%이다.

바스켓에 있는 비목 중 수량이 추가되어야 할 것(공통비목 추가), 표준가구 바스켓에 있는 비목 중 수량이 감소되어야 할 것(공통비목 감소), 그리고 표준가구 바스켓에 없는 비목 중 추가되어야 할 것(특수비목)으로 구성된다.

$$\text{노인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감소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공통비목 추가비용 또는 감소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 표준가구의 가구원 중 1인 대신 노인이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표준가구원 1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노인의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예컨대, 안경의 경우 표준가구 바스켓에서 1명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므로 가구원 1명의 안경비용 월 417원(1,667/4)을 감하는 대신 노인 안경비용 월 1,667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다.

식료품비와 수도광열비 중 난방비, 피복신발비 중 외의(한복), 동내의, 보건의료비 중 의료서비스비, 안경을 공통비목 추가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표준가구에 없는 품목 중 노인가구에 추가된 특수비목 추가비용으로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중 전기장판, 피복신발비 중 모자, 수의, 파카, 보건의료비 중 약값(영양제, 우황청심원), 지팡이, 틀니, 보청기, 보청기건전지,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기타소비지출 중 경로당비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에 상응하는 절감분과 피복신발비 중 외의, 동내의, 보건의료비의 의료서비스비, 약값(위생대), 안경, 교육비, 기타소비지출 중 친목단체비가 공통비목 절감비용으로 산정되었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의 경우 표준가구의 기준열량이 7,900Kcal이고, 노인의 기준열량이 1,600Kcal임을 감안하여 계산하였다. 수도광열비의 경우 표준가구는 평균사용량에 계층지수를 적용하였으나, 노인가구는 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경우 전기장판의 경우 필수품 인식을 및 보유율이 83%가량 되므로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복신발비의 경우 한복은 보유율이 87.42%이므로 필수품에 추가하는 대신 표준가구의 외의비용의 1/4을 감액, 동내의의 보유율 및 필수품 인식이 96%이상이므로 2벌을 추가하는 대신 원래 바스켓을 구성하던 동내의 금액을 1/4 감액하였으며, 파카의 필수품 인식이 91.95%이므로 필수품에 추가하였다. 모자와 수의는 필요없다는 응답보다는 꼭 필요하거나 있으면 좋다는 응답이 2/3이상이며, 사회적 통념 상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므로 추가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비의 경우 노인 의료서비스비를 추가하고, 표준가구의 의료서비스의 1/4을 감액하였다. 노인의료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미만 인구의 적용 인구당 진료비 배율(2010년 4.72배)을 추정하여 노인 전체의 의료서비스비 59,727원을 산출한 후 건강한 노인은 비노인 의료서비스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산출하였다. 위생대는 1/4을 감액하고, 틀니는 보유율이 64.2%, 필수품 인식률이 68.8%임을 감안하여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였다. 안경의 경우 동 자료에 보유율이 72.2% ,필수품 인식률 66.5%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글씨보기 위한 돋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필수품으로 포함시켰다. 보청기, 지팡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에게만 적용하였다. 교육비의 경우 표준가구의 교육비의 1/4을 감액하고, 기타 소비지출의 경우 경로당비를 추가하는 대신 표준가구의 교제비, 친목단체비, 용돈 1/4을 감액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공통비목 추가비용, 공통비목 감소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을 가감한 결과 노인의 추가비용은 건강한 노인의 경우 22,208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157,287원이 추가되는 비용으로 산정되었다.

〈표 7-2-13〉 2010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항목	증감 <sup>1)</sup>	내구연수	단가	수량	건강한 노인	건강하지 못한 노인
식료품비		증가	1월	545,943/7900× 1600	1인	110,571원	110,571원
		감소	1월	545,943원	1/4인	-136,486원	-136,486원
수도광열비	난방비	증가	1월	60,534원	74.9m <sup>2</sup>	60,534원	60,534원
		감소	1월	-57,140원	70.7m <sup>2</sup>	-57,140원	-57,140원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전기장판	추가	84월	150,000원	1개	1,786원	1,786원
피복신발비	외의	증가	120월	한복 200,000원	2벌	3,333원	3,333원
		감소	1월	외의 20,302원	1/4인	-5,076원	-5,076원
	모자	추가	60월	10,000원	2개	333원	333원
	동내의	증가	36월	20,000원	2벌	1,111원	1,111원
		감소	1월	2,562원	1/4인	-641원	-641원
	수의	추가	168월	500,000원	1벌	2,976원	2,976원
	파카	추가	72월	100,000원	1점	1,389원	1,389원
보건의료비	의료 서비스비	증가	1월		1인	12,654원	59,727원
		감소	1월	50,617원	1/4인	-12,654원	-12,654원
	약값	추가	3월	영양제 18,922원	1통	6,307원	6,307원
			2월	우황청심원 2,144원	1개	0원	1,072원
		감소	1월	위생대 4,382원	1/4인	-1,096원	-1,096원
	지팡이	추가	60월	15,000원	1개	0원	250원
	안경	증가	24월	40,000원	1인	1,667원	1,667원
		감소	-	1,667원	1/4인	-417원	-417원
	틀니	추가	120월	1,000,000원	1개	8,333원	8,333원
	보청기	추가	60월	240,000원	2개	0원	8,000원
교육비	총교육비	추가	4월	12,000원	1개	0원	3,000원
		감소	1월	4,005원	20시간	0원	80,100원
기타소비 지출	경로당	추가	1월	2,000원	1회	2,000원	2,000원
	친목단체비 등	감소	1월	20,834원	1/4인	-5,209원	-5,209원
계						-22,208원	157,287원

주: 중생보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건강한 노인의 경우 -21,840원,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157,655원으로 계산됨.



노인가구 추가비용의 품목의 변동사항을 보면, 먼저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급여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이용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1인당 동내의비 감소분을 추가하였다. 가격 및 횟수등은 모두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등을 반영한 값이다.

〈표 7-2-14〉 노인가구지출 품목 포함 사항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이용 (건강하지 못한 노인)	항목포함	간병비를 대체한 항목으로 포함함	○방문요양 2시간 기준 수가인 26,700원의 15%인 4,005원을 1회당 단가로 하며, 월 20회 이용하는 것으로 함. 실제로 노인가구유형별조사결과 최빈, 중위값은 월 22회였음. 따라서, 2010년 월비용 80,100원
표준가구의 1인당 동내의비감소	항목포함	동내의비가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인동내의를 추가하기 위해 표준가구의 동내의비를 감소	○2010년 4인가구 동내의비 2,562원의 1/4인 641 원을 월평균 비용으로 하여 감소시킴.

다음으로 제외품목의 경우 노인포함 가구의 필수품 인식을 및 보유율이 낮은 가습기 항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여 간병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와 거의 없으며 간병비와 유사한 성격의 항목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 항목의 포함으로 인해 동 항목을 제외하였다.

〈표 7-2-15〉 노인가구지출 품목 제외 사항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가습기 (건강하지 못한노인)	항목삭제	노인가구 보유율 등이 낮아 삭제	○2007년 월비용 917원 → 2010년 월비용 0원
간병비 (건강하지 못한노인)	항목삭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여 간병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거의 없음	○2007년 월비용 80,000원 → 2010년 월비용 0원

노인가구 지출은 가격상승 및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대부분의 값이 변동되었으며,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비 증가액과 노인가구 난방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가구 1인당 월식료품비 및 교육비 감소액이 2010년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여 그 감소액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7-2-16〉 노인가구지출 사용량·내구연수·가격조정 품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표준가구 1인당 월식료품비 감소	가격상향	마켓 바스켓 상승	○2007년 456,991원 (인당 114,248원) → 2010년 545,943원 (인당 136,486원)
노인 1인당 월식료품비 증가	가격상향	마켓 바스켓 상승	○2007년 92,555원 → 2010년 110,571원
표준가구난방비	가격상향 사용량상향	마켓 바스켓 상승	○2007년 44,600원 (사용량 67.4㎡) → 2010년 57,140원 (사용량 70.3㎡)
노인가구난방비	가격상향 사용량상향	마켓 바스켓 상승	○2007년 48,330원 (사용량 73.2㎡) → 2010년 60,534원 (사용량 74.9㎡)
전기장판	내구연수상향 가격상향	실태조사	○2007년 100,000원, 내구연수 60개월 (월 1,667원) → 2010년 150,000원, 내구연수 84개월 (월 1,786원)
한복	가격상향	실태조사	○2007년 150,000원 (월 2,500원) → 2010년 200,000원 (월 3,333원)
파카	내구연수상향 가격 상향	실태조사	○2007년 50,000원, 내구연수 60개월 (월 833원) → 2010년 100,000원, 내구연수 72개월 (월 1,389원)
수의	가격 상향	실태조사	○2007년 450,000원 (월 2,679원) → 2010년 500,000원 (월 2,976원)
표준가구1인당 월 의료서비스비 감소	가격상향	마켓 바스켓상승	○2007년 42,573원 (인당 10,643원) → 2010년 50,617원 (인당 12,654원)
노인1인당 월 의료서비스비 (건강하지 못한노인)	가격상향		○2007년 10,643*3.65=41,670원 → 2010년 12,654*4.72=59,727원 (배율은 『건강보험통계연보』의 “65세이상 1인당진료비/65세미만 1인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임)
위생대감소	가격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7년 3,840원 (인당 960원) → 2010년 4,382원 (인당 1,096원)
영양제	가격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7년 15,981원 (월 5,327원) → 2010년 18,922원 (월 6,307원)
우형청심원 (건강하지 못한노인)	가격상향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7년 2,108원 (월 1,054원) → 2010년 2,144원 (월 1,072원)
노인1인당 안경비	내구연수하향	실태조사	○2007년 월 1,111원, 내구연수 36월 → 2010년 월 1,667원, 내구연수 24월
표준가구 1인당 교육비	가격상향	마켓 바스켓상승	○2007년 월 55,302원 (인당 13,826원) → 2010년 월 65,930원 (인당 16,483원)
표준가구의 교제비, 친목단체비, 용돈 등	가격상향	마켓 바스켓상승	○2007년 월 19,167원 (인당 4,792원) → 2010년 월 20,834원 (인당 5,209원)

## 5. 노인 추가비용의 정책적 활용

노인 추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가구의 특성상 추가비용이 필요한 항목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 최저생계비에 의해서는 생활유지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인 추가비용은 크게 대상 선정과 급여 수준 산정에 활용된다. 특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과 급여가 이루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서 노인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노인 추가비용은 행정적 복잡성 문제를 줄이면서 노인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노인 추가비용은 표준가구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노인의 추가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결정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노인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정의 원칙상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노인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될 경우 가구유형별로 선정기준이 모두 달라짐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노인 추가비용을 반영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노인가구 추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   |
|---|
| $\text{노인가구 최저생계비} = \text{일반가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text{노인가구 추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착: 노인가구 최저생계비 대 소득인정액</li> <li>• 대안: 일반가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 (소득인정액 - 노인 추가비용)</li> </ul> |
|---|

급여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수준을 정하는데 노인가구 추가비용이 활용될 수 있다.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일부 금액, 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 장기요양보험급여 등은 현물 혹은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노인 추가비용에서 이러한 현물 및 타법 지원액을 제한 금액이 일반가구의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에 더해져서 노인가구의 현금급여 기준선이 설정될 수 있다. 단,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노인 추가비용에 장애인 추가비용을 합산하여 공통비용을 차감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추가비용 = (노인 추가비용 + 장애인 추가비용) - 공통비용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중을 줄이고 타 제도내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연관이 있는 각종 수당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급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노인에 대한 각종 수당이 활성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노인가구의 추가비용 부담을 이러한 제도에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노인가구 추가비용의 연구는 각종 수당과 급여의 기준액을 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7-2-17〉 노인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추가 현금급여	=	추가 비용 <sup>1)</sup>	-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노인: -22,208원</li> <li>◦ 건강하지 못한 노인: 157,287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노령연금 일부</li> <li>◦ 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의료급여 1종의 경우 91.8%, 2종의 경우 85.2%를 건강보험에서 부담)</li> <li>◦ 장기요양보험급여(전액)</li> <li>◦ 보청기 (의료급여 1종인 경우 기준액 내에서 전액, 2종인 경우 85%)</li> <li>◦ 노인의치사업(전액)-65세이상 기초보장 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되나, 이중 치아 상태등으로 선별함.</li> </ul>

주: 1) 연구진안 기준

### 제3절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 1.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의 개념

한부모가구의 최저생계비란 부모 양친 중 한 명과 그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이란 양부모가구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한부모가구가 가지는 추가적인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컫는다.

가구유형 중 특히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한부모가구가 가지는 특수성, 즉 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과 관련된 욕구가 양부모가구에 비해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 2. 한부모가구의 현황

##### 가. 한부모가구의 출현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편부가구는 약 287천 가구, 편모가구는 약 1,803천 가구로, 총 한부모가구 수는 1,367천여 가구에 이른다. 또한, 전체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7.4%, 2000년 7.9%, 2005년 8.6%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이혼율과 미혼모의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3-1〉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계	가구주의 혼인상태				한부모 가구비율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2005	계	1,369,943	—	—	—	—	8.6
	편부+미혼자녀	286,923	—	—	—	—	1.8
	편모+미혼자녀	1,083,020	—	—	—	—	6.8
2000	계	1,123,854	252,917	502,284	245,987	122,666	7.9
	편부+미혼자녀	219,997	58,227	64,058	92,810	4,902	1.5
	편모+미혼자녀	903,857	194,690	438,226	153,177	117,764	6.3
1995	계	959,972	216,067	526,320	123,969	93,616	7.4
	편부+미혼자녀	172,398	50,666	68,022	51,080	2,630	1.3
	편모+미혼자녀	787,574	165,401	458,298	72,889	90,986	6.1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주재선(2010) 『2009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나. 한부모가구 지출실태 및 욕구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구(한부모+미성년자녀)의 지출실태와 일반가구의 지출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지출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을 찾고자 한다. 자료는 세부 비목이 제시되어 있는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가구유형별조사)와 세부 품목이 제시되어 있는 「전국가계동향조사」(2009)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는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이며, 이들 가구 중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단, 회귀분석의 경우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실태 비교해 보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총생활비는 1,584,302원으로 일반가구 월평균 총생활비(2,406,158원)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출능력의 차이와 가구원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목별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주거비 중 관리비(6%), 비소비지출의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각각 39%, 35%), 공교육비(47%), 보건의료비(48%), 가구집기비(56%), 교통통신비(56%), 기타소비지출(56%), 교양오락비(57%)의 한부모가구/일반가구 지출비율은 총생활비 지출 비율(6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일상생활 잡비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주거비 중 월세(260%), 수도광열비(84%), 사교육비(87%), 피복신발비(77%), 식료품비(가정식비, 외식비 각각 74%, 73%) 등의 지출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관련 비용과 가장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대비용(사교육비를 포함하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2〉 하위 40%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 비교

(단위: 가구, 원)

		가구유형	평균지출액	표준편차	평균지출액의 비율(B/A)
식료품비	가정식비	일반가구(A)	399,118	143,838	0.74
		한부모가구(B)	293,582	94,439	
	외식비	일반가구(A)	207,392	113,902	0.73
		한부모가구(B)	152,277	82,643	
주거비	월세	일반가구(A)	46,500	102,589	2.60
		한부모가구(B)	121,010	130,611	
	관리비	일반가구(A)	475,551	95,932	0.06
		한부모가구(B)	30,661	46,345	
수도광열비		일반가구(A)	122,803	40,881	0.84
		한부모가구(B)	102,973	32,415	
가구집기비		일반가구(A)	98,644	145,647	0.56
		한부모가구(B)	55,346	90,810	
피복신발비		일반가구(A)	56,833	50,141	0.77
		한부모가구(B)	43,632	32,069	
보건의료비		일반가구(A)	104,953	151,449	0.48
		한부모가구(B)	49,956	92,383	
교육비	공교육비	일반가구(A)	158,244	207,034	0.47
		한부모가구(B)	74,144	86,856	
	사교육비	일반가구(A)	162,417	227,862	0.87
		한부모가구(B)	141,738	189,820	
교양오락비		일반가구(A)	48,954	96,048	0.57
		한부모가구(B)	27,877	44,460	
교통통신비		일반가구(A)	369,085	261,679	0.56
		한부모가구(B)	205,312	218,262	
기타소비지출		일반가구(A)	371,822	204,921	0.56
		한부모가구(B)	208,431	133,337	
비소비지출	세금	일반가구(A)	36,135	103,489	0.39
		한부모가구(B)	14,182	53,570	
	사회보장 부담금	일반가구(A)	102,001	90,132	0.35
		한부모가구(B)	35,434	40,627	
총생활비		일반가구(A)	2,406,158	867,695	0.66
		한부모가구(B)	1,584,302	633,429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기초조사) 원자료.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을 단순 비교할 경우 소득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소득 능력 하에서의 지출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과 가구원수, 한부모가구 여부를 독립변수로, 각 지출 비목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소득과 가구원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한부모가구 여부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모형(비목별 지출함수)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ln(E) = \text{INTERCEPT} + a1 \ln(Y) + a2 \text{FNUM} + a3 \text{SPH}$$

E =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Y = 월평균 가구소득

FNUM = 가구원수

SPH = 한부모가구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한부모가구=1, 일반가구=0)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15개 비목 중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외식비와 공교육비, 월세와 관리비, 피복신발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의 비목들은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3〉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함수

(단위: 원)						
비 목	intercept	a1	a2	a3	Adj-R2	F
총생활비	3.277*** (21.68)	0.307*** (12.71)	0.135*** (5.04)	-0.140*** (-3.36)	0.370	227.78***
식료품비	2.661*** (17.01)	0.082** (3.30)	0.135*** (4.84)	-0.098* (-2.28)	0.178	84.95***
가정식비	-1.247*** (-4.26)	0.619*** (13.24)	0.223*** (4.30)	0.193* (2.44)	0.205	99.85***
주거비	0.268 (0.43)	0.542*** (4.54)	-0.088 (-0.96)	0.207 (1.43)	0.051	7.78***
월세	-2.054* (-2.19)	0.263 (1.75)	0.346* (2.06)	0.341 (1.33)	0.012	4.02**
관리비	1.730*** (11.04)	0.067** (2.67)	0.095*** (3.40)	-0.034 (-0.78)	0.063	33.26***
광열수도비	-1.906** (-2.96)	0.468*** (4.59)	0.233* (2.05)	-0.072 (-0.41)	0.056	23.78***
가구집기비	-1.001* (-2.31)	0.380*** (5.53)	0.111 (1.45)	0.029 (0.24)	0.046	19.27***
피복신발비	0.921 (1.45)	0.045 (0.45)	0.133 (1.16)	-0.646*** (-3.69)	0.074	31.28***
보건의료비	-1.144 (-1.29)	0.299* (2.06)	0.393** (2.62)	0.128** (0.56)	0.032	10.76***
교육비	2.080** (2.96)	0.240* (2.08)	-0.098 (-0.83)	-0.416* (-2.33)	0.027	7.21***
공교육비	-1.106* (-2.16)	0.366*** (4.48)	0.044 (0.49)	-0.332* (-2.36)	0.063	26.86***
사교육비	1.190*** (4.23)	0.362*** (8.06)	0.093 (1.85)	-0.434*** (-5.61)	0.260	136.83***
교통통신비	0.660* (2.12)	0.416*** (8036)	-0.156** (2.83)	-0.321*** (-3.75)	0.237	119.66***
기타소비지출	-1.560 (-1.76)	0.405** (3.26)	-0.011 (0.07)	-1.125*** (-4.33)	0.113	38.27***
비소비 지출	-1.797** (-14.51)	0.977** (117.82)	-0.062* (-8.94)	-0.473* (-19.41)	0.036	5387.98**
사회보장부담금						

주: \*(p< .05), \*\*\*(p< .01) \*\*\*\*(p< .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소득과 지출을 통제된 상태에서 한부모가구의 지출 수준이 일반가구보다 높은 세부 품목으로는 가사서비스, 학원 및 보습교육, 입시 및 보습학원, 방문학습지(이상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배달음식, 음악학원(이상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보육료, 보충교육비,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전산학원, 개인교습비(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한부모가구가 높게 나타남) 등이었다.

한부모가구의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품목은 주로 자녀의 보호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학원 및 보습교육, 입시 및 보습학원, 방문학습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비용(배달음식, 가사서비스)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7-3-4〉 회귀분석결과 하위 40%의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품목

구 분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품목
비 목	외식비*, 월세, 관리비, 피복신발비, 공교육비**
세부 품목	식료품비: 배달음식** 가구집기비: 보육료, 가사서비스*** 피복신발비: 의복수선료, 의복세탁료 교육비: 보충교육비, 학원 및 보습교육***, 입시 및 보습학원***, 음악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 교통통신비: 택시비, 이동전화기기

주: \* p<.05, \*\* p<.01, \*\*\*p<.00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별조사)에서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품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품목(주관식 문항, 중복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은 핸드폰(42.6%)이었으며, 다음으로 안전장치(19.4%), 컴퓨터, 인터넷(12.4%), 보육비(7.8%), 가사도움(세탁·청소·수선 등)(7.0%), 외식비(5.4%), 사교육비(5.4%)의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의 품목은 한부모가 경제사회적 활동을 할 경우 자녀의 보호·양육·교육할 사람이 부재(또는 부족)하다는 한부모가구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표 7-3-5〉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품목(중복응답)

(단위: 가구, %)

	가구수	비율
휴대폰	55	42.6
안전장치(번호키, 위치추적기, 호신용경보기, 비디오폰 등)	25	19.4
컴퓨터, 인터넷	16	12.4
보육비(베이비시터, 보육시설 등)	10	7.8
가사도움(세탁, 청소, 수선 등)	9	7.0
외식비(반찬, 외식, 배달, 간식 등)	7	5.4
사교육비(보습학원, 방과후교실, 도우미교사 등)	7	5.4
합 계	129	100.0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별조사) 원자료.

이러한 결과는 아래 표에서도 확인됨. 즉, 보습학원의 경우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가구가 56.7%로 일반가구 41.3%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예능학원의 경우 필요성이 보습학원에 비해, 그리고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구의 자녀 교육욕구는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한부모 부재 시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원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3-6〉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자녀 학원수강 필요성 인식과 실제 수강 비율

(단위: %)

구분		필수품 인식률			실제수강비율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필요없다	
보습학원	한부모가구	56.7	37.3	6.0	29.9
	일반가구	41.3	49.3	9.5	45.0
예능학원	한부모가구	43.2	52.2	4.5	26.8
	일반가구	43.4	50.2	6.4	43.1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유형별조사: 한부모가구) 원자료.

### 3.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산출의 근거

최근 이혼율과 미혼모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부모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적 네트워크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녀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물리적·심리적 부양부담이 매우 크다. 특히, 경제활동과 보육과 교육을 비롯한 가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욕구가 발생한다.

특히, 경제활동과 보육과 교육을 비롯한 가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술한 실태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지출실태 및 지출욕구에 분석결과, 한부모가구의 추가적 욕구는 주로 자녀의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욕구(보습학원비, 방과후 교실, 보육비 지원 등), 자녀 안전 및 관리 욕구(휴대폰, 안전장치(번호키) 등), 가사지원 욕구(외식비, 세탁, 청소, 수선 등), 그리고 한부모의 경제활동관련 욕구(정장, 세탁비 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각종 사회복지급여나 수당의 형태로 한부모가구의 추가적인 욕구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 Kuivalainen(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사회부조급여액의 최대합산액은 70~112%에 이르는 반면,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의 경우 4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7〉 주요 OECD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 가구유형별 사회부조 수준(2000)

(단위: %)

	핀란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신 성인	48	56	40	40	44	36
독신 청년	48	56	40	19	44	31
독신 노인	50	67	44	61	48	46
한부모+1자녀	70	77	64	61	59	58
한부모+2자녀	95	112	80	70	74	75
부부	39	45	31	42	37	29
부부+2자녀	58	64	44	46	44	48
평균	58	68	49	48	50	46

자료: Kuivalainen(2004). "Production of Last Resort Support: A Comparison on Social Assistance Schemes in Europe with the Notion of Welfare Production and the Concept of Social Right". LIS Working Paper No.379.

또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모자3인세대의 최저생활보장액(2009년)이 표준 3인 세대에 비해 약간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준 3인세대 1급자-1의 경우 생활부조기준액은 180,170엔인데 비해, 모자 3인세대 1급자-1의 경우 191,120엔으로 한부모가구(두 자녀)가 일반가구(한 자녀)에 비해 10,950엔 더 많은 부조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표 7-3-8〉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액(2009년)

(단위: 엔)

급지구분	표준3인세대	부부자녀2인세대	노인2인세대	노인1인세대	모자3인세대
	35세남, 29세여, 4세자	35세남, 30세여, 9세자, 4세자	65세남, 65세여	68세여	30세여, 9세자, 4세자
1급지-1	180,170	216,480	134,940	93,820	191,120
1급지-2	172,870	207,870	129,460	90,190	184,100
2급지-1	165,580	199,270	123,960	86,540	177,080
2급지-2	158,270	190,640	118,480	82,910	170,060
3급지-1	145,980	177,040	107,990	74,260	158,050
3급지-2	138,680	168,430	102,500	70,640	151,020

자료: 후생통계협회(2009), 『國民の福祉の動向』.

요컨대, 실태분석의 결과나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한부모가구의 경우 한 명의 성인이 경제적 부양과 양육 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정할 것이다.

#### 4.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산정

지금까지 논의한 실태와 규범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 산정원칙을 기준으로 기본전제와 접근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산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모(母)

혹은 부(父)가 혼자 가구의 소득과 자녀 양육 및 가사의 부담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들이 가지는 독특한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부모가구의 이러한 욕구는 금전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물리적·심리적 어려움에 따른 욕구도 병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이라는 관점에서 한부모가구의 추가적인 기본욕구를 금전적(물질적)인 것으로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산정의 접근 원칙은 첫째, 노인 혹은 장애인의 경우 표준가구 중 (확률적) 1인이 빠지고 노인 혹은 장애인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에 비해,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단위 접근이 불가피하다.

둘째, 3인가구를 한부모가구의 표준가구로 설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구의 경우 평균가구원수가 2.86명으로 3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父) 혹은 모(母) 중 1인과 두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한다. 또한, 한부모 표준가구는 일반 표준가구(4인가구)에서 부(40세) 혹은 모(37) 중 1인과 1자(남, 11세), 2자(여, 9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성인(부 혹은 모)은 근로자로 가정한다.

셋째,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계측은 실태를 반영하되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한부모가구의 실태만을 반영할 경우 잠재적 욕구는 있으나 자원의 결핍으로 이를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일반가구에 비해 지출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와 『전국가계동향조사』(2009)의 분석결과 한부모가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지출비목을 중심으로 추가비목을 구성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한부모가구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비목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표준가구에 비해 적게 소모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고려함으로써 추가비용 조정방식에 의해 추가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가구특성별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일반가구 최저생계비에 이미 반영된 지역별 차이 이외의 추가적인 지역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기본전제와 접근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아래와

같은 산정공식으로 계측된다. 즉,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기준으로,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 있는 비목 중 수량이 추가되어야 할 것(공통비목 추가),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 있는 비목 중 수량이 감소되어야 할 것(공통비목 감소), 그리고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 없는 비목 중 추가되어야 할 것(특수비목)으로 구성된다.

$$\text{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감소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식료품 중 외식비와 배달식비, 피복신발비 중 동절기 숙녀복(모자가구), 춘추 숙녀복(모자가구), 구두(모자가구), 세탁료, 의복과 구두 수선료, 교육비 중 9세 아동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11세 아동에 대한 보습학원비, 교통통신비 중 택시요금과 휴대폰 요금을 공통비목 추가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표준가구에 없는 품목 중 한부모 가구에 추가된 품목, 즉 특수비목 추가비용으로는 보조키 비용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외식비와 배달식비에 상응하는 가정식비용 절감분과 11세 아동의 가정학습지 비용이 공통비목 절감비용으로 산정되었다. 이상의 품목에 대한 비용 산정 과정은 아래 박스와 같다.

— 공통비목 추가비용

① 식료품비

- 외식비: (단가 18,000 /3월) \* 1회 = 6,000원
- 배달식비: (단가 21,769/1월) \* 2회 = 43,538원

② 피복신발비

- 숙녀복(동) : (단가 90,000 /내구연수 12년) \* 1벌 = 625원
- 숙녀복(춘추): (단가 70,000 /내구연수 12년) \* 1벌 = 486원
- 구두: (단가 20,000 /내구연수 2년) \* 1켤레 = 833원
- 세탁료: (단가 6,000 /내구연수 1년) \* 2회 = 1,000원
- 수선비(의복): (단가 3,000 /내구연수 1년) \* 1회 = 250원
- 수선비(구두): (단가 4,000 /내구연수 3년) \* 1회 = 111원

③ 교육비

- 9세아동(초등 3학년) 방과후학교: 단가 35,012 /1월 = 35,012원
- 11세아동(초등 5학년) 방과후 보습학원: 단가 118,200 /1월 = 118,200원

④ 교통통신비

- 택시요금: 단가 5,156원/1월 = 5,156원
- 휴대폰 요금: 단가 10,692원/1월 = 10,692원

— 공통비목 감소비용

① 식료품비

- 가정식 절감분: (부자) 단가 3,948 \* 2.3회 = 9,212원
- (모자) 단가 3,620 \* 2.3회 = 8,447원

② 교육비

- 가정학습지(11세: 보습학원으로 대체): 단가 32,000 \* (6회/12월) = 16,000원

— 특수비목 추가비용

① 가구가사집기

- 보조키: 단가 67,903원 /내구연수 6.38년 = 887원

비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 근로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일반가구보다 외식이나 배달식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3월 1회의 가구단위 외식과 월 2회의 배달식비를 추가하였다. 외식비용은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서 4인 가구 24,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3인가구에 해당하는 3/4를 곱해주어 월 18,000원으로 산출되었다. 배달식비의 경우 한끼에 21,769원으로 산정되었다<sup>11)</sup>. 그 결과 식료품비에서 월 49,538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월 2.3끼 (외식 1/3 + 배달식 2)만큼 가정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그만큼을 식료품비에서 빼주면, 부자가구의 경우 9,212원, 모자가구의 경우 8,447원의 가정식비가 절감되게 된다. 따라서, 순식료품비 증감분은 부자가구의 경우 40,326원, 모자가구의 경우 41,091원으로 산정되었다.

다음으로, 피복신발비의 경우 부자가구와 모자가구가 다소 달리 산정되었다. 모자가구의 경우 근로활동을 할 경우 외출복에 대한 추가적인 욕구가 있을 것으로 보아, 동복과 춘추복 정장 각 한 벌씩과 구두 한 켤레가 피복비에 추가되었다. 또한, 부자가구와 모자가구 공히 세탁료와 의복 및 구두 수선비가 추가되었다. 이 때, 모든 세부 추가비목의 내구연수와 단가는 일반가구 최저생계비 세부비목에 준하여 산정되었다. 그 결과, 피복신발비에서 부자가구의 경우 월 1,361원, 모자가구의 경우 월 3,305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보육 및 교육비는 주지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한 잠재적 욕구도 가장 높은 비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 근로를 한다고 가정할 때 방과후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9세 아동에 대해서는 방과후교실 비용을, 11세 아동은 보습학원 비용을 추가비용으로 설정하였다. 방과후교실은 월 35,012원<sup>112)</sup>, 보습학원은 월 118,200원<sup>113)</sup>으로 산정되어, 교육비에서 추가비용은 부자가구와 모자가구 공히 137,121으로 설정되었다.

교통통신비의 경우 택시요금과 핸드폰요금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추가비용 역시 근로하는 한부모가 아동을 보호·양육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보완

111)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장면 2그릇 + 탕수육 1개)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음.

112)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e\\_kor/inform/info\\_data/talent/1263087\\_10813.html](http://www.mest.go.kr/me_kor/inform/info_data/talent/1263087_10813.html)) (작성기준 2010년 6월)

113)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습학원비 사용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았다. 교통통신비에서의 추가비용 역시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산정시의 단가에 준하여 산정되었다. 택시요금의 경우 5,156원(월 1회), 핸드폰 요금은 월 10,692원<sup>114)</sup>으로 총 15,848원이 추가비용으로 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구의 보안과 방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보조기가 추가되었으며 내구연수 6.38년 단가 67,903원으로<sup>15)</sup> 월 887원이 특수비목 추가비용으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공통비목 추가비용, 공통비목 감소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을 가감한 결과 부자가구는 195,548원 모자가구는 198,252원이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으로 산정되었다.

〈표 7-3-9〉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가구유형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부자가구	모자가구
합계					195,543 원	198,252 원
식료품비						
외식비		3월	18,000원	1회	6,000원	6,000원
배달식비		1월	21,769원	2회	43,538원	43,538원
가정식비용 절감분	부자가구	3월	3,948원	-7회	-9,212원	
	모자가구	3월	3,620원	-7회		-8,447원
소계					40,326원	41,091원
피복신발비						
숙녀복(동)	모자가구	12년	90,000원	1회		625원
숙녀복(춘추)	모자가구	12년	70,000원	1회		486원
구두(여성용)	모자가구	24월	20,000원	1회		833원
세탁료		12월	6,000원	2회	1,000원	1,000원
수선비(의복)		12월	3,000원	1회	250원	250원
수선비(구두)		36월	4,000원	1회	111원	111원
소계					1,361원	3,305원
가구집기가사용품						
보조기		6.38년	67,903원	1회	887원	887원
소계					887원	887원
교육비						
방과후학교(9세)		1월	35,012원	1회	35,012원	35,012원
보습학원(11세)		1월	118,200원	1회	118,200원	118,200원
가정학습지 절감분(11세)		12월	32,000원	-6회	-16,000원	-16,000원
소계					137,121원	137,121원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1월	5,156원	1회	5,156원	5,156원
핸드폰요금		1월	10,692원	1회	10,692원	10,692원
소계					15,848원	15,848원

114) 1일 1통화를 더하여 월 30통화 추가하는 것으로 계산한 요금(사용요금 30통\*324원 + 부가세 10%)

115)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심층조사, 가구유형별 조사) 원자료 내 구연수는 전세가구의 이사기간.



한부모가구는 장애인가구나 노인가구와는 달리 가구단위로 계산되어야 함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따라서 식료품비, 교육비에는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피복신발비, 가사집기비용은 가구원수의 증감과 무관한 고정값이므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3인 편모가구의 균등화지수를 1로 하여 가구규모별 균등화지수로 추가비용을 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7-3-10〉 가구규모별 한부모가구 추가비용(편모가구의 경우, 연구진안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균등화지수	0.7730	1.0000	1.2270	1.4540
균등화 적용비용	137,688	178,212	218,666	259,120
고정비용	20,040	20,040	20,040	20,040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157,728	198,252	238,706	279,160

## 5.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의 정책적 활용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크게 대상 선정과 급여 수준 산정에 활용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과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표준가구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위에서 산정된 한부모가구의 가구규모별 추가비용이 합산된 액이 된다. 따라서 어떤 한부모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가구유형별로 선정기준이 모두 달라짐에 따라 행정적 복잡성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적 복잡성의 문제를 줄이면서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반영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한부모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안 내에서도 공제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즉, 앞에서 산정한 표준적인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방식과 실비지출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보습학원과 방과후교실 영수증 제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을 적용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추가비용보다 낮은 한부모가구와 수급자가 되기 이전에 돈이 없어서 방과후 교실이나 보습학원에 보내지 못한 한부모가구 등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 일반가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 원칙: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대 소득인정액
- 대안: 일반가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을 설정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반영하여야 한다.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될 수 있다. 교육비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과후교실 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급자 자녀에 대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현물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에서 이러한 보육 및 교육비를 제한 금액이 일반가구의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에 더해진다.

〈표 7-3-11〉 한부모가구의 추가 현금급여(3인 가구 기준)

추가 현금급여	=	추가 비용	-	현물 및 타지원액(제의 품목)
◦ 모자가구: 163,240원 ◦ 부자가구: 160,531원		◦ 모자가구: 198,252원 ◦ 부자가구: 195,543원		◦ 방과후 학교(35,012원)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중을 줄이고 각종 수당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급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육급여, 이동수당, 한부모가구 부양수당 등이 활성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부담을 이러한 제도에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의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은 각종 수당과 급여의 기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8장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 제1 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3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계측이 이뤄지지 않는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계측되는 연도보다 비계측에 의해 최저생계비가 발표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반복되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립된 이후 계측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로 최저생계비는 대부분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초로 한 정부 예산반영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렇게 추정된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는 생활의 질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가격변화만 반영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측연도에 최저생계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측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변화를 반영하여 수급자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본 장에서는 비계측연

도 최저생계비 측정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고자 한다.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는 크게 ①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②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 ③ 수준균형방식 등을 통해 계측할 수 있다.

### 1.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물가상승률 적용방식이란 비계측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동 모형의 핵심인 물가상승률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산반영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등의 물가상승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가상승률 수치를 이용한 추정모형은 아래와 같다.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PL_{ijt}$  : i지역 j가구규모의 t년도 최저생계비  
 $PL_{ijt-1}$  : i지역 j가구규모의 t-1년도 최저생계비  
 $P_t$  : t년도 물가상승률

본 방식은 국내정부기관 및 경제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손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손쉽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 및 정책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방식은 소득, 기호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변화 즉 필수품의 내용 및 질적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빈곤이라는 관점에서 과소 추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포함되는 항목 및 규격이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의 필수품과 차이가 있어, 마켓 바스켓 조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적용할 물가상승률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상승률은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에 대한 상승률인 반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므로, 시장물가와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와와의 차이라는 괴리감이 존재한다. 또한 같은 품목이라도 최저생계비의 마켓 바스켓에 포함된 규격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물가상승률 산정의 기준규격이 다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지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추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어느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2011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011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이거나, 2011년 물가상승률은 추정치이므로 실측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과거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 경우 어느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정금액이 달라진다. 지난 연도의 자료는 실측치임에 비해, 추정을 위해 적용하는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예측치 이므로 자료의 일관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 2.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은 최저생계비가 가격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제시된 방식이다. 전물량 방식의 계측년도 최저생계비는 기본적으로 필수품목별 단위가격과 사용량의 곱을 통하여 월 최저지출을 산출해낸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가격과 사용량 변동에 따라 그 값이 변하며 앞서 언급한 물가상승률 방식은 가격만의 변화를 반영한 방식이므로, 사용량 변화는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은 생활의 질 및 기호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가격과 사용량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추정모형은 아래와 같다.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Q_t \cdot R_t)$$

$PL_{ijt}$	:	i년도 j가구규모의 t년도 최저생계비
$PL_{ijt-1}$	:	i년도 j가구규모의 t-1년도 최저생계비
$P_t$	:	t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Q_t$	:	t년도 사용량상승률 추정치
$R_t$	:	t년도 경제성장률을 이용한 사용량 상승률 조정계수

동 모형은 계측년도 간 소비패턴의 변화가 차년도 계측년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측정되기 때문에 계측년도 사이에 경제상황이 급변하거나 사용량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경우 이를 바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계수( $R_t$ )를 도입하여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조정계수의 추정시 앞에서 추정한 사용량 상승률은 과거의 증가율이나, 과거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성장률 변수를 넣어 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_t = \frac{G_t}{\bar{G}}$$

$G_t$  : t년도의 경제성장률 추정치

$\bar{G}$  : 1년에서 m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물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하지만 사용량의 변화는 이러한 기관에서 생산·발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가정과 모형을 통해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년도 간 최저생계비 실측값의 역산을 통해 사용량변화를 추정하였다. 즉 전물량 방식에 의해 추정된 최저생계비를 분해하여 사용량 상승률을 추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량 상승률은 가장 최근의 두 계측연도 간 최저생계비 변화에는 물가와 사용량 변화로 대표될 수 있는 생활의 질 변화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기본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사용량 변화를 추정하게 된다.

$$PL_l = PL_m \times (1 + \bar{P})^n \times (1 + \bar{Q})^n \quad (n = l - m)$$

$PL_l$  : l년 최저생계비(2007년),  $PL_m$  : m년 최저생계비(2004년)

$\bar{P}$  : m년에서 l년까지(3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bar{Q}$  : m년에서 l년까지(3년간)의 연평균 사용량상승률

사용량 상승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측된 연도인 1988년, 1994년, 1999년, 2004, 2007년도의 연도별 차이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가 있다. 추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도를 어떠한 시점으로 하여 추정할 것인지는 일정부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또는 소비지출 변화의 장기적인 패턴을 사용하면 보다 객관적인 지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가능 한 자료 중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하여 추정하였다.

물가와 사용량변화를 감안한 방식은 일차적으로 각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하고 필수품의 내용 및 질적 수준의 변화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계측

연도 최저생계비의 실측값을 통해 소비 질의 반영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관에 기반한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중 객관적인 방식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사용량 상승률 추정이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실측값 자료와 논리에 의하므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이 바뀔 경우 동 모형의 적용은 논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우며, 차년도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 3. 수준균형 방식

수준균형방식이란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 계측방식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일반가구 지출(가계지출 또는 소비지출)수준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을 추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지출에 곱함으로써 추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동 방식은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산출시 적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추정연도의 최저생계비는 추정연도의 일반가구 지출 예측치에 전년도 일반가구 지출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을 곱한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만일 측정하고자 하는 연도가 계측연도 1년 전일 경우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PL_{ijt} = C_{4t} \times \frac{PL_{ij(t-1)}}{C_{4(t-1)}}$$

$PL_{ijt}$  : i지역 j가구규모의 t년도 최저생계비  
 $C_{4t}$  : 4인 가구의 t년도 지출 예측치  
 $PL_{ij(t-1)}$  : i지역 j가구규모의 t-1년도 최저생계비  
 $C_{4(t-1)}$  : 4인 가구의 t-1년도 지출

수준균형방식의 경우 추정이 간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과 기호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반가구의 소비행태가 향락, 오락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에서 크게 증가한 경우에도 그 추세가 최저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소비지출 내지 가계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역시 함께 감소할 수 있다. 즉,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사용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일반가구의 지출수준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가 감소할 수 있

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차년도의 소비지출 내지 가계지출을 추정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 제2절 추정모형별 2011년 최저생계비

본 연구에서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중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적용방식 및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 1.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2011년도 4인기준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동 방식의 계산을 위해 국내 및 국제기관의 물가상승률 예측치 및 과거추세치를 검토하였다.

#### 〈표 8-2-1〉 발표기관별 · 기준시점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발표기관	기준시점	변화율
통계청	과거 3년(2007~2009)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sup>1)</sup>	3.3%
통계청	과거 3년(2007~2009) 평균 생활물가상승률 <sup>2)</sup>	3.5%
한국은행	2011년 예상물가상승률	3.4%
OECD	2011년 예상물가상승률	3.2%
IMF	2011년 예상물가상승률	3.0%
ADB	2011년 예상물가상승률	3.0%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2.5%, 2008년 4.7%, 2009년 2.8%였음.

2) 생활물가상승률은 2007년 3.1%, 2008년 5.4%, 2009년 2.1%였음.

자료: 한국은행,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2010. 7. 12일자 보도자료.

OECD(2010), OECD Economic Outlook.

IMF(2010), World Economic Outlook.

ADB(2010), Asian Development Outlook.



기관별로 혹은 기간별로 값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며, 국내 기관이 국제기관보다는 높게 물가상승률을 예측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소비자 물가상승률(3.4%)은, IMF와 ADB(Asia Development Bank)에서 예측한 2011년 한국의 물가상승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국내기관이 해외기관보다 국내 상황을 더 잘 반영하여 예측하였다는 판단하에 다른 수치보다 이 값을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용하였다. 두 번째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거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3.3%)의 경우 생활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실제 체감물가를 보다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수품만을 대상으로 물가를 조사하는 생활물가상승률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측치와 과거실측치의 이용에 관하여,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2007년 실측치가 더 안정적이나 2011년 예측을 위해서는 동기간의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이용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고려 과정을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예측한 물가상승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8-2-2〉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적용시점	2011년 최저생계비	변화율 <sup>1)</sup>
2011년 한국은행 예측 물가상승률 적용	1,466,191	3.4%

주: 1)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였으므로 변화율로 산정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다.

2010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17,980원에 한국은행이 예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경우 1,466,191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각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표 8-2-3〉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sup>1)</sup>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최저생계비	542,491	923,700	1,194,946	1,466,191	1,737,436	2,008,682

주: 1) 가구균등화지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 2.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을 적용하여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량( $Q$ )의 추정이 필요하며, 추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계측년도를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1988년, 1994년, 1999년, 2004, 2007년의 총 다섯 번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었으며, 그 결과가 당시 실질최저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한 값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미 확보된 최저생계비( $PL$ ) 값 및 물가상승률( $\bar{P}$ ) 값을 식에 대입하여 사용량 상승률( $\bar{Q}$ )을 역으로 추산할 수 있다. 사용량 상승의 추정은 여러 시점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시점이 향후 생활수준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9~2007년과 2004~2007년의 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 1988년 및 1994년 연구에 비해 1999년, 2004년 및 2007년 연구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과거시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최근시점의 계측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생활의 질 변화와 사용량 변화에 대한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을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조정계수( $R_t$ )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2011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자 한다.

먼저 1999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bar{P}$ )은 2.96% 이며, 이를 1999년 최저생계비와 2007년 최저생계비에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 두 계측년도 간 사용량 변화율( $\bar{Q}$ )은 0.010로 산출되었다. 2011년 물가상승률 예측치 3.4%(한국은행)와 경제성장률 예측치 4.5%(한국은행)를 적용하여 추정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bar{Q})$$

위 식을 통해 추정된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한 2011년 최저생계비는 2010년 최저생계비 대비 4.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4~2007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 $\bar{Q}$ )이 0.012로 산출되었고 이를 대입하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4.6%

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 시점간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 $\bar{Q}$ )과 2010년의 사용량 증가율은 두 시점간의 경제성장률, 소득 및 소비증가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계수인 ( $R_t$ )을 계산하여 이를 조정하였다. 1999~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R_t$  값은 0.867이며, 2004~2007년 자료를 이용한 경우 0.941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구해진  $R_t$  값과 앞서 구한 ( $\bar{Q}$ ) 및 물가상승률 등을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2011년 최저생계비를 구할 수 있다.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bar{Q} \cdot R_t)$$

기준연도의 시점과 조정계수 사용을 달리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2011년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을 추정하면 각 방식의 차이에 따라 4.3%~4.6%로 나타난다.

〈표 8-2-4〉 추정모형 및 적용기간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률

구분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bar{Q}_i \cdot R_t)$ 방식		$PL_{ijt} = PL_{ijt-1} \times (1 + P_t) \times (1 + \bar{Q}_t)$ 방식	
사용자료	1999-2007	2004-2007	1999-2007	2004-2007
$P_{2011}$	0.034	0.034	0.034	0.034
$\bar{Q}$	0.010	0.012	0.010	0.012
$R_{2011}$	0.867	0.941	-	-
인상률	4.3%	4.6%	4.4%	4.6%

각각의 추정모형의 중 조정계수가 있는 모형은, 어떤 자료(예, GDP, GNI 등)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추정연도의 성장률 예측치가 실제와는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사용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계수가 있는 모형이 보다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용시점의 경우 사용량( $\bar{Q}$ ) 변화분을 추정하기 위한 적용시점은 2004~2007년의 사용량 변화보다는 1999~2007년의 사용량 변화가 비교적 장기간의 추세가 반영되므로 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4.3%으로 반영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1,478,953원으로 추정된다.

〈표 8-2-5〉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sup>1)</sup>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최저생계비	547,213	931,740	1,205,347	1,478,953	1,752,559	2,026,166

주: 1) 가구균등화지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 3. 수준균형방식

수준균형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준년도 최저생계비와 지출금액의 비율, 2011년도 지출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먼저 가장 최근의 계측년도인 2007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인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및 가계지출간의 상대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가계지출은 39.8%, 중위가계지출은 45.1%로 추정되었다. 또한 소비지출의 경우 평균은 51.2%, 중위는 58.4%로 추정되어 소비지출과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8-2-6〉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출과의 비율

(단위: 원)

기준지표	금액(A)	2007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B)	비율 (B/A*100)
2007년 평균가계지출	3,095,093	1,232,569	39.8%
2007년 중위가계지출 <sup>1)</sup>	2,731,890	1,232,569	45.1%
2007년 평균소비지출	2,405,328	1,232,569	51.2%
2007년 중위소비지출 <sup>2)</sup>	2,109,391	1,232,569	58.4%

주: 1), 2) 중위값(가계지출, 소비지출)은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원자료 중 농어촌은 제외한 4인 가구를 SAS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2008), 「가계동향조사」.

두 번째로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 최저생계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가계의 지출금액이 존재해야 하나, 이는 미래의 값이므로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과 가계지출이 일정한 추이를 갖는다는 전제 하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1982~2009년 동안의 가계지출과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의 각 지출의 평균과 중위값을 추정하였다. 추정은 시계열 예측 기법인 ARIMA(Autoregressive intergated moving average)모형과 ARMAX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 with exogenous inputs)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2011년 각 지출의 값에 2007년 지출과 최저생계비의 비율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표 8-2-7〉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ARIMA)

(단위: 원)

기준지표	금액(C)	2007년의 상대적 비율(D)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치(C*D)
2011년 평균가계지출	3,604,198	39.8%	1,434,471
2011년 중위가계지출	3,172,558	45.1%	1,430,824
2011년 평균소비지출	2,797,189	51.2%	1,432,161
2011년 중위소비지출	2,433,654	58.4%	1,422,044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1982-2009년도 (통계청 KOSIS 자료)를 이용하여 STATA로 ARIMA 추정한 값이다.

〈표 8-2-8〉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ARMAX)

기준지표	금액(C)	2007년의 상대적 비율(D)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치(C*D)
2011년 평균가계지출	3,733,084	39.8%	1,485,767
2011년 중위가계지출	3,270,787	45.1%	1,475,125
2011년 평균소비지출	3,094,827	51.2%	1,584,551
2011년 중위소비지출	2,501,243	58.4%	1,461,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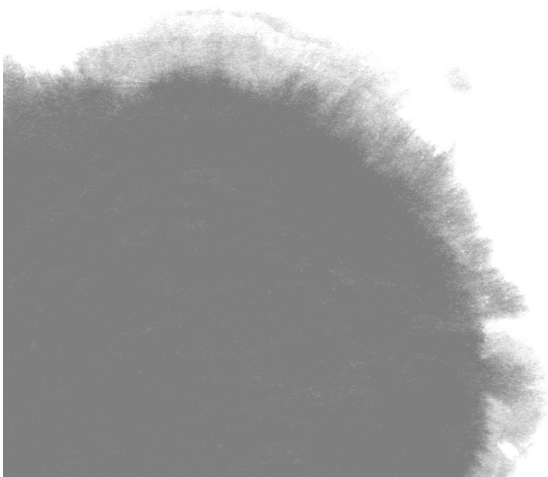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1982-2009년도 (통계청 KOSIS 자료)를 이용하여 STATA로 ARIMA 추정한 값이다.

먼저 ARIMA로 추정된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의 금액보다 ARMAX로 추정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ARMAX가 외부 충격이 있던 1998년과 2009년의 지출을 Dummy로 처리하여 추정한 것에 기인한다. ARIMA로 추정된 지출에 2007년의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평균가계지출은 1,434,471원, 중위가계지출은 1,430,824원으로 나타났다. ARMAX 추정 값에 동 비율을 적용하면 평균소비지출은 1,584,551원, 2011년 중위소비지출 1,461,538원으로 나타났다.

수준균형방식의 경우 2011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2011년 추정치를 사용하였으므로, 추정값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ARIMA추정값과 ARMAX 추정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준균형방식은 계측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추정방식이라기 보다는 계측방

식이므로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방식 및 기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 제9장 2010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 제1 절 상대적 방식의 의의 및 빈곤선 측정방법

#### 1. 상대적 방식의 배경

상대적 방식이 도입된 배경은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 빈곤선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초한 전물량 방식(또는 라운트리 방식, 기본욕구 접근법, 예산기준방식)은 ‘최저생계수준’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최저 생존수준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결국 빈곤의 개념은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의 전반적인 통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빈자들의 생활수준 자체뿐만 아니라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상대적 위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절대적 빈곤 개념이 가지는 주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이정우, 1991).

두 번째, 빈곤의 상대성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 때문이다. Townsend는 1974년 절대적 수준에 입각한 빈곤의 개념을 비판하고 빈곤 개념의 상대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기본욕구조차도 상대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은 사회규범과 경제적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특정한 장소와 특정 시점에서만 대답되어질 수 있는 질문이다. 또 하나는,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는 어떠한 빈곤 개념도 또한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들은 특정 사

회규범과 태도를 체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Townsend는 절대적 욕구(absolute needs)라는 개념 대신 ‘필요의 사회적 결정’(social determination of needs)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 빈곤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 2. 상대적 방식의 빈곤선 측정방법

상대적 빈곤선은 상대적 비율방식과 박탈지표방식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측정된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수준 또는 사회적인 기본적 욕구(social basic needs)가 합의되기 어렵다는 Townsend(1974)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또는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상대빈곤을 정의하였다. 즉, 상대적 빈곤이란 그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지출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이는 소득 혹은 지출 등의 일정비율을 빈곤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 Townsend(1979)가 제기한 박탈지표 방식(또는 생활양식 접근법)도 상대적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 박탈지표 방식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또는 활동이 결핍된 정도를 통해 빈곤을 판단하는 방식을 말한다.

먼저, 상대적 비율 방식은 평균 혹은 중위가구 소득 혹은 지출의 몇 % 이하에 해당하느냐에 의해 빈곤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상대적 비율방식은 빈곤과 불평등과 관련된 국제비교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널리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 중위소득의 40%, 50%, 60%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World Bank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가구소득의 1/3, 선진국의 경우 평균가구소득의 1/2 등을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EU 통계 기관 Eurostat는 각 국가에서 중위 소득 60%를 한계로 EU 회원국 소득 빈곤 수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Fuch, Townsend, Rainwater 등)이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하고 있다.

〈표 9-1-1〉 주요기관 및 연구자들의 상대빈곤선

주요 기관 및 연구자	상대빈곤선
OECD	중위 가구소득의 40, 50, 60%
EU	중위소득의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 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가구소득의 1/2
V. 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빈곤층은 평균가구 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자료: 김미곤(1997. 10),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상대적 비율방식의 빈곤선을 국가의 공식적 혹은 준공식적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일본, 영국, 호주 등이다. 일본은 1984년부터 생활보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수준균형방식, 즉 일반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로 정하고 있다. 영국의 빈곤과 관련된 국가보고서라 할 수 있는 『Household Below Average Income』 시리즈에서도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하고 있다. 호주의 헨더슨 빈곤선도 기준연도(1973년) 이래로 분기당 가구원 1인당 가처분소득 변화를 빈곤선에 반영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빈곤선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은 최저임금 혹은 총임금의 변화분을 반영하여 공식적 빈곤선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방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표 9-1-2〉 상대적 비율방식을 이용한 (준)공식빈곤선

주요 기관 및 연구자	상대빈곤선
일본	일반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
영국	중위소득의 60%
호주	가구원 1인당 가처분소득 변화 반영
네덜란드	순최저임금 변화 반영
룩셈부르크	총최저임금 변화 반영
덴마크	총임금 변화 반영

다음으로, 박탈지표 방식은 기존에 빈곤선 계측방식으로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는 전물량 방식이나 반물량 방식이 주로 가계의 지출항목에 의존해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데 비해, 가구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빈곤선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빈곤선 계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득은, 첫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결과 즉 생활수준이 아니라 자원에만 관련이 된다는 의미에서 빈곤의 간접적 측정치이며, 둘째, 현재 소득은 특정 시점에서의 금전적 유입으로 정의되고 이는 신체적 자산이나 저축 같은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이 무시됨을 의미하고, 셋째, 소득 데이터는 특히 소득분포의 양 끝 지점에서 측정오류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빈곤선을 계측하기 위한 자료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박탈지표는 소득측정치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박탈항목들은 물질적 재화나 사회활동 같은 항목들의 ‘강제된 결핍’을 직접적으로 봄으로써 생활수준을 측정하는데 목표를 두며, 둘째, 박탈지표들은 현재 소득보다 ‘지속성’을 측정하기에 더 유리하다.

박탈지표방식은 타운센트(1979)의 『영국의 빈곤』(Poverty in United Kingdom)에서 소개한 이후 맥과 랜슬리(Mack and Lansley, 1985), 타운센트와 고든(Townsend and Gordon, 1989), 메이어와 젝스(Mayer and Jencks, 1988), 머펠과 브라이언(Muffels and Vrien), 놀란과 웰란(Nolan and Whelan, 1996), 칼란드리노(Calandrino, Michele, 2003), 페레즈-마요(Pérez-Mayo, 2003), 손더스(Saunders, 2004)등에 의해 비판적으로 발전되고 정교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탈지표 접근방식은 항목선택의 자의성 문제, 욕구의 변화를 반영하는 문제, 소득수준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빈곤선으로는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보조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비율 방식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측정하고자 한다.

## 제2절 상대적 비율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 1. 4인 가구 상대빈곤선 계측모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 비율 방식에 의한 상대빈곤선은 소득 및 지출의 일정비율이다. 그러므로 상대 방식은 개념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빈곤선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하는 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구유형별 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도 상대방식으로 계측되어야 한다. 만약 지역별, 가구규모별, 점유형태별, 가구유형별 실태조사 자료가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대적 비율이 있다면 상대 방식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점유형태별로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그룹별 유효 표본을 확보한 소득 및 지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우선 4인가구의 상대빈곤선을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산출한다.

$$\bullet \quad PL_{4t} = Y_{4t} \times \alpha \quad \text{또는} \quad PL_{4t} = Y_{4t} \times \alpha \pm \beta.$$

$PL_{4t}$ : 기준연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Y_{4t}$ : 기준연도 4인가구의 소득(또는 지출)의 추정치 또는 과거 몇 년간의 실적치  
 $\alpha$ : 상대적 비율  
 $\beta$ : 물가상승률, 지출 또는 소득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변수

### 2. 지역별 가구규모별 상대빈곤선 계측모형

가구규모별 상대빈곤선 계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첫째,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상대방식으로 결정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상대방식의 기본개념에 따라 가구규모별 기준지표( $Y_{it}$ )를 결정한 후

상대적 비율( $\alpha$ )을 곱하는 방식이다. 즉,  $PL_{it}=Y_{it}\times\alpha$ .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은 최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지표( $Y_{4t}$ )의 인상률이 4%이고, 1인 가구 기준지표( $Y_{1t}$ )의 인상률이 2%이라면, 상대적 비율( $\alpha$ )이 고정될지라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최저생계비보다 인상률이 2배로 높아진다. 이는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첫 번째 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4인가구 최저생계비  $\times$  가구균등화지수’로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 이유는 가구규모별이라는 변수에 지역이라는 변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과 동일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즉,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지역별 4인가구 최저생계비  $\times$  가구균등화지수’로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절 기준지표 및 상대적 비율

#### 1. 기준지표 및 기준시점

##### 가. 기준지표

상대적 비율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지표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어느 기관에서 생산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전국 통계치를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가 가장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기준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근로자가구 자료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가구 자료를 이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근로자 가구와 전가구의 지출 및 소득 등을 발표하고 있다. 양자 간의 흐름은 비슷하지만, 특정 연도의 구체적인 인상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근로자 가구 통계이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안정적이며, 데이터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 시계열 분석에 유리하다 예컨대, 소득 및 지출 원자료는 1982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반면, 전가구의 경우 지출은 1982년부터 공개하고 있으나 소득은 200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전가구라고 하지만, 농어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가구도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 가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출과 소득의 추세치는 비슷하다. 그러나 특정 연도의 구체적인 인상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소득보다는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최저생계비가 비목별 최저 지출의 합계라는 점이다. ②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가구의 저축수준이 최저생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③ 일반적으로 소득보다는 지출이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사회적 제도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도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수준균형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의 추세치는 앞에서 논의한 소득과 지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비슷하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엄밀성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기준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최저생계비의 구성은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식료품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과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등의 비소비지출의 합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가계지출과 소비지출 중에서는 가계지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중위값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푯값에는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이 있다. 그러나 빈곤 및 공공부조에서는 주로 중위값이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론

적인 측면에서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outlier)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기적인 표본 대체과정에서 중위값이 평균값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푯값은 중위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기준지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sup>116)</sup>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을 적용하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 나. 기준시점

상대적 비율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지표의 문제와 함께 기준지표의 기준시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즉, 어느 시점의 기준지표를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기준시점이란 실적치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치를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생계비 발표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②항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9월 1일 전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식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계측 당해연도인 2010년의 실적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2010년의 실적치는 통계청에서 2011년 5월 경에 발표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측연도인 2010년 기준지표를 적용할 경우에는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정치는 다양한 통계기법으로 산출이 가능하나, 추정모형, 분석자료 및 분석자료의 투입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산출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 그 이유는 계측대안 모색의 관점 중의 하나인 합의하여야 할 지표수가 적은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편, 실적치(2009년까지의 실적치)의 경우 상기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추정치를 적용한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적치와 추정치 중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라도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실적치보다 높은 수준인 추정치를 적

116) 현실적으로는 어떤 지표를 기준지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추정된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고 기준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용할 경우 상대적 비율이 낮아지고,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인 실적치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 기본모형의 공식에 대입하면 유사한 결과가 산출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적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실적치를 사용하는 경우 1개년도 실적치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n개년도 실적치를 사용하느냐를 결정하여야 한다. 1개년도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급격한 경기변동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경제 위기시인 1998년 도시 전가구(4인가구) 가계지출은 약 9.6%, 소비지출은 12.0% 하락하였다. 반면 1999년의 경우 각각 13.9%, 13.8% 증가하였다. 이 경우 상대 빈곤선 개념을 적용하면, 1998년 최저생계비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1999년의 최저생계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반대로 기준시점을 과거 5년이나 10년으로 할 경우 보다 먼 과거의 지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므로 최저생계비의 시의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과거 3개 연도의 실적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3개 연도의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 수 있고, 실적치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되며, 추정치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논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과거 3개 연도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상대적 비율

상대적 비율은 상대방식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상대적 최저생계비는 ‘기준지표 × 상대적 비율’로 산출되는데, 앞에서 기준지표 및 기준시점은 ‘과거 3년간의 4인가구 중위 가계지출의 평균’이 바람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유도하였으므로, 상대적 비율만 결정되면 상대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다.

동 비율은 원칙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며, 동 비율은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어야 할 상대적 비율을 연구진이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요구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앙생

활보장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상대적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상대적 비율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연구진이 가장 바람직하고 판단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적 비율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상대적 비율에 대한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첫째, 상대적 개념에 의한 상대적 비율 산출이다. 둘째, 과거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증가 추세치를 적용한 비율 산출이다. 셋째, OECD 상대 빈곤개념 적용에 의한 비율 산출이다. 넷째, 기타 방식(식료품비 비율방식, 주관적 방식 등)에 의한 상대적 비율 산출이다.

#### 가. 상대적 개념에 의한 상대적 비율 산출

동 방식의 기본취지는 상대적 개념을 적용하여 상대적 비율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 방식은 ARIMA, ARMAX 추정에서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친다. 먼저 회귀분석(예, ARIMA, ARMAX)으로 2010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을 추정하고<sup>117)</sup>, 다음으로 동 금액에 2007년 최저생계비 대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비율인 45.1%를 곱한 ‘최저생계비 추정치(이하 A)’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A와 ‘과거 3년(2007~2009년)간의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이하 B)’의 비율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율이 바로 상대적 비율이다.

여기서 먼저 ARIMA(Dummy 미적용)로 산출된 상대적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ARIMA로 추정된 2010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액(E4med)은 3,070,356원<sup>118)</sup>이다. 동 금액에 2007년 최저생계비 대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비율인 45.1%를 곱한 ‘최저생계비 추정치(A)는 1,385,277원이 된다. 동 금액과 과거

117) 앞의 기준지표에서 추정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대적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불가피하게 시도하였다.

118) 사용자료는 통계청 근로자 4인 가구 중위가계지출 분기자료(1982~2009)이며, ARIMA(3,1,3) 추정결과( $EXP_t$ )는 다음과 같다.

$$EXP_t = 25550.85 - 0.95EXP_{t-1} - 0.96EXP_{t-2} - 0.97EXP_{t-3} + \epsilon_t$$

(5.41)            (-18.45)            (-24.44)            (-30.09)

3년(2007~2009년)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액(B) 2,872,526원<sup>119)</sup>의 비율 0.482251이 구하고자 하는 상대적 비율이다. 만약 동일한 방식으로 2004년 상대적 비율 46.8%를 적용하면, A는 1,437,280원, 상대적 비율은 0.500354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2007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ARMAX(경제위기 때인 1998년과 2009년은 Dummy 적용)로 산출된 상대적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ARMAX로 추정된 2010년 근로자가구 4인가구 중위 가계지출액(E4med)은 3,165,432원<sup>120)</sup>이다. 동 금액에 2007년 최저생계비 대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비율인 45.1%를 곱한 ‘최저생계비 추정치는 1,428,174원이 된다. 동 금액과 과거 3년(2007~2009년)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액(B) 2,872,526원<sup>121)</sup>의 비율 0.497184이 구하고자 하는 상대적 비율이다. 만약 동일한 방식으로 2004년 상대적 비율 46.8%를 적용하면, A는 1,481,787원, 상대적 비율은 0.515848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2007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동 방식은 상대빈곤 개념을 적용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① 가계지출 추정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IMA, ARMAX로 추정을 하였으나, 다른 회귀분석 방법으로 가계지출을 추정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ARIMA, ARMAX로 추정할 경우도 자료의 투입연수를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ARIMA의 경우 최근 자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009년 낮은 가계지출의 영향이 2010년 가계지출 추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는 ARIMA 분석을 내년에 한다면 올해의 높은 가계지

$$+0.70\epsilon_{t-1} \quad 0.88\epsilon_{t-2} \quad +0.79\epsilon_{t-3} \\ (7.54) \quad (9.60) \quad (9.46) \quad (\text{Prob}>\chi^2=0.0000. ( ): z값)$$

119) 부록 6 참조

120) 사용자료는 통계청 근로자 4인 가구 중위가계지출 분기자료(1982~2009)이며, ARMAX(3,1,1) 추정결과(EXP<sub>t</sub>)는 다음과 같다.

$$\text{EXP}_t = 26387.55 \quad -1.05\text{EXP}_{t-1} \quad -0.53\text{EXP}_{t-2} \quad -0.43\text{EXP}_{t-3} \quad +\epsilon_t \\ (8.08) \quad (-9.70) \quad (-4.66) \quad (-4.37) \\ +0.68\epsilon_{t-1} \quad +81749.93D \\ (5.69) \quad (2.77) \quad (\text{Prob}>\chi^2=0.0000. ( ): z값)$$

121) 부록 6 참조

출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2007년 최저생계비 대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비율 45.1%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계층연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비율은 1999년 57.8%, 2004년 46.8%, 2007년 45.7%이다. 여기서 가장 낮은 2007년 45.7%를 적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최저생계비 증가 추세치 적용한 상대적 비율 산출

동 방식의 기본취지는 최저생계비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이다. 최저생계비 계층방식 변경으로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높거나 낮다면 이는 현실 적용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최저생계비 증가 추세치를 반영하여 상대적 비율을 구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친다. 먼저 2007년 계층된 최저생계비의 2006년 적용 최저생계비 대비 증가율( $r$ ) 산출한다. 다음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도 2009년 적용 최저생계비 대비 ( $r$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2010년 최저생계비 추정치( $C$ )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C$ 와 ‘과거 3년(2007~2009년)간의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 $B$ )’의 비율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율이 바로 상대적 비율이다.

동 방식으로 상대적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 계층된 4인가구 최저생계비(1,232,569원)는 2006년 4인가구 적용 최저생계비(1,170,422원) 대비 5.3%(0.053097942) 증액된 금액이다. 2009년 적용 4인가구 최저생계비(1,326,609원)에 5.3%(0.053097942)를 적용하면 2010년 추정치는 1,397,049원( $C$ )이 산출된다. 동 금액과 ‘과거 3년(2007~2009년)간의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 $B$ )’의 비율은 0.486349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상대적 비율이다.

하지만, 동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① 상대적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방식인 전물량 방식의 상승률( $r$ )을 적용하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② 상승률(r)의 경우 2003년 적용 최저생계비와 2004년 계측 최저생계비와의 상승률과 2006년 적용 최저생계비와 2007년 계측 최저생계비 간의 상승률이 다르다. 이 경우 어떤 상승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 다. OECD 상대빈곤선 개념 적용 상대적 비율 산출

동 방식의 기본취지는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대적 비율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표 9-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기관 및 국가들의 상대빈곤선은 다양하나,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OECD 기준(중위 경상소득 40%)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동 방식으로 상대적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회귀분석(예, ARIMA, ARMAX) 으로 2010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경상소득’을 추정하여야 한다. 기준지표로 소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잠정결론을 내렸으나, OECD 기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소득 추정이 필요하다. 둘째, 동 금액에 OECD 상대빈곤선 40%를 곱한 최저생계비 추정치(이하 D)를 산출한다. 셋째, D와 ‘과거 3년(2007~2009년)간의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이하 B)’의 비율을 산출한다.

여기서 먼저 ARIMA(Dummy 미적용)로 산출된 상대적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ARIMA로 추정된 2010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소득은 가계지출액(E4med)은 3,801,129원<sup>122)</sup>이다. 동 금액에 OECD 상대빈곤선 40%를 곱하면 ‘최저생계비 추정치(A) 1,520,452원이 산출된다. 그리고 동 금액과 과거 3년(2007~2009년)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액(B) 2,872,526원의 비율을 구하면 0.529308273이 산출된다.

다음으로 ARMAX(경제위기 때인 1998년과 2009년은 Dummy 적용)로 산출된 상대적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ARMAX로 추정된 2010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소득은 3,910,953원이다. 동 금액에 OECD 상대빈곤선 40%를 곱하면 ‘최저생계비 추정치 1,564,381원이 산출된다. 그리고 동 금액과 과거 3년(2007~2009년)간 4인

122) 사용자료는 통계청 근로자 4인 가구 중위 소득 분기자료(1982~2009)이다.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액(B) 2,872,526원의 비율을 구하면 0.544601296이 산출된다.

동 방식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상대빈곤은 주로 국제비교 연구 등에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공공부조제도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ARIMA, ARMAX 추정의 한계가 있다.

#### 라. 기타 방식에 의한 상대적 비율 산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적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식료품비 비율방식 및 주관적 방식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 추정치를 산출한 후 산출된 최저생계비와 ‘과거 3년(2007~2009년)간의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이하 B)’의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먼저,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상대적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2010년 Leiden 방식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치는 1,521,795원으로 추정된다. 동 추정치와 과거 3년(2007~2009년)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액(2,872,526원)과의 비율은 0.529775887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식료품비 비율방식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상대적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식품비 비율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치는 1,386,288원이다<sup>123)</sup>. 동 추정치와 과거 3년(2007~2009년)간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 평균액(2,872,526원)과의 비율은 0.482602420으로 나타난다.

#### 마. 상대적 비율에 대한 소결

앞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상대적 비율을 산출해 보았다. 추정된 상대적 비율의 범위는 0.482250623~0.544601296이다.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대적 비율은 0.474526949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3) 이에 대해서는 9장 1절 참조바랍니다.

〈표 9-3-1〉 방식별 상대적 비율

구분	3년 평균 4인가구 중위 가계지출(2007~2009)	상대적 비율
2010년 적용 최저생계비	2,872,526	0.474526949
상대적 개념 1 (2007년 상대적 비율+ARIMA)	2,872,526	0.482250623
과거 추세치 반영	2,872,526	0.486348673
식료품비 비율 방식	2,872,526	0.491848232
상대적 개념 2 (2007년 상대적 비율+ARMAX)	2,872,526	0.497183895
상대적 개념 3 (2004년 상대적 비율+ARIMA)	2,872,526	0.500354072
상대적 개념 4 (2004년 상대적 비율+ARMAX)	2,872,526	0.515847931
OECD 기준 1 (중위소득 40%기준+ARIMA)	2,872,526	0.529308273
주관적 방식(Leiden)	2,872,526	0.539255756
OECD 기준 2 (중위소득 40%기준+ARMAX)	2,872,526	0.544601296

다양한 상대적 비율 중에서 바람직한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적용하였다. 첫째, 상대적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관점이다. 상대적 개념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 개념을 적용한 상대적 비율이다. <표 9-3-1>의 상대적 개념 1과 상대적 개념 2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계측수준의 정합성 측면이다. 계측방식의 변경으로 기존 계측된 최저생계비 수준과의 안정성이 손상되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상대적 비율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2007년을 기준으로 상대적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가계지출이나 소득의 추정에 사용된 ARIMA와 ARMAX간의 비교우위의 문제이다. ARIMA 추정의 경우 경제위기의 상황을 추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ARMAX 추정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ARIMA와 ARMAX 추정에 있어서는 ARMAX 추정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상대적 개념 반영여부, 계측수준의 안정성, 추정모형의 타당성을 고려하면, 상대적 개념 2의 추정치 0.497183895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2007년 기준으로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추정모형이 ARMAX 추정이며, 상대적 개념이 반영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 비율의 결정은 연구자의 몫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몫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상대적 비율의 범위를 0.486348673 ~ 0.497183895로 제시한다. 동 범위의 하한이 지니는 의미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상한은 연구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비율이다.

#### 제4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대적 최저생계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상대적 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상대적 비율의 범위(0.486348673 ~ 0.497183895) 모두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시한다.

과거 3년 평균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은 2,872,526원이다. 여기에 과거 추세치를 적용할 경우의 최저생계비는 1,397,049원이 된다. 그리고 식료품비 비율 방식을 산출된 상대적 비율을 적용할 경우의 최저생계비는 1,412,847원으로 계측되며, 연구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상대적 비율을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는 1,428,174원이 된다.

〈표 9-3-2〉 상대적 비율 적용에 따른 2010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상대적 비율	3년 평균 4인가구 중위 가계지출(2007~2009)	4인 최저생계비 추정치
2010년 적용 최저생계비	0.474526949	2,872,526	1,363,091
과거 추세치 반영	0.486348673	2,872,526	1,397,049
식료품비 비율 방식 <sup>1)</sup>	0.491848232	2,872,526	1,412,847
상대적 개념 2 (2007년 상대적 비율+ARMAX)	0.497183895	2,872,526	1,428,174

주 1) 식료품비 비율방식으로 2009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2010년 추정은 2007년 최저생계비 1,232,569원과 동 방식에 의한 2009년 최저생계비 추정치 1,350,000간의 연평균 상승률 0.046553089를 적용



## 제10장 2010년 기타 방식 최저생계비

### 제1 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1. 반물량 방식의 의의

##### 가. 반물량 방식의 역사적 배경

반물량 방식은 이론적으로 산출한 최저 식료품비에 앵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Orshansky 연구(1963)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의 Mollie Orshansky는 1963년 Social Security Bulletin에 빈곤 측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산정방식은 최소한의 식료품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최저식료품비<sup>124)</sup>를 산정한 후 여기에 3배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바 있다<sup>125)</sup>. 이후 1965년 Johnson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빈곤에 대한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소위 Orshansky 방식은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기준선(PT)으로 활용되었다.

124) 최저생계식비안(Economy Food Plan)은 농무부에서 비상시 또는 예상치 못한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영양학자들이 제안한 식단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으로서, 한 개인이 최소한으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영양학자들이 제안한 네 가지 수준의 식단안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이다. 1993년 Orshansky에 의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식품계획을 택한 이유는 정부 및 보수적인 측면에서 ‘너무 관대한 빈곤선’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125) 승수로써 ‘3’을 곱하는 이유는 1955년 미국의 농업부가 수행한 가계식료품소비조사(Household Food Consumption Survey)에서 미국의 평균가구가 세후소득의 약 30%를 식료품에 지출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3’이란 승수는 1950년대의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1990년대 들어 미국 평균가구가 식료품지출에 약 1/7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참조,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1998: 2).

또한 1969년부터 빈곤기준선(PT)은 미국의 통계청(Census of Bureau)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CPI-U)을 반영하여 매년 10월에 발표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의 빈곤율 측정과 빈곤층 추이 파악 등의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나. 반물량 방식의 기본개념

전물량 방식의 한계를 줄이고자 하는 개발된 방식이 반물량 방식이다. 전물량방식이 생활에 필요한 전 품목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반면에 반물량 방식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식료품비를 중심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결국 반물량 방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비목 중 10개 비목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작성하지 않아도 최저생계비 산출이 가능하므로 10개 비목에 해당되는 마켓 바스켓 구성 시 연구자의 자의성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 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 Orshansky 모형
-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Food-ratio Method)

## 2.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및 수준

### 가. Orshansky 모형(기본 모형)

반물량 방식은 영양학자들이 제시하는 영양권장량을 바탕으로 최저식료품비를 이론적으로 산출한 후 엔겔계수(저소득층 평균소득·엔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소득층 평균소득·식료품비 비율은 소득분위를 구분한 후 분위의 평균적인 비율을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산출하거나, 전기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대비 식료품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Orshansky 모형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모형<sup>126)</sup>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최저생계비 = 2010년 최저식료품비 × 2009년 식료품비 비율의 역수(Y/Cf)  
단, Y는 경상소득, Cf는 식료품비임.

먼저 최저식료품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최저식료품비(연구진안, 4인가구 기준)를 적용하였다. 또한 2009년 식료품비 비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본모형에 의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계층의 식료품비 비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식료품비 비율을 적용한 최저생계비 추정값을 제시한다.

〈표 10-1-1〉 기본모형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4인가구	4인가구	4인가구	4인가구	4인가구
	전체	하위1분위 <sup>1)</sup>	하위2분위	하위3분위	하위4분위
경상소득(Y)	4,494,460	1,651,854	2,036,257	2,338,854	2,604,345
식료품비(Cf)	813,593	561,077	604,439	634,465	662,558
Cf/Y	0.18	0.34	0.30	0.27	0.25
Cf/Y(%)	18.10%	33.97%	29.68%	27.13%	25.44%
2010최저식료품비 (연구진안)	545,943	545,943	545,943	545,943	545,943
2010최저생계비 (추정치)	3,015,906	1,607,298	1,839,193	2,012,533	2,145,962

주: 1) 10분위 중 1분위를 말한다.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10최저식료품비(연구진안)」.

위 추정결과를 전물량방식에 의한 중소도시 전세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연구진안) 1,417,980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물량방식 추정치 < 하위 1분위 식료품비 비율 적용 추정치

126) 기본모형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출은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2010년 연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2010년 자료는 ARIMA 등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추정치의 불안정성을 피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실측치 비율을 적용하였다. 실측치 비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 3년(2007~2009) 또는 과거 2년(2008~2009) 등의 실측치 비율 적용도 가능하다.

## 나.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Food-ratio Method)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은 Watt(1965)가 제안하고, Deaton-Muellbauer(1980), Van Praag(1982)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방법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앵겔 법칙을 이용하여 최저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앵겔 계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sup>127)</sup>하는 방법을 말한다. 동 방식은 앞에서 열거한 모든 반물량 방식들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저식료품비를 이론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동 방식은 별도의 최저식료품비 산출 없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가장 적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에서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 및 최저생계비 산출공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식료품비 앵겔함수:  $\ln C_0 = a_0 + a_1 \times \ln y$  ..... ①  
( $C_0$ 는 식료품비,  $y$ 는 소득)
- ① 식을 정리하면  $(\bar{C}_0/y) = \text{Exp} \{ \ln C_0 - \ln y \}$   
 $= \text{Exp} \{ a_0 + (a_1 - 1) \ln y \}$  ..... ②
- ② 식의 좌변에 목표 앵겔계수( $r$ )를 넣고, 양변에  $\ln$ 를 취하면,  
 $\ln r = a_0 + (a_1 - 1) \ln Y$  ..... ③
- ③ 식에서 목표앵겔계수( $r$ )에 상응하는 소득이 바로 최저생계비가 된다.  
 $Y = \text{Exp} \{ (a_0 - \ln r) / (1 - a_1) \}$

위 수식을 활용한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법은 목표 앵겔계수 값의 변동유무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목표 앵겔계수가 변하는 경우로 추정하는 경우가 좀더 개선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앵겔계수가 변한다고 가정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도록 한다. 식료품비 앵겔함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07, 2009)를 활용하여 구하였다.

127) 이러한 측면들은 상대적 방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동 방식을 반물량 방식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식료품비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추정방법 (목표 앵겔 계수가 변하는 경우)
- ① 2007년 전국가계조사로부터 식료품비 앵겔함수를 추정한다.
  - ② ①의 추정 계수와 2007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목표앵겔 계수( $r_1$ )값을 산출한다.  
※ 목표 앵겔계수( $r_1$ )에 상응하는 소득순위( $rp$ ) 추정한다(추정방법: 앵겔 계수= $f$ (경상소득)). 소득순위는 백분율로 산출한다.
  - ③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식료품비 앵겔함수를 추정한다.
  - ④ ③의 추정결과에 목표앵겔 계수( $r_2$ ) 투입하여 2009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 ( $r_2$ )의 산출은 2009년 자료를 이용한 앵겔계수와 경상소득간의 회귀분석 추정식에 소득순위( $rp$ )를 대입하여 산출한다.
  - ⑤ ④의 추정결과에 2009-2010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목표 앵겔계수가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를 추정<sup>128)</sup>한 결과 1,412,847원으로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연구진안) 1,417,980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0-1-2〉 식료품비 비율모형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

구 분	최저생계비(원)	07년			09년		
		$r_{2007}$	경상소득	분위수	6.62분위 경상소득	$r_{2009}$	$\ln(r_{2009})$
2009년 추정치	1,350,000	37.3%	1,232,569	6.62분위	1,350,000	37.3%	-0.987
2010년 추정치	1,412,847						

주: 1) 2010년 최저생계비 추정치 = 2009년 추정치 × 2007년 최저생계비 대비 2009년 추정치 간 평균상승률<sup>129)</sup> (0.046553089≒4.66%).

자료: 통계청(2007, 2009), 「가계동향조사」.

### 3. 반물량 방식의 쟁점 및 한계

반물량 방식의 쟁점 및 한계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최저 식료품비 산정에서의 한계이다. 기본모형, 비목별 지출함수 모형, 총지출함수 모형의 경우 최저식료품비 산출하여야 한다. 최저 식료품비는 영양학자들이 제시하는 영양권장량

128) 자료분석시 이상치 제거는 LIS에서 제안하는 방법(Top-bottom cod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방향의 극단치(균등화되지 않은 중위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10\*균등화된 중위소득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방향의 극단치(균등화된 평균소득의 0.01배 미만인 경우)는 0.01\*균등화된 평균소득으로 값을 변환하여 분석하였다(topcoding at ten times unequivalized median, bottomcoding at one percent equivalized mean).

129) 2007년 최저생계비와 2009년 계측액을 기준으로 비계측연도에는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그 평균증가율을 09년 추정치에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비계측연도 추정치에도 생활의 질 변화가 포함된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을 기준으로 실태를 반영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가치관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앵겔 계수의 한계이다. 기본모형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앵겔 계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계층의 Engel 계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상 한계이다.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의 경우 실태자료를 이용하여 2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귀분석은 해석상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경우 추정값과 실제간의 편의(bias)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다.

##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1. 주관적 방식의 의의

통상 빈곤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기준을 사용하면, 절대적 빈곤,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의한 빈곤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결핍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지만 빈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결핍상태가 아니지만 스스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의 생활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도외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빈곤을 규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또한, 빈곤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기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빈곤이 달리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 기준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혹은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정할 때, 어떤 근거에서 그 비율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빈곤이라는 것은 개인의 복지(welfare)에 대한 것이므로 본인 스스로의 느낌과 평

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Hagenaars, 1986). 따라서, 기존의 객관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빈곤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를 반영하는 접근법으로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이 있다.

1970년대 Kilpatrick, Rainwater, Goedhart, van Praag, Hagenaars, Kaptyen 등은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주관적 방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자신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문가들 간의 이견이나 자의성 측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주관적 접근방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실태에 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느낌 내지 평가를 어떻게 빈곤 개념에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생활 실태에 관한 사회일반의 의견을 빈곤의 개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의견을 직접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빈곤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주관적 응답결과를 토대로 빈곤을 정의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이다.

## 2. 주관적 방식 계측모형 및 수준

### 가.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은 ‘제3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과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제3자적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은 KilPatrick(1973)과 Rainwater(1974)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이 사용한 방식은 1974년 Rainwater가

1946년부터 1969년까지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Rainwater(1974)가 갤럽 여론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과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과의 관계는 최저 46%에서 최고 58%, 평균 52%로 양자 간의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대중들이 생각하는 빈곤선의 수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계측한 최저생계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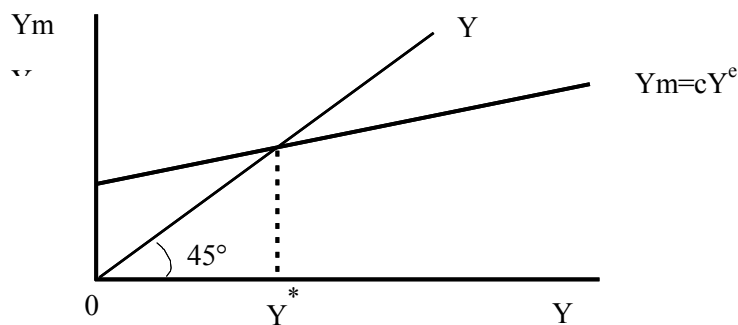
## 2)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방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때는 포함시키게 되는 여러가지 요소들<sup>130)</sup>을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평가할 경우에는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자기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한 최저소득을 물어보는 유형의 질문을 사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Goedhart et al(1977)에 의해 사용되었고 이것은 여러 연구에서 적용되었다<sup>131)</sup>.

이 접근방법은 주로 van Praag 등 네덜란드의 라이덴(Leyden) 대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 방식에 의한 빈곤선 추정을 ‘라이덴 방식’, 이에 따른 정의를 ‘라이덴 빈곤선 정의’라고 칭한다.

[그림 10-2-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130) 여기에는 생활비용을 증가시키는 것과 감소시키는 것 모두 포함 가능하다.

131) van Praag, Goedhart, and Kapteyn(1980); van Praag Hagenaars, and van Ween(1982); van Praag, Spit, and van de Stadt(1982); Danaiger et al(1984); Colanto, Kapteyn, and van der Gaag(1984)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계비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소득보다 높게 응답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소득보다 낮게 응답하게 되는데, 이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계비와 일치하는 소득을 최저생계비로 본다. 따라서, 이 교차점의 소득수준( $Y^*$ )은 사회구성원 각자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기에 빠듯한 사람(빈곤)과 그렇지 않은 사람(비빈곤)을 구분하는 기준, 즉 주관적 빈곤선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 나.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을 다음과 같다.

$$- \text{모형: } \ln(\text{EXP}_i) = \alpha + \beta_1 \ln(Fs) + \beta_2 \ln(Y)$$

(단,  $\text{EXP}_i$  : 주관적으로 대답한 최저생활비,  $i=1$ (“건강하고 문화적”),  $i=2$ (“그럭저럭”),  $i=3$ (“근근이”),  $Fs$  : 가구규모,  $Y$  : 소득)

이상의 모형을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를 사용해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모형1(건강하고 문화적):

$$\ln(\text{EXP}_1) = 3.1461 + 0.3491 \ln(Fs) + 0.3937 \ln(Y)$$

〈표 10-2-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alpha$	3.1461	0.0188	167.27	0.0001
$\beta_1$	0.3491	0.0063	55.69	0.0001
$\beta_2$	0.3937	0.0040	99.14	0.0001
F 통계량	16339.2(P<0.0001)	Adj- $R^2$	0.6300	N=19,257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 □ 모형2(그럭저럭):

$$\ln(\text{EXP}_2) = 2.7370 + 0.3993 \ln(Fs) + 0.4031 \ln(Y)$$

〈표 10-2-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alpha$	2.7370	0.0185	147.87	0.0001
$\beta_1$	0.3993	0.0062	64.73	0.0001
$\beta_2$	0.4031	0.0039	103.15	0.0001
F 통계량	19095.1(P<0.0001)	Adj- $R^2$	0.6656	N=19,257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 모형3(근근이):

$$\ln(\text{EXP}_3) = 2.3502 + 0.4475 \ln(Fs) + 0.4078 \ln(Y)$$

〈표 10-2-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alpha$	2.3502	0.0206	114.31	0.0001
$\beta_1$	0.4475	0.0069	65.31	0.0001
$\beta_2$	0.4078	0.0043	93.94	0.0001
F 통계량	17102.2(P<0.0001)	Adj- $R^2$	0.6406	N=19,257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이상과 같은 모형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관한 응답은 조사시점(2009) 기준이므로 동 추정결과에 2010년 예상 물가상승률<sup>132)</sup>을 적용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했다.

추정결과 4인 가구 기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추정치는 1,550,534원으로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0-2-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건강하고 문화적인	1,843,121	2,747,155	3,469,559	4,094,610	4,655,990	5,171,347	5,651,332
그럭저럭	994,035	1,578,236	2,068,308	2,505,777	2,907,877	3,283,867	3,639,447
근근이	543,914	918,345	1,247,586	1,550,534	1,835,321	2,106,425	2,366,654

자료: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원자료

132) 한국은행 2010.7.12일자 보도자료이다.

### 3. 주관적 방식의 장점 및 한계

주관적 접근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경우 기존의 객관적 접근방식의 가장 큰 가장 큰 문제점인 자의성의 문제에서 일정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관적 방식이 정책적 빈곤선 혹은 공공부조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동 방식을 정책적 빈곤선 혹은 공공부조기준선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간편하고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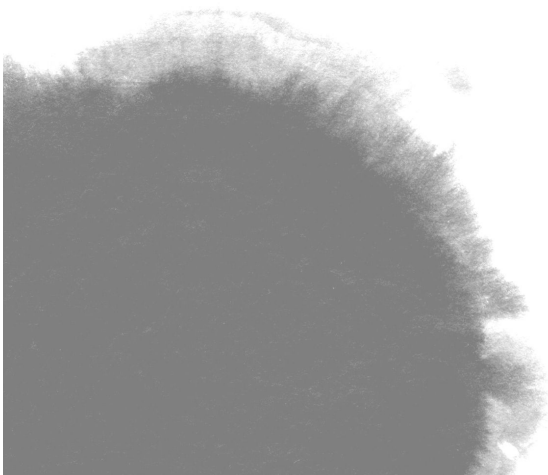
첫째, 적합한 용어 선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할 때,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써야 하는데, 용어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최저한의 생계비란 설문의 의미를 응답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주관적 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해석상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 제11장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및 결과

## 제1 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관한 논의 결과

### 1. 최저생계비 관련 사회적 합의 기본 방향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제2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6.5.1.)의 의결에 따라 2007년 최저생계비(안)은 전물량 방식을 주로 하되 여타의 계측방식을 병행하여 계측된 바 있다. 제3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9.8.19)도 이와 유사하게 2010년 최저생계비를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으로 계측하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측된 최저생계비(연구진안)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 7차에 걸쳐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sup>133)</sup>.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친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전문위원회안)”가 제3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0.8.14)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계측의 복잡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일차적으로 전물량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위원회에서도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2010년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관련 전문위원회의 논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 원의 연구결과 및 제시안을 바

133)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총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최저생계비 발표 이후인 2010년 11월 18일 장애인, 노인, 한부모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을 위하여 추가로 한 번 더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탕으로 지역구분과 표준가구, 가구균등화 지수를 결정한 후 11개 비목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또한 이견이 좁혀진 최저생계비(안)에 따른 현금급여기준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2010년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전문위원회안)가 결정된 후 추정방식에 의거하여 2011년 최저생계비(안)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림 11-1-1]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논의구조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심의하여 전문위원회안을 결정하는 한편, 다양한 여타 방식(상대적 방식,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 포함)에 의한 최저생계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계측방식의 논거, 수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우며,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수준과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2가지 안을 음영처리하여 모든 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관련하여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7차(2010.8.19)와 제3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0.8.24)에서 전문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안)에 대한 검토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2007년<sup>134)</sup>과는 달리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계측방식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

134) 제28차(2007.8.14)와 제2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7.8.22)에서는 2007년 최저생계비부터 상대적 방



이 전물량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상대 방식 등 여타방식에 의한 계측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 2. 표준가구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표준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원수와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마켓 바스켓이 구성된다. 제2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 결과 최빈가구를 기준으로 표준가구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체 가구와 하위 40% 미만 가구 중 어떤 집단의 대표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최빈가구와 평균가구 중 어떤 개념이 표준가구에 더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형태의 가구가 사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최저생계비라 규정지을 때 표준가구는 전체 가구 중 가장 출현율이 높은(최빈) 가구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합의가 모아졌다. 따라서 연구진이 제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 결과의 4인 가구를 표준가구 규모로 결정하였다.

표준가구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계측연도에 비해 논란이 훨씬 적었다. 그 이유는 첫째, 본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와 『가계동향조사』(2009년)의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최빈연령이 모두 40세로 일치하였으며, 둘째, 이에 준하여 설정된 표준가구의 연령구성이 2007년과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표준가구의 연령 구성은 영양권장량이나 교육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가구구성원 변화로 인한 마켓 바스켓 변동분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의 선정은 연구진 원안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그리고 현재의 전물량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었다(여유진·김미곤 외, 2007).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제3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도 연구진안 표준가구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연구진 표준가구안이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로 선정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적인 표준가구는 다음과 같다.

〈표 11-1-1〉 표준가구(중생보위 결정)

표준가구	표준가구의 구성
4인가구	부: 40세 모: 37세 1자(남):11세 2자(여):9세

## 3. 지역구분

### 가. 전문위원회 논의내용 및 합의사항

2004년 계측 시에는 연구진에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심의 전에 4개 지역구분(안)을 마련하여 잠정적으로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지역구분 및 정책반영 여부는 전문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므로, 당시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3개 지역으로 재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다시 계측한 바 있다.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역구분을 위한 방안으로 4개 지역구분(안)을 제시하되,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구분 기준이 확정된 이후에 각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개최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계측방식과의 비교가능성 및 연속성, 정책 활용 가능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지역구분 방안으로 주거점유형태 및 기준지표에 따른 지역구분의 통계적 분석결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3개 지역구분(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이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잠정적인 지역구분(안)으로, 2004년 및 2007년과 달리 기존의 3개 지역구분 방안(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을 전문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구분(안)은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에 따라 설정된 모든 모형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방안 이외에 수도권 및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지역구분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표 11-1-2〉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검토 지역구분(안)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기존 3개 지역구분 분석결과
자 가	아파트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전 세	아파트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월 세	아파트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 분석결과
자 가	아파트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전 세	아파트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월 세	아파트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 분석결과
자 가	아파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단독주택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연립주택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전체 평균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전 세	아파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단독주택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연립주택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월 세	전체 평균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아파트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단독주택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연립주택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월 세	전체 평균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 분석결과
자 가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전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월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단독주택	
	연립주택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전체 평균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서울 및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 분석결과
자 가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전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평균	
월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단독주택	
	연립주택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전체 평균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월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단독주택	
	연립주택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전체 평균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월 세	아파트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단독주택	
	연립주택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전체 평균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주: 잠정 구분된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로 표시

이와 같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 방안은 제1차 및 제2차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우선적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기존의 3개 지역구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생활비 차이, 특히 주거비 차이에 따른 지역별 욕구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별 최저생계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5가지 방안에 대해 주거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정책적으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지역구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마켓바스켓 구성에 가장 적절한 지역구분(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판단의 준거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각 방안에서 사용된 분석지표별 지역구분 결과의 일관성 및 타당성, 즉 주거점유형태와 주거유형 따른 분산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며, 두 번째는 그 동안 수행했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와 이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책에서 활용되었던 지역구분 기준의 연속성 측면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전문위원회의 토론에서, 연구진은 전국 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실시된 국민 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원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일관성과 현실적으로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발표, 정책적인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기존 3개 지역구분(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존 계측방식 및 정부의 최저생계비 발표 및 정책적 활용에 있어서 연속성 측면을 검토하였다.

우선, 기존에 계측되어 왔던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구분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여 정책적으로 적용해왔던 유일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계측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서, 통계적 분석결과에 의한 지역구분의 일관성 및 유의미성 문제 이외에도 최저생계비 계측의 연속성 측면에서 나머지 지역구분(안)의 경우 기존의 중소도시 구분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즉, 수도권을 분리한 지역구분(안)의 경우 중소도시 가운데 일부는 수도권으로 일부는 수도권 이외 도시 지역으로 분리된 방안

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에 따른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층결과는 기존의 기준으로 변경하는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시계열적으로 최저생계비의 변화추이를 제시하거나 정책적 활용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단일한 기준에 의해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중립화시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는 현실과 달리, 수도권 지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층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적용 기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행정구역이나 권역 등 지역적 구분에 따라 정책기준을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을 운영하는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을 고려하여 분리한 4개 지역 구분(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중소도시에 대한 구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결과에서 광역시와 중소도시가 유의미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일관성 및 타당성의 문제와 더불어 위의 논리와 유사한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컨대,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계층방식과의 비교가능성 및 연속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주거점유형태 및 주거유형에 따른 분석지표별로 지역구분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분석결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존 3개 지역구분(안)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연구진은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층결과에 합의하였으며 1988년, 1999년, 2004년, 200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종 제시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가 심층 논의를 거쳐 합의한 후 보고한 지역별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그러나, 2004년 및 2007년 계층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0년 최저생계비 최종 결정 및 발표에 있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잠정적 합의 및 보고사항과 같이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즉, 3개 지역으로 구분된 계측 결과 가운데 중소도시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각종 복지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중소도시 기준으로 계측된 결과가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로 발표되어 각종 연구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정책에 적용되고 있다.

#### 4. 가구균등화지수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가구(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된다. 가구균등화지수는 표준가구(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이를 상이한 가구규모(1~7인)에 적용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4.12.1.)에서는 2005년부터 OECD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할 경우 5~6인 가구에서 규모의 경제가 미흡하게 반영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2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6.5.1.)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재산정기로 의결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재산출하였다. 그러나, 제2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7.8.22.)에서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이유로 OECD기준 균등화지수(단계적 조정지수)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균등화지수가 한국의 현실에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2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하여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를 재산정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한 결과<sup>35)</sup>, 연구진은 아래 표와 같은 3가지 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다. 제1안은 2010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이다. 제2안은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 원 자료를 사용하여 1988년 모형으로 산정된 가구균등화지수이다. 제3안은 1988년 모형으로 산정된 점은 동일하지만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연구진은 특히 현실성, 합리성,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안을 가장 적절한 가구균등화지수로 제안하였다.

〈표 11-1-3〉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안	자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안	2010년 적용 균등화지수	지수	0.370	0.630	0.815	1	1.185	1.37	-
		편차	-	0.26	0.185	0.185	0.185	0.185	-
2안	기초조사	지수	0.38443	0.62003	0.82005	1	1.16635	1.32261	1.47095
		차이	-	0.2356	0.20002	0.17995	0.16635	0.15626	0.14834
3안	가계조사	지수	0.37893	0.61557	0.8176	1	1.16906	1.3282	1.47954
		차이	-	0.23664	0.20203	0.1824	0.16906	0.15914	0.15134

전문위원회 논의는 주로 OECD 기준 균등화지수(1안)의 현실성과 연구진이 산출한 균등화지수(2안과 3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OECD 균등화지수는 특히 4인 이상 가구부터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지 않으며, 한국의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이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향후 안정성 등을 생각할 때 1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연구진에 의해 산출된 2안과 3안의 경우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과 가구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으나, 1, 2인 가구의 균등화지수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OECD 기준 균등화지수보다 높다는 점에서 예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최종안을 채택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OECD 기준 균등화지수(1안)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산출된 88년 모형안(2안)을 동시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올리되, 전자를 소수안으로 후자를 다수안으로 상정기로 하였다.

135) 자세한 내용은 본문 제6장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를 참조하십시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두 번에 걸친 최저생계비 결정 관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 가구균등화지수는 제 2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의결되었다. 가구균등화와 관련된 논의는 전문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즉, OECD 균등화지수의 경우 5, 6인가구에서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였지만, 연구진안 균등화지수의 경우 현재보다 2, 5, 6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떨어지고, 여전히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 최저생계비에는 OECD 기준 균등화지수를 적용하되, 향후 좀 더 안정적이면서 OECD 기준 균등화지수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균등화지수를 연구·개발토록 한다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결과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10년과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산출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 기준 균등화지수로 결정되었으며, 다음 표와 같다.

〈표 11-1-4〉 가구균등화지수(중생보위 결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수	0.370	0.630	0.815	1	1.185	1.37
편차	-	0.26	0.185	0.185	0.185	0.185

## 제2절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에 관한 논의 결과

### 1. 최저 식료품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최저 식료품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2007년 대비 2010년의 식료품비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문제 제기와 둘째, 식료품비 중 한 항목인 외식비용에 대한 논의였다. 외식비용으로는 가장 중식 비용과 가족단위 외식에 대한 가격과 횟수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연구진은 보완자료를 통해 식료품비 변화 요인과 변화율을 제시하였다. 식료품비의 경우 지난 2007년에 비해 물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진은 제안하였다. 특히 식료품비 산정에 사용된 비용은 제품 가격 중 중저가를 사용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여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식료품비 상승률에 비해 낮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위에서는 식료품비에 대한 논의과정 속에서 지난 기간 식료품비의 물가가 높아진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비목들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가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료품비의 단가를 연구진이 제안한 것보다 다소 낮추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가장의 외식비 금액과 가족단위 외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 수 있다. 가장의 중식비 수준인 3,500원은 실태를 반영한 것이며,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어 이번 계측에서는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결국,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가장의 중식비를 3,000원으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족단위 외식과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의 물가상승률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가족단위 외식의 경우 연구진에서는 1년에 4회를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가장 중식비와의 논의과정에서 2007년과 동일하게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족단위 외식단가 24,000원은 4인가구가 생일축하를 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므로 12,000원이 상향된 36,000원 안을 함께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최저 식료품비와 관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상정안은 기존 연구진안에서 위의 내용을 반영한 것을 기초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변경내용은 <표 11-2-1>과 같다.

<표 11-2-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구 분	조정 및 합의내용
가정식비용	- 연구진이 제시한 가정식 단가 5,199원을 5,190원으로 조정
가장 중식비	- 2007년 단가 3,000원으로 유지
가족단위 외식	- 가족단위 회식 횟수를 1년에 4회에서 1년에 2회로 조정 - 단가는 24,000원을 유지하되, 추가안으로 36,000원까지 상향하는 안 제시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 식료품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상정안을 존중하여 가장의 중식비를 3,000원, 가족단위 외식은 1년에 2회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체 최저생계비와의 비중을 고려시 식료품비의 비중과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 이를 조정하기로 하여 가정식 비용의 단가를 전문위에서 제안한 5,190원보다 좀 더 낮춘 5,139원으로 조정하였다. 중앙생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4인 표준가구의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은 다음과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 식료품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527,327원으로, 이는 2007년 최저 식료품비(463,164원)에 비해 13.85% 증가한 금액이다. 가장중식 비용은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인 3,000원으로 하였으며, 가정식 비용을 조정함으로써 연구진안에 의해 제시된 최저 식료품비(545,943원)보다는 18,616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표 11-2-2〉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중소도시 기준
<b>식료품 합계</b>				<b>527,327</b>
가정식(외식없는경우)	1월	91.25회	5,139	468,934
가장 중식 절감분	1월	-21.73회	1,561	-33,919
11세 급식 절감분	1월	-15.83회	1,236	-19,569
9세 급식 절감분	1월	-15.83회	1,106	-17,509
친지방문 절감분	1월	-0.17회	5,139	-857
가족단위 외식절감분	1월	-0.17회	5,139	-857
수련회 절감분	1월	-0.25회	1,236	-309
수련회 절감분	1월	-0.25회	1,106	-276
<b>가정식비용 소계</b>				<b>395,638</b>
가장 중식	1월	21.73회	3,000	65,179
11세 급식	1월	15.83회	1,974	31,255
9세 급식	1월	15.83회	1,974	31,255
가족단위 외식	1월	0.17회	24,000	4,000
<b>외식비 소계</b>				<b>131,689</b>

주: 1) 소수점 이하 처리로 단가×회수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 최저 주거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주거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임대료산정, 농어촌 주거비 상승 요인, 관리비 인하 요인 등이다. 먼저, 전세 임대료 조달비용에서 이자율 2%를 적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신 이자율 4.5%를 적용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연구진은 수급자라 하더라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이 높고, 구청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운용실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운용실적의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은행, 구청 등의 확인 자료가 아울러 제시되었다.

〈표 11-2-3〉 전세자금대출 운용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저소득가구전세	2,442	4,880	4,854	2,000	2,499	2,777	3,178	3,707
근로자·서민전세	7,169	4,808	9,647	6,646	11,257	15,348	21,897	32,170

자료: 국토해양부(2009.10),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다음으로 농어촌의 최저 주거비가 149,306원으로 2007년 계측치 76,568원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07년의 경우 농어촌 주거점유형태를 자가로 가정한 데 비해, 2010년에는 전세로 가정한 것 때문이었다. 연구진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계측하고자 하는 것이 ‘최저’생계비라는 점과 농어촌과 도시 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거점유형태를 변경한 것이었다. 『국민생활실태조사』(1차조사) 결과에서도 하위 40% 미만 가구의 자가 비율은 대도시(51.14%), 중소도시(52.59%), 농어촌(56.41%)로,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으므로 농어촌만 자가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2007년 계측 때보다 낮게 설정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계측된 주거비가 2010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거비(235,085원)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이자율 하락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 하락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2007년까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외부의 공신력있는 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자료를 제공한 데 따른 결과이다. 두 자료 간의 관리비 차이에 대해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주거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2010년 최저생계비의 주거비는 연구진이 계측한 결과를 수정 없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최저 주거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는 현재 지역별·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시에는 중소도시·전세 기준만을 활용함으로써 대도시·월세의 경우 과소, 농어촌·자가의 경우 과잉의 문제가 발생한

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위원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별도의 건의 사항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상정된 최저 주거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거비에 비해 5.8% 정도 감소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한 결과 연구진안이 2010년 최저 주거비로 확정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 주거비는 <표 11-2-4>와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 주거비는 중소도시 전세 기준으로 221,374원이다. 이러한 2010년 최저 주거비는 2007년 중소도시 전세 기준 최저 주거비(212,575원)와 비교할 때 4.1% 증가한 금액이다.

<표 11-2-4>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구분	중소도시 전세기준
조달비용	166,716
(보증보험료)	6,938
아파트관리비	32,568
이사비	6,189
부동산중개수수료	2,753
도배비	6,210
합 계	<b>221,374</b>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0년 최저 주거비의 결정과 별도로 전문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으로 상정한 의견, 즉 중기적으로 지역별·주거점유형태별 주거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향후 1여년 동안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와 심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토록 결의하였다.

### 3. 최저 광열·수도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최저 광열·수도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논의과정의 주요 쟁점은 2007년에 대비 상승률이 높은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광열·수도비가 2007년에 비해 25.26%로 큰 폭으로 상승한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에서는 품목별 단가 변화내용 제시를 요구하였고, 연구진은 품목별 사용량과 가격 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1-2-5〉 최저 광열수도비 사용량·가격조정(중소도시 기준)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마켓 바스켓 반영
전기	사용량 상향	실태 변화	○에너지센서스 실태 반영 상향조정 -전기사용량 연평균 증가율 추정: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1992년~2008년간 평균 증가율(연간 약3.4%) 추정 -2008년 실측치에 평균증가율 적용하여 2010년 평균 사용량 추정 -평균 사용량에 계층지수 적용하여 저소득층 사용량 결정 (2007년 208kwh → 2010년(안) 257kwh)
상하수도비	사용량 하향	실태 변화	○상수도통계 및 심층조사 실태 반영 하향조정 (2007년 16.8m3 → 2010년(안) 15.7m3)
	가격 조정	중위 지역 변경	○중위가격 지역 상하수도 요금 적용 (2007년 청주시 요금 적용(기본요금 1,310원, 상수도 사용량 요금 m3당 410원, 하수도 사용량 요금 m3당 270원, 물이용 부담금 m3당 160원) → 2010년 시흥시 요금 적용(기본요금 950원, 상수도 사용량 요금 20m3까지 450원, 20m3초과 650원, 하수도 사용량 요금 20m3까지 240원 20m3초과 300원, 물이용 부담금 m3당 160원))
난방·취사비 (도시가스)	사용량 상향	실태 변화	○에너지센서스 실태 반영 상향조정 -전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량 결정 (2007년 67.4m3 → 2010년(안) 70.7m3)
	가격 상향	실태 반영	○인상된 가격 적용 (2007년 경기도 요금(기본요금 790원, 취사용 592.08원, 난방용 590.62원) → 2010년 경기도 요금(기본요금 790원, 취사용 725.94원, 난방용 724.48원)

다음으로, 광열·수도비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료 부분으로,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기료 상승의 요인이 사용량 상승률 계산의 시점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기가 있었다.

연구진(안)에서는 전기 사용량 상승률을 계산할 때, 1992~2008년까지의 장기자료를 사용했는데, 전문위원회에서는 2005~2008년 최근 시점의 자료를 사용해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이 제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2-6〉 전기사용량 상승률에 따른 전기요금 비교

(단위: Kwh, 원)

구분	1992~2008 상승률 적용시 (4차 전문위 회의자료)		2005~2008 상승률 적용시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대도시	257	31,730	258	31,910
중소도시	257	31,730	258	31,910
농어촌	225	25,610	228	26,180

전문위원회에서는 2010년 연구진안의 요금 변동분을 사용량과 가격 변동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주시기를 요구함에 따라, 품목별로 2007년 중생보위 의결안 대비 2010년 연구진안의 상승요금을 사용량 변동분과 가격 변동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2-7〉 2007년 중생보위의결안과 2010년 연구진안 광열수도비 수준 비교

(단위: 원)

구분	2007년 중생보위 의결 광열수도비	2010년 연구진안 광열수도비 (중소도시 기준)	사용량 변동분	가격 변동분
전기	22,350	31,730	9,380	0
상하수도	15,400	14,280	(-)950	(-)170
난방취사	44,600	57,140	2,618	9,922
합계	82,350	103,150	11,048	9,752

광열·수도비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료 부분으로,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2007년에 비해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계층지수가 2007년 0.73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 0.83으로 산출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전



문위원회에서는 2007년 계층지수 사용에 대해 검토해보았으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태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2010년 계층지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전문위원회의 최종안은 기존 연구진안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 광열·수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 광열·수도비는 <표 11-2-8>과 같다.

<표 11-2-8>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분류	구성	단가	사용량	중소도시 기준
광열수도비 합계				103,150
전기요금		전국동일	257(Kwh)	31,730
상하수도			15.7(m3)	14,280
난방·취사비	LNG	경기요금	70.7(m3)	57,14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2010년도 최저 광열·수도비는 103,150원이다. 이는 2007년 최저 광열·수도비(82,350원)보다 25.26% 증가한 금액이다.

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일부 품목의 가격조정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의 가격결정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표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대표값을 이

용할 수 없는 품목은 중·하품 기준으로 통계청 「가격월보」(2007. 1) 품목 가격에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 또는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연구진안에 포함된 품목 중 전자레인지,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다리미, 접시, 후라이팬, 김치통, 랩, 화장지, 빨래비누, 합성세제, 부엌용 세제에 반영된 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일부 정부위원은 이들 품목에 대해 특정 대형마트의 가격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수준의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가격조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기준 규격은 더 커졌으나 가격은 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가격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연구진이 직접 대형마트와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에서 직접 출시하는 자사 브랜드 상품의 가격으로 이는 보통 일반 시장에서 나오는 상품가격 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형마트의 가전제품 판매자를 통하여 가전제품의 경우 주변 상권에 따라 상품가격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 절차와 추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전자레인지,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다리미, 후라이팬, 김치통, 화장지, 빨래비누, 합성세제, 부엌용 세제는 연구진안에서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반면, 접시와 랩의 경우 당초 반영되었던 가격 수준에서 각각 2,908원, 295원 하향조정하여 합의하였다.

〈표 11-2-9〉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구 분	조정 및 합의내용
접시	- 가격 하향 조정 (2,908원, 월 273원) : 10,208원(월 957원) → 7,300원(월 684원)
랩	- 가격 하향 조정 (295원, 월 59원) : 3,745원(월 749원) → 3,450원(월 690원)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고된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아래 표와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가 합의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40,547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연구진안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보다 332원 낮게 설정된 결과이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의해 최종 확정된 201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40,547원으로 2007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36,728원에 비해 3,819원(10.4%) 증가한 금액이다.

〈표 11-2-10〉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중소도시 기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합계	40,547
일반가구 소계	4,679
가정용가구 소계	11,219
식기주방용품 소계	6,430
가사잡화 소모품 소계	10,383
침구 및 직물제품 소계	5,449
가사서비스 소계	2,387

## 5. 최저 피복·신발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2010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경우 2007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은 2007년과 비교할 때 셔츠 반팔(성인남성용) 총 1개의 품목이 추가되었고, 제외된 품목은 없다. 사용량의 경우 전체 9개 품목이 조정되었고, 가격은 12개 품목이 상향 혹은 하향으로 조정되었다. 단, 내구연수가

조정된 품목은 없다. 연구진이 제시한 2010년 최저 피복·신발비인 52,060원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2007년 대비 3,287원(6.7%)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안의 최저 피복·신발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쟁점 및 논의사항이 없이 연구진안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최저 피복·신발비와 관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논의 된 사항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자녀의 옷(잠바, 바지) 사용량과 내구연수 조정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11세(남), 9세(여) 자녀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볼 때 연구진이 제시한 자녀의 옷 사용량과 내구연수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부의 속옷(브래지어) 사용량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남아와 여아의 잠바(동, 춘추복) 내구연수와 사용량을 6년 2점에서 2년 1점으로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남아와 여아의 잠바 가격은 각각 월 694원, 월 417원 증가되었다. 또한 남아의 바지 내구연수와 사용량은 8년 2점에서 2년 2점으로 조정하여 남아의 바지 가격은 월 1,562원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아의 바지 내구연수와 사용량은 6년 3점에서 2년 3점으로 조정하여 여아의 바지 가격은 월 2,500원 상승하였다. 그리고 주부의 브래지어 사용량은 2점에서 4점으로 조정하여 가격이 416원 상향되었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 피복·신발비는 57,649원으로 연구진안 52,060원 보다 5,589원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2007년 최저 피복·신발비 48,773원에 비해 18.2% 증가한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 피복·신발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2-1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중소도시 기준
<b>피복·신발비 합계</b>	<b>57,649</b>
의의 소계	25,475
스웨타 셔츠 소계	9,763
내의 소계	8,667
직물·실 소계	28
기타 피복 소계	5,121
신발 소계	5,234
피복 및 신발서비스 소계	3,361

## 6. 최저 보건의료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연구진이 제시한 최저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비는 50,617원, 의약품비는 3,657원, 미충족욕구는 1,873원, 그리고 보건의료용품비는 6,049원이고, 이들을 모두 합한 최저보건의료비는 지역 간 차이 없이 62,196원으로 계측되었다.

최저 보건의료비를 둘러싼 쟁점은 첫째, 의료비의 과대추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대추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출액의 상위 1%를 제거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충족욕구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평균치가 31,330원으로 나타나 이 결과의 50%가 미충족욕구로 반영될 경우 15,665원으로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미충족욕구 자체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수준인 1,873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반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비에 대한 타법지원액 산출방식의 적절성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타법지원액 산출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에서 제시된 총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전국민 기준 37.8%, 의료급여 1종 8.3%, 의료급여 2종 13.8%)을 근거로 삼아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타법지원액은 계측된 보건의료서비스비에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비용이며, 본인부담액 산출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2항(“수급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항목만 현금급여에서

제외한다”)의 정신에 따라 의료급여 1종이 아닌 2종의 본인부담률 13.8%를 기준으로 하였다. 2010년 계측된 보건의료서비스비 월 50,617원 중에서 본인부담액(의료급여 2종 기준) 18,479원을 뺀 32,138원<sup>136)</sup>을 의료비의 타법지원액으로 산출하였다. 추가검토 결과 전문위원회에서는 연구진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송부하였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보건의료비는 연구진안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표 11-2-12>과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보건의료비는 62,196원으로 이는 2007년 최저 보건의료비(53,893원)에 비해 15.41% 증가한 것이다.

<표 11-2-12>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중소도시 기준
<b>보건의료비 합계</b>				<b>62,196</b>
보건의료서비스비	1월	1단위	50,617	50,617
의약품비	1월	1단위	3,657	3,657
미충족욕구	1월	1단위	1,873	1,873
<b>보건의료서비스비 소계</b>				<b>56,147</b>
안경	2년	1개	40,000	1,667
위생대	1월	1봉(20개)	4,382	3,840
<b>보건의료용품 소계</b>				<b>6,049</b>

136) 전국민 기준 총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 37.8%가 보건의료서비스비 월 50,617원에 해당한다면 전국민 기준 총진료비는 133,907원이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이 총진료비 중 13.8%인 18,479원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타법지원액은  $(50,617 - 133,907 \times 13.8\%) = (50,617 - 18,479) = 32,138$ 원이 된다.

## 7. 최저 교육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각 비목별 품목에 대한 사항은 제3차~제7차 전문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되었으며, 소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쟁점이 되는 항목들에 대한 전문위원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계측 당시와 달리, 2010년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고 있는 마켓바스켓 가운데 전문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07년 계측 당시에는 마켓바스켓에 신규로 추가한 문제집과 수련회가 핵심적 쟁점 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저 교육비를 구성한 마켓바스켓 항목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마켓바스켓에 신규로 추가 또는 제외된 항목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결론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는 당초 연구진안으로 계측하여 제시했던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에 대해서 제6차 전문위원회까지 커다란 쟁점 없이 연구진이 제시한 2010년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 품목에 대한 조정 없이 그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7년 당시 마켓바스켓 추가여부 및 가격 측면에서 쟁점이 되었던 수련회의 경우 2010년 계측에서는 사용량(수련회 참여횟수)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커다란 쟁점 없이 합의되었다.

다만,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방과후 학교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권장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최소한으로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타법지원액 계산 시 교육비가 전액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교육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없지만 최저 교육비에 포함되는 부교재비라든지 문방구비 등은 교육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표 11-2-13〉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검토내용

구 분	검토내용
방과후 학습	현재 방과후 학습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방과후 학습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은 표와 같다.

〈표 11-2-14〉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품목	지역구분	내구연수	사용량	가격	중소도시 기준
<b>교육비 합계</b>					<b>65,930</b>
참고서	전국	1년	4권	23,408	7,803
문제집	전국	1년	8권	12,320	8,213
<b>교재비 소계</b>					<b>16,016</b>
가정학습지	전국	1년	12월	32,000	32,000
수련회	전국	1년	2회	45,000	7,500
기타교육비	전국	1년	2회	10,000	1,667
<b>보충교육비 소계</b>					<b>41,167</b>
연필	전국	6월	2타스	2,265	755
싸인펜	전국	1월	4개	200	800
색연필	전국	1년	2세트	2,500	417
공책	전국	6월	18권	548	1,644
스케치북	전국	1년	4권	1,206	402
인쇄용지	전국	6월	1권	2,665	444
크레파스	전국	1년	2세트	3,668	611
그림물감	전국	1년	1세트	2,851	238
붓	전국	2년	1세트	4,500	188
지우개	전국	6월	4개	300	200
칼	전국	2년	1개	300	13
가위	전국	2년	1개	700	29
풀	전국	6월	2개	500	167
색종이	전국	6월	20개	500	1,667
필통	전국	1년	2개	1,500	250
교육용 악기	전국	3년	1개	2,000	56
자	전국	1년	2개	200	33
앨범	전국	3년	2개	15,000	833
<b>문방구비 소계</b>					<b>8,747</b>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을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가 합의하여 보고한 결과와 동일한 65,93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것은 최초 연구진이 제시했던 최저 교육비의 마켓 바스켓과 동일한 계측 결과이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최종 확정 발표된 2010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 수준을 2007년에 최종 결정된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수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총 2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7년 표준가구(11세(남)/9세(여) 초등학교 생 자녀) 기준 최저 교육비 수준(65,930원)은 연구진안과 동일하며, 2007년 최저 교육비(55,302원) 대비 10,628원(약 19.2%) 증가한 수준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 중에서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 8. 최저 교양오락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2010년 최저생계비 최저 교양오락비의 마켓바스켓 품목 역시 제3차~제7차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으며, 소위원회를 통해 쟁점이 되는 항목들에 대한 전문위원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저 교양오락비를 구성하고 있는 마켓바스켓 품목 가운데 전문위원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연구진이 2007년에 이어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추가한 유선방송 수신료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동 도서에 대한 조정 부분도 함께 고려되었다.

유선방송 수신료의 경우, 2007년에도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 연구진안에서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여 제시한 바 있으나 전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삭제되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유선방송 가입실태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에서 전 가구 대상 유선방송 가입비율이 87.9%로 조사되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도 4인 가구 기준 유선방송 가입비율 89.3%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2년 12월말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른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공동)와 공청회(2009.11)에서 발표된 ‘취약계층의 TV 보유 및 시청행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취약계층의 75.9%가 아날로그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디지털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을 포함할 경우 80.9%에 이르는 반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은 25.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유선방송을 2010년 최저생계비 최저 교양오락비의 필수품목으로 추가하였다.

2007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서 유선방송을 신규로 마켓바스켓 품목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난시청 지역의 경우 공중파의 수신이 불가능하여 유선방송 수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논리와 실제로 유선방송 가입실태가 매우 높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진 및 일부 전문위원의 의견과 공중파라는 대체재가 존재하며 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유선방송에 대한 마켓바스켓 포함여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7년에 이어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에서도 유선방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신, 유선방송 제외에 따른 최저 교양오락비 하락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지닌 아동도서 사용량을 상향 조정하여 반영하는 방안에도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2007년 당시에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도서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표준가구에서 아동도서 연간 구입량이 매우 낮으며,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초등학교 평균 일반도서 구입량을 고려할 때 추가 반영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근거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 특히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인적투자 측면에서 아동도서의 구입량을 연간 2권에서 4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요컨대,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과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서는, 연구진안에서 2007년에 이어 2010년에도 신규 품목으로 제시된 유선방송(월 4,400원)을 제외한 대신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도서의 경우 연간 구입량을 가구당 2권에서 4권으로 상향 조정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2010년의 최저 교양오락비 수준은 27,117원이었다.

〈표 11-2-15〉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구 분	조정 및 합의내용
유선방송	-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연구진안)에서 제외 (4,400원 → 0원)
도서(아동)	-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연구진안)보다 사용량을 상향 조정하여 반영 (가구당 연간 2권 → 4권) (1,034원 → 2,068원)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이와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이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은 표와 같다.

〈표 11-2-16〉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품목	지역구분	내구연수	사용량	가격	중소도시 기준
<b>교양오락비 합계</b>					<b>27,117</b>
도서(성인)	전국	1년	1권	9,823	819
도서(아동)	전국	1년	4권	6,204	2,068
<b>서적 및 인쇄물 소계</b>					<b>2,887</b>
텔레비전	전국	10년	1개	260,000	2,167
카세트라디오	전국	10년	1개	70,000	583
비디오	전국	10년	1개	130,000	1,083
카메라	전국	10년	1개	40,000	333
컴퓨터	전국	6년	1개	551,000	7,653
프린터	전국	10년	1개	60,000	500
프린터잉크	전국	1년	1개	7,000	583
필름	전국	1년	2통	2,500	417
완구	전국	1년	4개	4,000	1,333
CD 구입	전국	1년	1개	12,000	1,000
<b>교양오락용품기구 소계</b>					<b>15,652</b>
영화관람(성인)	전국	1년	2명	8,169	1,362
영화관람(아동)	전국	1년	2명	7,501	1,250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전국	1월	1회	2,500	2,500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전국	1년	2회	9,000	1,500
사진촬영	전국	5년	1조	10,533	176
사진현상	전국	1년	2통	7,073	1,179
비디오(DVD) 대여	전국	1년	4회	1,834	611
<b>교양오락서비스 소계</b>					<b>8,578</b>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교양오락비를 구성하는 마켓바스켓을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가 합의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27,117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것은 당초 연구진안에서 제시한 최저 교양오락비 30,483원보다 3,366원(11%) 감소한 것으로, 2007년 최저 교양오락비 24,062원에 비해 3,055원(12.7%) 증가한 수준에 해당하며 2010년 최저생계비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과 비교해보면 연구진안에서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고자 했던 유선방송이 전문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4년과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인 19개 품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9. 최저 교통·통신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전문위원회에서 교통·통신비 관련 가장 큰 쟁점사항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포함 여부였다. 휴대전화의 필수품 선정은 크게 통계청, 실태조사,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 자료에서 나타난 휴대전화 소득탄력성, 보유율, 필수품 인식률, 인구 대비 보급률에 대한 통계치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첫째, 통계청 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필수품 선정 기준인 0.5이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둘째, 실태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보유율과 필수품 인식률, 보유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에서 소득하위40% 4인 가구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9.60%, 휴대전화를 필수품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94.71%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하위40% 4인 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휴대전화 보유대수는 3대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인구 대비 보급률은 2010년 3월 기준으로 100.21%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입장은 초기에 찬성과 반대로 극명히 나누어졌다. 찬성하는 위원들은 저소득 가구의 휴대전화 이용률이 99%라는 실태를 받아들여야 하고 휴대전화는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필수재이며, 휴대전화 미반영시 저소득

층 자녀가 느끼게 될 정서적·심리적 박탈감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휴대전화 필수품 포함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반대 입장의 위원들은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라는 사실은 실태로서 인정하나, 휴대전화가 저소득가구의 필수재라는 것에 국민정서상 아직 용인되기는 힘들며, 대체재(집전화)가 있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휴대전화 필수품 제외의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전문위원회에서는 휴대전화 포함 여부, 포함시 휴대전화 통화량 설정 및 집전화 통화량 조정, 제외시 집전화 통화량 수준에 대한 추가검토를 연구진에 요구하였다. 검토 결과 휴대전화를 필수품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만 휴대전화는 1대만 반영되었고, 휴대전화 포함시 집전화 통화량을 하향 조정하는 수준의 합의였다. 그리고 전문위원회는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저교통통신비는 휴대전화가 포함된 연구진안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표 11-2-17>과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교통통신비는 142,600원으로 이는 2007년 최저 교통통신비(129,275원)에 비해 10.31% 증가한 것이다.

〈표 11-2-17〉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교통·통신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중소도시 기준
<b>교통·통신비 합계</b>				<b>142,600</b>
시내버스: 가장출근(도시)	1월	50회	944	47,009
시내버스: 주부외출	1월	12회	944	11,328
시내버스: 자녀외출	1월	12회	705	8,460
택시: 비상외출	1월	1회	5,156	5,156
고속버스: 친지방문	6월	1회	52,200	8,700
<b>교통비 소계</b>				<b>80,653</b>
집전화: 기본요금(중소도시)	1월	1회	4,000	4,000
집전화: 시내통화료	1월	15회	39	585
집전화: 시외통화료	1월	3회	261	783
집전화: 이동통신통화료	1월	5회	261	1,305
집전화: 부가세	1월	1회		667
집전화: 전화기 이전비	6년	1회	10,000	139
집전화: 전화기 구입비	4년	1회	36,732	765
휴대전화: 기본요금	1월	1회	12,000	12,000
휴대전화: 사용요금	1월	30회	324	9,720
휴대전화: 부가세	1월	1회		2,172
휴대전화: 전화기 구입비	5년	1회	100,000	1,667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비	35년	1회	39,600	94
인터넷: 사용요금	1월	1회	25,500	25,500
인터넷: 부가세	1월	1회		2,550
<b>통신비 소계</b>				<b>61,947</b>

422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 10. 최저 기타소비지출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기타소비지출과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쟁점은 2007년 논의를 통해 제외된 친지방문비의 포함여부와 이미용품 중 새롭게 추가된 항목의 필수품 선정여부에 관련된 것이다. 친지방문비의 경우 양태명절의 친지방문의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격 및 포함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남성용 화장품 및 아동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이들 품목이 필

수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2007년 스킨로션, 밀크로션이었던 기초화장품을 스킨로션(여성용), 밀크로션(여성용), 스킨로션(남성용), 그리고 아동용로션으로 구분하였다.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먼저 친지방문비의 포함은 타당하며, 단가는 연구진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와 더불어 친지방문에 따른 식료품비 절감분을 최저 식료품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남성용 화장품과 아동용 화장품의 경우 규범적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보편적 사용이라는 차원에서 고려할 경우 필수품에 산정되기 어렵다는 합의하에 마켓 바스켓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당초 연구진이 제시하였던 최저 기타소비지출 86,072원에서 82,305원으로 하향조정된 금액이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11-2-18〉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품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스킨로션(남성용)	제외	필수품 구성시 보편성 고려
아동용로션	제외	필수품 구성시 보편성 고려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기타소비지출과 관련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심의결과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82,305원으로 확정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기타소비지출은 아래의 표 <11-2-19>와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남성용스킨로션 및 아동용로션이 제외됨에 따라 당초 연구진안보다 3,767원 하향조정된 금액이며, 이는 2007년 최저기타소비지출에 비해 9.36%증가한 금액이다.

〈표 11-2-19〉 표준가구의 지역별 기타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수량	단가	중소도시 기준
<b>기타소비지출 합계</b>				<b>82,305</b>
칫솔(성인용)	4월	4개	1,473	1,473
치약	1월	1개	1,500	1,500
비누	1월	2개	1,000	2,000
샴푸	2월	1통	6,491	3,246
밀크로션(여성용)	6월	1개	14,800	2,467
스킨로션(여성용)	6월	1개	14,800	2,467
스킨로션(남성용)	6월	0개	13,000	0
아동용로션	6월	0개	9,600	0
파운데이션	1년	1개	12,900	1,075
썬크림	1년	1개	10,900	908
립스틱	2년	1개	7,900	658
손톱깎기	5년	1개	1,500	25
면도기	1월	5개	200	1,000
머리빗	5년	2개	1,500	50
<b>이미용품비 소계</b>				<b>16,869</b>
목욕비	2월	4회	4,552	9,104
이발(남자 성인)	3월	2회	7,210	4,807
이발(남자 아동)	3월	2회	4,911	3,274
미용(여자 성인)	6월	1회	9,920	1,653
미용(여자 아동)	3월	1회	5,518	1,839
파마	6월	1회	30,000	5,000
<b>이미용서비스비 소계</b>				<b>25,677</b>
핸드백	4년	1개	28,150	586
가방(학생가방)	3년	2개	25,000	1,389
우산(3단)	3년	4개	6,000	667
손목시계(아날로그)	10년	2개	42,000	700
지갑	4년	2개	14,000	583
<b>장신구비 소계</b>				<b>3,925</b>
경조비	1년	6회	30,000	15,000
교제비(가장)	1년	6회	15,000	7,500
친목단체비(배우자)	1년	4회	10,000	1,667
자녀 용돈(2인)	1월	2회	5,000	10,000
친지방문비(선물)	1년	0회	10,000	1,667
<b>잡비 소계</b>				<b>35,834</b>



## 11. 최저 비소비지출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비소비지출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4인 근로자 가구를, 농어촌의 경우 4인 농어업 종사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였다. 또한 비소비지출 각 항목 계산시 이용되는 이들 가구의 소득은 주당 40시간 최저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고 재산은 주거의 경우 4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 전세로 하였으며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본 항목은 2007년에 비해 특별한 항목의 추가는 없었으며, 단지 법 개정으로 인하여 명칭이나 적용율을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하에 비소비지출 금액을 67,293원으로 산출하였다.

최저비소비지출은 필수품 항목 및 단가에 대한 특별한 쟁점이 없이 전문위원회 논의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안 그대로 수용되었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연구진안이 전문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 없이 수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합의되었다. 다만 연구진이 제시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안이 아닌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단일 금액안으로 협의하였기에 대도시 67,335원보다는 다소 낮고, 농어촌 65,559원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1-2-20>와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연구진안과 동일한 67,293원이며, 이 금액은 2007년 최저비소비지출에 비해 31.5%증가한 금액이다.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분담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을 연구진에서 제시한 당시의 최저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본 항목의 금액이 연구진 안보다 낮게 의결되었으나, 2010년의 경우 기준소득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적용한 연구진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최저비소비지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11-2-20〉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내구연수	사용량	단가	중소도시 기준
<b>비소비지출 합계</b>				<b>67,293</b>
근로소득세(소득분지방소득세 포함)	1월	1회	0	0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년	1회	5,194	433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1년	2회	0	0
<b>조세 소계</b>				<b>433</b>
국민연금	1월	1회	38,610	38,610
건강보험	1월	1회	24,390	24,390
고용보험	1월	1회	3,860	3,860
<b>사회보장분담금 소계</b>				<b>66,860</b>

### 제3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에 관한 논의 결과

#### 1. 상대적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전문위원회에서는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2차 전문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상대적 방식에 의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추정에 있어 연구진은 상대적 비율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상대적 방식 추정의 기본모형으로  $PL_{4t} = Y_{4t} \times \alpha \pm \beta$ 을 제시하였다. 즉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의 핵심은 기준지표가 되는 소득 또는 지출의 추정치( $Y_{4t}$ ), 상대적 비율( $\alpha$ ), 정책변수( $\beta$ )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용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기준지표 및 시점은 과거 3년 평균 4인 근로자가구 중위 가계지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상대적 방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대적 비율은 원칙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고, 동 비율은 한

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진의 제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는 연구진의 상대적 방식 검토결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면밀한 검토 결과, 전문위원회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대적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상대적 비율의 범위, 그리고 이 상대적 비율을 토대로 한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범위를 검토할 것을 연구진에게 요청하였다. 연구진은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상대적 비율을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첫째, 상대적 개념에 의한 상대적 비율 산출, 둘째, 과거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증가 추세치를 적용한 비율 산출, 셋째, OECD 상대 빈곤개념 적용에 의한 비율 산출, 넷째, 기타 방식(식료품비 비율방식, 주관적 방식 등)에 의한 상대적 비율 산출이 그것이다.

〈표 11-3-1〉 상대적 비율 적용에 따른 2010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상대적 비율	3년 평균 4인가구 중위가계지출 (2007~2009)	4인 최저생계비 추정치
2010년 적용 최저생계비	0.474526949	2,872,526	1,363,091
상대적 개념 1 (2007년 상대적 비율+ARIMA)	0.482250623	2,872,526	1,385,277
식료품비 비율 방식 <sup>1)</sup>	0.482602420	2,872,526	1,386,288
과거 추세치 반영	0.486348673	2,872,526	1,397,049
식료품비 비율 방식 <sup>2)</sup>	0.491848232	2,872,526	1,412,847
상대적 개념 2 (2007년 상대적 비율+ARMAX)	0.497183895	2,872,526	1,428,174
상대적 개념 3 (2004년 상대적 비율+ARIMA)	0.500354072	2,872,526	1,437,280
상대적 개념 4 (2004년 상대적 비율+ARMAX)	0.515847931	2,872,526	1,481,787
OECD 기준 1 (중위소득 40%기준+ARIMA)	0.529308273	2,872,526	1,520,452
주관적 방식(Leiden) <sup>3)</sup>	0.539255756	2,872,526	1,549,026
OECD 기준 2 (중위소득 40%기준+ARMAX)	0.544601296	2,872,526	1,564,381

주: 1) 식료품비 비율방식으로 2009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2010년 추정은 물가상승률 2.7% 적용

2) 식료품비 비율방식으로 2009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2010년 추정은 2007년 최저생계비 1,232,569원과 동 방식에 의한 2009년 최저생계비 추정치 1,350,000간의 연평균 상승률 0.046553089를 적용

3) 주관적 방식으로 2009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2010년 추정은 물가상승률 2.7% 적용

이러한 4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용하여 상대적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3-1>과 같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전제는 3년 평균 4인가구 중위가계지출 2,872,526원을 기준지표인  $Y_{4t}$ 으로 가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 전문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상대적 비율의 범위를 2007년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이 유지되는 수준인 0.482250623(상대적 개념 1)~0.4971838959(상대적 개념 2)의 범위로 좁히는데 합의하고,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3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9.8.19) 의결 사항이었던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빈곤선을 고려하여 중생보에서 조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공식적인 2010년 최저생계비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이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전문위원회에서 상정된 상대적 방식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상대적 개념 1과 상대적 개념 2의 범위를 고려하는 선에서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된 1,397,488원을 2010년 최저생계비로 결정하였다.

### 제4절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논의 결과

#### 1.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방식 및 인상률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2011년 최저생계비는 올해 계측된 2010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방식과 인상률의 결정이 중요하다. 먼저, 인상을 위한 방식으로 연구진에서는 크게 물가상승률방식, 물가와 사

용량을 감안한 방식의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쟁점은 ‘어떠한 방식이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인가’, ‘그 방식을 채택한 경우 기준이 되는 값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였다. 먼저 제시된 인상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다수 의견은 물가상승률 방식의 적용이 다른 방식에 비해 용이하며 이 방식을 계속하여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가만을 반영하는 것은 실제측연도 최저생계비에도 영향이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취지가 생활의 질을 반영하도록 명시된 만큼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하기 보다는 물가와 사용량을 감안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물가상승률 방식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할 경우 물가지수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과거추세치와 예측치를 고려한 결과,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해 2011년 물가상승예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예측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기관과 국내기관의 예측치 중 국내 경제현황은 국내기관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자료의 신뢰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기관인 한국은행이 예측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연구진은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4%를 제시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이와 더불어 연구진안 외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재정반영 물가상승률 예측치인 3.0%를 함께 제안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2011년 예산 편성 시 지원 단가 상승률이 통상 3%정도이며,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적용해 온 점을 감안한 것이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제 3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 방식을 물가상승률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인상률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2개의 안 중 2010년이 계측연도이므로 비계측연도보다

최저생계비 상승률이 높다는 점, 즉 2010년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정부 재정반영 물가상승률인 3.0%로 의결하였다. 결정된 인상률은 2007년에 결정된 2008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인상률인 2.7%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 제5절 기타 논의 사항 및 결과

### 1. 비계측년도 자동조정 방안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현재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층되고 있고, 계층사이에 비계측연도에 대해서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 3회 회의를 거쳐서 비슷한 내용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을 계속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표 11-5-1〉 최저생계비 및 물가 상승률

(단위: %)

연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sup>1)</sup>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2000	3.0	2.3	3.7
2001	3.0	4.1	5.1
2002	3.5	2.8	2.5
2003	3.0	3.5	4.0
2004	3.5	3.6	4.9
2005 <sup>2)</sup>	3.0	2.8	4.1
2006	3.0	2.2	3.1
2007	3.0	2.5	3.1
2008 <sup>2)</sup>	2.7	4.7	5.4
2009	4.8	2.8	2.1
합계	32.5	31.2	37.9

주: 1)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2) 계측치 대비 인상률

또한 <표 1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봤더니 단순 합계해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10년간 32.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2%로 실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를 모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자동결정 모형으로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세 가지가 검토되었다.

#### □ 모형 1 : 예상물가상승률 적용 후 차이조정 모형

- 계측 후 1년차 최저생계비:  $PL_{t+1} = PL_t \times (1 + P_{t+1})$   
(여기서,  $PL_t$ 는 계측연도 최저생계비,  $P_{t+1}$ 는 계측연도 다음연도 예상 물가상승률)
- 계측 후 2년차 최저생계비:  $PL_{t+2} = PL_{t+1} \times (1 + P_{t+2} + \alpha)$   
(여기서,  $\alpha = \text{실제 물가상승률}(rP_{t+1}) - \text{예상 물가상승률}(P_{t+1})$ )
- 계측 후 3년차 최저생계비:  $PL_{t+3} = PL_{t+2} \times (1 + P_{t+3} + \alpha)$   
(여기서,  $\alpha = \text{실제 물가상승률}(rP_{t+2}) - \text{예상 물가상승률}(P_{t+2})$ )

#### □ 모형 2: 예상물가상승률 적용 후 실제 물가상승률로 대체 모형

- 계측 후 1년차 최저생계비:  $PL_{t+1} = PL_t \times (1 + P_{t+1})$
- 계측 후 2년차 최저생계비:  
 $PL_{t+2} = PL_t \times (1 + rP_{t+1}) \times (1 + P_{t+2})$
- 계측 후 3년차 최저생계비:  
 $PL_{t+3} = PL_t \times (1 + rP_{t+1}) \times (1 + rP_{t+2}) \times (1 + P_{t+3})$

#### □ 모형 3: 과거 물가상승률 적용 모형

- 계측 후 1년차 최저생계비:  $PL_{t+1} = PL_t \times P_t$   
(단, 여기에서  $P_t$ 은 전년도 7월~금년도 6월까지의 실제 물가상승률임)
- 계측 후 n년차 최저생계비: 위와 동일

모형 1은 예상물가상승률 적용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모형이다. 모형1로 2011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면, 2010년 올해 계측된 최저생계비에 2011년 예상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 된다. 2012년 최저생계비는 자동 결정된 2011년도에 2012년 예상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실측치를 적용해 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서 적용된 2011년 최저생계비는 예상물가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2011년 실제 물가상승률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차이를 알파값으로 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예상물가상승률을 적용 후 실제 물가상승률로 대체하는 모형이다. 2011년 최저생계비는 2011년 물가상승률은 실적치가 없으니까 2011년 예측치를 적용하고, 2012년도 최저생계비는 계측년도 최저생계비에다가 2011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적용했던 것을 실적치로 바꾸고 2012년 것만 예측치로 적용하는 모형이다.

모형 3은 물가상승률을 예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모형이다.

전문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모형 1은 예상물가상승률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때 조정계수( $\alpha$ )로 자동 조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에 따른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 연도에 어떤 예측치(예산 반영물가상승률 vs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형 2는 예상물가상승률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때 실제 물가상승률로 대체해 줌으로써 더 정확한 최저생계비가 추정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은 모형1에서 마찬가지로 비계측연도 3년차 같은 경우 예측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모형 3은 실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므로 어떤 예측치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므로 미래의 물가상승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3개 모형 중 모형 3안으로 하되, 중생보의 결정에 따라 과거 1년 실적치가 극히 예외적인 수치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는 것으로 했다. 정리하면, 비계



측연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과거 1년 (전년도 7월에서 금년 6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하였다.

## 2. 교육급여 등에 대한 현실화 방안

### 가.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전문위원회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두 가지의 추가적 건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에 관한 것이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는 초등학생 2명(11세 자녀와 9세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계측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측된 최저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서 타법지원액으로 간주되어 전액 현금급여기준선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육비를 현금급여기준선에 포함할 경우 학생이 없는 가구에도 교육비가 지원됨으로써 과대 지급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최저 교육비를 현금급여기준선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구 내에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의 수를 감안하여 교육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된다<sup>137)</sup>. 따라서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학용품비 등 실질적인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급여의 미지급 혹은 과소지급의 문제는 빈곤의 대물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모든 급여와 소득인정액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2항의 취지에서 벗어날 소지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문위원회에서는 수급가구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137) 2010년 기준으로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은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대(연간 112.3천원), 학용품비(연간 46.6천원)이며,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연간 34천원)와 학용품비(연간 46.6천원)이다.

두 번째는 지역별, 주거점유형태별 최저 주거비를 현실화하는 중기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 주거비는 중소도시 전세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주거점유형태별 과잉지급(농어촌 자가의 경우) 및 과소지급(대도시 월세의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지역별로 본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주거급여가 과소지급되고, 농어촌은 주거급여가 과대지급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점유형태의 측면에서도 자가가구는 주거급여가 과대지급되고, 월세가구는 과소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기계획으로서 지역별·주거점유형태별로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사항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전문위원회의 첫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토록 한다고 결정하였다.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거형태별 최저 주거비 적용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1년 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 제12장 2010년 및 2011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 제1 절 2010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2010년 표준가구(중소도시 전세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97,488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2-1-1〉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중소도시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527,327	37.7
주거비	221,374	15.8
광열수도	103,150	7.4
가구집기	40,547	2.9
피복신발	57,649	4.1
보건의료	62,196	4.5
교육	65,930	4.7
교양오락	27,117	1.9
교통통신	142,600	10.2
기타소비	82,305	5.9
비소비	67,293	4.8
합계	1,397,488	100.0

201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2007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대비 13.38%, 그리고 2010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대비 2.52%였다.

〈표 12-1-2〉 최저생계비 인상률

(단위: 원, %)

구분	2007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대비			2010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대비		
	금액	구성비	인상률	금액	구성비	인상률
식료품비	463,164	37.6	13.85	512,211	37.6	2.95
주거비	212,575	17.2	4.14	235,086	17.2	-5.83
광열수도	82,350	6.7	25.26	91,070	6.7	13.26
가구집기	36,728	3.0	10.40	40,616	3.0	-0.17
피복신발	48,773	4.0	18.20	53,938	4.0	6.88
보건의료	53,893	4.4	15.41	59,601	4.4	4.35
교육	55,302	4.5	19.22	61,158	4.5	7.80
교양오락	24,062	2.0	12.70	26,610	2.0	1.90
교통통신	129,275	10.5	10.31	142,964	10.5	-0.25
기타소비	75,260	6.1	9.36	83,230	6.1	-1.11
비소비	51,187	4.2	31.47	56,607	4.2	18.88
합계	1,232,569	100.0	13.38	1,363,091	100.0	2.52

201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은 <표 12-1-3>과 같이 253,317원으로 계측되었고,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은 [그림 12-1-1]과 같다.

〈표 12-1-3〉 지역별 4인 가구 기준 2010년 타법지원액(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비목	품목	중소도시
식료품비	급식비	62,510
광열수도비	전기	6,346
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32,138
교육비	교육비	65,930
가구집기가사용품	쓰레기봉투	1,220
교양오락비	TV수신료	2,500
교통통신비	유선전화	1,200
	이동전화	18,040
비소비지출	국민연금	38,610
	건강보험	24,390
	주민세	433
타법지원액 합계		253,317

[그림 12-1-1]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1,144,171원		1,397,488원		253,317 원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62,510원</li> <li>◦ 전기요금 6,346원</li> <li>◦ 보건의료비 32,138원</li> <li>◦ 교육비 65,930원</li> <li>◦ 쓰레기봉투 1,220원</li> <li>◦ TV수신료 2,500원</li> <li>◦ 통신비 19,240원</li> <li>◦ 주민세 433원</li> <li>◦ 국민연금 38,610원</li> <li>◦ 건강보험 24,390원</li> </ul>

## 제2절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은 다음 <표 12-2-1>과 같다. 2010년 표준가구의 현금급여기준선은 2010년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금급여기준선 대비 0.3% 인상되었다.

<표 12-2-1>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균등화지수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
2010년 최저생계비 (중생보위 결정)	517,071	880,417	1,138,953	1,397,488	1,656,023	1,914,559	-
2010년 타법지원액 (중생보위 결정)	93,727	159,590	206,453	253,317	300,180	347,044	-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중생보위 결정)	423,343	720,828	932,500	1,144,171	1,355,843	1,567,515	-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행정적용치 대비 인상률	0.3%	0.3%	0.3%	0.3%	0.3%	0.3%	-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행정적용치)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1,774,296

2010년 최저생계비에 3.0%<sup>138)</sup>의 물가상승률 추정치를 적용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11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은 <표 12-2-2>와 같다. 2011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39,413원, 현금급여기준선은 1,178,49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대비 각각 5.6%, 3.3% 인상된 것이다. 정부발표 2011년 최저생계비를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 532,583원~7인가구 2,238,246원이며, 현금급여기준선의 경우 1인가구 436,044원~7인가구 1,832,562원이다.

<표 12-2-2>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균등화지수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
2011년 최저생계비 (중생보위 결정)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46
2011년 타법지원액 (중생보위 결정)	96,539	164,377	212,647	260,916	309,186	357,455	-
2011년 현금급여기준선 (중생보위 결정)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2010년 행정적용치 대비 인상률	3.3%	3.3%	3.3%	3.3%	3.3%	3.3%	-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행정적용치)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1,774,296

주: 1)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66,251원(6인가구와 5인가구의 차액)씩 증가

2)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선: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6인가구와 5인가구의 차액)씩 증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부발표 2010년 및 2011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과 인상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12-2-3>과 같다.

<표 12-2-3> 2010년 및 2011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

구분	2010년 최저생계비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2011년 최저생계비	2011년 현금급여기준선
금액	1,397,488	1,144,171	1,439,413	1,178,496
인상률	(2.52)	(0.28)	(5.60)	(3.28)

주: ( )는 2010년도 현재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대비 인상률임.

138) 2011년 정부 재정전망 반영 물가 상승률 3.0%가 적용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2010년과 2011년 최저생계비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아래 <표 12-2-4>와 <표 12-2-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2-4>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구분	2010년 행정적용 최저생계비	2010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2011년 중생보위 결정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04,344	517,071	532,583
2인 가구	858,747	880,417	906,830
3인 가구	1,110,919	1,138,953	1,173,121
4인 가구	1,363,091	1,397,488	1,439,413
5인 가구	1,615,263	1,656,023	1,705,704
6인 가구	1,867,435	1,914,559	1,971,995

<표 12-2-5>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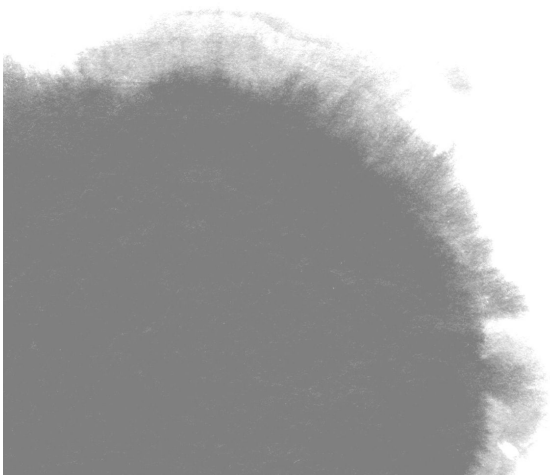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2010년 행정적용 현금급여기준선	2010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2011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1인 가구	422,180	423,343	436,044
2인 가구	718,846	720,828	742,453
3인 가구	929,936	932,500	960,475
4인 가구	1,141,026	1,144,171	1,178,496
5인 가구	1,352,116	1,355,843	1,396,518
6인 가구	1,563,206	1,567,515	1,614,540





## 최저생계비의 활용 및 정책건의





## 제13장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 제1 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및 선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이외의 영역(압류, 파산제도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최저생계비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감안하여야 한다.

첫째, 최저생계비는 개별화(individualization)의 원칙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개별화의 원칙은 개인, 가구,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급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중소도시·전세기준 최저생계비이다. 따라서 가구(원)의 특성, 지역과 주거점유형태별 욕구의 차이를 감안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현재의 공식적 최저생계비는 장애인, 한부모가구와 같이 가구(원)의 추가적 욕구가 인정되는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대도시,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경우 실제로 중소도시,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더 높은 생활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정과 급여에서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선정기준으로 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주거점유형태별·지역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

이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최저생계비를 도입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몇 가지로 검토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가구특성별 각종 수당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장애인가구의 경우 차상위까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부모가구의 경우도 추가적인 한부모 수당이나 보육료 추가 지원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가구특성 비용을 수급자 선정시에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가구특성비용(장애수당, 한부모가구의 보육비, 지속적 의료비 등)을 소득 산정 시에 일부 감해줌으로써 이를 부분적으로 시현하고 있다. 주거점유형태별 특성에도 이러한 공제 방안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월세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세와 월세 간의 최저 주거비 차액을 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는 월세가구의 경우 기초보장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둘째, 보충성(complementation)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보충성 원칙은 급여가 수급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감액을 보충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득인정액의 합리적 산정과 소득파악의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포괄성(comprehensiveness) 및 적절성(adequacy)의 원칙이다. 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needs)에 대응하여 포괄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급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의료·주거·케어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특히, 기본욕구(basic need)의 충족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에서는 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이 급여수준 설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며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포괄성과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도 제기될 수 있다.

넷째, 형평성(equity)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수직적 형평성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동일한 생활수준에 있는 수급자들은 동일한 처우와 급여를 받아야 하며, 생활수준에 차이가 있는 수급자 간에는 상이한 처우와 급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수급자가 급여를 받은 후의 생활수준이 비수급자의 생활수준을 크게 역전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급여의 수급이 이러한 생활수준 역전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형평성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노동유인(work incentive)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및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수준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산정 및 선정과 급여의 설계에 있어 이러한 생활수준 역전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편의성(convenience)의 원칙이다. 대상 선정의 복잡성과 급여의 다양성,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성 등과 관련해서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적 편의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좋은 의도로 도입된 제도라 할지라도 실행이 매우 어렵거나 실행상 행정적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구체적 실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최저생계비의 활용방안

### 1. 최저생계비 관련 법조항

최저생계비에 관한 법 조항으로 최상위법은 헌법으로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권리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

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항에서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설정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많은 사회복지제도 중 특히 공공부조의 수급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정의, 계측 절차, 활용 등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하며(법제6조제1항),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법제6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제6조제3항).

현재 이러한 최저생계비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영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이다. 먼저, 선정과 관련해서는 법제5조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급여 수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제4조에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법제7조제2항에서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수급 이후의 생활수준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요컨대, 최저생계비는 헌법의 추상적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 2.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의 활용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격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가구특성별 비용은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공제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자활공동체 참여 소득, 학생(대학생 포함)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소득액의 30%, 공공근로 참여 소득의 30% 등이 다<sup>39)</sup>.

13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0. 9. 1. 개정).

- ①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 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⑤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 재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⑥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⑦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⑧ 학생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⑨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⑩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재산유형별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 부채는 전액 인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 부채를 제외한 사채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한다. 환산율은 재산유형별로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로 차등 적용한다.

$$\begin{array}{|c|} \hline \text{소득인정액}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소득평가액}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hline \end{array}$$

$$\left[ \begin{array}{c}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 \text{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text{재산} - \text{기초공제} - \text{부채}) \times \\ \text{환산율} \end{array} \right]$$

### 3. 급여기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 활용

#### 가. 최저생계비 비목과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급여의 종류가 다르고, 그 수준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법 제4조제3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가지로 급여의 종류를 나누고 있으며,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급여는 개별가구의 욕구에 따라서 접근되어야 하며, 세대 단위로 접근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급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가구의 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가구의 욕구는 그 비목의 성격에 따라서 공통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등은 공통적인 부분으로서 개별 가구마다 그 욕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비해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은 개별 가구의 구성이나 특성에 따라서 그 욕구가 달라지는 비목으로 상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없는 가구의 경우 교육비 욕구는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비해 학생이 많은 가구는 교육비 욕구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급여를 제공할 때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욕구가 비슷한 비목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로서 현금으로 급여하는 것이 적절하며, 개별 가구마다 욕구의 차이가 큰 경우는 수당 또는 기타 현물 지원 등으로 급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서 특별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가구유형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급여 구성방식과 내용을 구분해 보면 <표 13-2-1>과 같다.

〈표 13-2-1〉 급여의 구성방식과 내용

	기본급여	욕구별 급여	가구유형별 급여	특별급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자격요건	모든 가구	해당 욕구가 있는 가구	해당 유형의 가구(원)	해당 욕구가 있는 가구
고려사항	가구규모(가구원수)	가구구성(학생유무, 환자 유무 등) 및 주거형태에 따른 차등 급여	가구특성(한부모, 노인, 장애인 여부)에 따른 차등 급여	해당 사항이 발생한 가구
급여형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당 또는 기타 현물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단위	가구	개인	개인	개인
최저생계비 비목구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고 있다. 즉, 최저생계비는 총 11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급여와 관련지어 구분하자면, 생계를 위해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부분(표의 기본급여 부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욕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현물급여 부분(욕구별 급여 부분), 그리고 최저생계비에는 비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정부가 타법을 통해 지원하는 타법지원부분(기본급여에서 감해지는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이와 같이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므로, 이를 다양한 방법의 급여체제로 구분하여 활용할 여지가 열려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활용성과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초보장제도에서 가구유형별 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부 공제됨으로써 부분적으로만 감안된다<sup>140)</sup>. 또한, 해당 특성을 가진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현금급여에서 빠져 있는 부분 중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저생계비에서 표준가구의 아동 2인(11세 자녀와 9세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현금급여기준선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sup>141)</sup>.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며,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용품비 등 어떠한 현금 교육급여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010년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교육급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가구(원) 특성별·주거 유형별 등 다양한 욕구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욕구별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현 최저생계비 하에서 실현될 수 있는 부분 - 예를 들면, 교육급여 -도 있고, 최저생계비를 가구특성별·지역별로 좀 더 정교하게 적용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한부모 추가급여, 지역별·주거점유형태별 주거급여도 있다.

140)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특성별 비용이 공제되면 소득인정액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충급여의 특성상 급여가 증가하게 된다.

141)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에서 아동 2인에 대한 교육비는 65,930원이다.

## 나. 현금급여기준선

현금급여기준선이란 현금급여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즉,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현금급여액을 의미한다. 급여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지 않고, 현금급여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법지원<sup>142)</sup> 우선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타법 지원우선의 원칙이란 타법을 기초보장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충성이란 최저생계비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법지원액 및 현물급여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어야 만이 현금급여기준선이 산출될 수 있다. 타법지원액 및 현물급여액 산출은 최저생계비 구성 항목 중 타법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수급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및 현물과 기초보장법상 현물 등의 비용 합계이다. 이러한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기초보장 수급가구에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sup>143)</sup>.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타법지원액 및 현물급여에 포함하여 현금급여에서 제외하면, 앞서 언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 중 타법지원액에 해당되어 현금급여기준선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식료품비 중 급식비, 광열수도비 중 전기료의 20%, 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비, 교육비 전액,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중 쓰레기 봉투, 교양오락비 중 TV 수신료, 교통통신비 중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요금 중 일부, 비소비지출 중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이다. 따라서 현금급여기준선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42) 여기에서 ‘타법지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타법지원액에 포함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타법지원액(급식비, 주민세, 건강보험보험료 등), 기초보장제도 내 가구특성별 급여 혹은 현물급여(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기타 지자체나 민간기관에 의해 수급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쓰레기봉투, TV수신료, 전화요금 등)로 구분될 수 있다.

143)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거나,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에 의해 일부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각종 지원은 타법지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현재 상당수의 수급자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지원의 경우 타법지원액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타법지원이 가구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나 기초보장 수급자가 가구원 중 일부 수급이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타법지원이 가구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나 타가구와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전기료 감면(20%)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현금급여기준선 = 최저생계비 - 의료급여(최저 보건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 - 최저교육비 - 타지원액<sup>1)</sup>

주: 1) 급식비, 전기료 중 20%, 쓰레기봉투, TV수신료,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요금 중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 주민세

2010년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및 타법지원액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액은 253,317원이다. 따라서 4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선은 아래 <표 13-2-2>와 같이 최저생계비 1,397,488원에서 253,317원을 감한 1,144,171원이 된다.

<표 13-2-2> 4인 표준가구의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현금급여기준 1,144,171원	=	최저생계비 1,397,488원	-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253,317 원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62,510원</li> <li>◦ 전기요금 6,346원</li> <li>◦ 보건의료비 32,138원</li> <li>◦ 교육비 65,930원</li> <li>◦ 쓰레기봉투 1,220원</li> <li>◦ TV수신료 2,500원</li> <li>◦ 통신비 19,240원</li> <li>◦ 주민세 433원</li> <li>◦ 국민연금 38,610원</li> <li>◦ 건강보험 24,390원</li> </ul>

2010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은 4인가구 현금급여기준선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가구균등화지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2011년 현금급여기준선은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11년 최저생계비 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가구규모별 2010년 및 2011년 현금급여 기준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3-2-3>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년 최저생계비	517,071	880,417	1,138,953	1,397,488	1,656,023	1,914,559
2010년 타법지원액	93,727	159,590	206,453	253,317	300,180	347,044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	423,343	720,828	932,500	1,144,171	1,355,843	1,567,515
2011년 현금급여기준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 제14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제1 절 결론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2010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을 계측하는 것이다. 둘째, 2011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최저생계비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의 연구 목적과 대동소이하다. 달라진 점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서 상대 방식의 중요성이 2007년 연구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제3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09.8.19)에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해, “전물량 방식과 상대빈곤선을 고려하여 중생보에서 조정한다”고 의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의 연구에서는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주된 계측방식으로 채택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출발은 최저생계비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 국가의 국민들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정의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원칙이 최저생계비 계측 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최저생계비에는 ‘건강성’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영위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노동 재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최저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주거, 의복 등이 감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최저생계비에는 ‘문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와 함께 최소한의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화성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생존비를 구분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셋째, 최저생계비 수준은 말 그대로 ‘최저성’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성이란 마켓 바스켓 구성에서 사치품을 배제하고, 필수품만을 최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2010년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2007년 이후 일반국민들의 생활상의 변화를 마켓 바스켓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연구진은 식료품비 산정에서 있어서 영양권장량 변화를 마켓 바스켓에 반영하였다. 2007년 최저생계비의 경우 주로 2005년 개정된 제8차 『한국인영양권장량』을 바탕으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으나, 2010년 최저생계비는 동 『한국인영양권장량』과 『식품영양소 함량자료집』(한국영양학회, 2009)을 동시에 참고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마켓 바스켓 구성에 있어 연구자들에 의한 자의적(恣意的)인 필수품 선정을 막기 위해 소득탄력성, Logistic 회귀분석을 시도하였고, 지역 간 가구 유형간 필수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상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적, 반물량, 여타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거의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이론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고(법제20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전심의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최저생계비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이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전에 전문위원회에서 8차에 걸쳐 표준가구, 가구균등화지수, 지역구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연구진의 연구내용과 발표된 최저생계비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하여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기본모형( $PL_{4t}=Y_{4t}\times\alpha$ )을 제시하고, 기본 모형에 투입되는 기준지표( $Y_{4t}$ )와 상대적 비율( $\alpha$ )에 대한 연구를 과거 연구보다 심도 있게 하였다. 연구결과 기준지표( $Y_{4t}$ )는 과거 3년 평균 중위 가계지출이, 그리고 상대적 비율( $\alpha$ )은 ‘상대적 개념 적용 비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적용한 상대적 방식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28,174원으로 나타났다<sup>144)</sup>. 하지만, 전문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대적 비율( $\alpha$ )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동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안으로 머물고 말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산출은 먼저 표준가구를 결정한 후 표준가구의 비목별·품목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전국 동일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즉, 마켓 바스켓 구성시 지역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에 대하여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여 표준가구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sup>145)</sup>. 한편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의 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은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비용 또는 감소비용을 산출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1인당 추가비용을 산출하고,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단위로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sup>146)</sup>.

그러므로 표준가구의 설정은 전물량 방식의 출발점에 해당된다. 표준가구는 국민생활실태조(1차 조사)에서 최빈 가구규모, 최빈가구의 가구주 나이를 추출한 후 부부간의 연령차, 첫아이 출산시기, 자녀간 연령차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최빈 가구규모는 2007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4) 다양한 방식별 상대적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제9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45) 그러나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제5장에서 제시한 바처럼 계측하였으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146) 가구유형별 추가비용도 제7장에서 제시한 바처럼 추정하였으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표 14-1-1〉 2007년 및 2010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

구분	최빈 가구규모	부	모	1자	2자
2007년	4인(27.3% <sup>1)</sup> )	40세	37세	11세	9세
2010년	4인(26.6% <sup>1)</sup> )	40세	37세	11세	9세

주: 1) 4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설정된 표준가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계측한 2010년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가 1,417,98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많고 다음이 주거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위원회 심의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가 1,397,488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 현재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63,091원보다 34,397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동 증가 금액은 과거 3년간의 생활의 질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의 변화는 물가의 변화와 생활의 질의 변화로 구성되는데,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이후 물가의 변화만을 반영하여 행정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표 14-1-2〉 2010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중생보위안 비교(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결정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545,943	38.5	527,327	37.7
주거비	221,374	15.6	221,374	15.8
수도광열	103,150	7.3	103,150	7.4
가구집기비	40,879	2.9	40,547	2.9
피복신발비	52,060	3.7	57,649	4.1
보건의료비	62,196	4.4	62,196	4.5
교육	65,930	4.6	65,930	4.7
교양오락	30,483	2.1	27,117	1.9
교통통신비	142,600	10.1	142,600	10.2
기타소비지출	86,072	6.1	82,305	5.9
비소비지출	67,293	4.7	67,293	4.8
합계	1,417,980	100.0	1,397,488	100.0



한편, 결정된 최저생계비가 연구진이 제시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이유는 전문위원회 심의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추가된 품목도 있지만 삭제된 품목이 많았고, 금액 또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구진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들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였으나,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사용량이 심의 과정에서 축소되었다.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별 마켓 바스켓을 작성하지 않고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가구균등화지수는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결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OECD 가구균등화지수가 지니고 있는 한계<sup>147)</sup>를 감안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1차조사)를 바탕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추정하였다<sup>148)</sup>. 추정한 결과는 <표 11-1-3>과 같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서 급격한 가구균등화지수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 정책과의 안정성에 무게 중심을 두어 현행의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14-1-3>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지수

구 분	연구진 제시 가구균등화지수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지수 (OECD기준)
1인가구	0.37893	0.3700
2인가구	0.61557	0.6300
3인가구	0.81760	0.8150
4인가구	1.00000	1.0000
5인가구	1.16906	1.1850
6인가구	1.32820	1.3700

147) 현행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의 규범적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제6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8)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04.12.1)에서는 2005년 이후의 가구균등화지수는 2009년에 OECD 기준에 도달하도록 상향조정해 나가되, 2008년부터는 2007년도에 실시 예정인 최저생계비 재측조사의 1차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한 지수를 바탕으로 재심의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 지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추정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먼저 201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97,488원에 물가상승률 3.0%를 적용하여<sup>149)</sup> 2011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39,413원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 동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표 14-1-4〉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구분	2010년 최저생계비 <sup>1)</sup>	2011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517,071	532,583
2인가구	880,417	906,830
3인가구	1,138,953	1,173,121
4인가구	1,397,488	1,439,413
5인가구	1,656,023	1,705,704
6인가구	1,914,559	1,971,995

주: 1) 2010년 중생보위 의결 최저생계비이므로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는 차이가 있음.

최저생계비 계층의 1차적인 목적은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표 11-1-4>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면 된다. 여기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기초보장제도에서는 6인가구 최저생계비와 5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6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합산하여 7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산정한 후 이를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물론 8인이상 가구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sup>150)</sup>.

149) 연구진은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하여 생활의 질의 변화와 물가 변화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계측연도 다음 연도는 생활의 질 변화가 크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물가만을 반영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제8장을 참조바랍니다.

150) 이러한 방식은 즉, 가구원수의 증가에 대하여 동일한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는 방식은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4년 합의한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하기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다

급여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부조제도는 보충성의 원리와 타법적용 우선의 원칙(최후 보장의 원리)을 급여산정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급여기준선<sup>151)</sup>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물급여 및 타법지원액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이를 감(-)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물급여 및 타법지원액은 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결정되었다. 첫째,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항목 중 수급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이어야 한다. 만약, 보편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타법지원액에 포함하여 현금급여에서 제외하면, 법 제7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소득인정액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육구별 급여가 가능한 한 항목(예, 의료, 교육)은 타법지원액에 포함한다. 동 육구별 급여가 가능한 항목은 타법지원액에 포함하여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육구대상자에게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을 추정한 후 2011년 현금급여기준선은 2010년 현금급여기준선에 최저생계비 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1-5>와 같다. 이와 같이 결정된 현금급여기준선을 바탕으로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여 현금급여가 이루어진다. 즉, 개별가구의 현금급여는 현금급여기준선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감(-)한 금액이 된다.

<표 14-1-5> 2010년 및 2011년 현금급여기준선(행정적용 및 중생보위 결정)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년 행정적용 현금급여기준선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2010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423,343	720,828	932,500	1,144,171	1,355,843	1,567,515
2011년 중생보위 결정 현금급여기준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음 계측연도인 2013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1) 현금급여기준선은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의미한다.

## 제2절 정책건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적용되는 기본선을 계측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의 정신과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연구진들이 인식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를 하고자 한다.

1. 3년 후인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는 계측방식이 확정되어야 한다. 계측방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계측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동안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주관적 방식 등의 장단점 및 현실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 계측이 전물량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2012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2013년 9월에 발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금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을 자동 결정 모형에 의하여 추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동안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둘러싸고 해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의 제도화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차년도의 추정 물가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실태와의 괴리가 발생하였으나, 자동 결정모형에서는 과월(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실질 물가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다소 해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발표 시점과 차년도 최저생계비 적용 시점 간의 괴리, 비계측연도의 생활의 질 미반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최저생계비 계측과 적용간의 시차를 줄여야 한다. 최저생계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초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만약 기초보장제도에 이론보다 낮은 기준선이 정책에 적용된다면 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에 가장 크게 발생된다. 2010년의 경우도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계측된 최저생계비간의 차이가 4인가구 기준 34,397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최저생계비 발표시점이 매년 9월 1일로 변경되었으므로 차년도 최저생계비 발표 시에 계측년도 최저생계비도 아울러 발표하고, 9월부터는 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최저생계비와 급여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행 최저생계비에는 초등학생의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비는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각종 급여의 합계와 소득인정액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교육비와 같은 욕구별 급여는 현금급여기준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대신에 욕구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급여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금년의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 그러므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선은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생계비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기로 의결하여야 한다. 둘째, 이론적으로 산출한 지역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 인접한 농어촌의 경우 생계비는 중소도시보다 오히려 많이 들어가나, 이론적으로 산출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보다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한다.

6. 주거점유형태별로도 최저생계비가 차등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전세 기준이다. 이와 같이 주거점유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경우, 자가 수급가구는 과잉, 월세 수급가구는 과소 급여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월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가구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 적용은 더욱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지역별 최저생계비와 아울러 주거점유형태별로 차등화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KT경제경영연구소. 2009. 『2010년 방송통신시장 전망보고서』 .
-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http://www.mest.go.kr/me\\_kor](http://www.mest.go.kr/me_kor).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지표』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의료급여통계연보』 .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 국토해양부. 2009.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 기획재정부. 2010.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 김미곤 · 여유진 · 양시현 · 강성호 · 김태완 · 이경민. 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 여유진 · 이상은 · 정재훈 · 김계연 · 양시현 · 오지현 · 김민희 · 임미진. 2009.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 여유진 · 이태진 · 양시현 · 최현수 · 김태완 · 박지혜 · 김용희 · 이선우 · 김진욱 · 석재은. 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부. 2009. 『2009년도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결과보고서』 . 최저임금위원회
- 농수산물 유통공사. 2010. 『농수산물 가격정보』 .
-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 <http://www.waterworks.daejeon.kr/>.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0. 『2010년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

- 박순일 · 김미곤 · 이수연 · 정희태 · 이경신 · 하길웅. 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범 · 조우현. 1989. 『1989년도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 박찬용 · 박순일 · 김미곤 · 이선우 · 박능후 · 김태완. 1998.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무기 · 박덕제 · 조우현. 1987. “최저임금 적용대상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산출모형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보건복지부. 2010. 『2010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 서상목. 1979. “빈곤인구의 추계와 속성분석”. 『한국개발연구』 여름호(제1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 안창수 · 이성기 · 이충섭 · 이필도 · 김미곤 · 서정목 · 박성준 · 이태원. 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 · 손창균 · 최현수 · 이선우 · 김문길 · 김계연 · 오지현 · 송치호 · 서봉균 · 유현상 · 김은정. 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 김미곤 · 양시현 · 김태완. 2006. 『2006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종구 · 주학중. 1986.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동등화소비단위.” 『한국개발연구』 겨울호. 한국개발연구원.
- 이선우. 2008.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별 추가비용 계측: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Vol.32. pp. 7-2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0. 『2010년 표준생계비 해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통신서비스 가입자수」.
- 주재선. 2010. 『2009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중앙회. 2008.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2009.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9. 『2008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최기춘 · 이호용 · 이선미. 2009.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9-0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홈페이지. 『2010년 최저임금 안내』, 노동부 고시 제2009-174호(2010.1.1~2010.12.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2006. 『2005년도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결과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통계청. 2007. 『소비자물가』 (통계청 KOSIS 자료 [www.kosis.kr](http://www.kosis.kr))

통계청. 2010. 『소비자물가』 (통계청 KOSIS 자료 [www.kosis.kr](http://www.kosis.kr))

통계청. 2007. 『소비자물가 가격월보』.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3. 『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0. 『2010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 200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제8차 개정』.

한국영양학회. 2009. 『식품영양소 함량자료집』.

한국전력공사. 2006.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

환경부. 2009. 『2008 상수도통계』.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국외 문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www.mhlw.go.jp](http://www.mhlw.go.jp).

후생통계협회. 2009. 國民の福祉の動向.

ADB. 2010. *Asian Development Outlook*.

Atkinson, A. B. and Bourguignon, F. 2000.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Elsevier.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2003. *The Bare Necessities: Poverty and Deprivation in Australia Today*.

Berthoud, R., Lakey, J. and McKay, S. 1993. The economic problems of disabled people.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Deaton, A. and Muellbauer, J. 1980.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Deaton, A. and Muellbauer, J. 1986. "On measuring child costs: with applications to poor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4. No. 4. pp. 720-744.

Doessel, D. P. and Whiteford, H. Applying concepts from Mill and Sen to the standard of living for disabled people.

DWP. 2004.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HBAI) 1994/95-2002/03*.

DWP. 2004. *Work and Pension Statistics 2004*.

DWP. 2007. *Low-Income Dynamics, 1991-2007*.

DWP. 2010.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HBAI) 1994/95-2008/09*.

Hagenaars, A. J. M. & Klaas de Vos. 1988.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Pover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XXIII. No. 2. pp. 211-221.

Hatfield, M., Pyper, W. and Gustajtis, B. 2010. "First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arket Basket Measure of Low Income." *Applied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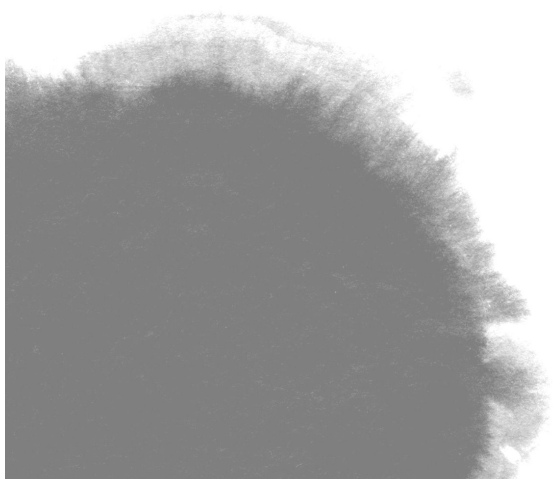
- Branch paper*.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 Haveman, R. and Wolfe, B. 2000. The Economics of Disability and Disability Policy. In Culyer, A. J. and Newhouse, J. P. eds. 2000.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V. 1B. Amsterdam: Elsevier Science, 995-1051.
- Henderson, R. F., A. Harcourt and R.J.A. Harper. 1970. *People in Poverty: A Melbourne Survey*. Cheshire for 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HRDC. 2009. *Low Income in Canada: 2000-2007. Using the Market Basket Measure*. Final Report.
- IMF. 2010. *World Economic Outlook*.
-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8. "Revising the poverty measure." In <http://www.irp.wisc.edu/publications/focus/pdfs/foc192.pdf>.
- Jones, A. and O'Donnell, O. 1995. "Equivalence scales and the costs of disab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6. No. 2. pp. 273-289.
- Kuivalainen. 2004. "Production of Last Resort Support: A Comparison on Social Assistance Schemes in Europe with the Notion of Welfare Production and the Concept of Social Right." *LIS Working Paper* No.379.
- Kuklys, W. 2004. A monetary approach to capability measurement of the disabled - Evidence from the UK. Discussion Papers on Strategic Interaction 2004-08. Max Planck Institute for Research into Economic Systems.
- Lluch, C.. 1973. "Extended linear expenditure system." *European Economic Review*.
-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March quarter 2007. *Poverty Lines: Australia*.
- Murphy, Brian, X. Zhang and C. Dionne. 2010. "Revising Statistics Canada's

- Low Income Measures, Statistics Canada.” *Income Research Paper Series*, 75F0002MIE.
- National council of welfare. 2008. *Welfare Incomes 2006 and 2007*.
-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OECD. 2010. *OECD Economic Outlook*.
- Rainwater, L. 1974. *What Money Buys*. New York: Basic Books.
- Rie Iwanaga. 2009. “Social Assistance Schemes and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Japan.” *International Forum on the Alternative Methods of Measur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 Ross, David P., Katherine J. Scott and Peter J. Smith. 2000. *The Canadian fact book on poverty 2000*, Ottawa: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 Saunders Peter. 1998. “Defining Poverty and Identifying the Poor: Reflections on the Australian Experience.” *SPRC Discussion Paper*. No. 84.
- Sen, A. 1987. “The standard of living.” In Hawthorn, G. ed. 1987. *The Standard of Living: The Tanner Lectures*, Clare Hall, Cambridge, 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8.
- Sen, A. 2004. Disability and Justice. Address to the Disability and Inclusive Development: Sharing, Learning and Building Alliances Conference, 30 November - 1 December 2004. Washington, DC.
- Statistics Canada. 2010. “Low Income Lines, 2008-2009.” *Income Research Paper Series*: Catalogue no. 75F0002MWE2010005.
-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index.html>)
-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threshld/thresh09.html>).
-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histpov/hstpov2.html>).

- U.S. Census Bureau ([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historical/hstpov1.xls](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data/historical/hstpov1.xl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aspe.hhs.gov/poverty/factsheet/difference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aspe.hhs.gov/poverty/09poverty.shtml>).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aspe.hhs.gov/poverty/figures-fed-reg.shtml>).
- Van Praag, B. M. S., Spit, Jan S. & Aan de Stadt, Huib. 1982. "A comparison between the food ratio poverty line and the leyden poverty lin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4. No. 4. pp. 691-694.
- Wolfson, M. C. and Evans, J. M. 1989. "Statistics Canada's Low Income Cut-Offs Methodological Concerns and Possibilities." *Research Paper Series*. Statistics Canada Analytical Studies Branch.
- Zaidi, A. and Burchardt, T. 2003.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 Equivalisation for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CASE paper No. 64. Feb 2003.



## 부 록









## 부록

[부록 1]	2010년 표준가구 마켓바스켓 .....	479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09) .....	547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09) .....	561
[부록 4]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1999~2009) .....	575
[부록 5]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2009) .....	590
[부록 6]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	605
[부록 7]	지역구분을 위한 ANOVA 분석결과 .....	606
[부록 8]	외국의 가구균등화지수 .....	634
[부록 9]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640
[부록 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조사표 .....	657



## 부표 목차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479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전세인 경우) .....	490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월세인 경우) .....	492
〈부표 1-3〉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494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496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502
〈부표 1-6〉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510
〈부표 1-7〉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512
〈부표 1-8〉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514
〈부표 1-9〉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516
〈부표 1-10〉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518
〈부표 1-11〉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	520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22
〈부표 1-13〉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전세인 경우) .....	532
〈부표 1-14〉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33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34
〈부표 1-16〉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37
〈부표 1-17〉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41
〈부표 1-18〉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42
〈부표 1-19〉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43
〈부표 1-20〉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44
〈부표 1-21〉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45
〈부표 1-22〉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	546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 .....	547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 .....	561
〈부표 4-1〉	전체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	575
〈부표 4-2〉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	577

〈부표 4-3〉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	579
〈부표 4-4〉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	580
〈부표 4-5〉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	582
〈부표 4-6〉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	583
〈부표 4-7〉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84
〈부표 4-8〉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585
〈부표 4-9〉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586
〈부표 4-10〉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87
〈부표 4-1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588
〈부표 4-12〉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589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 .....	590
〈부표 6-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근로자 가구) .....	605
〈부표 6-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전가구) .....	605
〈부표 8-1〉 미국 주정부별 TANF 최대급여액 평균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	634
〈부표 8-2〉 미국 주정부별 TANF+Food Stamp 최대급여액 평균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4
〈부표 8-3〉 일본 2004년 생활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4
〈부표 8-4〉 일본 2004년 생활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5
〈부표 8-5〉 영국의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5
〈부표 8-6〉 아일랜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5
〈부표 8-7〉 스웨인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5
〈부표 8-8〉 포르투갈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6
〈부표 8-9〉 벨기에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6
〈부표 8-10〉 룩셈부르크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6
〈부표 8-11〉 네덜란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6
〈부표 8-12〉 아이슬란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7
〈부표 8-13〉 덴마크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7
〈부표 8-14〉 핀란드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	637
〈부표 8-15〉 스웨덴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7
〈부표 8-16〉 스웨덴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8

〈부표 8-17〉 프랑스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	638
〈부표 8-18〉 독일 1999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8
〈부표 8-19〉 독일 1999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8
〈부표 8-20〉 오스트리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	639
〈부표 8-21〉 이탈리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639
〈부표 9-1〉 지역별 목표정도 .....	645
〈부표 9-2〉 시도별 모집단 규모(90%) .....	646
〈부표 9-3〉 모집단 조사구 규모(90%)(동부, 읍면부별) .....	647
〈부표 9-4〉 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현황 .....	648
〈부표 9-5〉 기존의 최저생계비 연구의 2차 표본 현황 .....	652
〈부표 9-6〉 2차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유형 표본가구 분포 .....	652
〈부표 9-7〉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노인가구 분포 .....	653
〈부표 9-8〉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한부모 가구 분포 .....	654
〈부표 9-9〉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장애인가구 분포 .....	654



[부록 1]

2010년 표준가구 마켓바스켓

1. 연구진 제시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가구주 40세, 3지역 기준)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식료품					
가정식비용					
가정식(외식없는 경우)	전국		1월	5,199원	91.25회
가장중식 절감분	도시		1월	1,579원	-21.73회
	농어촌		1월	0원	0.00회
급식절감분: 11세	전국		1월	1,250원	-15.83회
급식절감분: 9세	전국		1월	1,119원	-15.83회
수련회절감분: 11세	전국		1월	1,250원	-0.25회
수련회절감분: 9세	전국		1월	1,119원	-0.25회
가족단위외식절감분	전국		1월	5,199원	-0.33회
친지방문절감분	전국		1월	5,199원	-0.17회
외식비					
가장중식	도시		1월	3,500원	21.73회
	농어촌		1월	0원	0.00회
11세급식	전국		1월	1,974원	15.83회
9세급식	전국		1월	1,974원	15.83회
가족단위 외식	전국		1월	24,000원	0.33회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545,943원	545,943원	504,217원				
399,391원	399,391원	433,707원				
474,412원	474,412원	474,412원	영양학적기준			
-34,316원	-34,316원			근로형태		
		0원		근로형태		
-19,798원	-19,798원	-19,798원			소비자 물가조사, 평균	
-17,714원	-17,714원	-17,714원			소비자 물가조사, 평균	
-313원	-313원	-313원			1년 1회 6끼 한명(1/12*3=0.25)	
-280원	-280원	-280원			1년 1회 6끼 한명(1/12*3=0.25)	
-1,733원	-1,733원	-1,733원				
-867원	-867원	-867원			6개월 1회(=6/1=0.17회/월)	
146,552원	146,552원	70,510원				
76,042원	76,042원				실태조사 최빈값	
		0원				
31,255원	31,255원	31,255원			소비자 물가조사, 평균	
31,255원	31,255원	31,255원			소비자 물가조사, 평균	
8,000원	8,000원	8,000원			소비자 물가조사, 회수: 가족 생일(4회)	

48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조조사 연구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1끼당 비용					5,199원/끼니	
1일 가정식 비용					15,597원/일	
곡류 및 식빵					2,946원/일	
쌀	백미	20kg(1포)	740.0g/일	2.103원/g	1,556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잡쌀	백미	1kg(1포)	30.0g/일	4.489원/g	13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보리	통보리	1kg(1포)	40.0g/일	1.772원/g	71원/일	가격월보
콩	백태	1kg(1포)	25.0g/일	4.500원/g	11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팥	적두	1kg(1포)	10.0g/일	3.200원/g	32원/일	가격월보
식빵	중품	450g(1봉지)	40.0g/일	4.660원/g	186원/일	가격월보
밀가루	중력분	3kg(1포)	80.0g/일	1.038원/g	83원/일	가격월보
국수	소면	900g(1봉지)	75.0g/일	2.640원/g	198원/일	가격월보
라면	봉지라면	1봉(120g)	90.0g/일	4.500원/g	405원/일	시장조사
당면	중품	500g(1봉지)	12.0g/일	6.504원/g	78원/일	가격월보
만두	냉동만두	567g(1봉지)	15.0g/일	6.002원/g	90원/일	가격월보
육류					2,547원/일	
소고기(갈비)	수입소고기(호주)	500g(1근)	32.0g/일	15.934원/g	51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돼지고기	삼겹살	500g(1근)	130.0g/일	8.800원/g	1,144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닭고기	육계	1kg	70.0g/일	5.589원/g	391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소시지	시장제품	500g(1개)	7.0g/일	4.968원/g	35원/일	가격월보
햄	시장제품	185g(1개)	12.0g/일	7.750원/g	93원/일	시장조사
튀김닭	시장제품	800g(1마리)	50.0g/일	7.481원/g	374원/일	가격월보
낙농품					1,427원/일	
우유	흰우유	200ml(1개)	400.0g/일	2.315원/g	854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유산균발효유	중품	65ml(1병)	90.0g/일	2.354원/g	212원/일	가격월보
달걀	시장제품	65g(10개)	140.0g/일	2.583원/g	362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어개류					1,442원/일	
갈치	냉동, 약60cm, 4월	250g(1마리)	8.0g/일	27.600원/g	221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명태	동태, 약40cm	400g(1마리)	20.0g/일	7.665원/g	15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고등어	약30cm	250g(1마리)	15.0g/일	11.380원/g	171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꽂치	약30cm	160g(1마리)	12.0g/일	3.496원/g	42원/일	가격월보
냉동오징어	약25cm	250g(1마리)	15.0g/일	3.948원/g	59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홍합	중품, 안간 것(수입)	400g(1근)	10.0g/일	14.288원/g	143원/일	시장조사
복어	복어포	100g(1봉지)	3.0g/일	30.913원/g	93원/일	가격월보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곡류 및 식빵												
쌀	2752.80	47.36	0.00	0.00	1.48	0.00	0.81	0.30	11.10	0.89	181.30	0.00
잡쌀	112.20	2.22	0.00	0.00	0.12	0.00	0.04	0.02	0.48	0.02	7.35	0.00
보리	128.80	4.24	0.00	0.00	0.24	0.00	0.12	0.04	2.20	0.22	14.64	0.00
콩	100.00	9.05	0.00	0.00	0.21	0.00	0.13	0.07	0.55	0.14	79.45	0.00
팥	33.70	1.93	0.10	0.00	0.06	0.00	0.05	0.01	0.33	0.04	19.11	0.00
식빵	113.20	3.32	0.80	0.00	0.44	0.00	0.05	0.02	0.76	0.01	9.20	0.00
밀가루	302.40	9.20	0.00	0.00	0.00	0.00	0.17	0.02	1.44	0.00	12.80	0.00
국수	272.25	6.53	0.00	0.00	0.08	0.00	0.07	0.02	1.58	0.03	16.73	0.00
라면	342.90	7.74	62.10	0.00	1.89	0.00	0.50	0.34	0.81	0.08	21.06	0.01
당면	41.88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만두	32.10	1.44	5.40	0.00	0.11	0.15	0.03	0.01	0.14	0.22	12.12	0.00
육류												
소고기(갈비)	84.16	5.92	3.52	0.32	0.22	0.32	0.02	0.05	1.47	0.11	2.66	0.90
돼지고기	430.30	22.36	7.80	0.00	0.52	1.30	0.88	0.39	5.72	0.10	5.07	1.09
닭고기	126.00	13.30	35.00	0.00	0.21	0.00	0.14	0.15	1.89	0.21	11.69	0.22
소시지	19.32	1.01	0.35	0.00	0.03	0.70	0.01	0.01	0.27	0.01	1.37	0.06
햄	15.72	1.98	0.00	0.12	0.05	5.16	0.02	0.02	0.84	0.03	1.38	0.08
튀김닭	112.71	8.78	10.92	0.00	0.47	0.00	0.05	0.07	2.73	0.12	6.08	0.11
낙농품												
우유	240.00	12.80	112.00	4.00	0.40	4.00	0.16	0.56	0.40	0.08	38.80	1.76
유산균발효유	58.50	1.35	0.00	0.00	0.00	0.00	0.01	0.11	0.00	0.02	28.89	0.33
달걀	193.20	16.52	222.60	4.20	0.98	0.00	0.07	0.39	0.84	0.10	174.30	1.81
어개류												
갈치	7.99	0.99	1.07	0.75	0.03	0.05	0.01	0.01	0.12	0.02	0.11	0.05
명태	14.60	3.18	1.80	0.00	0.18	0.00	0.02	0.01	0.22	0.03	0.86	0.80
고등어	16.20	1.79	2.04	0.97	0.03	0.09	0.02	0.04	0.73	0.04	3.98	0.94
꽂치	11.29	1.33	1.44	1.30	0.03	0.07	0.00	0.02	0.44	0.03	2.69	1.21
냉동오징어	13.20	2.55	0.30	0.00	0.20	0.00	0.00	0.02	0.00	0.03	1.16	0.98
홍합	1.59	0.22	0.69	0.00	0.06	0.09	0.00	0.01	0.06	0.00	1.83	0.28
복어	8.70	1.85	0.00	0.00	0.11	0.00	0.00	0.01	0.25	0.01	0.61	0.08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율
곡류 및 식빵												
쌀	29.60	1036.00	0.00	2.96	11.10	0.00	0.00	5.55	0.00	111.74	0.00	0
잡쌀	1.20	45.30	6.90	0.66	0.81	0.05	0.00	0.38	0.00	4.53	0.00	0
보리	17.20	144.00	53.20	2.16	1.05	0.20	0.00	0.57	0.00	15.08	0.00	0
콩	61.25	155.00	0.00	1.63	0.68	0.27	0.00	0.69	0.00	4.83	0.00	0
팥	8.20	42.40	0.00	0.56	0.50	0.07	0.00	0.13	0.78	0.31	0.00	0
식빵	8.80	34.40	0.00	0.28	0.28	0.10	0.00	0.10	0.00	6.92	0.00	0
밀가루	24.80	62.40	20.00	1.20	0.00	0.00	0.00	0.45	0.00	11.68	0.00	0
국수	5.25	49.50	0.00	0.75	0.38	0.09	0.00	0.46	0.00	6.23	0.00	0
라면	14.40	81.90	0.00	0.63	0.45	0.00	0.00	0.42	0.00	9.63	0.00	0
당면	5.64	3.12	0.24	0.36	0.01	0.00	0.00	0.01	0.00	0.34	0.00	0
만두	4.65	12.45	0.00	0.20	0.12	0.00	0.00	0.00	0.00	0.00	0.00	0
육류												
소고기(갈비)	0.96	51.20	5.12	0.38	1.18	0.02	0.00	0.00	0.00	5.15	0.00	0
돼지고기	10.40	171.60	5.20	0.91	3.12	0.07	0.00	0.00	0.00	10.40	0.00	0
닭고기	7.00	119.00	0.00	0.63	1.52	0.04	0.00	0.01	35.91	10.08	0.00	0
소시지	0.84	14.77	0.00	0.11	0.13	0.01	0.00	0.00	0.00	0.00	0.00	0
햄	0.60	39.60	0.00	0.08	0.13	0.01	0.00	0.00	0.00	3.53	0.00	0
튀김닭	8.19	60.45	8.19	0.55	0.65	0.03	5.85	0.00	0.00	9.95	0.00	22
낙농품												
우유	420.00	356.00	0.00	0.40	1.60	0.00	0.00	0.00	94.00	14.80	0.00	0
유산균발효유	35.10	25.20	0.00	0.09	0.09	0.00	0.00	0.00	23.58	1.98	0.00	0
달걀	60.20	226.80	14.00	1.96	1.82	0.25	1.40	0.04	35.84	44.38	0.00	0
어개류												
갈치	2.47	10.24	0.00	0.05	0.04	0.00	0.00	0.00	3.39	0.00	0.00	33
명태	9.60	40.00	0.00	0.04	0.14	0.02	0.00	0.00	0.00	5.70	0.00	0
고등어	2.30	20.53	6.73	0.14	0.09	0.01	0.00	0.00	7.69	3.90	0.00	41
꽂치	3.69	16.01	0.00	0.12	0.05	0.01	0.00	0.00	0.00	0.00	0.00	43
냉동오징어	1.65	0.00	0.00	0.00	0.04	0.00	0.00	0.00	0.00	6.72	0.00	0
홍합	1.43	2.25	0.00	0.12	0.03	0.00	0.00	0.00	7.96	1.03	0.00	77
복어	7.29	17.46	0.00	0.08	0.01	0.00	0.00	0.00	0.00	4.01	0.00	0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멸치	볶음용, 중품	1kg	10.0g/일	17.836원/g	178원/일	가격월보
멸치젓	중품	500g(1통)	10.0g/일	3.775원/g	38원/일	가격월보
새우젓	중품	500g(1근)	5.0g/일	8.269원/g	41원/일	가격월보
생선묵	중품	180g(1개)	18.0g/일	8.408원/g	151원/일	가격월보
참치캔	참치 통조림	150g(1캔)	12.0g/일	12.667원/g	152원/일	시장조사
채소				2,617원/일		
배추	중품(11월)	1kg(1포기)	250.0g/일	0.980원/g	24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무우	중품(11월)	1kg(1개)	150.0g/일	0.700원/g	10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파	대파	1kg	60.0g/일	1.620원/g	9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시금치	중품(4월)	100g	20.0g/일	4.170원/g	8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상추	잎상추(4월)	100g	15.0g/일	9.000원/g	13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콩나물	중간길이	100g	40.0g/일	2.590원/g	104원/일	가격월보
감자	중품(8월)	1kg	60.0g/일	1.917원/g	11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오이	다다기 중품(6월)	1.5kg(10개)	30.0g/일	3.333원/g	10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당근	중품	1kg	15.0g/일	1.820원/g	2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풋고추	중품	400g(1근)	15.0g/일	7.200원/g	108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양파	중품(6월)	1kg	60.0g/일	0.780원/g	4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호박	쭈키니 중품(6월)	500g(1개)	30.0g/일	1.600원/g	48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토마토	중품(7월)	400g(1근)	20.0g/일	7.500원/g	15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고구마	중품(1월)	1kg	25.0g/일	2.600원/g	6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도라지	중품	200g(반근)	4.0g/일	11.430원/g	46원/일	가격월보
가지	중품	120g(1개)	8.0g/일	3.333원/g	2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양배추	중품	1kg(1포기)	40.0g/일	0.769원/g	31원/일	가격월보
미나리	중품(6월)	1kg	9.0g/일	3.500원/g	32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버섯	느타리버섯(12월)	100g	15.0g/일	6.250원/g	94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깻잎	중품(6월)	100g	4.0g/일	13.400원/g	54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부추	중품(10월)	1kg	12.0g/일	3.000원/g	36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숙주나물	중품	200g(반근)	20.0g/일	2.500원/g	50원/일	가격월보
단무지	중품	400g(1봉지)	9.0g/일	5.640원/g	51원/일	시장조사
두부	시장제품	500g(1모)	100.0g/일	1.603원/g	160원/일	가격월보
도토리묵	시장제품	400g(1개)	20.0g/일	2.990원/g	60원/일	시장조사
김	중품,검정색	200g(100장)	8.0g/일	30.415원/g	24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미역	대각	100g(1장)	20.0g/일	15.270원/g	30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과실류				1,562원/일		
사과	쓰가루 중품(8월)	300g(1개)	60.0g/일	3.310원/g	199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배	신고 중품(8월)	600g(1개)	50.0g/일	3.267원/g	16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복숭아	유명 중품(9월)	350g(1개)	20.0g/일	2.857원/g	5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포도	캠벨 중품(11월)	1kg	40.0g/일	3.000원/g	12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멸치	23.90	4.24	0.00	0.00	0.08	0.00	0.01	0.01	0.54	0.04	10.75	4.13
멸치젓	16.70	1.41	6.00	0.00	0.34	0.00	0.00	0.02	0.63	0.04	2.47	0.00
새우젓	2.15	0.35	2.60	0.00	0.04	0.00	0.00	0.00	0.04	0.01	1.42	0.00
생선묵	25.20	2.12	0.00	0.00	0.11	0.00	0.00	0.00	0.05	0.01	1.93	0.05
참치캔	26.64	2.11	0.00	0.71	0.78	0.00	0.01	0.02	1.44	0.05	1.28	0.26
채소												
배추	23.00	2.07	0.00	0.00	1.15	39.10	0.14	0.07	1.15	0.21	268.18	0.00
무우	25.65	1.14	11.40	0.00	0.00	21.38	0.04	0.03	0.57	0.01	57.14	0.00
파	12.64	0.73	62.69	0.00	0.05	10.21	0.03	0.04	0.29	0.00	55.16	0.00
시금치	5.16	0.53	120.40	0.00	0.10	10.32	0.02	0.06	0.09	0.02	50.50	0.00
상추	2.70	0.21	40.35	0.00	0.21	2.55	0.01	0.02	0.06	0.02	8.49	0.00
콩나물	12.40	2.04	0.00	0.00	0.08	2.00	0.04	0.04	0.28	0.02	38.76	0.00
감자	37.22	1.58	0.00	0.00	0.00	20.30	0.06	0.03	0.56	0.07	15.40	0.00
오이	2.57	0.23	8.55	0.00	0.11	2.85	0.01	0.01	0.06	0.01	1.08	0.00
당근	4.54	0.15	167.81	0.00	0.04	1.07	0.01	0.01	0.11	0.01	4.15	0.00
꽃고추	3.00	0.17	0.30	0.00	0.00	7.05	0.01	0.00	0.11	0.00	6.14	0.00
양파	18.77	0.55	0.00	0.00	0.00	4.42	0.02	0.01	0.06	0.06	9.38	0.00
호박	9.00	0.36	42.00	0.00	0.28	12.00	0.02	0.02	0.24	0.01	16.68	0.00
토마토	2.77	0.18	17.82	0.00	0.12	2.18	0.01	0.00	0.12	0.01	10.28	0.00
고구마	29.76	0.33	4.42	0.00	0.09	5.81	0.01	0.01	0.16	0.03	19.46	0.00
도라지	2.76	0.07	0.00	0.00	0.01	0.78	0.00	0.00	0.02	0.00	0.53	0.00
가지	1.43	0.07	0.45	0.00	0.02	0.68	0.00	0.00	0.03	0.00	3.52	0.00
양배추	6.54	0.21	0.34	0.00	0.03	12.38	0.01	0.01	0.10	0.03	33.71	0.00
미나리	1.18	0.11	18.45	0.00	0.06	0.74	0.00	0.01	0.11	0.01	10.01	0.00
버섯	3.75	0.39	0.15	0.15	0.00	0.45	0.03	0.02	0.14	0.01	15.14	0.00
깻잎	1.40	0.16	60.96	0.00	0.14	0.48	0.00	0.02	0.04	0.00	0.00	0.00
부추	2.24	0.31	55.11	0.00	0.28	3.95	0.01	0.02	0.09	0.02	10.19	0.00
숙주나물	2.20	0.44	0.80	0.00	0.02	2.00	0.01	0.01	0.10	0.01	12.20	0.00
단무지	1.08	0.05	0.00	0.00	0.04	0.63	0.00	0.00	0.02	0.01	1.25	0.00
두부	84.00	9.30	0.00	0.00	0.60	0.00	0.03	0.02	0.20	0.04	15.30	0.00
도토리묵	8.60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2.84	0.00
김	9.35	2.74	300.00	0.00	0.22	1.60	0.02	0.08	0.24	0.07	130.67	6.21
미역	19.40	4.00	260.00	0.00	0.12	3.60	0.05	0.20	0.90	0.01	30.76	0.04
과실류												
사과	28.04	0.15	1.48	0.00	0.49	1.97	0.00	0.00	0.05	0.05	3.49	0.00
배	12.87	0.16	0.00	0.00	0.04	1.56	0.01	0.00	0.12	0.01	3.12	0.00
복숭아	5.78	0.15	0.34	0.00	0.10	1.19	0.00	0.00	0.07	0.01	0.36	0.00
포도	16.76	0.14	0.00	0.00	0.14	0.00	0.01	0.01	0.14	0.01	7.87	0.00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율
멸치	90.20	97.70	0.00	0.55	0.13	0.02	0.00	0.31	26.52	8.49	0.00	0
멸치젓	59.20	34.80	0.00	0.55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
새우젓	16.50	5.55	0.00	0.08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
생선묵	10.44	15.84	0.00	0.16	0.11	0.00	0.00	0.00	0.00	0.00	0.00	0
참치캔	7.44	21.12	0.00	0.43	0.06	0.01	0.00	0.00	0.00	0.00	0.00	0
채소												
배추	85.10	57.50	0.00	1.15	0.92	0.07	0.00	0.51	0.00	1.15	0.00	8
무우	37.05	32.78	0.00	1.00	0.43	0.00	0.00	0.66	0.00	1.00	0.00	5
파	39.37	17.01	11.18	0.49	0.00	0.02	0.00	0.00	0.00	0.29	0.00	19
시금치	6.88	4.99	0.00	0.45	0.10	0.02	4.82	0.12	0.00	0.00	0.00	14
상추	9.00	7.65	0.00	0.17	0.05	0.00	0.00	0.04	0.00	0.09	0.00	0
콩나물	14.40	26.40	28.80	0.52	0.28	0.06	0.00	0.14	0.00	0.24	0.00	0
감자	2.26	35.53	12.97	0.34	0.28	0.06	0.00	0.14	0.00	0.17	0.00	6
오이	7.41	9.41	0.00	0.06	0.06	0.03	0.00	0.04	0.00	0.03	0.00	5
당근	5.34	5.07	1.60	0.09	0.05	0.01	0.40	0.04	0.00	0.01	0.00	11
풋고추	0.60	3.45	0.00	0.08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
양파	8.83	16.56	0.00	0.22	0.22	0.03	0.00	0.23	0.00	0.28	0.00	8
호박	18.30	7.20	5.10	0.72	0.06	0.02	0.00	0.04	0.12	0.06	0.00	0
토마토	1.78	3.76	2.18	0.06	0.16	0.01	0.40	0.01	0.00	0.08	0.00	1
고구마	5.58	12.56	5.81	0.12	0.07	0.04	3.26	0.46	0.00	0.14	0.00	7
도라지	1.01	2.74	0.00	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8
가지	1.20	2.48	1.05	0.02	0.02	0.00	0.00	0.01	0.08	0.02	0.00	6
양배추	9.98	8.60	5.16	0.17	0.14	0.01	0.00	0.13	0.00	0.10	0.00	14
미나리	1.77	3.32	0.00	0.15	0.02	0.01	0.00	0.00	0.00	0.00	0.00	18
버섯	0.15	8.10	2.70	0.08	0.15	0.02	0.00	0.02	0.00	0.39	0.00	0
깻잎	8.44	2.88	2.52	0.09	0.04	0.01	0.00	0.07	0.00	0.00	0.00	0
부추	5.02	3.63	0.00	0.22	0.04	0.01	0.00	0.05	0.11	0.00	0.00	11
숙주나물	3.00	6.40	4.20	0.12	0.06	0.02	0.00	0.02	0.00	0.12	0.00	0
단무지	2.16	1.62	0.00	0.04	0.03	0.01	0.00	0.03	0.00	0.00	0.00	0
두부	126.00	140.00	0.00	1.50	1.00	0.15	0.00	0.55	0.00	9.90	0.00	0
도토리묵	1.20	5.20	0.00	0.08	0.02	0.00	0.00	0.03	0.00	0.00	0.00	0
김	33.60	19.84	0.00	3.68	0.41	0.05	0.00	0.22	0.00	0.53	0.00	0
미역	191.80	61.40	0.00	1.82	0.72	0.01	0.00	0.11	2320.00	0.00	0.00	0
과실류												
사과	1.48	3.94	0.00	0.15	0.05	0.02	0.00	0.01	0.00	0.01	0.00	18
배	1.95	4.68	0.00	0.12	0.05	0.02	0.00	0.02	0.00	0.04	0.00	22
복숭아	0.51	2.89	0.00	0.09	0.02	0.01	0.00	0.01	0.00	0.02	0.00	15
포도	1.14	8.24	0.00	0.14	0.01	0.01	0.00	0.04	0.00	0.03	0.00	29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감	단감 중품(12월)	200g(1개)	30.0g/일	3.025원/g	91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감귤	중품(11월)	100g(1개)	140.0g/일	1.400원/g	196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참외	중품(11월)	400g(1개)	50.0g/일	2.063원/g	10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수박	중품(7월)	8kg(1개)	110.0g/일	0.682원/g	75원/일	가격월보
딸기	중품(6월)	100g	50.0g/일	8.800원/g	44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바나나	수입품	1kg	70.0g/일	1.690원/g	118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조미식품					1,058원/일	
참기름	공장제품,초유	320ml(1병)	3.0g/일	19.602원/g	59원/일	가격월보
콩기름	공장제품	1800ml(1병)	20.0g/일	2.820원/g	56원/일	가격월보
마아가린	중품	220g(1통)	8.0g/일	4.864원/g	39원/일	가격월보
고추가루	중품	100g	12.0g/일	18.255원/g	219원/일	가격월보
마늘	중품,간 것	1kg	18.0g/일	4.260원/g	7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생강	중품	100g	5.0g/일	5.600원/g	28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후추가루	캔포장	100g(1캔)	0.3g/일	19.000원/g	6원/일	가격월보
카레가루	중품	100g(1봉)	4.0g/일	13.110원/g	52원/일	가격월보
설탕	정백당	1kg(1포)	20.0g/일	1.434원/g	29원/일	가격월보
소금	천일염	1kg	20.0g/일	1.446원/g	29원/일	가격월보
깨	참깨(수입산)	560g(1되)	15.0g/일	6.179원/g	9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간장	시장제품	1,000ml(1병)	18.0g/일	3.344원/g	60원/일	시장조사
된장	PET용기	500g(1포)	15.0g/일	4.380원/g	66원/일	시장조사
고추장	PET용기	500g(1포)	12.0g/일	6.400원/g	77원/일	시장조사
혼합조미료	다시다	100g(1포)	3.0g/일	15.683원/g	4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식초	사과식초	500ml(1병)	4.0g/일	1.820원/g	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케찹	시장제품	500g(1병)	3.0g/일	3.137원/g	9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마요네즈	시장제품	500g(1병)	4.0g/일	5.689원/g	2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물엿	중품	1.2kg(1병)	50.0g/일	1.646원/g	82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빵 및 과자류					1,051원/일	
케이크	중간 크기	800g(1판)	20.0g/일	13.413원/g	268원/일	가격월보
스낵과자	시장제품	90g(1봉)	60.0g/일	7.354원/g	441원/일	가격월보
비스킷	시장제품	150g(1봉)	90.0g/일	3.793원/g	341원/일	가격월보
차음료 및 주류					934원/일	
커피	봉지용기	175g(1봉지)	24.0g/일	30.360원/g	729원/일	가격월보
보리차	티백포장	300g(1상자)	10.0g/일	4.817원/g	48원/일	가격월보
콜라	PET 용기	1500ml(1병)	50.0g/일	0.953원/g	48원/일	시장조사
쥬스	PET 용기	1500ml(1병)	50.0g/일	1.630원/g	81원/일	가격월보
소주	시장제품	360ml(1병)	10.0g/일	2.778원/g	28원/일	시장조사
기타식료품					12원/일	
커피프렘	비닐포장	500g(1봉지)	3.0g/일	4.095원/g	12원/일	가격월보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감	24.90	0.27	142.20	0.00	0.06	3.90	0.02	0.04	0.18	0.02	0.99	0.00
감귤	43.62	0.80	1.15	0.00	0.46	50.51	0.15	0.05	0.46	0.08	27.55	0.00
참외	10.14	0.35	5.07	0.00	0.04	5.85	0.01	0.02	0.27	0.02	25.04	0.00
수박	26.40	0.88	157.30	0.00	0.11	15.40	0.00	0.02	0.22	0.10	6.93	0.00
딸기	12.74	0.39	0.00	0.00	0.05	40.18	0.01	0.01	0.15	0.01	62.38	0.00
바나나	35.84	0.54	3.14	0.00	0.09	4.48	0.01	0.03	0.45	0.13	7.26	0.00
조미식품												
참기름	26.52	0.00	0.00	0.00	1.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콩기름	176.80	0.00	0.00	0.00	20.6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마아가린	57.68	0.02	137.84	0.00	0.41	0.00	0.00	0.00	0.00	0.00	0.08	0.01
고추가루	30.84	1.79	412.80	0.00	3.50	3.84	0.05	0.15	1.73	0.07	2.59	0.00
마늘	22.68	0.97	0.00	0.00	0.00	5.04	0.03	0.06	0.07	0.09	15.55	0.00
생강	2.20	0.06	0.00	0.00	0.01	0.21	0.00	0.00	0.04	0.01	0.70	0.00
후추가루	0.92	0.03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3	0.00
카레가루	16.00	0.42	3.96	0.00	0.01	0.00	0.00	0.00	0.05	0.03	6.16	0.00
설탕	77.4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깨	88.95	2.72	0.00	0.00	1.10	0.00	0.08	0.02	0.00	0.12	14.40	0.00
간장	9.54	1.39	0.00	0.00	0.11	0.00	0.01	0.01	0.22	0.02	8.17	0.00
된장	24.15	2.04	0.00	0.00	0.29	0.00	0.01	0.02	0.18	0.02	13.41	0.00
고추장	19.20	0.59	48.96	0.00	0.70	0.60	0.02	0.06	0.19	0.03	6.42	0.00
혼합조미료	6.69	0.41	0.48	0.00	0.24	0.00	0.02	0.01	0.15	0.03	1.44	0.00
식초	0.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케찹	3.57	0.05	0.00	0.00	0.07	0.27	0.01	0.01	0.02	0.00	1.05	0.00
마요네즈	29.48	0.60	0.80	0.00	0.33	0.00	0.00	0.00	0.01	0.00	0.25	0.01
물엿	146.50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6	0.00	0.00
빵 및 과자류												
케이크	69.20	1.32	16.40	0.00	0.08	0.00	0.01	0.02	0.02	0.00	2.60	0.05
스낵과자	289.20	4.38	0.00	0.00	1.38	0.00	0.07	0.02	0.36	0.02	4.80	0.00
비스킷	405.00	5.94	2.70	0.00	1.35	0.00	0.05	0.03	0.27	0.04	12.60	0.05
차음료 및 주류(340-359)												
커피	84.48	4.68	0.00	0.00	0.05	0.00	0.00	0.05	7.44	0.00	0.00	0.00
보리차	31.70	1.20	0.00	0.00	0.06	0.00	0.00	0.01	0.62	0.06	5.00	0.00
콜라	2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스	21.50	0.10	0.00	0.00	0.01	1.00	0.01	0.01	0.05	0.02	0.00	0.00
소주	14.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식료품												
커피프림	16.29	0.11	0.09	0.00	0.25	0.00	0.00	0.00	0.01	0.00	0.00	0.00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율
감	1.80	10.20	0.00	1.17	0.03	0.01	0.00	0.13	0.00	0.18	0.00	0
감귤	14.92	12.63	0.00	0.00	0.11	0.06	0.00	0.09	0.00	0.01	0.00	18
참외	6.24	3.90	0.00	0.08	0.17	0.00	0.00	0.00	0.00	0.00	0.00	22
수박	1.10	13.20	0.00	0.22	0.44	0.03	1.10	0.09	0.00	0.44	0.00	0
딸기	6.37	13.23	6.37	0.20	0.10	0.02	0.00	0.10	1.32	0.20	0.00	2
바나나	1.79	8.06	12.10	0.31	0.13	0.04	0.99	0.17	0.00	0.45	0.00	36
조미식품												
참기름	0.00	0.00	0.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콩기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
마아가린	0.48	1.04	0.24	0.00	0.01	0.00	0.40	0.00	0.00	0.00	0.00	0
고춧가루	7.56	25.68	1.80	1.32	0.41	0.06	0.00	0.35	0.00	0.42	0.00	0
마늘	1.80	29.52	4.50	0.34	0.18	0.03	0.00	0.05	0.00	2.56	0.00	0
생강	0.54	1.16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03	0.00	17
후춧가루	0.84	0.50	0.58	0.06	0.00	0.00	0.00	0.02	0.00	0.01	0.00	0
카레가루	2.60	5.28	0.00	0.20	0.12	0.03	0.00	0.19	0.00	0.68	0.00	0
설탕	0.60	0.00	0.00	0.06	0.00	0.00	0.00	0.00	0.00	0.12	0.00	0
소금	8.00	0.00	0.00	0.04	0.02	0.00	0.00	0.02	0.00	0.02	0.00	0
깨	183.45	96.00	0.00	2.85	0.54	0.19	0.00	0.00	0.00	0.26	0.00	0
간장	7.02	27.90	7.20	0.38	0.16	0.00	0.00	0.14	0.00	0.14	0.00	0
된장	12.60	31.20	0.00	0.38	0.09	0.05	0.00	0.15	0.00	0.00	0.00	0
고추장	4.80	10.80	3.84	0.2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혼합조미료	0.48	2.58	0.00	0.06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
식초	0.08	0.24	0.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케찹	0.21	1.08	0.57	0.02	0.01	0.00	0.00	0.00	0.00	0.01	0.00	0
마요네즈	0.32	1.44	0.00	0.04	0.01	0.00	0.00	0.00	0.00	0.07	0.00	0
물엿	0.50	0.50	0.00	0.10	0.00	0.03	0.00	0.00	0.00	0.35	0.00	0
빵 및 과자류												
케이크	6.80	24.80	2.20	0.18	0.12	0.01	0.00	0.04	0.00	1.82	0.00	0
스낵과자	12.60	38.40	0.00	0.30	0.18	0.05	0.00	0.27	0.00	3.96	0.00	0
비스킷	27.00	63.00	0.00	0.45	0.48	0.14	0.00	0.86	0.00	0.00	0.00	0
차음료 및 주류												
커피	38.40	85.68	78.48	1.15	0.10	0.03	0.00	0.62	0.00	3.02	0.00	0
보리차	5.50	29.00	0.00	1.39	0.26	0.00	0.00	0.00	0.00	0.00	0.00	0
콜라	1.00	5.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5	0.00	0
쥬스	1.00	8.50	0.00	0.25	0.06	0.01	0.00	0.02	0.00	0.05	0.00	0
소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기타식료품												
커피프림	2.94	10.08	0.00	0.02	0.01	0.00	0.00	0.00	0.00	0.02	0.00	0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전세인 경우)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최저 주거비					
구입자금					
-조달비용	대도시	아파트, 37제곱미터	1년	59,246,000원	5.05%
	중소도시	아파트, 37제곱미터	1년	39,647,000원	5.05%
	농어촌	아파트, 37제곱미터	1년	23,450,000원	5.05%
-보증보험료	대도시	아파트, 37제곱미터	1년	59,246,000원	0.30%
	중소도시	아파트, 37제곱미터	1년	39,647,000원	0.30%
	농어촌	아파트, 37제곱미터	1년	23,450,000원	0.30%
관리비					
	대도시	아파트, 37제곱미터	1월	660원	49.3m2
	중소도시	아파트, 37제곱미터	1월	660원	49.3m2
	농어촌	아파트, 37제곱미터	1월	660원	49.3m2
이사비					
	대도시	(6년에 1회)	6.00년	445,620원	1회
	중소도시	(6년에 1회)	6.00년	445,620원	1회
	농어촌	(6년에 1회)	6.00년	445,620원	1회
복비					
	대도시	전세금의 0.4%	6.00년	236,984원	1회
	중소도시	전세금의 0.5%	6.00년	198,235원	1회
	농어촌	전세금의 0.5%	6.00년	117,250원	1회
도배비					
	대도시		6.00년	12,084원	37.0m2
	중소도시		6.00년	12,084원	37.0m2
	농어촌		6.00년	12,084원	37.0m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307,755원	221,374원	149,306원				
249,129원				시장조사	국토해양부	
	166,716원				한국은행	
		98,607원				
10,368원				시장조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6,938원					
		4,104원				
32,568원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비
	32,568원					
		32,568원				
6,189원					통계청	실태조사
	6,189원					
		6,189원				
3,291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2,753원					
		1,628원				
6,210원					최저거주면적 통계청 (설비수리비물가상승)	실태조사
	6,210원					
		6,210원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월세인 경우)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최저 주거비					
구입자금					
	대도시	단독, 37제곱미터	1년	383,000원	0.00%
	중소도시	단독, 37제곱미터	1년	286,000원	0.00%
	농어촌	단독, 37제곱미터	1년	187,000원	0.00%
이사비					
	대도시	(5.27년에 1회)	5.27년	445,620원	1회
	중소도시	(5.27년에 1회)	5.27년	445,620원	1회
	농어촌	(5.27년에 1회)	5.27년	445,620원	1회
복비					
	대도시	월차임 70배의 0.5%	5.27년	26,810,000원	1회
	중소도시	월차임 70배의 0.5%	5.27년	20,020,000원	1회
	농어촌	월차임 70배의 0.5%	5.27년	13,090,000원	1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392,166원	294,629원	195,081원				
383,000원				시장조사	국토해양부	
	286,000원				한국은행	
		187,000원				
7,046원				통계청		실태조사
	7,046원					
		7,046원				
2,12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583원					
		1,035원				

〈부표 1-3〉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광열수도					
전기요금	도시	257kwh(누진제)	1월	31,730원	1회
	농어촌	225kwh(누진제)	1월	25,610원	1회
상수하수도 요금	대도시	18.2m3(누진제)	1월	15,690원	1회
	중소도시	15.7m3(누진제)	1월	14,280원	1회
	농어촌	15.6m3(누진제)	1월	9,670원	1회
난방비	대도시	LNG 70.7m3 (취사포함)	1월	57,900원	1회
	중소도시	LNG 70.7m3 (취사포함)	1월	57,140원	1회
	농어촌	등유 67.6L	1월	1,026원	1회
취사비	농어촌	LPG 13.6kg	1월	1,808원	1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05,320원	103,150원	129,168원				
31,730원	31,730원			생활실태	한국전력	에너지센서스
		25,610원			한국전력	에너지센서스
15,690원					대전시요금	상수도통계
	14,280원				시흥시요금	상수도통계*심층조사
		9,670원			거창군요금	상수도통계*심층조사
57,900원				생활실태	광역가중평균요금	에너지센서스
	57,140원				경기요금	에너지센서스
		69,295원			대한석유협회	에너지센서스
		24,593원			한국석유공사	2007년 同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가사가구집기					
일반가구					
장롱	전국	8자 목재	20년	450,000원	1개
서랍장	전국	5단 플라스틱	15년	36,140원	1개
책상	전국	목재학생용책상 650*450*760	10년	43,000원	2개
의자	전국	목재	5년	20,000원	2개
벽시계	전국		10년	24,300원	1개
탁상시계	전국		10년	18,600원	2개
화장대	전국	철제, 거울 포함	17년	39,800원	1개
행거	전국	철제	10년	13,000원	1개
문갑	전국	5자 목재	12년	58,000원	1개
가정용기구					
냉장고	전국	428L	10년	570,000원	1대
전기밥솥	전국	6인용	8년	65,000원	1개
가스레인지	전국	버너2개	10년	60,000원	1개
세탁기	전국	10kg	8년	330,000원	1대
다리미	전국	일반유선	10년	25,000원	1개
선풍기	전국	14인치	10년	40,000원	2개
믹서	전국	일반 믹서기 1리터	10년	35,000원	1개
전자레인지	전국	20리터 465×279×360mm	15년	85,000원	1개
헤어드라이기	전국	일반용 220v 1200w	6년	15,504원	1개
식기주방용품					
밥상	전국	4인용 4각	10년	30,000원	1개
주발	전국	단반상기(2벌 1세트)	8년	49,952원	3세트
접시	전국	7.5인치	8년	10,208원	9개
컵	전국	유리	8년	1,000원	8개
쟁반	전국	중	5년	3,700원	1개
냄비	전국	중	5년	5,000원	3개
주전자	전국	대	10년	12,700원	1개
	전국	소	10년	6,500원	1개
후라이팬	전국	직경 28cm (대)	5년	16,000원	1개
	전국	직경 24cm (중)	5년	14,000원	1개
항아리	전국	중	10년	20,000원	3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41,019원	40,879원	40,779원				
1,875원	1,875원	1,8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01원	201원	20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717원	717원	7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학생2인
667원	667원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학생2인
203원	203원	20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10원	310원	31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95원	195원	19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8원	108원	1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03원	403원	403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4,750원	4,750원	4,750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한국전력공사
677원	677원	677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법인세법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438원	3,438원	3,438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08원	208원	2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67원	667원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92원	292원	29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72원	472원	472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15원	215원	215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250원	250원	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561원	1,561원	1,561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손님접대용 포함)
957원	957원	957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손님접대용 포함)
83원	83원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손님접대용 포함)
62원	62원	6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50원	250원	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6원	106원	10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4원	54원	54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67원	267원	2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33원	233원	2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97

부  
록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식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5,100원	1개
과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2,000원	1개
도마	전국	중	10년	5,000원	1개
수저	전국	스테인레스	10년	1,500원	8벌
수저통	전국	플라스틱	5년	2,100원	1통
조미료통	전국	플라스틱 3개들이 1세트	5년	5,000원	1 세트
반찬통	전국	플라스틱 대	10년	3,000원	2개
	전국	플라스틱 중	10년	1,950원	4개
김치통	전국	폴리프로필렌 9리터	10년	10,863원	2개
	전국	소	10년	3,000원	2개
바가지	전국	플라스틱 중	2년	1,000원	2개
고무통	전국		10년	6,000원	1개
국자	전국	플라스틱 중	5년	1,500원	2개
대야	전국	플라스틱 중	8년	2,000원	1개
랩	전국	30Cm*50m	5월	3,745원	1통
쿠킹호일	전국	30Cm*30m	5월	3,350원	1통
보온병	전국	1.2L	10년	11,000원	1개
가사잡화 소모품					
가사잡화					
드라이버	전국	중	10년	2,000원	1개
망치	전국	중	10년	4,000원	1개
못	전국	나사 못(6종 1세트)	10년	1,000원	1 세트
가위	전국	중	10년	3,000원	1개
건조대	전국	중	10년	13,000원	1개
빨래판	전국	플라스틱	5년	3,000원	1개
빨래집게	전국	10개들이 1세트	1년	1,000원	2 세트
방빗자루	전국	플라스틱	5년	3,000원	1개
쓰레받기	전국	플라스틱	5년	2,000원	1개
휴지통	전국	플라스틱 중	5년	3,000원	1개
	전국	플라스틱 소	5년	1,500원	1개
비누통	전국	플라스틱	10년	1,000원	1개
바늘	전국		5년	1,000원	1쌈
목도장	전국		5년	5,000원	2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85원	85원	8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3원	33원	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2원	42원	4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0원	100원	1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손님접대용 포함)
35원	35원	3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원	83원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원	50원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5원	65원	6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81원	181원	181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50원	50원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원	83원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원	50원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원	50원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1원	21원	2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749원	749원	749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670원	670원	67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92원	92원	92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17원	17원	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3원	33원	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원	8원	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25원	25원	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8원	108원	1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원	50원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67원	167원	1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원	50원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3원	33원	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원	50원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5원	25원	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8원	8원	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7원	17원	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67원	167원	1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부, 모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가사소모품					
형광전구	전국	주광색 18w 일반조명용	1년	1,246원	6개
형광등 스타트	전국		2년	400원	6개
백열전구	전국	투명220v-60w 일반조명용	6월	539원	2개
화장지	전국	두루마리 60m 1개	1월	515원	4개
고무장갑	전국	중	3월	1,450원	2짝
빨래비누	전국	230g	1월	700원	1개
합성세제	전국	3.0kg	4월	10,333원	1봉
부엌용세제	전국	1Kg	3월	2,307원	1병
살충방충제	전국	수압분무식 500ml	1년	2,511원	1통
나프탈렌	전국		1년	1,200원	1봉
습기제거제	전국	제습량 525ml	1년	1,346원	1개
행주	전국		4월	750원	2개
수세미	전국	150mm*230mm	4월	1,200원	1개
구두솔	전국		1년	690원	1개
구두약	전국		1년	600원	1통
접착제	전국		1년	500원	1개
건전지	전국	알카리AA 1.5V	1년	681원	7개
침구 및 직물제품					
이불	전국	동	10년	56,000원	4채
	전국	춘추	10년	30,000원	4채
요	전국	동	10년	25,000원	4채
	전국	춘추	10년	20,000원	4채
베개	전국		10년	5,000원	4개
타올	전국	80Cm*40Cm	2년	2,500원	4매
커튼	전국	150Cm*230Cm	10년	29,900원	2세트
가사서비스					
가구집기 수선료	전국		1년	7,000원	2회
쓰레기봉투	대도시	10리터 1매	1월	272원	5매
	중소도시	10리터 1매	1월	244원	5매
	농어촌	10리터 1매	1월	224원	5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623원	623원	623원	탄력성		가격월보	방3(방2+거실1)
100원	100원	1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방3(방2+거실1)
180원	180원	180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2,060원	2,060원	2,060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967원	967원	9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700원	700원	7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583원	2,583원	2,583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769원	769원	769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209원	209원	209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100원	100원	1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12원	112원	112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375원	375원	3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00원	300원	3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8원	58원	5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원	50원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2원	42원	4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97원	397원	397원	탄력성		가격월보	벽시계 2개, 탁상시계 2개 카메라 1개, 리모콘 2개
1,867원	1,867원	1,8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1,000원	1,000원	1,0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833원	833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667원	667원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167원	167원	1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498원	498원	498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1,167원	1,167원	1,1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360원			탄력성	ANOVA	가격월보	실태조사
	1,220원		탄력성		가격월보	실태조사
		1,120원	탄력성		가격월보	실태조사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피복 및 신발					
외의					
가장(40세)					
신사복	도시	동	12년	90,000원	2벌
	도시	춘추	12년	80,000원	2벌
	농어촌	동	14년	90,000원	2벌
	농어촌	춘추	14년	80,000원	2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0,000원	1점
잠바	전국	동	10년	30,000원	2점
	전국	춘추	10년	20,000원	2점
바지	전국	동	6년	20,000원	2점
	전국	춘추	6년	15,000원	2점
반바지	전국	하	6년	10,000원	2점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6년	20,000원	2벌
	전국	춘추,잠옷겸용	6년	15,000원	2벌
주부(37세)					
숙녀복	도시	동	12년	90,000원	2벌
	도시	춘추	12년	70,000원	2벌
	농어촌	동	14년	90,000원	2벌
	농어촌	춘추	14년	70,000원	2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0,000원	1점
잠바	전국	춘추, 동	10년	30,000원	2점
스커트	전국	춘추, 동	10년	30,000원	2점
바지	전국	동	9년	20,000원	3점
	전국	춘추	9년	15,000원	3점
반바지	전국	하	6년	10,000원	2점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10년	20,000원	2벌
	전국	춘추,잠옷겸용	10년	15,000원	2벌
자녀(남,11세)					
잠바	전국	동	6년	30,000원	2점
	전국	춘추	6년	20,000원	2점
바지	전국	동	8년	15,000원	2점
	전국	춘추	8년	10,000원	2점
반바지	전국		2년	8,000원	2점
체육복	전국	동	3년	18,000원	1벌
	전국	하	3년	15,000원	1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52,060원	52,060원	50,140원				

1,250원	1,250원		탄력성	ANOVA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111원	1,11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7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95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67원	667원	667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33원	333원	333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56원	556원	55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78원	278원	27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56원	556원	55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250원	1,250원		탄력성	ANOVA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972원	97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1,07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67원	667원	667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556원	556원	55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78원	278원	27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33원	333원	3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50원	250원	250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3원	833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56원	556원	556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13원	313원	31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08원	208원	208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67원	667원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자녀(여,9세)					
잠바	전국	동	6년	30,000원	2점
	전국	춘추	6년	20,000원	3점
바지	전국	동	6년	15,000원	3점
	전국	춘추	6년	15,000원	3점
반바지	전국		2년	8,000원	2점
스커트	전국		2년	12,000원	1점
체육복	전국	동	3년	18,000원	1벌
	전국	하	3년	15,000원	1벌
스웨타 셔츠					
가장					
와이셔츠	전국	긴팔	3년	12,000원	3점
	전국	반팔	3년	10,000원	3점
셔츠	전국	긴팔	4년	15,000원	2점
	전국	반팔	4년	10,000원	2점
스웨터	전국		6년	15,000원	2점
남방	전국		6년	10,000원	2점
주부					
셔츠	전국	긴팔	6년	15,000원	3점
	전국	반팔	6년	10,000원	3점
스웨터	전국	겨울	6년	15,000원	2점
블라우스	전국		6년	20,000원	3점
자녀(남)					
셔츠	전국	긴팔	2년	10,000원	2점
	전국	반팔	2년	5,000원	2점
스웨터	전국		6년	12,000원	3점
자녀(여)					
셔츠	전국	긴팔	2년	9,800원	2점
	전국	반팔	2년	5,000원	2점
스웨터	전국		6년	12,000원	3점
블라우스	전국		6년	10,000원	3점
내의					
가장					
동내의	전국	성인용상하 순면60's	6년	24,782원	3벌
런닝	전국	남자성인용 흰색 순면40's	3년	2,505원	9매
팬티	전국	성인용 흰색 순면	3년	2,474원	9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833원	833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3원	833원	833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25원	625원	6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25원	625원	625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67원	667원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00원	1,000원	1,0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3원	833원	833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25원	625원	6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78원	278원	27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25원	625원	6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3원	833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3원	833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17원	817원	8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33원	1,033원	1,033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626원	626원	626원	탄력성		가격월보	세탁감안
619원	619원	619원	탄력성		가격월보	세탁감안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주부					
동내의	전국	성인용상하 순면60's	6년	19,085원	3벌
런닝	전국		3년	2,000원	9매
팬티	전국	성인용 삼각 순면	3년	3,598원	12매
브래지어	전국		2년	5,000원	2점
속치마	전국	양장용	6년	10,000원	2점
자녀(남)					
동내의	전국		6년	8,800원	3벌
런닝	전국		3년	2,200원	9점
팬티	전국		3년	1,900원	9점
자녀(여)					
동내의	전국		6년	8,800원	3벌
런닝	전국		3년	2,200원	9점
팬티	전국		3년	1,900원	9점
직물,실					
실	전국		6년	1,000원	2타래
기타피복					
가장					
넥타이	전국		4년	5,000원	2개
장갑	전국	방한용	5년	5,000원	1켢레
현대	전국		5년	5,000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301원	4켢레
목도리	전국		3년	6,800원	1개
손수건	전국		4년	1,000원	2개
주부					
스타킹	전국	팬티스타킹 1켢레	3월	1,545원	1개
	전국	판타롱스타킹 1켢레	2월	750원	1개
장갑	전국	방한용	5년	5,000원	1켢레
현대	전국		3년	5,000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301원	2켢레
목도리	전국		3년	6,800원	1개
손수건	전국		2년	1,000원	1개
자녀(남)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4,700원	1켢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795원	795원	795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500원	500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세탁감안
1,199원	1,199원	1,199원	탄력성		가격월보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78원	278원	27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67원	367원	3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50원	550원	5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세탁감안
475원	475원	4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세탁감안
367원	367원	3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50원	550원	5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세탁감안
475원	475원	4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세탁감안
28원	28원	2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08원	208원	2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원	83원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원	83원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767원	767원	767원	탄력성		가격월보	세탁감안
189원	189원	18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2원	42원	4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15원	515원	515원	탄력성		가격월보	
375원	375원	3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83원	83원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39원	139원	13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84원	384원	384원	탄력성		가격월보	세탁감안
189원	189원	18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2원	42원	4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96원	196원	19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부표 1-5〉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혁대	전국		3년	4,401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600원	4켤레
목도리	전국		2년	5,300원	1개
자녀(여)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4,700원	1켤레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600원	4켤레
목도리	전국		2년	5,300원	1개
신발					
가장					
구두	도시	인조가죽	3년	30,000원	1켤레
	농어촌	인조가죽	4년	30,000원	1켤레
운동화	도시		3년	15,509원	1켤레
작업화	농어촌		2년	15,000원	1켤레
슬리퍼	전국		3년	5,000원	1켤레
주부					
구두	전국	인조가죽	2년	20,000원	1켤레
운동화	전국		4년	14,788원	1켤레
슬리퍼	전국		3년	5,000원	1켤레
샌들	전국		3년	14,708원	1켤레
자녀(남)					
운동화	전국		2년	10,000원	1켤레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켤레	1년	3,852원	1켤레
샌들	전국		2년	8,000원	1켤레
자녀(여)					
운동화	전국		2년	10,000원	1켤레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켤레	1년	3,852원	1켤레
샌들	전국		2년	8,000원	1켤레
피복 및 신발서비스					
세탁료	도시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6,000원	4벌
	농어촌		1년	7,000원	2벌
	도시	숙녀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6,000원	2벌
의복수선료	농어촌		1년	7,000원	1벌
	도시	신사복 하의 기장 수선	1년	3,000원	1벌
구두수선료	농어촌		1년	3,000원	1벌
	전국	구두굽 수선료	3년	4,000원	1켤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22원	122원	12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33원	533원	5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세탁감안
222원	222원	22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94원	194원	194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33원	533원	5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세탁감안
222원	222원	22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3원	833원		탄력성	ANOVA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31원	43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25원	탄력성	ANOVA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39원	139원	13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833원	833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08원	308원	3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39원	139원	13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09원	409원	409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21원	321원	321원			가격월보	07년 同
333원	333원	3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417원	417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21원	321원	321원			가격월보	07년 同
333원	333원	3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000원	2,000원		탄력성	ANOVA	시장가격조사	
		1,16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00원	1,000원		탄력성	ANOVA	시장가격조사	
		583원			시장가격조사	
250원	250원		탄력성	ANOVA	시장가격조사	
		250원			시장가격조사	
111원	111원	11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부표 1-6〉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보건의료					
보건의료용품기구					
안경	전국	중품	2년	40,000원	1개
위생대	전국	생리대 중형 20패드	1월	4,382원	1개
소계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전국	입원, 외래, 처방약값	1월	50,617원	
약값	전국	비처방약값	1월	3,657원	
미충족욕구	전국	50% 반영	1월	1,873원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62,196원	62,196원	62,196원				
1,667원	1,667원	1,667원	탄력성, 보유율		시장조사	07년 同
4,382원	4,382원	4,382원			가격월보	07년 同
6,049원	6,049원	6,049원				
50,617원	50,617원	50,617원			실태조사	07년 同
3,657원	3,657원	3,657원			실태조사	07년 同
1,873원	1,873원	1,873원			실태조사	07년 同
56,147원	56,147원	56,147원				

〈부표 1-7〉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육비					
<초등학생-11세(남)/9세(여)>					
교재비					
참고서	전국	1, 2학기 전과 각 1인당 1권	1년	23,408원	4권
문제집	전국	1, 2학기 각 1인당 1권	1년	12,320원	4권
보충교육비					
가정학습지	전국	교과목 관련 (1종*6월/인)	1년	32,000원	12월
수련회	전국	국내 2박3일 기준(1회/인)	1년	45,000원	1회
기타교육비	전국	야외학습 및 특별활동	1년	10,000원	2회
문방구비					
연필	전국	HB보통나무 (1타스/인)	6월	2,265원	2타스
싸인펜	전국	수성(2개/인)	1월	200원	4개
색연필	전국	12색(1 세트/인)	1년	2,500원	2세트
공책	전국	초등학생용 (9권/인)	6월	548원	18권
스케치북	전국	초등학생용 (2권/인)	1년	1,206원	4권
인쇄용지	전국	A4/250매	6월	2,665원	1권
크레파스	전국	24색(1 세트/인)	1년	3,668원	2세트
그림물감	전국	12색 1 세트	1년	2,851원	1세트
붓	전국	수채화용 세트	2년	4,500원	1세트
지우개	전국	소(2개/인)	6월	300원	4개
칼	전국	소형 커터	2년	300원	1개
가위	전국	중	2년	700원	1개
폴	전국	중간 크기(1개/인)	6월	500원	2개
색종이	전국	양면(10개/인)	6월	500원	20개
필통	전국	초등학생용 (1개/인)	1년	1,500원	2개
교육용 악기	전국	초등학생용 리코더	3년	2,000원	1개
자	전국	초등학생용 20cm(1개/인)	1년	200원	2개
앨범	전국	중품(30매)	3년	15,000원	2개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65,930원	65,930원	65,930원				
7,803원	7,803원	7,803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8,213원	8,213원	8,213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16,016원	16,016원	16,016원				
32,000원	32,000원	32,000원	통계청 2009사교육비조사		통계청 2009사교육비조사	실태조사
7,500원	7,500원	7,500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태조사
1,667원	1,667원	1,667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태조사
41,167원	41,167원	41,167원				
755원	755원	755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800원	800원	8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417원	417원	41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644원	1,644원	1,644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402원	402원	402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444원	444원	444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611원	611원	611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238원	238원	238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188원	188원	188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200원	200원	2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3원	13원	1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29원	29원	29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67원	167원	1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667원	1,667원	1,6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250원	250원	25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56원	56원	56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33원	33원	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833원	833원	8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8,747원	8,747원	8,747원				

〈부표 1-8〉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양오락					
서적 및 인쇄물					
도서(성인)	전국	단행본	1년	9,823원	1권
도서(아동)	전국	단행본	1년	6,204원	2권
소계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전국	29인치(일반형)	10년	260,000원	1개
카세트라디오	전국	CD 겸용	10년	70,000원	1개
비디오	전국	VTR 4헤드	10년	130,000원	1개
카메라	전국	자동카메라(일반형)	10년	40,000원	1개
컴퓨터	전국	중저가(보급형)/모니터 포함	6년	551,000원	1개
프린터	전국	잉크젯 중저가(보급형)	10년	60,000원	1개
프린터잉크	전국	재생/호환잉크(리필형)	1년	7,000원	1개
필름	전국	24매	1년	2,500원	2통
완구	전국	초등학생용 장난감 1인당 2개	1년	4,000원	4개
CD	전국	음악용	1년	12,000원	1개
소계					
교양오락서비스					
영화관람	전국	성인(2인/1회)	1년	8,169원	2명
	전국	아동(2인/1회)	1년	7,501원	2명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전국	가정용 TV	1월	2,500원	1회
유선방송	전국	기본형(부가세 포함)	1월	4,400원	1회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전국	고궁 및 박물관(성인2,아동2)	1년	9,000원	2회
사진촬영 및 현상	전국	증명사진 3X4cm	5년	10,533원	1조
	전국	사진현상(24매)	1년	7,073원	2통
비디오테이프 대여	전국	신판	1년	1,834원	4회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구,수량 설정기준
30,483원	30,483원	30,483원				
819원	819원	819원	실태조사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1,034원	1,034원	1,034원	실태조사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1,853원	1,853원	1,853원				
2,167원	2,167원	2,16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583원	583원	58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083원	1,083원	1,08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333원	333원	3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7,653원	7,653원	7,65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500원	500원	500원	전자제품소비행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583원	583원	583원	전자제품소비행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417원	417원	417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333원	1,333원	1,333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000원	1,000원	1,0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5,652원	15,652원	15,652원				
1,362원	1,362원	1,362원	문화관광부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1,250원	1,250원	1,250원	문화관광부		시장조사	실태조사
2,500원	2,500원	2,500원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시장조사	방송법
4,400원	4,400원	4,400원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1,500원	1,500원	1,5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176원	176원	176원	실태조사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1,179원	1,179원	1,179원	실태조사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611원	611원	611원	실태조사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12,978원	12,978원	12,978원				

〈부표 1-9〉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통통신비					
교통비					
가장 출근	도시	시내버스, 출퇴근 23.9일, 외출 2회(왕복)	1월	944원	50회
	농어촌	시내버스, 외출 8회(왕복)	1월	944원	16회
주부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6회(왕복)	1월	944원	12회
자녀(초등학생)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3회(왕복), 2인	1월	705원	12회
택시	전국	시내구간	1월	5,156원	1회
친지방문 등	전국	고속버스(일반), 4인X1년 2회X왕복(2번)	6월	52,200원	1회
교통비 소계					
통신비					
집전화요금					
전화 기본요금	대도시	가입비형 10급지	1월	5,200원	1회
	중소도시	가입비형 7급지	1월	4,000원	1회
	농어촌	가입비형 5급지	1월	3,000원	1회
시내통화료	전국	유선전화-유선전화(시내), 1도수(3분) 기준	1월	39원	15회
시외통화료	전국	유선전화-유선전화(시외), 3분 기준	1월	261원	3회
이동통신료	전국	유선전화-무선전화, 3분 기준	1월	261원	5회
부가세	전국	요금(기본료+시내통화료+시외통화료+이동통신 통화료)의 10%	1월		1회
이전비	도시	6년에 1회 (기준: 무출동이전)	6년	10,000원	1회
전화기 구입비	전국	일반유선전화	4년	36,732원	1회
소계					
휴대전화요금					
휴대폰 기본요금	전국	일반(표준)요금	1월	12,000원	1회
사용요금	전국	3분 기준 (1일 1통화), 10분 무료통화	1월	324원	30회
부가세	전국	(기본요금+사용요금)의 10%	1월		1회
휴대폰 구입비	전국	5년마다 1회	5년	100,000원	1회
이동통신가입비	전국	생애 1회	35년	39,600원	1회
소계					
인터넷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전국	저가형(라이트 등), 부가세별도	1월	25,500원	1회
부가세	전국	사용요금의 10%	1월		1회
소계					
통신비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43,920원	143,920원	109,595원				
47,009원	47,009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15,104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11,328원	11,328원	11,328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8,460원	8,460원	8,460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5,156원	5,156원	5,156원			실태조사	07년 同
8,700원	8,700원	8,700원			시장조사	07년 同
80,653원	80,653원	48,748원				
5,200원				부과기준	통신업체	07년 同
	4,000원				통신업체	07년 同
		3,000원			통신업체	07년 同
585원	585원	585원			통신업체	전문가
783원	783원	783원			통신업체	전문가
1,350원	1,350원	1,350원			통신업체	전문가
787원	667원	567원			세법	세법
139원	139원	139원			통신업체	실태조사
765원	765원	765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9,564원	8,244원	7,144원				
12,000원	12,000원	12,000원	보유율	부과기준	통신업체	통신업체
9,720원	9,720원	9,720원			통신업체	전문가
2,172원	2,172원	2,172원			세법	세법
1,667원	1,667원	1,667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94원	94원	94원			이동통신업체	WHO
25,653원	25,653원	25,653원				
25,500원	25,500원	25,500원		부과기준	서비스업체	서비스업체
2,550원	2,550원	2,550원			세법	세법
28,050원	28,050원	28,050원				
63,267원	61,947원	60,847원				

## 〈부표 1-10〉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기타소비지출					
이미용품					
치솔	전국	성인용	4월	1,473원	4개
치약	전국	170g	1월	1,500원	1개
비누	전국	100g	1월	1,000원	2개
샴푸	전국	500ml	2월	6,491원	1통
스킨로션(여성)	전국	150ml	6월	14,800원	1개
밀크로션(여성)	전국	150ml	6월	14,800원	1개
스킨로션(남성)	전국	150ml	6월	13,000원	1개
아동용로션	전국	200ml	6월	9,600원	1개
파운데이션	전국	40ml	1년	12,900원	1개
썬크림	전국	70mg	1년	10,900원	1개
립스틱	전국	3.5g	1년	7,900원	1개
손톱깎기	전국	중품	5년	1,500원	1개
면도기	전국	1회용	1월	200원	5개
머리빗	전국	중품 2종	5년	1,500원	2개
소계					
이미용서비스					
목욕비	전국	대인 (2월 1회, 4인)	2월	4,552원	4회
이발	전국	남자 대인	3월	7,210원	2회
	전국	남자 아동	3월	4,911원	2회
미용	전국	여자 대인	6월	9,920원	1회
	전국	여자 아동	3월	5,518원	1회
파마	전국	여자 파마	6월	30,000원	1회
소계					
장신구					
핸드백	전국	중품	4년	28,150원	1개
가방	전국	학생가방	3년	25,000원	2개
우산	전국	중품, 3단	3년	6,000원	4개
손목시계	전국	아나로그	10년	42,000원	2개
지갑	전국	중품	4년	14,000원	2개
소계					
잡비					
경조비	전국	경사 3회, 조사 3회(1년 6회)	1년	30,000원	6회
교제비	전국	가장(1년 6회)	1년	15,000원	6회
친목단체비	전국	배우자(1년 4회)	1년	10,000원	4회
자녀	전국	용돈(1월 1회, 2명)	1월	5,000원	2명
친지방문비	전국	선물(1년 2회)	1년	10,000원	2회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86,072 원	86,072 원	86,072 원				
1,473 원	1,473 원	1,473 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1,500 원	1,500 원	1,500 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2,000 원	2,000 원	2,000 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3,246 원	3,246 원	3,246 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2,467 원	2,467 원	2,467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467 원	2,467 원	2,467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167 원	2,167 원	2,167 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1,600 원	1,600 원	1,600 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1,075 원	1,075 원	1,075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908 원	908 원	908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58 원	658 원	658 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25 원	25 원	25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000 원	1,000 원	1,000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0 원	50 원	50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0,636 원	20,636 원	20,636 원				
9,104 원	9,104 원	9,104 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4,807 원	4,807 원	4,807 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3,274 원	3,274 원	3,274 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1,653 원	1,653 원	1,653 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1,839 원	1,839 원	1,839 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5,000 원	5,000 원	5,000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25,677 원	25,677 원	25,677 원				
586 원	586 원	586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1,389 원	1,389 원	1,389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667 원	667 원	667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700 원	700 원	700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583 원	583 원	583 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3,925 원	3,925 원	3,925 원				
15,000 원	15,000 원	15,000 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7,500 원	7,500 원	7,500 원			07년 同	07년 同
1,667 원	1,667 원	1,667 원			07년 同	07년 同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실태조사	07년 同
1,667 원	1,667 원	1,667 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35,834 원	35,834 원	35,834 원				

〈부표 1-11〉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비소비지출					
조세					
근로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 포함>	전국	최저임금기준(면세점 이하)	1월	0원	1회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대도시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5,694원	1회
	중소도시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5,194원	
	농어촌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5,143원	
재산세(건물과 토지 합산) <지방교육세 포함>	전국	주택 비소유	1년	0원	2회
소계					
사회보장분담금					
국민연금	도시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4.5%	1월	38,610원	1회
	농어촌	농어촌감면액 35,550원 적용	1월	41,670원	1회
건강보험	도시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2.665%+보험료의 6.55%의 장기요양보험료	1월	24,390원	1회
	농어촌	지역가입자 기준에 농어업촌 경감22%와 농어업인경감 28%적용	1월	23,460원	1회
고용보험	도시	월간최저임금의 0.45%	1월	3,860원	1회
	농어촌	미가입	1월	0원	1회
소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67,335원	67,293원	65,559원				
0원	0원	0원	세법		세법	세법
475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433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429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0원	0원	0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475원	433원	429원				
38,610원	38,610원		국민연금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41,670원	국민연금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24,390원	24,390원		건강보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23,460원	건강보험법	부과기준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3,860원	3,860원		고용보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노동부
		0원	고용보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노동부
66,860원	66,860원	65,130원				

##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가구주 40세, 3지역 기준)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식료품					527,327 원				
가정식비용					395,638 원				
가정식 (외식없는경우)			1월	5,139원	91.25회	468,934원	영양학적기준		
가장중식 절감분	도시		1월	1,561원	-21.73회	-33,919원		근로형태	
급식절감분: 11세			1월	1,236원	-15.83회	-19,569원		소비자 물가조사, 평균	
급식절감분: 9세			1월	1,106원	-15.83회	-17,509원		소비자 물가조사, 평균	
수련회절감분: 11세			1월	1,236원	-0.25회	-309원		1년 1회 6끼 한명(1/12*3=0.25)	
수련회절감분: 9세			1월	1,106원	-0.25회	-276원		1년 1회 6끼 한명(1/12*3=0.25)	
가족단위외식절감분			1월	5,139원	-0.17회	-857원			
친지방문절감분			1월	5,139원	-0.17회	-857원		6개월 1회(=6/1=0.17회/월)	
외식비					131,689 원				
가장중식	도시		1월	3,000원	21.73회	65,179원		실태조사 최빈값	
11세 급식			1월	1,974원	15.83회	31,255원		소비자 물가조사, 평균	
9세 급식			1월	1,974원	15.83회	31,255원		소비자 물가조사, 평균	
가족단위 외식			1월	24,000원	0.17회	4,000원		소비자 물가조사, 회수: 자녀 생일(2회)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1끼당 비용					5,139원/끼니	
1일 가정식 비용					15,417원/일	
곡류 및 식빵					2,766원/일	
쌀	백미	20kg(1포)	740.0g/일	1.859원/g	1,376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참쌀	백미	1kg(1포)	30.0g/일	4.489원/g	13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보리	통보리	1kg(1포)	40.0g/일	1.772원/g	71원/일	가격월보
콩	백태	1kg(1포)	25.0g/일	4.500원/g	11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팥	적두	1kg(1포)	10.0g/일	3.200원/g	32원/일	가격월보
식빵	중품	450g(1봉지)	40.0g/일	4.660원/g	186원/일	가격월보
밀가루	중력분	3kg(1포)	80.0g/일	1.038원/g	83원/일	가격월보
국수	소면	900g(1봉지)	75.0g/일	2.640원/g	198원/일	가격월보
라면	봉지라면	1봉(120g)	90.0g/일	4.500원/g	405원/일	시장조사
당면	중품	500g(1봉지)	12.0g/일	6.504원/g	78원/일	가격월보
만두	냉동만두	567g(1봉지)	15.0g/일	6.002원/g	90원/일	가격월보
육류					2,547원/일	
소고기(갈비)	수입소고기(호주)	500g(1근)	32.0g/일	15.934원/g	51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돼지고기	삼겹살	500g(1근)	130.0g/일	8.800원/g	1,144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닭고기	육계	1kg	70.0g/일	5.589원/g	391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소시지	시장제품	500g(1개)	7.0g/일	4.968원/g	35원/일	가격월보
햄	시장제품	185g(1개)	12.0g/일	7.750원/g	93원/일	시장조사
튀김닭	시장제품	800g(1마리)	50.0g/일	7.481원/g	374원/일	가격월보
낙농품					1,427원/일	
우유	원우유	200ml(1개)	400.0g/일	2.315원/g	854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유산균발효유	중품	65ml(1병)	90.0g/일	2.354원/g	212원/일	가격월보
달걀	시장제품	65g(10개)	140.0g/일	2.583원/g	362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어개류					1,442원/일	
갈치	냉동, 약60cm, 4월	250g(1마리)	8.0g/일	27.600원/g	221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명태	동태, 약40cm	400g(1마리)	20.0g/일	7.665원/g	15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고등어	약30cm	250g(1마리)	15.0g/일	11.380원/g	171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꽁치	약30cm	160g(1마리)	12.0g/일	3.496원/g	42원/일	가격월보
냉동오징어	약25cm	250g(1마리)	15.0g/일	3.948원/g	59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홍합	중품, 안간 것(수입)	400g(1근)	10.0g/일	14.288원/g	143원/일	시장조사
복어	복어포	100g(1봉지)	3.0g/일	30.913원/g	93원/일	가격월보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B12 ug
곡류 및 식빵												
쌀	2752.80	47.36	0.00	0.00	1.48	0.00	0.81	0.30	11.10	0.89	181.30	0.00
찰쌀	112.20	2.22	0.00	0.00	0.12	0.00	0.04	0.02	0.48	0.02	7.35	0.00
보리	128.80	4.24	0.00	0.00	0.24	0.00	0.12	0.04	2.20	0.22	14.64	0.00
콩	100.00	9.05	0.00	0.00	0.21	0.00	0.13	0.07	0.55	0.14	79.45	0.00
팥	33.70	1.93	0.10	0.00	0.06	0.00	0.05	0.01	0.33	0.04	19.11	0.00
식빵	113.20	3.32	0.80	0.00	0.44	0.00	0.05	0.02	0.76	0.01	9.20	0.00
밀가루	302.40	9.20	0.00	0.00	0.00	0.00	0.17	0.02	1.44	0.00	12.80	0.00
국수	272.25	6.53	0.00	0.00	0.08	0.00	0.07	0.02	1.58	0.03	16.73	0.00
라면	342.90	7.74	62.10	0.00	1.89	0.00	0.50	0.34	0.81	0.08	21.06	0.01
당면	41.88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만두	32.10	1.44	5.40	0.00	0.11	0.15	0.03	0.01	0.14	0.22	12.12	0.00
육류												
소고기(갈비)	84.16	5.92	3.52	0.32	0.22	0.32	0.02	0.05	1.47	0.11	2.66	0.90
돼지고기	430.30	22.36	7.80	0.00	0.52	1.30	0.88	0.39	5.72	0.10	5.07	1.09
닭고기	126.00	13.30	35.00	0.00	0.21	0.00	0.14	0.15	1.89	0.21	11.69	0.22
소시지	19.32	1.01	0.35	0.00	0.03	0.70	0.01	0.01	0.27	0.01	1.37	0.06
햄	15.72	1.98	0.00	0.12	0.05	5.16	0.02	0.02	0.84	0.03	1.38	0.08
튀김닭	112.71	8.78	10.92	0.00	0.47	0.00	0.05	0.07	2.73	0.12	6.08	0.11
낙농품												
우유	240.00	12.80	112.00	4.00	0.40	4.00	0.16	0.56	0.40	0.08	38.80	1.76
유산균발효유	58.50	1.35	0.00	0.00	0.00	0.00	0.01	0.11	0.00	0.02	28.89	0.33
달걀	193.20	16.52	222.60	4.20	0.98	0.00	0.07	0.39	0.84	0.10	174.30	1.81
어개류												
갈치	7.99	0.99	1.07	0.75	0.03	0.05	0.01	0.01	0.12	0.02	0.11	0.05
명태	14.60	3.18	1.80	0.00	0.18	0.00	0.02	0.01	0.22	0.03	0.86	0.80
고등어	16.20	1.79	2.04	0.97	0.03	0.09	0.02	0.04	0.73	0.04	3.98	0.94
꽂치	11.29	1.33	1.44	1.30	0.03	0.07	0.00	0.02	0.44	0.03	2.69	1.21
냉동오징어	13.20	2.55	0.30	0.00	0.20	0.00	0.00	0.02	0.00	0.03	1.16	0.98
홍합	1.59	0.22	0.69	0.00	0.06	0.09	0.00	0.01	0.06	0.00	1.83	0.28
복어	8.70	1.85	0.00	0.00	0.11	0.00	0.00	0.01	0.25	0.01	0.61	0.08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율
곡류 및 식빵												
쌀	29.60	1036.00	0.00	2.96	11.10	0.00	0.00	5.55	0.00	111.74	0.00	0
참쌀	1.20	45.30	6.90	0.66	0.81	0.05	0.00	0.38	0.00	4.53	0.00	0
보리	17.20	144.00	53.20	2.16	1.05	0.20	0.00	0.57	0.00	15.08	0.00	0
콩	61.25	155.00	0.00	1.63	0.68	0.27	0.00	0.69	0.00	4.83	0.00	0
팥	8.20	42.40	0.00	0.56	0.50	0.07	0.00	0.13	0.78	0.31	0.00	0
식빵	8.80	34.40	0.00	0.28	0.28	0.10	0.00	0.10	0.00	6.92	0.00	0
밀가루	24.80	62.40	20.00	1.20	0.00	0.00	0.00	0.45	0.00	11.68	0.00	0
국수	5.25	49.50	0.00	0.75	0.38	0.09	0.00	0.46	0.00	6.23	0.00	0
라면	14.40	81.90	0.00	0.63	0.45	0.00	0.00	0.42	0.00	9.63	0.00	0
당면	5.64	3.12	0.24	0.36	0.01	0.00	0.00	0.01	0.00	0.34	0.00	0
만두	4.65	12.45	0.00	0.20	0.12	0.00	0.00	0.00	0.00	0.00	0.00	0
육류												
소고기(갈비)	0.96	51.20	5.12	0.38	1.18	0.02	0.00	0.00	0.00	5.15	0.00	0
돼지고기	10.40	171.60	5.20	0.91	3.12	0.07	0.00	0.00	0.00	10.40	0.00	0
닭고기	7.00	119.00	0.00	0.63	1.52	0.04	0.00	0.01	35.91	10.08	0.00	0
소시지	0.84	14.77	0.00	0.11	0.13	0.01	0.00	0.00	0.00	0.00	0.00	0
햄	0.60	39.60	0.00	0.08	0.13	0.01	0.00	0.00	0.00	3.53	0.00	0
튀김닭	8.19	60.45	8.19	0.55	0.65	0.03	5.85	0.00	0.00	9.95	0.00	22
낙농품												
우유	420.00	356.00	0.00	0.40	1.60	0.00	0.00	0.00	94.00	14.80	0.00	0
유산균발효유	35.10	25.20	0.00	0.09	0.09	0.00	0.00	0.00	23.58	1.98	0.00	0
달걀	60.20	226.80	14.00	1.96	1.82	0.25	1.40	0.04	35.84	44.38	0.00	0
어개류												
갈치	2.47	10.24	0.00	0.05	0.04	0.00	0.00	0.00	3.39	0.00	0.00	33
명태	9.60	40.00	0.00	0.04	0.14	0.02	0.00	0.00	0.00	5.70	0.00	0
고등어	2.30	20.53	6.73	0.14	0.09	0.01	0.00	0.00	7.69	3.90	0.00	41
꽂치	3.69	16.01	0.00	0.12	0.05	0.01	0.00	0.00	0.00	0.00	0.00	43
냉동오징어	1.65	0.00	0.00	0.00	0.04	0.00	0.00	0.00	0.00	6.72	0.00	0
홍합	1.43	2.25	0.00	0.12	0.03	0.00	0.00	0.00	7.96	1.03	0.00	77
복어	7.29	17.46	0.00	0.08	0.01	0.00	0.00	0.00	0.00	4.01	0.00	0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멸치	볶음용, 중품	1kg	10.0g/일	17.836원/g	178원/일	가격월보
멸치젓	중품	500g(1통)	10.0g/일	3.775원/g	38원/일	가격월보
새우젓	중품	500g(1근)	5.0g/일	8.269원/g	41원/일	가격월보
생선묵	중품	180g(1개)	18.0g/일	8.408원/g	151원/일	가격월보
참치캔	참치 통조림	150g(1캔)	12.0g/일	12.667원/g	152원/일	시장조사
채소				2,617원/일		
배추	중품(11월)	1kg(1포기)	250.0g/일	0.980원/g	24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무우	중품(11월)	1kg(1개)	150.0g/일	0.700원/g	10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파	대파	1kg	60.0g/일	1.620원/g	9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시금치	중품(4월)	100g	20.0g/일	4.170원/g	8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상추	잎상추(4월)	100g	15.0g/일	9.000원/g	13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콩나물	중간길이	100g	40.0g/일	2.590원/g	104원/일	가격월보
감자	중품(8월)	1kg	60.0g/일	1.917원/g	11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오이	다다기 중품(6월)	1.5kg(10개)	30.0g/일	3.333원/g	10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당근	중품	1kg	15.0g/일	1.820원/g	2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풋고추	중품	400g(1근)	15.0g/일	7.200원/g	108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양파	중품(6월)	1kg	60.0g/일	0.780원/g	4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호박	쭈키니 중품(6월)	500g(1개)	30.0g/일	1.600원/g	48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토마토	중품(7월)	400g(1근)	20.0g/일	7.500원/g	15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고구마	중품(1월)	1kg	25.0g/일	2.600원/g	6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도라지	중품	200g(반근)	4.0g/일	11.430원/g	46원/일	가격월보
가지	중품	120g(1개)	8.0g/일	3.333원/g	2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양배추	중품	1kg(1포기)	40.0g/일	0.769원/g	31원/일	가격월보
미나리	중품(6월)	1kg	9.0g/일	3.500원/g	32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버섯	느타리버섯(12월)	100g	15.0g/일	6.250원/g	94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깻잎	중품(6월)	100g	4.0g/일	13.400원/g	54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부추	중품(10월)	1kg	12.0g/일	3.000원/g	36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숙주나물	중품	200g(반근)	20.0g/일	2.500원/g	50원/일	가격월보
단무지	중품	400g(1봉지)	9.0g/일	5.640원/g	51원/일	시장조사
두부	시장제품	500g(1모)	100.0g/일	1.603원/g	160원/일	가격월보
도토리묵	시장제품	400g(1개)	20.0g/일	2.990원/g	60원/일	시장조사
김	중품,검정색	200g(100장)	8.0g/일	30.415원/g	24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미역	대각	100g(1장)	20.0g/일	15.270원/g	305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과실류				1,562원/일		
사과	쓰가루 중품(8월)	300g(1개)	60.0g/일	3.310원/g	199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배	신고 중품(8월)	600g(1개)	50.0g/일	3.267원/g	163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복숭아	유명 중품(9월)	350g(1개)	20.0g/일	2.857원/g	57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포도	캠벨 중품(11월)	1kg	40.0g/일	3.000원/g	120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멸치	23.90	4.24	0.00	0.00	0.08	0.00	0.01	0.01	0.54	0.04	10.75	4.13
멸치젓	16.70	1.41	6.00	0.00	0.34	0.00	0.00	0.02	0.63	0.04	2.47	0.00
새우젓	2.15	0.35	2.60	0.00	0.04	0.00	0.00	0.00	0.04	0.01	1.42	0.00
생선묵	25.20	2.12	0.00	0.00	0.11	0.00	0.00	0.00	0.05	0.01	1.93	0.05
참치캔	26.64	2.11	0.00	0.71	0.78	0.00	0.01	0.02	1.44	0.05	1.28	0.26
채소												
배추	23.00	2.07	0.00	0.00	1.15	39.10	0.14	0.07	1.15	0.21	268.18	0.00
무우	25.65	1.14	11.40	0.00	0.00	21.38	0.04	0.03	0.57	0.01	57.14	0.00
파	12.64	0.73	62.69	0.00	0.05	10.21	0.03	0.04	0.29	0.00	55.16	0.00
시금치	5.16	0.53	120.40	0.00	0.10	10.32	0.02	0.06	0.09	0.02	50.50	0.00
상추	2.70	0.21	40.35	0.00	0.21	2.55	0.01	0.02	0.06	0.02	8.49	0.00
콩나물	12.40	2.04	0.00	0.00	0.08	2.00	0.04	0.04	0.28	0.02	38.76	0.00
감자	37.22	1.58	0.00	0.00	0.00	20.30	0.06	0.03	0.56	0.07	15.40	0.00
오이	2.57	0.23	8.55	0.00	0.11	2.85	0.01	0.01	0.06	0.01	1.08	0.00
당근	4.54	0.15	167.81	0.00	0.04	1.07	0.01	0.01	0.11	0.01	4.15	0.00
꽃고추	3.00	0.17	0.30	0.00	0.00	7.05	0.01	0.00	0.11	0.00	6.14	0.00
양파	18.77	0.55	0.00	0.00	0.00	4.42	0.02	0.01	0.06	0.06	9.38	0.00
호박	9.00	0.36	42.00	0.00	0.28	12.00	0.02	0.02	0.24	0.01	16.68	0.00
토마토	2.77	0.18	17.82	0.00	0.12	2.18	0.01	0.00	0.12	0.01	10.28	0.00
고구마	29.76	0.33	4.42	0.00	0.09	5.81	0.01	0.01	0.16	0.03	19.46	0.00
도라지	2.76	0.07	0.00	0.00	0.01	0.78	0.00	0.00	0.02	0.00	0.53	0.00
가지	1.43	0.07	0.45	0.00	0.02	0.68	0.00	0.00	0.03	0.00	3.52	0.00
양배추	6.54	0.21	0.34	0.00	0.03	12.38	0.01	0.01	0.10	0.03	33.71	0.00
미나리	1.18	0.11	18.45	0.00	0.06	0.74	0.00	0.01	0.11	0.01	10.01	0.00
버섯	3.75	0.39	0.15	0.15	0.00	0.45	0.03	0.02	0.14	0.01	15.14	0.00
깻잎	1.40	0.16	60.96	0.00	0.14	0.48	0.00	0.02	0.04	0.00	0.00	0.00
부추	2.24	0.31	55.11	0.00	0.28	3.95	0.01	0.02	0.09	0.02	10.19	0.00
숙주나물	2.20	0.44	0.80	0.00	0.02	2.00	0.01	0.01	0.10	0.01	12.20	0.00
단무지	1.08	0.05	0.00	0.00	0.04	0.63	0.00	0.00	0.02	0.01	1.25	0.00
두부	84.00	9.30	0.00	0.00	0.60	0.00	0.03	0.02	0.20	0.04	15.30	0.00
도토리묵	8.60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2.84	0.00
김	9.35	2.74	300.00	0.00	0.22	1.60	0.02	0.08	0.24	0.07	130.67	6.21
미역	19.40	4.00	260.00	0.00	0.12	3.60	0.05	0.20	0.90	0.01	30.76	0.04
과실류												
사과	28.04	0.15	1.48	0.00	0.49	1.97	0.00	0.00	0.05	0.05	3.49	0.00
배	12.87	0.16	0.00	0.00	0.04	1.56	0.01	0.00	0.12	0.01	3.12	0.00
복숭아	5.78	0.15	0.34	0.00	0.10	1.19	0.00	0.00	0.07	0.01	0.36	0.00
포도	16.76	0.14	0.00	0.00	0.14	0.00	0.01	0.01	0.14	0.01	7.87	0.00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율
멸치	90.20	97.70	0.00	0.55	0.13	0.02	0.00	0.31	26.52	8.49	0.00	0
멸치젓	59.20	34.80	0.00	0.55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
새우젓	16.50	5.55	0.00	0.08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
생선묵	10.44	15.84	0.00	0.16	0.11	0.00	0.00	0.00	0.00	0.00	0.00	0
참치캔	7.44	21.12	0.00	0.43	0.06	0.01	0.00	0.00	0.00	0.00	0.00	0
채소												
배추	85.10	57.50	0.00	1.15	0.92	0.07	0.00	0.51	0.00	1.15	0.00	8
무우	37.05	32.78	0.00	1.00	0.43	0.00	0.00	0.66	0.00	1.00	0.00	5
파	39.37	17.01	11.18	0.49	0.00	0.02	0.00	0.00	0.00	0.29	0.00	19
시금치	6.88	4.99	0.00	0.45	0.10	0.02	4.82	0.12	0.00	0.00	0.00	14
상추	9.00	7.65	0.00	0.17	0.05	0.00	0.00	0.04	0.00	0.09	0.00	0
콩나물	14.40	26.40	28.80	0.52	0.28	0.06	0.00	0.14	0.00	0.24	0.00	0
감자	2.26	35.53	12.97	0.34	0.28	0.06	0.00	0.14	0.00	0.17	0.00	6
오이	7.41	9.41	0.00	0.06	0.06	0.03	0.00	0.04	0.00	0.03	0.00	5
당근	5.34	5.07	1.60	0.09	0.05	0.01	0.40	0.04	0.00	0.01	0.00	11
풋고추	0.60	3.45	0.00	0.08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
양파	8.83	16.56	0.00	0.22	0.22	0.03	0.00	0.23	0.00	0.28	0.00	8
호박	18.30	7.20	5.10	0.72	0.06	0.02	0.00	0.04	0.12	0.06	0.00	0
토마토	1.78	3.76	2.18	0.06	0.16	0.01	0.40	0.01	0.00	0.08	0.00	1
고구마	5.58	12.56	5.81	0.12	0.07	0.04	3.26	0.46	0.00	0.14	0.00	7
도라지	1.01	2.74	0.00	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8
가지	1.20	2.48	1.05	0.02	0.02	0.00	0.00	0.01	0.08	0.02	0.00	6
양배추	9.98	8.60	5.16	0.17	0.14	0.01	0.00	0.13	0.00	0.10	0.00	14
미나리	1.77	3.32	0.00	0.15	0.02	0.01	0.00	0.00	0.00	0.00	0.00	18
버섯	0.15	8.10	2.70	0.08	0.15	0.02	0.00	0.02	0.00	0.39	0.00	0
깻잎	8.44	2.88	2.52	0.09	0.04	0.01	0.00	0.07	0.00	0.00	0.00	0
부추	5.02	3.63	0.00	0.22	0.04	0.01	0.00	0.05	0.11	0.00	0.00	11
숙주나물	3.00	6.40	4.20	0.12	0.06	0.02	0.00	0.02	0.00	0.12	0.00	0
단무지	2.16	1.62	0.00	0.04	0.03	0.01	0.00	0.03	0.00	0.00	0.00	0
두부	126.00	140.00	0.00	1.50	1.00	0.15	0.00	0.55	0.00	9.90	0.00	0
도토리묵	1.20	5.20	0.00	0.08	0.02	0.00	0.00	0.03	0.00	0.00	0.00	0
김	33.60	19.84	0.00	3.68	0.41	0.05	0.00	0.22	0.00	0.53	0.00	0
미역	191.80	61.40	0.00	1.82	0.72	0.01	0.00	0.11	2320.00	0.00	0.00	0
과실류												
사과	1.48	3.94	0.00	0.15	0.05	0.02	0.00	0.01	0.00	0.01	0.00	18
배	1.95	4.68	0.00	0.12	0.05	0.02	0.00	0.02	0.00	0.04	0.00	22
복숭아	0.51	2.89	0.00	0.09	0.02	0.01	0.00	0.01	0.00	0.02	0.00	15
포도	1.14	8.24	0.00	0.14	0.01	0.01	0.00	0.04	0.00	0.03	0.00	29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감	단감 중품(12월)	200g(1개)	30.0g/일	3.025 원/g	91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감귤	중품(11월)	100g(1개)	140.0g/일	1.400 원/g	196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참외	중품(11월)	400g(1개)	50.0g/일	2.063 원/g	103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수박	중품(7월)	8kg(1개)	110.0g/일	0.682 원/g	75 원/일	가격월보
딸기	중품(6월)	100g	50.0g/일	8.800 원/g	440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바나나	수입품	1kg	70.0g/일	1.690 원/g	118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조미식품					1,058 원/일	
참기름	공장제품, 초유	320ml(1병)	3.0g/일	19.602 원/g	59 원/일	가격월보
콩기름	공장제품	1800ml(1병)	20.0g/일	2.820 원/g	56 원/일	가격월보
마아가린	중품	220g(1통)	8.0g/일	4.864 원/g	39 원/일	가격월보
고추가루	중품	100g	12.0g/일	18.255 원/g	219 원/일	가격월보
마늘	중품, 간 것	1kg	18.0g/일	4.260 원/g	77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생강	중품	100g	5.0g/일	5.600 원/g	28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후춧가루	캔포장	100g(1캔)	0.3g/일	19.000 원/g	6 원/일	가격월보
카레가루	중품	100g(1봉)	4.0g/일	13.110 원/g	52 원/일	가격월보
설탕	정백당	1kg(1포)	20.0g/일	1.434 원/g	29 원/일	가격월보
소금	천일염	1kg	20.0g/일	1.446 원/g	29 원/일	가격월보
깨	참깨(수입산)	560g(1되)	15.0g/일	6.179 원/g	93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간장	시장제품	1,000ml(1병)	18.0g/일	3.344 원/g	60 원/일	시장조사
된장	PET 용기	500g(1포)	15.0g/일	4.380 원/g	66 원/일	시장조사
고추장	PET 용기	500g(1포)	12.0g/일	6.400 원/g	77 원/일	시장조사
혼합조미료	다시다	100g(1포)	3.0g/일	15.683 원/g	47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식초	사과식초	500ml(1병)	4.0g/일	1.820 원/g	7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케찹	시장제품	500g(1병)	3.0g/일	3.137 원/g	9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마요네즈	시장제품	500g(1병)	4.0g/일	5.689 원/g	23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물엿	중품	1.2kg(1병)	50.0g/일	1.646 원/g	82 원/일	농수산물유통정보
빵 및 과자류					1,051 원/일	
케이크	중간 크기	800g(1판)	20.0g/일	13.413 원/g	268 원/일	가격월보
스낵과자	시장제품	90g(1봉)	60.0g/일	7.354 원/g	441 원/일	가격월보
비스킷	시장제품	150g(1봉)	90.0g/일	3.793 원/g	341 원/일	가격월보
차음료 및 주류					934 원/일	
커피	봉지용기	175g(1봉지)	24.0g/일	30.360 원/g	729 원/일	가격월보
보리차	티백포장	300g(1상자)	10.0g/일	4.817 원/g	48 원/일	가격월보
콜라	PET 용기	1500ml(1병)	50.0g/일	0.953 원/g	48 원/일	시장조사
쥬스	PET 용기	1500ml(1병)	50.0g/일	1.630 원/g	81 원/일	가격월보
소주	시장제품	360ml(1병)	10.0g/일	2.778 원/g	28 원/일	시장조사
기타식료품					12 원/일	
커피프림	비닐포장	500g(1봉지)	3.0g/일	4.095 원/g	12 원/일	가격월보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품목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ug R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C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나이아신 mg NE	비타민B6 mg	엽산 ug	비타민 B12 ug
감	24.90	0.27	142.20	0.00	0.06	3.90	0.02	0.04	0.18	0.02	0.99	0.00
감귤	43.62	0.80	1.15	0.00	0.46	50.51	0.15	0.05	0.46	0.08	27.55	0.00
참외	10.14	0.35	5.07	0.00	0.04	5.85	0.01	0.02	0.27	0.02	25.04	0.00
수박	26.40	0.88	157.30	0.00	0.11	15.40	0.00	0.02	0.22	0.10	6.93	0.00
딸기	12.74	0.39	0.00	0.00	0.05	40.18	0.01	0.01	0.15	0.01	62.38	0.00
바나나	35.84	0.54	3.14	0.00	0.09	4.48	0.01	0.03	0.45	0.13	7.26	0.00
조미식품												
참기름	26.52	0.00	0.00	0.00	1.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콩기름	176.80	0.00	0.00	0.00	20.6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마아가린	57.68	0.02	137.84	0.00	0.41	0.00	0.00	0.00	0.00	0.00	0.08	0.01
고추가루	30.84	1.79	412.80	0.00	3.50	3.84	0.05	0.15	1.73	0.07	2.59	0.00
마늘	22.68	0.97	0.00	0.00	0.00	5.04	0.03	0.06	0.07	0.09	15.55	0.00
생강	2.20	0.06	0.00	0.00	0.01	0.21	0.00	0.00	0.04	0.01	0.70	0.00
후추가루	0.92	0.03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3	0.00
카레가루	16.00	0.42	3.96	0.00	0.01	0.00	0.00	0.00	0.05	0.03	6.16	0.00
설탕	77.4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깨	88.95	2.72	0.00	0.00	1.10	0.00	0.08	0.02	0.00	0.12	14.40	0.00
간장	9.54	1.39	0.00	0.00	0.11	0.00	0.01	0.01	0.22	0.02	8.17	0.00
된장	24.15	2.04	0.00	0.00	0.29	0.00	0.01	0.02	0.18	0.02	13.41	0.00
고추장	19.20	0.59	48.96	0.00	0.70	0.60	0.02	0.06	0.19	0.03	6.42	0.00
혼합조미료	6.69	0.41	0.48	0.00	0.24	0.00	0.02	0.01	0.15	0.03	1.44	0.00
식초	0.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케찹	3.57	0.05	0.00	0.00	0.07	0.27	0.01	0.01	0.02	0.00	1.05	0.00
마요네즈	29.48	0.60	0.80	0.00	0.33	0.00	0.00	0.00	0.01	0.00	0.25	0.01
물엿	146.50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6	0.00	0.00
빵 및 과자류												
케이크	69.20	1.32	16.40	0.00	0.08	0.00	0.01	0.02	0.02	0.00	2.60	0.05
스낵과자	289.20	4.38	0.00	0.00	1.38	0.00	0.07	0.02	0.36	0.02	4.80	0.00
비스킷	405.00	5.94	2.70	0.00	1.35	0.00	0.05	0.03	0.27	0.04	12.60	0.05
차음료 및 주류(340-359)												
커피	84.48	4.68	0.00	0.00	0.05	0.00	0.00	0.05	7.44	0.00	0.00	0.00
보리차	31.70	1.20	0.00	0.00	0.06	0.00	0.00	0.01	0.62	0.06	5.00	0.00
콜라	2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스	21.50	0.10	0.00	0.00	0.01	1.00	0.01	0.01	0.05	0.02	0.00	0.00
소주	14.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식료품												
커피프림	16.29	0.11	0.09	0.00	0.25	0.00	0.00	0.00	0.01	0.00	0.00	0.00

품목	칼슘 mg	인 m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mg	불소 ug	망간 mg	요오드 ug	셀레늄 ug	몰리브덴 ug	폐기율
감	1.80	10.20	0.00	1.17	0.03	0.01	0.00	0.13	0.00	0.18	0.00	0
감귤	14.92	12.63	0.00	0.00	0.11	0.06	0.00	0.09	0.00	0.01	0.00	18
참외	6.24	3.90	0.00	0.08	0.17	0.00	0.00	0.00	0.00	0.00	0.00	22
수박	1.10	13.20	0.00	0.22	0.44	0.03	1.10	0.09	0.00	0.44	0.00	0
딸기	6.37	13.23	6.37	0.20	0.10	0.02	0.00	0.10	1.32	0.20	0.00	2
바나나	1.79	8.06	12.10	0.31	0.13	0.04	0.99	0.17	0.00	0.45	0.00	36
조미식품												
참기름	0.00	0.00	0.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콩기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
마아가린	0.48	1.04	0.24	0.00	0.01	0.00	0.40	0.00	0.00	0.00	0.00	0
고춧가루	7.56	25.68	1.80	1.32	0.41	0.06	0.00	0.35	0.00	0.42	0.00	0
마늘	1.80	29.52	4.50	0.34	0.18	0.03	0.00	0.05	0.00	2.56	0.00	0
생강	0.54	1.16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03	0.00	17
후춧가루	0.84	0.50	0.58	0.06	0.00	0.00	0.00	0.02	0.00	0.01	0.00	0
카레가루	2.60	5.28	0.00	0.20	0.12	0.03	0.00	0.19	0.00	0.68	0.00	0
설탕	0.60	0.00	0.00	0.06	0.00	0.00	0.00	0.00	0.00	0.12	0.00	0
소금	8.00	0.00	0.00	0.04	0.02	0.00	0.00	0.02	0.00	0.02	0.00	0
깨	183.45	96.00	0.00	2.85	0.54	0.19	0.00	0.00	0.00	0.26	0.00	0
간장	7.02	27.90	7.20	0.38	0.16	0.00	0.00	0.14	0.00	0.14	0.00	0
된장	12.60	31.20	0.00	0.38	0.09	0.05	0.00	0.15	0.00	0.00	0.00	0
고추장	4.80	10.80	3.84	0.2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혼합조미료	0.48	2.58	0.00	0.06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
식초	0.08	0.24	0.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케찹	0.21	1.08	0.57	0.02	0.01	0.00	0.00	0.00	0.00	0.01	0.00	0
마요네즈	0.32	1.44	0.00	0.04	0.01	0.00	0.00	0.00	0.00	0.07	0.00	0
물엿	0.50	0.50	0.00	0.10	0.00	0.03	0.00	0.00	0.00	0.35	0.00	0
빵 및 과자류												
케이크	6.80	24.80	2.20	0.18	0.12	0.01	0.00	0.04	0.00	1.82	0.00	0
스낵과자	12.60	38.40	0.00	0.30	0.18	0.05	0.00	0.27	0.00	3.96	0.00	0
비스킷	27.00	63.00	0.00	0.45	0.48	0.14	0.00	0.86	0.00	0.00	0.00	0
차음료 및 주류												
커피	38.40	85.68	78.48	1.15	0.10	0.03	0.00	0.62	0.00	3.02	0.00	0
보리차	5.50	29.00	0.00	1.39	0.26	0.00	0.00	0.00	0.00	0.00	0.00	0
콜라	1.00	5.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5	0.00	0
쥬스	1.00	8.50	0.00	0.25	0.06	0.01	0.00	0.02	0.00	0.05	0.00	0
소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기타식료품												
커피프립	2.94	10.08	0.00	0.02	0.01	0.00	0.00	0.00	0.00	0.02	0.00	0

〈부표 1-13〉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전세인 경우)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 수량 설정기준
최저 주거비				221,374원					
구입자금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조달비용	중소 도시	37㎡ 아파트	1년	39,647,000원	5.05%	166,716원			
보증보험료	중소 도시	37㎡ 아파트	1년	39,647,000원	0.30%	6,938원	시장조사		
관리비	중소 도시	아파트, 37㎡	1월	660원	49.3㎡	32,568원		최저거주면적	
이사비	중소 도시	(6.00년에 1회)	6.00년	445,620원	1회	6,189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복비	중소 도시	전세금의 0.5%	6.00년	198,235원	1회	2,753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도배비	중소 도시		6.00년	12,084원	37㎡	6,210원		최저거주면적	실태조사

〈부표 1-14〉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광열수도					103,150원				
전기요금	도시	257kwh (누진제)	1월	31,730원	1회	31,730원		한국전력	에너지 센서스
상수하수도 요금	중소 도시	15.7m(누진제)	1월	14,280원	1회	14,280원		시흥시요금	상수도 통계, 실태조사
난방비	중소 도시	LNG 70.7m <sup>3</sup> (취사포함)	1월	57,140원	1회	57,140원		경기요금	에너지 센서스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가사가구집기						40,547원			
일반가구									
장롱	전국	8자 목재	20년	450,000원	1개	1,8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서랍장	전국	5단 플라스틱	15년	36,140원	1개	20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책상	전국	목재학생용책상 650*450*760	10년	43,000원	2개	7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학생2인
의자	전국	목재	5년	20,000원	2개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학생2인
벽시계	전국		10년	24,300원	1개	20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탁상시계	전국		10년	18,600원	2개	31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화장대	전국	철제, 거울 포함	17년	39,800원	1개	19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행거	전국	철제	10년	13,000원	1개	1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문갑	전국	5자 목재	12년	58,000원	1개	403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가정용기구									
냉장고	전국	428리터	10년	570,000원	1대	4,750원	보유율,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한국전력 공사
전기밥솥	전국	6인용	8년	65,000원	1개	677원	보유율,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법인세법
가스레인지	전국	버너2개	10년	60,000원	1개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세탁기	전국	10kg	8년	330,000원	1개	3,438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다리미	전국	일반유선	10년	25,000원	1개	2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선풍기	전국	14인치	10년	40,000원	2개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믹서	전국	일반 믹서기 1리터	10년	35,000원	1개	29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자레인지	전국	20리터 465×279×360 mm	15년	85,000원	1개	472원	보유율,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헤어드라이기	전국	일반용 220v 1200w	6년	15,504원	1개	215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식기주방용품									
밥상	전국	4인용 4각	10년	30,000원	1개	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주발	전국	단반상기 (2벌 1세트)	8년	49,952원	3세트	1,561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접시	전국	7.5인치	8년	7,300원	9개	684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컵	전국	유리	8년	1,000원	8개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쟁반	전국	중	5년	3,700원	1개	6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냄비	전국	중	5년	5,000원	3개	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주전자	전국	대	10년	12,700원	1개	10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소	10년	6,500원	1개	54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후라이팬	전국	대(직경 28cm)	5년	16,000원	1개	2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소(직경 24cm)	5년	14,000원	1개	2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항아리	전국	중	10년	20,000원	3개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식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5,100원	1개	8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과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2,000원	1개	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도마	전국	중	10년	5,000원	1개	4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수저	전국	스테인레스	10년	1,500원	8벌	1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수저통	전국	플라스틱	5년	2,100원	1통	3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조미료통	전국	플라스틱 3개들이 1세트	5년	5,000원	1세트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찬통	전국	플라스틱 대	10년	3,000원	2개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플라스틱 중	10년	1,950원	4개	6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김치통	전국	폴리프로필렌 9리터	10년	10,863원	2개	181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전국	소	10년	3,000원	2개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가지	전국	플라스틱 중	2년	1,000원	2개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고무통	전국		10년	6,000원	1개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국자	전국	플라스틱 중	5년	1,500원	2개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대야	전국	플라스틱 중	8년	2,000원	1개	2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랩	전국	30Cm*50m	5월	3,450원	1통	690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쿠킹호일	전국	30Cm*30m	5월	3,350원	1통	67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보온병	전국	1.2L	10년	11,000원	1개	92원	보유율,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가사잡화 소모품									
가사잡화									
드라이버	전국	중	10년	2,000원	1개	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망치	전국	중	10년	4,000원	1개	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못	전국	나사 못(6종 1세트)	10년	1,000원	1세트	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위	전국	중	10년	3,000원	1개	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건조대	전국	중	10년	13,000원	1개	1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빨래판	전국	플라스틱	5년	3,000원	1개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빨래집게	전국	10개들이 1세트	1년	1,000원	2세트	1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방빗자루	전국	플라스틱	5년	3,000원	1개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쓰레받기	전국	플라스틱	5년	2,000원	1개	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휴지통	전국	플라스틱 중	5년	3,000원	1개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플라스틱 소	5년	1,500원	1개	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비누통	전국	플라스틱	10년	1,000원	1개	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늘	전국		5년	1,000원	1쌈	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목도장	전국		5년	5,000원	2개	1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부, 모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가사소모품									
형광전구	전국	주광색 18w 일반조명용	1년	1,246원	6개	623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방3(방2+거실1)
형광등 스타트	전국		2년	400원	6개	1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방3(방2+거실1)
백열전구	전국	투명220v-60w 일반조명용	6월	539원	2개	180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화장지	전국	두루마리 60m 1개	1월	515원	4개	2,060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고무장갑	전국	중	3월	1,450원	2짝	9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빨래비누	전국	230g	1월	700원	1개	7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합성세제	전국	3.0kg	4월	10,333원	1봉	2,583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부엌용세제	전국	1Kg	3월	2,307원	1병	769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살충방충제	전국	수압분무식 500ml	1년	2,511원	1통	209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나프탈렌	전국		1년	1,200원	1봉	1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습기제거제	전국	제습량 525ml	1년	1,346원	1개	112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행주	전국		4월	750원	2개	3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수세미	전국	150mm*230mm	4월	1,200원	1개	3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구두솔	전국		1년	690원	1개	5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구두약	전국		1년	600원	1통	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접착제	전국		1년	500원	1개	4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건전지	전국	알카리AA 1.5V	1년	681원	7개	397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벽시계 2개, 탁상시계 2개, 카메라 1개, 리모콘 2개
침구 및 직물제품									
이불	전국	동	10년	56,000원	4채	1,8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전국	춘추	10년	30,000원	4채	1,0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요	전국	동	10년	25,000원	4채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전국	춘추	10년	20,000원	4채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베개	전국		10년	5,000원	4개	1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타올	전국	80Cm*40Cm	2년	2,500원	4매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가구원수
커튼	전국	150Cm*230Cm	10년	29,900원	2세트	498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가사서비스									
가구집기 수선료	전국		1년	7,000원	2회	1,1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쓰레기봉투	중소도시	10리터 1매	1월	244원	5매	1,220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부표 1-16〉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피복 및 신발						57,649원			
의의									
가장(40세)									
신사복	도시	동	12년	90,000원	2벌	1,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도시	춘추	12년	80,000원	2벌	1,11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0,000원	1점	667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잠바	전국	동	10년	30,000원	2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10년	20,000원	2점	333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6년	20,000원	2점	55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6년	15,000원	2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하	6년	10,000원	2점	27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6년	20,000원	2벌	55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잠옷겸용	6년	15,000원	2벌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주부(37세)									
숙녀복	도시	동	12년	90,000원	2벌	1,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도시	춘추	12년	70,000원	2벌	97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0,000원	1점	667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잠바	전국	춘추, 동	10년	30,000원	2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스키트	전국	춘추, 동	10년	30,000원	2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바지	전국	동	9년	20,000원	3점	55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9년	15,000원	3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하	6년	10,000원	2점	27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10년	20,000원	2벌	3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잠옷겸용	10년	15,000원	2벌	250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남,11세)									
잠바	전국	동	2년	30,000원	1점	1,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20,000원	1점	833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2년	15,000원	2점	1,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10,000원	2점	833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2년	8,000원	2점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체육복	전국	동	3년	18,000원	1벌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하	3년	15,000원	1벌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9세)									
잠바	전국	동	2년	30,000원	1점	1,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20,000원	1점	833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2년	15,000원	3점	1,8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15,000원	3점	1,875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부표 1-16〉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반바지	전국		2년	8,000원	2점	6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스커트	전국		2년	12,000원	1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체육복	전국	동	3년	18,000원	1벌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하	3년	15,000원	1벌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스웨터,셔츠									
가장									
와이셔츠	전국	긴팔	3년	12,000원	3점	1,0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반팔	3년	10,000원	3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셔츠	전국	긴팔	4년	15,000원	2점	6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반팔	4년	10,000원	2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스웨터	전국		6년	15,000원	2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남방	전국		6년	10,000원	2점	27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주부									
셔츠	전국	긴팔	6년	15,000원	3점	62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반팔	6년	10,000원	3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스웨터	전국	겨울	6년	15,000원	2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블라우스	전국		6년	20,000원	3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남)									
셔츠	전국	긴팔	2년	10,000원	2점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반팔	2년	5,000원	2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스웨터	전국		6년	12,000원	3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									
셔츠	전국	긴팔	2년	9,800원	2점	8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반팔	2년	5,000원	2점	41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스웨터	전국		6년	12,000원	3점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블라우스	전국		6년	10,000원	3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내의									
가장									
동내의	전국	성인용상하 순면60's	6년	24,782원	3벌	1,033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런닝	전국	남자성인용 흰색 순면40's	3년	2,505원	9매	626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세탁감안
팬티	전국	성인용 흰색 순면	3년	2,474원	9매	619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세탁감안
주부									
동내의	전국	성인용상하 순면60's	6년	19,085원	3벌	795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런닝	전국		3년	2,000원	9매	5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세탁감안
팬티	전국	성인용 삼각 순면	3년	3,598원	12매	1,199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브래지어	전국		2년	5,000원	2점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속지마	전국	양장용	6년	10,000원	2점	27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부표 1-16〉 최저 피복 · 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자녀(남)									
동내의	전국		6년	8,800원	3벌	3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런닝	전국		3년	2,200원	9점	5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팬티	전국		3년	1,900원	9점	4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									
동내의	전국		6년	8,800원	3벌	36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런닝	전국		3년	2,200원	9점	5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팬티	전국		3년	1,900원	9점	4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직물·실									
실	전국		6년	1,000원	2타래	2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기타피복									
가장									
넥타이	전국		4년	5,000원	2개	2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장갑	전국	방한용	5년	5,000원	1켢레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혁대	전국		5년	5,000원	1개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301원	4켢레	767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목도리	전국		3년	6,800원	1개	18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손수건	전국		4년	1,000원	2개	4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주부									
스타킹	전국	팬티스타킹 1켢레	3월	1,545원	1개	515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전국	판타롱스타킹 1켢레	2월	750원	1개	375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장갑	전국	방한용	5년	5,000원	1켢레	8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혁대	전국		3년	5,000원	1개	13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301원	2켢레	384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목도리	전국		3년	6,800원	1개	18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손수건	전국		2년	1,000원	1개	4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남)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4,700원	1켢레	19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혁대	전국		3년	4,401원	1개	122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600원	4켢레	5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목도리	전국		2년	5,300원	1개	22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4,700원	1켢레	196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600원	4켢레	5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목도리	전국		2년	5,300원	1개	22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부표 1-16〉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신발									
가장									
구두	도시	인조가죽	3년	30,000원	1켤레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운동화	도시		3년	15,509원	1켤레	43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슬리퍼	전국		3년	5,000원	1켤레	13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주부									
구두	전국	인조가죽	2년	20,000원	1켤레	8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운동화	전국		4년	14,788원	1켤레	308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슬리퍼	전국		3년	5,000원	1켤레	13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샌들	전국		3년	14,708원	1켤레	409원	보유율,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자녀(남)									
운동화	전국		2년	10,000원	1켤레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켤레	1년	3,852원	1켤레	321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샌들	전국		2년	8,000원	1켤레	3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									
운동화	전국		2년	10,000원	1켤레	417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켤레	1년	3,852원	1켤레	321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샌들	전국		2년	8,000원	1켤레	333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피복 및 신발서비스									
세탁료	도시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6,000원	4벌	2,0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도시	숙녀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6,000원	2벌	1,00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의복수선료	도시	신사복 하의 기장 수선	1년	3,000원	1벌	250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구두수선료	전국	구두굽 수선료	3년	4,000원	1켤레	111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부표 1-17〉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보건의료						62,196원			
보건의료용품									
안경	전국	중품	2년	40,000원	1개	1,667원	탄력성,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위생대	전국	생리대 중형 20패드	1월	4,382원	1개	4,382원	탄력성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전국	입원,외래, 처방약값	1월	50,617원		50,617원		실태조사	07년 同
약값	전국	비처방약값	1월	3,657원		3,657원		실태조사	07년 同
미충족욕구	전국	50% 반영	1월	1,873원		1,873원		실태조사	07년 同

〈부표 1-18〉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 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육비						65,930원			
<초등학생-11세(남)/9세(여)>									
교재비									
참고서	전국	1, 2학기 전과 각 1인당 1권	1년	23,408 원	4권	7,803 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문제집	전국	1, 2학기 각 1인당 1권	1년	12,320 원	4권	8,213 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보충교육비									
가정학습지	전국	교과목 관련 (1종*6월/인)	1년	32,000 원	12월	32,000 원	통계청 2009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2009사교육비 조사	실태조사
수련회	전국	국내 2박3일 기준(1회/인)	1년	45,000 원	1회	7,500 원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기타교육비	전국	야외학습 및 특별활동	1년	10,000 원	2회	1,667 원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문방구비									
연필	전국	HB보통나무 (1타스/인)	6월	2,265 원	2타스	755 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색인펜	전국	수성(2개/인)	1월	200 원	4개	800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색연필	전국	12색(1세트/인)	1년	2,500 원	2세트	417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공책	전국	초등학생용 (9권/인)	6월	548 원	18권	1,644 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스케치북	전국	초등학생용 (2권/인)	1년	1,206 원	4권	402 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인쇄용지	전국	A4/250매	6월	2,665 원	1권	444 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크레파스	전국	24색(1세트/인)	1년	3,668 원	2세트	611 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그림물감	전국	12색 1세트	1년	2,851 원	1세트	238 원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붓	전국	수채화용 세트	2년	4,500 원	1세트	188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지우개	전국	소(2개/인)	6월	300 원	4개	200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칼	전국	소형 커터	2년	300 원	1개	13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가위	전국	중	2년	700 원	1개	29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풀	전국	중간 크기(1개/인)	6월	500 원	2개	167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색종이	전국	양면(10개/인)	6월	500 원	20개	1,667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필통	전국	초등학생용 (1개/인)	1년	1,500 원	2개	250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교육용 악기	전국	초등학생용 리코더	3년	2,000 원	1개	56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자	전국	초등학생용 20cm(1개/인)	1년	200 원	2개	33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앨범	전국	중품(30매)	3년	15,000 원	2개	833 원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부표 1-19〉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양오락						27,117원			
서적 및 인쇄물									
도서(성인)	전국	단행본	1년	9,823원	1권	819원	실패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국민독서 실패조사
도서(아동)	전국	단행본	1년	6,204원	4권	2,068원	실패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국민독서 실패조사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전국	29인치 (일반형)	10년	260,000원	1개	2,167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카세트라디오	전국	CD 겸용	10년	70,000원	1개	583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비디오	전국	VTR 4헤드	10년	130,000원	1개	1,083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카메라	전국	자동카메라 (일반형)	10년	40,000원	1개	333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컴퓨터	전국	중저가 (보급형)/ 모니터 포함	6년	551,000원	1개	7,653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프린터	전국	잉크젯 중저가 (보급형)	10년	60,000원	1개	500원	전자제품 소비행태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프린터잉크	전국	재생/호환잉크 (리필형)	1년	7,000원	1개	583원	전자제품 소비행태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필름	전국	24매	1년	2,500원	2통	417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완구	전국	초등학생용 장난감 1인당 2개	1년	4,000원	4개	1,333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CD	전국	음악용	1년	12,000원	1개	1,000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교양오락서비스									
영화관람	전국	성인 (2인/1회)	1년	8,169원	2명	1,362원	문화관광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패조사
	전국	아동 (2인/1회)	1년	7,501원	2명	1,250원	문화관광부	시장조사	실패조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전국	가정용 TV	1월	2,500원	1회	2,500원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시장조사	방송법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전국	고궁및 박물관 (성인2,아동2)	1년	9,000원	2회	1,500원	실패조사	시장조사	실패조사
사진촬영 및 현상	전국	증명사진 3X4cm	5년	10,533원	1조	176원	실패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패조사
	전국	사진현상 (24매)	1년	7,073원	2통	1,179원	실패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패조사
비디오 테이프 대여	전국	신판	1년	1,834원	4회	611원	실패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패조사

〈부표 1-20〉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통통신비						142,600원			
교통비									
가장 출근	도시	시내버스, 출퇴근 23.9일, 외출 2회(왕복)	1월	944원	50회	47,009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주부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6회(왕복)	1월	944원	12회	11,328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자차(초등학생)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3회(왕복), 2인	1월	705원	12회	8,460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택시	전국	시내구간	1월	5,156원	1회	5,156원		실태조사	07년 同
친지방문 등	전국	고속버스(일반), 4인X1년 2회X왕복(2번)	6월	52,200원	1회	8,700원		시장조사	07년 同
통신비									
집전화요금									
전화 기본요금	중소 도시	가입비형 7급지	1월	4,000원	1회	4,000원		통신업체	07년 同
시내통화	전국	유선전화-유선전화(시내), 1도수(3분) 기준	1월	39원	15회	585원		통신업체	전문가
시외통화	전국	유선전화-유선전화(시외), 3분 기준	1월	261원	3회	783원		통신업체	전문가
이동통신	전국	유선전화-무선전화, 3분 기준	1월	261원	5회	1,305원		통신업체	전문가
부가세	전국		1월		1회	667원		통신업체	통신업체
이전비	도시	6년에 1회 (기준: 무출동이전)	6년	10,000원	1회	139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전화기 구입비	전국	일반유선전화	4년	36,732원	1회	765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휴대전화요금									
휴대폰 기본요금	전국	일반(표준)요금	1월	12,000원	1회	12,000원	보유율	이동통신업체	이동통신 업체
사용요금	전국	3분 기준 (1일 1통화)	1월	324원	30회	9,720원		이동통신업체	전문가
부가세	전국	요금의 10%	1월		1회	2,172원		세법	세법
휴대폰 구입비	전국	5년마다 1회	5년	100,000원	1회	1,667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이동통신 가입비	전국	생애 1회	35년	39,600원	1회	94원		이동통신업체	WHO
인터넷요금									
인터넷 요금	전국	저가형(라이트 등), 부가세별도	1월	25,500원	1회	25,500원		서비스 업체	서비스업체
부가세	전국	사용요금의 10%	1월		1회	2,550원		세법	세법

544



〈부표 1-21〉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기타소비지출						82,305원			
이미용품									
치솔	전국	성인용	4월	1,473원	4개	1,473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치약	전국	170g	1월	1,500원	1개	1,500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비누	전국	100g	1월	1,000원	2개	2,000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샴푸	전국	500ml	2월	6,491원	1통	3,246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스킨로션(여성)	전국	150ml	6월	14,800원	1개	2,46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밀크로션(여성)	전국	150ml	6월	14,800원	1개	2,467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스킨로션(남성)	전국	150ml	6월	13,000원	0개	0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이동용로션	전국	200ml	6월	9,600원	0개	0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파운데이션	전국	40ml	1년	12,900원	1개	1,075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썬크림	전국	70mg	1년	10,900원	1개	908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립스틱	전국	3.5g	1년	7,900원	1개	658원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손톱깎기	전국	중품	5년	1,500원	1개	25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면도기	전국	1회용	1월	200원	5개	1,000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머리빗	전국	중품 2종	5년	1,500원	2개	50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이미용서비스									
목욕비	전국	대인 (2월 1회, 4인)	2월	4,552원	4회	9,104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이발	전국	남자 대인	3월	7,210원	2회	4,807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전국	남자 아동	3월	4,911원	2회	3,274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미용	전국	여자 대인	6월	9,920원	1회	1,653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전국	여자 아동	3월	5,518원	1회	1,839원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07년 同
파마	전국	여자 파마	6월	30,000원	1회	5,000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장신구									
핸드백	전국	중품	4년	28,150원	1개	586원		시장조사	07년 同
가방	전국	학생가방	3년	25,000원	2개	1,389원		시장조사	07년 同
우산	전국	중품, 3단	3년	6,000원	4개	667원		가격월보	07년 同
손목시계	전국	아나로그	10년	42,000원	2개	700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지갑	전국	중품	4년	14,000원	2개	583원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잡비									
경조비	전국	경사 3회, 조사 3회(1년 6회)	1년	30,000원	6회	15,000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교제비	전국	가장(1년 6회)	1년	15,000원	6회	7,500원		실태조사	07년 同
친목단체비	전국	배우자(1년 2회)	1년	10,000원	2회	1,667원		실태조사	07년 同
자녀	전국	용돈 (1월 1회, 2명)	1월	5,000원	2명	10,000원		실태조사	07년 同
친지방문비	전국	선물(1년 2회)	1년	10,000원	2회	1,667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부표 1-22〉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 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비소비지출					67,293원				
조세									
근로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 포함>	전국	최저임금기준 (면세점 이하)	1월	0원	1회	0원	세법	세법	세법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중소도시	1가구당 (세대주에게 부과)	1년	5,194원		433원	세법	지방자치단체	세법
재산세 (건물과 토지 합산) <지방교육세 포함>	도시	주택 비소유	1년	0원	2회	0원	세법	지방자치단체	세법
사회보장분담금									
국민연금	도시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4.5%	1월	38,610원	1회	38,610원	국민연금법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도시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2.665%+보험료의 6.55% 장기요양보험료	1월	24,390원	1회	24,390원	건강보험법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고용보험	도시	월간최저임금의 0.45%	1월	3,860원	1회	3,860원	고용보험법	최저임금	노동부

546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09)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20	38.56	**	0.05	21.32	**
곡물	-0.01	-0.70		0.09	3.82	**
멥쌀	-0.01	-1.17		0.02	0.97	
잡쌀	0.10	3.35	**	0.06	4.91	**
맥류	0.00	-0.08		0.00	-0.08	
두류	0.11	3.72	**	0.07	5.69	**
기타곡물	0.10	3.67	**	0.04	3.55	**
곡물가공품	0.10	12.31	**	0.03	2.85	**
밀가루	0.01	0.44		-0.01	-0.74	
국수류	0.13	11.62	**	0.09	4.79	**
라면류	0.01	0.94		-0.01	-0.49	
당면	0.03	2.86	**	0.03	2.21	*
두부	0.13	15.74	**	0.02	1.36	
기타곡물가공품	0.12	10.08	**	0.10	5.33	**
빵 및 떡류	0.23	22.63	**	0.13	9.91	**
케이크	0.07	4.13	**	0.14	7.96	**
식빵	0.08	7.12	**	0.02	1.07	
기타빵류	0.22	21.48	**	0.19	11.23	**
떡	0.11	7.76	**	0.06	3.17	**
육류	0.23	23.75	**	0.12	8.36	**
쇠고기	0.24	19.56	**	0.25	11.23	**
돼지고기	0.09	9.21	**	0.08	4.27	**
닭고기	0.05	5.30	**	-0.02	-1.14	
기타생육	0.09	3.38	**	0.01	1.15	
육류가공품	0.16	14.70	**	0.04	1.95	
소시지	0.16	10.85	**	-0.01	-0.76	
햄 및 베이컨	0.13	11.44	**	0.05	2.54	*
기타육류가공품	0.12	9.55	**	0.05	2.64	**
신선수산물	0.18	14.64	**	0.13	6.97	**
갈치	0.08	6.56	**	0.06	3.75	**

주: 1) 전체(도시근로자+자영자 포함) 4인가구 기준임.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2) 추정식은  $\ln(C_i) = b_0 + b_1 \ln(Y_i)$ 임. 여기서  $C_i$ : 해당품목 월간 지출액,  $Y_i$ : 경상소득)

3) \*: p-value<0.05, \*\*: p-value<0.01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뒀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명태	0.01	0.90		-0.03	-1.88	
조기	0.03	1.65		0.02	1.57	
고등어	0.05	4.28	**	0.04	2.16	*
꽁치	-0.04	-2.01	*	-0.03	-3.81	**
오징어	0.03	2.81	**	0.03	1.85	
가자미	0.01	0.52		0.01	1.32	
게	0.11	3.75	**	0.07	5.86	**
굴	0.06	2.80	**	0.02	2.19	*
조개류	0.15	7.58	**	0.08	5.01	**
기타 수산동물	0.14	8.81	**	0.18	8.80	**
염건수산동물	0.15	12.99	**	0.08	4.07	**
복어	0.10	5.00	**	0.04	3.37	**
굴비	0.17	3.90	**	0.04	4.25	**
마른멸치	0.12	8.71	**	0.01	0.79	
마른오징어	0.12	5.99	**	0.02	1.53	
간고등어	0.08	4.99	**	-0.01	-0.69	
기타염건수산동물	0.18	6.53	**	0.03	3.00	**
기타수산동물가공	0.09	9.29	**	0.05	3.03	**
어묵	0.06	6.57	**	0.03	1.88	
맛살	0.07	6.22	**	0.03	2.28	*
수산동물통조림	0.10	8.07	**	0.07	3.64	**
젓갈	0.12	3.95	**	0.00	-0.01	
기타수산동물가공품	0.12	5.58	**	0.04	3.32	**
유제품 및 알	0.16	17.44	**	0.04	4.80	**
우유	0.15	14.05	**	0.07	4.46	**
분유	-0.02	-0.43		-0.04	-4.56	**
치즈	0.06	4.15	**	0.07	4.87	**
요구르트	0.17	14.93	**	0.15	8.01	**
두유	0.02	0.79		-0.04	-2.60	**
기타우유가공품	0.03	0.60		0.00	0.46	
알 및 알가공품	0.08	11.49	**	0.05	3.12	**
유지류	0.09	7.49	**	0.06	3.23	**
참기름	0.06	3.25	**	0.02	1.68	
들기름	0.16	3.93	**	0.01	1.43	
기타식물성식용유	0.09	6.76	**	0.06	3.59	**
버터	0.03	1.28		-0.01	-1.77	
기타유지류	0.13	2.28	*	-0.01	-2.08	*
과일 및 과일가공품	0.31	31.50	**	0.17	13.07	**
사과	0.18	13.29	**	0.12	5.72	**
배	0.13	5.26	**	0.05	3.34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복숭아	0.21	9.11	**	0.05	3.34	**
포도	0.15	9.18	**	0.08	4.67	**
밤	0.08	3.89	**	0.04	4.04	**
감	0.15	6.19	**	0.07	4.80	**
감귤류	0.18	12.96	**	0.12	5.84	**
참외	0.15	9.18	**	0.09	5.26	**
수박	0.16	10.14	**	0.08	4.74	**
딸기	0.16	9.81	**	0.03	1.71	
바나나	0.04	4.44	**	0.12	6.67	**
기타과일	0.23	12.90	**	0.17	9.67	**
과일가공품	0.22	6.88	**	0.07	5.36	**
채소 및 채소가공품	0.12	13.14	**	0.03	3.65	**
배추	-0.04	-1.94		-0.02	-1.42	
상추	0.02	2.21	*	0.02	1.14	
시금치	0.04	3.90	**	0.01	0.52	
양배추	0.05	4.13	**	0.02	1.38	
미나리	0.06	2.72	**	0.02	1.83	
깻잎	0.02	1.85		0.03	1.82	
부추	0.04	3.54	**	-0.01	-0.73	
무	-0.01	-0.96		-0.02	-0.92	
당근	0.05	5.12	**	0.05	3.11	**
감자	0.03	2.86	**	-0.02	-1.36	
고구마	0.11	6.58	**	0.02	1.42	
도라지	0.05	2.30	*	0.01	1.34	
콩나물	0.07	9.28	**	0.03	1.75	
버섯	0.09	8.75	**	0.10	5.89	**
오이	0.02	1.55		0.02	1.09	
풋고추	0.04	3.92	**	-0.01	-0.74	
호박	0.06	6.29	**	0.04	2.55	*
가지	0.02	1.28		0.02	1.51	
토마토	0.16	9.93	**	0.14	7.84	**
파	0.03	3.03	**	0.01	0.63	
양파	0.07	7.12	**	0.01	0.70	
마늘	0.04	2.19	*	-0.01	-0.51	
기타채소	0.16	13.45	**	0.16	8.92	**
채소가공품	0.10	8.02	**	0.04	2.47	*
해조 및 해조가공품	0.10	9.46	**	0.07	3.64	**
김	0.10	9.95	**	0.05	2.77	**
미역	0.06	4.55	**	0.00	-0.15	
기타해조류	0.06	3.32	**	0.04	3.36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당류 및 과자류	0.15	16.23	**	0.06	6.34	**
설탕	0.09	3.97	**	-0.01	-0.87	
잼,꿀,조청	0.12	6.84	**	0.04	2.53	*
초콜릿	0.16	7.65	**	0.05	3.24	**
사탕 및 젤리	0.07	3.65	**	0.03	1.66	
한식과자	0.05	1.66		0.03	2.85	**
껌	0.22	11.44	**	0.05	3.90	**
아이스크림	0.15	13.04	**	0.04	1.91	
기타과자	0.12	12.70	**	0.03	2.37	*
조미식품	0.06	5.10	**	0.04	2.24	*
말린 고추	0.19	3.13	**	0.01	0.67	
참깨 및 들깨	0.09	2.55	*	0.00	0.28	
생강	0.04	1.60		0.03	3.32	**
소금	0.06	2.75	**	-0.01	-1.12	
간장	0.05	4.92	**	-0.03	-1.85	
된장	0.09	4.59	**	0.04	3.13	**
고추장	-0.02	-1.02		0.01	0.98	
카레	0.08	6.05	**	0.03	2.37	*
식초	0.10	3.77	**	0.03	3.36	**
케첩	0.05	3.97	**	0.03	2.69	**
드레싱	0.04	3.57	**	0.00	-0.45	
혼합조미료	0.04	3.00	**	-0.04	-3.55	**
기타조미식품	0.09	7.07	**	0.07	4.09	**
기타식품	0.20	17.17	**	0.14	7.05	**
죽 및 스프	0.25	6.91	**	0.04	3.97	**
이유식	0.35	2.34	*	-0.01	-2.49	*
김치	0.11	3.03	**	0.03	2.65	**
반찬류	0.21	11.02	**	0.11	6.39	**
즉석·동결식품	0.11	9.51	**	0.07	3.56	**
기타미분류식품	0.14	9.55	**	0.10	5.87	**
커피 및 차	0.15	10.69	**	0.08	3.94	**
커피	0.14	9.35	**	0.08	4.11	**
차	0.12	6.54	**	0.04	2.37	*
주스 및 기타음료	0.18	15.49	**	0.12	7.35	**
과일 및 야채주스	0.20	13.44	**	0.13	6.76	**
생수	0.10	4.23	**	0.06	4.20	**
기능성 음료	0.23	4.75	**	0.00	-0.19	
기타음료	0.10	8.23	**	0.04	2.04	*
02. 주류 및 담배	0.08	5.48	**	0.02	0.85	
주류	0.19	12.34	**	0.07	3.31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소주	0.06	2.95	**	-0.06	-3.25	**
과일주	0.28	7.82	**	0.02	2.06	*
맥주	0.11	5.88	**	0.12	6.51	**
탁주	0.07	2.56	*	0.01	1.38	
증류주	0.50	3.44	**	0.01	2.53	*
기타주류	0.11	2.88	**	0.03	3.67	**
담배	0.11	7.77	**	-0.07	-2.88	**
담배	0.11	7.77	**	-0.07	-2.88	**
03. 의류 및 신발	0.49	38.69	**	0.28	16.59	**
직물 및 외의	0.43	33.24	**	0.36	15.85	**
직물	-0.37	-1.63		0.00	0.04	
남성용 외의	0.40	15.76	**	0.21	10.33	**
여성용 외의	0.43	23.83	**	0.35	14.66	**
남학생 교복	0.12	2.90	**	0.01	1.41	
여학생 교복	0.16	1.93		0.01	1.23	
와이셔츠	0.38	8.15	**	0.03	3.75	**
남방셔츠	0.10	3.35	**	0.04	4.38	**
블라우스	0.27	5.93	**	0.06	7.02	**
티셔츠	0.23	14.72	**	0.19	9.00	**
스웨터 및 조끼	0.17	5.58	**	0.06	5.86	**
운동복	0.28	7.71	**	0.12	8.21	**
아동용외의	0.22	10.21	**	0.08	4.18	**
기타외의	0.14	0.90		0.01	2.33	*
내의	0.20	11.50	**	0.18	9.01	**
남자내의 및 잠옷	0.17	6.87	**	0.10	6.19	**
여자내의 및 잠옷	0.22	9.99	**	0.13	7.69	**
아동용 내의	0.15	3.90	**	0.02	1.92	
기타의복	0.27	16.75	**	0.19	9.18	**
양말 및 스타킹	0.17	11.06	**	0.11	6.24	**
모자	0.20	5.57	**	0.05	4.34	**
넥타이	0.43	5.24	**	0.01	2.28	*
실류	0.56	2.50	*	0.00	-0.23	
기타의복관련품	0.31	9.51	**	0.09	6.48	**
의복관련서비스	0.19	9.52	**	0.17	9.41	**
의복수선료	0.11	3.73	**	0.04	3.53	**
의복세탁료	0.16	7.95	**	0.15	9.17	**
기타의복관련서비스	-0.04	-0.29		0.00	0.63	
신발	0.27	14.55	**	0.18	8.07	**
아동화	0.12	4.38	**	0.02	1.37	
구두	0.33	11.39	**	0.11	7.00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운동화	0.15	7.00	**	0.07	4.39	**
기타신발	0.19	8.90	**	0.05	3.25	**
신발서비스	0.22	5.52	**	0.04	5.91	**
신발관련서비스	0.22	5.52	**	0.04	5.91	**
04. 주거 및 수도광열	0.14	20.61	**	0.06	11.81	**
실제주거비	0.25	12.58	**	0.06	11.81	**
월세	0.19	8.76	**	-0.16	-10.05	**
기타주거비	0.65	9.54	**	-0.16	-10.05	**
주택유지 및 수선	0.19	3.69	**	0.03	2.59	**
벽지	0.32	2.20	*	0.00	0.39	
바닥재	-0.07	-0.81		-0.01	-2.53	*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	0.16	3.36	**	0.00	0.04	
설비·수리서비스	0.00	-0.07		0.02	2.50	*
새놓는 주택수선	-1.46	-3.12	**	0.00	1.27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0.07	8.45	**	0.11	8.86	**
상하수도료	0.06	9.48	**	0.12	7.62	**
쓰레기처리	-0.03	-2.90	**	0.16	9.73	**
기타주거관련서비스	0.22	24.81	**	0.42	19.01	**
공동주택관리비	0.19	24.01	**	0.41	18.11	**
기타주거서비스	0.11	2.82	**	0.00	0.25	
연료비	0.10	16.21	**	0.08	12.37	**
전기료	0.11	19.95	**	0.10	12.34	**
도시가스	-0.14	-10.77	**	0.15	7.83	**
LPG연료	-0.04	-1.24		-0.03	-2.38	*
등유	0.18	3.84	**	-0.01	-1.49	
경유연료	0.34	1.17		0.00	0.13	
연탄	-0.13	-0.26		0.00	-0.37	
공동주택난방비	0.08	2.53	*	0.20	11.68	**
기타연료비	0.01	0.25		-0.01	-0.68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39	21.58	**	0.19	12.65	**
가구 및 조명	0.40	6.40	**	0.06	4.68	**
장롱	0.57	2.29	*	0.01	2.00	*
화장대	0.59	1.83		0.00	0.81	
침대	0.35	2.09	*	0.01	2.73	**
장식장	0.46	2.69	**	0.01	1.74	
소파	0.07	0.25		0.01	2.20	*
책상	0.03	0.20		0.01	2.06	*
의자	0.32	2.20	*	0.01	1.89	
식탁 및 식탁의자	1.09	3.49	**	0.00	0.62	
밥상	0.10	0.58		-0.01	-2.41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조명기구	0.14	1.46		0.01	1.51	
기타가구	0.34	5.07	**	0.02	2.91	**
중고가구	-3.08	-18.22	*	0.00	-0.25	
실내장식	0.16	3.48	**	0.04	3.99	**
카페트	0.31	3.10	**	0.01	1.83	
기타실내장식품	0.14	2.77	**	0.03	3.63	**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0.51	-1.93		0.00	0.27	
실내장식관련서비스	-0.51	-1.93		0.00	0.27	
가정용 섬유	0.19	5.49	**	0.07	4.97	**
침구류	0.27	6.43	**	0.05	4.59	**
수건	-0.04	-0.84		0.01	1.70	
커튼	0.46	2.78	**	0.01	1.40	
기타가정용 섬유	0.11	1.85		0.01	0.84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	-0.29	-0.88		0.00	1.30	
가전 및 가정용기기	0.11	2.88	**	0.07	5.02	**
전기밥솥	0.05	0.38		0.00	0.77	
가스·전자레인지	0.25	1.96		0.01	1.52	
일반냉장고	0.06	0.41		0.00	1.08	
감치냉장고	0.15	0.97		0.01	1.53	
정수기	0.03	0.63		0.00	0.29	
에어컨 및 선풍기	0.14	2.20	*	0.00	0.65	
난로 및 온풍기	-0.07	-0.48		0.00	0.54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0.05	0.29		0.01	1.89	
세탁기	0.18	1.40		0.00	0.77	
식기세척기	1.09	1.16		0.00	0.80	
진공청소기	0.35	2.73	**	0.02	2.83	**
전기다리미	0.20	1.78		0.00	1.64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0.05	0.62		0.03	3.62	**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1.31	-0.83		0.00	0.37	
가전관련서비스	0.07	4.73	**	0.18	9.27	**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0.07	4.73	**	0.18	9.27	**
가사용품	0.22	9.94	**	0.10	5.13	**
식기류	0.10	2.24	*	0.02	2.07	*
컵 및 다기	0.24	5.62	**	0.00	0.26	
술	0.23	1.24		0.00	1.05	
후라이팬	0.27	5.19	**	0.02	1.86	
냄비	0.24	3.47	**	0.01	1.45	
칼 및 수저류	0.14	2.63	**	0.01	0.97	
기타주방용품	0.18	6.74	**	0.06	4.06	**
가정용공구 및 기타	0.16	5.74	**	0.04	3.06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가정용 전동공구	-0.12	-0.28		0.00	1.60	
설비관련 기구	0.49	0.96		0.00	1.66	
건전지	0.15	5.58	**	0.02	1.84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0.09	2.23	*	0.02	1.98	*
가사소모품	0.07	3.64	**	0.08	4.65	**
세탁용 세제	0.03	2.91	**	0.01	0.66	
세탁·청소용구	0.12	6.80	**	0.05	3.04	**
전구	0.13	3.91	**	0.00	-0.55	
주방 및 청소용세제	0.04	3.38	**	0.02	1.29	
살충약품 및 용품	0.05	1.81		0.00	-0.36	
기타가사소모품	0.15	5.50	**	0.14	8.05	**
가사서비스	1.50	18.19	**	0.10	10.06	**
식품관련서비스	0.07	0.97		0.00	0.01	
가사사용인 급료	0.51	5.99	**	0.00	0.01	
기타가사서비스	0.60	1.25		0.00	-2.81	**
06. 보건	0.31	19.55	**	0.15	7.76	**
의약품	0.30	17.53	**	0.12	5.66	**
조제양약	0.07	4.17	**	0.01	0.43	
판매양약	0.12	6.12	**	0.05	3.03	**
한약 및 한약재	0.50	6.90	**	0.06	4.84	**
인삼	0.20	3.70	**	0.07	5.82	**
영양보조제	0.38	8.61	**	0.08	5.32	**
기타 의약품	-0.02	-0.95		0.03	1.59	
보건의료 소모품	-0.02	-0.95		0.03	1.59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0.26	6.17	**	0.08	5.68	**
안경 및 콘택트	0.23	6.21	**	0.06	5.22	**
기타보건의료기구	0.13	1.15		0.01	2.32	*
외래의료서비스	0.18	9.74	**	0.08	3.45	**
일반병의원외래비	0.16	8.75	**	0.06	2.83	**
한방병원외래비	0.29	5.65	**	0.04	3.59	**
치과서비스	0.53	8.94	**	0.07	4.82	**
치과외래비	0.53	8.94	**	0.07	4.82	**
기타의료서비스	0.26	0.95		0.00	1.20	
기타보건의료서비스	0.26	0.95		0.00	1.20	
입원서비스	0.29	3.71	**	0.00	0.29	
병원입원치료비	0.29	3.71	**	0.00	0.29	
07. 교통	0.41	48.98	**	0.15	21.49	**
자동차구입	0.24	1.14		0.02	3.47	**
신차구입	0.24	0.72		0.01	3.31	**
중고차 구입	-0.24	-1.14		0.00	1.39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기타운송기구구입	0.26	1.50		0.01	2.08	*
오토바이	-1.01	-2.29	*	0.00	0.15	
자전거 등	0.48	3.11	**	0.01	2.15	*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0.19	4.87	**	0.16	9.03	**
부품 및 관련용품	0.21	3.42	**	0.05	4.08	**
유지 및 수리비	0.07	1.60		0.14	8.61	**
운송기구 연료비	0.22	30.71	**	0.38	18.98	**
휘발유	0.19	20.64	**	0.35	13.39	**
경유	0.13	10.98	**	0.07	3.13	**
LPG	0.17	8.99	**	0.08	4.80	**
기타연료	1.20	4.66	**	0.00	1.93	
기타개인교통서비스	0.27	10.97	**	0.26	13.01	**
운전교습비	-0.19	-1.00		0.01	2.19	*
주차료	0.32	9.65	**	0.16	11.78	**
통행료	0.19	8.18	**	0.12	7.58	**
기타개인교통	0.37	6.80	**	0.07	6.69	**
철도운송	0.26	5.65	**	0.15	9.40	**
기차	0.21	3.89	**	0.05	5.06	**
지하철	0.30	5.26	**	0.11	8.18	**
육상운송	0.11	7.30	**	0.08	3.38	**
시내버스	0.09	4.50	**	0.02	1.16	
시외버스	0.00	-0.09		-0.04	-3.16	**
택시	0.19	11.16	**	0.11	5.30	**
기타운송	0.11	6.49	**	0.12	5.11	**
항공요금	-0.01	-0.05		0.02	3.65	**
교통카드 이용	0.08	4.57	**	0.11	4.81	**
기타여객서비스	0.14	1.21		0.00	0.10	
기타교통관련서비스	-0.09	-2.14	*	0.04	3.78	**
화물운송 및 보관	-0.09	-2.14	*	0.04	3.78	**
08. 통신	0.13	28.67	**	0.07	14.10	**
우편서비스	0.14	2.55	*	0.02	2.51	*
우편 서비스	0.14	2.55	*	0.02	2.51	*
통신장비	0.11	1.43		0.02	2.97	**
일반전화기기	0.21	1.31		0.00	0.84	
이동전화기기 등	0.10	1.08		0.02	2.92	**
통신서비스	0.13	28.68	**	0.07	13.64	**
일반전화요금	0.03	4.60	**	0.13	8.52	**
이동전화 요금	0.13	23.34	**	0.09	11.23	**
인터넷 이용료	0.01	4.60	**	0.15	10.89	**
기타통신관련비용	-0.11	-1.00		0.00	0.24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09. 오락·문화	0.43	35.47	**	0.14	21.70	**
영상음향기기	0.28	3.20	**	0.06	5.40	**
텔레비전	1.08	3.84	**	0.01	2.17	*
기타영상음향기기	0.20	2.64	**	0.05	5.02	**
사진광학장비	-0.29	-1.25		0.01	2.09	*
사진 및 광학장비	-0.29	-1.25		0.01	2.09	*
정보처리장치	0.13	2.12	*	0.04	3.27	**
정보처리기기	0.13	2.12	*	0.04	3.27	**
기록매체	0.26	3.36	**	0.00	0.73	
기록용 매체	0.26	3.36	**	0.00	0.73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0.20	3.30	**	0.01	1.64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0.20	3.30	**	0.01	1.64	
오락문화 내구재	-0.01	-0.02		0.01	2.11	*
오락 및 운동내구재	-0.01	-0.02		0.01	2.11	*
악기기구	0.42	3.56	**	0.00	0.42	
악기	0.42	3.56	**	0.00	0.42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0.20	0.69		0.00	1.04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	0.20	0.69		0.00	1.04	
장난감 및 취미용품	0.33	9.16	**	0.06	3.30	**
장난감	0.30	7.78	**	0.05	3.03	**
게임 및 취미용품	0.41	5.06	**	0.01	1.36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0.54	11.50	**	0.08	6.21	**
등산낚시사냥용품	0.48	5.12	**	0.03	4.00	**
운동용품	0.49	9.18	**	0.05	4.50	**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	0.59	4.68	**	0.01	1.36	
화훼관련용품	0.17	6.54	**	0.05	3.50	**
원예용품	0.17	6.54	**	0.05	3.50	**
애완동물관련물품	0.18	3.95	**	0.02	1.83	
애완동물관련품	0.18	3.95	**	0.02	1.83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0.10	1.00		0.02	3.42	**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0.10	1.00		0.02	3.42	**
운동 및 오락서비스	0.55	22.20	**	0.27	12.85	**
운동시설이용	0.64	14.72	**	0.15	11.66	**
노래방 이용	0.37	7.98	**	0.06	5.91	**
P C방 이용	0.12	3.54	**	0.02	1.92	
기타오락시설이용	0.30	7.47	**	0.07	5.16	**
운동경기관람	0.21	1.27		0.01	2.66	**
오락용품대여	0.39	5.72	**	0.03	3.84	**
문화서비스	0.16	14.52	**	0.09	12.96	**
공연 및 극장	0.17	11.28	**	0.13	7.29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관람시설이용	0.16	2.85	**	0.04	4.72	**
독서실 이용	0.34	4.46	**	0.03	3.70	**
문화강습	0.10	3.64	**	0.01	1.08	
컨텐츠	0.02	0.58		0.05	4.41	**
방송수신료	-0.01	-1.46		0.06	8.89	**
기타문화서비스	0.09	2.53	*	0.01	0.77	
복권	0.12	2.70	**	0.00	0.41	
복권구입	0.12	2.70	**	0.00	0.41	
서적	0.24	16.81	**	0.23	9.78	**
유아용학습교재	0.33	4.71	**	0.01	1.25	
초등학생학습교재	0.23	8.69	**	0.06	3.86	**
중고생 교재	-0.15	-1.83		0.02	2.75	**
중고생 참고서	0.14	8.87	**	0.07	4.21	**
기타서적	0.21	9.19	**	0.22	10.54	**
기타인쇄물	0.01	0.95		0.24	13.89	**
신문	0.00	0.19		0.21	13.02	**
잡지	0.02	0.15		0.02	4.90	**
기타 인쇄물	-0.06	-0.31		0.01	2.96	**
문구	0.13	7.97	**	0.04	2.19	*
종이문구류	0.13	6.47	**	0.02	0.97	
필기 및 미술용품	0.17	7.50	**	0.02	1.36	
기타문구류	0.11	5.07	**	0.04	2.23	*
단체여행비	0.61	9.35	**	0.06	5.28	**
국내단체여행비	0.27	4.81	**	0.04	4.17	**
국외여행비	1.31	5.47	**	0.02	4.19	**
10. 교육	0.36	31.01	**	0.19	7.33	**
정규교육	0.09	3.29	**	0.06	2.64	**
초등교육	0.21	6.71	**	0.03	1.62	
유치원	0.19	6.11	**	0.02	1.45	
초등학교	4.64	5.98	**	0.00	1.92	
중등교육	0.02	0.75		0.02	1.35	
중학교	0.01	0.79		0.03	2.61	**
고등학교	0.02	1.13		0.01	0.62	
고등교육	-0.01	-0.12		0.01	0.78	
전문대학	-0.05	-0.58		0.00	0.29	
국공립대학	0.18	1.19		0.00	0.01	
사립대학	-0.03	-0.65		0.01	0.96	
대학원	0.20	0.66		0.00	1.79	
학원 및 보습교육	0.37	32.18	**	0.27	9.85	**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0.39	33.67	**	0.26	9.54	**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임시 및 보습	0.24	20.56	**	0.27	9.70	**
음악학원	0.10	8.52	**	0.09	4.80	**
미술학원	0.12	3.99	**	0.05	4.21	**
운동학원	0.04	2.67	**	0.13	7.12	**
직업준비학원	0.12	2.07	*	0.01	1.18	
방문학습지	0.09	5.40	**	0.20	8.75	**
체험교육	0.30	4.59	**	0.01	1.34	
기타학원교육비	0.55	10.15	**	0.05	4.97	**
개인과외비	0.13	4.14	**	0.17	11.36	**
성인학원교육	0.05	1.31		0.05	4.22	**
성인직업학원	0.04	0.70		-0.01	-1.81	
외국어학원	0.14	2.78	**	0.02	2.90	**
운동 및 교양교육	0.17	3.51	**	0.05	5.99	**
기타교육	0.10	4.90	**	0.04	2.30	*
학교보충교육비	0.04	2.22	*	0.05	2.91	**
평생교육원	-0.13	-0.34		0.01	2.15	*
국내교육연수	0.16	3.37	**	0.00	-0.09	
국외연수비	0.37	0.28		0.00	1.37	
11. 음식·숙박	0.46	64.07	**	0.17	30.26	**
식사비	0.45	63.99	**	0.17	30.22	**
일반식당	0.48	51.01	**	0.28	25.96	**
배달음식	0.09	9.12	**	0.14	6.38	**
이동식 음식점	0.09	6.37	**	0.00	-0.01	
단체제공식	0.12	14.20	**	0.32	13.00	**
패스트푸드	0.09	6.01	**	0.13	6.81	**
주점·커피숍	0.23	15.72	**	0.43	17.58	**
숙박비	0.05	0.91		0.04	4.69	**
호텔, 여관, 콘도	0.15	2.26	*	0.03	3.96	**
기타숙박시설	0.03	0.32		0.01	2.83	**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43	48.00	**	0.15	24.90	**
이미용서비스	0.25	24.60	**	0.22	11.42	**
목욕료	0.20	14.97	**	0.13	6.28	**
이미용료	0.20	20.27	**	0.25	12.03	**
기타이미용서비스	0.40	3.93	**	0.04	6.38	**
이미용 기기	0.26	3.49	**	0.00	-0.22	
이미용기기	0.26	3.49	**	0.00	-0.22	
위생 및 이미용용품	0.29	22.73	**	0.16	8.65	**
칫솔	0.13	8.85	**	-0.04	-2.59	**
치약	0.11	7.45	**	0.02	1.37	
세면비누	0.15	5.04	**	0.00	-0.07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삼푸 및 린스	0.10	6.55	**	0.05	2.94	**
화장지	0.07	5.85	**	0.01	0.61	
화장품	0.27	15.45	**	0.28	12.10	**
기타미용용품	0.16	6.36	**	0.06	4.17	**
시계 및 장신구	0.43	10.62	**	0.11	7.77	**
손목시계	0.62	4.98	**	0.02	3.43	**
장식용시계	-0.01	-0.14		0.01	2.87	**
장신구	0.44	10.11	**	0.08	6.46	**
기타개인용품	0.40	12.36	**	0.13	6.87	**
가방	0.27	6.90	**	0.09	6.18	**
종교용품	0.29	1.46		0.00	1.37	
혼례 및 장례용품	-0.40	-0.43		0.00	1.24	
기타 개인용품	0.30	8.43	**	0.06	4.35	**
개인용품서비스	0.22	1.60		0.00	0.35	
사회복지	0.18	8.90	**	-0.01	-0.33	
산후조리원	-1.01	-1.05		0.00	0.40	
보육료	0.17	8.42	**	-0.01	-0.36	
기타사회복지	0.52	3.12	**	0.00	0.12	
보험	0.38	27.92	**	0.42	28.50	**
생명보험	0.26	29.68	**	0.46	27.56	**
화재보험	0.00	-0.27		0.16	13.42	**
연금보험	0.33	12.63	**	0.29	18.22	**
운송관련보험 등	0.01	0.43		0.12	7.73	**
기타금융	0.28	4.72	**	0.05	5.62	**
금융수수료	0.28	4.72	**	0.05	5.62	**
기타서비스	0.37	6.78	**	0.07	4.15	**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	-0.22	-0.65		0.00	0.70	
기타부동산 수수료	0.13	0.49		0.00	1.67	
일반수수료	0.47	5.74	**	0.03	3.79	**
응시료	0.18	3.98	**	0.01	0.54	
혼례 및 장례례비	0.56	2.06	*	0.01	1.29	
기타 서비스	0.21	2.34	*	0.02	3.00	**
유흥비	1.18	2.84	*	0.02	3.00	**
13. 비소비지출	0.76	95.11	**	0.26	38.84	**
경상조세	1.05	55.96	**	0.95	40.07	**
경상소득세	2.00	84.69	**	1.07	44.87	**
사업소득세	-0.23	-0.97		0.01	2.77	**
경상재산세	0.20	7.90	**	0.10	6.64	**
자동차세	0.29	13.92	**	0.11	6.46	**
기타경상세금	0.01	0.77		0.00	-0.11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계속)

품목	지출액이 0인 경우 제거			지출액인 0인 경우 1로 둠		
	탄력치( $b_1$ )	t값	p-value	탄력치( $b_1$ )	t값	p-value
비경상조세	0.05	1.13		0.00	-0.11	
비경상소득세	-1.69	-1.85		0.00	-0.33	
비경상재산세	14.17	1.20		0.00	1.09	
부동산취득 관련세	0.19	0.48		0.00	1.44	
과징금	0.03	1.47		0.01	0.70	
기타비경상세금	0.72	2.38	*	0.01	2.93	**
연금	0.54	78.80	**	0.91	42.24	**
국민연금 기여금	0.42	59.16	**	0.71	30.46	**
기타연금 기여금	0.76	21.13	**	0.33	20.20	**
사회보장	0.44	69.32	**	0.36	27.45	**
건강보험료	0.42	64.41	**	0.35	26.78	**
기타사회보험료	0.68	62.91	**	0.63	30.68	**
이자비용	0.27	12.16	**	0.17	6.98	**
주택대출이자	0.27	10.61	**	0.15	7.15	**
기타이자	0.14	4.17	**	0.06	2.87	**
가구간 이전지출	0.53	38.76	**	0.47	19.51	**
교제비	0.40	24.02	**	0.31	11.99	**
경조비	0.19	13.66	**	0.38	15.54	**
국내학생가구 송금	0.13	2.58	*	0.00	-0.25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1.27	2.09		0.01	2.57	*
기타송금(국내)	0.33	12.65	**	0.30	15.85	**
기타송금(국외)	1.02	2.60	*	0.00	1.75	
비영리단체로 이전	0.43	27.57	**	0.52	23.46	**
종교기부금	0.52	15.71	**	0.10	4.79	**
회비 및 기타기부금	0.40	26.02	**	0.57	25.05	**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09)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351,859	327,577	293,795	95.42	**	*	*	*
곡물	23,250	20,539	15,981	32.85	**	*	*	*
멥쌀	18,644	16,698	12,966	22.63	**	*	*	*
찰쌀	1,357	1,247	905	5.91	**		*	*
맥류	512	307	244	13.14	**	*	*	
두류	1,729	1,251	992	13.81	**	*	*	*
기타곡물	1,007	1,036	875	1.34				
곡물가공품	18,774	17,568	15,427	42.82	**	*	*	*
밀가루	442	407	363	3.38	*		*	
국수류	2,387	1,993	1,510	42.15	**	*	*	*
라면류	6,605	6,932	6,873	3.58	*	*		
당면	428	494	378	4.59	*			*
두부	4,066	3,551	2,705	111.76	**	*	*	*
기타곡물가공품	4,846	4,190	3,599	18.64	**	*	*	*
빵 및 떡류	24,908	21,610	16,980	81.41	**	*	*	*
케이크	4,421	3,656	3,110	14.08	**	*	*	
식빵	1,569	1,498	1,082	28.86	**		*	*
기타빵류	13,741	12,018	9,486	69.84	**	*	*	*
떡	5,177	4,436	3,301	14.47	**		*	*
육류	53,720	47,426	43,858	33.54	**	*	*	*
쇠고기	26,421	20,500	16,903	57.01	**	*	*	*
돼지고기	21,337	21,505	22,097	1.54				
닭고기	5,270	4,517	4,097	19.76	**	*	*	*
기타생육	692	904	762	6.99	**	*		*
육류가공품	10,919	10,537	10,019	1.84				
소시지	1,508	1,326	1,301	4.62	**	*		
햄 및 베이컨	3,866	3,381	3,150	10.52	**	*	*	
기타육류가공품	5,545	5,830	5,568	0.47				
신선수산물	21,057	20,413	18,876	13.01	**		*	*
갈치	2,731	2,483	2,237	6.75	**		*	*

주: 1) 전체(도시근로자+자영자 포함) 4인가구 기준임.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임.

2) 다중비교검정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함.

3) \*: p-value<0.05, \*\*: p-value<0.01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자료: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명태	1,214	1,191	1,088	1.22				
조기	1,496	1,831	1,644	10.33	**	*		*
고등어	1,511	1,459	1,427	4.42	*			*
꽂치	164	165	107	5.74	**		*	*
오징어	1,342	1,452	1,344	3.24	*			
가자미	266	336	208	5.58	**			*
게	2,093	1,734	1,809	0.56				
굴	782	688	779	0.46				
조개류	1,985	2,375	1,788	10.31	**	*		*
기타 수산동물	7,472	6,699	6,443	4.53	*		*	*
염건수산동물	7,025	6,533	6,266	1.41				
복어	916	755	643	7.21	**	*	*	
굴비	1,567	810	693	11.60	**	*	*	
마른멸치	1,779	1,921	1,551	3.71	*			*
마른오징어	1,016	1,207	1,287	2.88				
간고등어	1,126	1,023	1,063	1.32				
기타염건수산동물	620	817	1,029	8.84	**	*	*	
기타수산동물가공	7,341	7,188	6,770	1.31				
어묵	2,086	2,338	2,130	8.40	**	*		*
맛살	499	608	590	5.46	**	*	*	
수산동물통조림	2,543	2,427	2,374	1.01				
젓갈	1,155	1,031	1,009	0.41				
기타수산동물가공품	1,058	783	666	2.49				
유제품 및 알	35,773	34,905	34,173	3.39	*			
우유	17,706	17,419	17,099	3.57	*			*
분유	1,425	2,363	3,381	10.23	**	*	*	*
치즈	1,732	1,269	1,127	33.55	**	*	*	
요구르트	6,307	5,786	4,881	15.99	**		*	*
두유	1,594	1,606	2,001	7.09	**		*	*
기타우유가공품	97	50	28	13.51	**	*	*	
알 및 알가공품	6,911	6,413	5,657	38.12	**	*	*	*
유지류	3,420	3,092	2,683	5.01	**		*	
참기름	1,109	1,025	787	5.83	**		*	*
들기름	234	231	245	1.51				
기타식물성식용유	1,774	1,672	1,571	0.48				
버터	260	138	62	29.20	**	*	*	*
기타유지류	43	26	18	1.99				
과일 및 과일가공품	44,072	37,970	33,670	51.78	**	*	*	*
사과	8,657	6,283	5,745	28.01	**	*	*	
배	2,405	2,249	2,099	1.31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복숭아	2,458	2,127	1,716	5.22	**		*	
포도	3,579	3,612	3,105	4.36	*			*
밤	430	365	271	3.53	*		*	
감	1,571	1,235	1,067	6.03	**	*	*	
감귤류	6,068	5,948	5,475	3.95	*			*
참외	3,022	2,313	2,252	14.23	**	*	*	
수박	4,412	3,822	3,460	10.75	**	*	*	*
딸기	3,468	3,554	3,297	1.03				
바나나	2,128	1,855	1,663	15.74	**	*	*	*
기타과일	4,684	3,371	2,603	24.67	**	*	*	*
과일가공품	1,191	1,237	918	1.23				
채소 및 채소가공품	34,859	30,650	25,285	95.97	**	*	*	*
배추	1,993	1,670	1,481	4.21	*		*	
상추	1,354	1,167	919	35.92	**	*	*	*
시금치	1,010	894	710	28.26	**	*	*	*
양배추	361	312	218	21.88	**	*	*	*
미나리	324	261	308	2.55				
깻잎	479	499	359	15.45	**		*	*
부추	385	407	361	3.59	*			*
무	1,777	1,396	1,197	30.50	**	*	*	*
당근	684	654	610	2.99				
감자	1,833	1,647	1,236	28.72	**	*	*	*
고구마	1,945	1,486	1,014	17.40	**	*	*	*
도라지	314	304	309	0.32				
콩나물	1,494	1,463	1,262	12.57	**		*	*
버섯	2,599	2,085	2,097	8.00	**	*	*	
오이	1,606	1,447	1,161	24.44	**	*	*	*
꽃고추	1,550	1,436	1,209	5.42	**		*	*
호박	1,338	1,129	787	57.04	**	*	*	*
가지	325	262	198	22.57	**	*	*	*
토마토	2,628	2,376	1,705	24.44	**	*	*	*
파	1,669	1,460	1,352	13.19	**	*	*	
양파	2,109	1,723	1,486	45.51	**	*	*	*
마늘	1,424	1,509	1,333	1.62				
기타채소	3,602	3,166	2,462	27.56	**	*	*	*
채소가공품	2,056	1,897	1,512	4.10	*		*	
해조 및 해조가공품	4,454	4,453	4,119	2.48				
김	3,273	3,262	3,078	0.56				
미역	711	738	634	3.56	*			*
기타해조류	470	452	407	3.03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당류 및 과자류	23,818	25,883	25,776	10.65	**	*	*	
설탕	747	789	782	1.03				
잼,꿀,조청	1,470	1,722	1,437	1.36				
초콜릿	1,261	1,175	1,117	0.92				
사탕 및 젤리	804	944	970	4.53	*		*	
한식과자	680	809	886	1.68				
껌	502	548	583	4.27	*		*	*
아이스크림	6,371	6,555	6,720	3.40	*			
기타과자	11,983	13,340	13,281	16.76	**	*	*	
조미식품	10,203	10,069	9,267	0.76				
말린 고추	2,312	2,638	2,404	0.27				
참깨 및 들깨	520	609	623	0.78				
생강	251	208	240	2.63				
소금	429	463	416	0.53				
간장	1,171	1,146	1,054	0.87				
된장	1,022	935	764	3.10	*		*	
고추장	1,127	1,058	965	1.32				
카레	645	588	450	8.79	**		*	*
식초	214	171	146	3.22	*		*	
케첩	313	295	291	0.96				
드레싱	439	324	266	20.81	**	*	*	
혼합조미료	581	576	754	16.13	**		*	*
기타조미식품	1,181	1,058	893	13.99	**	*	*	
기타식품	10,371	10,210	8,119	25.25	**		*	*
죽 및 스프	429	320	360	3.40	*			
이유식	189	158	159	0.12				
김치	2,289	1,448	1,098	19.22	**	*	*	*
반찬류	2,409	2,808	1,838	21.93	**	*	*	*
즉석·동결식품	3,376	3,281	2,938	5.40	**		*	*
기타미분류식품	1,678	2,196	1,726	10.64	**	*		*
커피 및 차	6,233	7,121	6,180	12.36	**	*		*
커피	4,622	5,434	4,732	14.27	**	*		*
차	1,611	1,687	1,448	1.06				
주스 및 기타음료	11,663	11,412	10,347	6.39	**		*	*
과일 및 야채주스	4,865	4,716	3,981	4.75	**		*	*
생수	1,120	833	648	11.98	**	*	*	
기능성 음료	678	547	596	0.81				
기타음료	5,000	5,315	5,122	7.03	**	*		*
02. 주류 및 담배	24,657	26,863	30,716	26.19	**	*	*	*
주류	8,442	8,422	9,197	4.45	*		*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소주	1,900	2,157	2,759	17.64	**	*	*	*
과일주	699	640	479	1.61				
맥주	4,346	4,300	4,665	3.11	*			
탁주	804	469	364	22.43	**	*	*	
증류주	311	437	410	0.47				
기타주류	383	419	520	0.72				
담배	16,215	18,441	21,519	23.31	**	*	*	*
담배	16,215	18,441	21,519	23.31	**	*	*	*
03. 의류 및 신발	164,478	152,927	142,265	11.43	**		*	*
직물 및 외의	121,148	111,078	101,996	10.64	**		*	*
직물	108	162	82	0.20				
남성용 외의	27,892	22,394	22,049	7.34	**	*	*	
여성용 외의	46,863	38,259	33,448	15.47	**	*	*	*
남학생 교복	3,346	3,164	1,881	5.36	**		*	*
여학생 교복	2,796	3,065	2,190	0.98				
와이셔츠	2,011	1,701	859	9.22	**		*	*
남방셔츠	1,755	1,871	1,279	5.68	**			*
블라우스	1,171	1,540	1,106	4.69	**			*
티셔츠	11,667	14,161	12,068	17.92	**	*		*
스웨터 및 조끼	2,239	2,949	1,802	7.01	**			*
운동복	7,014	7,538	6,758	1.64				
아동용외의	13,661	13,838	18,034	18.48	**		*	*
기타외의	625	435	439	0.66				
내의	8,464	9,067	9,615	3.01	*			
남자내의 및 잠옷	3,445	3,300	3,421	0.06				
여자내의 및 잠옷	4,209	4,731	4,936	1.96				
아동용 내의	811	1,036	1,259	4.54	*		*	
기타의복	7,302	7,131	6,327	5.39	**		*	*
양말 및 스타킹	2,785	3,154	2,837	5.25	**	*		
모자	962	1,115	1,184	0.98				
넥타이	707	513	507	2.92				
실류	70	184	182	2.19				
기타의복관련품	2,777	2,165	1,618	12.85	**	*	*	*
의복관련서비스	5,148	4,301	2,805	30.02	**	*	*	*
의복수선료	925	733	446	15.55	**	*	*	*
의복세탁료	3,996	3,226	1,888	38.21	**	*	*	*
기타의복관련서비스	227	342	471	1.11				
신발	22,160	21,024	21,335	0.77				
아동화	2,431	2,771	3,623	9.79	**	*	*	*
구두	9,952	8,382	7,600	6.38	**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운동화	6,827	6,730	7,009	0.08				
기타신발	2,951	3,141	3,103	1.51				
신발서비스	256	326	186	6.52	**			*
신발관련서비스	256	326	186	6.52	**			*
04. 주거 및 수도광열	231,255	219,933	203,577	4.60	*		*	
실제주거비	45,203	34,749	32,202	4.66	**		*	
월세	43,997	23,132	18,588	48.44	**	*	*	*
기타주거비	1,207	11,617	13,614	33.79	**	*	*	
주택유지 및 수선	10,436	15,243	20,113	1.80				
벽지	115	302	440	3.02	*			
바닥재	23	181	156	1.35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	747	1,119	1,121	1.61				
설비·수리서비스	9,330	12,698	16,865	1.32				
세놓는 주택수선	221	943	1,530	1.10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20,323	25,299	15,242	419.00	**	*	*	*
상하수도료	18,642	23,335	13,697	398.19	**	*	*	*
쓰레기처리	1,681	1,964	1,545	33.85	**	*		*
기타주거관련서비스	40,096	41,896	26,728	108.01	**		*	*
공동주택관리비	38,510	41,458	25,818	120.29	**		*	*
기타주거서비스	1,586	438	910	7.55	**	*	*	
연료비	115,196	102,747	109,292	35.31	**	*	*	*
전기료	51,500	46,184	51,161	44.30	**	*		*
도시가스	53,232	41,132	24,213	272.61	**	*	*	*
L P G연료	295	2,096	12,918	472.74	**	*	*	*
등유	238	2,590	17,736	173.36	**	*	*	*
경유연료	0	226	733	3.99	*		*	
연탄	1	155	1,479	15.07	**		*	*
공동주택난방비	9,698	10,118	589	148.13	**	*	*	*
기타연료비	233	248	463	3.37	*			*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81,117	83,346	72,964	1.19				
가구 및 조명	12,850	13,324	13,153	0.06				
장롱	2,553	2,852	1,437	0.38				
화장대	398	268	104	0.31				
침대	3,384	3,015	2,720	0.17				
장식장	520	1,267	1,175	1.58				
소파	2,944	1,949	2,150	0.51				
책상	768	1,051	1,859	1.73				
의자	434	428	384	0.00				
식탁 및 식탁의자	243	640	778	0.77				
밥상	140	203	175	0.19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조명기구	266	343	386	0.41	*	*		
기타가구	1,198	1,306	1,985	1.07				
중고가구	1	3	0	0.23				
실내장식	2,455	1,185	1,800	4.55				
카페트	862	496	806	1.94				
기타실내장식품	1,593	689	994	2.96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118	134	353	1.12				
실내장식관련서비스	118	134	353	1.12				
가정용 섬유	7,419	6,068	6,630	0.37				
침구류	5,261	4,394	4,316	0.21				
수건	277	307	475	1.02				
커튼	1,219	795	1,294	0.47				
기타가정용 섬유	636	547	483	1.33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	26	25	62	0.76				
가전 및 가정용기기	18,062	21,433	20,553	0.97				
전기밥솥	1,563	1,445	1,313	0.46				
가스·전자레인지	871	1,391	1,281	0.57				
일반냉장고	4,222	5,421	2,127	1.52				
김치냉장고	3,152	3,249	4,116	0.12				
정수기	452	716	1,184	1.37				
에어컨 및 선풍기	932	2,555	3,133	2.14				
난로 및 온풍기	188	178	202	0.16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1,271	627	490	2.04				
세탁기	1,622	2,238	3,200	2.77				
식기세척기	0	56	2	0.80				
진공청소기	1,107	1,208	1,326	0.45				
전기다리미	254	154	168	0.86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2,430	2,105	1,970	0.44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0	89	41	0.36				
가전관련서비스	8,562	8,600	8,076	0.45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8,562	8,600	8,076	0.45				
가사용품	7,338	7,022	6,039	1.35				
식기류	1,782	1,610	1,344	0.27				
컵 및 다기	653	441	355	1.66				
술	276	432	282	0.28				
후라이팬	948	970	843	0.61				
냄비	1,213	1,133	738	0.93				
칼 및 수저류	366	359	325	0.80				
기타주방용품	2,100	2,076	2,154	0.03				
가정용공구 및 기타	1,751	2,385	1,919	1.45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가정용 전동공구	178	354	406	0.51				
설비관련 기구	350	639	376	1.20				
건전지	494	509	535	0.05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730	883	602	0.89				
가사소모품	11,164	11,232	11,900	2.83				
세탁용 세제	5,016	4,922	5,689	7.90	**		*	*
세탁·청소용구	1,110	1,143	1,207	0.16				
전구	457	455	365	1.49				
주방 및 청소용세제	1,082	1,079	1,054	0.19				
살충약품 및 용품	654	628	656	0.22				
기타가사소모품	2,845	3,004	2,929	0.47				
가사서비스	11,397	11,963	2,541	12.46	**		*	*
식품관련서비스	125	295	424	6.28	**	*	*	
가사사용인 급료	11,223	11,640	1,906	13.71	**		*	*
기타가사서비스	50	28	211	1.69				
06. 보건	150,460	135,074	121,710	4.97	**	*	*	
의약품	42,267	36,417	29,335	14.19	**	*	*	*
조제양약	8,695	8,702	8,510	0.05				
판매양약	3,556	3,815	3,368	0.53				
한약 및 한약재	14,394	9,869	7,026	12.84	**	*	*	*
인삼	7,275	5,327	3,847	6.80	**	*	*	
영양보조제	8,346	8,704	6,584	1.30				
기타 의약품	6,975	7,127	8,346	4.71	**		*	*
보건의료 소모품	6,975	7,127	8,346	4.71	**		*	*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6,807	6,713	6,598	0.09				
안경 및 콘택트	6,225	5,437	4,983	1.34				
기타보건의료기구	582	1,276	1,615	1.03				
외래의료서비스	40,030	35,869	32,430	3.94	*		*	
일반병의원외래비	38,021	34,025	31,402	3.38	*		*	
한방병원외래비	2,009	1,844	1,028	1.82				
치과서비스	28,896	29,424	23,119	0.53				
치과외래비	28,896	29,424	23,119	0.53				
기타의료서비스	1,498	804	136	3.73	*		*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498	804	136	3.73	*		*	
입원서비스	23,988	18,721	21,745	1.16				
병원입원치료비	23,988	18,721	21,745	1.16				
07. 교통	297,365	303,219	298,002	0.85				
자동차구입	83,867	75,445	84,029	0.26				
신차구입	74,819	60,552	74,511	0.10				
중고차 구입	9,047	14,893	9,517	1.29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보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기타운송기구구입	1,515	1,648	1,558	0.15				
오토바이	533	758	593	0.09				
자전거 등	982	890	964	0.23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10,407	17,848	22,855	24.27	**	*	*	*
부품 및 관련용품	2,195	4,657	5,583	8.23	**	*	*	
유지 및 수리비	8,212	13,191	17,272	17.36	**	*	*	*
운송기구 연료비	110,798	141,030	148,267	130.77	**	*	*	*
휘발유	78,879	81,976	81,487	1.45				
경유	21,775	40,331	50,460	111.00	**	*	*	*
LPG	10,142	18,509	16,211	47.11	**	*	*	*
기타연료	3	213	109	3.26	*			
기타개인교통서비스	11,058	12,799	8,824	4.40	*			*
운전교습비	1,802	2,280	2,719	0.56				
주차료	2,121	1,602	702	35.68	**	*	*	*
통행료	3,492	3,987	3,502	1.86				
기타개인교통	3,643	4,930	1,900	5.24	**			*
철도운송	11,537	4,822	1,859	183.25	**	*	*	*
기차	3,761	2,532	1,454	12.91	**	*	*	*
지하철	7,776	2,290	405	491.03	**	*	*	*
육상운송	21,333	24,876	17,363	84.43	**	*	*	*
시내버스	11,415	14,249	10,558	40.59	**	*		*
시외버스	2,304	3,297	3,539	8.17	**	*	*	
택시	7,614	7,330	3,266	88.37	**		*	*
기타운송	44,113	22,187	10,762	151.33	**	*	*	*
항공요금	7,931	3,914	4,072	3.74	*	*		
교통카드 이용	36,018	17,958	6,234	871.97	**	*	*	*
기타여객서비스	164	314	457	2.19				
기타교통관련서비스	2,737	2,565	2,486	0.07				
화물운송 및 보관	2,737	2,565	2,486	0.07				
08. 통신	153,492	153,202	151,466	2.31				
우편서비스	318	135	123	14.55	**	*	*	
우편 서비스	318	135	123	14.55	**	*	*	
통신장비	2,727	2,049	2,840	2.55				
일반전화기기	350	333	182	0.89				
이동전화기기 등	2,377	1,716	2,657	2.96				
통신서비스	150,447	151,018	148,504	3.10	*			
일반전화요금	16,547	15,351	17,130	4.71	**			*
이동전화 요금	109,963	111,711	107,394	5.84	**		*	*
인터넷 이용료	23,645	23,615	23,675	1.29				
기타통신관련비용	291	341	305	0.43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09. 오락 문화	154,493	136,306	123,939	12.87	**	*	*	*
영상음향기기	11,172	9,568	9,170	0.43				
텔레비전	7,083	6,208	6,966	0.04				
기타영상음향기기	4,090	3,359	2,203	2.50				
사진광학장비	1,433	3,656	1,767	2.09				
사진 및 광학장비	1,433	3,656	1,767	2.09				
정보처리장치	13,469	11,294	12,314	1.15				
정보처리기기	13,469	11,294	12,314	1.15				
기록매체	363	295	243	0.49				
기록용 매체	363	295	243	0.49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1,096	1,381	1,355	0.87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1,096	1,381	1,355	0.87				
오락문화 내구재	255	221	41	1.67				
오락 및 운동내구재	255	221	41	1.67				
악기기구	1,514	1,164	3,792	3.83	*			*
악기	1,514	1,164	3,792	3.83	*			*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168	109	120	0.53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	168	109	120	0.53				
장난감 및 취미용품	5,880	5,258	6,028	3.23	*			*
장난감	4,663	4,551	5,291	1.77				
게임 및 취미용품	1,217	707	737	4.67	**	*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4,809	5,317	4,569	0.71				
등산낚시사냥용품	1,540	1,951	1,916	0.66				
운동용품	2,879	3,033	2,455	0.33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	390	332	198	1.03				
화훼관련용품	2,463	2,433	3,604	5.09	**		*	*
원예용품	2,463	2,433	3,604	5.09	**		*	*
애완동물관련용품	1,886	1,441	1,451	4.48	*	*		
애완동물관련품	1,886	1,441	1,451	4.48	*	*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2,095	476	246	54.56	**	*	*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2,095	476	246	54.56	**	*	*	
운동 및 오락서비스	20,189	15,499	11,850	20.26	**	*	*	*
운동시설이용	12,716	8,339	5,766	17.98	**	*	*	
노래방 이용	1,263	1,598	1,482	2.94				
P C방 이용	547	713	873	2.58				
기타오락시설이용	4,694	4,018	3,228	4.57	*	*	*	
운동경기관람	151	126	70	2.18				
오락용품대여	817	707	431	2.50				
문화서비스	27,631	25,106	21,958	12.47	**	*	*	*
공연 및 극장	5,140	4,872	2,825	37.07	**	*	*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보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관람시설이용	1,224	967	679	5.19	**		*	
독서실 이용	3,006	2,458	965	17.05	**	*	*	*
문화강습	3,018	2,646	1,770	4.97	**		*	
컨텐츠	1,542	1,789	2,408	6.11	**		*	*
방송수신료	10,049	8,450	9,190	73.96	**	*	*	*
기타문화서비스	3,652	3,924	4,121	0.70				
복권	300	249	177	3.80	*			*
복권구입	300	249	177	3.80	*			*
서적	33,104	33,180	27,980	7.49	**		*	*
유아용학습교재	4,141	4,427	3,898	0.16				
초등학생학습교재	3,478	5,067	5,371	7.23	**	*	*	
중고생 교재	524	686	341	7.25	**			*
중고생 참고서	7,579	8,831	4,522	44.88	**		*	*
기타서적	17,382	14,169	13,849	5.39	**	*	*	
기타인쇄물	4,743	3,379	2,418	44.14	**	*	*	*
신문	3,984	2,945	1,641	79.52	**	*	*	*
잡지	467	325	666	1.35				
기타 인쇄물	292	109	110	3.50	*	*		
문구	5,669	4,890	4,814	4.70	**	*	*	
종이문구류	1,419	1,588	1,414	3.03	*			
필기 및 미술용품	1,863	1,578	1,477	2.89				
기타문구류	2,387	1,725	1,923	8.43	**	*	*	
단체여행비	16,253	11,389	10,040	2.35				
국내단체여행비	5,887	5,208	6,870	0.13				
국외여행비	10,366	6,181	3,170	2.54				
10. 교육	550,172	473,894	331,581	94.36	**	*	*	*
정규교육	164,917	162,133	86,941	25.05	**		*	*
초등교육	39,646	31,044	17,815	29.02	**	*	*	*
유치원	39,236	29,700	17,197	32.20	**	*	*	*
초등학교	410	1,343	618	0.78				
중등교육	45,129	37,597	19,804	49.15	**	*	*	*
중학교	5,249	3,737	3,008	26.19	**	*	*	*
고등학교	39,880	33,860	16,796	44.12	**	*	*	*
고등교육	80,142	93,492	49,322	7.39	**		*	*
전문대학	12,707	24,414	18,023	1.22				
국립대학	8,633	12,281	3,365	6.92	**			*
사립대학	51,798	54,342	27,320	4.77	**		*	*
대학원	7,003	2,455	614	2.96				
학원 및 보습교육	364,074	294,639	233,781	112.77	**	*	*	*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343,508	284,258	226,436	93.39	**	*	*	*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입시 및 보습	213,799	160,740	118,810	114.40	**	*	*	*
음악학원	17,986	17,148	21,414	8.94	**		*	*
미술학원	8,530	7,979	4,424	11.37	**		*	*
운동학원	19,383	16,121	14,623	11.66	**	*	*	
직업준비학원	1,669	2,334	1,557	0.87				
방문학습지	28,504	37,019	42,813	32.94	**	*	*	*
체험교육	2,395	1,926	1,461	0.93				
기타학원교육비	13,052	8,401	3,639	18.92	**	*	*	*
개인과외비	38,190	32,588	17,695	21.51	**	*	*	*
성인학원교육	20,566	10,382	7,345	29.64	**	*	*	
성인직업학원	9,026	3,636	2,316	13.97	**	*	*	
외국어학원	8,358	3,591	1,336	34.45	**	*	*	
운동 및 교양교육	3,183	3,155	3,694	0.01				
기타교육	21,181	17,122	10,859	4.93	**		*	*
학교보충교육비	8,780	10,686	6,832	29.04	**	*		*
평생교육원	905	574	379	0.29				
국내교육연수	4,128	4,272	3,647	0.81				
국외연수비	7,368	1,589	0	3.24	*			
11. 음식·숙박	330,050	345,346	286,405	93.45	**		*	*
식사비	323,476	340,856	282,213	99.54	**		*	*
일반식당	208,278	194,616	160,482	94.71	**	*	*	*
배달음식	15,513	16,744	17,541	8.79	**	*	*	
이동식 음식점	3,164	2,978	2,518	8.26	**		*	*
단체제공식	43,746	72,372	64,383	172.65	**	*	*	*
패스트푸드	4,416	3,744	2,620	29.91	**	*	*	*
주점·커피숍	48,359	50,402	34,670	72.66	**		*	*
숙박비	6,575	4,491	4,192	1.78				
호텔, 여관, 콘도	3,858	2,289	1,970	8.30	**	*	*	
기타숙박시설	2,717	2,202	2,222	0.09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84,888	216,247	201,646	12.84	**	*	*	
이미용서비스	31,581	31,259	24,399	34.98	**		*	*
목욕료	8,688	9,913	8,913	21.46	**	*		*
이미용료	20,329	18,915	14,361	54.11	**	*	*	*
기타이미용서비스	2,563	2,431	1,125	1.92				
이미용 기기	671	792	593	0.32				
이미용기기	671	792	593	0.32				
위생 및 이미용용품	38,833	38,991	32,816	10.68	**		*	*
칫솔	1,063	1,184	1,208	2.26				
치약	1,085	876	866	5.19	**	*	*	
세면비누	644	641	465	2.96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보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샴푸 및 린스	2,830	3,166	2,761	2.59				
화장지	5,036	5,428	5,381	2.69				
화장품	26,344	25,544	20,620	9.35	**		*	*
기타이미용용품	1,831	2,152	1,515	2.18				
시계 및 장신구	3,390	3,839	2,581	3.39	*			*
손목시계	715	871	376	0.94				
장식용시계	152	204	205	0.80				
장신구	2,522	2,764	2,001	2.68				
기타개인용품	10,272	11,289	6,473	4.95	**			*
가방	7,712	7,984	4,739	4.17	*			*
종교용품	71	56	18	1.89				
혼례 및 장례례용품	171	969	36	0.68				
기타 개인용품	2,145	2,216	1,650	1.74				
개인용품서비스	173	65	30	3.90	*	*	*	
사회복지	21,740	37,109	45,641	49.84	**	*	*	*
산후조리원	40	361	331	0.34				
보육료	21,371	36,322	45,118	51.23	**	*	*	*
기타사회복지	330	426	192	0.66				
보험	56,201	70,135	78,135	103.77	**	*	*	*
생명보험	48,786	58,380	64,456	76.86	**	*	*	*
화재보험	237	370	938	32.43	**		*	*
연금보험	4,075	4,651	3,965	3.35	*	*		
운송관련보험 등	3,103	6,734	8,776	31.57	**	*	*	
기타금융	203	421	236	1.40				
금융수수료	203	421	236	1.40				
기타서비스	21,998	22,411	10,771	1.55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	701	847	868	0.26				
기타부동산 수수료	1,271	797	161	1.90				
일반수수료	1,578	1,353	1,197	0.47				
응시료	3,845	3,601	2,404	5.60	**		*	*
혼례 및 장례례비	13,712	13,847	5,507	0.70				
기타 서비스	882	1,909	624	0.26				
유흥비	8	57	10	0.91				
13. 비소비지출	768,697	700,269	614,989	47.50	**	*	*	*
경상조세	127,661	123,584	81,155	42.55	**	*	*	*
경상소득세	87,830	87,978	47,607	40.33	**		*	*
사업소득세	5	613	460	3.51	*	*		
경상재산세	21,299	12,981	7,944	49.66	**	*	*	*
자동차세	17,972	21,488	24,640	5.37	**	*	*	
기타경상세금	555	524	504	0.04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ANOVA, 모수적 검정)(계속)

품목	평균			F값	p-value	다중비교(Scheffe)		
	서울(A)	광역시, 시(B)	군(C)			A-B	A-C	B-C
비경상조세	9,772	12,098	11,262	1.04				
비경상소득세	43	120	162	0.30				
비경상재산세	0	288	10	0.46				
부동산취득 관련세	2,500	4,542	3,225	1.03				
과징금	3,529	3,933	2,845	1.17				
기타비경상세금	3,700	3,214	5,020	0.30				
연금	112,315	112,381	97,192	31.32	**		*	*
국민연금 기여금	93,088	90,008	77,627	29.00	**	*	*	*
기타연금 기여금	19,215	22,363	19,564	13.08	**	*		*
사회보장	110,203	102,685	83,123	114.35	**	*	*	*
건강보험료	102,699	94,722	76,347	123.66	**	*	*	*
기타사회보험료	7,504	7,963	6,776	4.83	**			*
이자비용	86,915	77,639	69,981	17.05	**	*	*	
주택대출이자	56,232	52,567	38,837	15.34	**	*	*	
기타이자	30,683	25,072	31,144	6.98	**	*		
가구간 이전지출	224,484	177,711	180,864	19.27	**	*	*	
교제비	107,579	81,580	74,426	36.87	**	*	*	*
경조비	57,836	45,903	44,678	12.46	**	*	*	
국내학생가구 송금	4,653	6,565	28,405	26.16	**		*	*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12,819	1,388	1,435	4.05	*	*		
기타송금(국내)	40,930	40,355	31,881	6.86	**		*	*
기타송금(국외)	666	1,920	37	1.98				
비영리단체로 이전	97,347	94,172	91,413	0.90				
종교기부금	48,008	34,231	29,546	19.47	**	*	*	
회비 및 기타기부금	49,339	59,941	61,867	39.29	**	*	*	

[부록 4]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1999~2009)

1.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부표 4-1〉 전체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만원, %)

비 목	전체 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30	26.5	47	24.9	65	21.9
주거비	10	8.7	9	4.8	11	3.6
광열수도비	7	6.5	11	5.9	13	4.3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	2.2	4	2.2	8	2.8
피복신발비	4	3.7	6	3.0	9	3.1
보건의료비	8	6.6	16	8.5	15	5.1
공교육비	1	0.5	2	0.9	12	4.1
사교육비	0	0.0	1	0.5	10	3.2
교양오락비	4	3.6	6	3.1	9	3.0
교통통신비	15	13.3	28	15.1	49	16.3
기타소비지출	18	15.7	34	18.2	56	18.6
사적이전	7	6.3	9	4.9	13	4.4
세금	3	2.4	7	3.5	12	3.9
사회보장부담금	5	4.1	8	4.5	17	5.7
총 생활비	115	100.0	188	100.0	298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가구원수)의 상·하위 1% 제거한 전체가구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조사) 원자료.

〈부표 4-1〉 전체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계속)

(단위: 만원, %)

비 목	전체 가구 기준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81	20.5	88	21.1	97	22.8	111	22.2
주거비	11	2.7	11	2.7	10	2.4	12	2.4
광열수도비	14	3.5	16	3.7	18	4.3	22	4.3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1	2.8	12	2.8	14	3.3	14	2.8
피복신발비	12	2.9	12	3.0	12	2.7	20	3.9
보건의료비	15	3.7	17	4.2	19	4.5	42	8.5
공교육비	22	5.6	29	6.9	23	5.4	25	4.9
사교육비	35	8.9	35	8.4	33	7.8	41	8.2
교양오락비	12	3.1	11	2.6	10	2.3	10	1.9
교통통신비	59	15.0	63	15.1	65	15.2	75	14.9
기타소비지출	67	16.8	69	16.7	74	17.5	75	15.0
사적이전	16	4.2	15	3.7	13	3.0	18	3.6
세금	18	4.5	16	3.9	14	3.4	13	2.7
사회보장부담금	24	5.9	22	5.3	22	5.2	23	4.6
총 생활비	396	100.0	417	100.0	427	100.0	501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의 상·하위 1% 제거한 전체가구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조사) 원자료.



〈부표 4-2〉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만원, %)

비 목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19	34.4	33	29.9	51	25.9
주거비	5	8.3	7	6.0	10	4.9
광열수도비	7	11.8	10	9.2	12	5.8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	2.7	3	2.4	6	2.9
피복신발비	1	2.6	3	2.3	5	2.7
보건의료비	6	10.5	14	12.4	11	5.6
공교육비	0	0.0	1	1.0	10	5.0
사교육비	0	0.0	1	0.6	5	2.7
교양오락비	1	2.1	2	1.9	4	2.1
교통통신비	5	9.1	13	12.1	33	16.6
기타소비지출	8	13.8	17	15.7	34	17.2
사적이전	1	2.6	4	3.2	6	2.8
세금	0	0.7	2	1.5	3	1.5
사회보장부담금	1	1.3	2	1.9	8	4.1
총 생활비	56	100.0	110	100.0	198	100.0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가구원수)의 상·하위 1% 제거  
2) 가구규모별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조사) 원자료.

〈부표 4-2〉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계속)

(단위: 만원, %)

비 목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기준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66	24.1	72	26.1	83	27.1	93	26.6
주거비	10	3.7	10	3.8	7	2.1	11	3.1
광열수도비	13	4.6	14	5.0	16	5.3	19	5.5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1	3.9	11	3.9	13	4.4	17	4.7
피복신발비	7	2.5	7	2.6	8	2.5	8	2.3
보건의료비	11	4.1	13	4.5	15	5.0	21	6.0
공교육비	15	5.6	19	6.7	23	7.6	22	6.1
사교육비	21	7.8	19	6.8	19	6.1	22	6.1
교양오락비	6	2.1	5	1.7	5	1.6	7	2.0
교통통신비	43	15.6	45	16.1	48	15.6	51	14.4
기타소비지출	45	16.4	42	15.1	46	15.0	56	15.9
사적이전	8	3.0	7	2.5	8	2.6	11	3.3
세금	5	1.7	4	1.3	3	1.1	4	1.0
사회보장부담금	13	4.8	11	4.0	12	4.0	10	3.0
총 생활비	275	100.0	278	100.0	306	100.0	351	100.0

-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의 상·하위 1% 제거  
 2) 가구규모별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조사) 원자료.

〈부표 4-3〉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만원, %)

비 목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18	35.4	30	31.0	46	27.3
주거비	4	7.7	6	6.2	10	5.8
광열수도비	6	12.3	10	10.0	11	6.5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	2.5	2	2.4	5	2.8
피복신발비	1	2.6	2	2.2	4	2.5
보건의료비	5	9.7	12	12.2	10	5.8
공교육비	0	0.0	1	0.7	9	5.4
사교육비	0	0.0	0	0.3	4	2.4
교양오락비	1	2.1	2	1.8	3	1.9
교통통신비	5	9.3	11	11.7	27	16.0
기타소비지출	7	13.8	14	15.2	27	16.1
사적이전	1	2.7	3	2.8	4	2.7
세금	0	0.7	2	1.9	2	1.5
사회보장부담금	0	0.9	2	1.6	6	3.4
총 생활비	50	100.0	95	100.0	168	100.0

-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의 상·하위 1% 제거  
 2) 가구규모별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조사) 원자료.

〈부표 4-3〉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계속)

(단위: 만원, %)

비 목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 기준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지출액	(비율)
식료품비	60	25.2	66	27.1	76	28.0	82	26.1
주거비	9	3.9	12	4.8	6	2.2	17	5.4
광열수도비	12	5.1	13	5.5	16	5.8	18	5.9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0	4.1	10	3.9	10	3.6	22	6.9
피복신발비	6	2.4	6	2.4	6	2.3	8	2.5
보건의료비	10	4.2	12	4.9	12	4.4	14	4.5
공교육비	15	6.4	17	6.8	28	10.1	19	5.9
사교육비	16	6.8	13	5.4	14	5.1	16	5.2
교양오락비	5	2.0	4	1.6	4	1.6	9	2.9
교통통신비	37	15.4	39	16.1	40	14.7	49	15.6
기타소비지출	37	15.6	35	14.3	40	14.6	47	15.0
사적이전	7	3.1	7	2.9	8	3.0	1	0.4
세금	4	1.5	3	1.1	3	1.0	2	0.7
사회보장부담금	10	4.2	8	3.2	10	3.6	9	2.9
총 생활비	239	100.0	245	100.0	272	100.0	313	100.0

- 주: 1)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의 상·하위 1% 제거  
 2) 가구규모별 소득하위 2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조사) 원자료.

## 2. 도시가계조사 결과(1999~2009)

〈부표 4-4〉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

비 목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식료품	23.1	23.1	22.3	22.4	22.2	22.4	22.2	21.1	20.7	20.6	19.9
주거	2.7	2.7	2.6	2.3	2.6	2.5	2.4	2.5	2.4	2.4	2.7
광열수도	4.0	4.2	4.2	4.0	3.9	3.7	3.9	3.8	3.6	3.6	3.7
가구집기가사용품	3.2	3.1	3.3	3.3	3.5	3.3	3.8	3.8	4.0	3.7	3.6
피복 및 신발	4.4	4.7	4.7	4.8	4.7	4.4	4.4	4.3	4.4	4.3	4.7
보건의료	3.6	3.3	3.4	3.3	3.5	3.4	3.7	3.7	3.5	3.5	4.1
교육	11.5	11.8	12.6	12.4	12.7	12.9	13.0	13.4	13.7	14.8	14.7
교양오락	4.4	4.8	4.2	4.3	4.4	4.1	4.2	4.1	4.1	3.8	4.5
교통통신	13.7	14.0	14.2	14.2	14.0	14.4	14.1	14.2	14.3	13.7	13.4
기타소비지출	14.8	14.5	14.6	15.0	14.0	13.7	12.9	12.9	13.1	12.9	12.7
비소비지출	14.5	13.9	13.9	14.0	14.4	15.1	15.3	16.2	16.1	16.7	16.0

주: 1)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전체 기준이다.  
 2) 월평균지출액에 대한 비율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4-5〉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단위: 원)

비 목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식료품	432,542	479,818	500,469	518,666	557,527	613,634	626,761	635,096	654,773	699,736	689,943
주거	50,149	55,178	58,362	53,645	66,603	68,765	69,013	75,247	75,565	81,136	91,971
광열수도	75,850	86,890	93,410	93,659	98,420	102,461	109,026	114,499	115,168	121,977	128,337
가구집기가사용품	60,169	65,359	74,989	76,844	87,568	90,366	108,614	114,512	127,289	126,093	124,730
피복 및 신발	82,543	97,383	105,666	110,096	119,332	119,443	124,583	130,748	139,436	145,245	160,939
보건의료	68,239	68,475	76,007	75,359	88,633	93,975	104,591	110,546	110,609	120,160	143,398
교육	215,588	245,433	282,018	288,190	320,536	354,488	368,773	404,057	434,471	502,622	508,081
교양오락	82,864	99,169	95,070	98,705	109,397	111,904	118,259	122,492	130,739	129,961	153,938
교통통신	257,211	291,228	319,267	329,119	352,652	394,456	398,466	426,735	451,536	464,529	462,433
기타소비지출	277,108	301,237	328,679	348,152	352,325	374,432	365,958	388,480	413,028	437,873	440,738
비소비지출	270,993	289,621	310,993	323,314	361,053	413,725	433,607	487,917	507,423	568,713	554,761
가계지출총계	1,873,257	2,079,792	2,244,931	2,315,750	2,514,045	2,737,651	2,827,652	3,010,331	3,160,038	3,398,044	3,459,269

주: 1)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전체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4-6〉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단위: %)

비 목	2000 (전년도 대비)	2001 (전년도 대비)	2002 (전년도 대비)	2003 (전년도 대비)	2004 (전년도 대비)	2005 (전년도 대비)	2006 (전년도 대비)	2007 (전년도 대비)	2008 (전년도 대비)	2009 (전년도 대비)	1999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감률	2004년도 대비 2006년도 증감률	2006년도 대비 2009년도 증감률
식료품	109	43	3.6	7.5	10.1	2.1	1.3	3.1	6.9	-1.4	41.9	3.5	7.9
주거	100	5.8	-8.1	24.2	3.2	0.4	9.0	0.4	7.4	13.4	37.1	9.4	18.2
광열수도	14.6	7.5	0.3	5.1	4.1	6.4	5.0	0.6	5.9	5.2	35.1	11.7	10.8
가구집기 가용품	8.6	14.7	2.5	14.0	3.2	20.2	5.4	11.2	-0.9	-1.1	50.2	26.7	8.2
피복및 신발	18.0	8.5	4.2	8.4	0.1	4.3	4.9	6.6	4.2	10.8	44.7	9.5	18.8
보건의료	0.3	11.0	-0.9	17.6	6.0	11.3	5.7	0.1	8.6	19.3	37.7	17.6	22.9
교육	13.8	14.9	2.2	11.2	10.6	4.0	9.6	7.5	15.7	1.1	64.4	14.0	20.5
교양오락	19.7	-4.1	3.8	10.8	2.3	5.7	3.6	6.7	-0.6	18.4	35.0	9.5	20.4
교통통신	13.2	9.6	3.1	7.2	11.9	1.0	7.1	5.8	2.9	-0.5	53.4	8.2	7.7
기타소비지출	8.7	9.1	5.9	1.2	6.3	-2.3	6.2	6.3	6.0	0.7	35.1	3.8	11.9
비소비지출	6.9	7.4	4.0	11.7	14.6	4.8	12.5	4.0	12.1	-2.5	52.7	17.9	12.0
총가계지출	11.0	7.9	3.2	8.6	8.9	3.3	6.5	5.0	7.5	1.8	46.1	10.0	13.0

주: 1)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전체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4-7〉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

비 목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식료품	27.2	27.1	26.1	26.2	25.1	25.9	25.8	24.5	23.5	23.6	23.2
주거	2.9	3.6	3.0	2.8	3.2	3.0	3.0	3.2	3.2	2.8	3.5
광열수도	5.2	5.5	5.3	5.3	5.1	5.0	5.1	5.1	4.7	4.7	4.9
가구집기가사용품	2.7	3.2	3.2	3.0	3.5	3.3	3.9	3.8	4.4	4.0	3.9
피복 및 신발	4.3	4.4	4.6	4.5	4.5	4.3	4.1	4.0	4.1	3.9	4.4
보건의료	4.8	4.0	4.2	4.0	4.2	3.6	4.1	4.2	4.1	4.1	4.6
교육	10.2	11.1	11.2	12.0	12.5	13.0	12.5	13.9	13.5	14.7	13.9
교양오락	4.2	4.4	4.1	4.0	3.8	3.3	3.7	3.3	3.5	3.4	4.2
교통통신	13.8	13.3	15.4	14.8	14.9	16.0	15.8	15.8	15.7	15.6	14.3
기타소비지출	15.0	14.2	13.9	14.4	13.3	12.8	12.3	12.2	12.5	12.4	12.1
비소비지출	9.7	9.2	8.9	9.1	9.9	9.8	9.8	10.0	10.8	10.8	11.0

-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월평균지출액에 대한 비율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4-8〉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단위: 원)

비 목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식료품	354,230	388,151	414,234	425,459	449,518	494,412	508,900	505,983	529,731	561,466	545,663
주거	37,287	51,674	47,804	45,004	56,917	56,284	58,180	65,570	71,697	67,795	82,664
광열수도	67,549	78,948	83,590	85,417	91,029	94,765	100,743	105,053	105,535	111,023	115,584
가구집기가사용품	34,700	45,668	51,428	48,699	62,165	62,758	76,485	78,176	99,750	94,344	91,872
피복 및 신발	56,008	63,295	73,695	73,213	80,564	82,131	81,243	82,697	92,965	92,608	102,379
보건의료	63,171	57,360	66,933	64,401	74,334	68,486	80,918	86,780	92,409	98,213	108,094
교육	132,895	159,560	177,636	194,828	224,327	248,270	247,308	287,483	304,463	350,058	325,853
교양오락	54,883	63,006	65,596	64,991	68,660	63,735	72,003	68,406	78,445	80,514	97,696
교통통신	180,110	190,156	243,563	240,354	266,361	304,236	310,716	324,788	353,920	370,900	335,204
기타소비지출	196,003	202,726	220,718	234,670	238,498	243,405	242,161	251,130	282,122	294,758	284,632
비소비지출	127,067	131,929	140,826	148,236	177,550	187,712	193,255	205,311	242,862	257,868	258,922
가계지출총계	1,303,903	1,432,474	1,586,024	1,625,271	1,789,922	1,906,193	1,971,912	2,061,376	2,253,899	2,379,547	2,348,564

-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4-9〉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단위: %)

비 목	2000 (전년도 대비)	2001 (전년도 대비)	2002 (전년도 대비)	2003 (전년도 대비)	2004 (전년도 대비)	2005 (전년도 대비)	2006 (전년도 대비)	2007 (전년도 대비)	2008 (전년도 대비)	2009 (전년도 대비)	1999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감률	2004년도 대비 2006년도 증감률	2006년도 대비 2009년도 증감률
식품	9.6	6.7	2.7	5.7	10.0	2.9	-0.6	4.7	6.0	-2.8	39.6	2.3	7.3
주거	38.6	-7.5	-5.9	26.5	-1.1	3.4	12.7	9.3	-5.4	21.9	50.9	16.5	20.7
광열수도	16.9	5.9	2.2	6.6	4.1	6.3	4.3	0.5	5.2	4.1	40.3	10.9	9.1
가구집기 가사용품	31.6	12.6	-5.3	27.7	1.0	21.9	2.2	27.6	-5.4	-2.6	80.9	24.6	14.9
피복 및 신발	13.0	16.4	-0.7	10.0	1.9	-1.1	1.8	12.4	-0.4	10.6	46.6	0.7	19.2
보건의료	-9.2	16.7	-3.8	15.4	-7.9	18.2	7.2	6.5	6.3	10.1	8.4	26.7	19.7
교육	20.1	11.3	9.7	15.1	10.7	-0.4	16.2	5.9	15.0	-6.9	86.8	15.8	11.8
교양 오락	14.8	4.1	-0.9	5.6	-7.2	13.0	-5.0	14.7	2.6	21.3	16.1	7.3	30.0
교통통신	5.6	28.1	-1.3	10.8	14.2	2.1	4.5	9.0	4.8	-9.6	68.9	6.8	3.1
가타소비지출	3.4	8.9	6.3	1.6	2.1	-0.5	3.7	12.3	4.5	-3.4	24.2	3.2	11.8
비소비지출	3.8	6.7	5.3	19.8	5.7	3.0	6.2	18.3	6.2	0.4	47.7	9.4	20.7
총가계지출	9.9	10.7	2.5	10.1	6.5	3.4	4.5	9.3	5.6	-1.3	46.2	8.1	12.2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4-10〉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단위: %)

비 목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식료품	27.6	28.7	26.5	27.6	26.4	27.4	26.5	25.5	24.3	24.1	23.9
주거	3.4	4.2	3.6	3.2	3.6	3.7	3.7	3.9	3.6	3.5	4.2
광열수도	5.7	6.3	5.8	5.9	5.6	5.5	5.6	5.6	5.3	5.3	5.6
가구집기가사용품	2.6	3.1	3.2	2.7	3.7	3.6	3.9	4.1	4.5	3.6	3.8
피복 및 신발	4.2	4.2	4.5	4.4	4.5	4.0	3.9	3.9	4.1	3.6	4.1
보건의료	5.8	3.8	4.5	4.3	4.5	4.0	4.7	4.7	4.2	4.1	4.8
교육	10.3	10.5	11.6	11.7	11.5	12.7	12.8	13.2	13.7	15.3	13.3
교양오락	4.1	4.3	4.0	3.6	3.8	3.2	3.4	3.0	3.3	3.3	4.2
교통통신	12.3	14.0	16.2	15.4	14.7	15.5	16.1	16.3	15.9	15.9	14.5
기타소비지출	15.1	13.0	12.6	13.4	13.1	12.0	11.4	11.5	11.6	12.2	12.2
비소비지출	8.9	7.8	7.8	7.7	8.6	8.6	7.9	8.3	9.5	9.1	9.4

-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월평균지출액에 대한 비율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4-1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단위: 원)

비 목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식료품	318,837	353,736	372,487	390,524	404,814	450,576	456,480	449,259	471,240	499,256	480,851
주거	39,590	51,307	50,167	45,553	55,946	60,132	64,450	68,473	70,004	72,055	84,929
광열수도	65,783	77,523	80,941	83,467	86,659	90,262	96,711	99,166	102,355	109,763	112,282
가구집기가사용품	30,220	38,437	44,406	38,272	56,500	59,812	67,512	72,551	87,919	75,408	76,736
피복 및 신발	48,955	51,193	63,289	62,574	69,350	66,167	67,398	67,901	79,556	74,875	82,011
보건의료	66,491	47,151	63,032	60,896	69,610	65,213	81,813	83,011	81,016	85,343	96,701
교육	118,976	128,988	163,154	166,021	176,127	208,313	220,823	233,062	265,936	316,624	268,735
교양오락	47,646	53,160	55,850	50,722	58,479	52,124	58,746	53,545	63,142	67,686	85,129
교통통신	141,911	172,800	227,268	218,539	225,326	254,418	278,134	287,569	307,719	328,419	292,826
기타소비지출	173,995	160,624	176,664	190,017	200,465	197,435	197,381	202,552	225,348	252,973	246,153
비소비지출	103,388	96,680	109,646	109,700	131,800	141,775	136,040	146,006	183,622	188,202	189,466
가계지출총계	1,155,791	1,231,601	1,406,903	1,416,285	1,535,077	1,646,228	1,725,488	1,763,094	1,937,858	2,070,603	2,015,819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표 4-12〉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단위: %)

비 목	2000 (전년도 대비)	2001 (전년도 대비)	2002 (전년도 대비)	2003 (전년도 대비)	2004 (전년도 대비)	2005 (전년도 대비)	2006 (전년도 대비)	2007 (전년도 대비)	2008 (전년도 대비)	2009 (전년도 대비)	1999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감률	2004년도 대비 2006년도 증감률	2006년도 대비 2009년도 증감률
식료품	109	53	48	37	113	13	-16	49	59	-3.7	41.3	-0.3	66
주거	29.6	-2.2	-9.2	22.8	7.5	7.2	6.2	2.2	2.9	17.9	51.9	13.9	19.4
광열수도	17.8	4.4	3.1	3.8	4.2	7.1	2.5	3.2	7.2	2.3	37.2	9.9	11.7
가구집기 가사용품	27.2	15.5	-13.8	47.6	5.9	12.9	7.5	21.2	-14.2	1.8	97.9	21.3	5.5
피복및 신발	4.6	23.6	-1.1	10.8	-4.6	1.9	0.7	17.2	-5.9	9.5	35.2	2.6	17.2
보건의료	-29.1	33.7	-3.4	14.3	-6.3	25.5	1.5	-2.4	5.3	13.3	-1.9	27.3	14.2
교육	8.4	26.5	1.8	6.1	18.3	6.0	5.5	14.1	19.1	-15.1	75.1	11.9	13.3
교양오락	11.6	5.1	-9.2	15.3	-10.9	12.7	-8.9	17.9	7.2	25.8	9.4	2.7	37.1
교통통신	21.8	31.5	-3.8	3.1	12.9	9.3	3.4	7.0	6.7	-10.8	79.3	13.0	1.8
기타소비지출	-7.7	10.0	7.6	5.5	-1.5	0.0	2.6	11.3	12.3	-2.7	13.5	2.6	17.7
비소비지출	-6.5	13.4	0.0	20.1	7.6	-4.0	7.3	25.8	2.5	0.7	37.1	3.0	22.9
총계지출	6.6	14.2	0.7	8.4	7.2	4.8	2.2	9.9	6.9	-2.6	42.4	7.1	12.5

주: 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3)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1999~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 (월간 Data) 원자료.

[부록 5]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2009)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b>식료품 및 비주류음료</b>	<b>278,635</b>	<b>14.87</b>
곡물	20,136	1.07
맷쌀	16,895	0.90
참쌀	989	0.05
맥류	317	0.02
두류	1,069	0.06
기타곡물	867	0.05
곡물가공품	15,966	0.85
밀가루	406	0.02
국수류	1,665	0.09
라면류	6,916	0.37
당면	438	0.02
두부	3,164	0.17
기타곡물가공품	3,378	0.18
빵 및 떡류	17,407	0.93
케이크	2,979	0.16
식빵	1,297	0.07
기타빵류	9,555	0.51
떡	3,576	0.19
육류	38,777	2.07
쇠고기	14,443	0.77
돼지고기	19,381	1.03
닭고기	4,218	0.23
기타생육	735	0.04
육류가공품	8,998	0.48
소시지	1,215	0.06
햄 및 베이컨	3,051	0.16
기타육류가공품	4,733	0.25

- 주: 1) 전체(도시근로자+자영자 포함) 4인가구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 기준이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이다.  
 2) 괄호는 비목별 비율, 나머지 비율은 비목별 하위품별에 대한 비율이다.  
 3) 지출액은 월평균금액이다.  
 4)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자료: 『2009년 통계청 가계조사』(월간 Data) 원자료.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신선수산물	16,598	0.89
갈치	2,027	0.11
명태	1,142	0.06
조기	1,578	0.08
고등어	1,410	0.08
꽁치	160	0.01
오징어	1,314	0.07
가자미	240	0.01
게	1,236	0.07
굴	594	0.03
조개류	1,626	0.09
기타 수산물	5,272	0.28
염건수산물	5,291	0.28
복어	623	0.03
굴비	526	0.03
마른멸치	1,562	0.08
마른오징어	983	0.05
간고등어	957	0.05
기타염건수산물	639	0.03
기타수산물가공	6,351	0.34
어묵	2,163	0.12
맛살	521	0.03
수산물통조림	2,145	0.11
젓갈	972	0.05
기타수산물가공품	549	0.03
유제품 및 알	31,468	1.68
우유	14,998	0.80
분유	2,923	0.16
치즈	1,118	0.06
요구르트	4,654	0.25
두유	1,845	0.10
기타우유가공품	44	0.00
알 및 알가공품	5,887	0.31
유지류	2,593	0.14
참기름	888	0.05
들기름	199	0.01
기타식물성식용유	1,360	0.07
버터	109	0.01

591

부  
록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기타유지류	37	0.00
과일 및 과일가공품	28,497	1.52
사과	4,793	0.26
배	1,523	0.08
복숭아	1,461	0.08
포도	2,583	0.14
밤	272	0.01
감	988	0.05
감귤류	4,570	0.24
참외	1,876	0.10
수박	2,990	0.16
딸기	2,734	0.15
바나나	1,637	0.09
기타과일	2,319	0.12
과일가공품	750	0.04
채소 및 채소가공품	27,703	1.48
배추	1,825	0.10
상추	1,107	0.06
시금치	828	0.04
양배추	286	0.02
미나리	248	0.01
깻잎	427	0.02
부추	392	0.02
무	1,507	0.08
당근	616	0.03
감자	1,562	0.08
고구마	1,323	0.07
도라지	273	0.01
콩나물	1,355	0.07
버섯	1,791	0.10
오이	1,348	0.07
풋고추	1,394	0.07
호박	994	0.05
가지	231	0.01
토마토	1,727	0.09
파	1,446	0.08
양파	1,668	0.09
마늘	1,453	0.08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기타채소	2,452	0.13
채소가공품	1,451	0.08
해조 및 해조가공품	3,762	0.20
김	2,760	0.15
미역	642	0.03
기타해조류	361	0.02
당류 및 과자류	22,924	1.22
설탕	759	0.04
잼,꿀,조청	1,227	0.07
초콜릿	962	0.05
사탕 및 젤리	887	0.05
한식과자	583	0.03
껌	441	0.02
아이스크림	5,905	0.32
기타과자	12,159	0.65
조미식품	9,083	0.48
말린 고추	2,276	0.12
참깨 및 들깨	562	0.03
생강	208	0.01
소금	399	0.02
간장	1,094	0.06
된장	779	0.04
고추장	1,042	0.06
카레	520	0.03
식초	140	0.01
케첩	272	0.01
드레싱	290	0.02
혼합조미료	660	0.04
기타조미식품	841	0.04
기타식품	7,969	0.43
죽 및 스프	266	0.01
이유식	150	0.01
김치	1,223	0.07
반찬류	1,926	0.10
즉석·동결식품	2,779	0.15
기타미분류식품	1,625	0.09
커피 및 차	5,815	0.31
커피	4,423	0.24

593

부  
록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차	1,392	0.07
주스 및 기타음료	9,294	0.50
과일 및 야채주스	3,434	0.18
생수	628	0.03
기능성 음료	494	0.03
기타음료	4,739	0.25
<b>주류 및 담배</b>	<b>25,021</b>	<b>1.34</b>
주류	7,205	0.38
소주	2,172	0.12
과일주	306	0.02
맥주	3,695	0.20
탁주	543	0.03
증류주	198	0.01
기타주류	290	0.02
담배	17,817	0.95
담배	17,817	0.95
<b>의류 및 신발</b>	<b>97,098</b>	<b>5.18</b>
직물 및 외의	66,800	3.56
직물	200	0.01
남성용 외의	12,652	0.68
여성용 외의	20,270	1.08
남학생 교복	2,369	0.13
여학생 교복	2,380	0.13
와이셔츠	689	0.04
남방셔츠	1,131	0.06
블라우스	644	0.03
티셔츠	9,266	0.49
스웨터 및 조끼	1,339	0.07
운동복	3,937	0.21
아동용외의	11,670	0.62
기타외의	254	0.01
내의	6,718	0.36
남자내의 및 잠옷	2,512	0.13
여자내의 및 잠옷	3,256	0.17
아동용 내의	950	0.05
기타의복	4,940	0.26
양말 및 스타킹	2,340	0.12
모자	831	0.04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넥타이	200	0.01
실류	159	0.01
기타의복관련품	1,411	0.08
의복관련서비스	2,927	0.16
의복수선료	507	0.03
의복세탁료	2,082	0.11
기타의복관련서비스	339	0.02
신발	15,564	0.83
아동화	2,738	0.15
구두	5,059	0.27
운동화	5,318	0.28
기타신발	2,449	0.13
신발서비스	148	0.01
신발관련서비스	148	0.01
<b>주거 및 수도광열</b>	<b>196,694</b>	<b>10.50</b>
실제주거비	44,430	2.37
월세	36,288	1.94
기타주거비	8,142	0.43
주택유지 및 수선	8,266	0.44
벽지	237	0.01
바닥재	140	0.01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	856	0.05
설비·수리서비스	5,865	0.31
세놓는 주택수선	1,168	0.06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20,398	1.09
상하수도료	18,758	1.00
쓰레기처리	1,640	0.09
기타주거관련서비스	25,937	1.38
공동주택관리비	25,314	1.35
기타주거서비스	623	0.03
연료비	97,663	5.21
전기료	43,046	2.30
도시가스	40,349	2.15
L P G 연료	3,721	0.20
등유	4,893	0.26
경유연료	168	0.01
연탄	337	0.02
공동주택난방비	4,943	0.26

595

부  
록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기타연료비	206	0.01
<b>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b>	<b>49,386</b>	<b>2.64</b>
가구 및 조명	6,889	0.37
장롱	1,103	0.06
화장대	70	0.00
침대	1,167	0.06
장식장	752	0.04
소파	826	0.04
책상	939	0.05
의자	290	0.02
식탁 및 식탁의자	441	0.02
밥상	144	0.01
조명기구	235	0.01
기타가구	917	0.05
중고가구	5	0.00
실내장식	748	0.04
카페트	310	0.02
기타실내장식품	438	0.02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173	0.01
실내장식관련서비스	173	0.01
가정용 섬유	4,015	0.21
침구류	2,810	0.15
수건	328	0.02
커튼	471	0.03
기타가정용 섬유	383	0.02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	23	0.00
가전 및 가정용기기	13,905	0.74
전기밥솥	1,319	0.07
가스·전자레인지	918	0.05
일반냉장고	2,982	0.16
김치냉장고	2,649	0.14
정수기	373	0.02
에어컨 및 선풍기	1,178	0.06
난로 및 온풍기	200	0.01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382	0.02
세탁기	1,381	0.07
식기세척기	0	0.00
진공청소기	926	0.05

596

2010년 최저생계비  
계조조사 연구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전기다리미	140	0.01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1,409	0.08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49	0.00
가전관련서비스	6,294	0.34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6,294	0.34
가사용품	4,643	0.25
식기류	961	0.05
컵 및 다기	297	0.02
술	222	0.01
후라이팬	609	0.03
냄비	656	0.04
칼 및 수저류	252	0.01
기타주방용품	1,646	0.09
가정용공구 및 기타	1,523	0.08
가정용 전동공구	124	0.01
설비관련 기구	315	0.02
건전지	481	0.03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603	0.03
가사소모품	10,418	0.56
세탁용 세제	4,973	0.27
세탁·청소용구	927	0.05
전구	319	0.02
주방 및 청소용세제	1,009	0.05
살충약품 및 용품	645	0.03
기타가사소모품	2,546	0.14
가사서비스	779	0.04
식품관련서비스	250	0.01
가사사용인 급료	514	0.03
기타가사서비스	15	0.00
<b>보건</b>	<b>100,815</b>	<b>5.38</b>
의약품	26,584	1.42
조제양약	8,633	0.46
판매양약	3,066	0.16
한약 및 한약재	6,240	0.33
인삼	2,698	0.14
영양보조제	5,946	0.32
기타 의약품	8,050	0.43
보건의료 소모품	8,050	0.43

597

부  
록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4,510	0.24
안경 및 콘택트	3,652	0.19
기타보건의료기구	858	0.05
외래의료서비스	30,868	1.65
일반병의원외래비	29,588	1.58
한방병원외래비	1,280	0.07
치과서비스	14,140	0.75
치과외래비	14,140	0.75
기타의료서비스	300	0.02
기타보건의료서비스	300	0.02
입원서비스	16,363	0.87
병원입원치료비	16,363	0.87
<b>교통</b>	<b>189,083</b>	<b>10.09</b>
자동차구입	26,038	1.39
신차구입	13,840	0.74
중고차 구입	12,197	0.65
기타운송기구구입	1,777	0.09
오토바이	1,038	0.06
자전거 등	739	0.04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11,356	0.61
부품 및 관련용품	2,916	0.16
유지 및 수리비	8,440	0.45
운송기구 연료비	97,234	5.19
휘발유	57,037	3.04
경유	27,661	1.48
LPG	12,504	0.67
기타연료	32	0.00
기타개인교통서비스	6,718	0.36
운전교습비	1,614	0.09
주차료	916	0.05
통행료	2,277	0.12
기타개인교통	1,912	0.10
철도운송	3,463	0.18
기차	1,681	0.09
지하철	1,781	0.10
육상운송	20,774	1.11
시내버스	12,365	0.66
시외버스	2,859	0.15

598

2010년 최저생계비  
계조조사 연구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택시	5,550	0.30
기타운송	19,594	1.05
항공요금	2,049	0.11
교통카드 이용	17,326	0.92
기타여객서비스	219	0.01
기타교통관련서비스	2,130	0.11
화물운송 및 보관	2,130	0.11
<b>통신</b>	<b>137,897</b>	<b>7.36</b>
우편서비스	138	0.01
우편 서비스	138	0.01
통신장비	1,612	0.09
일반전화기기	178	0.01
이동전화기기 등	1,434	0.08
통신서비스	136,147	7.26
일반전화요금	14,789	0.79
이동전화 요금	98,713	5.27
인터넷 이용료	22,302	1.19
기타통신관련비용	342	0.02
<b>오락·문화</b>	<b>89,390</b>	<b>4.77</b>
영상음향기기	4,940	0.26
텔레비전	3,298	0.18
기타영상음향기기	1,643	0.09
사진광학장비	2,327	0.12
사진 및 광학장비	2,327	0.12
정보처리장치	8,837	0.47
정보처리기기	8,837	0.47
기록매체	226	0.01
기록용 매체	226	0.01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934	0.05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934	0.05
오락문화 내구재	74	0.00
오락 및 운동내구재	74	0.00
악기기구	849	0.05
악기	849	0.05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74	0.00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	74	0.00
장난감 및 취미용품	4,628	0.25
장난감	4,125	0.22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게임 및 취미용품	503	0.03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2,751	0.15
등산낚시사냥용품	1,011	0.05
운동용품	1,646	0.09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	94	0.01
화훼관련용품	1,941	0.10
원예용품	1,941	0.10
애완동물관련물품	1,162	0.06
애완동물관련품	1,162	0.06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544	0.03
애완동식물 관련서비스	544	0.03
운동 및 오락서비스	6,909	0.37
운동시설이용	2,431	0.13
노래방 이용	846	0.05
P C방 이용	573	0.03
기타오락시설이용	2,662	0.14
운동경기관람	54	0.00
오락용품대여	343	0.02
문화서비스	20,314	1.08
공연 및 극장	2,866	0.15
관람시설이용	653	0.03
독서실 이용	1,516	0.08
문화강습	1,761	0.09
컨텐츠	1,350	0.07
방송수신료	9,077	0.48
기타문화서비스	3,092	0.16
복권	255	0.01
복권구입	255	0.01
서적	22,192	1.18
유아용학습교재	3,529	0.19
초등학생학습교재	3,365	0.18
중고생 교재	511	0.03
중고생 참고서	5,465	0.29
기타서적	9,321	0.50
기타인쇄물	1,927	0.10
신문	1,670	0.09
잡지	203	0.01
기타 인쇄물	53	0.00

60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조조사 연구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문구	4,318	0.23
종이문구류	1,378	0.07
필기 및 미술용품	1,246	0.07
기타문구류	1,695	0.09
단체여행비	4,188	0.22
국내단체여행비	3,744	0.20
국외여행비	444	0.02
<b>교육</b>	<b>317,387</b>	<b>16.94</b>
정규교육	117,007	6.24
초등교육	24,103	1.29
유치원	23,905	1.28
초등학교	198	0.01
중등교육	32,949	1.76
중학교	3,703	0.20
고등교육	29,246	1.56
고등교육	59,955	3.20
전문대학	17,878	0.95
국공립대학	7,490	0.40
사립대학	34,184	1.82
대학원	403	0.02
학원 및 보습교육	187,758	10.02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179,669	9.59
입시 및 보습	101,627	5.42
음악학원	12,820	0.68
미술학원	5,082	0.27
운동학원	12,436	0.66
직업준비학원	1,888	0.10
방문학습지	29,325	1.56
체험교육	1,380	0.07
기타학원교육비	3,603	0.19
개인과외비	11,508	0.61
성인학원교육	8,089	0.43
성인직업학원	3,966	0.21
외국어학원	2,415	0.13
운동 및 교양교육	1,708	0.09
기타교육	12,622	0.67
학교보충교육비	8,228	0.44
평생교육원	504	0.03

601

부  
록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국내교육연수	3,886	0.21
국외연수비	3	0.00
<b>음식·숙박</b>	<b>238,756</b>	<b>12.74</b>
식사비	236,252	12.61
일반식당	133,277	7.11
배달음식	14,474	0.77
이동식 음식점	2,838	0.15
단체제공식	52,818	2.82
패스트푸드	3,014	0.16
주점·커피숍	29,830	1.59
숙박비	2,505	0.13
호텔, 여관, 콘도	1,149	0.06
기타숙박시설	1,356	0.07
<b>기타 상품 및 서비스</b>	<b>153,965</b>	<b>8.22</b>
이미용서비스	21,442	1.14
목욕료	7,284	0.39
이미용료	13,485	0.72
기타이미용서비스	674	0.04
이미용 기기	537	0.03
이미용기기	537	0.03
위생 및 이미용용품	27,656	1.48
칫솔	1,067	0.06
치약	734	0.04
세면비누	531	0.03
샴푸 및 린스	2,515	0.13
화장지	5,193	0.28
화장품	16,064	0.86
기타이미용용품	1,553	0.08
시계 및 장신구	2,097	0.11
손목시계	335	0.02
장식용시계	141	0.01
장신구	1,621	0.09
기타개인용품	5,692	0.30
가방	3,995	0.21
종교용품	24	0.00
혼례 및 장례례용품	196	0.01
기타 개인용품	1,390	0.07
개인용품서비스	87	0.00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사회복지	39,502	2.11
산후조리원	368	0.02
보육료	38,686	2.06
기타사회복지	449	0.02
보험	48,111	2.57
생명보험	41,497	2.21
화재보험	370	0.02
연금보험	1,567	0.08
운송관련보험 등	4,677	0.25
기타금융	186	0.01
금융수수료	186	0.01
기타서비스	8,741	0.47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	788	0.04
기타부동산 수수료	386	0.02
일반수수료	761	0.04
응시료	2,220	0.12
혼례 및 장례례비	3,985	0.21
기타 서비스	581	0.03
유흥비	20	0.00
비소비지출	369,113	19.70
경상조세	31,655	1.69
경상소득세	9,640	0.51
사업소득세	169	0.01
경상재산세	7,349	0.39
자동차세	14,012	0.75
기타경상세금	485	0.03
비경상조세	6,231	0.33
비경상소득세	85	0.00
비경상재산세	0	0.00
부동산취득 관련세	1,532	0.08
과징금	3,075	0.16
기타비경상세금	1,539	0.08
연금	54,181	2.89
국민연금 기여금	51,585	2.75
기타연금 기여금	2,596	0.14
사회보장	65,344	3.49
건강보험료	61,885	3.30
기타사회보험료	3,459	0.18

603

부  
록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계속)

(단위: 원, %)

품 목	지출액	구성비율
이자비용	51,863	2.77
주택대출이자	28,998	1.55
기타이자	22,865	1.22
가구간 이전지출	103,184	5.51
교제비	55,751	2.97
경조비	28,925	1.54
국내학생가구 송금	3,493	0.19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297	0.02
기타송금(국내)	14,275	0.76
기타송금(국외)	443	0.02
비영리단체로 이전	56,655	3.02
종교기부금	23,575	1.26
회비 및 기타기부금	33,081	1.77

[부록 6]

##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부표 6-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근로자 가구)

(단위: 원, %)

구 분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중위 소득			평균 가계지출			중위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활물 가상 률
	금액 <sup>1)</sup>	상승률 <sup>2)</sup>	금액	상승률	비율 <sup>3)</sup>	금액	상승률	비율	금액	상승률	비율	금액	상승률	비율		
1999	901,357		2,212,762		40.7	1,980,520		45.5	1,873,257		48.1	1,558,456		57.8	0.8	2.4
2000	928,398	3.0	2,419,883	9.4	38.4	2,128,370	7.5	43.6	2,079,792	11.0	44.6	1,739,481	11.6	53.4	2.3	3.7
2001	956,250	3.0	2,625,923	8.5	36.4	2,300,000	8.1	41.6	2,244,931	7.9	42.6	1,896,301	9.0	50.4	4.1	5.1
2002	989,719	3.5	2,798,752	6.6	35.4	2,460,000	7.0	40.2	2,315,750	3.2	42.7	1,979,695	4.4	50.0	2.8	2.5
2003	1,019,411	3.0	3,022,969	8.0	33.7	2,650,000	7.7	38.5	2,514,045	8.6	40.5	2,200,630	11.2	46.3	3.5	4.0
2004	1,055,090	3.5	3,314,363	9.6	31.8	2,900,000	9.4	36.4	2,737,651	8.9	38.5	2,356,760	7.1	44.8	3.6	4.9
2004 (계측치)	1,103,235	8.2	3,314,363		33.3	2,900,000		38.0	2,737,651		40.3	2,356,760		46.8		
2005	1,136,332	7.7	3,407,009	2.8	33.4	3,050,000	5.2	37.3	2,827,652	3.3	40.2	2,441,491	3.6	46.5	2.8	4.1
2006	1,170,422	3.0	3,592,207	5.4	32.6	3,232,350	6.0	36.2	3,010,331	6.5	38.9	2,584,440	5.9	45.3	2.2	3.1
2007	1,205,535	3.0	3,864,935	7.6	31.2	3,445,830	6.6	35.0	3,160,038	5.0	38.1	2,731,890	5.7	44.1	2.5	3.1
2007 (계측치)	1,232,569	5.3	3,864,935		31.9	3,445,830		35.8	3,160,038		39.0	2,731,890		45.1		
2008	1,265,848	5.0	4,102,283	6.1	30.9	3,638,480	5.6	34.8	3,398,044	7.5	37.3	2,982,148	9.2	42.4	4.7	5.4
2009	1,326,609	4.8	4,048,573	-1.3	32.8	3,604,950	-0.9	36.8	3,385,410	-0.4	39.2	2,903,539	-2.6	45.7	2.8	2.1
2010	1,363,091	2.8														

- 주: 1) 4인가구 최저생계비  
 2) 각종지표의 전년대비 상승률  
 3) 각종지표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부표 6-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전가구)

(단위: 원, %)

구 분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중위 소득			평균 가계지출			중위 가계지출		
	금액	상승률	금액	상승률	비율	금액	상승률	비율	금액	상승률	비율	금액	상승률	비율
2003	1,019,411	3.0	2,833,945		36.0	2,505,000		40.7	2,422,271		42.1	2,104,760		48.4
2004	1,055,090	3.5	3,065,232	8.2	34.4	2,720,000	8.6	38.8	2,629,009	8.5	40.1	2,265,690	7.6	46.6
2004 (계측치)	1,103,235	8.2	3,065,232		36.0	2,720,000		40.6	2,629,009		42.0	2,265,690		48.7
2005	1,136,332	7.7	3,164,677	3.2	35.9	2,866,300	5.4	39.6	2,740,610	4.2	41.5	2,354,218	3.9	48.3
2006	1,170,422	3.0	3,362,513	6.3	34.8	3,002,200	4.7	39.0	2,942,954	7.4	39.8	2,477,586	5.2	47.2
2007	1,205,535	3.0	3,565,854	6.0	33.8	3,194,960	6.4	37.7	3,037,390	3.2	39.7	2,565,746	3.6	47.0
2007 (계측치)	1,232,569	5.3	3,565,854		34.6	3,194,960		38.6	3,037,390		40.6	2,565,746		48.0
2008	1,265,848	5.0	3,775,382	5.9	33.5	3,345,000	4.7	37.8	3,191,046	5.1	39.7	2,738,537	6.7	46.2
2009	1,326,609	4.8	3,842,615	1.8	34.5	3,461,860	3.5	38.3	3,254,663	2.0	40.8	2,770,325	1.2	47.9
2010	1,363,091	2.8												

## 지역구분을 위한 ANOVA 분석결과

가. 기존 3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 기술통계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아파트-자가	대도시	217	10858.62	8521.361	578.468
	중소도시	204	6716.53	3984.359	278.961
	농어촌	60	3803.00	1441.262	186.066
	Total	481	8221.77	6796.488	309.893
단독주택-자가	대도시	217	12183.39	10750.564	729.796
	중소도시	204	7102.69	5430.008	380.177
	농어촌	60	3649.83	1891.794	244.230
	Total	481	8964.10	8637.490	393.836
연립주택등-자가	대도시	217	8692.51	6274.450	425.937
	중소도시	204	5190.47	3288.911	230.270
	농어촌	60	3092.50	1177.538	152.019
	Total	481	6508.69	5178.258	236.108
자가_Avg	대도시	217	10578.17	8100.820	549.920
	중소도시	204	6336.56	3906.856	273.535
	농어촌	60	3515.11	1333.376	172.138
	Total	481	7898.19	6548.975	298.608
아파트-전세	대도시	217	5924.56	3753.398	254.797
	중소도시	204	3964.71	1984.616	138.951
	농어촌	60	2345.00	1041.906	134.509
	Total	481	4646.84	3120.400	142.278
단독주택-전세	대도시	217	4612.12	3101.518	210.545
	중소도시	204	3171.81	1654.142	115.813
	농어촌	60	1855.00	983.452	126.963
	Total	481	3657.34	2554.047	116.455
연립주택등-전세	대도시	216	4593.98	2438.320	165.907
	중소도시	204	3249.02	2720.670	190.485
	농어촌	60	1941.67	728.661	94.070
	Total	480	3690.83	2589.438	118.191
전세_Avg	대도시	216	5050.09	2926.246	199.106
	중소도시	204	3461.85	1790.931	125.390
	농어촌	60	2047.22	837.808	108.161
	Total	480	3999.73	2527.350	115.357
아파트-월세	대도시	217	48.89	25.038	1.700
	중소도시	204	36.75	14.039	.983
	농어촌	60	23.70	7.228	.933
	Total	481	40.60	21.093	.962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단독주택-월세	대도시	217	38.30	17.959	1.219
	중소도시	204	28.57	12.246	.857
	농어촌	60	18.73	8.190	1.057
	Total	481	31.73	16.177	.738
연립주택등-월세	대도시	217	39.53	16.480	1.119
	중소도시	204	29.00	11.108	.778
	농어촌	60	20.82	8.420	1.087
	Total	481	32.73	15.089	.688
월세_Avg	대도시	217	42.24	18.751	1.273
	중소도시	204	31.44	11.372	.796
	농어촌	60	21.08	7.089	.915
	Total	481	35.02	16.504	.753

## (2) 분산분석표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자가	Between Groups	3142537902.767	2	1571268951.384	39.468	.000
	Within Groups	19029742292.077	478	39811176.343		
	Total	22172280194.844	480			
단독주택-자가	Between Groups	4650270548.843	2	2325135274.421	35.667	.000
	Within Groups	31160725295.960	478	65189801.874		
	Total	35810995844.802	480			
연립주택등-자가	Between Groups	2089602126.417	2	1044801063.208	46.322	.000
	Within Groups	10781290552.045	478	22555001.155		
	Total	12870892678.462	480			
자가_Avg	Between Groups	3208735605.183	2	1604367802.591	44.130	.000
	Within Groups	17378020403.268	478	36355691.220		
	Total	20586756008.450	480			
아파트-전세	Between Groups	767099230.911	2	383549615.455	46.930	.000
	Within Groups	3906611365.763	478	8172827.125		
	Total	4673710596.674	480			
단독주택-전세	Between Groups	440814039.957	2	220407019.978	39.161	.000
	Within Groups	2690301953.806	478	5628246.765		
	Total	3131115993.763	480			
연립주택등-전세	Between Groups	399581853.486	2	199790926.743	33.888	.000
	Within Groups	2812202813.181	477	5895603.382		
	Total	3211784666.667	479			
전세_Avg	Between Groups	526062725.086	2	263031362.543	49.522	.000
	Within Groups	2533549050.817	477	5311423.587		
	Total	3059611775.903	479			
아파트-월세	Between Groups	35063.669	2	17531.834	46.948	.000
	Within Groups	178499.691	478	373.430		
	Total	213563.360	480			
단독주택-월세	Between Groups	21552.239	2	10776.119	49.496	.000
	Within Groups	104067.699	478	217.715		
	Total	125619.938	480			
연립주택등-월세	Between Groups	21395.289	2	10697.644	58.176	.000
	Within Groups	87896.034	478	183.883		
	Total	109291.322	480			
월세_Avg	Between Groups	25584.576	2	12792.288	58.143	.000
	Within Groups	105166.328	478	220.013		
	Total	130750.903	480			

## (3) 사후검정표 (Sheffe 검증)

Dependent Variable	(I) 기준 3지역구분	(J) 기준 3지역구분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자가	대도시	중소도시	4142.088**	615.317	.000
		농어촌	7055.618**	920.316	.000
	중소도시	대도시	-4142.088**	615.317	.000
		농어촌	2913.529**	926.646	.008
	농어촌	대도시	-7055.618**	920.316	.000
		중소도시	-2913.529**	926.646	.008
단독주택-자가	대도시	중소도시	5080.705**	787.383	.000
		농어촌	8533.558**	1177.672	.000
	중소도시	대도시	-5080.705**	787.383	.000
		농어촌	3452.853*	1185.772	.015
	농어촌	대도시	-8533.558**	1177.672	.000
		중소도시	-3452.853*	1185.772	.015
연립주택등-자가	대도시	중소도시	3502.041**	463.146	.000
		농어촌	5600.012**	692.717	.000
	중소도시	대도시	-3502.041**	463.146	.000
		농어촌	2097.971*	697.481	.011
	농어촌	대도시	-5600.012**	692.717	.000
		중소도시	-2097.971*	697.481	.011
자가_Avg	대도시	중소도시	4241.611**	588.007	.000
		농어촌	7063.062**	879.469	.000
	중소도시	대도시	-4241.611**	588.007	.000
		농어촌	2821.451**	885.518	.007
	농어촌	대도시	-7063.062**	879.469	.000
		중소도시	-2821.451**	885.518	.007
아파트-전세	대도시	중소도시	1959.856**	278.793	.000
		농어촌	3579.562**	416.985	.000
	중소도시	대도시	-1959.856**	278.793	.000
		농어촌	1619.706**	419.853	.001
	농어촌	대도시	-3579.562**	416.985	.000
		중소도시	-1619.706**	419.853	.001
단독주택-전세	대도시	중소도시	1440.306**	231.357	.000
		농어촌	2757.120**	346.036	.000
	중소도시	대도시	-1440.306**	231.357	.000
		농어촌	1316.814**	348.416	.001
	농어촌	대도시	-2757.120**	346.036	.000
		중소도시	-1316.814**	348.416	.001
연립주택등-전세	대도시	중소도시	1344.962**	237.054	.000
		농어촌	2652.315**	354.337	.000
	중소도시	대도시	-1344.962**	237.054	.000
		농어촌	1307.353**	356.595	.001
	농어촌	대도시	-2652.315**	354.337	.000
		중소도시	-1307.353**	356.595	.001



Dependent Variable	(I) 기준 3지역구분	(J) 기준 3지역구분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전세_Avg	대도시	중소도시	1588.246**	225.003	.000
		농어촌	3002.870**	336.324	.000
	중소도시	대도시	-1588.246**	225.003	.000
		농어촌	1414.624**	338.467	.000
	농어촌	대도시	-3002.870**	336.324	.000
		중소도시	-1414.624**	338.467	.000
아파트-월세	대도시	중소도시	12.134**	1.885	.000
		농어촌	25.189**	2.819	.000
	중소도시	대도시	-12.134**	1.885	.000
		농어촌	13.055**	2.838	.000
	농어촌	대도시	-25.189**	2.819	.000
		중소도시	-13.055**	2.838	.000
단독주택-월세	대도시	중소도시	9.736**	1.439	.000
		농어촌	19.571**	2.152	.000
	중소도시	대도시	-9.736**	1.439	.000
		농어촌	9.835**	2.167	.000
	농어촌	대도시	-19.571**	2.152	.000
		중소도시	-9.835**	2.167	.000
연립주택등-월세	대도시	중소도시	10.535**	1.322	.000
		농어촌	18.713**	1.978	.000
	중소도시	대도시	-10.535**	1.322	.000
		농어촌	8.178**	1.992	.000
	농어촌	대도시	-18.713**	1.978	.000
		중소도시	-8.178**	1.992	.000
월세_Avg	대도시	중소도시	10.802**	1.447	.000
		농어촌	21.158**	2.164	.000
	중소도시	대도시	-10.802**	1.447	.000
		농어촌	10.356**	2.178	.000
	농어촌	대도시	-21.158**	2.164	.000
		중소도시	-10.356**	2.178	.000

주: \* p<.05, \*\* p<.01

나. 수도권 분리 3지역 : 수도권 - 지방 도시 - 지방 농어촌

(1) 기술통계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아파트-자가	수도권	143	15470.28	8262.043	690.907
	지방도시	279	5439.94	2349.772	140.677
	지방농어촌	59	3808.14	1453.079	189.175
	Total	481	8221.77	6796.488	309.893
단독주택-자가	수도권	143	17562.35	11323.584	946.926
	지방도시	279	5685.76	2776.312	166.213
	지방농어촌	59	3626.95	1899.639	247.312
	Total	481	8964.10	8637.490	393.836
연립주택등-자가	수도권	143	12010.31	6278.692	525.051
	지방도시	279	4410.95	1845.866	110.509
	지방농어촌	59	3094.07	1187.582	154.610
	Total	481	6508.69	5178.258	236.108
자가_Avg	수도권	143	15014.31	7882.332	659.154
	지방도시	279	5178.88	2093.640	125.343
	지방농어촌	59	3509.72	1344.162	174.995
	Total	481	7898.19	6548.975	298.608
아파트-전세	수도권	143	7742.31	3806.404	318.307
	지방도시	279	3545.81	1384.555	82.891
	지방농어촌	59	2350.85	1049.856	136.680
	Total	481	4646.84	3120.400	142.278
단독주택-전세	수도권	143	5871.33	3412.232	285.345
	지방도시	279	2904.23	1152.647	69.007
	지방농어촌	59	1852.54	991.708	129.109
	Total	481	3657.34	2554.047	116.455
연립주택등-전세	수도권	143	5727.97	2469.573	206.516
	지방도시	278	3014.39	2258.612	135.463
	지방농어촌	59	1940.68	734.875	95.673
	Total	480	3690.83	2589.438	118.191
전세_Avg	수도권	143	6447.20	2990.608	250.087
	지방도시	278	3154.99	1300.492	77.998
	지방농어촌	59	2048.02	844.977	110.007
	Total	480	3999.73	2527.350	115.357
아파트-월세	수도권	143	61.46	24.104	2.016
	지방도시	279	33.51	11.169	.669
	지방농어촌	59	23.59	7.242	.943
	Total	481	40.60	21.093	.962
단독주택-월세	수도권	143	45.67	17.233	1.441
	지방도시	279	27.36	11.425	.684
	지방농어촌	59	18.63	8.219	1.070
	Total	481	31.73	16.177	.738
연립주택등-월세	수도권	143	46.54	16.112	1.347
	지방도시	279	28.20	9.809	.587
	지방농어촌	59	20.66	8.405	1.094
	Total	481	32.73	15.089	.688
월세_Avg	수도권	143	51.22	17.503	1.464
	지방도시	279	29.69	9.892	.592
	지방농어촌	59	20.96	7.085	.922
	Total	481	35.02	16.504	.753

## (2) 분산분석표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자가	Between Groups	10821747988.279	2	5410873994.139	227.866	.000
	Within Groups	11350532206.565	478	23745883.277		
	Total	22172280194.844	480			
단독주택-자가	Between Groups	15251150725.050	2	7625575362.525	177.289	.000
	Within Groups	20559845119.752	478	43012228.284		
	Total	35810995844.803	480			
연립주택등-자가	Between Groups	6243964221.499	2	3121982110.750	225.188	.000
	Within Groups	6626928456.962	478	13863867.065		
	Total	12870892678.462	480			
자가_Avg	Between Groups	10440772963.733	2	5220386481.867	245.944	.000
	Within Groups	10145983044.717	478	21225905.951		
	Total	20586756008.450	480			
아파트-전세	Between Groups	2019462607.037	2	1009731303.518	181.841	.000
	Within Groups	2654247989.637	478	5552820.062		
	Total	4673710596.674	480			
단독주택-전세	Between Groups	1051372018.247	2	525686009.124	120.822	.000
	Within Groups	2079743975.516	478	4350928.819		
	Total	3131115993.763	480			
연립주택등-전세	Between Groups	901366735.854	2	450683367.927	93.046	.000
	Within Groups	2310417930.813	477	4843643.461		
	Total	3211784666.667	479			
전세_Avg	Between Groups	1279705897.743	2	639852948.871	171.475	.000
	Within Groups	1779905878.160	477	3731458.864		
	Total	3059611775.903	479			
아파트-월세	Between Groups	93341.842	2	46670.921	185.563	.000
	Within Groups	120221.518	478	251.509		
	Total	213563.360	480			
단독주택-월세	Between Groups	43246.151	2	21623.076	125.475	.000
	Within Groups	82373.786	478	172.330		
	Total	125619.938	480			
연립주택등-월세	Between Groups	41583.804	2	20791.902	146.786	.000
	Within Groups	67707.519	478	141.648		
	Total	109291.322	480			
월세_Avg	Between Groups	57136.967	2	28568.483	185.505	.000
	Within Groups	73613.936	478	154.004		
	Total	130750.903	480			

## (3) 사후검정표 (Sheffe 검증)

Dependent Variable	(I) 수도권분리 3지역구분	(J) 수도권분리 3지역구분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자가	수도권	지방도시	10030.344**	501.164	.000
		지방농어촌	11662.144**	754.008	.000
	지방도시	수도권	-10030.344**	501.164	.000
		지방농어촌	1631.800	698.272	.066
	지방농어촌	수도권	-11662.144**	754.008	.000
		지방도시	-1631.800	698.272	.066
단독주택-자가	수도권	지방도시	11876.586**	674.500	.000
		지방농어촌	13935.400**	1014.793	.000
	지방도시	수도권	-11876.586**	674.500	.000
		지방농어촌	2058.814	939.780	.092
	지방농어촌	수도권	-13935.400**	1014.793	.000
		지방도시	-2058.814	939.780	.092
연립주택등-자가	수도권	지방도시	7599.361**	382.938	.000
		지방농어촌	8916.247**	576.134	.000
	지방도시	수도권	-7599.361**	382.938	.000
		지방농어촌	1316.886*	533.547	.048
	지방농어촌	수도권	-8916.247**	576.134	.000
		지방도시	-1316.886*	533.547	.048
자가_Avg	수도권	지방도시	9835.431**	473.826	.000
		지방농어촌	11504.597**	712.877	.000
	지방도시	수도권	-9835.431**	473.826	.000
		지방농어촌	1669.167*	660.182	.042
	지방농어촌	수도권	-11504.597**	712.877	.000
		지방도시	-1669.167*	660.182	.042
아파트-전세	수도권	지방도시	4196.501**	242.350	.000
		지방농어촌	5391.460**	364.618	.000
	지방도시	수도권	-4196.501**	242.350	.000
		지방농어촌	1194.959**	337.666	.002
	지방농어촌	수도권	-5391.460**	364.618	.000
		지방도시	-1194.959**	337.666	.002
단독주택-전세	수도권	지방도시	2967.099**	214.525	.000
		지방농어촌	4018.786**	322.755	.000
	지방도시	수도권	-2967.099**	214.525	.000
		지방농어촌	1051.687**	298.897	.002
	지방농어촌	수도권	-4018.786**	322.755	.000
		지방도시	-1051.687**	298.897	.002
연립주택등-전세	수도권	지방도시	2713.584**	226.484	.000
		지방농어촌	3787.294**	340.540	.000
	지방도시	수도권	-2713.584**	226.484	.000
		지방농어촌	1073.711**	315.466	.003
	지방농어촌	수도권	-3787.294**	340.540	.000
		지방도시	-1073.711**	315.466	.003
전세_Avg	수도권	지방도시	3292.215**	198.788	.000
		지방농어촌	4399.180**	298.897	.000
	지방도시	수도권	-3292.215**	198.788	.000
		지방농어촌	1106.965**	276.889	.000
	지방농어촌	수도권	-4399.180**	298.897	.000
		지방도시	-1106.965**	276.889	.000

Dependent Variable	(I) 수도권분리 3지역구분	(J) 수도권분리 3지역구분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월세	수도권	지방도시	27.956**	1.631	.000
		지방농어촌	37.868**	2.454	.000
	지방도시	수도권	-27.956**	1.631	.000
		지방농어촌	9.912**	2.273	.000
	지방농어촌	수도권	-37.868**	2.454	.000
		지방도시	-9.912**	2.273	.000
단독주택-월세	수도권	지방도시	18.309**	1.350	.000
		지방농어촌	27.044**	2.031	.000
	지방도시	수도권	-18.309**	1.350	.000
		지방농어촌	8.735**	1.881	.000
	지방농어촌	수도권	-27.044**	2.031	.000
		지방도시	-8.735**	1.881	.000
연립주택등-월세	수도권	지방도시	18.338**	1.224	.000
		지방농어촌	25.877**	1.842	.000
	지방도시	수도권	-18.338**	1.224	.000
		지방농어촌	7.540**	1.705	.000
	지방농어촌	수도권	-25.877**	1.842	.000
		지방도시	-7.540**	1.705	.000
월세_Avg	수도권	지방도시	21.534**	1.276	.000
		지방농어촌	30.263**	1.920	.000
	지방도시	수도권	-21.534**	1.276	.000
		지방농어촌	8.729**	1.778	.000
	지방농어촌	수도권	-30.263**	1.920	.000
		지방도시	-8.729**	1.778	.000

주: \* p<.05, \*\* p<.01

다. 수도권 분리 4지역 : 수도권 - 지방 광역시 - 지방 중소도시 - 지방 농어촌

(1) 기술통계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아파트-자가	수도권	143	15470.28	8262.043	690.907
	지방광역시	132	6095.61	2378.422	207.015
	지방중소도시	147	4851.17	2167.949	178.809
	지방농어촌	59	3808.14	1453.079	189.175
	Total	481	8221.77	6796.488	309.893
단독주택-자가	수도권	143	17562.35	11323.584	946.926
	지방광역시	132	6658.94	2890.296	251.568
	지방중소도시	147	4811.89	2357.121	194.412
	지방농어촌	59	3626.95	1899.639	247.312
	Total	481	8964.10	8637.490	393.836
연립주택등-자가	수도권	143	12010.31	6278.692	525.051
	지방광역시	132	5146.97	2000.494	174.121
	지방중소도시	147	3750.04	1402.618	115.686
	지방농어촌	59	3094.07	1187.582	154.610
	Total	481	6508.69	5178.258	236.108
자가_Avg	수도권	143	15014.31	7882.332	659.154
	지방광역시	132	5967.17	2187.801	190.424
	지방중소도시	147	4471.03	1727.812	142.508
	지방농어촌	59	3509.72	1344.162	174.995
	Total	481	7898.19	6548.975	298.608
아파트-전세	수도권	143	7742.31	3806.404	318.307
	지방광역시	132	4051.36	1415.053	123.165
	지방중소도시	147	3091.84	1189.510	98.109
	지방농어촌	59	2350.85	1049.856	136.680
	Total	481	4646.84	3120.400	142.278
단독주택-전세	수도권	143	5871.33	3412.232	285.345
	지방광역시	132	3285.83	1108.077	96.446
	지방중소도시	147	2561.56	1085.459	89.527
	지방농어촌	59	1852.54	991.708	129.109
	Total	481	3657.34	2554.047	116.455
연립주택등-전세	수도권	143	5727.97	2469.573	206.516
	지방광역시	131	3363.36	1173.109	102.495
	지방중소도시	147	2703.40	2871.677	236.852
	지방농어촌	59	1940.68	734.875	95.673
	Total	480	3690.83	2589.438	118.191
전세_Avg	수도권	143	6447.20	2990.608	250.087
	지방광역시	131	3569.49	1105.172	96.559
	지방중소도시	147	2785.60	1352.665	111.566
	지방농어촌	59	2048.02	844.977	110.007
	Total	480	3999.73	2527.350	115.357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아파트-월세	수도권	143	61.46	24.104	2.016
	지방광역시	132	36.23	12.383	1.078
	지방중소도시	147	31.06	9.340	.770
	지방농어촌	59	23.59	7.242	.943
	Total	481	40.60	21.093	.962
단독주택-월세	수도권	143	45.67	17.233	1.441
	지방광역시	132	30.27	11.807	1.028
	지방중소도시	147	24.75	10.436	.861
	지방농어촌	59	18.63	8.219	1.070
	Total	481	31.73	16.177	.738
연립주택등-월세	수도권	143	46.54	16.112	1.347
	지방광역시	132	31.88	10.335	.900
	지방중소도시	147	24.90	8.009	.661
	지방농어촌	59	20.66	8.405	1.094
	Total	481	32.73	15.089	.688
월세_Avg	수도권	143	51.22	17.503	1.464
	지방광역시	132	32.79	10.590	.922
	지방중소도시	147	26.90	8.316	.686
	지방농어촌	59	20.96	7.085	.922
	Total	481	35.02	16.504	.753

## (2) 분산분석표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자가	Between Groups	10929452076.854	3	3643150692.285	154.568	.000
	Within Groups	11242828117.990	477	23569870.268		
	Total	22172280194.844	480			
단독주택-자가	Between Groups	15488421111.664	3	5162807037.221	121.178	.000
	Within Groups	20322574733.139	477	42604978.476		
	Total	35810995844.803	480			
연립주택등-자가	Between Groups	6379681660.260	3	2126560553.420	156.268	.000
	Within Groups	6491211018.202	477	13608408.843		
	Total	12870892678.462	480			
자가_Avg	Between Groups	10596452022.715	3	3532150674.238	168.647	.000
	Within Groups	9990303985.735	477	20944033.513		
	Total	20586756008.450	480			
아파트-전세	Between Groups	2083495241.958	3	694498413.986	127.895	.000
	Within Groups	2590215354.716	477	5430220.869		
	Total	4673710596.674	480			
단독주택-전세	Between Groups	1087854679.097	3	362618226.366	84.653	.000
	Within Groups	2043261314.666	477	4283566.697		
	Total	3131115993.763	480			
연립주택등-전세	Between Groups	931536760.440	3	310512253.480	64.819	.000
	Within Groups	2280247906.227	476	4790436.778		
	Total	3211784666.667	479			
전세_Avg	Between Groups	1322271059.710	3	440757019.903	120.759	.000
	Within Groups	1737340716.193	476	3649875.454		
	Total	3059611775.903	479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월세	Between Groups	95197.953	3	31732.651	127.879	.000
	Within Groups	118365.407	477	248.146		
	Total	213563.360	480			
단독주택-월세	Between Groups	45368.720	3	15122.907	89.888	.000
	Within Groups	80251.218	477	168.242		
	Total	125619.938	480			
연립주택등-월세	Between Groups	44973.033	3	14991.011	111.177	.000
	Within Groups	64318.289	477	134.839		
	Total	109291.322	480			
월세_Avg	Between Groups	59550.103	3	19850.034	132.983	.000
	Within Groups	71200.800	477	149.268		
	Total	130750.903	480			

### (3) 사후검정표 (Sheffe 검증)

Dependent Variable	(I) 수도권분리 4지역구분	(J) 수도권분리 4지역구분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자가	수도권	지방광역시	9374.674**	585.990	.000
		지방중소도시	10619.110**	570.231	.000
		지방농어촌	11662.144**	751.208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9374.674**	585.990	.000
		지방중소도시	1244.436	582.150	.208
		지방농어촌	2287.470**	760.295	.030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10619.110**	570.231	.000
		지방광역시	-1244.436	582.150	.208
		지방농어촌	1043.034	748.217	.585
	지방농어촌	수도권	-11662.144**	751.208	.000
		지방광역시	-2287.470**	760.295	.030
		지방중소도시	-1043.034	748.217	.585
단독주택-자가	수도권	지방광역시	10903.410**	787.846	.000
		지방중소도시	12750.458**	766.659	.000
		지방농어촌	13935.400**	1009.978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10903.410**	787.846	.000
		지방중소도시	1847.048	782.684	.136
		지방농어촌	3031.990*	1022.195	.033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12750.458**	766.659	.000
		지방광역시	-1847.048	782.684	.136
		지방농어촌	1184.942	1005.956	.709
	지방농어촌	수도권	-13935.400**	1009.978	.000
		지방광역시	-3031.990*	1022.195	.033
		지방중소도시	-1184.942	1005.956	.709
연립주택등-자가	수도권	지방광역시	6863.345**	445.261	.000
		지방중소도시	8260.274**	433.287	.000
		지방농어촌	8916.247**	570.802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6863.345**	445.261	.000



	지방중소도시	지방중소도시	1396.929*	442.344	.020
		지방농어촌	2052.902**	577.707	.006
		수도권	-8260.274**	433.287	.000
		지방광역시	-1396.929*	442.344	.020
	지방농어촌	지방농어촌	655.973	568.529	.722
		수도권	-8916.247**	570.802	.000
		지방광역시	-2052.902**	577.707	.006
		지방중소도시	-655.973	568.529	.722
자가_Avg	수도권	지방광역시	9047.143**	552.385	.000
		지방중소도시	10543.281**	537.530	.000
		지방농어촌	11504.597**	708.128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9047.143**	552.385	.000
		지방중소도시	1496.138	548.765	.061
		지방농어촌	2457.454**	716.694	.009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10543.281**	537.530	.000
		지방광역시	-1496.138	548.765	.061
		지방농어촌	961.316	705.308	.603
	지방농어촌	수도권	-11504.597**	708.128	.000
		지방광역시	-2457.454**	716.694	.009
		지방중소도시	-961.316	705.308	.603
아파트-전세	수도권	지방광역시	3690.944**	281.268	.000
		지방중소도시	4650.471**	273.704	.000
		지방농어촌	5391.460**	360.571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3690.944**	281.268	.000
		지방중소도시	959.527**	279.425	.009
		지방농어촌	1700.516**	364.932	.000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4650.471**	273.704	.000
		지방광역시	-959.527**	279.425	.009
		지방농어촌	740.989	359.135	.236
	지방농어촌	수도권	-5391.460**	360.571	.000
		지방광역시	-1700.516**	364.932	.000
		지방중소도시	-740.989	359.135	.236
단독주택-전세	수도권	지방광역시	2585.495**	249.812	.000
		지방중소도시	3309.764**	243.094	.000
		지방농어촌	4018.786**	320.247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2585.495**	249.812	.000
		지방중소도시	724.269*	248.176	.038
		지방농어촌	1433.291**	324.120	.000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3309.764**	243.094	.000
		지방광역시	-724.269*	248.176	.038
		지방농어촌	709.022	318.971	.178
	지방농어촌	수도권	-4018.786**	320.247	.000
		지방광역시	-1433.291**	324.120	.000
		지방중소도시	-709.022	318.971	.178
연립주택등-전세	수도권	지방광역시	2364.613**	264.703	.000
		지방중소도시	3024.571**	257.075	.000

617

부  
록

		지방광역시	지방농어촌	3787.294**	338.664	.000
			수도권	-2364.613**	264.703	.000
			지방중소도시	659.957	262.976	.099
		지방중소도시	지방농어촌	1422.681**	343.165	.001
			수도권	-3024.571**	257.075	.000
			지방광역시	-659.957	262.976	.099
		지방농어촌	지방농어촌	762.723	337.316	.165
			수도권	-3787.294**	338.664	.000
			지방광역시	-1422.681**	343.165	.001
	전세_Avg	수도권	지방광역시	2877.712**	231.052	.000
			지방중소도시	3661.602**	224.394	.000
			지방농어촌	4399.180**	295.611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2877.712**	231.052	.000
			지방중소도시	783.890**	229.545	.009
			지방농어촌	1521.468**	299.540	.000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3661.602**	224.394	.000
			지방광역시	-783.890**	229.545	.009
			지방농어촌	737.578	294.434	.100
		지방농어촌	수도권	-4399.180**	295.611	.000
			지방광역시	-1521.468**	299.540	.000
			지방중소도시	-737.578	294.434	.100
	아파트-월세	수도권	지방광역시	25.234**	1.901	.000
			지방중소도시	30.400**	1.850	.000
			지방농어촌	37.868**	2.437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25.234**	1.901	.000
			지방중소도시	5.166	1.889	.059
			지방농어촌	12.634**	2.467	.000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30.400**	1.850	.000
			지방광역시	-5.166	1.889	.059
			지방농어촌	7.468*	2.428	.025
		지방농어촌	수도권	-37.868**	2.437	.000
			지방광역시	-12.634**	2.467	.000
			지방중소도시	-7.468*	2.428	.025
	단독주택-월세	수도권	지방광역시	15.399**	1.566	.000
			지방중소도시	20.923**	1.523	.000
			지방농어촌	27.044**	2.007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15.399**	1.566	.000
			지방중소도시	5.524**	1.555	.006
			지방농어촌	11.646**	2.031	.000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20.923**	1.523	.000
			지방광역시	-5.524**	1.555	.006
			지방농어촌	6.121*	1.999	.026
		지방농어촌	수도권	-27.044**	2.007	.000
			지방광역시	-11.646**	2.031	.000
			지방중소도시	-6.121*	1.999	.026

연립주택등-월세	수도권	지방광역시	14.660**	1.402	.000
		지방중소도시	21.641**	1.364	.000
		지방농어촌	25.877**	1.797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14.660**	1.402	.000
		지방중소도시	6.981**	1.392	.000
		지방농어촌	11.218**	1.818	.000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21.641**	1.364	.000
		지방광역시	-6.981**	1.392	.000
		지방농어촌	4.237	1.790	.134
	지방농어촌	수도권	-25.877**	1.797	.000
		지방광역시	-11.218**	1.818	.000
		지방중소도시	-4.237	1.790	.134
월세_Avg	수도권	지방광역시	18.431**	1.475	.000
		지방중소도시	24.321**	1.435	.000
		지방농어촌	30.263**	1.890	.000
	지방광역시	수도권	-18.431**	1.475	.000
		지방중소도시	5.890**	1.465	.001
		지방농어촌	11.832**	1.913	.000
	지방중소도시	수도권	-24.321**	1.435	.000
		지방광역시	-5.890**	1.465	.001
		지방농어촌	5.942*	1.883	.020
	지방농어촌	수도권	-30.263**	1.890	.000
		지방광역시	-11.832**	1.913	.000
		지방중소도시	-5.942*	1.883	.020

주: \* p<.05, \*\* p<.01

라. 서울 분리 4지역 :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1) 기술통계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아파트-자가	서울	57	21886.84	9272.504	1228.173
	광역시	160	6929.81	3038.095	240.183
	중소도시	204	6716.53	3984.359	278.961
	농어촌	60	3803.00	1441.262	186.066
	Total	481	8221.77	6796.488	309.893
단독주택-자가	서울	57	24710.28	13491.835	1787.037
	광역시	160	7720.69	4074.261	322.099
	중소도시	204	7102.69	5430.008	380.177
	농어촌	60	3649.83	1891.794	244.230
	Total	481	8964.10	8637.490	393.836
연립주택등-자가	서울	57	17073.25	6230.964	825.311
	광역시	160	5706.88	2378.775	188.059
	중소도시	204	5190.47	3288.911	230.270
	농어촌	60	3092.50	1177.538	152.019
	Total	481	6508.69	5178.258	236.108
자가_Avg	서울	57	21223.46	8532.254	1130.125
	광역시	160	6785.79	2900.189	229.280
	중소도시	204	6336.56	3906.856	273.535
	농어촌	60	3515.11	1333.376	172.138
	Total	481	7898.19	6548.975	298.608
아파트-전세	서울	57	10600.88	4238.098	561.350
	광역시	160	4258.63	1476.520	116.729
	중소도시	204	3964.71	1984.616	138.951
	농어촌	60	2345.00	1041.906	134.509
	Total	481	4646.84	3120.400	142.278
단독주택-전세	서울	57	7991.23	4209.355	557.543
	광역시	160	3408.31	1129.468	89.292
	중소도시	204	3171.81	1654.142	115.813
	농어촌	60	1855.00	983.452	126.963
	Total	481	3657.34	2554.047	116.455
연립주택등-전세	서울	57	7714.04	2328.813	308.459
	광역시	159	3475.47	1182.023	93.741
	중소도시	204	3249.02	2720.670	190.485
	농어촌	60	1941.67	728.661	94.070
	Total	480	3690.83	2589.438	118.191
전세_Avg	서울	57	8768.71	3184.773	421.833
	광역시	159	3717.00	1131.436	89.729
	중소도시	204	3461.85	1790.931	125.390
	농어촌	60	2047.22	837.808	108.161
	Total	480	3999.73	2527.350	115.357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아파트-월세	서울	57	80.02	24.662	3.267
	광역시	160	37.80	12.895	1.019
	중소도시	204	36.75	14.039	.983
	농어촌	60	23.70	7.228	.933
	Total	481	40.60	21.093	.962
단독주택-월세	서울	57	58.25	17.614	2.333
	광역시	160	31.20	11.642	.920
	중소도시	204	28.57	12.246	.857
	농어촌	60	18.73	8.190	1.057
	Total	481	31.73	16.177	.738
연립주택등-월세	서울	57	59.25	14.811	1.962
	광역시	160	32.51	10.135	.801
	중소도시	204	29.00	11.108	.778
	농어촌	60	20.82	8.420	1.087
	Total	481	32.73	15.089	.688
월세_Avg	서울	57	65.84	16.373	2.169
	광역시	160	33.84	10.610	.839
	중소도시	204	31.44	11.372	.796
	농어촌	60	21.08	7.089	.915
	Total	481	35.02	16.504	.753

## (2) 분산분석표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자가	Between Groups	12544658362.067	3	4181552787.356	207.175	.000
	Within Groups	9627621832.777	477	20183693.570		
	Total	22172280194.844	480			
단독주택-자가	Between Groups	16781395192.664	3	5593798397.555	140.215	.000
	Within Groups	19029600652.139	477	39894340.990		
	Total	35810995844.802	480			
연립주택등-자가	Between Groups	7519338320.577	3	2506446106.859	223.407	.000
	Within Groups	5351554357.885	477	11219191.526		
	Total	12870892678.462	480			
자가_Avg	Between Groups	11969237622.448	3	3989745874.149	220.842	.000
	Within Groups	8617518386.002	477	18066076.281		
	Total	20586756008.450	480			
아파트-전세	Between Groups	2457626260.680	3	819208753.560	176.330	.000
	Within Groups	2216084335.993	477	4645879.111		
	Total	4673710596.674	480			
단독주택-전세	Between Groups	1323525606.431	3	441175202.144	116.420	.000
	Within Groups	1807590387.332	477	3789497.667		
	Total	3131115993.763	480			
연립주택등-전세	Between Groups	1153380917.859	3	384460305.953	88.905	.000
	Within Groups	2058403748.807	476	4324377.624		
	Total	3211784666.667	479			
전세_Avg	Between Groups	1596830479.915	3	532276826.638	173.207	.000
	Within Groups	1462781295.988	476	3073069.950		
	Total	3059611775.903	479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월세	Between Groups	109970.432	3	36656.811	168.789	.000
	Within Groups	103592.928	477	217.176		
	Total	213563.360	480			
단독주택-월세	Between Groups	52294.004	3	17431.335	113.394	.000
	Within Groups	73325.934	477	153.723		
	Total	125619.938	480			
연립주택등-월세	Between Groups	51444.789	3	17148.263	141.404	.000
	Within Groups	57846.534	477	121.272		
	Total	109291.322	480			
월세_Avg	Between Groups	68623.150	3	22874.383	175.623	.000
	Within Groups	62127.753	477	130.247		
	Total	130750.903	480			

### (3) 사후검정표 (Sheffe 검증)

Dependent Variable	(I) 서울분리 4지역구분	(J) 서울분리 4지역구분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자가	서울	광역시	14957.030**	692.999	.000
		중소도시	15170.313**	673.082	.000
		농어촌	18083.842**	830.960	.000
	광역시	서울	-14957.030**	692.999	.000
		중소도시	213.283	474.434	.977
		농어촌	3126.813**	680.105	.000
	중소도시	서울	-15170.313**	673.082	.000
		광역시	-213.283	474.434	.977
		농어촌	2913.529**	659.799	.000
	농어촌	서울	-18083.842**	830.960	.000
		광역시	-3126.813**	680.105	.000
		중소도시	-2913.529**	659.799	.000
단독주택-자가	서울	광역시	16989.593**	974.290	.000
		중소도시	17607.594**	946.288	.000
		농어촌	21060.447**	1168.249	.000
	광역시	서울	-16989.593**	974.290	.000
		중소도시	618.001	667.008	.835
		농어촌	4070.854**	956.162	.000
	중소도시	서울	-17607.594**	946.288	.000
		광역시	-618.001	667.008	.835
		농어촌	3452.853**	927.613	.003
	농어촌	서울	-21060.447**	1168.249	.000
		광역시	-4070.854**	956.162	.000
		중소도시	-3452.853**	927.613	.003
연립주택등-자가	서울	광역시	11366.371**	516.670	.000
		중소도시	11882.775**	501.821	.000
		농어촌	13980.746**	619.528	.000

	광역시	서울	-11366.371**	516.670	.000
		중소도시	516.404	353.717	.546
		농어촌	2614.375**	507.057	.000
	중소도시	서울	-11882.775**	501.821	.000
		광역시	-516.404	353.717	.546
		농어촌	2097.971**	491.917	.000
	농어촌	서울	-13980.746**	619.528	.000
		광역시	-2614.375**	507.057	.000
		중소도시	-2097.971**	491.917	.000
자가_Avg	서울	광역시	14437.664**	655.638	.000
		중소도시	14886.894**	636.795	.000
		농어촌	17708.345**	786.162	.000
	광역시	서울	-14437.664**	655.638	.000
		중소도시	449.230	448.857	.801
		농어촌	3270.681**	643.439	.000
	중소도시	서울	-14886.894**	636.795	.000
		광역시	-449.230	448.857	.801
		농어촌	2821.451**	624.228	.000
	농어촌	서울	-17708.345**	786.162	.000
		광역시	-3270.681**	643.439	.000
		중소도시	-2821.451**	624.228	.000
아파트-전세	서울	광역시	6342.252**	332.481	.000
		중소도시	6636.171**	322.925	.000
		농어촌	8255.877**	398.670	.000
	광역시	서울	-6342.252**	332.481	.000
		중소도시	293.919	227.620	.644
		농어촌	1913.625**	326.294	.000
	중소도시	서울	-6636.171**	322.925	.000
		광역시	-293.919	227.620	.644
		농어촌	1619.706**	316.552	.000
	농어촌	서울	-8255.877**	398.670	.000
		광역시	-1913.625**	326.294	.000
		중소도시	-1619.706**	316.552	.000
단독주택-전세	서울	광역시	4582.916**	300.278	.000
		중소도시	4819.414**	291.648	.000
		농어촌	6136.228**	360.057	.000
	광역시	서울	-4582.916**	300.278	.000
		중소도시	236.499	205.573	.724
		농어촌	1553.313**	294.691	.000
	중소도시	서울	-4819.414**	291.648	.000
		광역시	-236.499	205.573	.724
		농어촌	1316.814**	285.892	.000
	농어촌	서울	-6136.228**	360.057	.000
		광역시	-1553.313**	294.691	.000
		중소도시	-1316.814**	285.892	.000
연립주택등-전세	서울	광역시	4238.563**	321.035	.000

623

부  
록

		중소도시	4465.015**	311.551	.000
		농어촌	5772.368**	384.629	.000
	광역시	서울	-4238.563**	321.035	.000
		중소도시	226.452	219.989	.787
		농어촌	1533.805**	315.072	.000
	중소도시	서울	-4465.015**	311.551	.000
		광역시	-226.452	219.989	.787
		농어촌	1307.353**	305.403	.000
	농어촌	서울	-5772.368**	384.629	.000
		광역시	-1533.805**	315.072	.000
중소도시		-1307.353**	305.403	.000	
전세_Avg	서울	광역시	5051.711**	270.631	.000
		중소도시	5306.867**	262.636	.000
		농어촌	6721.491**	324.240	.000
	광역시	서울	-5051.711**	270.631	.000
		중소도시	255.156	185.450	.595
		농어촌	1669.780**	265.604	.000
	중소도시	서울	-5306.867**	262.636	.000
		광역시	-255.156	185.450	.595
		농어촌	1414.624**	257.453	.000
	농어촌	서울	-6721.491**	324.240	.000
		광역시	-1669.780**	265.604	.000
		중소도시	-1414.624**	257.453	.000
아파트-월세	서울	광역시	42.218**	2.273	.000
		중소도시	43.263**	2.208	.000
		농어촌	56.318**	2.726	.000
	광역시	서울	-42.218**	2.273	.000
		중소도시	1.045	1.556	.929
		농어촌	14.100**	2.231	.000
	중소도시	서울	-43.263**	2.208	.000
		광역시	-1.045	1.556	.929
		농어촌	13.055**	2.164	.000
	농어촌	서울	-56.318**	2.726	.000
		광역시	-14.100**	2.231	.000
		중소도시	-13.055**	2.164	.000
단독주택-월세	서울	광역시	27.046**	1.913	.000
		중소도시	29.677**	1.858	.000
		농어촌	39.512**	2.293	.000
	광역시	서울	-27.046**	1.913	.000
		중소도시	2.631	1.309	.259
		농어촌	12.467**	1.877	.000
	중소도시	서울	-29.677**	1.858	.000
		광역시	-2.631	1.309	.259
		농어촌	9.835**	1.821	.000
	농어촌	서울	-39.512**	2.293	.000
광역시		-12.467**	1.877	.000	



		중소도시	-9.835**	1.821	.000
연립주택등-월세	서울	광역시	26.739**	1.699	.000
		중소도시	30.251**	1.650	.000
		농어촌	38.429**	2.037	.000
	광역시	서울	-26.739**	1.699	.000
		중소도시	3.511*	1.163	.029
		농어촌	11.690**	1.667	.000
	중소도시	서울	-30.251**	1.650	.000
		광역시	-3.511*	1.163	.029
		농어촌	8.178**	1.617	.000
	농어촌	서울	-38.429**	2.037	.000
		광역시	-11.690**	1.667	.000
		중소도시	-8.178**	1.617	.000
월세_Avg	서울	광역시	32.001**	1.760	.000
		중소도시	34.397**	1.710	.000
		농어촌	44.753**	2.111	.000
	광역시	서울	-32.001**	1.760	.000
		중소도시	2.396	1.205	.268
		농어촌	12.752**	1.728	.000
	중소도시	서울	-34.397**	1.710	.000
		광역시	-2.396	1.205	.268
		농어촌	10.356**	1.676	.000
	농어촌	서울	-44.753**	2.111	.000
		광역시	-12.752**	1.728	.000
		중소도시	-10.356**	1.676	.000

주: \* p<.05, \*\* p<.01

※ 서울 & 경기 분리 5지역: 서울 - 광역시 - 경기 중소도시 - 경기 이외 중소도시 - 농어촌

(1) 기술통계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아파트-자가	서울	57	21886.84	9272.504	1228.173
	광역시	160	6929.81	3038.095	240.183
	경기 중소도시	57	11527.19	3550.227	470.239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4851.17	2167.949	178.809
	농어촌	60	3803.00	1441.262	186.066
	Total	481	8221.77	6796.488	309.893
단독주택-자가	서울	57	24710.28	13491.835	1787.037
	광역시	160	7720.69	4074.261	322.099
	경기 중소도시	57	13010.53	6564.799	869.529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4811.89	2357.121	194.412
	농어촌	60	3649.83	1891.794	244.230
	Total	481	8964.10	8637.490	393.836
연립주택등-자가	서울	57	17073.25	6230.964	825.311
	광역시	160	5706.88	2378.775	188.059
	경기 중소도시	57	8905.26	3819.647	505.925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3750.04	1402.618	115.686
	농어촌	60	3092.50	1177.538	152.019
	Total	481	6508.69	5178.258	236.108
자가 Avg	서울	57	21223.46	8532.254	1130.125
	광역시	160	6785.79	2900.189	229.280
	경기 중소도시	57	11147.66	3853.771	510.444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4471.03	1727.812	142.508
	농어촌	60	3515.11	1333.376	172.138
	Total	481	7898.19	6548.975	298.608
아파트-전세	서울	57	10600.88	4238.098	561.350
	광역시	160	4258.63	1476.520	116.729
	경기 중소도시	57	6215.79	1852.295	245.342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3091.84	1189.510	98.109
	농어촌	60	2345.00	1041.906	134.509
	Total	481	4646.84	3120.400	142.278
단독주택-전세	서울	57	7991.23	4209.355	557.543
	광역시	160	3408.31	1129.468	89.292
	경기 중소도시	57	4745.61	1829.819	242.366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2561.56	1085.459	89.527
	농어촌	60	1855.00	983.452	126.963
	Total	481	3657.34	2554.047	116.455
연립주택등-전세	서울	57	7714.04	2328.813	308.459
	광역시	159	3475.47	1182.023	93.741
	경기 중소도시	57	4656.14	1592.395	210.918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2703.40	2871.677	236.852
	농어촌	60	1941.67	728.661	94.070
	Total	480	3690.83	2589.438	118.191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전세_Avg	서울	57	8768.71	3184.773	421.833
	광역시	159	3717.00	1131.436	89.729
	경기 중소도시	57	5205.85	1600.113	211.940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2785.60	1352.665	111.566
	농어촌	60	2047.22	837.808	108.161
	Total	480	3999.73	2527.350	115.357
아파트-월세	서울	57	80.02	24.662	3.267
	광역시	160	37.80	12.895	1.019
	경기 중소도시	57	51.44	13.509	1.789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31.06	9.340	.770
	농어촌	60	23.70	7.228	.933
	Total	481	40.60	21.093	.962
단독주택-월세	서울	57	58.25	17.614	2.333
	광역시	160	31.20	11.642	.920
	경기 중소도시	57	38.42	11.071	1.466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24.75	10.436	.861
	농어촌	60	18.73	8.190	1.057
	Total	481	31.73	16.177	.738
연립주택등-월세	서울	57	59.25	14.811	1.962
	광역시	160	32.51	10.135	.801
	경기 중소도시	57	39.56	11.060	1.465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24.90	8.009	.661
	농어촌	60	20.82	8.420	1.087
	Total	481	32.73	15.089	.688
월세_Avg	서울	57	65.84	16.373	2.169
	광역시	160	33.84	10.610	.839
	경기 중소도시	57	43.14	9.752	1.292
	경기이외 중소도시	147	26.90	8.316	.686
	농어촌	60	21.08	7.089	.915
	Total	481	35.02	16.504	.753

## (2) 분산분석표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자가	Between Groups	14375276075.265	4	3593819018.816	219.399	.000
	Within Groups	7797004119.579	476	16380260.755		
	Total	22172280194.844	480			
단독주택-자가	Between Groups	19542260022.116	4	4885565005.529	142.945	.000
	Within Groups	16268735822.686	476	34178016.434		
	Total	35810995844.802	480			
연립주택등-자가	Between Groups	8610921474.592	4	2152730368.648	240.541	.000
	Within Groups	4259971203.869	476	8949519.336		
	Total	12870892678.462	480			
자가_Avg	Between Groups	13800186533.723	4	3450046633.431	241.981	.000
	Within Groups	6786569474.728	476	14257498.896		
	Total	20586756008.450	480			

구 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아파트-전세	Between Groups	2858466149.478	4	714616537.369	187.389	.000
	Within Groups	1815244447.196	476	3813538.755		
	Total	4673710596.674	480			
단독주택-전세	Between Groups	1519449291.708	4	379862322.927	112.191	.000
	Within Groups	1611666702.055	476	3385854.416		
	Total	3131115993.763	480			
연립주택등-전세	Between Groups	1310002071.584	4	327500517.896	81.798	.000
	Within Groups	1901782595.083	475	4003752.832		
	Total	3211784666.667	479			
전세_Avg	Between Groups	1837422611.833	4	459355652.958	178.527	.000
	Within Groups	1222189164.069	475	2573029.819		
	Total	3059611775.903	479			
아파트-월세	Between Groups	127025.693	4	31756.423	174.676	.000
	Within Groups	86537.667	476	181.802		
	Total	213563.360	480			
단독주택-월세	Between Groups	59972.461	4	14993.115	108.713	.000
	Within Groups	65647.477	476	137.915		
	Total	125619.938	480			
연립주택등-월세	Between Groups	60276.279	4	15069.070	146.340	.000
	Within Groups	49015.043	476	102.973		
	Total	109291.322	480			
월세_Avg	Between Groups	79452.925	4	19863.231	184.313	.000
	Within Groups	51297.978	476	107.769		
	Total	130750.903	480			

### (3) 사후검정표 (Sheffe 검증)

Dependent Variable	(I) 서울경기분리 5지역구분	(J) 서울경기분리 5지역구분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아파트-자가	서울	광역시	14957.030**	624.299	.000
		경기 중소도시	10359.649**	758.120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7035.672**	631.509	.000
		농어촌	18083.842**	748.584	.000
	광역시	서울	-14957.030**	624.299	.000
		경기 중소도시	-4597.380**	624.299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2078.642**	462.393	.001
		농어촌	3126.813**	612.683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10359.649**	758.120	.000
		광역시	4597.380**	624.299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6676.023**	631.509	.000
		농어촌	7724.193**	748.584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17035.672**	631.509	.000
		광역시	-2078.642**	462.393	.001
		경기 중소도시	-6676.023**	631.509	.000

단독주택-자가	농어촌	농어촌	1048.170	620.028	.582
		서울	-18083.842**	748.584	.000
		광역시	-3126.813**	612.683	.000
		경기 중소도시	-7724.193**	748.584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048.170	620.028	.582
	서울	광역시	16989.593**	901.791	.000
		경기 중소도시	11699.754**	1095.093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9898.390**	912.205	.000
		농어촌	21060.447**	1081.318	.000
	광역시	서울	-16989.593**	901.791	.000
		경기 중소도시	-5289.839**	901.791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2908.796**	667.919	.001
		농어촌	4070.854**	885.012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11699.754**	1095.093	.000
		광역시	5289.839**	901.791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8198.635**	912.205	.000
		농어촌	9360.693**	1081.318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19898.390**	912.205	.000
		광역시	-2908.796**	667.919	.001
		경기 중소도시	-8198.635**	912.205	.000
		농어촌	1162.058	895.621	.794
	농어촌	서울	-21060.447**	1081.318	.000
		광역시	-4070.854**	885.012	.000
		경기 중소도시	-9360.693**	1081.318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162.058	895.621	.794
연립주택등-자가	서울	광역시	11366.371**	461.458	.000
		경기 중소도시	8167.982**	560.373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3323.205**	466.787	.000
		농어촌	13980.746**	553.324	.000
	광역시	서울	-11366.371**	461.458	.000
		경기 중소도시	-3198.388**	461.458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956.834**	341.783	.000
		농어촌	2614.375**	452.872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8167.982**	560.373	.000
		광역시	3198.388**	461.458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5155.222**	466.787	.000
		농어촌	5812.763**	553.324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13323.205**	466.787	.000
		광역시	-1956.834**	341.783	.000
		경기 중소도시	-5155.222**	466.787	.000
		농어촌	657.541	458.301	.725
	농어촌	서울	-13980.746**	553.324	.000
		광역시	-2614.375**	452.872	.000
		경기 중소도시	-5812.763**	553.324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657.541	458.301	.725
자가_Avg	서울	광역시	14437.664**	582.444	.000

		경기 중소도시	10075.795**	707.293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6752.422**	589.170	.000
		농어촌	17708.345**	698.396	.000
	광역시	서울	-14437.664**	582.444	.000
		경기 중소도시	-4361.869**	582.444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2314.758**	431.392	.000
		농어촌	3270.681**	571.607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10075.795**	707.293	.000
		광역시	4361.869**	582.444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6676.627**	589.170	.000
		농어촌	7632.550**	698.396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16752.422**	589.170	.000
		광역시	-2314.758**	431.392	.000
		경기 중소도시	-6676.627**	589.170	.000
		농어촌	955.923	578.459	.604
	농어촌	서울	-17708.345**	698.396	.000
		광역시	-3270.681**	571.607	.000
		경기 중소도시	-7632.550**	698.396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955.923	578.459	.604
	아파트-전세	서울	광역시	6342.252**	301.229
경기 중소도시			4385.088**	365.798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7509.040**	304.707	.000
농어촌			8255.877**	361.197	.000
광역시		서울	-6342.252**	301.229	.000
		경기 중소도시	-1957.164**	301.229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166.788**	223.108	.000
		농어촌	1913.625**	295.624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4385.088**	365.798	.000
		광역시	1957.164**	301.229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3123.953**	304.707	.000
		농어촌	3870.789**	361.197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7509.040**	304.707	.000
		광역시	-1166.788**	223.108	.000
		경기 중소도시	-3123.953**	304.707	.000
		농어촌	746.837	299.168	.184
농어촌		서울	-8255.877**	361.197	.000
		광역시	-1913.625**	295.624	.000
		경기 중소도시	-3870.789**	361.197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746.837	299.168	.184
단독주택-전세	서울	광역시	4582.916**	283.835	.000
		경기 중소도시	3245.614**	344.677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5429.663**	287.113	.000
		농어촌	6136.228**	340.341	.000
	광역시	서울	-4582.916**	283.835	.000
		경기 중소도시	-1337.302**	283.835	.000

연립주택등-전세		경기이외 중소도시	846.748**	210.225	.003
		농어촌	1553.313**	278.554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3245.614**	344.677	.000
		광역시	1337.302**	283.835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2184.049**	287.113	.000
		농어촌	2890.614**	340.341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5429.663**	287.113	.000
		광역시	-846.748**	210.225	.003
		경기 중소도시	-2184.049**	287.113	.000
		농어촌	706.565	281.893	.181
	농어촌	서울	-6136.228**	340.341	.000
		광역시	-1553.313**	278.554	.000
		경기 중소도시	-2890.614**	340.341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706.565	281.893	.181
	서울	광역시	4238.563**	308.905	.000
		경기 중소도시	3057.895**	374.810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5010.634**	312.214	.000
		농어촌	5772.368**	370.095	.000
	광역시	서울	-4238.563**	308.905	.000
		경기 중소도시	-1180.669**	308.905	.006
경기이외 중소도시		772.070*	228.948	.024	
농어촌		1533.805**	303.167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3057.895**	374.810	.000	
	광역시	1180.669**	308.905	.006	
	경기이외 중소도시	1952.739**	312.214	.000	
	농어촌	2714.474**	370.095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5010.634**	312.214	.000	
	광역시	-772.070*	228.948	.024	
	경기 중소도시	-1952.739**	312.214	.000	
	농어촌	761.735	306.538	.188	
농어촌	서울	-5772.368**	370.095	.000	
	광역시	-1533.805**	303.167	.000	
	경기 중소도시	-2714.474**	370.095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761.735	306.538	.188	
전세_Avg	서울	광역시	5051.711**	247.636	.000
		경기 중소도시	3562.865**	300.469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5983.113**	250.289	.000
		농어촌	6721.491**	296.690	.000
	광역시	서울	-5051.711**	247.636	.000
		경기 중소도시	-1488.846**	247.636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931.401**	183.538	.000
		농어촌	1669.780**	243.036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3562.865**	300.469	.000
		광역시	1488.846**	247.636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2420.247**	250.289	.000	

631

부  
록

아파트-월세	경기이외 중소도시	농어촌	3158.626**	296.690	.000
		서울	-5983.113**	250.289	.000
		광역시	-931.401**	183.538	.000
		경기 중소도시	-2420.247**	250.289	.000
		농어촌	738.379	245.739	.062
	농어촌	서울	-6721.491**	296.690	.000
		광역시	-1669.780**	243.036	.000
		경기 중소도시	-3158.626**	296.690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738.379	245.739	.062
	서울	광역시	42.218**	2.080	.000
		경기 중소도시	28.579**	2.526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48.956**	2.104	.000
		농어촌	56.318**	2.494	.000
	광역시	서울	-42.218**	2.080	.000
		경기 중소도시	-13.639**	2.080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6.739**	1.540	.001
		농어촌	14.100**	2.041	.000
단독주택-월세	경기 중소도시	서울	-28.579**	2.526	.000
		광역시	13.639**	2.080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20.377**	2.104	.000
		농어촌	27.739**	2.494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48.956**	2.104	.000
		광역시	-6.739**	1.540	.001
		경기 중소도시	-20.377**	2.104	.000
		농어촌	7.361*	2.066	.014
	농어촌	서울	-56.318**	2.494	.000
		광역시	-14.100**	2.041	.000
		경기 중소도시	-27.739**	2.494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7.361*	2.066	.014
	서울	광역시	27.046**	1.811	.000
		경기 중소도시	19.825**	2.200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33.497**	1.832	.000
		농어촌	39.512**	2.172	.000
	광역시	서울	-27.046**	1.811	.000
		경기 중소도시	-7.221**	1.811	.004
		경기이외 중소도시	6.452**	1.342	.000
		농어촌	12.467**	1.778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19.825**	2.200	.000
		광역시	7.221**	1.811	.004
		경기이외 중소도시	13.673**	1.832	.000
		농어촌	19.688**	2.172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33.497**	1.832	.000
		광역시	-6.452**	1.342	.000
		경기 중소도시	-13.673**	1.832	.000
		농어촌	6.015*	1.799	.026
	농어촌	서울	-39.512**	2.172	.000



연립주택등-월세		광역시	-12.467**	1.778	.000
		경기 중소도시	-19.688**	2.172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6.015*	1.799	.026
	서울	광역시	26.739**	1.565	.000
		경기 중소도시	19.684**	1.901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34.348**	1.583	.000
		농어촌	38.429**	1.877	.000
	광역시	서울	-26.739**	1.565	.000
		경기 중소도시	-7.055**	1.565	.001
		경기이외 중소도시	7.608**	1.159	.000
		농어촌	11.690**	1.536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19.684**	1.901	.000
		광역시	7.055**	1.565	.001
		경기이외 중소도시	14.663**	1.583	.000
		농어촌	18.745**	1.877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34.348**	1.583	.000
		광역시	-7.608**	1.159	.000
		경기 중소도시	-14.663**	1.583	.000
		농어촌	4.081	1.555	.144
	농어촌	서울	-38.429**	1.877	.000
		광역시	-11.690**	1.536	.000
		경기 중소도시	-18.745**	1.877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4.081	1.555	.144
월세_Avg	서울	광역시	32.001**	1.601	.000
		경기 중소도시	22.696**	1.945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38.934**	1.620	.000
		농어촌	44.753**	1.920	.000
	광역시	서울	-32.001**	1.601	.000
		경기 중소도시	-9.305**	1.601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6.933**	1.186	.000
		농어촌	12.752**	1.572	.000
	경기 중소도시	서울	-22.696**	1.945	.000
		광역시	9.305**	1.601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16.238**	1.620	.000
		농어촌	22.057**	1.920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서울	-38.934**	1.620	.000
		광역시	-6.933**	1.186	.000
		경기 중소도시	-16.238**	1.620	.000
		농어촌	5.819*	1.590	.010
	농어촌	서울	-44.753**	1.920	.000
		광역시	-12.752**	1.572	.000
		경기 중소도시	-22.057**	1.920	.000
		경기이외 중소도시	-5.819*	1.590	.010

주: \* p<.05, \*\* p<.01

## 외국의 가구균등화지수

□ 주요국의 최저소득보장 기준 또는 공공부조 급여수준에 반영된 가구균등화 지수

- OECD 각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저소득보장 기준 및 공공부조 급여수준을 기초로, 이에 반영되어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를 역으로 추론하여 제시함.

〈부표 8-1〉 미국 주정부별 TANF 최대급여액 평균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급여수준(\$/월)	253.3	349.4	424.8	498.1	569.3	638.8
균등화지수	0.5085	0.7015	0.8529	1	1.1430	1.2826

주: 각 주정부의 가구규모별 TANF 최대급여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 지수 산출  
자료: GREEN BOOK(2004)

〈부표 8-2〉 미국 주정부별 TANF+Food Stamp 최대급여액 평균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급여수준(\$/월)	355.7	540.9	705.0	858.4	998.8	1,165.2
균등화지수	0.4143	0.6301	0.8212	1	1.1635	1.3573

주: 각 주정부의 TANF+Food Stamp의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 지수 산출  
자료: GREEN BOOK(2004)

〈부표 8-3〉 일본 2004년 생활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급여수준(¥)	83,400	128,010	169,680	206,400
균등화지수	0.4041	0.6202	0.8221	1

주: 1-1급지 기준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平成 16年度版 保護のてびき

〈부표 8-4〉 일본 2004년 생활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급여수준(¥)	43,430	48,070	53,290	57,980
균등화지수	0.7491	0.8291	0.9191	1

주: 1·1급지 기준/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平成 16年度版 保護のてびき

〈부표 8-5〉 영국의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GBP/월)	430.9	571.5	749.9	898.9
균등화지수	0.4793	0.6358	0.8343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부표 8-6〉 아일랜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IEP/월)	312	499.2	556.4	613.6
균등화지수	0.5085	0.8136	0.9068	1

주: 가족수당 제외된 기준임.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부표 8-7〉 스페인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ESP/월)	30,000	30,000	35,000	40,000
균등화지수	0.7500	0.7500	0.8750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 〈부표 8-8〉 포르투갈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PTE/월)	25,000	50,000	62,500	75,000
균등화지수	0.3333	0.6667	0.8333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 〈부표 8-9〉 벨기에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BEF/월)	21,334	28,445	33,569	41,012
균등화지수	0.5202	0.6936	0.8185	1

주: 가족수당 제외된 기준임.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 〈부표 8-10〉 룩셈부르크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LUF/월)	34,226	51,339	54,455	57,571
균등화지수	0.5945	0.8918	0.9459	1

주: 가족수당 제외된 기준임.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 〈부표 8-11〉 네덜란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NLG/월)	1,027.8	2,055.6	2,197.3	2,364.0
균등화지수	0.4348	0.8696	0.9295	1

주: 가족수당 포함된 기준임.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부표 8-12〉 아이슬란드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ISK/월)	62,589	87,625	112,660	125,178
균등화지수	0.5000	0.7000	0.9000	1

주: 가구의 연령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부표 8-13〉 덴마크 2000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DKK/월)	7,410	14,820	20,430	21,130
균등화지수	0.3507	0.7014	0.9669	1

주: 아동수당이 포함된 기준임.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성인 1인당 급여수준이 DKK7,410에서 DKK9,865로 오히려 증가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부표 8-14〉 핀란드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급여수준 (FIM/월)	2,071	3,520	4,825	6,130
균등화지수	0.3378	0.5742	0.7733	1

주: 지역1 기준임.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부표 8-15〉 스웨덴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급여수준 (SEK/월)	3,000	4,360	6,730	8,380
균등화지수	0.3580	0.5203	0.8031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 〈부표 8-16〉 스웨덴 2000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 동1)	4인가구 (성인2+아 동2)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급여수준 (SEK/월)	600	680	780	840	940	1,000	1,060
균등화지수	0.7143	0.8095	0.9286	1	1.1190	1.1905	1.2619

자료: EU(2000)

## 〈부표 8-17〉 프랑스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FRF/월)	2,552.4	3,828.5	4,594.2	5,359.9
균등화지수	0.4762	0.7143	0.8571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 〈부표 8-18〉 독일 1999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개인급여+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급여수준 (DEM/월)	1,181	1,874	2,423	2,935
균등화지수	0.4024	0.6385	0.8256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 〈부표 8-19〉 독일 1999년 사회부조 급여수준(가구급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급여수준 (DEM/월)	548	730	853	939
균등화지수	0.5836	0.7774	0.9084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부표 8-20〉 오스트리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ATS/월)	4,937	6,520	9,620	12,440
균등화지수	0.3969	0.5241	0.7733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부표 8-21〉 이탈리아 GI(Guaranteed Income)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GI (ITL/월)	450,000	655,000	851,000	1,050,000
균등화지수	0.4286	0.6238	0.8105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함.  
자료: EU(2000)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1. 표본설계와 관련된 고려사항

#### 가. 2010년 표본설계의 개요

본 조사는 2010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전국단위 표본조사로서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와 같은 형태로 표본 조사구를 선정하였다. 모집단 프레임으로 사용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구수(100%)는 약 25만여 조사구이며, 그 중 10% 표본 조사구를 제외한 90% 조사구를 모집단 프레임으로 사용하였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1차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550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추출하였고, 표본가구수는 22,000가구가 되도록 하였으며, 2차 조사 중 생활실태조사는 1차 조사 가구 중에서 소득의 하위 40%이하 약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가구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9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가구는 395가구, 한부모가구는 205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 나. 조사 대상지역

조사대상지역은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하였다. 표본조사구는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제 조사가능성 및 접근성, 조사비용 및 제한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도서지역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지역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전국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다.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대표적인 가구단위 조사로서 표본가구를 직접 추출하는 것은 표본관리와 조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매 5년 주기로 수행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설정한 조사구(ED: enumeration district)를 추출단위로 하였다. 조사구의 설정원칙은 지역별 주소지에 따라 약 60~70가구를 하나의 조사구로 확정하여 이를 가구단위조사의 추출단위(sampling unit)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여 해당 조사구 내 가구를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 생활실태조사』(이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추출단위는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구의 90% 조사구 23만7천여 개를 추출틀로 고려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조사단위(survey unit)는 개별 가구(household)이므로,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 섬조사구 등과 같은 특정한 시설단위 조사구는 추출단위에서 제외하였다.

## 2. 1차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표본설계

가. 연구의 전제조건

### 1) 추출틀(sampling frame)

본 조사의 추출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조사구 25만 여개의 조사구 중 90% 조사구인 23만 7천여 개의 조사구를 추출틀로 하며, 이때 사용한 자료는 조사구 특성(일반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주택유형(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조사구당 가구 수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 리스트를 사용하였다.

### 2) 표본규모

표본의 규모는 예산과 조사기간을 감안하고, 지역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550개 표본조사구와 약 22,000가구를 표본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표본규모의 산정방식은 허용오차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였다.

### 3) 조사결과의 추계

조사결과는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개별적인 추계가 가능하도록 표본설계를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적정수준의 조사구를 배분하고, 지역별 통계를 취합하여 3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층에 필요한 가구규모, 주택유형 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 나. 연구방법

##### 1) 모집단 분석

현행 표본조사를 위한 주요변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집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조사로부터 주요변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최저생계비계층조사의 모집단 프레임으로 활용가능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구 유형에 따른 시도별 가구수(아파트, 일반)를 산정하였다.

##### 2) 표본추출방법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 7천여 개 조사구 중 481개의 표본조사구와 무응답 대체를 위한 예비조사구 19개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으며, 층화의 주요기준변수로는 지역(16), 조사구형태(2), 읍면동(2) 등을 사용하여 층화 확률 비례 추출(stratified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하였다.

### 3) 표본의 보완

『2010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출틀이 노후화됨으로 인하여 일부 조  
사구가 재개발 등으로 사고 조사구가 발생한 경우 대체 조사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 다. 표본설계의 개요

##### 1) 표본설계의 기본 방향

첫째,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독립  
적인 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둘째,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셋째, 모집단의 층화 절차는 1단계로 16개 광역시 및 도 지역  
으로 부차집단 또는 층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조사구형태—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  
사구—로 구분하고, 3단계로 동부·읍면부로 구분하여 층화하여 지역 및 조사구 특  
성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한다.

표본 추출방법은 각 층(지역)에서 1단계로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확률비례  
로 표본조사구(집락)를 추출하고, 2단계로 표본조사구 내의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으  
로 2단계 층화집락확률비례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PSU(Primary Sampling  
Unit)는 각 층별 조사구이며, SSU(Secondary Sampling Unit)는 조사구내 가구가  
된다.

##### 2) 표본규모의 결정

통계조사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하에서 조사 가능한 가장  
최적의 표본규모를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야 하는 다목적 조사(multi-purpose survey)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주어진 예산 하에서 조사의 실현성을 감안하고,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정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표본규모로 예비 조사구를 포함한 550개 조사구(예비 50개 조사구), 22,000가구로 설정하였으며, 조사 성공률을 약 90%로 감안하여 20,000가구를 조사완료가구 규모로 설정하였다.

과거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주요 연구변수에 대한 상대오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표본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n' = n \left( \frac{CV_1}{CV_2} \right)^2$$

여기서  $n'$ 은 새로운 표본규모이며,  $n$ 은 기존의 표본규모,  $CV_1$ 은 기존의 조사로부터 구한 상대표준오차,  $CV_2$ 는 새로운 표본에 대한 목표 오차이다.

이 표본규모 산정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조사가 이전에 수행되고 현재 그와 유사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유용한 산정식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변수의 상대표준오차를 산정하여 적절한 표본규모를 산정하였다. 이때, 목표오차는 조사구 기준으로 지역별 5%에서 10%로 결정하여 지역별 표본 조사구를 산정하였고, 가구 수 기준으로 5% 내외가 되도록 표본가구수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별 표본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크기에 비례하도록 하기 위해 목표정도를 유연하게 관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구 기준으로 약 2% 정도의 CV로 산정되므로 목표정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표본조사구의 수가 적은 곳의 CV값이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규모가 작은 지역의 CV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표본수를 크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에 많은 표본을 할당하는 것은 조사현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CV를 통제하되 어느 정도까지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대전, 강원,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CV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표본규모를 산정하였다.

또한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지역별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인 서울, 부산, 경기, 경북 지역은 목표정도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주, 대전, 강원,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유연한 정도관리가 필요하였다.

〈부표 9-1〉 지역별 목표정도

(단위 : 개, %)

시도	2007년 표본설계				2010년 표본설계			
	조사구수	CV	가구수	CV	조사구수	CV	가구수	CV
전국	500	1.91	29,448	0.67	550	1.82	22,000	0.78
서울	110	3.08	6,568	1.12	68	3.92	2,720	1.74
부산	41	4.51	2,457	1.58	42	4.46	1,680	1.91
대구	27	7.57	1,587	2.67	33	6.85	1,320	2.93
인천	27	4.20	1,614	1.49	34	3.74	1,360	1.62
광주	14	9.77	842	3.22	26	7.17	1,040	2.90
대전	14	11.66	851	4.00	26	8.56	1,040	3.62
울산	10	6.23	625	2.27	22	4.20	880	1.91
경기	91	4.25	4,925	1.60	68	4.92	2,720	2.15
강원	18	9.61	1,052	3.34	26	8.00	1,040	3.36
충북	16	7.55	980	2.58	27	5.81	1,080	2.46
충남	21	8.32	1,235	2.69	30	6.96	1,200	2.73
전북	21	7.42	1,312	2.41	29	6.31	1,160	2.56
전남	22	6.60	1,320	2.29	30	5.65	1,200	2.40
경북	30	4.82	1,853	1.65	35	4.46	1,400	1.90
경남	33	5.65	1,944	2.01	39	5.20	1,560	2.24
제주	5	10.40	283	3.57	15	6.00	600	2.45

645

부  
록

라. 표본의 추출

1) 모집단

모집단이란 통계학에서는 조사대상 전체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통계측면에서 모집단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의 모집단인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으로서 이는 조사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가 된다. 이러한 목표모집단은 추정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표본설계에서 반드시 정의해야 할 모집단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개념의 모집단으로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목표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들 중 조사가 가능한 또는 표본설계과정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새로이 정의한 모집단을 의미한다.

다. 주로 조사모집단은 표본추출의 준거가 되는 프레임이 되기도 한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 조사의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90% 조사구가 되며, 이중 시설 조사와 섬 지역 조사구는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모집단이라 하면 조사모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전국의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부표 9-2>와 같다.

지역별로 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형태별 동부 읍면부별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은 49,440개 조사구로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49,803개조사구로 21%를 차지하고, 광역시 지역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은 총 62,120개 조사구로 전체의 26%이고, 나머지 도지역이 3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수 기준으로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각각 21%이고, 광역시지역은 26%, 나머지지역이 32%로 나타나 지역별 조사구분포와 같은 비율로서 조사구 기준으로 표본가구를 배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부표 9-2> 시도별 모집단 규모(90%)

(단위 : 개)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계	237,682	14,260,103	강 원	7,871	462,601
서 울	49,440	3,005,559	충 북	7,499	450,291
부 산	18,165	1,074,589	충 남	9,869	588,216
대 구	12,128	738,953	전 북	9,275	544,563
인 천	12,713	737,976	전 남	9,243	544,741
광 주	6,793	416,208	경 북	14,025	830,597
대 전	7,268	434,710	경 남	15,857	940,076
울 산	5,053	308,537	세 주	2,680	160,554
경 기	49,803	3,021,932			

자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부표 9-3〉 모집단 조사구 규모(90%)(동부, 읍면부별)

(단위 : 개)

구분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237,682	141,954	95,728	191,286	107,066	84,220	46,396	34,888	11,508
서울	49,440	32,243	17,197	49,440	32,243	17,197	-	-	-
부산	18,165	10,817	7,348	17,759	10,557	7,202	406	260	146
대구	12,128	7,070	5,058	11,413	6,723	4,690	715	347	368
인천	12,713	7,076	5,637	12,449	6,839	5,610	264	237	27
광주	6,793	2,982	3,811	6,793	2,982	3,811	-	-	-
대전	7,268	3,812	3,456	7,268	3,812	3,456	-	-	-
울산	5,053	2,698	2,355	4,248	2,281	1,967	805	417	388
경기	49,803	26,311	23,492	40,786	20,519	20,267	9,017	5,792	3,225
강원	7,871	4,852	3,019	4,790	2,405	2,385	3,081	2,447	634
충북	7,499	4,457	3,042	4,550	2,182	2,368	2,949	2,275	674
충남	9,869	6,504	3,365	3,498	1,629	1,869	6,371	4,875	1,496
전북	9,275	5,545	3,730	6,204	2,751	3,453	3,071	2,794	277
전남	9,243	6,301	2,942	4,001	1,818	2,183	5,242	4,483	759
경북	14,025	9,529	4,496	6,980	3,846	3,134	7,045	5,683	1,362
경남	15,857	9,561	6,296	9,179	5,028	4,151	6,678	4,533	2,145
제주	2,680	2,196	484	1,928	1,451	477	752	745	7

자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 2) 층화

표본설계 당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에 대해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조사구별 가구 수, 조사구 형태, 주택유형 뿐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500개 조사구의 기초 자료를 집계하여 지역별, 조사구 유형별, 읍면동별, 주택형태별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조사구 비율에 따라 표본조사구를 배분하고, 지역별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부표 9-4>로부터 서울은 동부로 68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부산은 동부에 41개와 읍면부에서 1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동부에서는 32개 읍면지역에 대해 1개 조사구가 할당되도록 하였다. 울산지역 또한 동부에는 18개 조사구 읍면부 지역에는 4개 조사구를 배정하였다. 대체로 광역시 지역에 속한 읍면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7개 표본 조사구를 배분하였다.

〈부표 9-4〉 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현황

(단위: 개)

구분	계			동 부			읍면 부		
	합계	일반	아파트	합계	일반	아파트	합계	일반	아파트
전국	554	326	228	431	233	198	123	93	30
서울	68	43	25	68	43	25	0	0	0
부산	42	25	17	41	24	17	1	1	0
대구	33	18	15	32	18	14	1	0	1
인천	34	21	13	33	20	13	1	1	0
광주	26	11	15	26	11	15	0	0	0
대전	26	14	12	26	14	12	0	0	0
울산	22	11	11	18	9	9	4	2	2
경기	69	36	33	56	28	28	13	8	5
강원	26	15	11	18	9	9	8	6	2
충북	28	17	11	17	9	8	11	8	3
충남	30	20	10	11	5	6	19	15	4
전북	30	18	12	20	9	11	10	9	1
전남	30	19	11	14	6	8	16	13	3
경북	36	24	12	18	9	9	18	15	3
경남	39	22	17	22	11	11	17	11	6
제주	15	12	3	11	8	3	4	4	0

주 : 소수점 자리로 인해 4개 조사구가 더 추출됨.

### 3) 조사구 추출

표본조사구의 선정은 먼저 특·광역시 및 도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로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한 후 조사구형태(일반, 아파트)를 구분하여 조사구당 가구수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확률비례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사구의 추출확률을 크게 고려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확률비례 추출을 고려하게 되면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조사구에 대해 비례배분하게 됨으로 자체 가중 설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사현장에서는 자체가중 설계 효과를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조사구 내 조사가구의 무응답과 그에 따른 조사가구의 대체 문제 등 때문이다. 따라서 추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가중치 조정이 요구된다. 표본조사구 내의 조사가구 수는 조사구당 51개 가구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조사원들 간의 업무량을 일정하게 배분하였다.



#### 4) 표본가구 선정

##### 가)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의 작성 보완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 대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조사구 요도와 가구명부에 대해 조사원 교육과정에서 연구진과 조사원들 간 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의 현지 확인과정을 통해 조사구 경계 및 가구명부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구 확인과정에서 조사구당 36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구 입구로부터 시작하여 40번째 가구까지 요도 경계를 설정하였고, 40가구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구 전체를 하나의 조사구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조사현장에서 조사구 요도와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시기적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종료된 직후에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조사구를 제외하고는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 나) 표본가구의 선정

각 조사구별로 평균 60가구 중에서 조사원의 업무 할당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40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표본가구의 선정은 조사구 입구로부터 출발하여 가구 번호와 거처번호의 순서대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조사 불능 가구 또는 조사대상 제외가구가 발생할 경우 가구명부의 순서에서 바로 다음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구의 크기가 40가구 이하가 되는 조사구는 조사구 내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고, 조사 불능이나 제외가구의 발생으로 40가구 이하가 되는 조사구에서는 조사가능 가구만을 표본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비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 마. 가중치 조정 및 추정

### 1) 가중치 조정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배분인 경우 자체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 조사단위에 대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값을 산출함으로서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먼저 가중치 및 통계값 산출에 필요한 기호를 정의하자.

- $N$  : 모집단 총 조사구수( $=\sum_{h=1}^H N_h$ )  
 $N_h$  :  $h$ 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n_h$  :  $h$ 층의 표본조사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수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 표본 가구수( $=50$ )  
 $p_{hij}$  :  $h$ 층의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확률  
 $r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응답가구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가중치  
 $y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관찰값

①  $h$ 층의  $j$ 번째 조사구의  $i$ 번째 가구의 추출확률 계산

$$p_{hij} = \frac{n_h}{N_h} \times \frac{m_{hi}}{M_{hi}} \quad (1)$$

② 가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이므로 식(1)로 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표본조사구내 표본가구수는 조사구별로 동일하게 40가구씩 조사함으로  $m_{hi} = 40$ 을 대입하여 구한다.

$$w_{hij} = \frac{1}{p_{hij}} = \frac{N_h}{n_h m_{hi}} \times M_{hi} = \frac{N_h}{40 n_h} \times M_{hi} \quad (2)$$

③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r = \frac{m_{hi}}{r_{hi}} \quad (3)$$

④ 최종 가중치

$$W_{hij} = w_{hij} \times w_{hi}^r \times w_{hij}^p \quad (4)$$

2) 추정치의 계산

○ 평균 소득 및 지출

$$\hat{Y} = \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_{...} \quad (5)$$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 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 표본평균  $\hat{Y}$ 의 분산 추정치 및 표준오차

$$\hat{V}(\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6)$$

여기서  $e_{hi.}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hat{Y}) \right) / W_{...}$ ,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Y}) = \sqrt{\hat{V}(\hat{Y})}$$

○ 상대표준오차

$$\hat{CV}(\hat{Y}) = \frac{SE(\hat{Y})}{\hat{Y}} \times 100\% \quad (7)$$

3. 2차 조사대상가구의 추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2차 생활실태조사 및 가구유형별 조사대상 가구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경상소득기준) 40%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규모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로 각각 2,078가구와 1,500가구를 표본추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선정 절차는 표본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준(가구규모)으로 구분한 후 해당 가구규모별로 월평균 소득기준 40%이하 가구를 표본추출 대상가구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규모별로 구분한 이유는 전 가구 중에서 소득 하위 4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대부분 1인, 2인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표 9-5〉 기존의 최저생계비 연구의 2차 표본 현황

연 도	추출기준	표본수
1988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30% 이하	950가구
1994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10~40%	600가구
1999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40% 이하	1,500가구
2004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40% 이하	2,000가구
2007년 최저생계비 조사	소득하위 40% 이하	1,500가구

조사대상 가구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지역별로 정렬하고, 조사관리상 일정가구수 이하인 조사구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표본대상 가구명부를 이용하여 도시유형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구분하여 단순임의 계통 추출에 의해 1,5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부표 9-6> 참조).

〈부표 9-6〉 2차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유형 표본가구 분포

(단위 : 가구)			
지역	일반주택	아파트	총계
대도시	338	372	710
중소도시	316	243	559
농어촌	51	87	138
총계	705	702	1,407

다음으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2차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 가구유형별 조사는 생활실태조사와 조사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추출방법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노인가구의 경우 1차 조사 결과 가구 내 1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

로 노인가구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노인가구를 선정하였으나, 장애인 가구를 먼저 선정하는 관계로 지역적으로 편향된 표본이 선정되었다. 노인가구 표본선정 과정은 먼저 경상소득기준 하위 40%이하 가구 중에서 노인이 1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지역별로 정렬(제주도 제외)한 후 395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지역별 구분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이유는 조사비용을 고려할 경우 조사효율성을 감안하였다(<부표 9-7> 참조).

〈부표 9-7〉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노인가구 분포<sup>152)</sup>

(단위 : 가구)

가구규모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가구	합 계
광 주	14	7	-	2	-	1	-	24
충 북	9	13	2	2	1	-	-	27
충 남	20	23	3	4	2	-	-	52
전 남	81	66	8	2	0	1	-	158
경 북	35	36	4	1	0	2	-	78
경 남	36	17	2	0	0	1	-	56
합 계	195	162	19	11	3	5	1	395

한편 한부모 가구의 경우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유형이 한부모 가구인 경우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본추출과정은 먼저 지역별(제주도 제외)로 정렬한 후 단순임의계통추출에 의해 205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부표 9-8> 참조).

장애인 가구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매우 많은 셀로 구성되고, 특히 심신장애, 간질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대상 가구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확률표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1차 표본조사자료로부터 지역별로 정렬하여 900가구를 단순임의계통추출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였다(<부표 9-9> 참조).

152) 노인가구의 표본추출은 먼저 장애인을 추출한 다음 노인표본대상자를 추출하여 지역별로 편향되어 표본이 추출되었음.

〈부표 9-8〉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한부모 가구 분포

(단위 : 가구)

지역 \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7인이상	합 계
서울	12	6	1	-	-	19
부산	9	5	1	-	-	15
대구	11	9	1	-	-	21
인천	4	15	-	-	-	19
광주	6	3	-	-	-	9
인천	6	7	-	-	-	13
대전	8	5	1	-	-	14
울산	10	8	4	-	-	22
경기	2	3	1	1	1	7
충북	3	5	-	-	-	8
충남	5	7	1	-	-	13
전북	8	10	-	-	-	18
전남	6	4	-	-	-	10
경북	5	3	-	-	-	8
경남	3	5	-	1	-	9
합 계	98	95	10	2	1	205

〈부표 9-9〉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장애인가구 분포

(단위 : 가구)

지역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가구	합 계
서울	20	34	21	9	4	1	-	89
부산	8	19	14	6	2	-	-	49
대구	14	29	16	7	3	-	-	69
인천	6	20	7	7	1	1	-	42
광주	14	30	10	3	2	1	-	60
대전	27	23	11	7	4	-	-	72
울산	5	10	3	1	-	1	-	20
경기	4	26	12	11	7	1	-	61
강원	15	22	6	6	3	-	-	52
충북	11	30	8	3	6	3	1	62
충남	10	41	10	2	-	2	-	65
전북	10	24	3	7	2	3	2	51
전남	19	26	8	4	-	1	-	58
경북	19	47	16	4	8	-	1	95
경남	14	29	6	3	1	2	-	55
합 계	196	410	151	80	43	16	4	900

#### 4. 조사방법 및 내용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조사체계는 전체적으로

1차 조사(기초조사)와 2차 조사로 구성되는데, 생활실태조사, 가격조사, 가구유형별 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로 이루어졌다.

가. 1차 조사(기초조사)

1차 조사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이 강한 조사이다. 통계적 관점에서 조사에 이용할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비용을 감안하여 낮은 비용을 들여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 방법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1차 조사는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지역별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차 조사의 목적은 2차 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별 조사를 위한 표본가구를 추출하고, 박탈지표에 의한 상대적 최저생계비 산출과, 주관적 최저생계비, 내구재보유 현황 및 필수품인식 등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층화 2단계 집락 추출된 약 3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가구구성 및 가구원특성 등의 가구일반현황, 비목별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생활실태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지도원(슈퍼바이저) 1인과 조사원 4인을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지도원이 조사내용을 현장에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월 22일 ~ 4월 10일 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목표 표본가구수 22,000가구 중에서 19,261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여 약 87.5%의 조사 완료율을 보였다.

나. 2차 조사

1) 생활실태조사

생활실태조사는 의료이용실태 등 가계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소비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차 기초 조사의 경우 1년 중 2009년 1년간 가계의 소비실태를 세부적으로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조사표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생활실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기준소득 이하(경상소득 40%이하)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방식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비목별로 가계부에 잘 나타나지 않는 생활실태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고, 표본으로 선정한 2,078가구 중 생활실태조사를 완료한 가구는 1,407가구로 나타났다.

## 2) 가격조사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집의 자가, 전세, 월세 가격 등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가계부에서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가격 파악을 위해 가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차 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1월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조사표상에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원이 직접 현지 시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서비스 대상(장애인, 노인, 한부모) 조사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의 추가 지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등 표본추출된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협조 하에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방식에 의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0년 9월 1일 ~ 2010년 9월 18일 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표본수 1,500가구 중에서 장애인가구는 900가구, 노인가구는 395가구, 한부모가구는 205가구를 완료하였다.



[부록 10]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조사표

657

부  
록



























67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671

부록













677

부록









681

부록



683

부  
록

























695

부  
록







